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

가야
자료
총서

03

#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

## 발간사

가야는 옛 기록이 많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가야 자료 총서 1~7권』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야에 대한 자료 가운데 문헌사료, 일제강점기자료, 발굴조사자료와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도 함께 집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헌 사료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 및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을 시작으로 1939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조사까지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8개 시·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 현황과 조사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 김해, 양산 등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은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의 3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638개 유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 가야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특히 유적의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어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가야 논저 목록편」은 고대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야와 관련된 문헌자료, 금석문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자료와 주제별 논저자료를 모아 총 5,16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저자별, 지역별, 각 가야별 색인을 부록으로 붙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 내 가야 유적·유물 자료, 국외에서 발표된 논저목록 등을 정리한 총서를 추가 발간하고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야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 총서가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중적으로도 가야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총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집필과 수차례에 걸친 교정을 흔쾌히 맡아주신 집필위원님, 그동안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모은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조사·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 삼 기

## 일러두기

1. 이 책은 『가야 자료 총서 3~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으로, 가야 관련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수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는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상지역에는 경남 양산, 부산, 대구 달성, 경북 성주, 호남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가야 유적 여부는 1차적으로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였다. 이밖의 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가야 유물 출토유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가야 유적은 총 38개 시 · 군 · 구에 소재한 473건 638개소이며, 가야 유물 출토유적은 총 32개 시 · 군 · 구 90개소이다.

2. 이 책은 자문회의와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 대상 유적 선정, 집필진 구성, 편집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자문위원과 지역별 · 유형별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가나다 순)
   곽장근(군산대학교), 나동욱(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박천수(경북대학교),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이동희(인제대학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홍보식(공주대학교)

   집필자(목차 순)
   박천수(경북대학교, 개요, 강원 · 경북 가야 유물 출토유적),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함안 · 창녕 무덤유적), 이해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양산 · 의령 · 거제 생활유적),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창원 · 함안 · 의령 정치 · 국방 · 교통 · 통신유적), 이성훈(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무덤유적), 강석범(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생활유적), 권종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양산 · 밀양 · 창원 · 의령 · 거제 무덤유적), 권귀향(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밀양 · 창원 · 함안 · 창녕 생활유적), 이세영(부경문물연구원, 진주 무덤유적), 김주호(부경문물연구원, 진주 생활유적), 장상갑(현대문화재연구원, 합천 · 산청 · 거창 · 함양 · 하동), 공봉석(부경문물연구원, 고성), 유은식(부경문물연구원, 통영 · 남해), 김진철(부경문물연구원, 사천),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 달성 · 성주),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 곽장근(군산대학교, 전북 · 호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홍보식(공주대학교, 서울 · 충북 · 충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3. 이 책에 수록된 사진 · 도면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경고고학연구소, 가온문화재연구원, 강산문화연구원,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상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성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고령문화원, 관동대학교박물관, 국강고고학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보학술문화연구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군산대

학교박물관, 극동문화재연구원, 김해시, 나라문화연구원, 남도문화재연구원, 다온문화재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동문화재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대한문화재연구원, 덕난문화유산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서문물연구원,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양대학교박물관, 동양문물연구원, 두류문화연구원, 마한문화연구원, 목포대학교박물관, 복천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경문물연구원,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강문화재연구원, 삼도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림문화재연구원,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조선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한겨레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국문물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연구원, 한반도문화재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한화문물연구원, 해동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호암미술관

4. 유적은 지역별(Ⅰ권: 경남 동부 · 부산지역, Ⅱ권: 경남 중 · 서부지역, Ⅲ권: 경남 북부 · 경북 · 대구지역, Ⅳ권: 경남 남해안 · 전남 · 전북지역), 유형별(무덤유적, 생활유적, 산업 · 생산유적, 정치 · 국방유적, 교통 · 통신유적, 제의유적), 문화재지정별(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재자료, 비지정), 행정구역별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단, 마산 진동유적과 같이 가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정문화재(가야 유물 출토유적 포함)는 비지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 유적에서 2개 이상의 유형이 확인된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부록에는 해당되는 유형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유적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건을 기준으로, 해방 이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보고서가 미발간되었지만,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6.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같이, 유적이 연차적으로 발굴된 경우는 전체 유적의 조사 현황을 개요로 설명한 뒤, 각 발굴조사 건별로 세부 조사내용을 수록하였다.

7. 유적의 주요 항목은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관, 조사기간, 주요 유적 · 유물, 조사내용, 유적 위치도, 관련 도면 · 사진,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하였다. 유적명은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유적의 경우는 유적명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다. 소재지, 조사기관명도 발굴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8. 각 지역별 개별 유적의 분포는 유적번호와 함께 위성사진에 표시하였다.

##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Contents

## 개요



## 경남동부 부산지역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

# 개요

# 고고학으로 본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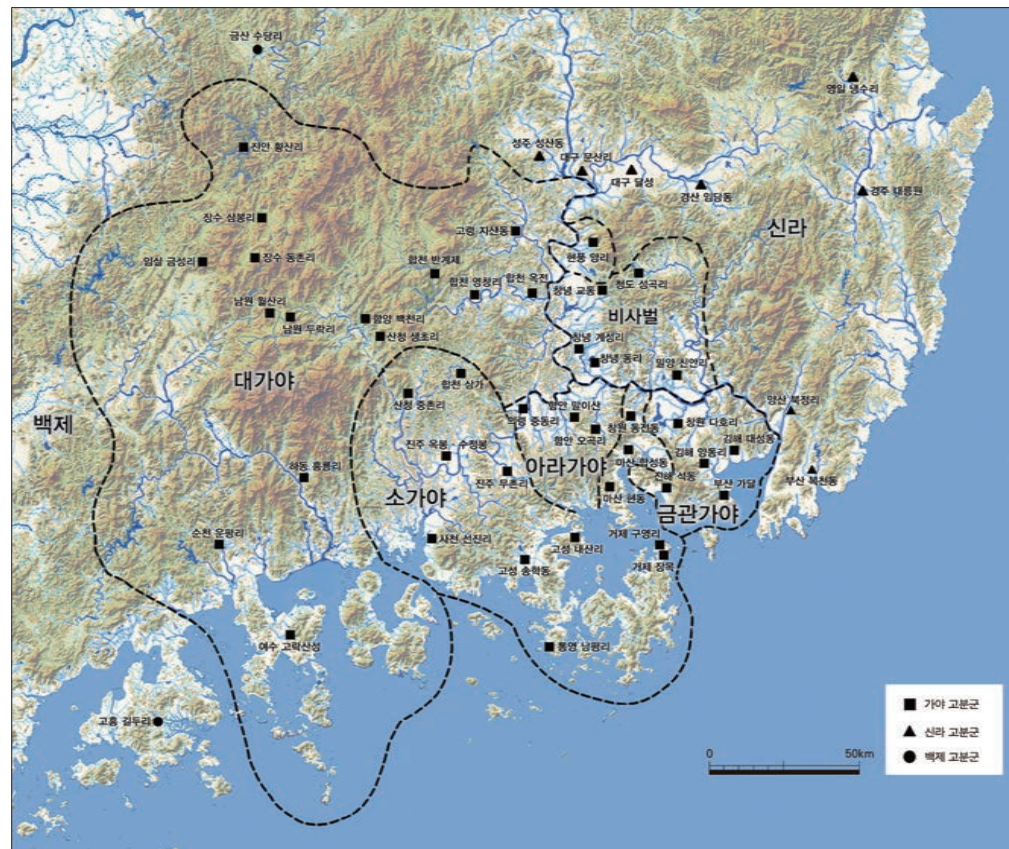
# 고고학으로 본 가야

## 머리말

해방이후 가야사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다른 삼국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그 동안 문헌사학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고고자료를 통하여 금관가야에서 대가야에 걸친 가야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야의 영역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5세기 이후가 되면 신라와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며 백제와는 호남정맥을 경계로 한다. 가야는 고구려·신라·백제와는 달리 끝까지 그 권역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크고 작은 나라가 분립한 상태로 존재하였다.

필자는 가야의 시기구분과 정치구도에 대하여 맹아기로서의 조기,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중심국으로 활동하는 전기와 대가야가 중심국으로 활동하는 후기로 설정한다.

도 1 유적으로 본 가야의 지역 구분(5세기 후엽, 박천수·장주탁 작성)

본고에서는 먼저 신라양식과 같이 보이는 김해지역의 토기양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 권역 설정의 기준과 배경을 제시하지 못했던 5세기 금관가야의 토기양식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에 둘러싸여 있으며, 매우 복잡한 토기양식을 보이고 있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5-6세기 창원·마산지역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신라의 병합시기를 둘러싸고 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5세기 낙동강 동안 창녕의 비사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창녕양식 토기가 낙동강 하류역과 남해안에 50년 이상 유통되고 토기양식에 영향을 준 것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대가야권역에 속하나 그 성격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호남동부지역에 위치하였던 기문국과 합천에 존재하였던 다라국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역국가로 발전한 대가야의 국가형성 과정과 문명을 규명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국시대론을 제창한다.

본고에서는 토기양식과 묘제로 볼 때 가야의 권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도 1).

## 금관가야 金官加耶

고지질연구에 의하면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지역은 서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에 면한 섬과 같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었다. 더욱이 낙동강을 이용한 교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하였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다호리고분군이 위치한 고 대산만 연안에 중심읍락이 위치하였다. 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김해에서 배후 분지인 진례로 넘어가는 통로상에 위치한 양동리고분군 일대의 조만천변이 중심지로 성장한다.

3세기 중엽부터 김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성동고분군에서 양동리고분군을 능가하는 대형 목곽묘의 조영이 개시되며 이때부터 대성동고분군과 봉황토성이 위치한 해반천변이 중심지로 성장한다.

4세기 금관가야의 권역은 금관가야양식의 이 시기 특징적 기종인 노형기대와 외절구연고배, 격자타날호로 볼 때 대성동고분군이 소재하는 고 김해만 연안, 다호리고분이 소재하는 고 대산만 연안, 진례 분지 일대이다. 그리고 화명동고분군이 소재하는 고 김해만이었던 낙동강 동안, 진해만 일대를 포함한다.

5세기 금관가야의 권역은 이제까지 불분명하였다. 이는 5세기대 금관가야의 토기양식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이다. 이 시기 금관가야의 권역은 대성동 73호묘에서 확인되는 창녕양식과 경주양식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이단교호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각고배, 통형기대,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유대파수부완으로 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는 신라식 고총인 연산동고분군이 소재하는 부산지역과 동북쪽으로는 신라식 고총인 북정리고분군이 소재하는 양산지역과 경계를 형성한다. 북서쪽으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부장되는 창원분지에서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곡간통로의 동쪽에 위치하는 다호리고분군이 소재하는 고 대산만의 서쪽까지로 본다. 남서쪽은 6세기 전엽까지 지속

적으로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부장되는 석동유적이 위치한 진해지역까지이다.

대성동고분군의 남쪽에 봉황토성이 위치한다. 봉황대를 둘러싼 하단 폭이 20m에 달하고 내외면을 치석한 황강암으로 즙석한 성벽을 가진 평지성이다. 봉황토성은 토성 내 유구에서 4세기 후반의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이 시기에는 이미 본격적인 왕성으로 기능한 것으로 본다.

봉황토성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한 토성의 구조와 규모로 볼 때 백제의 풍납토성과 신라의 월성에 필적하며 북쪽에 왕묘를 배치한 금관가야의 정치적 중심지임과 동시에 의례, 생산, 물류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금관가야의 취락은 왕성인 봉황토성을 중심으로 하계리유적, 여래리유적과 같은 제철취락, 접안시설이 확인된 관동리유적, 신방리유적와 같은 항만취락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동리유적에서는 도로가 확인되어 왕성과 거점취락이 도로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성동고분군의 금관가야의 왕묘는 구릉의 낮은 쪽인 북쪽에서 높은 쪽인 남동쪽으로 순차 조영되었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최초의 왕묘는 3세기 중엽에 출현하는데, 북쪽 구릉 중앙 단부에 조영된 29호묘이다. 이 고분에서는 시신이 안치되는 바닥면에 판상철부 100여 점을 열을 지어 깔았으며, 음식물을 공헌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점의 토기가 북방계 동복과 함께 부장되었다. 이 시기부터 음식물을 공헌한 토기가 다수 부장된 것에서 가야인의 내세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양동리고분군에 보이지 않던 순장殉葬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북방 기마민족의 이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성동고분군의 남쪽에 인접한 원삼국시대의 칠기, 동경, 칠초철검漆鞘鐵劍이 출토된 유력 수장묘인 가야의 숲 3호 목관묘를 비롯하여 계기적으로 분묘가 조영된 것으로 보아 대성동세력의 자체적인 성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립기인 3세기 후반에 대성동고분군에 북방기마민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무덤에 반드시 부장하는 마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고분군 축조집단이 기마민족이 아닌 구야국 이래의 토착세력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4세기 전반 북쪽 구릉 중앙의 정상부에 입지가 탁월한 곳에 조영된 대성동 70호묘에서는 로마유리기, 중원의 연호문경, 전연前燕의 청동용기와 마구, 일본열도산 통형동기가 부장되고, 4인의 순장자가 확인되었다. 게다가 같은 시기 북쪽 구릉에 88호묘와 91호묘가 조영된다. 대성동 88호묘에서는 중국 중원의 진晋식 대장식구와 일본열도산 파형동기, 통형동기, 중광형동모, 경옥제곡옥, 방추차형석제품 등이 부장되고 4인이 순장되었다. 91호묘에서는 전연前燕의 청동용기와 마구, 로마유리기, 류큐열도琉球列島산 패제품 등이 부장되고 5인이 순장되었다(도 2).

금관가야양식 토기의 출현은 대성동 29호묘 축조 다음단계인 김해시 구지로 1호묘에서 환형파수부 노형기대와 격자문타날호가 조합을 이루는 3세기 후엽으로 파악된다.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이 토기양식을 공유하는 시기는 복천동 38호묘에서 환형파수부노형기대가 부장되는 것에서 4세기 전엽으로 본다. 이는 복천동 38호묘에서 대성동고분군에 다수 출토된 통형동기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이 시기를 획기로 보는

도 2 김해시 대성동 88·91호묘 출토 외래 유물(1-4.88호묘 5-9.91호묘)

이유는 구야국이라는 고 김해만 연안의 소국을 탈피하여 부산의 거칠산국를 비롯한 소국과 광역연맹체를 형성했다. 또한 일본열도 긴키近畿지역의 문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교섭대상이 규슈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일본열도의 중심지로 성장한 나라奈良분지 북부의 사기佐紀집단으로 확대되는 시기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313년 낙랑·대방의 멸망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정치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엽 최전성기에 조영된 왕묘인 1호묘에서는 5인이 순장되고, 철정, 통형동기가 8점, 마주, 등자, 안금구, 행엽 등의 마구 조합이 출토되었다. 또 이 시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발형기대와 유개장경호를 조합한 토기류가 다수 부장된다.

5세기 초의 왕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5세기 전엽의 왕묘급 고분인 73호묘는 남쪽 구릉 단부의 중앙에 조영된 석곽묘로서 판갑, 경갑, 주로 구성된 철제갑주류, 금제이식, 금동제화살통이 출토되었다. 부장칸에서 순장자가 1인 확인되었다. 이 고분은 같은 시기 부산 복천동고분군의 최고 수장묘인 복천동 10호묘의 석곽과 크기가 유사하고 갑주 일습, 금제이식, 금동제화살통 등이 부장되고 순장이 실시된 점에서 왕묘급 고분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73호묘에서는 이제까지 인지되지 못했던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출현하여 주목된다. 즉 통형기대는 대성동 73호묘 출토품과 같이 하부가 장고형인 것이 특징이며 창녕 계남리 1호분 출토품과 같은 기대의 영향으로 본다. 즉 앞에서 언급한 이단교호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각고배, 통형기대,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유대파수부완으로 구성된 금관가야양식이 출현한다. 발형기대는 대각부를 포함한 전면에 파상문를 시문하고 삼각형의 투창을 뚫은 것으로, 창녕양식 토기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도 3).

이처럼 금관가야의 왕묘는 3세기 중엽부터 5세기 전엽까지 대성동고분군의 주 능선상에서 축조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왕묘의 수평배치이다. 4세기 전반 북쪽 구릉 중앙의 정상부에 입지가 탁월하고 부곽을 가진 70호묘, 13호묘가 조영됨에도 같은 시기 구릉 주 능선에서 벗어난 북동쪽 구릉 사면에 88호묘, 91호묘가 왕묘인 13호묘에 필적하는 부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 시기 왕묘의 탁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초의 왕묘인 29호묘가 4세기 중엽에 조영된 39호묘에 의해 파괴된다. 이는 1세기 후 왕묘의 전승이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13호묘도 4세기 말 8호묘에 의해 훼손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4세기 금관가야의 왕권은 세습적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초월적인 존재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5세기 전엽 왕묘급인 73호묘가 조영되지만 그 규모와 부장품에서 쇠퇴가 완연하며 그 이후에는 대성동고분군에서는 탁월한 왕묘의 존재가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왕묘로 볼 때 금관가야의 왕통은 4세기 중엽,  4세기 후엽, 5세기 중엽에 단절과 변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성동고분군은 5세기 전엽 이후 더 이상 탁월한 왕묘가 축조되지 않는다. 그래서 5세기 이후 금관가야에 대해서는 그 중심이 부산지역의 복천동고분군이 조영된 동래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설과 6세기 이후에는 북정리고분군이 조영된 양산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는 금관가야가 532년이 되어서야 신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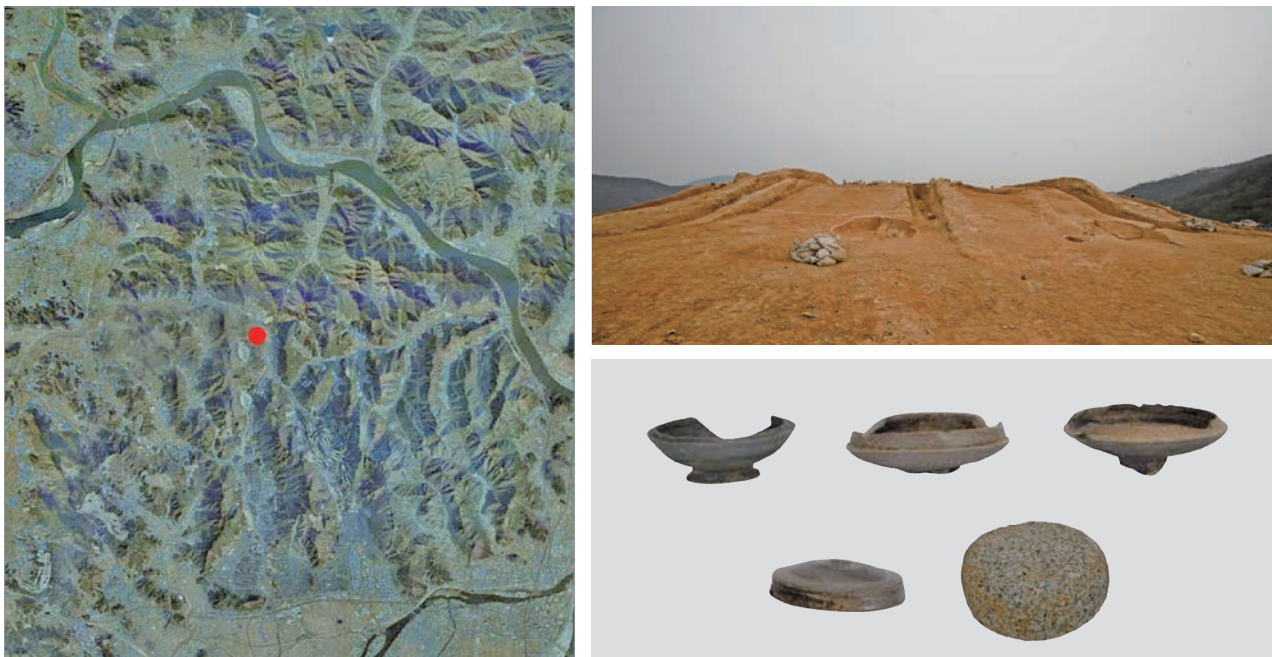
도 3 5세기 금관가야양식 토기(박천수, 대성동고분박물관)

복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금관가야의 왕권이 그 권역 내에서 지속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금관가야의 왕족인 김유신계의 활약으로 볼 때 그러하다. 금관가야의 왕묘는 대성동고분군 북쪽에서 파괴되었거나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본다.

5세기 부산지역과 김해지역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산은 토기양식이 완전히 신라화되지만 김해지역은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의 영향에 의해 새로이 금관가야양식이 창출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기양식에 신라의 영향이 보이는 점은 400년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금관가야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5세기 전반 왕묘가 대성동고분군에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왕성인 봉황토성이 건재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김해시 부원동, 관동리, 여래리 등의 거점 취락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치상 봉황동토성을 방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김해시 나전리보루성이 6세기 전엽에도 왕성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도 4).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지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다.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함안군 함안읍 말이산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50여기의 고총이 5·6세기대를 중심으로 조영된 말이산고분군이다.

3·4세기 아라가야 대표적인 토기가마인 함안 우거리요 출토 승석문호는 기벽이 매우 얇고 고화도로 소성한 것이 특징이다(이정근 2006, 정주희 2008). 동부의 함몰된 동부, 타원형의 구연부와 동부 측면의 중첩 소성흔으로 볼 때 옆으로 뉘인 채로 구운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 승석문호는 같은 시기의 창녕 여초리요, 대구 신당동요, 경산

**도 4** 6세기 전엽 금관가야의 보루성(김해 나전리보루성, 동서문물연구원)

옥산동요 등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도부호陶符號가 시문된 경우가 많아 그 식별이 아주 용이하다. 또한 횡치 소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3세기 후반 아라가야양식의 공자형고배, 통형고배, 노형기대, 승석문호는 3세기부터 4세기 후반까지 남강과 황강수계, 낙동강 상류역를 포함하는 광역분포권을 형성하며 금강수계,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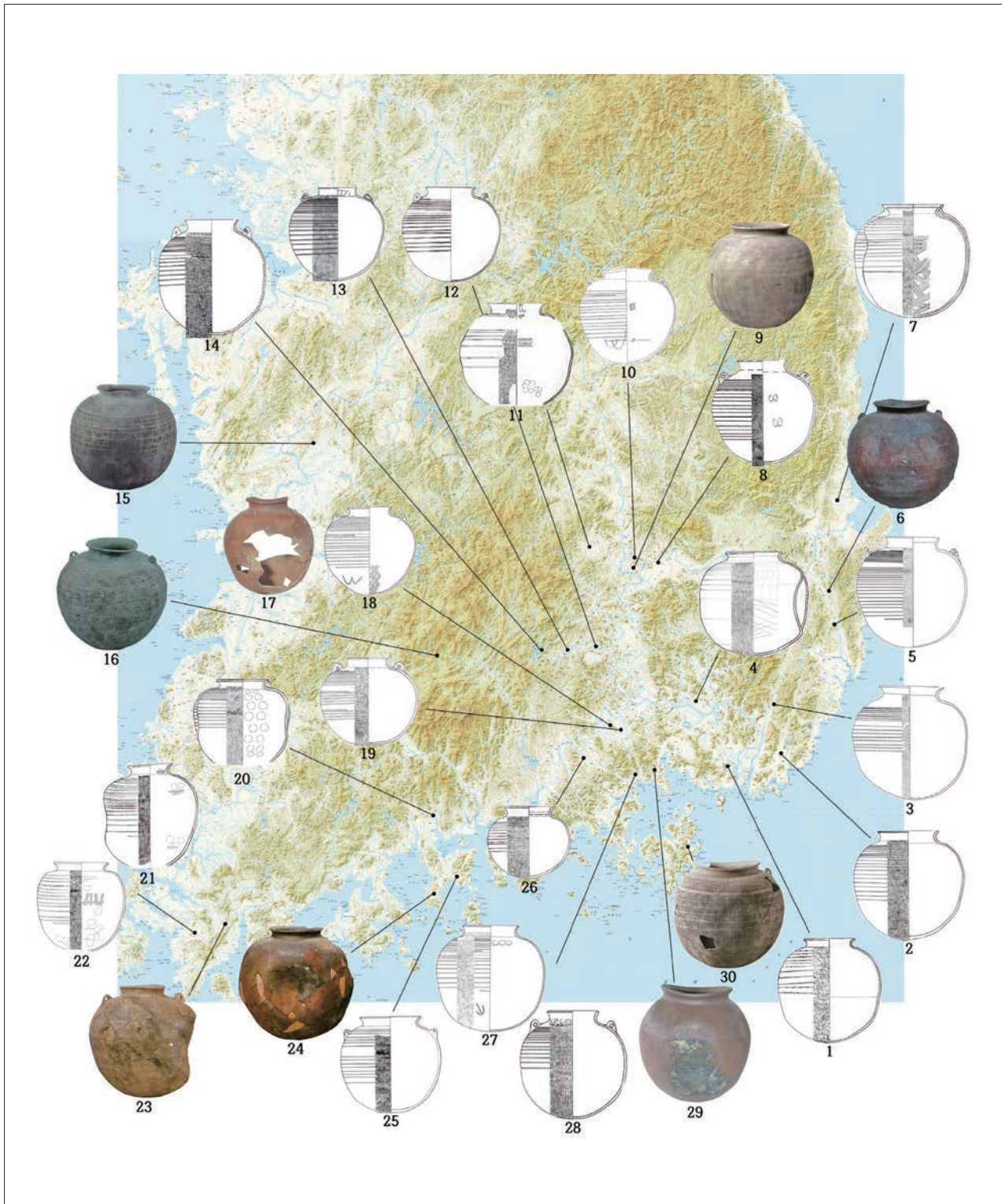
5세기 초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 하류역을 제외하고 낙동강 상류역, 남강 상류역, 황강 수계, 남해안에 반출되지 않는다. 이 시기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는 것은 5세기 초 광개토왕비 경자년조의 안라인安羅人 수병戍兵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고 소가야가 이를 대신하는 것에서 그러하다.

5세기 아라가야 권역은 함안분지와 진동만 주변으로 파악된다. 서쪽은 4세기대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이입되던 진주시 무촌리고분군 일대가 5세기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근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본다. 그 동쪽에 위치한 칠원분지에 소가야양식 토기와 창녕양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에서 함안분지의 동변을 경계로 한다.

아라가야양식의 승석문호는 3세기 중엽 함안지역의 말이산(문)35호묘에서 출현한다. 승석문호는 3세기 후엽 김해지역의 대성동 59호묘, 대구지역의 문양리 65호묘, 울산지역의 중산리 75호묘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승석문호가 함안산인 것은 다른 지역이 이 지역보다 늦은 시기에 부장되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광역 분포권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세기 말 승석문호는 김해 구지로 1호묘에서 보이고 경주 구정동 1호묘의 3호곽에서는 횡치소성흔이 보이는 함안산의 소문호가 확인되기 때문에 아라가야세력이 김해지역과 울산지역을 거쳐 경주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낙동강을 통하여 대구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초 승석문호를 비롯한 함안산 토기가 영남지역 전역과 전남지역의 남해안 일대와 전북지역의 호남 동부지역에 출현한다.

횡치소성흔과 도부호가 시문된 승석문호는 낙동강, 황강, 남강, 남해안 일대에 분포권을 형성한다. 특히 금관가야의 대수장묘인 대성동 13호묘, 동래지역의 대수장묘인 복천동 38호묘, 다라의 대수장묘인 옥전 54호묘, 대구지역의 수장묘인 비산동 3호 목곽묘에 함안산토기가 부장된다. 게다가 함안산토기는 가야지역 뿐만 아니라 경주 구정동 1호묘 3호곽, 구어리 1호묘, 울산 중산리 75호묘와 같은 신라지역의 수장묘에서도 부장되었다. 이처럼 함안지역산 토기가 가야 신라지역의 수장묘와 낙동강수계, 남강수계, 황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의 교통로에 연한 거점 취락에 주로 이입되는 것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의 경제적인 관계망뿐만 아니라 수장 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분명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 5).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의 성립은 4·5세기 이 지역의 고분에서 철정과 이를 가공한 유자이기가 다수 출토되는 것에서 철 생산과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 유통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 5** 아라가야양식 승석문호의 분포(4세기, 박천수·정승복·이한별 작성)

**1.** 김해대성동18호묘 **2.** 부산복천동54호묘 **3.** 양산소토리1호목곽묘 **4.** 밀양귀명리310호목곽묘 **5.** 경주구어리1호목곽묘 **6.** 경주구정동3호묘 **7.** 포항마산리149-4적석목곽묘 **8.** 대구비산동2호묘 **9.** 달성문양리30호목곽묘 **10.** 칠곡심천리54호목곽묘 **11.** 성주가암리45호(31호)주거지 **12.** 합천옥전54호목곽묘 **13.** 합천삼가(동) I 지구1-2호목곽묘 **14.** 합천저포리A지구31호묘 **15.** 공주남산리고분군 **16.** 남원아영 출토품 **17·18.** 함안우거리토기요지 **19.** 함안도항리33호목곽묘 **20.** 광양도월리(II)41호주거지 **21·22.** 해남신금55호주거지 **23.** 강진양유동6호주거지 **24.** 여수화동6호주거지 **25.** 여수고락산성3호주거지 **26.** 진주무촌리3구39호 **27.** 마산대평리2지구30호묘 **28.** 마산대평리고분군 **29.** 마산현동고분군 **30.** 거제아주동9호주거지

4세기 후반에는 함안산토기의 이입이 줄어드나 각 지역에서 모방 제작한 토기가 활발하게 제작된다. 이로 보아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일시적으로 이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토기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전반 소가야권역의 중심인 고성세력과 5세기 후반 가야의 중심국인 고령 대가야 세력조차도 이 시기에는 아라가야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전엽 말이산 구릉 북쪽단부에 조영된 마갑총에서는 마갑 2령과 마주, 금동제환두대도, 마구, 갑주, 무기가 출토되었다.

5세기 중엽 구릉 중앙부에 조영된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총인 왕묘인 4호분에서는 심엽형행엽, 왕족묘인 6호분에서는 철제마주와 마갑, 철제주冑, 금장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왕족묘인 8호분에서는 금장환두대도, 금동제화살통矢筒, 은제대장식금구, 금동제심엽형행엽과 편원어미형행엽 등 신라산 문물이 부장된다. 아라가야가 신라의 위신재인 금장환두대도, 철제마주, 마갑, 갑주甲冑, 금동제마구를 도입한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아라가야가 대가야와 뚜렷이 구분되는 세력임을 말해준다.

13호분이 위치하는 구릉사면에 위치한 5세기 후엽에 조영된 (문)54호분에 부장된 은장용문환두대도는 용문과 제작기법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이 시기부터 대가야산 위신재가 이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6세기 초에 조영된 왕묘인 25호분에서는 신라산 금동제화살통矢筒 1점 외에는 신라산 마구가 부장되지 않고 대가야산 금동제화살통矢筒, 금동제검릉형행엽, 왕족묘인 26호분에서는 대가야산 금동제검릉형행엽과 내만타원형경판비, 대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었다(도 6).

안야국에서 아라가야로의 성장은 4세기대 대형 목곽묘가 조사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로 볼 때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관계망이 남강 수계, 황강 수계, 섬진강 수계, 낙동강 중상류역, 남해안 일대에 형성되는 4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본다.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일본열도에까지 영향을 준 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즉 시코쿠四国지방의 가가와현香川縣 미야야마宮山요, 미타니사부로이케三谷三郎池요와 같은 회청색경질토기인 초기 스에키須惠器요의 공인은 출토 토기의 형태뿐만 아니라 같은 시코쿠의 에히메현愛媛県 사루카타니猿ヶ谷 2호분과 후나카타니船ヶ谷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것에서 함안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임을 알 수 있다.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광역분포권은 그 세력이 남강하구에서 수계를 거슬러 올라가 금강 상류를 통해 백제지역과 교섭함과 동시에 일본열도와도 활발히 교섭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라가야 세력은 내륙교역의 회랑과 같은 남강 수계를 통해 금강유역과 남해를 연결, 백제와 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4세기 말 오사카大阪에서 개시된 일본 열도의 회청색경질토기 생산에 금관가야계 공인이 주도한 점, 양동리·대성동고분군 출토 중국·일본열도산 문물로 볼 때 아라가야세력에 의한 대외교섭의 중심적인 역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낙동강 하류역에 분포가 한정되고 일본열도에서도

**도 6** 아라가야 왕릉 출토 대가야산 문물(**1·2.**말이산 25호분 **3·4.**말이산 26호분, 우리문화재연구원)

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기나이畿内지역에 주로 출토되는 것과 아라가야의 독자적인 관계망과 대왜교섭으로 볼 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대왜교섭의 독점과 이를 기반한 단일 연맹체설 및 금관가야 절대우위론은 성립될 수 없다.

6세기 아라가야는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실체인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이 설치되고 임나부흥회의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에서 대가야와 함께 여전히 가야 후기의 중심국으로 대왜 교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말이산고분군 왕묘의 축조 과정을 통하여 아라가야의 왕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세기 말 5세기 초 아라가야의 왕묘는 경전선 철로에 의해 절단된 구릉 북쪽 끝부분에 조영된 마갑총이 배총처럼 사면에 조영된 점에서 현재 해동아파트가 위치하는 그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세기 전엽에는 1-1호분 출토 토기로 볼 때 1호를 중심으로 북쪽 구릉 끝부분에 조영된 것으로 본다.

5세기 중엽에는 북쪽 구릉 중앙부 입지가 탁월한 곳에 왕묘급 고총인 4호분이 조영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조영된 8호분, 6호분의 경우 입지는 4호분에 비할 수 없으나, 수혈식석곽의 규모가 4호분과 같은 10m 내외이고 5, 6인이 순장된 점이 주목된다. 즉 왕릉인 4호분과의 배총 즉 왕족묘로 추정되는 6호분, 8호분과 격차가 보이지 않고,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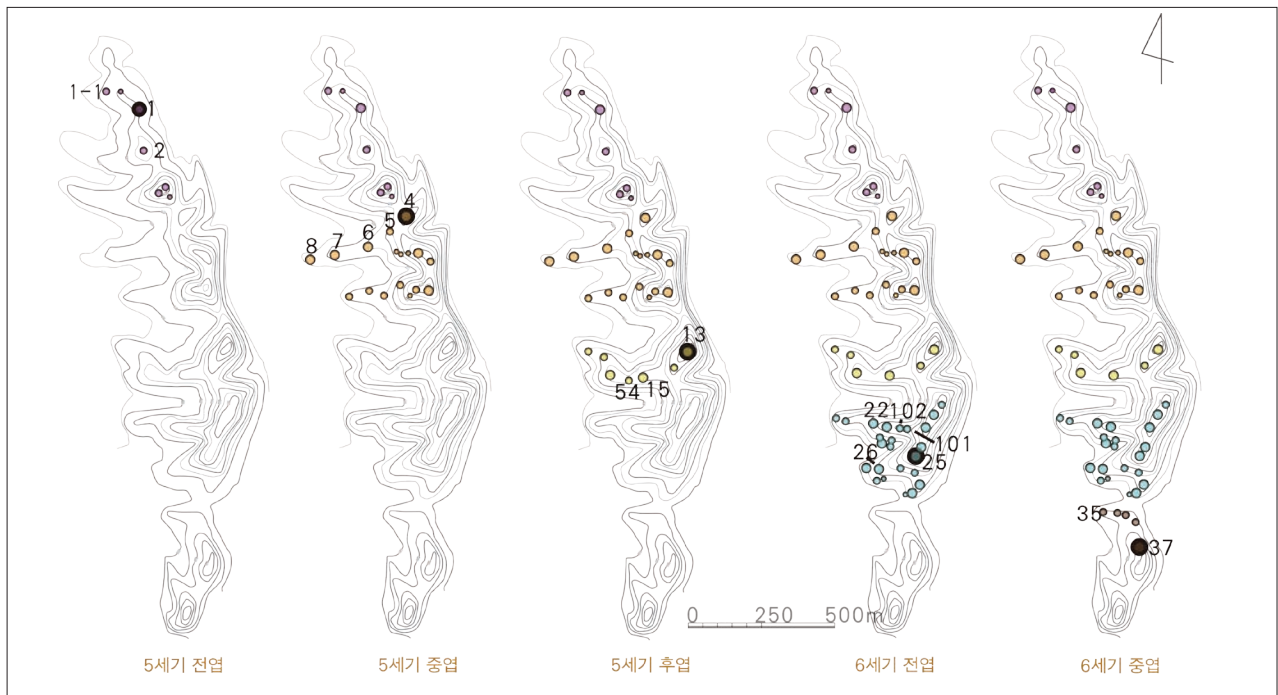
이 부장품 질과 양도 이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3기의 고분으로 볼 때 왕릉과 왕족묘는 같은 작은 구릉 위에 자리하고 모두 동일한 규모인 점에서 왕릉의 결격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5세기 후엽에는 구릉 중앙부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13호분을 비롯한 고분이 조영된다. 이 시기에도 같은 규모의 고총이 여러 소구릉에 분지되어 조영된다.

6세기 전엽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25호분을 비롯한 고총이 조영된다. 이 시기에도 이전시기와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즉 왕릉으로 추정되는 25호분이 4호분, 13호분과 같이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나, 역시 같은 시기에 동일 능선에 조영된 26호분은 입지는 25호분에 비할 수 없으나, 수혈식석곽의 규모가 10m 내외이고 부장품과 순장자 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세기 중엽에는 남쪽 구릉 끝부분에 35호분, 37호분을 비롯한 고총이 조영되며 규모가 축소된다.

그런데 아라가야의 왕릉은 1호분, 4호분, 13호분, 37호분의 순서로 축조되지만 각 왕릉은 각각의 독립된 구릉에 배총과 함께 완결되어, 왕릉간에는 단절이 보여 특기된다(도 7). 나아가 순장에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왕권이 특정 수장계열에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왕릉에 필적하는 왕족묘가 6세기에도 존재하는 점에서 왕권의 한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간 아라가야는 562년 대가야와 함께 신라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파악되어왔으나, 말이산고분군의 조영이 정지되고 근래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으로 볼 때 그 이전에 멸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 7 아라가야 왕릉의 축조 과정

## 소가야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지역은 남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반도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나아가면 사천을 거쳐서 남강 중류역의 진주에 접한다. 동쪽으로 나아가면 당항만을 거쳐 진동만, 마산만, 고 김해만에 달하고, 또 연안항로를 따라 나아가 거제도를 거치면 곧바로 쓰시마對馬에 도달한다.

소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5, 6세기대 고성군 고성읍 서북쪽 구릉의 정상부에 10여 기의 고총으로 구성된 송학동고분군과 이곳에서 동쪽 동해면의 한려수도에 면한 60여 기 고총군으로 구성된 내산리고분군이다.

고성읍은 송학동고분군이 현재 10여 기에 불과하나 원래 수십 기의 고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북부 규슈산 광형동모와 야요이토기가 출토된 동외동유적이 인접한 점에서 소가야의 중심지로 파악된다.

소가야권역은 5세기 전반 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인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기대와 같은 토기 양식과 고성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율대리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산청 중촌리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의 선분구식과 다곽묘라는 특유의 묘제의 분포로 볼 때 고성반도를 중심으로 남해에 면한 통영, 사천, 여수지역과, 산청 남부와 합천 남부, 진주를 비롯한 남강 중류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파악된다(도 8). 그리고 소가야권에 종래 토기양식이 복잡하여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마산만에 면한 창원분지와 구 마산지역의 덕동만 일대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에서는 4세기대에는 함안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다가 5세기에는 고성 소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된다. 또한 이 시기부터 5세기 중엽까지 창녕양식 토기가 부장된다. 중요한 점은 거의 1세기에 걸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5세기에 조영된 합성동고분군에서도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창녕양식 토기가 다수 부장되는 점은 현동고분군의 양상과 동일하다.

**도 8** 여수시 죽림리고분군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좌상·중.** 16호 석곽묘 **좌하·우.** 15호 주거지)

그런데 합성동고분군의 직경12.5m에 달하는 목곽분인 1호분은 4세기 후엽의 선분구식인 소가야형 목곽묘로서 규모가 탁월한 점에서 수장묘로 평가된다. 합성동고분군이 소재하는 팔령산 사면의 입지가 탁월한 정상부에는 연접한 2기의 고총이 존재한다. 이 고총의 시기는 분구 상면에 석곽이 노출된 점에서 분구식으로 석곽묘의 연대와 같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총이 조영되어 고분군을 형성한 점에서 이 지역을 하나의 국이 소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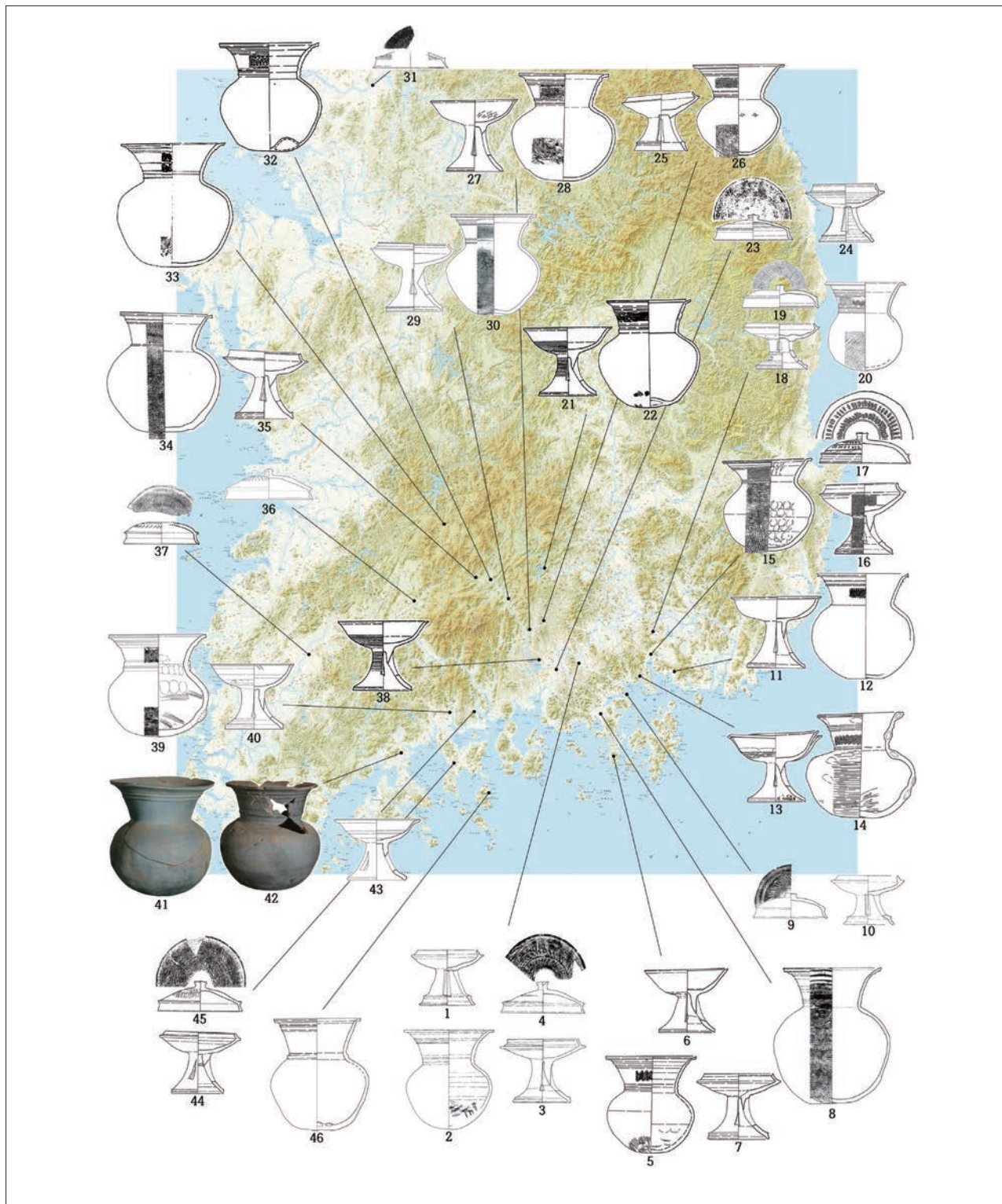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마산만과 덕동만에 면한 창원지역은 1세기에 걸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 사용되고 중심지가 존재한 것에서 소가야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세기 동외동유적과 송학동 1호분 하층에서 출토된 토기가 함안양식의 장각노형기대, 통형고배, 승석문양이부호인 점에서 4세기에는 고성 세력이 아라가야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세기대 소가야양식 토기의 중심분포권에 속하는 진주 무촌리고분군에서도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같은 형식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4세기대에 부장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을 교체하듯이 남강 중·상류역, 황강 중·상류역과 남해안에 걸쳐서 유통되고 또한 금강수계의 백제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남해안에 출현한다(도 9).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에서는 철정이 4세기에는 금관가야의 대성동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좌우 대칭형 철정인데 반해, 5세기에는 좌우 비대칭형 신라형 철정으로 변한다(도 10). 소가야는 4세기대는 금관가야산 철소재를 수입하였으나, 5세기에는 창녕양식토기와 철정이 공반하는 점에서 이 지역을 중계로 신라산 철소재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금관가야의 철을 수입하여 교역하였으며 그 상대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면한 영산강 유역에서 좌우 대칭형 철정이 보이는 점에서 구 마한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400년 고구려 남정의 영향으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철의 교역 시장이 붕괴되자 창녕세력을 매개로 신라의 철소재를 수입하여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 교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양 지역의 묘제가 선분구형인 점과 영산강유역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다수 이입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창녕양식 토기가 남해안을 따라 이입되고 해남 일평리에서는 다수 출토된 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시기 소가야양식 토기가 일본열도에서 출현한다. 특히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對馬에 집중하고, 후쿠오카현福岡県 아사쿠라朝倉요와 에히메현愛媛県 이치바미나미쿠미市場南組요의 초기 스에키須惠器요의 공인은 출토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유공광구소호, 기대가 소가야양식인 점에서 고성지역에서 이주한 공인일 가능성이 높다.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월산리 M1호분은 M1-A호곽을 중심으로 동쪽에 6기의 중소형의 B-G곽이 연차적으로 봉토를 연접하여 축조된 다곽분이다. 합천 저포리 A지구 1호 석곽묘는 목곽묘가 축조되던 이 지역에 돌연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석곽묘가 출현하는데, 이는 소가야와 연계하는 가운데 새로운 묘제가 수용된 것이다. 즉 소가야권역은 이전 시기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도 9**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5-6세기, 박천수·정승복·이한별 작성)

**1**.고성연당리18호분 **2-4**.연당리14호분 **5-6**.통영남평리1호석곽 **7**.남평리10호분 **8**.고성송학동1A-1호묘 **9·10**.고성내산리8호분6곽 **11·12**.진해석동(동)62호묘 **13**.마산현동(동)103호석곽묘 **14**.마산현동(동)64호석곽묘 **15**.마산합성동60호석곽묘 **16·17**.마산합성동30호석곽묘 **18-20**.창원동전리10호묘 **21·22**.합천저포리A지구1호묘 **23·24**.진주가좌동39-6 1지구1호석곽묘 **25·26**.합천 삼가(경)9호석곽묘 **27·28**.산청중촌리3호북목곽묘 **29·30**.산청묵곡리16호묘 **31**.서울풍납토성경당지구 **32**.함양손곡리2호묘 **33**.장수삼고리13호묘 **34·35**.남원광평2호묘 **36**.남원천사리2호수혈 **37**.광주동림동102호북동구상유구 **38**.진주우수리18호묘 **39**.광양도월리(Ⅰ)지표수습 **40**.광양도월리(Ⅰ)33호 대수혈 **41·42**.고흥장덕리장동M1호목곽 **43**.광양용장유적6호주거지 **44·45**.여수죽림리차동15호주거지 **46**.여수죽포리고분군

**도 10** 창원 (동)현동 103호 목곽묘 출토 철정, 철기와 창녕양식 토기(동서문물연구원)

분포권은 묘제가 공유되지 않으나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은 선분구식 다곽식의 묘제를 공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세기 소가야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이다. 이 기사는 고성 고자국을 중심으로 한 5세기 초에 결성된 소가야연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포상팔국의 공격대상에 대하여 아라가야인 아라국阿羅國 또는 금관가야인 가라국加羅國으로 문헌사학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고고자료로 본다면 그 대상은 4세기 말, 5세기 초 남해안과 남강 수계의 관계망을 둘러싸고 소가야와 경쟁하고 있는 아라국阿羅國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기년은 불분명하나 포상팔국 전쟁의 배경은 남해안의 교역을 둘러싼 포상팔국과 아라가야의 갈등으로 결국 아라가야가 승리하였으며, 이는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를 통한 광역 관계망의 형성에서 추론된다.

그런데 소가야는 5세기에 접어들면 3-4세기 남해안과 남강유역의 교역을 주도하였던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 수계와 남해안 일대에 소가야가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 시기 아라가야는 400년 광개토왕릉비 경자년조庚子年條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가야가 쇠퇴한 이 시기 소가야는 남해안과 남강 수계의 교역권을 아라가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전반 소가야는 아라가야에 직접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경남 서부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각 국간에 형성된 관계망은 이전 시기의 포상팔국 연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상팔국 전쟁은 5세기 초에 형성된 소가야권의 범위와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지역에는 왕릉을 포함하는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다. 이 고분군의 북쪽에 인접하는 기월리 2호분도 직경 50m 전후에 달하는 점에서 왕릉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엽에 축조가 개시된 소가야의 왕묘인 송학동 1호분은 고총이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축조되어 일본 고분시대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같은 분구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하니와埴輪와 같이 분주토기를 수립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1A호분은 고성지역 재지의 수혈식석곽묘, 1B-1호분은 현문에 입주석이나 문비, 목붕木棚 설치되어 있고 석실 내부가 붉게 칠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 북부 규슈九州지방과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기이紀伊지방 고분과 유사한 왜倭계 횡혈식석실묘, 1C호분은 현문에 입주석이나 문비가 없는 고성지역 재지의 횡혈식석실묘이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로 볼 때 1호분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까지 약 50년간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소가야의 성장은 고구려 남정 이후 대왜 교섭의 중심이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남해안 일대와 내륙지역에서의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해체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즉 소가야의 성장은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관계망이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 상류역, 황강 상류역, 섬진강 수계, 남해안 일대에 형성되는 5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본다.

소가야는 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국연합이나 이 지역에도 송학동고분군에 필적하는 내산리고분군이 존재하고 산청 중촌리고분군에도 대형분이 조영된 점에서 연맹

국 간에는 대가야권, 아라가야권과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는 광양 칠성리유적, 광주 동림동유적,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등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칠성리유적과 동림동유적, 풍납토성에 인접한 몽촌토성에서 일본열도산 스에키가 출토되어 이 시기 소가야세력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기반으로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계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상정된다. 즉 소가야세력은 남강 중류역의 산청 옥산리·묵곡리유적 출토 백제문물과 서울 풍납토성의 소가야양식 토기 및 몽촌토성의 스에키로 볼 때 함안세력을 대신하여 남강 수계와 금강 수계를 통해 백제지역과 교섭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를 중계했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후반에는 종래 소가야와 연계되었던 황강 상·중류역, 남강 상류역과 남해안 일대의 관계망이 와해되고 대가야에 의해 새로운 관계망이 구축된다. 즉 소가야 권역에 속했던 지역들이 대가야 권역에 편입되는 것이다.

6세기 전반에는 소가야 권역 내의 수장묘역인 고성 송학동고분군, 율대리고분군, 산청 중촌리고분군, 진주 옥봉·수정봉고분군에서는 대가야산 금제수식부이식, 금동제마구, 토기가 부장되고 대가야양식 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일본열도로 반입된다. 이는『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라사현, 기문, 대사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가야의 대외 교통로인 섬진강로가 백제에 의해 차단된 이후의 남해안에 새로운 출구를 확보하려던 대가야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송학동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 이후에 수장묘가 조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가야는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종언을 맞이한다.

### 대가야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지역은 내륙에 있으나 회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낙동강에 접근할 수 있고, 안림천 지류에 연한 곡간통로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면 황강에 접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배후의 가야산을 배경으로 고령읍을 감싸는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높은 구릉의 정상부에 거대한 봉토분이 열을 지어 일대장관을 이루고 있는 지산동고분군이다.

지산동고분군의 북쪽 산 정상부에는 대가야의 거점 산성인 주산성, 또 동쪽 구릉 기슭에는 대가야 왕궁지가 위치하고 이 고분군의 외곽에는 규모가 작은 본관리, 월산리, 도진리, 박곡리고분군과 이에 연계된 산성이 포진하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5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 조영된 가야지역 최대 규모의 왕묘를 포함한 대가야의 중심 고분군이다.

5세기 전엽 지산동고분군에서는 남쪽 가지 능선 말단부에 중형분인 30호분과 73호분, 75호분이 축조된다. 척릉 말단부에 조영된 55호분도 위치로 볼 때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왕릉인 73호분은 지산동고분군의 가지 능선 중 중간 능선의 말단 정부에 입지한다. 매장주체부는 목곽으로 하는 봉토분으로 주곽과 부곽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광의 충

전보강적석 내부와 봉토 중에 순장곽을 배치하였다. 이 고분은 장대한 묘광과 목곽, 다수의 순장이 행해졌으나, 도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품의 질과 양은 후장厚葬이라 보기 어렵다. 순장곽에서 출토된 금동제조우형鳥羽形 신라산 관식과 백제산 환두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가야양식의 금동제장신구와 마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73호분은 이 시기 대가야의 발전상을 나타내면서도 그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5호분은 73호분에 비해 약간 늦은 시기에 지산동고분군의 가지 능선 가운데 동쪽 능선의 말단 정부에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이혈 묘광 내에 주곽과 부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묘광 내 장벽을 따라 거의 같은 간격으로 순장곽 8기가 사방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봉토 내 순장곽을 포함하면 10인 전후가 순장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심한 도굴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황남대총과 금관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14점의 철정과 마갑이 확인되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제내만타원형경판비, 검릉형행엽, 은장안교가 출현한 점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지산동고분군에는 분지한 구릉하부 선단에 앞에서 언급한 4기의 왕묘급 고총이 약간의 시기와 규모차를 보이면서 축조된다. 또한 각 분지한 구릉상에 지속적으로 고분이 축조되는 것에서 각 구릉은 하나의 수장 가계家系씩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각 왕릉급 고분의 시기와 규모의 차이는 왕과 왕에 필적하는 유력수장의 사망 시기와 권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처럼 5세기 초 지산동고분군에서 여러 개의 왕릉급 고총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주목된다. 즉 지산동고분군에 수장급 고총이 여러 개가 조영된 것은 대가야의 대내외적 성장이 대가천, 안림천, 회천 수계의 제 집단의 통합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지산동고분군의 조영 계기는 이 고분군의 성립기에 여러 계열의 왕릉급 고총이 확인되어, 특정 세력이기보다는 각 수계의 여러 세력의 결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5세기 중엽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척릉 중하위에 32～34호분 등이 조영된다. 이 시기 고령 대가야양식 토기와 묘제, 매장의례, 장신구, 무기, 무구, 마구, 농공구 등이 경남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동부지역에까지 확산된다.

남강 상류역의 남원 아영지역에서는 수장묘로서 고총인 월산리 M1호분이 출현한다. M1호분에서는 소가야양식 발형기대가 유존하는 가운데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발형기대를 포함한 대가야양식 토기와 이를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한 토기가 부장된다. 그 결과 대가야양식 토기가 다수파로 되고 소가야양식 토기가 소수파로 전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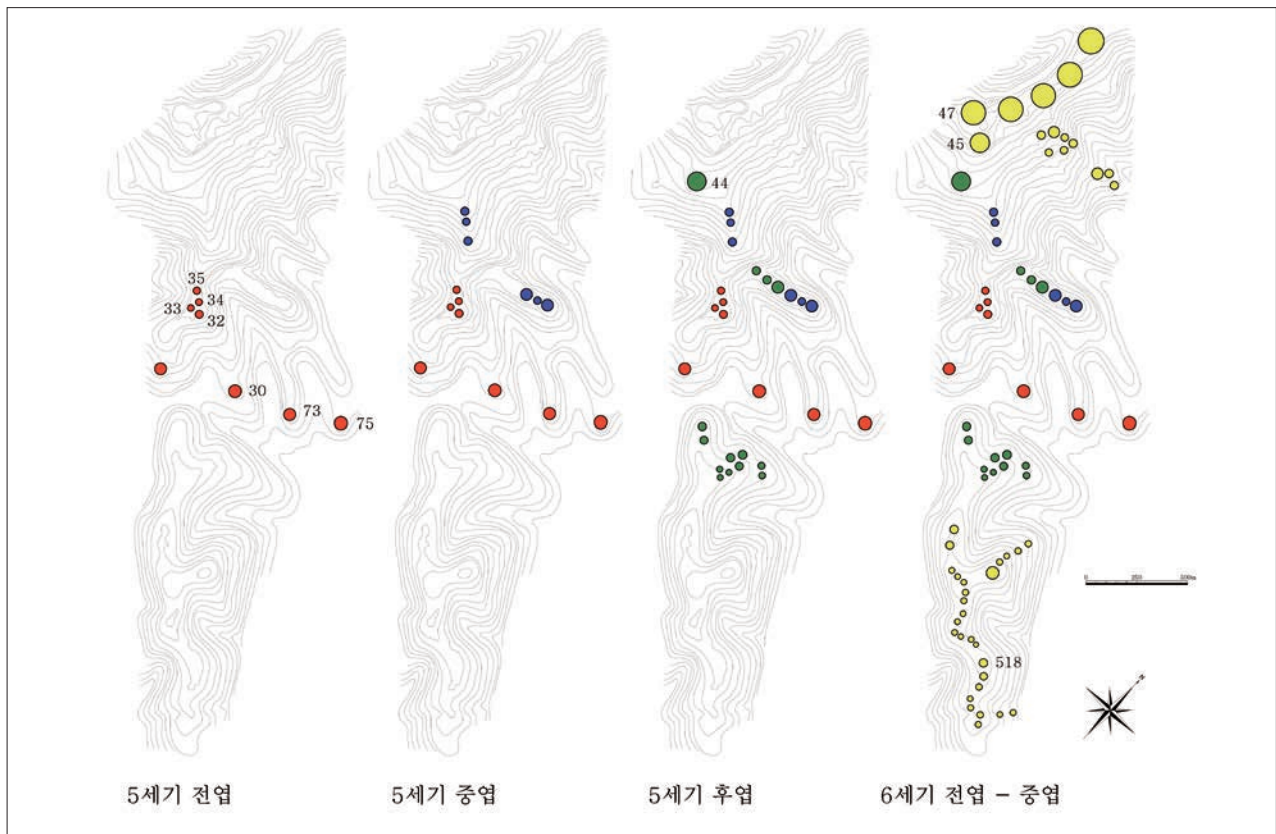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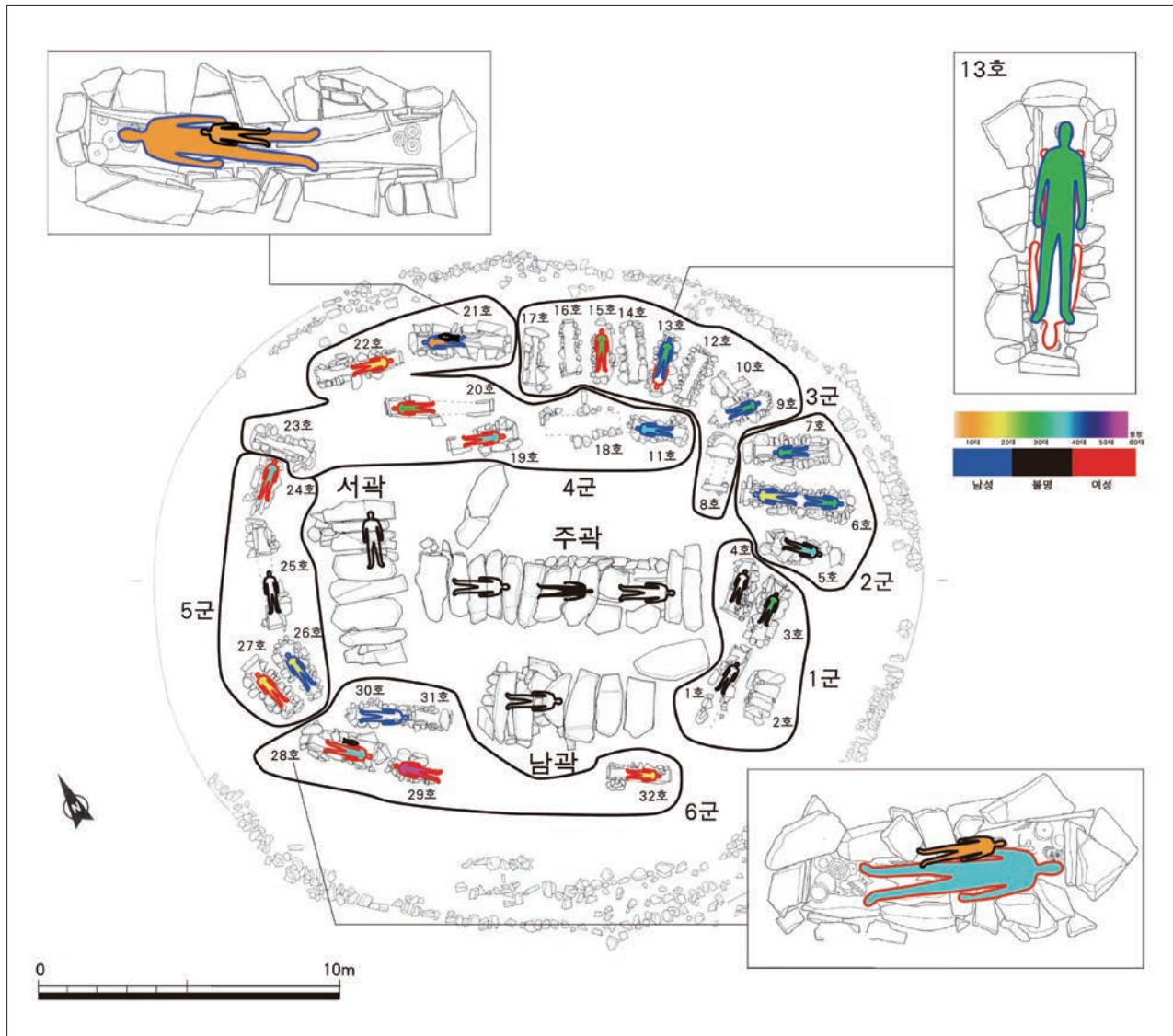
그래서 5세기 중엽에 인접한 옥전고분군과 반계제고분군이 소재한 황강 수계에 선행하여 남원 아영지역에 가장 먼저 대가야의 영향이 미친 것이 특기된다. 대가야의 분명한 진출 방향과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가야가 남강 상류역의 아영지역을 확보하고 섬진강 수계와 금강 수계에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가야의 진출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5세기 후엽에는 지산동 32~35호분과 44호분 사이 척릉에 87호분, 96호분, 97호분이 조영되고 동시에 동쪽 가지 능선에 77호분 등이 축조되는 것으로 볼 때 아직 특정

수장계보에 의한 왕권의 장악은 확인되지 않는다(도 11).

5세기 말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척릉 정상부 바로 아래에 44호분이 조영된다. 이 고분은 1기의 대형 주곽과 2기의 대형 부곽을 중심으로 주위에 방사상으로 32기의 순장곽을 배치한 구조로서, 순장자는 주곽과 부곽에서도 확인되어 모두 35인 이상이 순장된 것으로 파악된다(도 12).

지산동 44호분에 순장된 사람은 호위무사, 의례관련자, 재산관리자, 시종, 비첩 등을 포함하여 묘주의 가까이에서 주인의 생활 각 방면에서 봉사하는 성격의 근신자들이며, 가족 단위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순장의 근본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 데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성 2013). 지산동 44호분에서는 부장품으로 일본 오키나와 근방인 아마미오시마제도奄美諸島산 야광패夜光貝와 백제산 동완 등 외래의 위신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지산동 44호분에서는 전시기의 지산동고분군에서 볼 수 없었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분은 대가야권의 같은 시기 다라국의 왕묘급 고총인 합천 옥전 M4호분뿐만 아니라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총인 도항리 13호분과 소가야의 왕묘급 고총으로 추정되는 고성군 송학동 1호분에 비해 2기의 부곽을 가진 것, 순장,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점이 특기된다.

도 11 대가야왕릉의 축조 과정(고령 지산동고분군)

도 12 대가야왕릉의 순장(고령 지산동 44호분)

그런데 44호분이 축조되는 시기에는 지산동고분군에서 이에 필적하는 대형분이 가지 능선에 더 이상 조영되지 않는데 반해, 본관동고분군, 박곡동고분군, 월산리고분군, 도진리고분군에서 수장묘인 고총의 조영이 개시된다. 이는 5세기 후엽까지 지산동고분군의 가지 능선에 고분을 조영하였던 대가천, 안림천, 회천수계의 수장이 그들의 본거지에 수장묘를 조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산동고분군은 5세기 말에 이르러서 특정 수장계열의 왕묘역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수 집단의 공립에 의했던 왕권이 특정 수장계열에 고정되어 세습화가 시작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시기는 대가야가 479년 남제南齊에 견사遣使한 직후인 점에서 대가야의 내 외적인 획기적 발전기로 평가된다. 그 증거로 남원시 월산리 M5호분은 다곽식인 소가야 묘제에서 탈피하고 대가야양식의 금제수식부이식, 갑주, 마구와 함께 중국 남조산 청자 계수

호가 부장된 점을 들 수 있다. 대가야산 이식은 5세기 후반 월산리 M5호분과 함께 6호분, 함양 백천리고분군, 장수 봉서리고분군, 고성 방송리고분군, 순천 운평리고분군 출토품으로 볼 때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묘제와 함께 대가야권역에 분포하는 위신재이기 때문이다.

토기양식과 묘제의 분포로 볼 때 5세기 후반 전성기의 대가야권역은 고령을 중심으로 황강 수계의 운봉, 아영, 섬진강 수계의 하동, 남해안의 여수, 금강 수계의 진안에 걸친 지역이다(도 13).

6세기 전엽에는 지산동고분군의 척릉 정상부에 직경 49m에 달하는 초대형분인 47호분을 위시한 일계의 누세대적인 왕묘역이 형성된다. 이는 대가야가 아라가야나 소가야와는 달리 이전 시기부터 세습화가 시작된 왕권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창원 중동유적은 대가야양식의 통형기대, 발형기대, 장경호, 고배, 개배를 제작한 6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걸친 요지인 점이 주목된다. 대가야가 공인을 파견하여 토기 양식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시기 대가야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6세기 전엽 섬진강로의 항구인 하동을 상실한 대가야는 진주를 통하여 사천만과 창원을 통하여 마산만의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중엽에는 대가야양식 대왕大王명 장경호와 함께 합천군 저포리 E지구 4호분 출토 하부下部명 단경호가 주목된다. 이 대가야의 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명문대도에 상부上部가 보이는 점이다. 11호분 출토 명문대도는 원두 측면의 문양띠가 대가야의 금동제용봉문환두대도와 마구에 널리 사용되는 점(金宇大 2017:250-251)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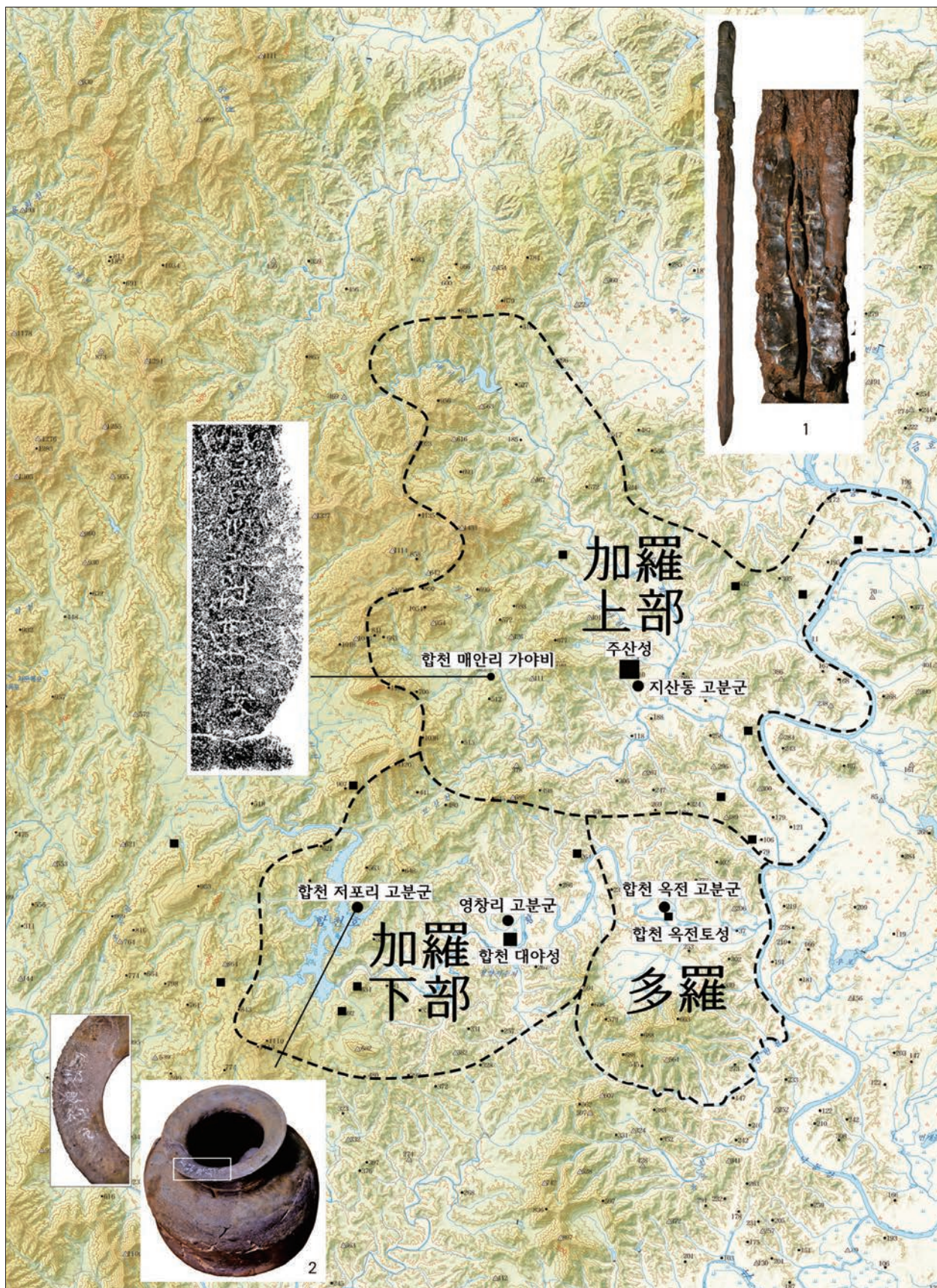
그리고 우륵于勒 십이곡에도 상가라도上加羅都 하가라도下加羅都가 보이는 점에서 대가야야의 왕도는 상·하로 편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도를 상부로 하부명 토기가 출토된 합천지역을 하부로 편제한 것이다(도 14). 하부의 치소는 대야성으로 보며 그 범위는 합천읍에서 봉산일대까지로 본다. 이곳에 하부가 설치된 이유는 왕도에 인접한 점과 함께 합천읍은 삼가지역을 통하여 남강 중류역로 나아갈 수 있는 요충지인 점과 봉산일대는 거창을 통하여 백제와 남강 상류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황강 하류역의 다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인 점도 들 수 있겠다.

6세기 전엽 대가야는 왕도인 고령과 인접한 합천읍, 봉산면 일대를 하부로 두어 왕기王畿로 하며 그 권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하였다. 이는 『일본서기』 계체繼體 23년조(529년) 대가야왕이 하동지역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과 신라의 왕녀를 여러 현에 분산시켰다는 기사로 볼 때 영역 관념의 형성과 그 내부를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대가야는 대왕을 칭하며 가야의 제 세력에 대한 구심체로서 결집을 시도였으나 6세기 전엽 백제가 섬진강 하구를 점령하게 되면서 남해안의 제해권과 교역항을 상실한다. 이후 대가야와 일본의 교역도 퇴조하며, 이는 대가야의 쇠퇴 및 멸망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 후 신라가 낙동강을 넘어 가야지역에 진출하고, 금강 상류역과 섬진강 수계에 백제세력이 압박해 들어오는 가운데 562년 대가야는 신라에 의해 멸망한다.

도 13 대가야양식 토기와 대가야산 금제이식으로 본 대가야권역(5세기 후엽)

1.고령지산동23-34합사유구 2.지산동44호분 3.지산동45호분 4.지산동45호분 5.합천옥전M4호분 6.옥전28호묘 7.옥전M4호분 8·9.합천반계제다A호분 10·11.거창출토품 12·13.거창무릉리3호분 14·15.함양백천리1호분 16.진안황산리고분군 17.장수봉서리고분군 18.임실금성리1호분 19·20.곡성방송리고분군 21·22.남원월산리M5,6호분 23.남원두락리1호분 24·25.두락리32호분 26.순천운평리M2호분 27.운평리M1호분 28·29.운평리M2호분 30.하동흥룡리고분군 31.산청생초M13호분

도 14 대가야의 상부와 하부의 비정(■ 산성)

## 다라

다라국은 황강 하류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황강 상류역에서는 북으로 신풍령을 넘으면 백제영역인 금강 수계인 무주와 연결되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남강 수계인 함양과 연결되며, 창녕지역에 면하고 있다.

왕 묘역인 옥전고분군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하구에 인접한 황강黃江 북안의 돌출한 구릉에 위치한다. 고분군의 동남쪽 황강 북안의 돌출한 해발 50m 구릉 말단부에는 성산리토성이 입지한다. 다라국은 황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는 합천 쌍책과 초계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자는 왕의 거주공간으로 후자는 민의 거주공간이다.

다라의 영역은 북쪽으로는 대가야와 경계를 이루고 동측은 낙동강에 접한다. 남쪽은 수장묘가 확인되지 않는 초계분지까지 포함한다. 서쪽 경계는 원래 황강을 거슬러 올라가 대병면 부근까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간에 위치하는 합천읍도 원래 다라의 영역이었으나, 5세기 후엽 이후는 대가야의 직할령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는 합천읍 소재지에 위치하는 영창리고분군과 대야성의 출현에서 알 수 있다.

옥전고분군은 몇 개의 능선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수장묘역은 4세기에는 동편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조영되다가, 5세기 이후 서쪽 건너편 능선으로 이동하여 조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쪽의 능선 정상부에 수장묘인 23호묘 등이 조영되다가 5세기 전엽 봉토분이 등장하면서 건너편 서쪽능선으로 묘역이 옮겨져 조영된다.

54호묘는 4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조영되었으며 대형 묘광을 파고 목곽을 설치한 후, 목곽의 사방을 할석으로 채우고 목곽 위도 할석을 덮은 구조이다. 이 고분은 규모로 볼 때 수장묘로 파악되며, 부장된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인 점과 함께 그 구조가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23호묘는 4세기 말에 조영되었으며 장방형의 넓은 묘광을 파고 대형 목곽을 설치한 후 목곽과 묘광 사이의 공간은 흙과 돌로 채운 구조이다. 부장품은 백제산 금제이식과 금동제의 관모와 만곡종장판주彎曲縱長板冑, 화살통, 심엽형행엽心葉形杏葉 등과 함께 환두대도, 철모鐵鉾, 갑주 등의 무구, 말투구,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옥전고분군내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목곽묘이며 출토유물로 볼 때 백제 지역과 낙동강 이동 지역과 교섭한 다라국의 최고 수장묘로 파악된다.

M1호분은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고총이 조영되는 서쪽 능선의 가장 동쪽에 입지한다. 석곽은 주부곽으로 구성된 위석식목곽圍石式木槨이다. 부장품은 말갑옷과 그 좌우로 화살통과 화살촉, 등자, 금동제안교 등의 마구馬具, 금동제허리띠, 로마유리기인 반점문완, 창녕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M3호분은 5세기 후엽에 M1호분의 서쪽에 접하여 조영되었다. 석곽은 주부곽으로 구성된 위석식목곽이다. 종래 옥전고분군에서는 창녕산토기와 함께 신라산 금동제 위신재가 부장되었으나, M3호분에서는 대가야산 토기, 금동제용봉문환두대도, 금동제갑주, 마구, 철제무구, 무기가 부장된다. 이는 대가야가 황강 하구를 통하여 낙동강 이동 지역과 교섭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옥전집단 즉 다라국에 대해 대가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

M4호분은 5세기 말에 M3호분의 서쪽에 접하여 조영되었다. 수혈식석곽은 평면 세

장방형이며 서쪽에 유물 부장칸, 동쪽에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 부분이 도굴 당했으나 대가야산 용봉문환두대도龍鳳文環頭大刀, 금제수식부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M3호분 단계까지 축조되던 목곽묘가 사라지고 지산동고분군에 보이는 세장방형 석곽이 축조된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 한층 대가야 왕권과 다라국 왕권과의 결합이 엿보인다.

M6호분은 6세기 초에 M4호분의 북서쪽에 접하여 조영되었다. 수혈식석곽이며, 금동제출자형관과, 은제관, 금제수식부이식, 용봉문환두대도龍鳳文環頭大刀, 금동제마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신라양식의 금동제출자형관과 심엽형행엽이 부장되었으나, 이 시기 대가야 금공품에 신라의 영향이 엿보이기 때문에 제작지는 고령지역으로 판단된다.

M10호분은 M6호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6세기 전엽의 횡구식석실분으로 횡구부는 1단으로 문지방석을 놓고 할석을 쌓아 폐쇄하였다.

M11호분은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고분으로 6세기 중엽에 조영된 횡혈식석실분이다. 금

도 15 합천 옥전고분군 출토유물(1·2.M3호분 3.M2호분 4.M4호분)

제수식부이식, 식리飾履, 은제대장식구帶裝飾具와 목관 부속구인 연판蓮瓣장식, 금으로 장식한 못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다라국 마지막 왕의 무덤으로 석실 구조가 공주의 송산리식 횡혈식석실분 계통이고 장신구와 목관 장식구에도 백제 양식의 영향이 엿보인다.

옥전고분군은 4세기 전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적석목곽-위석식목곽-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으로의 묘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고분군의 발굴을 계기로 문헌에 나타나는 다라국多羅國이 옥전고분군을 중심으로 황강 하류역에 실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도 15). 다라국은 출토 유물로 볼 때 교통의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매개로한 교역 특히 낙동강 이동 지역과 가야 내륙지역 그리고 백제 지역을 연결하는 중계 교역과 교섭이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나 한편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가야와 신라와 같은 외부세력으로부터 영향과 견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다라국의 왕릉은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나 150여년에 걸쳐 조영된 확실한 왕릉의 축조과정에서 그 입지와 매장주체부의 구조, 부장품에서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같은 격절성을 띠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다라국 왕권의 한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본다.

6세기 후엽 옥전고분군이 위치하는 구릉 정상부의 동북쪽 사면에서 경주 방내리고분군과 유사한 신라형 횡혈식석실인 M28호분이 축조되어 다라국의 멸망을 알 수 있다.

## 기문

호남 동부지역은 호남정맥에 의해 자연지형상 영산강유역에 형성된 서쪽 해안의 평야지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산악지대이나 섬진강 수계와 금강 수계를 통하여 바다와 내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5세기 후반 기문의 중심지로 비정되는 남원의 운봉 아영지역에는 남원 월산리고분군을 비롯한 대가야식 고총이 출현한다. 이는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가 남해안의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호남 동부지역과 관계를 형성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6세기 전반에는 남원 초촌리고분군을 비롯한 백제식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백제산성이 출현한다. 이는 한강유역을 상실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가야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호남 동부지역을 공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일본서기』에 보이는 이른바 임나사현任那四縣과 기문己汶, 대사帶沙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의 공방이다.

필자는 기문이 보이는 양직공도가 만들어진 530년대에는 상기문만이 보이는 점에서 기문은 크게 상하로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하기문인 남원분지는 이미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상기문만이 남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남강수계의 남원 아영지역은 호남북부지역 최대의 고총군인 월산리와 두락리고분군이 위치한다. 한편 인접한 운봉분지에는 소규모 고분군이 분포한다. 그래서 아영분지의 세력이 두 분지를 통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박천수 1995).

금강 수계의 장수지역은 장수분지와 장계분지로 구성되며 전자에는 동촌리고분군, 후자에는 삼봉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섬진강 수계의 임실 금성리고분군에서도 봉토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 기문에서 상기문에 해당하는 아영분지의 월산리·두락리 축조세력이 고분군의 규모에서 탁월성은 인정되지만 같은 상기문에 해당하는 장수지역에도 그에 필적하는 고분군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원 두락리고분군 조영세력을 주축으로 분지를 초월하여 여러 분지가 하나의 단위로서 결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야와 각각 개별적인 상하 관계 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상정된다. 또한 장수분지와 장계분지에는 고분군의 규모차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두 지역 세력이 병립한 것으로 본다.

하기문에 해당하는 섬진강 수계의 남원분지는 앞의 두 지역에 비해 고총의 존재가 현저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4세기 남원지역에 최초로 이입된 가야토기는 아라가야 토기로서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아영지역 출토 승석문호와 노형기대 등이 있다. 이 시기 남원지역의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을 통해 이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이 아라가야와의 관계망과 연계된 것은 공주 남산리고분군 출토 승석문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강과 금강을 연결하는 중계 역할을 담당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5세기 전엽 남강 상류역의 남원 광평리고분군, 청계리고분군 출토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발형기대는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토기로서 영남지방의 소가야토기 분포권 성립과 궤를 같이 한다.

5세기 중엽 월산리 M1호분의 묘제도 소가야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이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꺾쇠와 관정으로 결합한 목관을 안치한 세장방형석곽과 같은 대가야형 묘제이지만, M1-A호곽을 중심으로 동쪽에 6기의 중소형의 B-G곽이 연차적으로 봉토를 연접하여 축조된 다곽분인 점이 주목된다. 아직 전시기 이 지역 수장묘가 조사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지만 5세기 중엽 고성지역과 같은 소가야식 묘제가 남원지역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남원지역도 소가야의 묘제와 토기양식이 도입된 것으로 볼 때 소가야연합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곽인 M1-A호곽에서는 대가야형 묘제와 함께 대가야산 토기, 갑주, 무기가 확인되었으며, 월산리 M5·6호분에서는 대가야산 금제수식부이식이 부장되었다. 대가야산 이식은 5세기 후반 함양 백천리고분군, 장수 봉서리고분군, 고성 방송리고분군, 순천 운평리고분군 출토품으로 볼 때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묘제와 함께 대가야권역에 분포하는 위신재이다(도 16).

5세기 후엽 월산리 M5호분 출토 중국 남조산의 청자계수호가 출토되었다. 계수호는 이제까지 천안 용원리 9호분, 공주 수촌리 4호분과 같이 백제지역에서 확인된 바가 있으나, 가야지역인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는 절강성浙江省 서안瑞安 융산隆山 송宋 대명大明5년(461년) 묘 출토품과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백제를 통하여 이입된 것으로 보고있다(박순발 2012).

도 16 5세기 후엽 기문국의 유력 수장묘와 출토 대가야산 수식부이식(남원 월산리M5·6호분)

그러나 필자는 백제지역 출토 계수호의 연대가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인 점, 중국 남조산 도자기가 출토된 지역이 모두 백제 영역 내에 속하나, 이 지역만이 대가야 권역에 포함된 점에서 대가야 왕권에 의해 이 지역 수장에게 사여된 것으로 본다. 이는 부장시점이 479년 대가야의 남제南齊 견사遣使가 이루어진 직후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475년 한성漢城이 함락에 의해 일시기 멸망에 빠진 백제가 과연 이 시기 남원지역 수장에게 이를 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백제와 남조와의 교섭이 단절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월산리 M5호분 출토 중국 남조산의 청자 계수호는 대가야의 남제 견사 또는 직전의 남조와의 교섭에 이입된 것으로, 동아시아세계에 대가야가 등장했음을 웅변하는 문물로 본다(도 17).

5세기 말에 남원 두락리 32호분은 주곽과 부곽이 좌우로 병렬되게 배치된 구조이다. 주곽에서는 중국산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과 백제산 금동제식리飾履가 부장되었으며, 부곽에서는 대가야산 발형기대가 13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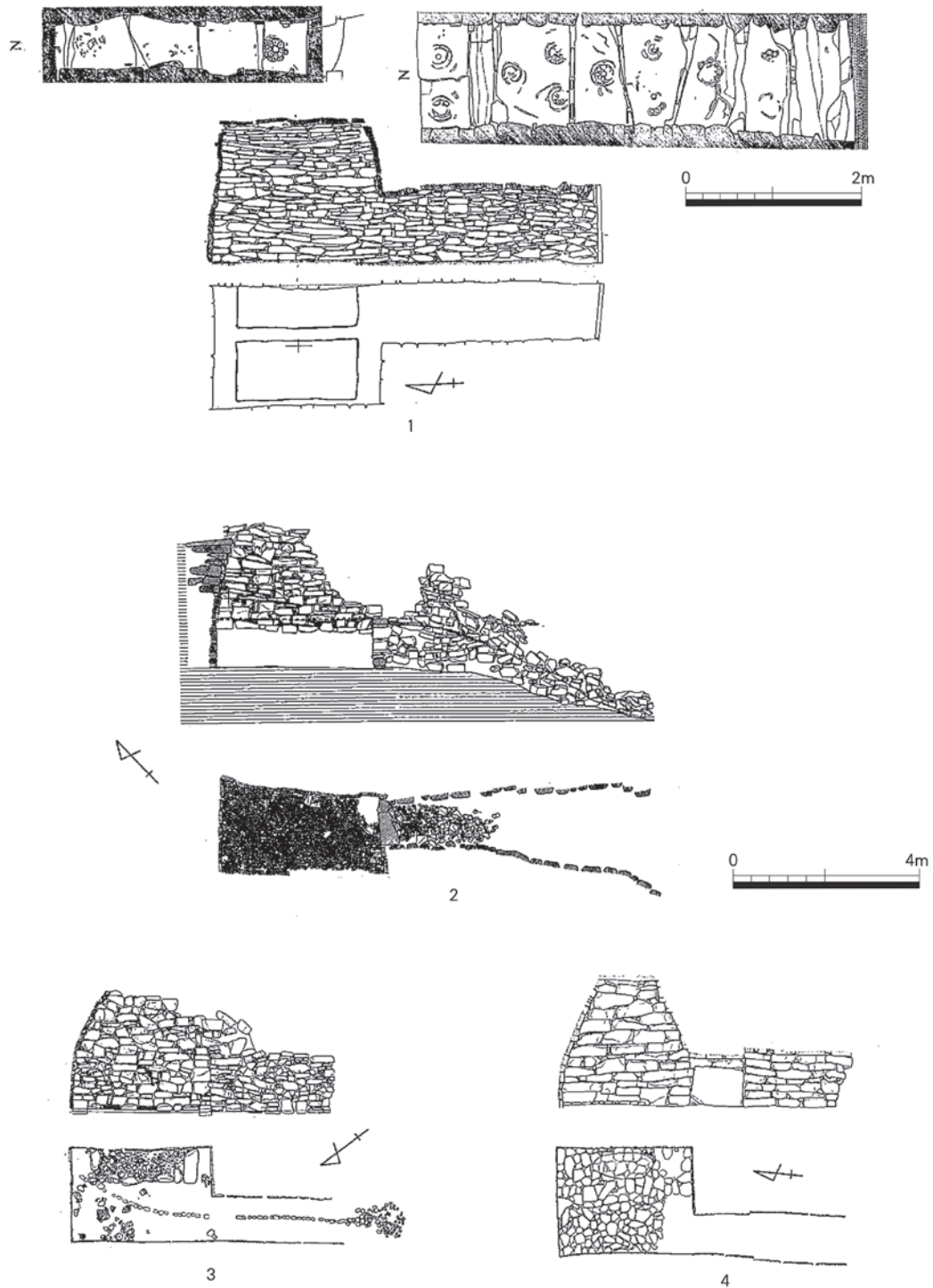
같은 시기에 조영된 산청 생초 M13호분도 주곽과 부곽이 좌우로 병렬되게 배치되된 구조이며, 대가야산 용봉문환두대도와 발형기대가 16점 출토되었으며, 고령군 본관동 36호분도 주곽과 부곽이 좌우로 병렬되게 배치된 구조이다.

이 세 고분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다른 지역에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토, 주·부곽의 규모와 배치가 매우 흡사하다. 특히 고령 본관동 36호분과 규모와 구조가 유사한 점은 두락리 32호분과 생초 M13호분이 대가야 묘제의 축조 기획에 따라 조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고분에서 고령지역에서 제작·이입되어 부장된 발형기대의 개수도 유사한 것에서도 방증된다. 생초 M13호분은 중국제와 백제산 위신재는 보이지 않지만 대가야산 금동제용봉문대도가 부장되었다. 이 생초 M13호분과 본관동 36호분은 대가야권역의 제3등급인 상위수장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의자손수대경과 금동제식리는 묘제와 그 외 대부분의 부장품이 대가야양식인 점에서, 대가야 중앙정권을 통해 사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6세기 중엽 횡혈식석실분인 두락리 2호분은 평면 형태와 규격이 합천 저포리 D지구 1-1호 석실분과 유사하다. 이 두 고분도 제3등급인 상위수장에 해당한다(도 18).

이상으로 볼 때 기문국은 대가야왕권이 지방의 수장을 편제하고 통제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로 보기 어렵다.

기문이 대가야와 관련된 것은 그 멸망시기인 562년을 전후하여 신라에 병합되는 점

도 17 5세기 후엽 기문국의 유력 수장묘 출토 남조산 청자 계수호(남원 월산리M5호분)

**도 18** 6세기 중엽 대가야식 횡혈식석실과 위계
**1.**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2.**합천 옥전 M11호분 **3.**합천 저포리 D지구 1-1호 **4.**남원 두락리 2호분

에 있다. 이는 대가야의 고아동유형 석실인 두락리 2호분에 6세기 후엽 이후 추가장되면서 신라형 대장식구가 부장된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문은 대가야권역의 일원으로 대가야와 성쇠를 같이하였다.

### 비사벌

비사벌은 낙동강 중류역 동안의 화왕산 산록의 창녕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였다. 창녕지역은 북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지를 경계로 현풍지역, 서북쪽으로는 낙동강과 합류하는 회천 하구를 마주보면서 고령지역, 서쪽으로는 황강 하구를 마주보면서 합천지역, 서남쪽으로는 남강 하구를 마주보면서 의령지역,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함안지역과 접하고 있다.

창녕지역의 낙동강을 통한 수로활동이 활발하였음이 남쪽 낙동강에 면한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환목주丸木舟가 출토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비봉리유적에서는 해수성 조개가 출토되어 해수의 영향이 이 지역까지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창녕지역 4세기 토기양식은 고배, 노형토기, 승석문호의 형식으로 볼 때 넓게 보아 낙동강유역 양식으로, 좁게 보아 아라가야 양식으로 파악된다. 이는 창녕지역 집단이 낙동강을 매개로 남강 하구와 황강 하구, 회천 하구를 통하여 가야세력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엽 창녕 송현동 7호분의 녹나무제 주형舟形 목관은 일본열도산 녹나무제 선재船材를 목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낙동강을 통한 창녕세력의 교역활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창녕산 토기의 김해, 창원지역으로의 유입으로 볼 때 낙동강을 통한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사벌국의 범위는 서쪽과 남쪽은 낙동강에, 동쪽은 산지에 면하고 있으며 북쪽은 현풍지역을 관류하는 차천과 우포늪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하는 토평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현풍 정녕리와 창녕 십이리 일대의 현재 도계道界를 형성하는 나지막한 산지가 경계이다. 그리고 밀양 신안리, 미전리, 사포리고분군 등에서 창녕양식 토기가 일정 비율로 부장된 것에서 밀양강 수계도 그 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5세기 전반의 청도천, 밀양강 수계의 유적 발굴이 기대된다.

4·5세기 전반의 중심지는 남쪽의 영산지역이다. 영산지역의 중심인 계성고분군은 봉토 직경 20m 이상 되는 대형분 10여기를 중심으로 조영되었다. 남북으로 형성된 3곳의 구릉 위에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5세기 중엽부터 남쪽의 계성고분군에 조영되던 대형분이 북쪽의 교동고분군에서도 조영되는데, 이는 5세기 전반까지 그 중심지가 남쪽이었으나 새롭게 북쪽이 중심지로 대두하는 것을 보여준다.

교동고분군은 인접한 송현동고분군도 연결되는 같은 고분군으로 본다. 이 고분군은 크게 3군으로 구분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교동 7호분이 중심을 이루는 1군, 교동 89호분이 중심을 이루는 2군, 송현동 6·7호분이 중심을 이루는 3군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창녕지역은 중심고분군에 2기의 최고 수장묘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점에서 탁

월한 왕권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창녕양식 토기는 4세기 말 다라국 왕묘인 옥전 23호묘에는 창녕산 토기가 확인되며, 이 고분의 신라산 문물, 백제계 문물은 쌍책의 다라세력이 황강 상류를 통해 가야내륙을 비롯한 낙동강 이서지역과 그 이동지역을 연결하는 중계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시기 쌍책지역의 창녕산 토기와 신라산 문물의 존재는 다라의 낙동강 이동지역의 교섭 창구가 창녕지역인 것과 이 지역 세력이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이서지역을 연결하는 다라국과 같은 중계역할을 담당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옥전 23호묘 출토 상하일렬투창고배의 대다수는 창녕산으로, 이 고배는 김해지역의 예안리 117호묘 고배와 옥전 재지의 고배에 비해 뚜껑받이 턱이 'U'자형에 가깝게 깊게 파인 것이 특징이다. 또 옥전 23호묘의 창녕산 고배는 김해지역산에 비해 기고에 비해 배신 지름의 비율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옥전 재지고배는 배신이 얕고 대각이 팔자형이며 각단이 곡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특징인 점에서 창녕산 고배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부산시 가달 5호묘 출토 토기는 고배를 비롯한 모든 기종이 창녕양식이다.

그런데 필자가 상하일렬투창고배를 비롯한 이러한 토기군을 창녕양식으로 설정(박천수 2001)한 이래 반론이 제기되어왔다. 조성원은 필자가 제기한 김해 가달고분군 출토품 등 낙동강 하류역의 이 시기의 토기를 창녕양식을 설정할 수 없고 범영남식 창녕산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기하였다(조성원 2010). 필자는 낙동강 하류역 김해·부산지역과 창녕지역에는 유사한 형식의 장각의 상하일렬투창고배가 있었으나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고배과 뚜껑의 형식에서 낙동강 하류역과 구별되는 형식이 출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필자가 설정한 창녕양식은 조성원이 설정한 것처럼 범영남식 창녕산으로 볼 수 없다.

그 후 창녕지역에 인접한 청도 성곡리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도 19). 특히 결정적인 것은 창녕 동리고분군에서 이러한 형식의 고배가 다수 출토되어 낙동강 하류역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이 형식의 고배가 창녕산 또는 재지산 창녕양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도 20).

4세기 말 창녕군 계성리 8호 수혈주거지 출토품은 대형복합구연호는 서부 세토우치瀨內海계 또는 기나이畿內계 토기로 파악되고 있다(井上主稅 2008). 계성리 8호주거지는 사주식 방형주거지로 호남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외래로부터의 이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세기 초에도 이 지역 토기양식은 여전히 가야양식의 범주에 속하면서 창녕지역의 특징적인 양식이 출현한다. 이 시기의 옥전 35호묘에는 재지산 토기와 함께 수 점의 창녕산 토기,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옥전 35호묘에서는 경주산 편원어미형행엽과 장봉철모長鋒鐵鉾, 고령산 금제수식부이식, 단봉문상감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옥전 35호묘의 창녕, 경주산 문물과 대가야, 소가야 문물의 존재는 다라국이 황강 상류를 통해 가야내륙을 비롯한 낙동강 이서지역과 신라를 연결하는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5세기 중엽 교동 3호분에서는 신라의 마구·무기와 함께 삼각판횡장판병용정결판갑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창원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에서는 5세기 전엽 105호묘, 5세기 중엽 115호묘, 5

도 19 청도군 봉기리·성곡리고분군 출토품으로 본 창녕양식토기와 그 변화
1·2. 봉기리4호목곽묘 3. 봉기리2호목곽묘 4·5. 성곡리 나1호목곽묘 6. 성곡리 가25호석곽묘 7-10. 성곡리 가47호석곽묘
11-14. 성곡리 가34호석곽묘 15-18. 성곡리 가21호석곽묘 19-22. 성곡리 가18호석곽묘

**도 20** 5세기 전반 창녕양식 토기(**1~7.**창녕 동리고분 **8.**창녕 계남리 1호분)

세기 후엽 6호 석곽묘에서 좌우 비대칭형인 경주형 철정이 이입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철정이 5세기 중엽 창녕 계남리 1호분에 보이고 이 고분군을 비롯하여 마산만에 면한 창원지역에는 다수의 창녕양식 토기가 이입되고 또한 현지에서 모방 제작된다. 그래서 창녕세력이 신라의 철소재를 수입하여 소가야와 교역한 것으로 본다.

5세기 전엽 통영 남평리고분군에서는 소가야식 다곽분이 축조된다. 10호분은 원형의 주구내에 4기의 목곽이 조영되었으며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창녕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창녕양식 토기가 소가야양식 토기와 같이 해남지역에 걸친 남해안 일대 전역에 출토되는 것이 주목된다. 양자는 창녕양식 토기가 마산 현동 64호묘, 합성동 77호묘, 함안 오곡리 (경)11호묘, 진해 석동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등에서 소가야양식 토기와 공반된다. 이는 창녕세력이 낙동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한편 소가야세력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본다(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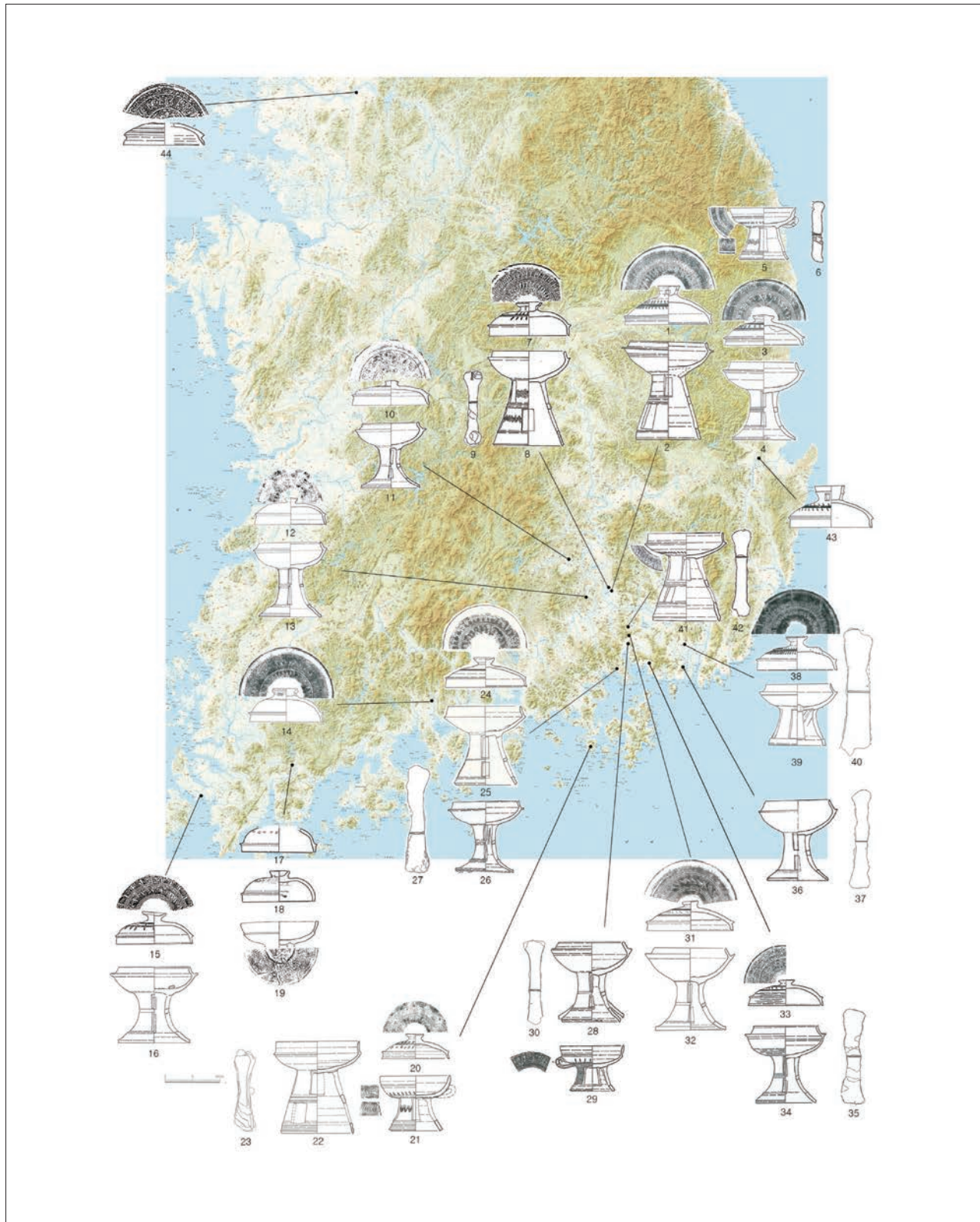
더욱이 이 시기 창녕산 토기가 나가사키현長崎県 미시마箕島1호분, 돗토리현鳥取県 나가세타카하마長瀨高浜유적, 시마네현島根県 미타카타니弥陀ヶ谷유적, 시마네현 이주모코쿠후出雲国府유적, 교토부京都府 나구오카키타奈具岡北1호분, 니이카타현新潟県 미야노이리宮ノ入유적, 오카야마현岡山県 사이토미齋富유적, 나라현奈良県 오미야大宮신사, 미에현三重県 다이니치야마大日山 1호분의 제사유적 등 동해와 면한 세토나이카이瀨戶内海에 면한 일본열도에서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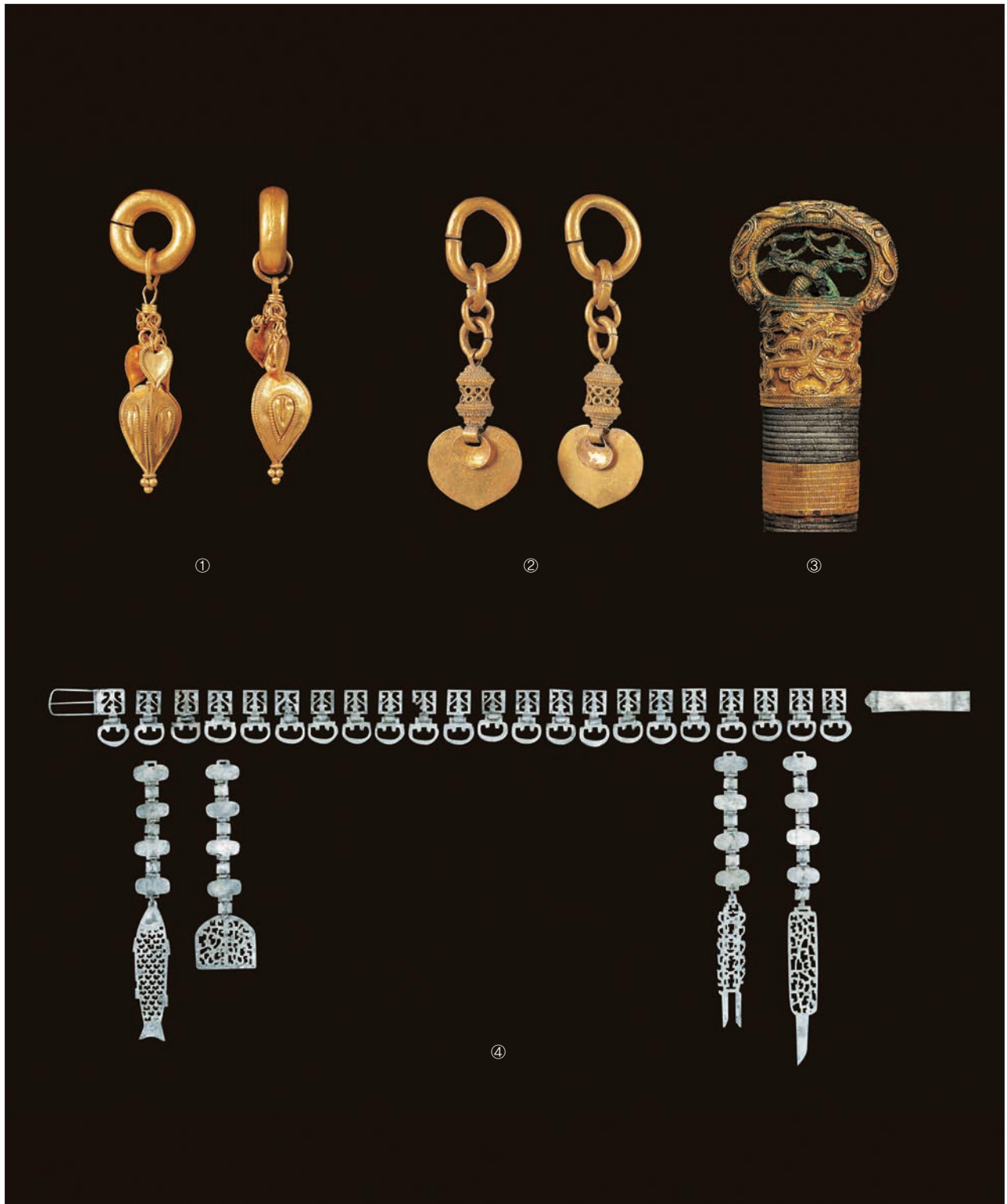
그리고 5세기 말 창녕군 송현동 7호분에서는 선재船材를 전용한 목관이 출토되었다. 목관은 직경 1m이상 녹나무 원목의 속을 파내어 만든 준구조선의 바닥재를 전용한 것이다. 일본열도의 선박이 이 지역에 도달한 후 목관재로 전용된 것이다. 같은 시기 교동 89호분의 직호문녹각장검直弧文鹿角裝劍은 일본열도산이다.

비사벌의 창녕지역은 거대 고총이 소재하며 가야에 속하는지 신라에 병합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532년 신라에 복속된 것이 분명한 금관가야의 토기양식은 신라양식과 같이 보이지만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을 융합한 독자적인 양상이 보인다. 이는 금관가야양식 보다 더욱 독자적인 양상을 보이며 가야지역으로 활발하게 이입되는 창녕양식 토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즉 창녕지역은 5세기대 신라에 복속된 문헌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6세기가 되어서야 신라에 복속되는 금관가야 보다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녕지역양식 토기는 금관가야와 소가야권 전역에 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이입되고 토기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4세기 아라가야양식,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5세기 후반 대가야양식과 같은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에서 이미 인식되는 바와 같이 분명한 정치 경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0년 이상에 걸친 창녕양식 토기의 생산과 유통은 비사벌의 활동과 위상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비사벌은 금관가야와 소가야권역에서 창녕산 토기와 함께 신라형 철정이 동반하고, 다라국의 옥전고분군에 신라로부터 들어온 로마유리기가 창녕산 토기와 공반하는 점에서, 신라와 낙동강 대안의 다라국, 낙동강 하류역의 금관가야, 남해안의 소가야

**도 21** 창녕양식 토기와 철정의 분포(5세기 전반)

**1-6.**창녕동리고분군 **7-9.**창녕계남리1호분 **10·11.**합천옥전23호묘 **12·13.**의령유곡리고분군 **14.**여수화장동주거지 **15·16.**해남일평리토성 **17.**장흥상방촌A3호주구묘 **18.**상방촌A나2-3호주거지 **19.**상방촌B13호주구 **20-23.**통영남평리10호분 **24-27.**마산현동(동)103,(창)64호묘 **28-30.**마산합성동고분군 **31·32.**창원도계동39호목곽묘 **33-35.**진해석동 **36·37.**부산가달4호묘 **38-40.**김해대성동73호묘 **41·42.**창원동전리고분군 **43.**경주안계리4호분 **44.**서울풍납토성경당지구

도 22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출토유물

1.교동31호분 2.송현동7호분 3.교동10호분 4.교동7호분

를 연결하는 철소재를 비롯한 중계 교역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도 21).

그래서 창녕지역과 마주보는 낙동강 서안의 황강 하구에 위치하며 상호 교류를 행해 온 합천 쌍책지역과 낙동강 하류역의 금관가야, 소가야와의 관계로 볼 때, 창녕지역 토기양식이 소멸되고 각지에 이입되던 이 지역 토기가 반출되지 않은 시점 즉 5세기 후엽이야말로 창녕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시기로 생각한다. 이는 낙동강 서안에서 창녕지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합천 다라국 세력의 활동이 대가야에 의해 통제되는 5세기 후엽과 같이 연동하는 시기인 점에서 더욱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가야의 국가형성과 문명文明의 역사적 의의

가야 전기는 토기양식과 그 분포로 볼 때 고 김해만을 중심으로 그 배후의 진영일대, 진해, 창원, 동래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한 일본열도와 교섭의 중심지인 금관가야와 남강 하류역에 면한 함안분지와 남해안에 면한 진동지역을 중심으로 남강 수계, 황강 수계, 섬진강 수계, 남해안 일대에 광역 관계망을 형성한 아라가야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기에는 토기양식과 위신재로 볼 때 김해 구야국과 동래 거칠산국이 연합한 소국연합이 출현한다. 연합의 동인은 일본열도산 위신재와 하지기계土師器系토기가 두 지역에 다수 확인되는 것에서 일본열도와의 철을 중심으로 한 교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라의 성장으로 인한 압박도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가야 후기는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아라가야가 일시적으로 쇠퇴하는 5세기 초를 기점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남해안의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가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호남 동부지역에 걸친 광역 관계망을 형성한다. 5세기 중엽 이후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성장하여 남강 상류역, 금강 상류역, 황강 수계, 섬진강 수계, 남해안 일대에 걸친 대권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후기의 금관가야는 5세기 토기양식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멸망한 것으로 보거나, 일부가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532년 멸망하였다는 문헌기록을 무시하고 신라의 발전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본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5세기대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의 영향을 받아 융합한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기양식에 신라의 영향이 보이는 점은 400년 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금관가야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곧바로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가야권역에 종래 토기양식이 복잡하여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마산만에 면한 창원분지와 구 마산지역의 덕동만일대를 포함시켰다. 덕동만에 면한 현동고분군과 마산만에 위치한 합성동고분군에서는 1세기에 걸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제작·사용되고 고총이 축조되는 중심지가 존재한 것에서 양 지역을 소가야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으로 보았다. 소가야와 창녕의 철소재의 교역 창구를 담당한 것은 철정의 부장이 탁월한 점과 교통로를 고려하여 마산만 일대의 세력으로 보았다.

5세기 전반 소가야는 고성을 중심으로, 사천, 마산, 거제, 진주, 합천, 산청지역 일부

를 포괄하는 이전시기 포상팔국을 연합한 광역 소국연합으로 발전한다. 연합의 동인은 신라산 철소재와 일본열도산 스에키須惠器가 다수 확인되는 것에서 남해안과 일본열도와의 철을 중심으로 한 교역으로 판단된다.

비사벌의 창녕지역은 거대 고총이 소재하며 가야에 속하는지 신라에 병합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제까지 신라사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4세기 말에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532년 신라에 복속된 것이 분명한 금관가야의 토기양식은 신라양식과 같이 보이지만 창녕양식과 신라양식을 융합한 독자적인 양상이 보인다. 창녕지역은 5세기대 신라에 복속된 문헌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6세기가 되어서야 신라에 복속되는 금관가야 보다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녕지역양식 토기는 금관가야와 소가야권 전역에 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이입되고 토기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사벌은 신라와 가야사이의 완충지대적인 국이었다고 생각한다. 고대 국간의 관계를 현대 국가간의 관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가야 후기의 중심세력인 대가야는 비록 가야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으나 백제와의 교통로의 요충인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 형성된 금강수계의 진안고원부터 남해안의 최대의 요충인 여수반도까지를 영유하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한 국가였다.

고령지역의 왕릉인 지산동고분군은 6세기 신라의 왕릉인 서악동고분군과 조영원리가 유사하고, 왕성의 부속성인 주산성은 백제의 부소산성과 입지와 규모가 흡사한 점에서 대가야가 백제, 신라와 같은 사회발전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웅변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6세기 전엽 대가야는 왕도인 고령과 인접한 합천읍, 봉산면 일대를 하부下部로 편제하여 왕기王畿로 삼았으며 그 권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하였다. 이는『일본서기』계체繼體 23년조(529년) 대가야왕이 하동지역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과 신라의 왕녀를 여러 현에 분산시켰다는 기사로 볼 때 영역관념의 형성과 그 내부를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한 것을 알 수 있다.

514년 대가야가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공격하고 또 섬진강 하구에서 군사를 일으켜 왜를 공격하였다는 기사와, 553년 대가야가 백제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한 기사는 대가야가 대외 전쟁에 권역 내의 병사와 무기를 징발하여 신라, 왜와 교전할 수 있는 군사권을 확립한 사실을 보여주며, 더욱이 대가야군의 작전 범위가 금강 수계, 섬진강 하구에 걸치는 광범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가야의 거점 성곽인 주산성은 신라, 백제의 거점 성곽에 필적할 정도의 축성기술과 규모를 보이고 있어 대가야의 국력을 알 수 있다. 이 주산성을 중심으로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15기 전후의 산성이 축조되고 나아가 낙동강 중류역 서안에 성곽에 의한 방어망이 형성된다. 이처럼 6세기 초를 전후하여 고령분지, 합천지역 및 의령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중류역에 걸쳐 대가야식 산성이 연계하여 집중 조영된 것에서, 대가야는 그 권역 내의 민民을 동원할 수 있는 역역체제力役體制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명문환두대도, 창녕군 교동11호분 출토 명문환두대도, 하부명

단경호, 대왕명장경호 등으로 볼 때 대가야에서 문자의 사용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산청 하촌리 취락유적에서 이득지二得知라는 인명이 새겨진 파수부완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파수부완은 왕성과 수장거관이 아닌 하위 취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는 문자의 사용이 일반 촌락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화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근래 발견된 고령 송림리요 출토 연화문전은 고아동 벽화고분에 보이는 연화문과 함께 대가야에 불교적 세계관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등종교인 불교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도 23). 이는 최근 주산성에서 승려인물문 전이 출토된 것에서도 그러하다. 장차 고령지역에서 불교와 관련된 사원지의 조사가 기대된다.

대가야권역은 토기, 철과 같은 필수 물자와 금동제용봉문환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와 같은 위신재의 생산과 유통으로 보아 호남 동부지역까지 지배 복속 관계로 이루어진 동일한 정치·경제권으로 본다.

특히 5·6세기 가야 제국 가운데 독자적인 의장의 금공품을 제작한 곳은 대가야가 유일하며 특히 고령에서 제작된 금동제용봉문환두대도, 금제수식부이식, 금동제마구는 가야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이입되었다. 현재 확인된 대가야산 금공품은 금관 2점, 금동관 5점, 또한 금동제용봉문환두대도는 49점, 금제수식부이식은 229점에 달한다. 그 외 금동제마구도 다수 확인된다. 수백 점에 달하는 화려한 대가야의 금공품과 이를 통한 위신재 체계는 백제, 신라에 필적하는 독자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가야산 금공품의 수량은 신라에는 필적할 수 없으나 백제산 금공품의 수량을 웃도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대가야의 금공품은 신라와 백제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독자

도 23 대가야의 불교적 세계관의 도입(**좌.**고령 고아동벽화고분 **우.**고령 송림리요지 출토 연화문전)

적인 양식이다. 더욱이 고령에서 성주로 연결되는 금광맥이 존재하고, 현대까지 활발하게 채굴된 점에서 금광의 개발을 통한 금공품 생산과 유통이 대가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의 장신구는 단순히 신체를 장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도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특히 금제, 금동제의 장신구는 착장자의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관모, 이식, 대장식구를 제작하여 일본열도에 수출하였다. 당시 왜가 대가야산의 장신구를 수용한 것은 대가야와 왜와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5세기 후반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화는 4세기에 금관가야가 전해 준 철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금제, 금동제장신구, 금동제마구를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 국가 경쟁력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대가야는 당시 왜가 원했던 말과 그 사육방법을 전해 준 점, 더욱이 국가체제의 정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문자의 사용을 본격화 시킨 점에서 대가야 문화는 일본열도의 문명화의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야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4세기에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보이는 변한의 소국이 분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2·3세기의 소국단계에서, 김해 구야국과 동래 거칠산국이 연합하는 소국연합단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양자 간 관계는 구야국이 우월하나 거칠산국을 압도하는 세력으로 볼 수 없다.

5세기 전반에는 고성의 소가야를 중심으로 남해안일대의 이전 시기의 포상팔국과 같은 광역 소국연합단계로 발전한다. 이는 연합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구성국간의 분명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다.

5세기 후반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한 그 권역의 범위가 넓으며 그 내부 구조가 명확한 상하관계가 확립되고 영역지배화가 이루어졌다(박천수 2016).

근래 제기된 사국시대론은 삼국시대가 신라의 인식에 기원한 고려시대의 역사인식이며, 엄밀한 의미의 삼국시대는 가야멸망후인 562년부터 668년까지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야는 적어도 4~6세기의 260여 년(300~562년)동안 엄연히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활동하였다는 보았다(김태식 2014:129-131). 그럼에도 사국시대의 근거로서 신라, 백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논한바와 같이 특히 대가야는 독자적인 문명과 불교라는 고등 종교의 도입, 광범위한 영역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권, 479년 중국 남제로의 견사(도 24), 문자의 사용, 왜와의 교섭에서 확인되는 외교권, 그리고 산성의 축조에서 파악되는 역역동원 체제를 갖추었다. 규모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신라, 백제에 필적하는 고대국가단계로서 나아가 신라,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도 25).

가야가 국제세계에서도 독립된 정치체로 활동한 것은 광개토왕비, 『송서』, 『남제서』, 『일본서기』에서 잘 확인된다. 특히 『일본서기』에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백

도 24 대가야의 남제 견사(남제서와 남조 황제릉)

①

②

③

도 25 대가야의 금제·금동제위신재(1·2. 도쿄국립박물관　3. 합천 옥전M3호분)

제, 신라와 나란한 국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대가야가 대두한 400년 이래 멸망하는 562년까지 신라와 국경을 형성하였음에도 1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라가 그 국경인 낙동강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대가야가 국경에 체계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침공에 대비한 국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삼국시대인 가야 멸망 후 562년부터 668년까지 100여 년에 지나지 않으며,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대가야가 신라와 대치하는 국경선을 형성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제가 대가야와의 국경인 고흥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길두리 안동고분이 5세기 전엽 축조되는 것에서 그 피장자가 활동하는 5세기 초로 보인다. 백제가 대가야권역인 섬진강 수계인 기문과 대사, 임라사현에 공략을 개시하는 것은 6세기 전엽으로, 1세기 정도 백제와도 국경을 형성한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1세기 이상 국경을 형성하며 국권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문명을 창출하였다. 사국시대는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앞으로 고고학에 의한 가야의 역사와 문명의 정당한 평가를 통한 사국시대의 확정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문**


郭長根, 1999,『湖南東部地域石槨墓의 硏究』, 서경문화사.

_____, 2010,「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백제문화』4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1,「전북지역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한국고대사연구』63, 한한국고대사학회.

김규운, 2009,『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대학원.

김용성, 2009, 「창녕지역 고총 묘제의 특성과 의의」,『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김용성, 2013,『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순장과 사후세계』, 대구, 경상북도.

김재홍, 2012,「전북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17,「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성격」,『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김태식, 1985,「5세기 후반 대가야의 발전에 대한 연구」,『한국사론』12, 서울대국사학과.

_____, 1993,『가야문명사』, 일조각.

_____, 2002,『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2,3, 푸른역사.

_____, 2004,「가야, 가야 사람, 가야 역사」,『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혜안.

_____, 2014,『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吉井秀夫, 2000,「대가야계 수혈식석곽분의 목관 구조와 그 성격-못, 꺾쇠의 분석을 중심으로-」,『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 大邱,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

高久健二, 1992,「綜合考察-鐵製遺物」,『昌寧校洞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남재우, 2003,『安羅國史』, 혜안.

박순발, 2012,「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고분군」,『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朴升圭, 2003,「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韓國考古學報』49, pp.108~110, 한국고고학회.

박영민, 2012,『4-6세기 금관가야의 읍락 구성』,(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박천수, 1990,『5-6세기대 창녕지역 도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_____, 1993,「三國時代 昌寧地域 集團의 性格硏究」,『嶺南考古學』13, 영남고고학회.

_____, 1995,「정치체의 상호관계로 본 대가야왕권」,『가야제국의 왕권』, 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_____, 1999,「器臺를 통하여 본 伽耶勢力의 動向」,『伽耶의 器臺』, 金海博物館.

_____, 2000,「考古學으로 본 加羅國史」,『가야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_____, 2001,「고고자료를 통해 본 가야시기의 창녕지방」,『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성격』, 창원문화재연구소.

_____, 2004,「가야토기에서 역사를 본다」,『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혜안.

_____, 2007, 『새로쓰는 고대한일교섭사』, 사회평론.

_____,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_____, 2016, 「가야고고학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29), 진인진.

_____, 2018,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권역과 대가야 영역국가의 역사적 의의」,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가야 복원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대구, 계명대학교 인문학연구단 한국학연구원.

_____,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신경철, 1992, 「金海 禮安里160號墳에 대하여」, 『伽耶考古学論叢』1, 駕洛国史蹟開発研究院.

_____, 1989,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1, 부산직할시사 편찬위원회.

_____, 1995, 「金海 大成洞.東來 福泉洞 古墳群 點描-金官加耶이해의 一端-」, 『釜大史學』19, 釜山大學校史學會.

임학종, 2007, 「낙동강 하지류역의 패총문화에 대한 재인식」, 『대동고고』1, 대동문화재연구원.

이성주, 2000, 「분구묘의 인식」, 『한국상고사학보』32, 한국상고사학회.

이영식, 1993, 「창녕 교동 11호분 출토 환두대도명」, 『송갑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송갑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_____, 2017, 『가야제국사 연구』, 생각과 종이.

이용현, 2007, 『가야제국과 동아시아』, 통천문화사.

이주헌, 2000, 「阿羅加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혜안.

李政根,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

이희준, 1998a, 「김해 예안리유적과 신라의 낙동강 서안진출」, 『韓國考古學報』39, 한국고고학회.

_____, 1998b, 『4~5世紀 新羅의 考古學的研究』, (서울大學校文學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_____, 2005, 「4-5세기 창녕지역 정치체의 읍락 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 37, 嶺南考古學會.

_____, 2007, 『신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_____, 2017, 『대가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이형기, 2016, 「대가야의 부체제에 대한 고찰」, 『대가야의 국가발전 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윤온식, 2006, 「4세기대 함안지역 토기의 변천과 영남 지방 토기의 様式論」, 『東垣學術論文集』8,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조성원, 2010, 「고분  출토 고배로 본 5세기 대 낙동강 하류역의 소지역성 연구」, 『영남고고학』55, 영남고고학회.

조영제, 1985, 「水平口緣壺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1, 경상대학교사학과.

_____, 1990, 「三角透窓高杯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7, 嶺南考古學会.

_____, 2000, 「多羅國의 成立에 대한 研究」,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_____, 2002, 「考古學에서 본 大加耶聯盟體論」, 『盟主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 (第8回加耶史學術會議), 金海市.

_____, 2006,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조효식·장주탁, 2016, 「가야의 성곽」, 『가야 고고학개론』 , 진인진.

주보돈, 1995, 「서설-加耶史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_____, 2009, 「문헌상으로 본 고대사회 창녕의 향방」,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_____, 2014, 「가야사 새로 읽기」,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

_____, 2017, 『가야사 새로 읽기』, 주류성.

전상학, 2017,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記念 한국사학논총』, 서울,정음문화사.

정주희, 2008, 『咸安様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대학원.

鄭澄元·洪潽植, 1995, 「昌寧地域의 古墳文化」, 『韓國文化研究』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부산대학교 사학회.

하승철,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慶尙大學校博士學位論文), 慶尙大學校大學院.

_____, 2017,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한국의 고도와 익산』,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홍보식, 2000, 「考古學으로 본 金官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가야』,(한국고고학회학술총서1), 한국고고학회.

_____, 2006, 「토기로 본 가야고분의 전환기적 양상」,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 (제15회 문화재연구학술회의),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일문


穴澤咊光, 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60-4, 日本考古學會.

大平裕, 2013, 『知ていますか任那日本府-韓国がけっして教えない歷史-』任那日本府』, PHP研究所.

定森秀夫, 1981, 「韓國慶尙南道昌寧地域陶質土器の檢討」, 『古代文化』, 33-4, 古代學協會.

朴天秀, 1995, 「渡來系文物からみた加耶と倭における政治的變動」, 『待兼山論叢』史學編29, 大阪大學文學部.

_____, 1998, 「考古学から見た古代の韓·日交涉」, 『青丘学術論集』第12集, 財團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團.
_____, 2001, 「榮山江流域の古墳」『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 I – 墓制』, 東成社.
_____, 2004, 「大加耶と倭」,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10集, 国立歴史民俗博物館.
_____, 2007, 『加耶と倭』, 講談社.
田中俊明, 2001, 「新羅の加耶進出と比斯伐」, 『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성격』, 창원문화재연구소.
金宇大, 2017, 『金工品から読む古代朝鮮と倭』,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도목록】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

# 경남동부
# 부산지역

I. 김해

II. 부산

III.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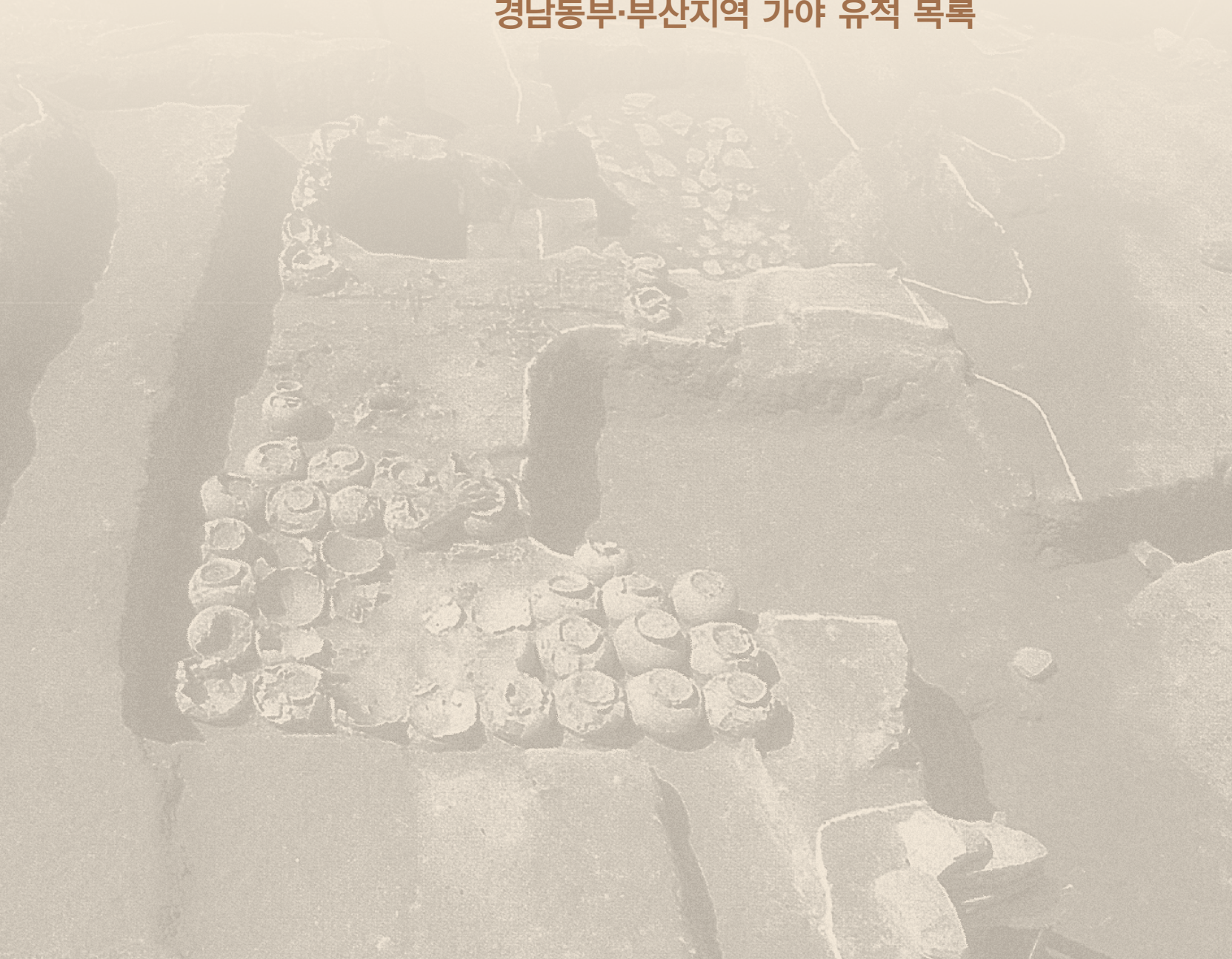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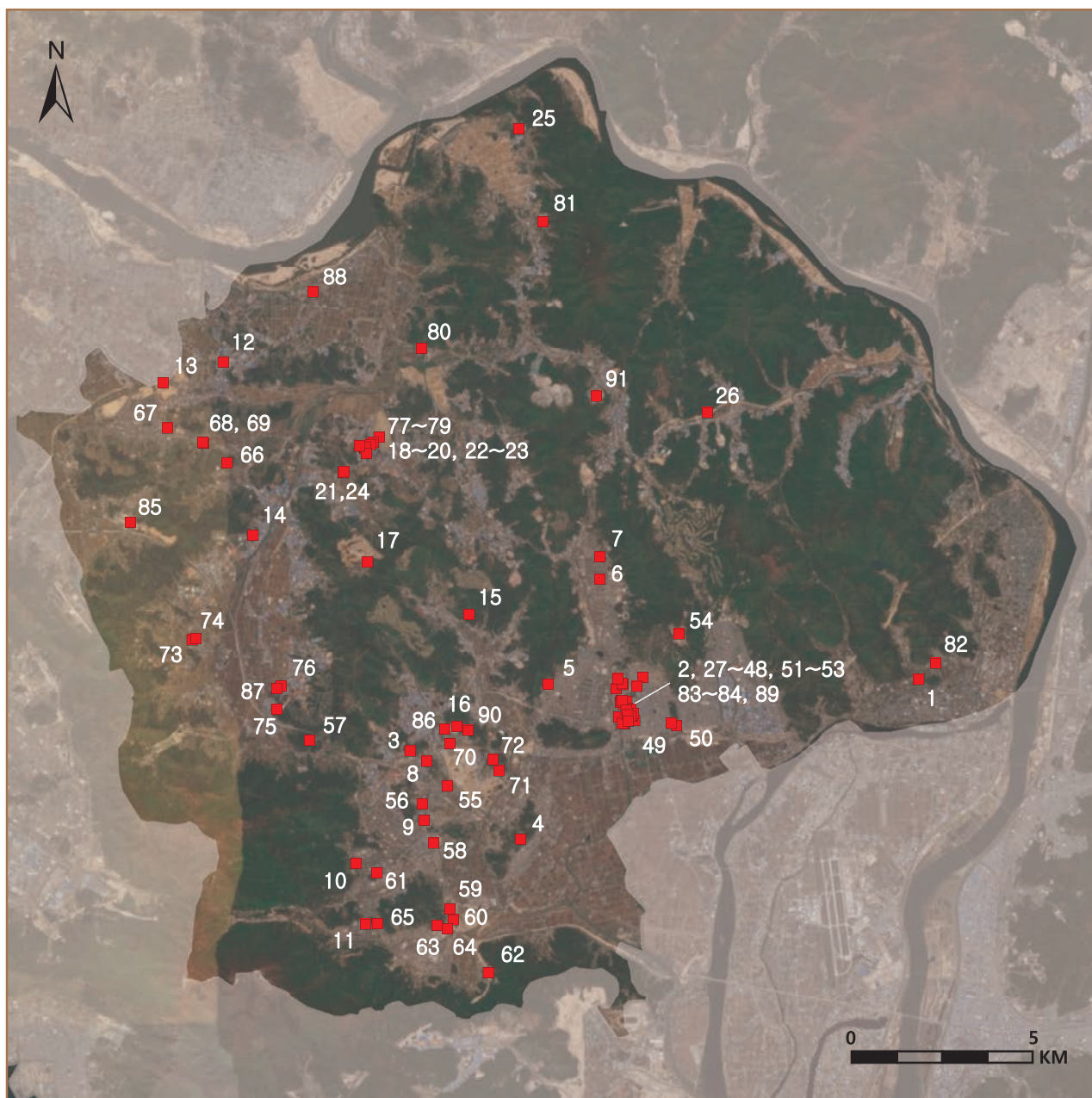
IV. 밀양

#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三浪浦
漕
落沙
海陽江
黃山迁
黃山
黃山江
三浪峯
食山
德山
金谷
馬峴
羅田峴
子岩山
飛音峴
雪
新橋川
露峴
省法
進禮城
神魚山
盆山
金海
南
防浦
漕轉
東院津
狐浦津
輪山
佛岩津
栗川
海
德
竹
七點山
鳴旨島
煮盐最盛
白沙場
明月山
長游山
栗川峴
熊山
熊川
夫人山
熊浦
長福

# Ⅰ. 김해

N
25
81
88
80
12
13
91
26
67
68, 69
77~79
18~20, 22~23
66
21,24
85
14
17
7
6
15
54
74
73
76
82
5
2, 27~48, 51~53
83~84, 89
1
87
16
90
75
57
86
3
72
49
50
70
8
71
56
55
9
4
58
10
61
59
65
60
11
63
64
62
0
5
KM

01

# 김해 예안리고분군

| 사적 제261호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중앙박물관 /
1976.6.
부산대학교박물관 /
1차 1976.7.~1976.11.
2차 1977.7.~1977.8.
3차 1978.11.~1978.12.
4차 1979.12.~1980.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 옹관묘
/ 양이부호, 노형기대,
고배, 주, 유자이기

김해 예안리고분군은 김해시 대동면 시례부락 내에 소재하는 고분군으로, 서북쪽의 까치산과 동쪽의 말산 사이에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매우 낮은 구릉지대로 고지형상 예안천과 직각방향으로 발달한 고사주에 해당한다. 예안리고분군은 1950년대 중반에 부산지역 연구자에 의해 분묘 3기가 긴급 발굴조사된 바 있지만 정식보고되지 못하였고, 1976년 4월 신경철, 안재호 양인에 의해 유적지 일부에서 석곽묘를 비롯한 토기편과 인골 편 및 토지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세형동검을 비롯한 약간 유물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초 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76년 6월에 진행하여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 32기의 분묘를 조사하여 약보를 통해 보고하였고, 이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목곽묘 59기, 수혈식석곽묘 93기, 횡구식석실묘 13기, 옹관묘 17기 등 182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예안리고분군에서는 기원후 4~7세기의 무덤과 함께 1,400여 점의 유물과 매우 양호한 상태의 인골이 출

유적 위치도

토되었다. 예안리고분군의 무덤은 대부분 삼국시대에 조영되었으며 오랜기간 서로 상하로 중복 조영된 것이 특징이다. 예안리고분군 조사를 통해 가야지역에서 처음으로 목곽묘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주·부곽을 갖춘 것과 단독 목곽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부곽식 목곽이 규모나 부장품의 양적인 면으로 보아 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석관계석곽묘 소수를 포함해 예안리고분군에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바닥은 무시설의 것이 대부분이며, 판석시상이나 열상시상이 시기가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채용된다. 옹관묘는 대부분 합구식으로 유아묘로 파악되며 수혈식석곽묘의 배장묘적 성격으로 추정된다. 석실묘는 횡구식으로 다량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대부분이며 구슬과 이식이 약간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4세기대 와질토기를 비롯한 연질과 도질토기로 다양한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기류로는 농공구류가 다수를 점하며 일부 투구와 재갈 등 마구류가 출토되었으나 수량은 적다.

예안리고분군 조사를 통해 가야묘제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무덤의 중복양상을 통해 유물의 편년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잔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인골자료에서 가야인의 체질적 특징과 편두습속 등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등 고대 형질인류학적 연구에 크게 기여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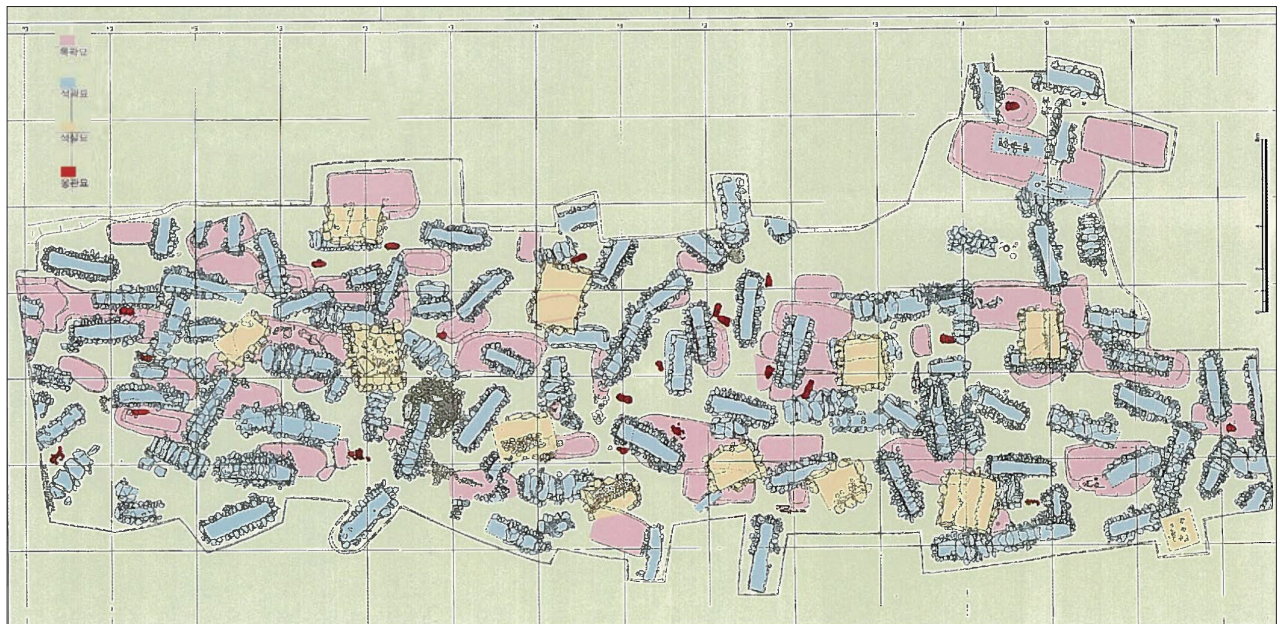
**참고문헌**

강인구, 1976, 「김해 예안리의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약보」, 『박물관 신문』 제60호,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김해예안리고분군 I』.

부산대학교박물관, 1993, 『김해예안리고분군 II』.

정징원 외, 1998, 『김해의 고분문화』, 김해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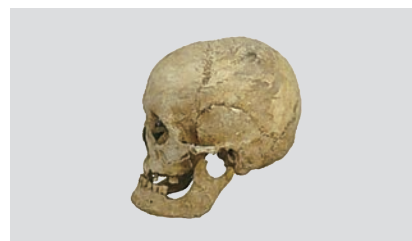
유적 전경

77호분

126호분

투구

출토 인골

02

# 김해 대성동고분군
## 金海 大成洞古墳群

|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애구지'라 불리는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성동고분군의 구릉은 사적으로 지정된 구간 외에도 북쪽의 가야사 2단계 주차장 부지구간과 구지로 구간, 그리고 남동쪽의 가야의 숲 구간(현 수릉원)까지 이어지므로 이 전체 지역을 대성동고분군 범위로 볼 수 있다. 대성동고분군은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ㄴ'자상으로 완만하게 뻗은 독립구릉과 그 주변의 평지에 형성된 유적이다. 구릉의 길이는 약 280m, 너비는 약 50m, 높이 22.6m로 동단이 가장 높고, 북쪽으로는 표고 10m 정도까지 매우 완만하게 낮아진다. 대성동고분군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구지로분묘군과 가야의 숲 유적 및 가야사 2단계 주차장부지 조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은 고인돌, 옹관묘, 목관(곽)묘, 석곽(실)묘, 등 가야문명의 모든 묘제가 계기적으로 조성된 것이 밝혀졌다. 목관묘는 주로 구릉 주변의 낮은 곳과 평지에 조성되었고, 목곽묘와 같은 대형무덤은 입지조건이 좋은 구릉의 능선부에 입지한 반면, 중소형 무덤 등은 구릉의 사면과 주변의 평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능선부에 축조된 대형 목곽묘는 길이 9m, 너비 5m 전후의 대형으로, 구조 및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3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에 이르는 금관가야 지배집단의 무덤들이다. 이들 목곽묘에서는 각종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의기류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금관가야 전성기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대성동고분군은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특히 외래계 유물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대성동고분에서 출토된 방격규구사신경, 동복(청동솥), 호형대구와 재갈, 행엽, 등자 등의 마구류는 대체로 북방계 문물이며, 통형동기, 파형동기, 각종의 석제품 등은 일본열도와의 교역품이다. 최근 발굴조사되었던 88호분과 91호분에서는 중국 중원의 진식대금구 晉式帶金具, 삼연(북방 모용선비족이 세운 왕조, 남연, 전연, 후연)의 청동용기가 출토되었고, 91호분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 파편은 중국과 요령지역을 경유하며 진행되던 북방유목민족과의 교류와 실크로드 상의 교류가 금관가야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발굴조사 결과 애구지의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지배계층의 묘역과 피지배층의 묘역이 별도로 조성되었음이 밝혀져 금관가야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금관가야의 성립과 전개, 성격, 정치, 사회구조를 해명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03, 『대성동고분박물관』전시안내도록.

대성동고분박물관, 2005, 『금관가야의 대외교류』대성동박물관 도록.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고분군』대성동고분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도록.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김해 대성동고분군<br>–1차 발굴조사 유적 |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0.6.~1990.8. | 김해 대성동고분군Ⅰ(2000)<br>김해 대성동고분군Ⅳ(2010) |
| 2 | 김해 대성동고분군<br>–2차 발굴조사 유적 |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0.9.~1991.4. | 김해 대성동고분군Ⅰ(2000)<br>김해 대성동고분군Ⅱ(2000)<br>김해 대성동고분군Ⅳ(2010) |
| 3 | 김해 대성동고분군<br>–3차 발굴조사 유적 |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1.10.~1992.3. | 김해 대성동고분군Ⅰ(2000)<br>김해 대성동고분군Ⅲ(2003) |
| 4 | 김해 구지로분묘군 |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3.8.~1993.9. | 김해 구지로분묘군(2000) |
| 5 | 김해 대성동유적<br>–4차 발굴조사 유적 | 경성대학교박물관 | 2001.4.~2001.9. | 김해 대성동고분군Ⅲ(2003) |
| 6 | 김해 대성동유적<br>–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 동아세아<br>문화재연구원,<br>경남고고학연구소 | 2004.7.~2004.10.<br>2004.7.~2004.10. |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6)<br>김해 대성동 유적–가야의 숲 조성공사 부지 내 시굴조사 및 동편지구 발굴조사 보고서(2006) |
| 7 | 김해 대성동고분군<br>–5차 발굴조사 유적 | 대성동고분박물관 | 2009.10.~2009.12. | 김해 대성동고분군–68호분~72호분(2011) |
| 8 | 김해 대성동고분군<br>–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내 유적 |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0.10.~2011.3. |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내 김해대성동 유적(2013) |
| 9 | 김해 대성동고분군<br>–6차 발굴조사 유적 |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1.7.~2011.10. | 김해 대성동고분군–73호분~84호분(2013) |
| 10 | 김해 대성동고분군<br>–7차 발굴조사 유적 |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2.6.~2012.9. | 김해 대성동고분군–85호분~91호분(2015) |
| 11 | 김해 대성동고분군<br>–8차 발굴조사 유적 |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3.6.~2013.9. | 김해 대성동고분군–70호분 주곽·95호분(2015) |
| 12 | 김해 대성동고분군<br>–9차 발굴조사 유적 |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4.6.~2014.10. | 김해 대성동고분군–92호분~94호분, 지석묘(2016) |

#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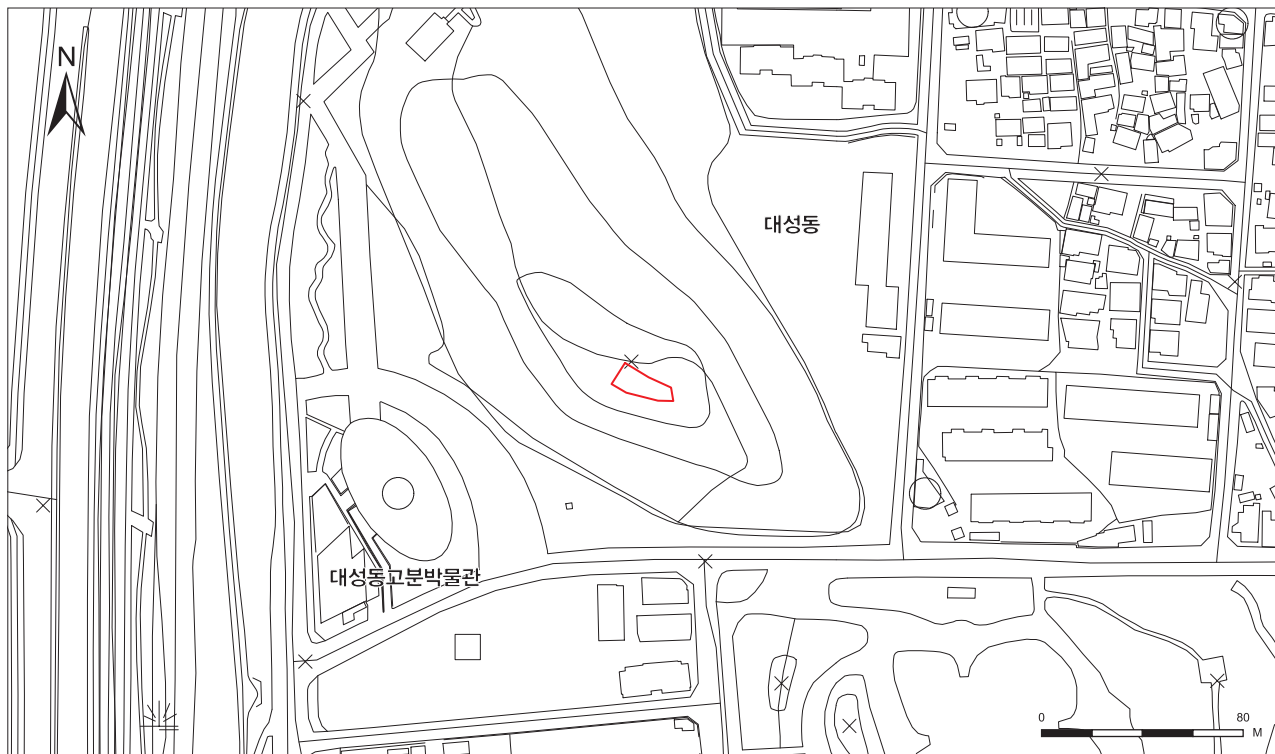
# 김해 대성동고분군 _ 1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0.6.~1990.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유개대부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종장판주,
종장판갑, 계갑,
삼지창, 철창, 마주,
재갈, 안교, 등자,
행엽, 청동환,
통형동기, 파형동기,
운주형동기, 동경 편

대성동고분군에 발굴조사는 김해지역의 지배자집단의 묘역을 확인하기 위한 학술조사로 시작되었다. 1차 발굴조사는 극히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릉 능선부에 위치한 가장 늦은 시기의 지배자 분묘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대형의 목곽묘 2기(1·2호분)가 확인되었다. 가장 최상부인 서측에 2호분이, 동측으로 약간 낮은 곳에 1호분의 주곽과 부곽이 위치한다. 2기의 목곽묘는 주축방향을 구릉의 주축과 일치되게 동-서향으로 하면서 일렬로 조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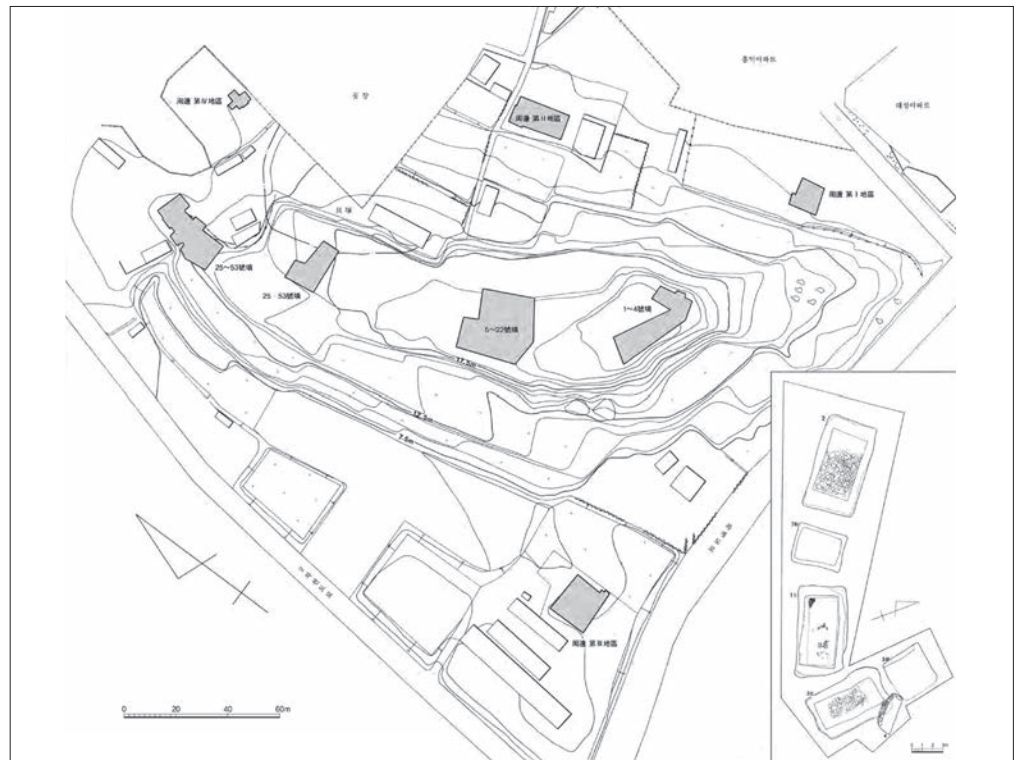
1호 목곽묘는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주·부곽식 목곽묘이다. 주곽은 동쪽, 부곽은 서쪽에 위치하고 주·부곽의 거리는 평균 80㎝ 정도이다. 묘광의 규모는 주곽 길이 7.9m, 너비 4.4m, 깊이 1.83~3m이며 부곽은 길이 3.3m, 너비 4.3m, 깊이 0.46~0.84m이다. 함몰된 토층이 치밀한 판축상을 띠는 것으로 보아 봉토가 잔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와 범위는 확인하기 어렵다. 묘광 바닥의 목곽흔적으로 파악한 목곽의 규모는

유적 위치도

길이 6m, 너비 2.3m, 높이 2m 정도이다. 순장자 5인이 확인되었고 남서쪽 보강토 내에 소 하악골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주곽에서 고배, 유개대부호, 연질옹, 연질기대, 단경호, 발형기대, 철창, 철촉, 안교, 등자, 행엽, 청동환, 마주, 철부, 철정, 철겸, 철사, 삽날 등이 출토되었으며, 통형동기가 8점 출토되었다. 주 피장자 주변으로 유리제 환옥이 출토되었다. 부곽에서는 발형기대, 유개장경호, 주, 계갑, 경갑, 요갑 등의 갑주류가 출토되었다. 1호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5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1호 목곽묘는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단계의 초대형 목곽묘이다.

2호 목곽묘는 단독 목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8.5m, 너비 4.8m, 깊이 1.2~1.84m이다. 봉토는 후대의 교란으로 규모와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묘광 내부 토층을 통해 판축상의 봉토가 잔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은 잔존하지 않으며, 묘광 바닥의 흔적을 통해 규모는 길이 5.7m, 너비 3.3m 정도이다. 시상석 중앙의 주피장자 발치쪽으로 3인을 순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 내부가 전면 도굴로 유물의 원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체적으로 목곽 내의 네벽을 따라 부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고배, 유개대부호, 단경호, 노형기대, 통형기대의 토기류와 철정, 철촉, 골촉, 삼지창, 철창, 철착, 종장판주, 재갈, 물미, 종장판갑, 계갑, 통형동기, 파형동기, 운주형동기, 동경 편 등의 금속기류 및 마노옥 등으로 이루어진 경식 등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2호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4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대성동 1차 발굴조사는 대성동고분군이 금관가야 지배자의 무덤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를 계기로 1990년 11월에 사적 제341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I』.
경성대학교박물관, 2010, 『김해 대성동고분군Ⅳ』.

유구 및 1~4호분 배치도

유적 전경

1호분

1호분 출토유물

2호분

2호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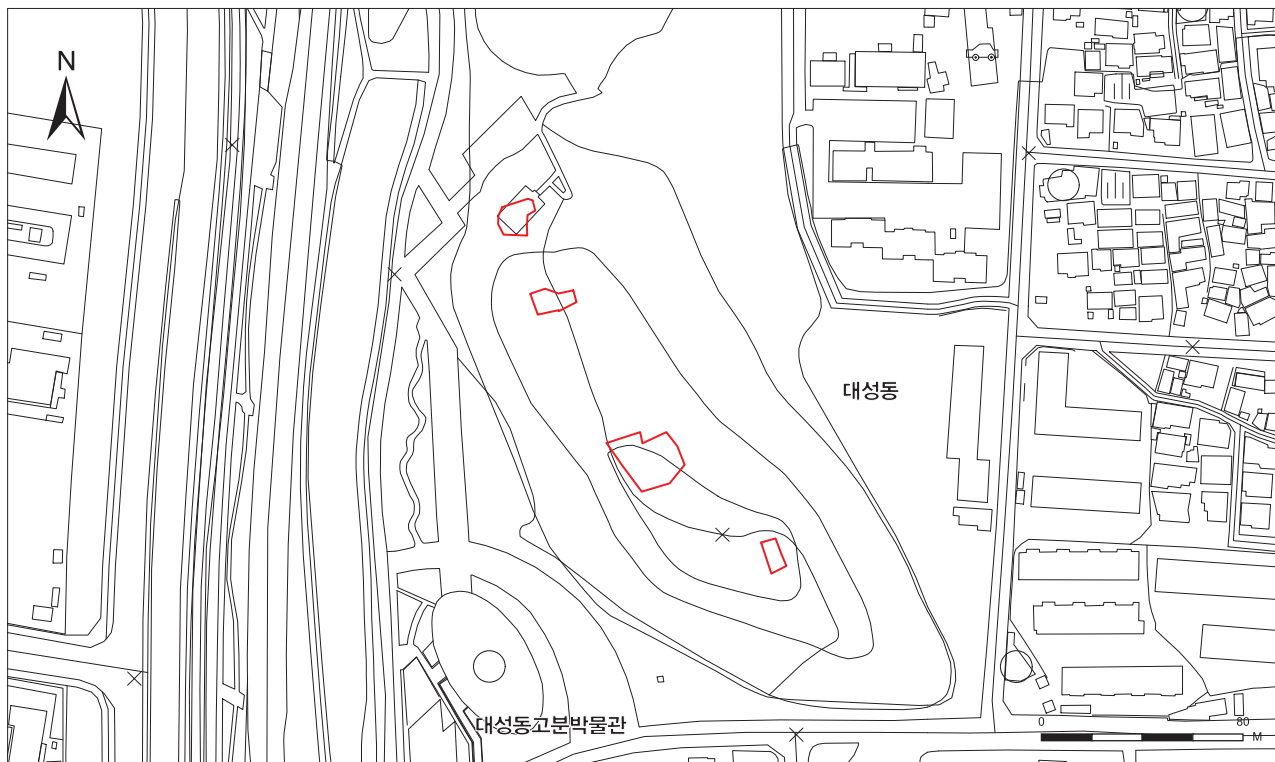
# 02-2 김해 대성동고분군 _ 2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0.9.~1991.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양이부단경호, 노형기대, 대도, 주, 판상철부, 촉형석제품, 동복, 통형동기, 파형동기, 금동관 편

대성동고분군의 2차 발굴조사는 구릉 능선부의 전체적인 성격 파악과 보존을 위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부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역은 총 4개소로, 1차 발굴조사 시 1호분 동쪽의 3·4호분과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31m 거리의 구릉 중앙부(5~22호분),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약 55m(23·24호분)와 90m(25~39호분) 떨어진 곳이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목관묘 8기, 목곽묘 19기, 수혈식석곽묘 6기, 횡구식석실묘 2기, 옹관묘 2기 등 총 37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목곽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구릉 북쪽 선단부에서는 목관묘가 많이 확인되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 대표적인 유구는 금관가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성동고분군의 최초 대형 목곽묘인 29호분이다.

29호 목곽묘는 동-서장축의 단독곽식 목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9.6m, 너비 5.6m, 깊이 1.3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6.4m, 너비 3.2m 정도이다. 후대의 목곽묘(39호)와 조선시대 와요로 목곽의 동쪽과 북쪽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도굴로 서쪽 토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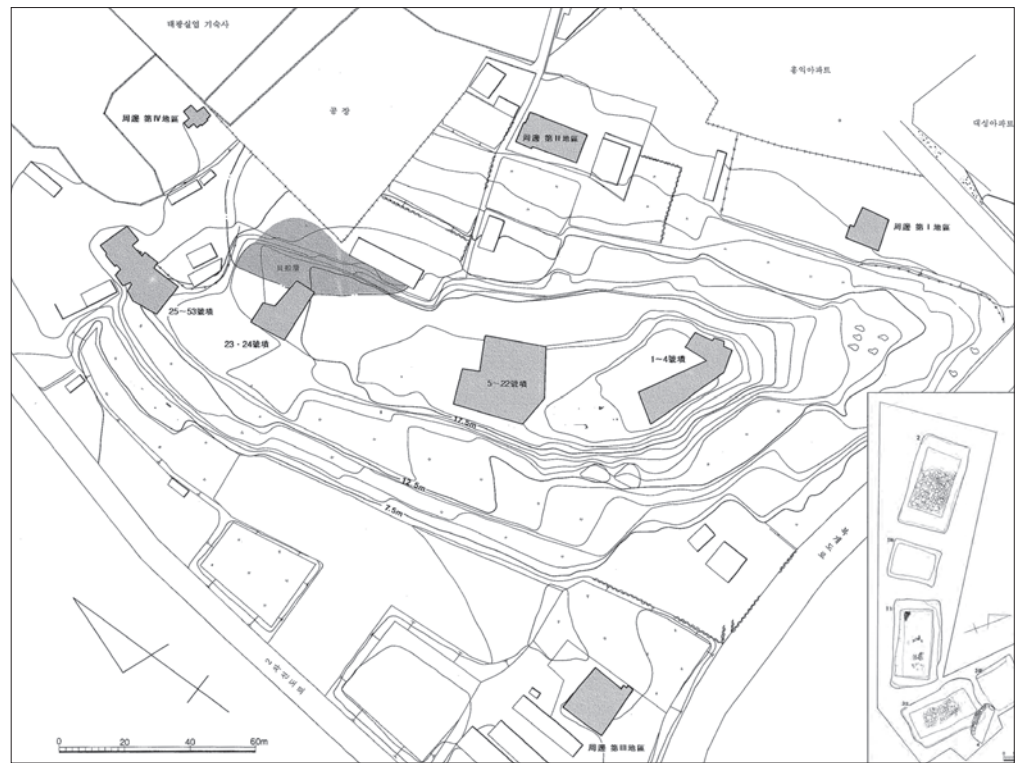
기 부장칸이 훼손되었는데 이곳에서 금동관 편과 수정제곡옥과 절자옥 등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서군과 동군의 2군으로 구별되는데, 서군은 주로 와질제단경호, 도질제양이부단경호, 와질제시루, 연질옹, 철촉, 도자, 철도, 철착, 철겸이 출토되었다. 동군에는 주피장자 중심으로 도질단경호, 노형기대의 토기류가 부장되었으며 바닥에는 판상철부를 깔았는데, 동군의 서쪽 상면에서부터 판상철부 28점을 횡방향으로 1열, 다음으로는 9점의 판상철부 7열을 종방향으로 하여 총 91점의 판상철부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상철부 위에는 대도 편 3점이 출토되었다. 중앙부에서 동복과 이곳 도굴갱에서 환옥과 관옥이 출토되었다. 중앙부 북쪽에 환옥 등의 출토로 볼 때,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9호 목곽묘는 3세기 말로 편년되며, 앞시기 분묘와 규모·후장·도질토기·순장·금공품(금동관)의 최초 출토 등 앞 시기 분묘와 격절을 보이는 최초의 김해형 목곽묘이다. 이른바 금관가야 첫 번째 왕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묘로서 대성동고분군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구이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Ⅰ』.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Ⅱ』.

경성대학교박물관, 2010, 『김해 대성동고분군 Ⅳ』.


유구 배치도

3호분

3호분 출토유물

29호분

29호분 출토유물

##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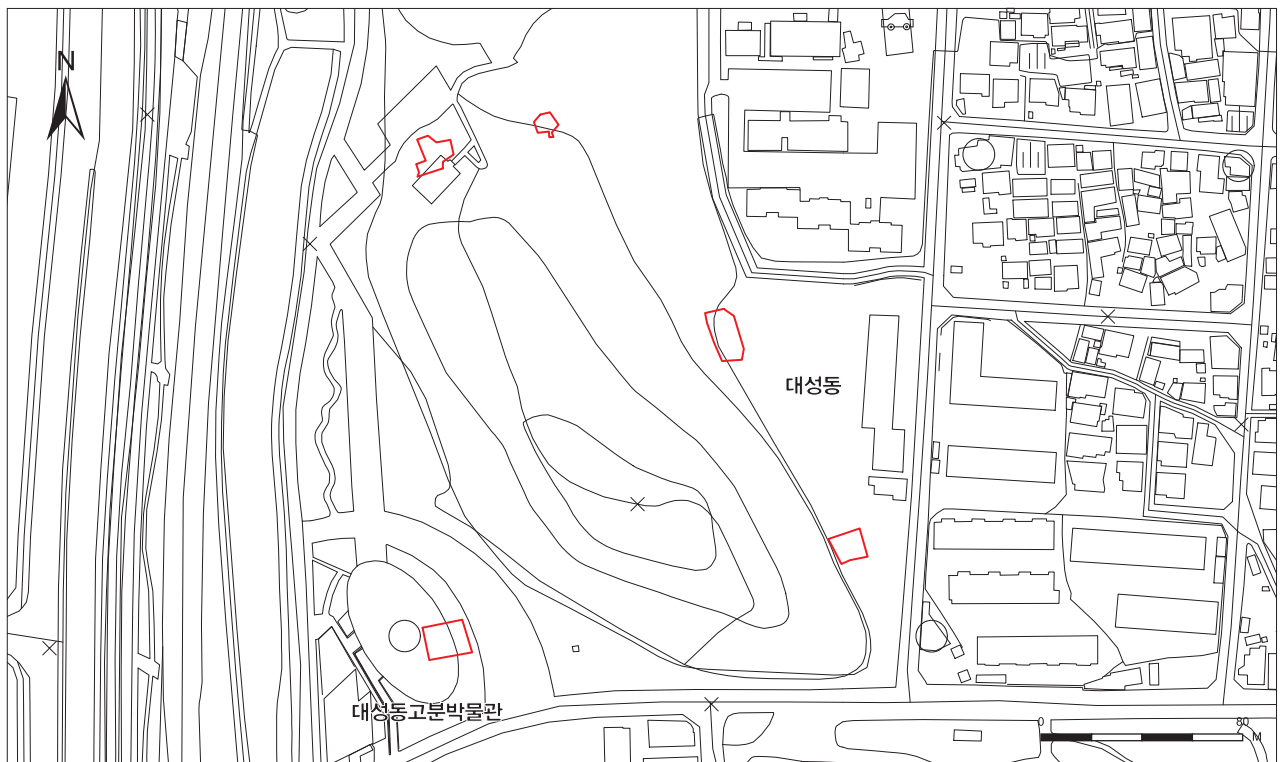
# 김해 대성동고분군 _ 3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1.10.~1992.3.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 철촉, 철부,
철모, 철겸, 통형동기

대성동고분군의 3차 발굴조사는 유적의 정확한 범위 확인과 구릉 주변의 평지에 조영된 목관묘의 확인과 성격 파악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2차 발굴조사지역인 구릉의 북쪽 최선단부의 북쪽에 연접된 곳(40~53호)과 구릉의 주변으로 동쪽 3개 지역(Ⅰ·Ⅱ·Ⅳ지구)과 서쪽 2개 지역(Ⅲ·Ⅴ지구) 북쪽 1개 지역(Ⅵ지구)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주변 Ⅰ~Ⅳ지구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2개 지역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된 유구는 목관묘 26기, 목곽묘 25기, 수혈식석곽묘 22기, 횡구·횡혈식석실묘 4기, 옹관묘 12기, 토광묘 4기, 지석묘 1기, 성격불명 분묘 3기 등 모두 97기의 분묘와 환호로 추정되는 구 시설 일부가 조사되었다. 3차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대표유구는 목관묘로 주변 Ⅰ지구 13호분을 들 수 있다.

13호 목관묘는 주축방향이 정동-서향으로, 규모는 묘광 길이 2.6m, 너비 1.1m, 깊이 0.71~0.91m이다. 목관의 평면형태는 'ㅍ'자상으로 추정된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유적 위치도

1.9m, 너비 0.55m이다. 유물은 보강토에서 다량 출토되었는데, 북서쪽 보강토에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3점이 나란히 출토되었고 북쪽 보강토에서 주머니호 1점, 남서쪽 보강토에서 단경호 1점, 목관 중앙 인근에서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남동쪽 모서리 및 남쪽 보강토에서 철촉이 2군으로 구분되어 출토되었으며 바닥에서 철부 2점, 철모 1점, 철겸 1점이, 바닥에서는 유리제환옥이 3군으로 구분되어 출토되었다. 13호 목관묘의 축조시기는 대략 기원후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며, 대성동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기원후 1세기 후엽에서 2세기 중엽까지 조영되었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주변부 평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량의 목관묘가 조사되어 대성동고분군의 묘제의 변천 관계와 목관묘 사회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Ⅰ』.

경성대학교박물관, 2003, 『김해 대성동고분군Ⅲ』.

Ⅰ지구 13호분

39호분

39호분 유물 출토모습

45호분

45호분 유물 출토모습

통형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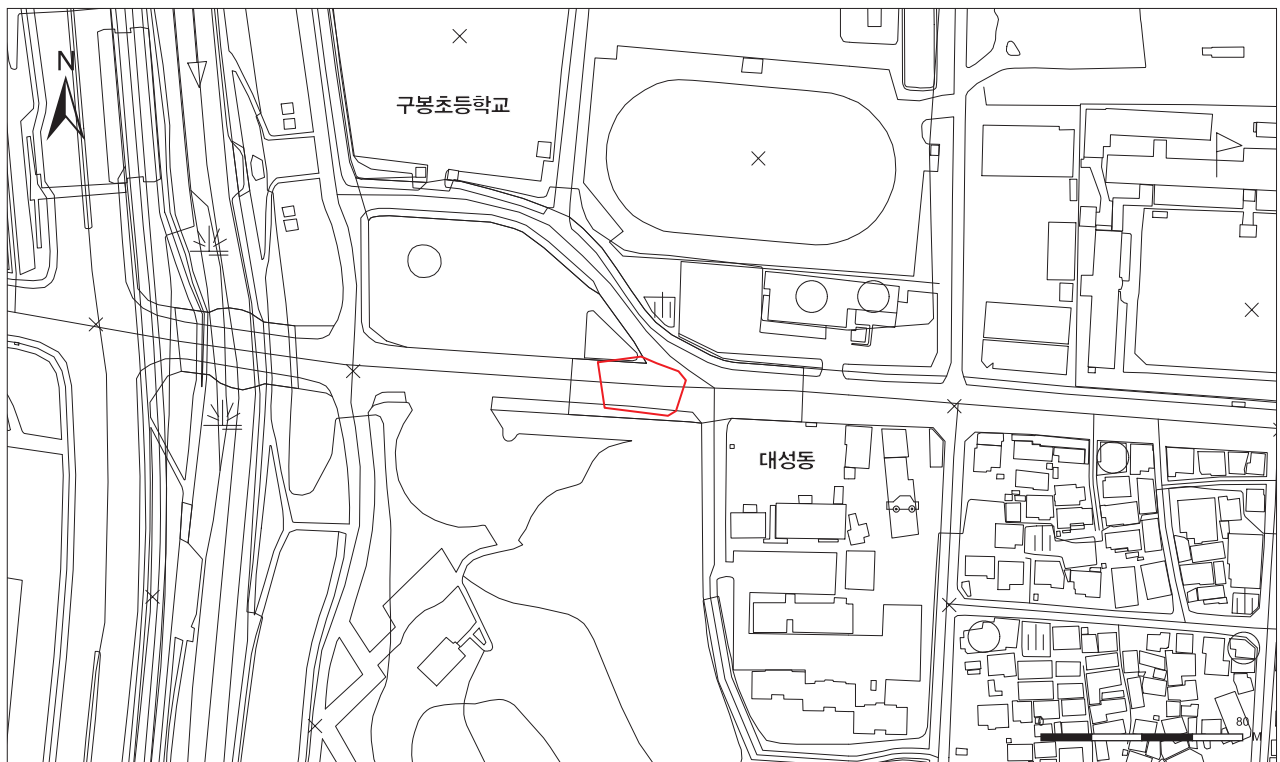
# 02-4 김해 구지로분묘군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북부동 43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993.8.~1993.9.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 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노형토기, 기대, 고배, 철촉, 철모, 환두대도, 철검, 철창

구지로분묘군은 대성동고분군의 유적 범위에 속하며 구릉의 북동쪽으로 120m 지점에 위치한다. 유적은 서쪽의 내외동과 북쪽의 대성동을 연결하는 도로인 구지로의 확장공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목관묘 14기, 목곽묘 38기, 수혈식석곽묘 1기, 옹관묘 4기 등 총 57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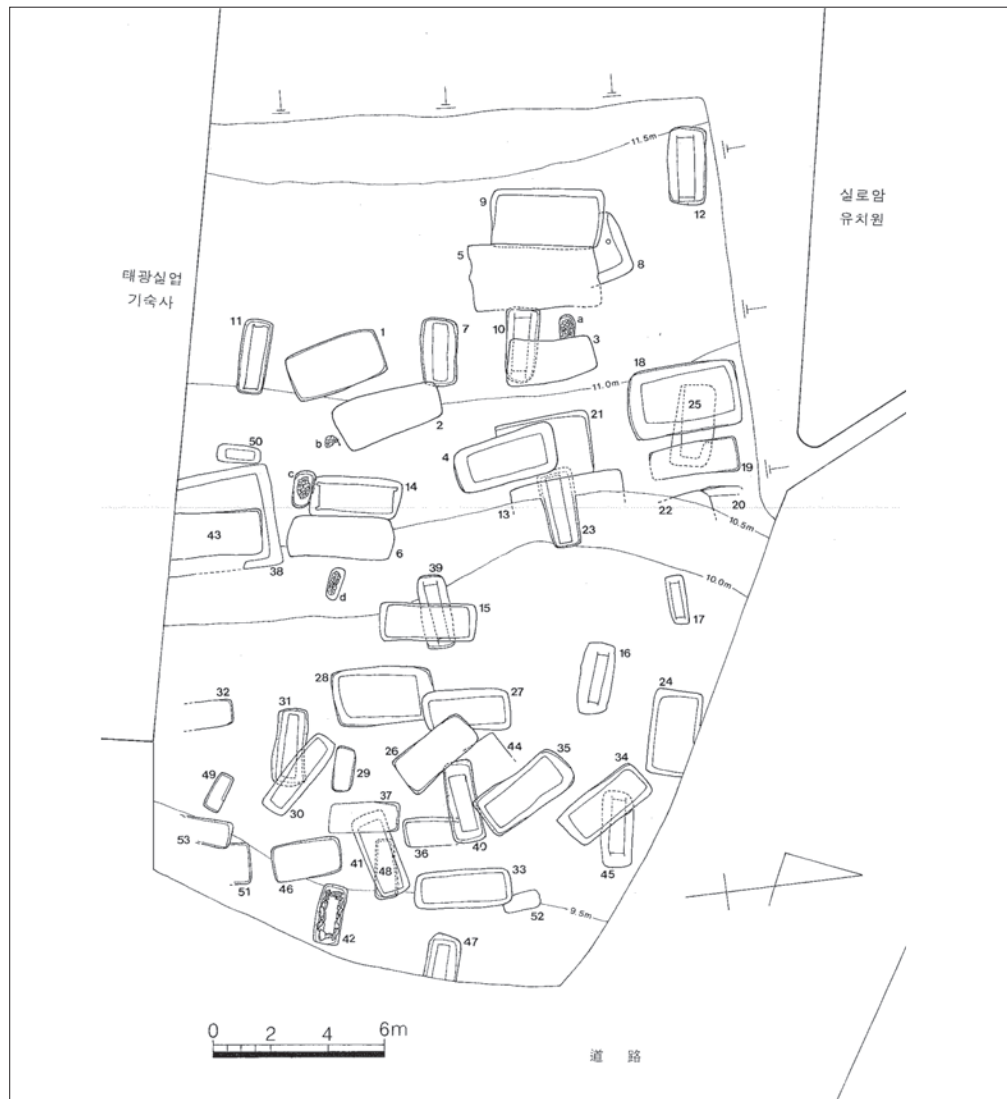
목관묘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길이 2.7m 전후, 너비 1m 전후, 깊이 0.6m 전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축방향은 모두 동-서향으로 상호 중복 축조되지는 않았다. 목관은 재질에 따라 통나무관과 판재관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토기류로 와질제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주머니호, 소옹, 소형호와 연질제의 소옹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로는 철부, 철겸, 철도자, 철촉, 철모, 철검, 철대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청동기류, 방추차, 구슬류, 칠기류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충진토 내에 부장하였고, 철기는 목관 내부나 충진토 내에 부장하였다. 구지로분묘군 목관묘 단계의 조성연대는 기원후 2세기

유적 위치도

전엽~중엽에 해당한다.

목곽묘는 38기 모두 바닥면에 시상을 마련하지 않고 부곽이 시설되지 않은 단독곽식목곽묘이다. 규모는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에 비하면 비교적 중소형으로, 묘광은 길이 130~440㎝, 너비 60~245㎝, 깊이 5~56㎝ 정도이다. 묘광은 평면 장방형이며 장단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유물의 부장형태도 주피장자를 중심으로 사방공간 부장, 'ㄷ'자상 부장, 'ㄴ'자상 부장, 한쪽 단벽 부장, 양 단벽 부장 등 5종류로 세분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로 단경호, 장경호, 노형토기, 기대, 고배 등이 출토되었고, 철기류는 철촉, 철모, 환두대도, 철검, 철창, 철부, 철겸, 도자, 철착, 철사 등이 출토되었다. 구지로 분묘군목곽묘 단계의 조성연대는 기원후 3세기 중엽~4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구지로분묘군의 조사로 인해 대성동고분군의 규모와 범위 파악이 가능하여 유적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김해 구지로 분묘군』.

유구 배치도

11호 목관묘

39호 목관묘

28호 목곽묘

28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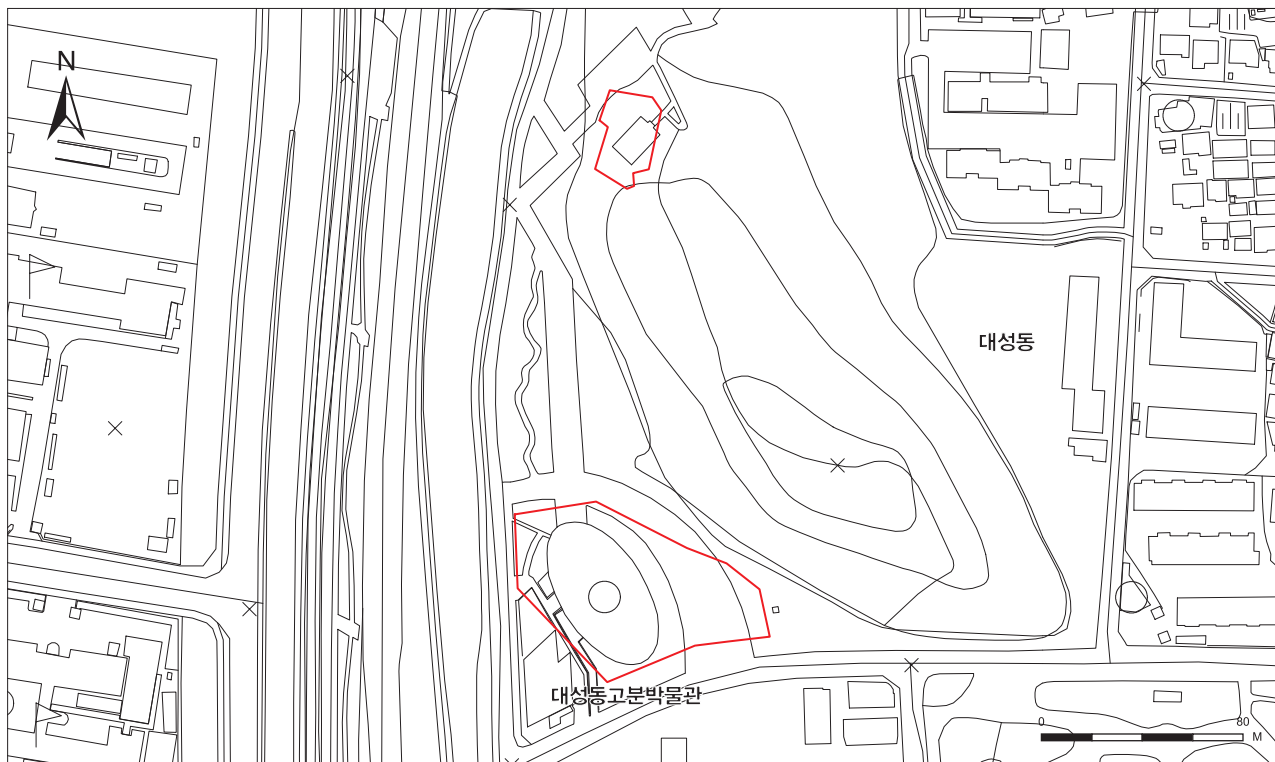
# 02-5 김해 대성동고분군 _ 4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5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2001.4.~2001.9.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노형토기, 발형기대, 통형기대, 철검, 철모, 종장판주, 재갈, 등자

대성동고분군 4차 발굴조사는 김해시에서 추진중인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해 대성동고분군 전시관(고분전시관:현 대성동고분박물관-주변Ⅴ지구, 노출전시관-54~67호)의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 결과 목관묘 22기, 목곽묘 17기, 옹관묘 4기, 수혈식석곽묘 4기, 횡혈식석실묘 1기, 토광묘 1기, 기와가마 3기, 성격불명 분묘 1기 등 분묘는 모두 50기가 조사되었다.

목관묘는 기조사된 대성동과 구지로분묘군에서 조사된 것과 구조가 동일하다.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목관묘 대부분은 고분전시관 부지에서 확인되어 목관묘가 주변 평지 위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목관묘의 묘광 규모는 길이 2.15~3.25m, 너비 0.77~1.25m, 깊이 0.16~1.24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모두 동-서향이다. 목관의 형태는 대부분 상자형이다. 유물은 주로 충진토 내에 부장되었고, 토기류는 와질제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와 연질제소옹이 출토되었다. 철기류의 부장율은 상당히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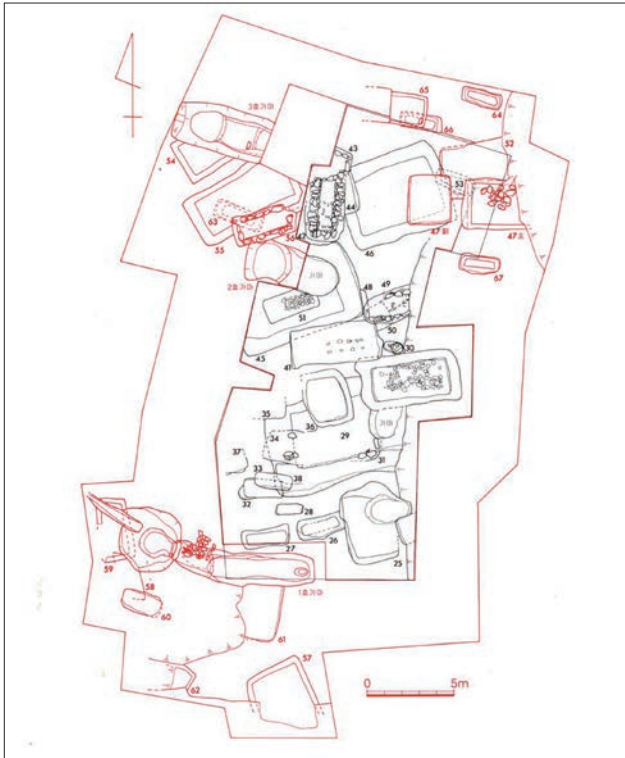
낮으며, 일부 분묘에 한정되어 철기의 부장이 이루어졌다. 출토된 철기류는 철촉, 철겸, 철모, 철부, 철겸, 철착, 철도자, 철사, 철침 등이다. 청동기류는 67호묘에서 출토된 호형대구가 유일하다. 목관묘의 조성연대는 주로 2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목곽묘는 고분전시관부지에서는 소형, 노출전시관부지에서는 중소형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입지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즉, 능선부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는 중형분, 경사면에서 소형분이 조성되었다. 노출전시관부지에서 조사된 10기의 목곽묘 중에서 주·부곽식은 1기이며 나머지는 모두 단독곽식이다. 목곽묘의 유형도 기존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대표적인 목곽묘는 순장인골 3구가 조사된 57호 목곽묘이다. 주피장자의 족하부에 횡으로 놓인 3인의 순장자는 인골분석에 의해 모두 여성으로 판명되었다. 이 순장인골의 두부에서 종장판주 5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여성도 중무장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여전사의 존재도 상정되었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로 고배, 단경호, 대호, 노형토기, 발형기대, 통형기대 등이 출토되었고, 철기류는 철촉, 환두대도, 철모, 철겸, 철부, 철겸, 종장판주, 재갈,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그 외 47호분 부곽에서 동복이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47호가 파괴하고 축조된 46호의 유물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목곽묘의 조성연대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말로 편년된다.

4차 발굴조사를 통해 대성동고분군 구릉 주변으로 다수의 목관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29호분 목곽묘 주변이 조사되어 이른 시기 목곽묘의 자료부족을 보완하여 대성동고분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2003, 『김해 대성동고분군Ⅲ』.

유구 배치도

노출전시관부지 유구 배치도

67호 목관묘

출토유물

47호 목곽묘 주곽

47호 목곽묘 부곽

47호 목곽묘 출토유물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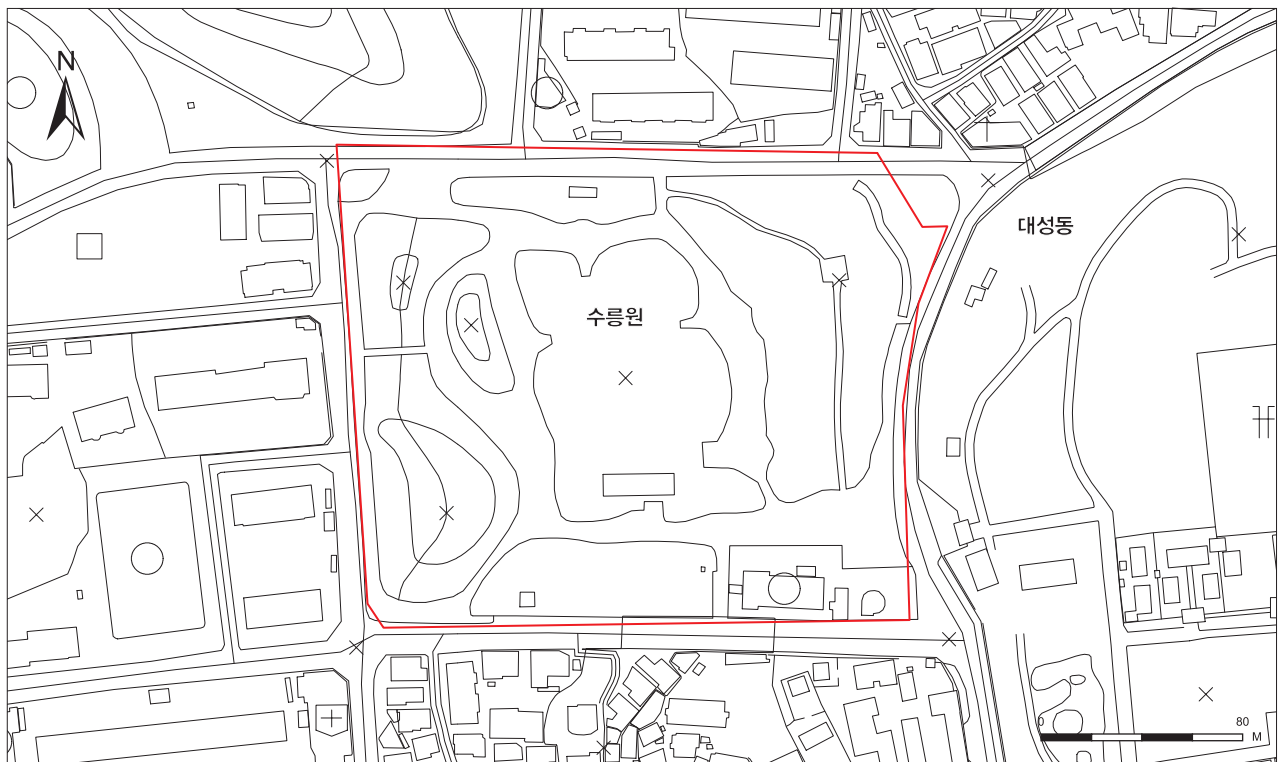
# 김해 대성동유적 _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4.7.~2004.10.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4.7.~2004.10.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주머니호,
양이부호,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 칠기부채,
칠초철검, 동경, 동과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은 수로왕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에 위치한다.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가야 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의 숲"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따라 경남고고학연구소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구간을 나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조사구간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3기와 삼국시대의 목관묘 1기, 목곽묘 1기, 수혈식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고 그 외 조선시대의 우물 2기, 수혈과 주혈군, 석렬, 삼가마 다수가 조사되었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구간에서 조사된 대표 유구는 3호 목관묘로 수장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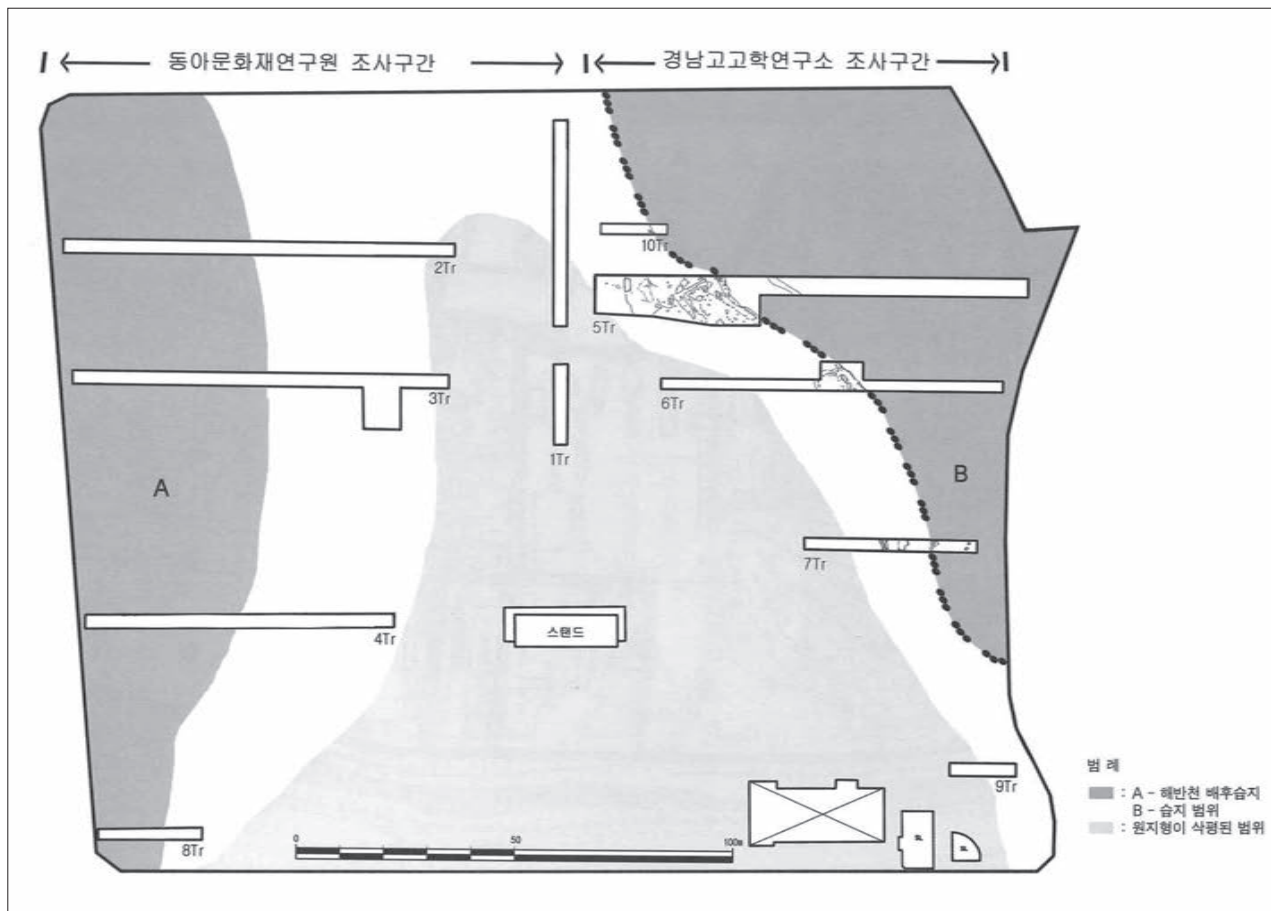
3호 목관묘는 해발 6.5m에 장축이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되게 조영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260㎝, 너비 140㎝, 깊이 82㎝로 1호와 2호 목관묘보다 크다. 목관은 통나무관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길이 170㎝, 너비 75㎝, 잔존높이 38㎝ 정도이다. 바닥 중앙에는 원형상의 요갱이 지름 47㎝, 깊이 3~6㎝ 정도의 규격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유물

유적 위치도

은 출토되지 않았다. 유물은 목관 내부에서 칠기부채 2점, 칠초철검 1점, 동경 1점, 형태 불명의 칠기 편 다수가 출토되었다. 충전토 내에서는 주머니호 2점, 양이부호 1점,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2점 등의 토기류와 동과 1점, 철환 1점, 단조철부 2점, 따비 1점, 철모 3점, 소도자 편 1점 등의 금속기류와 원통형칠기 2점, 두형으로 추정되는 칠기류 다수가 출토되었다. 축조시기는 기원후 1세기 전반대로 추정된다. 3호 목관묘를 통해 대성동고분군 목관묘 단계의 지배자의 무덤이 대성동 구릉의 남동쪽에 위치한다는 것과 출토된 유물로 중국의 한과 왜와의 문화교류를 이해할 수 있다.

경남고고학연구소 조사구간에서는 청동기시대 구 1기와 옹관묘 1기, 삼국시대 목곽묘 6기, 수혈식석곽묘 8기, 횡혈식석실묘 2기, 옹관묘 4기, 토광묘 1기, 호석 및 주구 3기, 수혈 2기, 구 1기, 고려시대 고상건물지 2기, 수혈 1기, 호안석축 1기, 조선시대 분묘 2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의 조성시기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5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편년된다. 이를 통해 대성동고분군 구릉의 남동 사면 아래쪽으로 구릉과 습지의 경계부를 따라 5세기 말 이후의 무덤이 밀집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김해 대성동유적–가야의 숲 조성공사 부지내 시굴조사 및 동편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트렌치 배치도

유적 전경

7호 석곽묘

3호 목곽묘

3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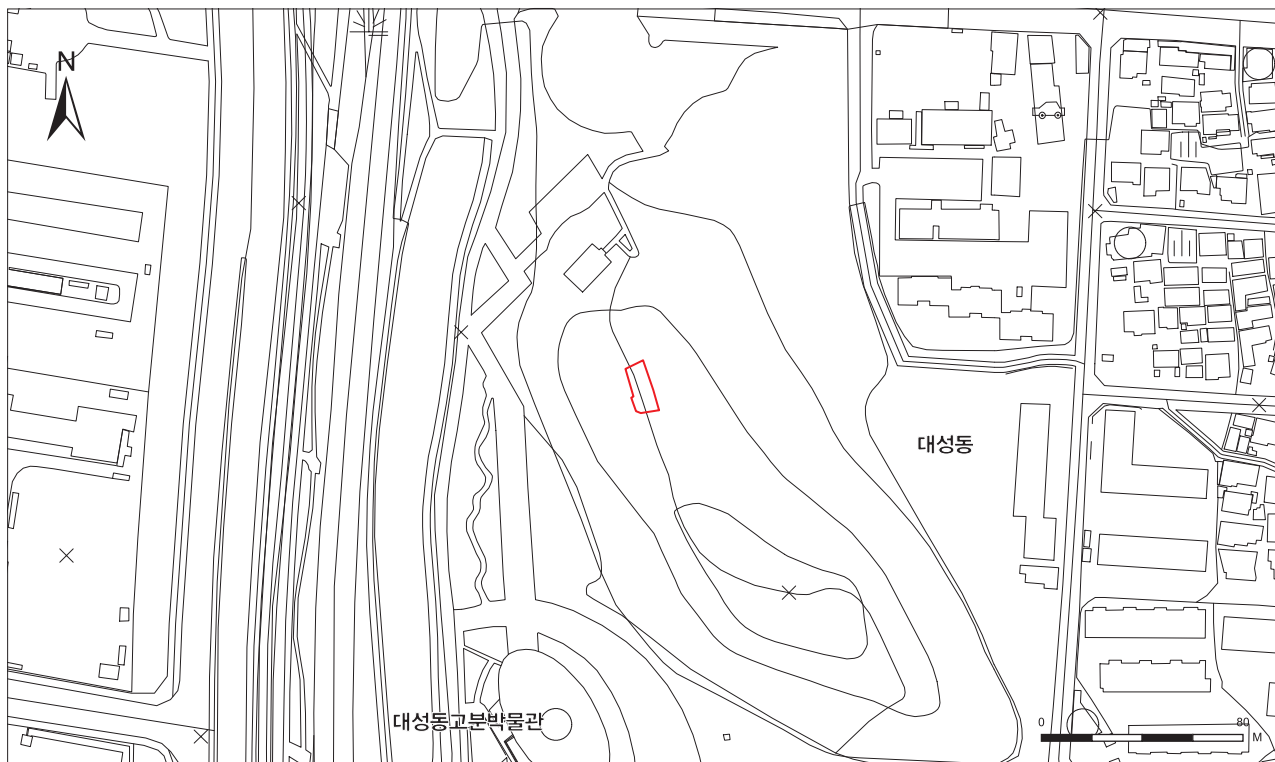
# 02-7 김해 대성동고분군 _ 5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2009.10.~2009.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호,
소형기대, 노형기대,
완, 컵형토기, 대부호,
갑주, 재갈, 안장, 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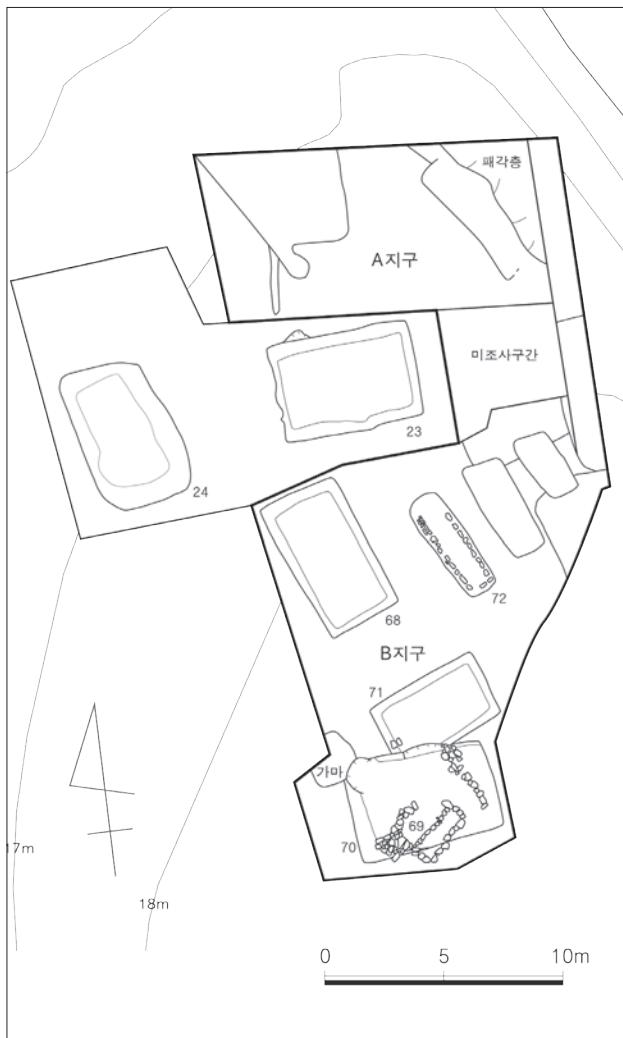
대성동고분군 5차 발굴조사는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시행한 학술조사로, 2세기 후반대의 대형 목곽묘와 기원 전후 시기의 목관묘를 확인하기 위해 대성동 23호분 남북에 인접한 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목곽묘 2기(68·71호)와 부곽 1기(70호), 수혈식석곽묘 1기(72호), 횡혈식석실묘 1기(69호) 등 5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곽묘 2기는 모두 단독곽식의 목곽묘이며, 70호는 규모면에서 주곽으로 보고되었지만, 2013년 8차 발굴조사에서 70호의 부곽으로 판명되었다. 목곽묘와 70호 부곽 모두 도굴이 이루어졌으며, 봉토의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다. 충전토는 사질토 또는 점질토를 다진 다짐식(71호)과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다져 판축의 효과를 낸 판축식(70호), 흙과 대형 할석을 채워 놓은 토석충전식(68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석충전식은 68호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3기 모두 시상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68호분은 피장자를 가운데 안치하고 서쪽과 북쪽에 토기류를 부장하고 철기는 남쪽과

유적 위치도

동쪽에 배치하였다. 71호분은 'ㄷ'자상으로 유물을 부장하고 피장자는 북쪽 장벽중앙에 치우쳐 매장하였다. 2기 모두 순장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는 고배, 호, 소형기대, 노형기대, 완, 컵형토기, 대부호, 철기류는 철촉, 철모, 갑주, 재갈, 안장, 등자, 철착, 철부가 출토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최하단석만 잔존하며 소가야양식 고배가 출토되었다. 횡혈식석실묘도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연도와 현실, 호석, 시상대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유물 또한 파편 일부만 출토되었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기원후 4세기 3/4분기,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3/4분기, 횡혈식석실묘는 6세기대로 편년된다.

5차 발굴조사를 통해, 2세기 후반대의 대형 목곽묘와 기원 전후의 목관묘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조사내용과 종합하여 목곽묘 간의 배치를 통해 주묘와 배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1, 『김해 대성동고분군-68호분~72호분-』.

유구 배치도

68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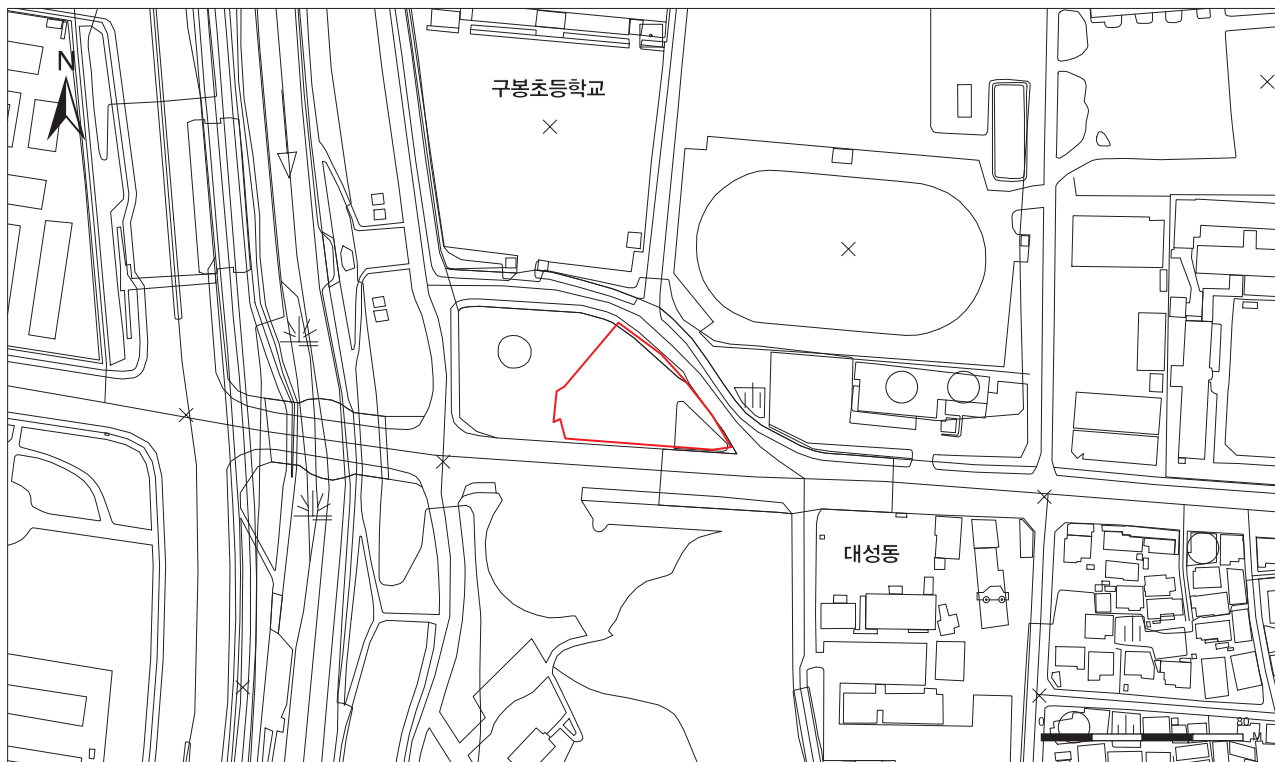
68호분 출토유물

# 02-8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64-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0.10.~2011.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양이부호,
노형토기, 단경호,
직구호, 철촉, 철검,
철모, 철부, 철겸,
쇠스랑

# 김해 대성동유적 _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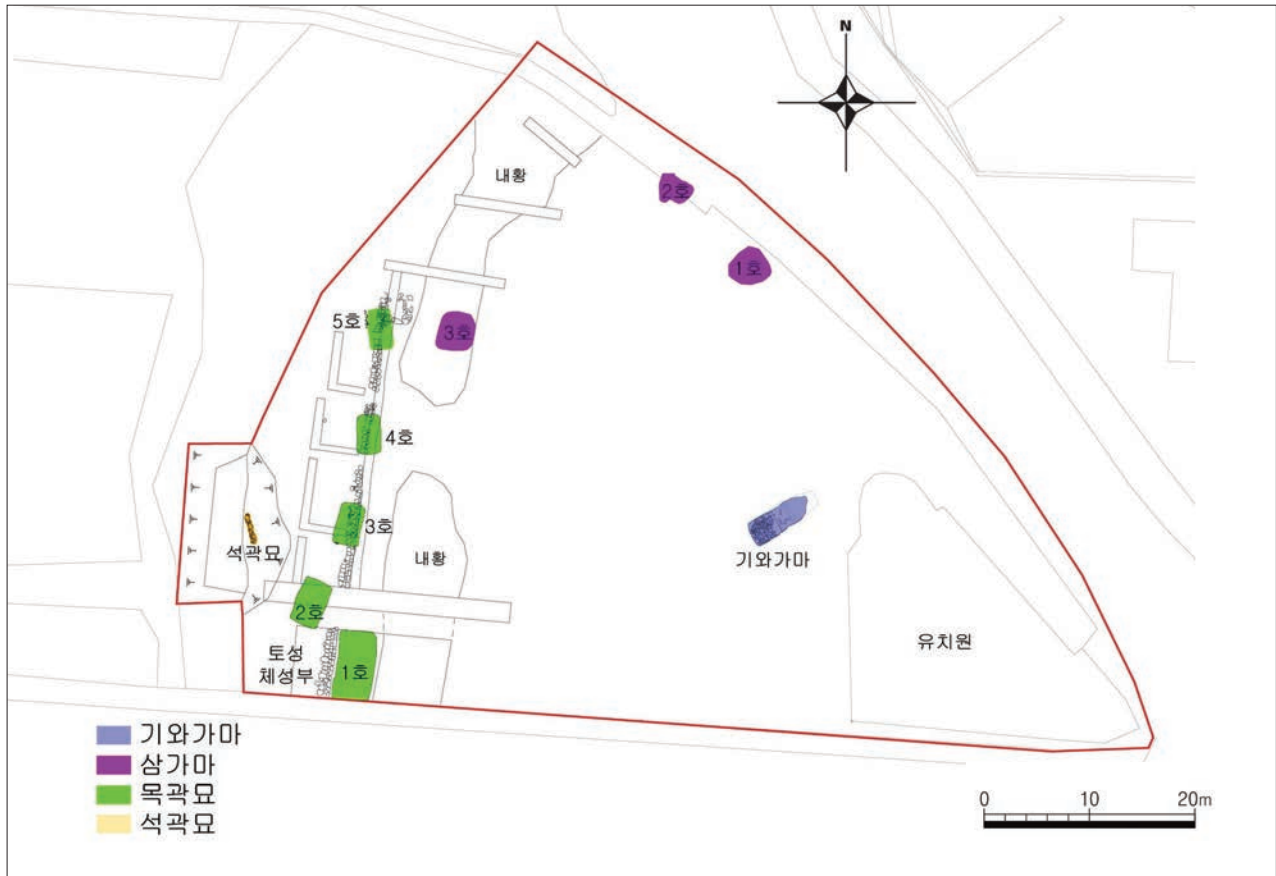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내 유적은 대성동고분군의 북쪽으로 구릉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조사 결과 목곽묘 5기, 수혈식석곽묘 1기와 김해고읍성, 조선시대의 기와가마 1기, 삼가마 3기 등 총 1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고분군 상부에 김해고읍성이 축조된 양상이다.

목곽묘는 단독곽식의 목곽묘로 장축방향은 모두 남-북향으로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목곽묘의 규모는 묘광 길이 2.9~3.46m, 너비 1.76~2.25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충진토는 사질토 또는 점질토를 다짐식으로 채워넣었고, 바닥은 대부분 정지면을 마련하였으며 2호 목곽묘는 판상철부로 관대를 조성하였다. 유물은 피장자를 목곽 중앙에 안치하고 단벽과 장벽 한 곳을 중심으로 'ㄴ'자상으로 부장하였다. 유물은 단경호, 양이부호, 직구호, 노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검, 철모, 철부, 철겸, 쇠스랑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조사된 목곽묘는 대성동고분군 외곽지역 구릉 사면부에 조

유적 위치도

성된 소형분이며 유물에 있어서도 마구나 무구 등의 위세용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대략 기원후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중반으로 편년된다.

이 조사를 통해 대성동고분군의 북쪽 범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목곽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김해고읍성 아래에 삼국시대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내 김해 대성동 유적』.


유구 배치도

2호 목곽묘

3호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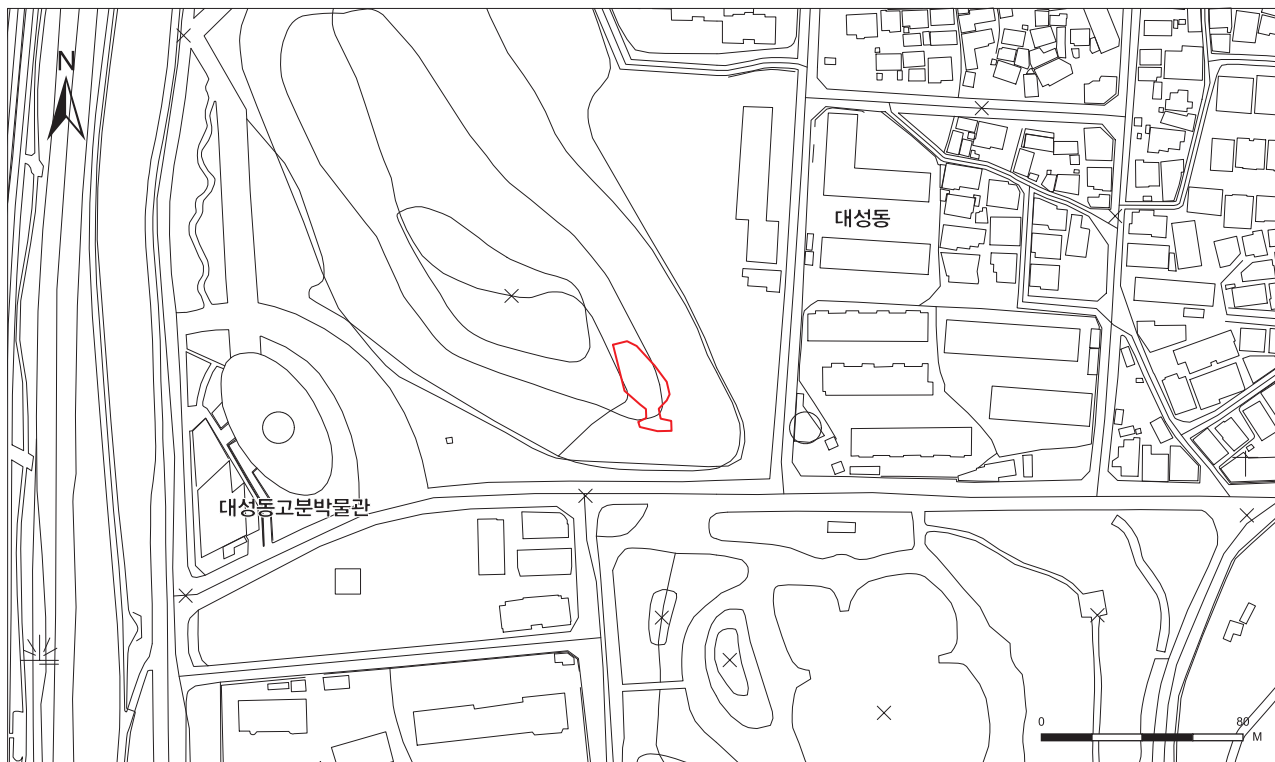
# 02-9 김해 대성동고분군 _ 6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1.7.~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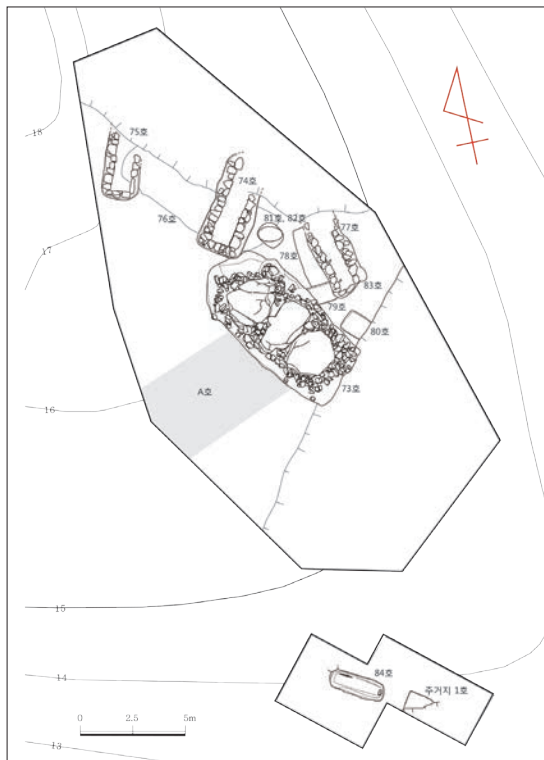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유개고배,
대부직구호, 철정,
철지금·금동장성시구,
금제이식, 판갑, 투구

대성동고분군에 대한 1~5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대형무덤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6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성동고분군 구릉의 축조 순서상 남동쪽 사면에 5세기 후반대의 대형무덤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개목관묘 1기(84호), 삼한시대 목관묘 2기(79·80호), 삼국시대 목곽묘 2기(76·78호), 수혈식석곽묘 4기(73~75·77호), 옹관묘 3기(81~83호) 등 모두 12기의 분묘와 시기불명 수혈 1기, 삼가마 1기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석개 목관묘(84호)는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묘광을 2단 굴광하였고 목개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송국리형 후기에 속하는 일단병식석검, 석촉, 홍도가 바닥에서 출토되었고, 소형의 유리제환옥이 목관과 적석을 덮은 흙속에서 확인되었다. 목관묘 2기는 충전토와 토층에 의해 판재관으로 추정되며, 출토된 조합식우

유적 위치도

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 소형양유부호 등으로 기원후 2세기 중후엽대로 편년된다. 목곽묘는 후대의 교란에 의해 구조는 확인하기 어렵고, 출토된 소형양이부호, 와질제 단경호와 노형기대, 와질제와 도질제의 타날문단경호 등으로 기원후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편년된다. 특히, 기존에 조사되지 않은 기원후 4세기 1/4분기의 대형 목곽묘(76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6차 발굴조사에서는 기원후 5세기 3/4분기 대형 수혈식석곽묘(73호분)가 조사되어 대성동고분군에서도 5세기 후반대 대형무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3호분은 대형의 판석상 개석 3매를 사용하였고 석곽의 규모는 묘광의 길이 8.2m, 너비 4.9m, 깊이 2.8m이고 석곽은 길이 4.8m, 너비 1.9m, 깊이 2.1m로 매우 깊은 편이다. 바닥에는 중소형 할석을 시상석으로 조밀하게 깔았으며, 벽체 최하단석에 인접하여 20㎝ 폭의 목조 시설흔이 확인되었다. 높은 벽체를 효율적으로 쌓기 위해 나무난간 등을 이용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개석과 벽체의 붕괴방지를 위한 별도의 목조 시설의 설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물은 전면 도굴로 인해 파손이 심한편이며, 남쪽 시상석 부장유물군과 북쪽의 부장갱 유물군으로 구분된다. 시상석 부장유물군에서는 대부직구호, 파수부배, 고배, 철지금·금동장성시구 편, 금제이식, 은제병두금구대도, 철촉, 판갑, 주, 철정 등이 출토되었고, 부장갱 유물군에서는 유개고배, 개, 단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녹각제표비, 환판비 등의 재갈류와 교구 등이 출토되었다. 2개의 유물군 사이에서 소찰 편과 운주 편 등도 확인되었다. 73호분은 금관가야의 지배층묘로 추정되며 출토된 토기 중 경산·창녕·진주지역 계통의 토기들이 있어, 다양한 지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김해 대성동고분군–73호분~84호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73호분

73호분 서장벽

73호 유물 출토모습

73호 유물 출토모습

76호분

76호 유물 출토모습

84호 목관묘 개석 노출모습

84호 목관묘

# 02-10 김해 대성동고분군 _ 7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2.6.~2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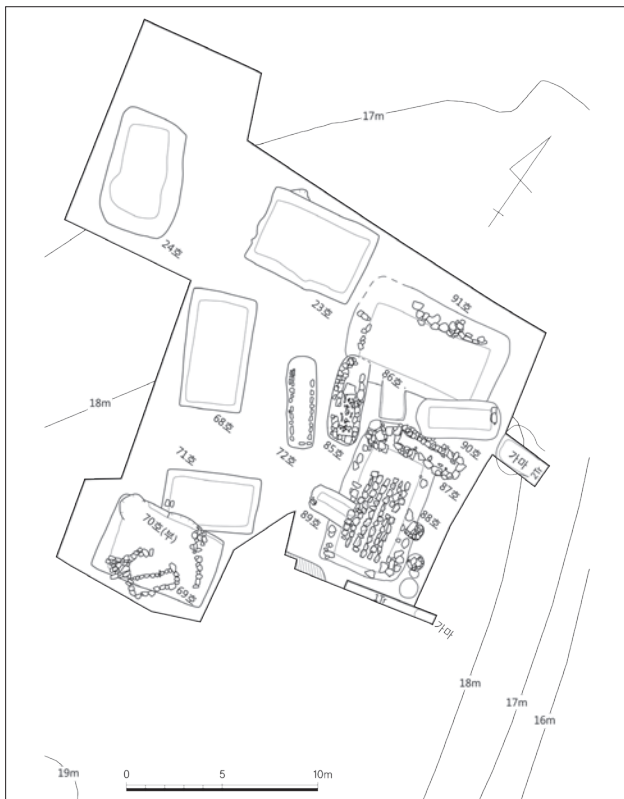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통형동기,
파형동기, 중광형동모,
방추차형석제품,
진식대금구, 청동세 · 완,
금동제용문투조운주,
패제운주, 녹각제입식,
서역계유리 편

대성동고분군 7차 발굴조사는 그간의 6차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5세기 중기의 대형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5차 발굴조사 시 내부조사가 안 된 무덤 주변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목곽묘 2기, 수혈식석곽묘 5기 등 7기의 분묘와 수혈 1기, 주혈 3기가 조사되었다. 7차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대형 목곽묘인 88호분과 91호분에서 기존의 통설을 바꾸는 새로운 자료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우선 88호분은 남-북장축의 단독곽식목곽묘로 왜 문물의 보고로 특징지어진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8.1m, 너비 4.5m, 깊이 1.7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5.9m, 너비 2.7m이다. 바닥에서 'ㅍ'자상의 목곽과 목곽고정을 위한 홈이 장벽에서 확인되었다. 바닥에는 직경 30㎝ 전후의 판상의 시상석을 일정간격으로 동서 6열과 남북 11열로 깔았다. 목곽 내부에서는 순장인골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쪽 충전토 하단부의 혼토패층에서 순장인골 2인이 확인되었고, 그 위로 적갈색점질토를 덮은 후 동쪽에 치우쳐 순장인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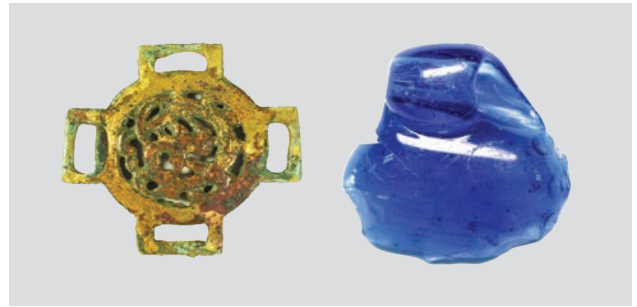
골 1인이 확인되었다. 2인의 순장자의 두개골 쪽에서는 빗모양장식구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함몰된 봉토에서 중광형동모 1점과 철부 10여 점이 수습되었고, 바닥에서 목곽 양 장벽을 따라 파형동기 11점, 그 주변에서 방추차형석제품 2점과 골촉, 철촉 등이 확인되었다. 목곽 중앙의 동쪽부근에서는 진식대금구, 북쪽 단벽에서 단경호, 개, 유공식철촉군, 통형동기 3점, 직호문유기질흔이 확인되었다. 파형동기는 일본을 포함해 최대량이 출토되었다. 88호분의 연대는 기원후 4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91호분은 동-서장축의 단독곽식목곽묘로 바닥에 시상을 마련하지 않았고, 규모는 묘광 길이 8.2m, 너비 4.8m, 깊이 0.9m, 목곽은 길이 6.5m, 너비 2.8m이다. 주피장자를 목곽 중앙에 안치하고 유물은 사방에 부장하였다. 목곽 중앙의 동쪽에 인접하여 남쪽으로 머리를 둔 순장자 3인이 위치하고, 서쪽 충전토 상부에서 순장자 2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동쪽유물군에서 노형기대, 노형토기, 단경호, 금동·청동제 마구류, 청동세, 청동완, 통형동기, 칠완, 패제운주 등이 출토되었다. 발치쪽은 서쪽에는 다량의 토기류가 부장되었으며 남쪽 장벽 중앙부의 도굴갱에서 용문양투조운주와 금동제식금구, 운모장식, 서역계유리 편 등이 수습되었다. 곽내 순장자 3인의 발치에서 녹각입식, 따비형철기, 삽날, 재갈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1번 순장자에서는 88호분 2·3번 순장자에게서 출토된 빗모양장식구가 출토되었다. 91호분의 연대는 기원후 4세기 2/4분기로 편년된다. 대성동 91호분에서는 중원계 유물과 북방계 유물이 모두 출토되는 등 4세기대 가야·신라권역의

7차 구간 유구 배치도

88호분

88호분 출토유물

88호분 순장자

91호분

91호분 출토유물

고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대륙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88호분과 91호분에서는 중국 중원의 진식대금구, 중국 북방의 선비족이 세운 왕조인 전연前燕의 청동용기와 마구, 일본열도산 파형동기와 통형동기, 류쿠열도琉球列島(현재 일본 오키나와현)산 패제품貝製品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91호분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 파편 등은 중국의 중원지역이나 요령지역과의 직접적 교류와 이들 지역이나 정치체를 매개로 진행되었던 북방 유목민족과의 교류나 이들을 통한 로마와 중국 간 실크로드상의 교류가 금관가야지역까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상을 통해, 낙랑군과 대방군의 소멸 이후에도 금관가야의 해상교류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김해 대성동고분군-85호분~91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교역의 가교 대성동고분군』, 대성동고분박물관10주년기념특별전시회도록.

# 02-11 김해 대성동고분군 _ 8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3.6.~2013.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노형기대, 통형동기, 내행화문경 편, 대금구, 금동반구형운주, 용문양운주, 철정

대성동고분군 8차 발굴조사는 기존의 7차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4세기 초와 5세기 중엽의 대형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13호분과 91호분 사이의 구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목곽묘 4기와 지석묘 1기가 확인되었지만, 지석묘의 적석부분 등 전면조사가 불가능하여 8차 발굴조사에서는 남쪽과 북쪽 경계에 위치한 2기의 목곽묘(70호 주곽·95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70호 주곽은 5차 발굴조사 시에 70호로 명명한 목곽묘가 8차 발굴조사에서 부곽임이 확인되어 주곽만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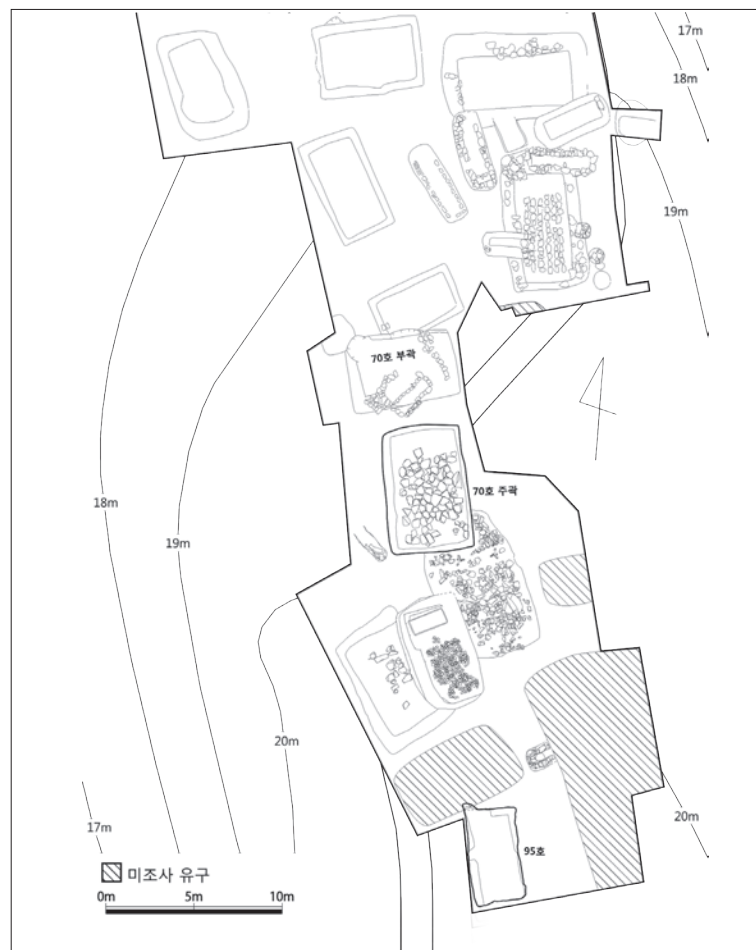
70호 주곽은 부곽과 'T'자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부곽과 바닥의 깊이 차이는 약 1.1m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7.27m, 너비 4.7m, 깊이 2.3m이며 목곽의 규모는 충전토와 바닥의 목곽흔을 통해 길이 6.6m, 너비 3.7m의 규모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북쪽단벽 아래 일부를 제외하고는 판상할석으로 전면시상 하였으며 시상 상부의 중앙에는 철정 9점을 깔았다. 유물은 중앙의 목관을 기준으로 남서쪽과 북동쪽에 토기군, 동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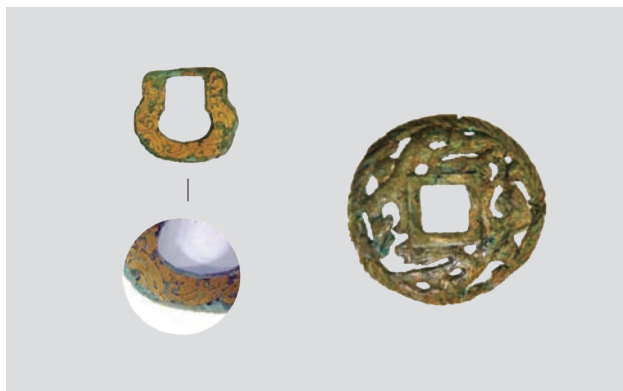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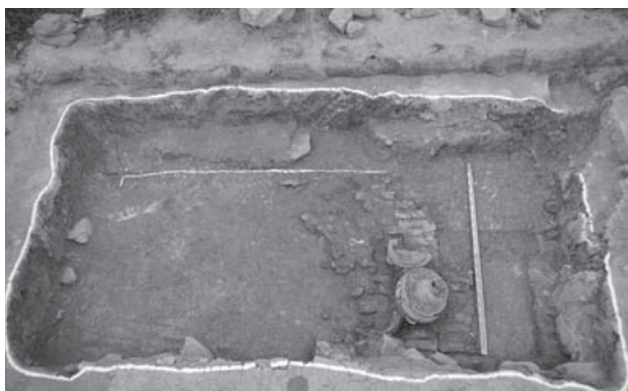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는 철촉, 철모, 철창, 갑주, 등의 무기류, 서쪽은 'U'자형 삽날, 살포 등의 농공구류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류는 고배, 왜계 소형기대, 파수부노형기대, 우각형파수부노형기대, 연질대부호가 부장되었고 통형동기, 내행화문경 편, 대금구, 금동반구형운주, 용문양운주, 반구형운주, 경갑, 판갑, 철모, 철창 등의 금속기류가 부장되었다. 70호분의 연대는 기원후 4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 70호 주곽은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철촉(429점 이상)이 부장된 목곽묘이다.

95호분은 남-북향의 단독곽식 목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5.2m, 너비 2.8m, 깊이 0.8m이며, 목곽의 규모는 충전토와 목곽흔을 통해 길이 4.3m, 너비 2.1m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시상을 시설하지 않았지만 철정을 북쪽 바닥에 깔았다. 철정은 장축 6열, 단축 18~20열로 깐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철정의 양을 복원하면 100매 이상이 되는데, 4세기대 중형분에서 가장 많은 철정이 출토된 분묘에 해당된다. 유물은 동쪽의 철정 상부에 양이부호 1점과 노형기대 3점이 출토되었으며, 노형기대 안에서 이지창 1점이 출토되었다. 도굴갱에서 노형기대 편과 철촉, 철검 등이 수습되었다. 95호분의 연대는 기원후 4세기 2/4분기의 늦은 시기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김해 대성동고분군-70호분 주곽·95호분-』.

8차 구간 유구 배치도

70호분 주곽 돗자리흔

70호분 출토유물

95호분

95호분 유물 출토모습

# 02-12 김해 대성동고분군 _ 9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4.6.~2014.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양이부호, 양유부호,
발형기대, 마주, 판갑,
투구, 이지창, 통형동기,
금동제마령

대성동고분군 9차 발굴조사는 8차 발굴조사에서 유보된 지석묘와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목곽묘 2기(93·94호), 횡혈식석실묘 1기(92호)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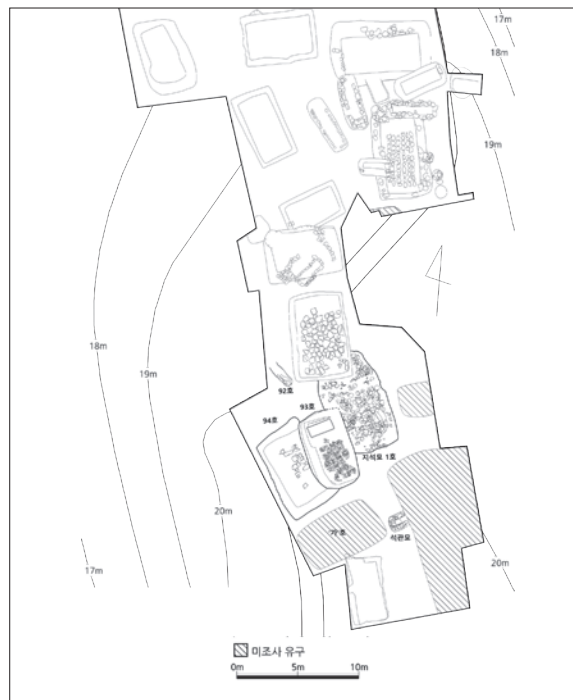
93호분은 남-북향의 목곽묘로 묘광 바닥을 재굴착하여 부곽을 마련한 특이한 예의 목곽묘이다. 부곽 내에는 순장자를 안치하고 상부를 유물 부장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부곽에서 꺾쇠가 출토되어 상자형부곽임을 알 수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6.6m, 너비 3.8m, 깊이 1.86m이다. 묘광 내 부곽의 규모는 길이 0.9m, 너비 2.07m, 깊이 0.55m이다. 목곽의 규모는 충전토의 범위로 볼 때, 길이 5.05m, 너비 2.6m이다. 바닥은 적갈색 점질토로 정지한 후, 자갈돌로 단벽 근처 일부분을 제외하고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의 범위가 목관의 범위로 추정된다. 시상의 북쪽 가장자리에는 순장자 3인을 관 밖에 붙여서 주피장자와 평행하게 안치하였고, 부곽 내의 순장자는 주피장자와 직교하게 안치한

유적 위치도

것으로 보인다. 시상의 북동쪽에서 치아가 확인되어 이곳에도 순장자 1인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장자는 모두 5인으로 대성동 1호 목곽묘의 곽 내 순장자 배치와 동일하다. 유물은 북쪽 부장공간에서 개, 고배, 호, 연질옹, 대부완, 대부파수부배, 대부파수부호, 소형기대,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마주, 판갑, 투구, 철모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부곽 내에는 순장자 인골과 개, 고배, 소형기대, 소형 대부파수부호, 장경호, 경식, 천식이 출토되었다. 연대는 대성동 1호분 다음 단계인 기원후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며 이혈부곽이 사라지는 점에서 이 단계부터 금관가야의 쇠퇴기로 볼 수 있다.

94호분은 남-북향의 단독곽식목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7.08m, 너비 4.2m, 깊이 0.86m이다. 충전토의 범위로 볼 때, 목곽의 규모는 길이 5.7m, 너비 3.5m이다. 바닥에는 황색점토로 정지한 후에 묘광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철정을 깔았다. 철정은 윗단의 수가 동서향 4×40열, 남-북향 2×10열, 동-서향 5매 총 185매로 추정된다. 일부 상하로 중복되어 있어 200여 점이 넘는 수의 철정을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철정 상부에 편평한 할석을 일정간격을 두고 시상을 깐 점이다. 꺾쇠와 철정의 출토로 목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서장벽 아래의 장축을 따라 토기가 2×7열로 부장하였다. 노형기대, 호, 양이부호, 양유부호, 개, 연질내만구연호, 연질기대, 철모, 철촉, 'U'자형 삽날, 이지창, 통형동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시상석의 동서에서 주조철부가 상하 대칭으로 묶어 각각 5쌍·6쌍 출토되었다. 93호 도굴갱에서 출토된 금동제마령은 정황으로 보아 94호분 유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대는 기원후 4세기 3/4분기에 편년된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6, 『김해 대성동고분군-92호분~94호분, 지석묘-』.

9차 조사구간 유구 배치도

92호분 출토유물

93호분

93호분 출토유물

94호분

94호분 출토유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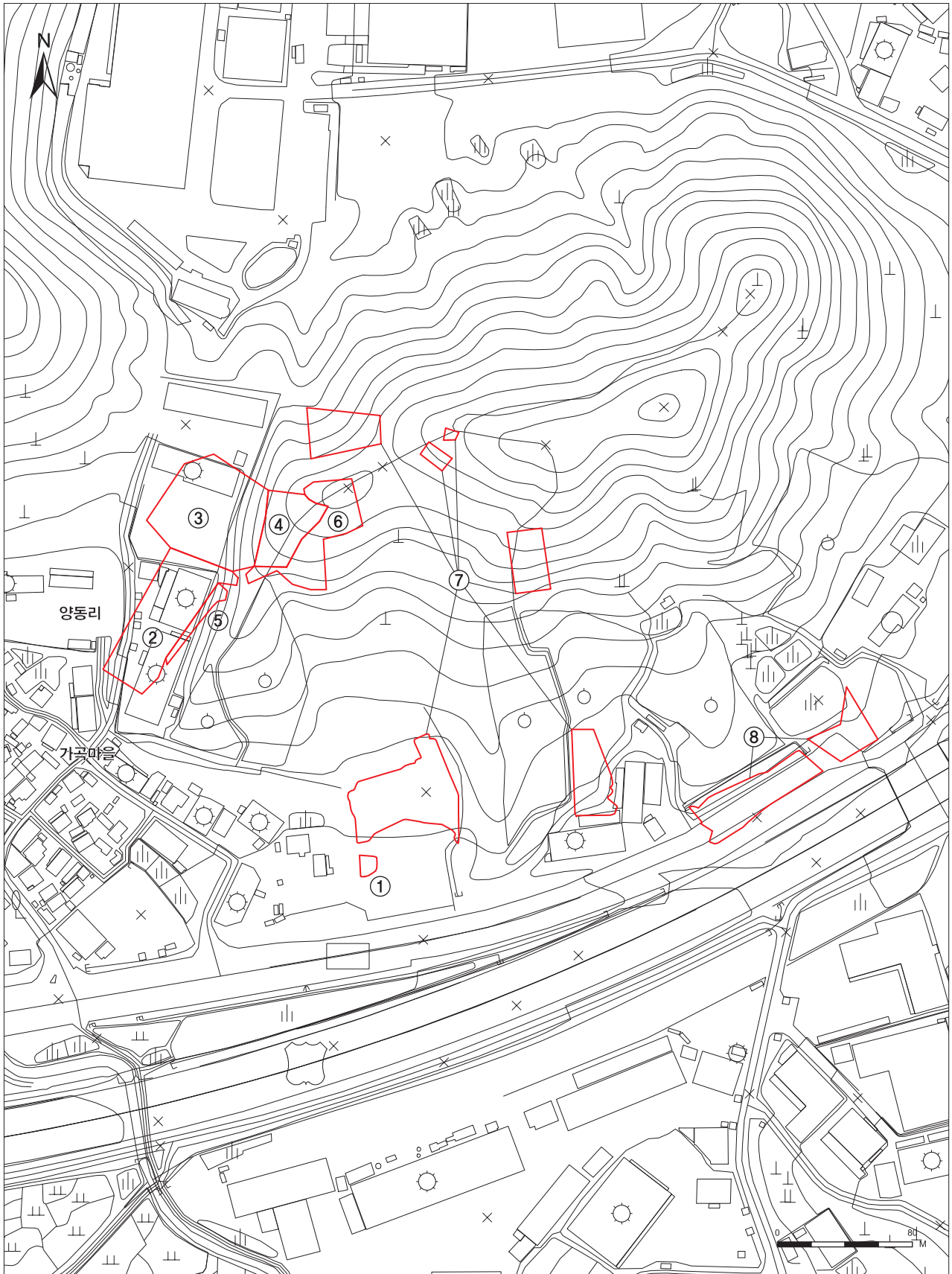
# 김해 양동리고분군
## 金海 良洞里古墳群

|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고분군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 일대의 가곡마을 뒤 야산(해발 96m)의 남쪽사면에 위치한다. 양동리고분군은 1970년 마형검파두식과 사신박국경을 비롯한 일군의 유물이 보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8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시작으로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의해 5차례,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김해시)의 공동발굴조사가 1차례, 최근 해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양동리유적의 남동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단부에 대한 조사 등 총 8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에서 목관묘 11기, 목곽묘 17기, 옹관묘 3기 등 기원후 2~3세기대의 무덤이 좁은 면적에 중복·밀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동의대학교박물관의 5차례의 조사에서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곽묘·옹관묘 등 다양한 형태의 묘제가 총 548기 조사되어 고분군의 성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김해박물관과 대성동고분박물관의 공동발굴조사에서는 목관묘 25기, 직장묘 6기, 옹관묘 8기, 목곽묘 1기, 석곽묘 1기, 석실묘 1기 등 42기의 무덤이 조사되어 고분군의 분포범위와 7세기대 석실묘가 확인되어 양동리고분군의 하한연대를 비롯해 고분군의 조영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동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양동리유적의 분포범위 중 해발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목관묘 7기가 확인되었는데, 유적의 확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동리고분군은 목관묘에서 석실묘까지 가야의 모든 묘제가 확인되어, 금관가야 묘제 변천을 파악하는데 최적의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토된 각종 유물은 구야국과 금관가야 문화의 실상과 변천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무기, 갑주와 마구, 농공구 등이 출토되었으며, 각종 철기에 장식된 궐수문은 가야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양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동기로는 동경, 동검, 명문동정, 동복, 동모, 통형동기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국제교역으로 유입된 물품으로 당시 양동리고분군 축조집단의 국제적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유구와 유물을 통해 본 유적의 조영시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기획특별전 도록.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김해 양동리고분군-가야문화권 유적보존 정비사업 유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 1984.11.~1984.12. | 김해양동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1989) |
| 2 | 김해 양동리고분군<br>-1차 발굴조사 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0.11.~1991.12. | 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 개요(1991)<br>김해 양동리유적 개요(1991)<br>김해 양동리 제162호 토광목곽묘 발굴조사 개요(1991)<br>김해 양동리고분 갑주출토 유구(1991)<br>김해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1차) 약보고서(1993)<br>김해양동리고분문화(2000)<br>김해양동리고분군 I (2008) |
| 3 | 김해 양동리고분군<br>-2차 발굴조사 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2.2.~1992.12. | 김해 양동리고분군 제2차 발굴조사(1992)<br>김해 양동리 제235호 토광목곽묘 발굴조사 개요(1992)<br>김해 양동리고분군발굴조사(제2차) 약보고서(1993) |
| 4 | 김해 양동리고분군<br>-3차 발굴조사 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3.9.~1994.5. | 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1994)<br>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3차) 약보고서(1994) |
| 5 | 김해 양동리고분군 경계지점 내 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5.5.~1995.7. | 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조사-김해 양동리 산6-2번지와 4번지의 경계지점에 대한 긴급조사(1995) |
| 6 | 김해 양동리고분군<br>-4차 발굴조사 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5.10.~1996.2. | 김해 양동리 고분군 추가 발굴조사 약보고서(1996) |
| 7 | 김해 양동리유적 | 국립김해박물관·<br>대성동고분박물관 | 2010.11.~2011.3. | 김해 양동리 유적(2012) |
| 8 | 김해 양동리고분군 -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4.1.~2014.4. | 김해 양동리 유적-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 부지 내 유적(2016) |

#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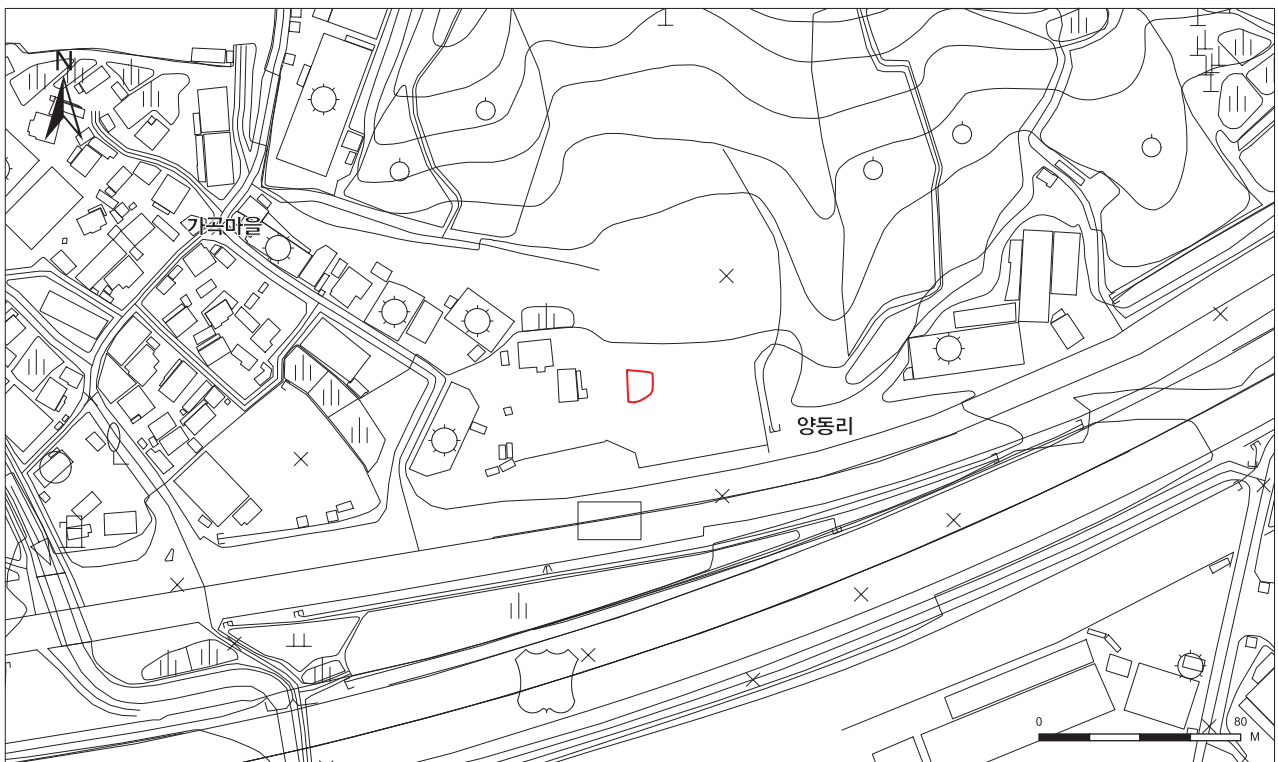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문화재연구소 /
1984.11.~1984.1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
주머니호,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 철모, 철검

# 김해 양동리고분군 _ 가야문화권 유적보존 정비사업 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문화권 유적보존 정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양동리고분군 구릉 남쪽 하단부 지역을 선정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목관묘 11기, 목곽묘 17기, 옹관묘 3기 등 모두 31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무덤은 서로 중복되어 5개(A~E)의 군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목관묘 대부분이 유물도 출토되지 않고 목관의 흔적도 조사되지 않았는데, 목관묘 중에서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2호분이다. 2호분은 묘광의 규모가 길이 3.1m, 너비 1.25m, 깊이 1.57m로 평면 타원형에 가깝고,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4m, 너비 0.64m 정도이다. 동쪽 충전토 내에서 와질단경호 1점과 단조철부 2점, 철겸 1점이 출토되었고, 북서쪽 충전토 내에서는 와질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1점과 주머니호 1점,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목관 상부에 와질단경호 1점을 부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묘광벽에서 굴지구흔이 확인되었다 .

유적 위치도

목곽묘는 5개의 군으로 중복되어 축조되었고,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7호분은 묘광의 규모가 길이 3.23m, 너비 1.56m, 깊이 0.75m로 평면형태 장방형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2.33m, 너비 0.98m 정도이다. 바닥에서 목관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관과 곽 내에서 철기류 위주로 출토되었는데, 철촉, 철검, 이단병식철모, 물미, 단조철부, 철겸 등이다. 장신구로 관옥과 유리제구슬로 구성된 경식이 출토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목관묘와 목곽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대로 편년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양동리고분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양동리고분군의 전반적인 묘제의 구성과 조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좁은 면적에 중복·밀집조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동리고분군의 중요성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문화재연구소, 1989, 『김해 양동리 고분-발굴조사보고서-』.

유적 전경

4호분

7호분

8호분

## 03-2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0.11.~199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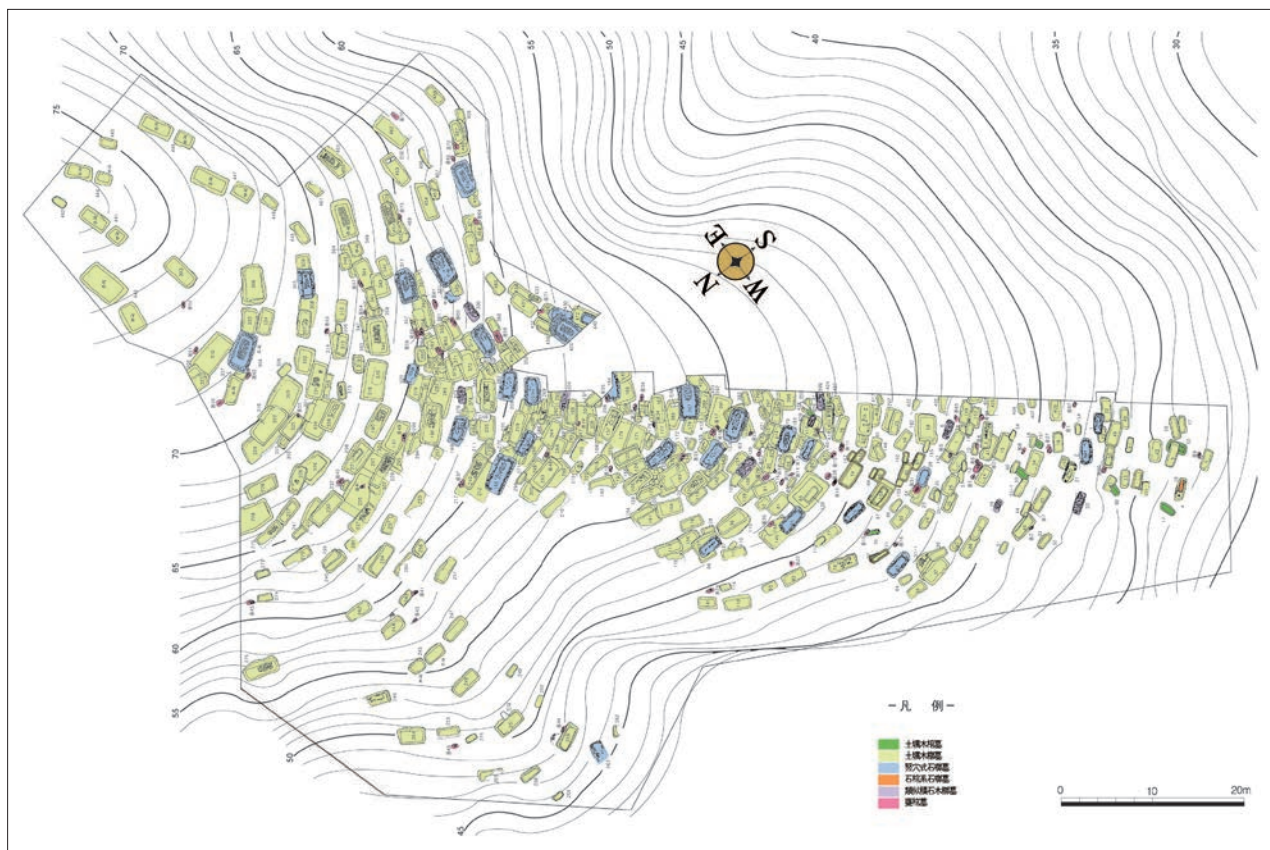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수혈
식석곽묘 / 양이부호,
한경, 방제경, 철검,
청동제검파두식,
환형동기, 통형동기,
중광형동모

# 김해 양동리고분군 _ 1차 발굴조사 유적

양동리고분군의 1차 발굴조사는 김해시 도정공장부지 건설에 따른 구제발굴로 진행되었으며,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석관계석곽묘 1기, 목관묘 6기, 목곽묘 158기, 수혈식석곽묘 12기, 옹관묘 35기, 유사적석목곽묘 4기로 모두 216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관묘는 규모가 길이 2.21~3.17m, 너비 1.01~1.7m의 평면 말각장방형이며, 장축은 동-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출토유물은 관 외에서 와질주머니호, 단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철촉, 철모, 철겸이 출토되었다. 특히, 55호 목관묘에서는 경식, 방제경, 환형동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요갱 내에서 청동제검파 및 검파두식을 갖춘 철검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70호 목관묘에서는 무문토기 소형 장경호가 출토되어 양동리고분군의 상한이 최소 기원전 1세기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곽묘는 규모가 길이 1.6~6.4m, 너비 0.73~4.4m 정도로 다양하며, 평면 말각장방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형이다. 장축은 대부분 남-북향으로 등고선과 일치한다. 유물은 토기와 철기가 주종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162호 목곽묘이다. 162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한경과 다량의 철기류를 통해 2세기 후반대에 대형 목곽묘를 축조한 지배자의 출현은 물론 영남지역 목곽묘의 절대연대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외, 90호 목곽묘에서는 유구 중앙 상부에서 중광형동모 2점이 출토되었다.

양동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에서는 묘제의 상호 중복관계 등을 통해 묘제의 변천 등 가야묘제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시기별 가야문화의 실상과 변화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동리고분군이 금관가야의 핵심고분군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3, 『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1차)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양동리고분문화』.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김해양동리고분군 I』.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유적 원경

55호묘 유물 출토모습

55호묘 출토유물

427호묘 출토유물

# 03-3 김해 양동리고분군 _ 2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2.2.~199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단경호,
유개대부장경호, 철검,
청동제검파, 동복

양동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는 1차 발굴조사 부지에서 북동쪽 구릉 상부로 연장된 곳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목곽묘 112기, 수혈식석곽묘 6기, 옹관묘 14기, 유사적석목곽묘 2기 등 모두 134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곽묘는 규모가 1.8~7.6m, 너비 1.3~4m로 평면형태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는데, 묘광 길이에 비해 폭이 넓은 목곽묘(Ⅰ류)와 길이에 비해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목곽묘(Ⅱ류)로 대별된다. 주로 Ⅰ류는 묘광의 길이가 5~7m 정도의 대형급에 속한다. 출토된 유물은 와질단경호, 노형토기, 도질고배와 단경호가 주종을 이룬다. 철기류는 철검, 철모, 철촉, 환두대도와 철부, 철겸, 도자가 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계갑, 종장판주 등의 갑주류와 광형동모, 동제금구 및 검파두식 금구, 동복 등 금속기류도 출토되었다. 특히, 200·235호 목곽묘에서는 길이가 각각 198㎝, 227㎝ 정도 되는 철제자루가 부착된 대형 철모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유적 위치도

수혈식석곽묘는 규모가 길이 2.95~4.3m, 너비 1~1.7m 정도의 규모로 장축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동일하다. 유물은 주로 북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고배, 단경호, 소형광구호, 노형토기 등이 주종이며, 철기류는 환두대도, 철모, 철부, 철겸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어, 목곽묘에서 석곽묘로의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동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를 통해 기원후 2세기 후반~3세기 전반대 수장급 대형 목곽묘(200·212·235·280호)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3, 『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2차)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양동리고분문화』.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212호 목곽묘 출토유물

212호 목곽묘 출토유물

##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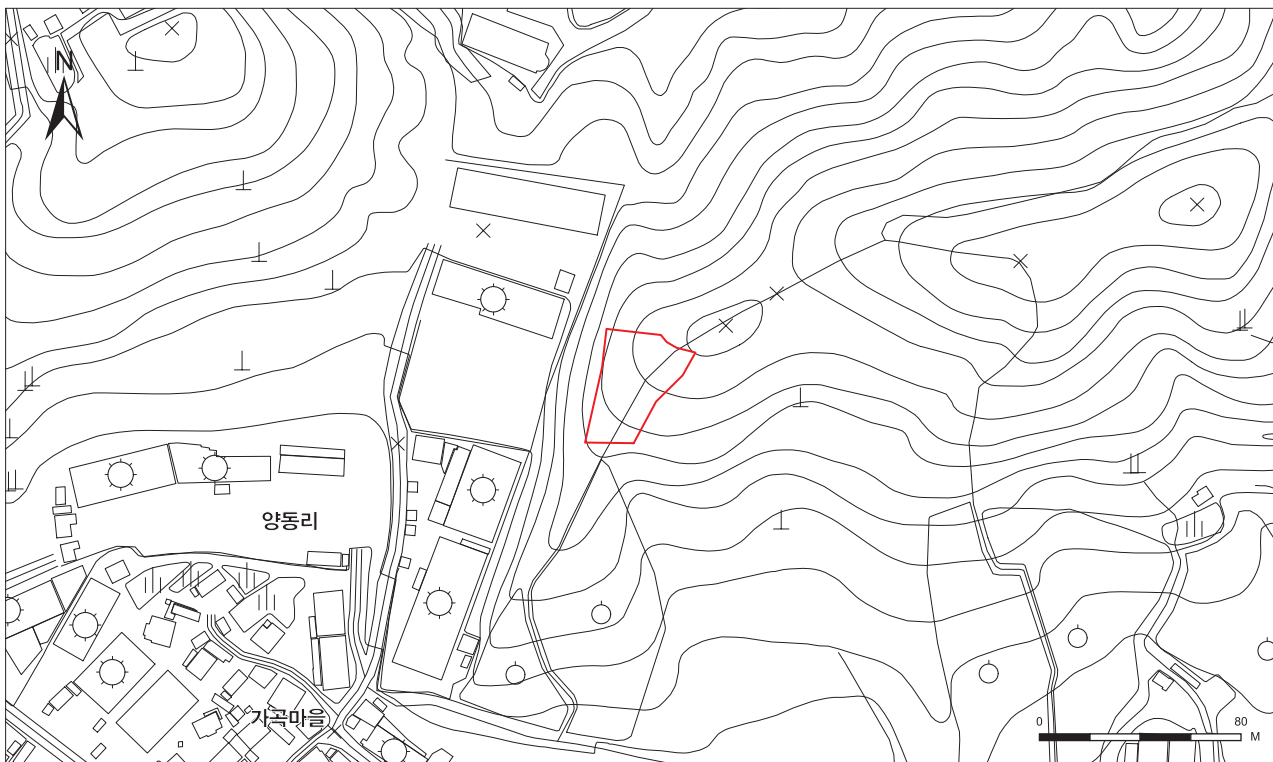
# 김해 양동리고분군 _ 3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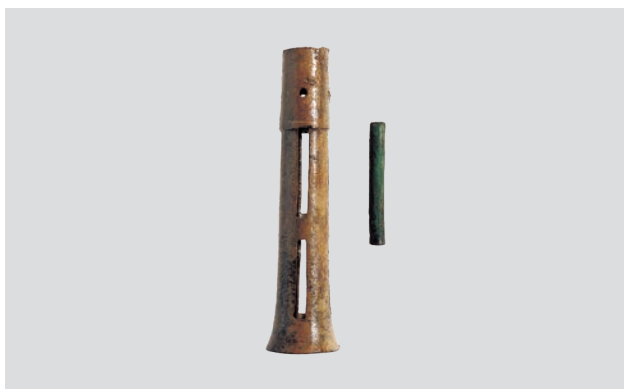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3.9.~1994.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통형동기,
동정

양동리고분군 3차 발굴조사는 2차 발굴조사구역의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목곽묘 76기, 수혈식석곽묘 6기, 옹관묘 15기, 기타 2기 등 모두 9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곽묘 중 특수 화장유구 2기가 확인되었는데, 시기적으로 기원후 3세기대에 편중되며 이러한 화장 습속은 북방문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318호 목곽묘에서 철복 1점이 출토되었다. 322호 목곽묘에서는 명문 동정이 출토되었는데, 짧은 足과 耳頭의 굽은 형태로 볼 때 이 동정은 기원전 100년~기원후 100년 사이 황하강 중하류 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명문의 자체字體는 한대의 전서체篆書體로 밝혀졌다. 명문은 '西○宮鼎, 容一斗, 幷重十七斤七兩, 七'로, 내용은 동정의 유래와 성질 등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 글자수는 14자이다. 322호 목곽묘는 연대가 기원후 3세기대로 동정은 전세되어 부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22호 목곽묘에서는 총 연장길이가 158㎝나 되는 경식이 출토되었는데, 수정제곡옥과 다면옥, 마노제의 환옥, 남색유리제환옥 등으로

유적 위치도

322호 목곽묘 출토 동정

322호 목곽묘 출토 경식

304호 석곽묘 출토 통형동기

304호 석곽묘 출토 각배

구성되어 있다.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이른 시기의 무덤이 다수 조사되었는데, 304호 석곽묘 등을 통해 석곽묘의 구조와 계통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야인의 뛰어난 공예수준을 엿볼 수 있는 각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기원후 3~4세기대의 목곽묘와 석곽묘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가야 묘제상의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는데 조사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4, 「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3차)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양동리고분문화』.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 03-5 김해 양동리고분군 경계지점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2·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5.5.~1995.7.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방제경, 세형동검

양동리고분군 경계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는 1차 발굴조사구간의 동쪽부분에 해당하며 경계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약 100평에 대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목관묘 2기, 목곽묘 40기, 수혈식석곽묘 1기, 유사적석목곽묘 2기, 옹관묘 3기 등 총 48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경계지점 발굴조사에서는 기원후 2세기 전반대의 427호 목관묘가 가장 주목된다. 427호 목관묘는 장축이 동-서향이며 등고선과는 직교하고, 규모는 묘광 길이 2.3m, 너비 0.9m이다. 묘광의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m, 너비 0.6m 정도이다. 유물은 방제경 3점과, 변형 한국식동검 1점, 경식 1식과 철부 1점, 철겸 1점, 따비 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변형 한국식동검인 세형동검은 정식 발굴조사로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이다. 방제경은 내행화문일광경계방제경이며 이 가운데 2점은 발굴조사에서 처음 수습된 유물이다. 427호 목관묘의 유물 부장양상은 검, 경, 옥은 목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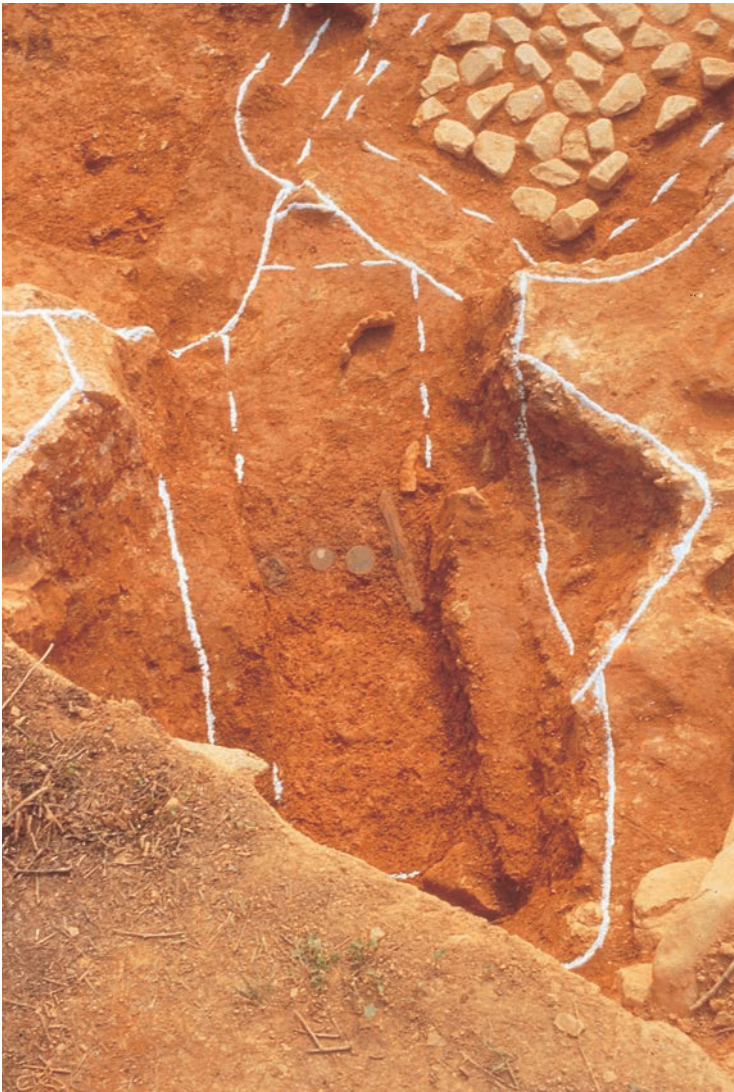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피장자의 신변 가까이에 두고, 철촉은 충전토 내의 묘광 바닥에, 철겸과 철부는 목관 아래 묘광바닥에 부장하였다. 경식의 출토위치와 검의 병부방향 등을 고려해 보면 피장자의 두향은 동향 동침으로 파악된다.

427호 목관묘 출토 변형 한국식동검과 방제경 등 청동제 일괄유물은 가야의 사회상과 낙동강 하류역인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5, 「김해 양동리고분군 경계지점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양동리고분문화』.

427호 목관묘

427호 목관묘 출토유물

# 03-6

# 김해 양동리고분군 _ 4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5.10.~1996.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방제방격구규문경, 이형철촉, 금박구슬

양동리고분군 4차 발굴조사는 제3차 발굴조사구간의 동쪽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구릉의 경사면 약 500평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목곽묘 41기, 수혈식석곽묘 4기, 옹관묘 6기 등 총 51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4차 발굴조사에서는 부곽을 갖춘 다수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부곽의 경우, 단순 유물의 부장처의 기능뿐만 아니라 순장자를 안치하는 공간이라는 역할이 중시되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부곽을 갖춘 목곽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443호 목곽묘로 규모는 주곽의 묘광이 길이 7.2m, 너비 4.25m, 깊이 1.16m이며, 부곽은 묘광의 길이 5m, 너비 3.1m, 깊이 1.42m이다. 349호 목곽묘에서는 인골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주곽의 주피장자 발치 아래에서 화려한 경식이 출토되어 주피장자 외에 다른 피장자의 존재, 즉 순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차 발굴조사에서도 목곽묘 내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349호 목곽묘에서는

유적 위치도

궐수문(소용돌이형 무늬) 장식이 있는 환두대도 1점이 출토되었는데, 환두부 안에 'X'자 형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양쪽 끝부분을 말아 놓아 궐수문 효과를 낸 사례이다. 441호 목곽묘에서는 기원후 4세기 전반경의 방제방격규구문경 1점이 국내 최초로 확인되어, 고대 동경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53호 목곽묘에서는 이형철촉 3점이 출토되었는데, 능형촉두의 중앙 부분이 투각된 철촉으로 명적鳴鏑의 효과를 내었던 특수용도의 철촉이다. 462호 목곽묘에서는 경식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슬 중에서 금박구슬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금박구슬은 평양 정백동 목곽묘와 천안 청당동 목관묘, 부산 복천동에서 출토된 예가 있어 비교 자료로서 주목된다.

이상 4차 발굴조사에서는 가야묘제 변천 과정에서 부곽의 등장 시기와 구조 및 기능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금관가야의 사회상과 국제적 교류양상 등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6, 『김해 양동리고분군 추가 발굴조사 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양동리고분문화』.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441호 목곽묘

출토유물

##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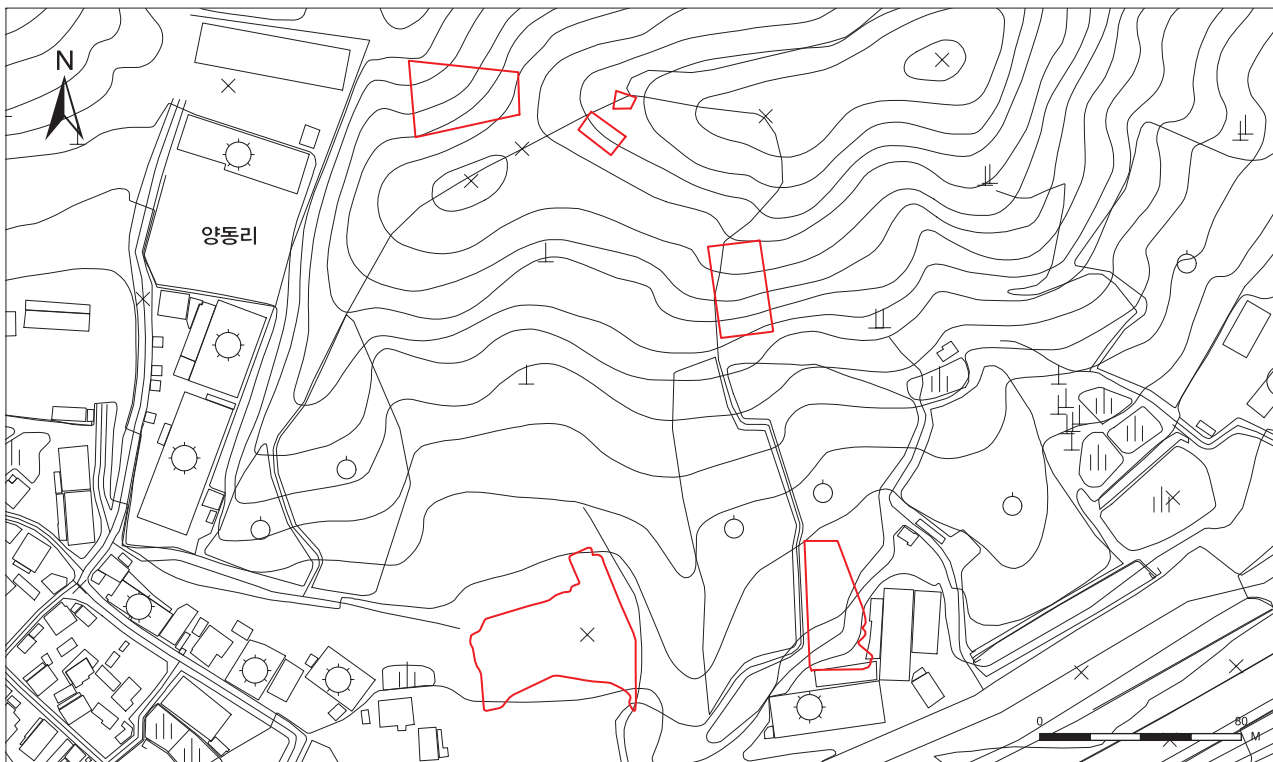
# 김해 양동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대성동고분박물관 /
2010.11.~2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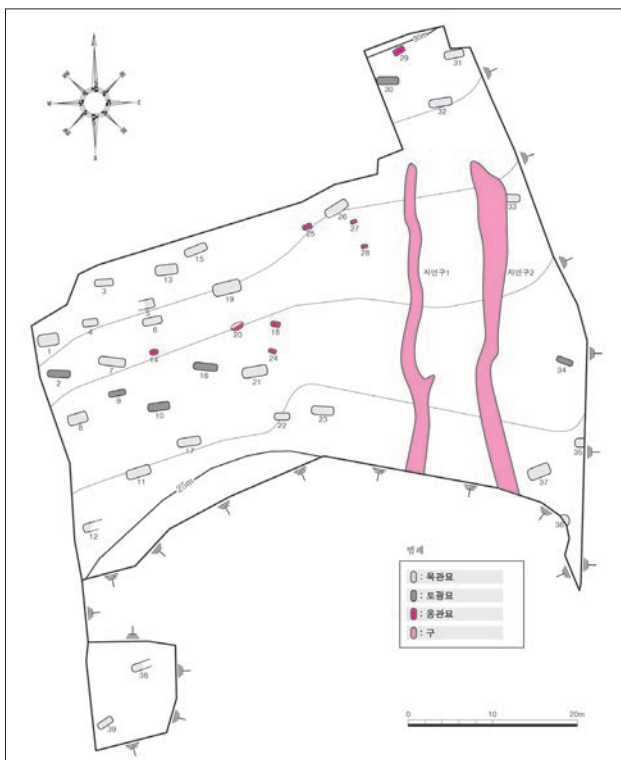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주머니호, 통형기대,
통형철기, 판갑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공동 발굴조사한 양동리유적은 사적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양동리고분군의 유적 경계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는 사적지의 경계를 따라 4개 지구(Ⅰ~Ⅳ지구)를 설정하였으며, Ⅰ지구는 전면 발굴조사하였고, 나머지 지구는 유적의 범위확인을 위해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다. Ⅰ지구는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지역의 동남단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지역의 경계에서 서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조사 결과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25기와 직장묘 6기 및 옹관묘 8기가 조사되었고, 삼국시대는 목곽묘 1기와 수혈식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와 시기 미상 수혈 2기 등 총 4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전면 발굴조사된 Ⅰ지구에 대해 살펴보면, Ⅰ지구에서는 목관묘와 옹관묘, 직장묘가 확인되었는데, Ⅰ지구는 완만한 사면이며 해발 25~30m 사이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유적 위치도

전 동의대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구역과 다르게 중복현상이 보이지 않고 목관묘가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관묘의 장축방향은 모두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향이며, 유물은 목개나 목관 상부, 충전토 상부, 충전토 내부, 목관 내부로 구분되어 부장되었다. 토기는 주로 단경호, 주머니호, 양뉴부호 등이며, 철기류는 철모, 철검, 환두대도, 철촉,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겸, 도자, 철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Ⅰ지구에서 조사된 무덤은 기원후 2세기대로 편년된다.

Ⅳ지구에서는 이혈주·부곽식 목곽묘(Ⅳ-1호분) 1기와 단독곽식의 대형 수혈식석곽묘(Ⅳ-2호분) 1기가 조사되었다.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의 주곽의 묘광 규모는 길이 5.8m, 너비 3.6m, 깊이 1.6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4.7m, 너비 2.3m이다. 부곽은 주곽에서 북쪽으로 50㎝ 떨어져 확인되는데 등산로와 겹쳐 내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모는 너비 2.2m이다. 목곽 내 빈공간인 북동모서리 부분은 순장자 공간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목곽 남쪽의 양 장벽을 따라 노형기대, 단경호, 유개대부호, 연질고배, 개 등 토기류와 판갑, 주, 철모, 철창, 통형철기, 유자이기, 철부, 철겸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Ⅳ-1호분은 양동리고분군의 주·부곽식 목곽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규모와 깊이가 가장 크고 깊은 편에 속한다. 축조시기는 기원후 4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대형 수혈식석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된 말각장방형으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5.95m, 너비 3.2m, 깊이 1.3m이며, 석곽은 길이 4.55m, 너비 1.85m, 높이 0.96m이

Ⅰ지구 유구 배치도

Ⅰ지구 전경

Ⅱ-2호묘

토기류

금속류·토기류

다. 양단벽 가장자리에 폭 15㎝ 전후의 '凹'자상 홈이 있으며, 동장벽 아래 4개, 서장벽 아래 3개의 주혈이 설치되어 있다. 보고자는 이러한 시설을 목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물은 석곽 내 사방으로 부장되었는데, 후대 도굴과 교란으로 주로 토기류만 잔존한다. 토기는 연질기대, 내만구연호, 광구소호, 소형기대, 통형기대, 노형기대,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고, 철기는 궁금구, 도자 정도만 잔존하며 곡옥과 유리제연주옥으로 구성된 경식이 출토되었다. 축조시기는 기원후 5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양동리고분군의 분포범위와 목관묘의 주요 분포지역을 확인하였으며, 발굴조사되지 않았지만 Ⅱ지구에서 7세기대로 보이는 석실묘의 확인으로 양동리고분군의 조영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김해시, 2012, 『김해 양동리 유적』.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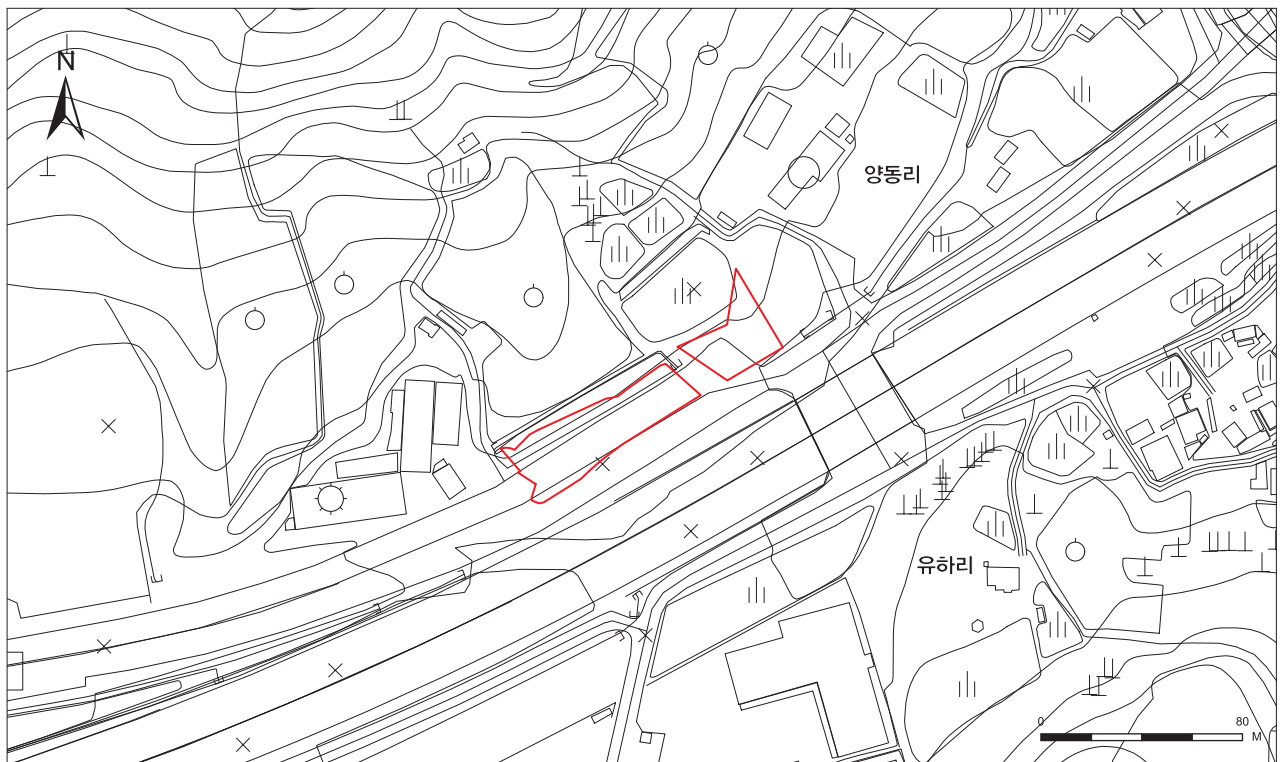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4.1.~2014.4.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철검, 철부

# 김해 양동리고분군 _ 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 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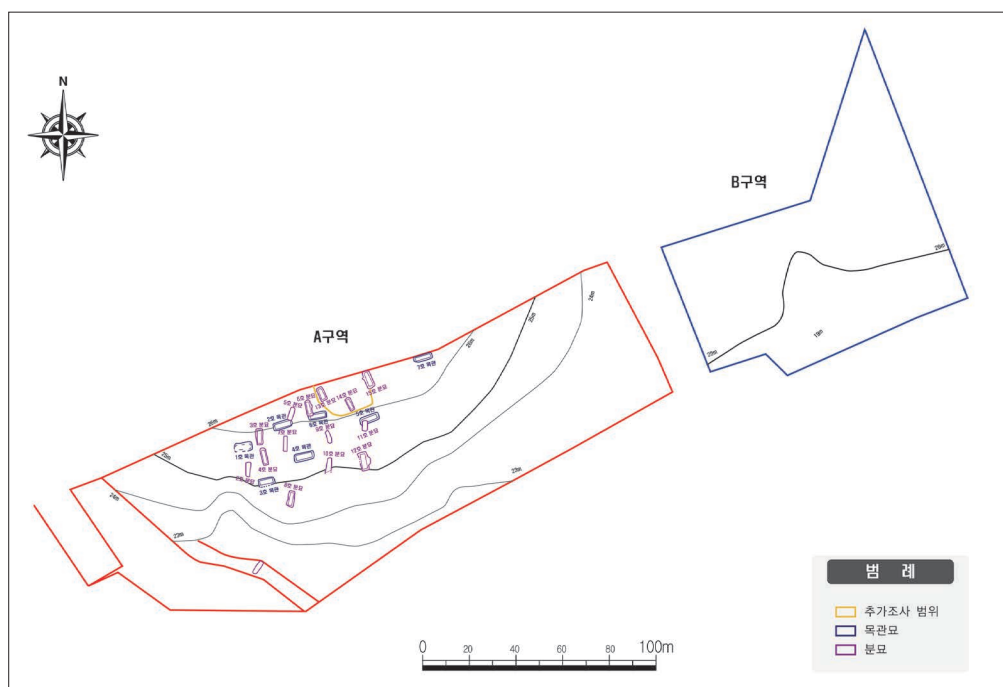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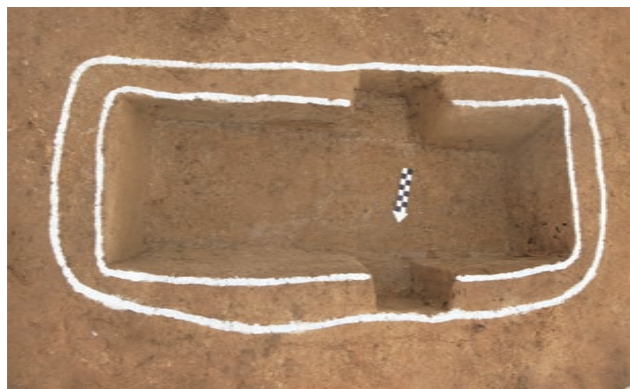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김해 양동리유적은 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해당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북서쪽의 황새봉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사면 말단부로 양동리고분군 남동쪽 사적경계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며 고분군 분포범위에 포함된다. 조사는 2개 구역(A·B)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A구역에서 원삼국시대 목관묘 7기, 조선시대 분묘 15기가 조사되었고, B구역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목관묘는 평면형태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향이다. 7기 모두 판재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규모는 묘광 길이 2.23~2.7m, 너비 0.95~1.25m로 소형에 속한다. 목관 내에서 유물은 철겸, 철촉, 철부, 철검 등의 철기류와 구슬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으며 청동기와 토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로 목관 내와 충전토 내에서 출토되었고 목관 내 부장이 우세하다. 축조시기는 기원후 2세기 초중반으로 국

유적 위치도

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Ⅰ지구 목관묘와 유사하다.

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양동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기 조사된 국립김해박물관·대성동고분박물관의 Ⅰ지구 목관묘보다 해발이 낮은 곳에도 목관묘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동리고분군의 목관묘 분포범위가 남쪽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양동리유적-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유구 배치도

4호 목곽묘

7호 목곽묘

출토유물

## 04 김해 칠산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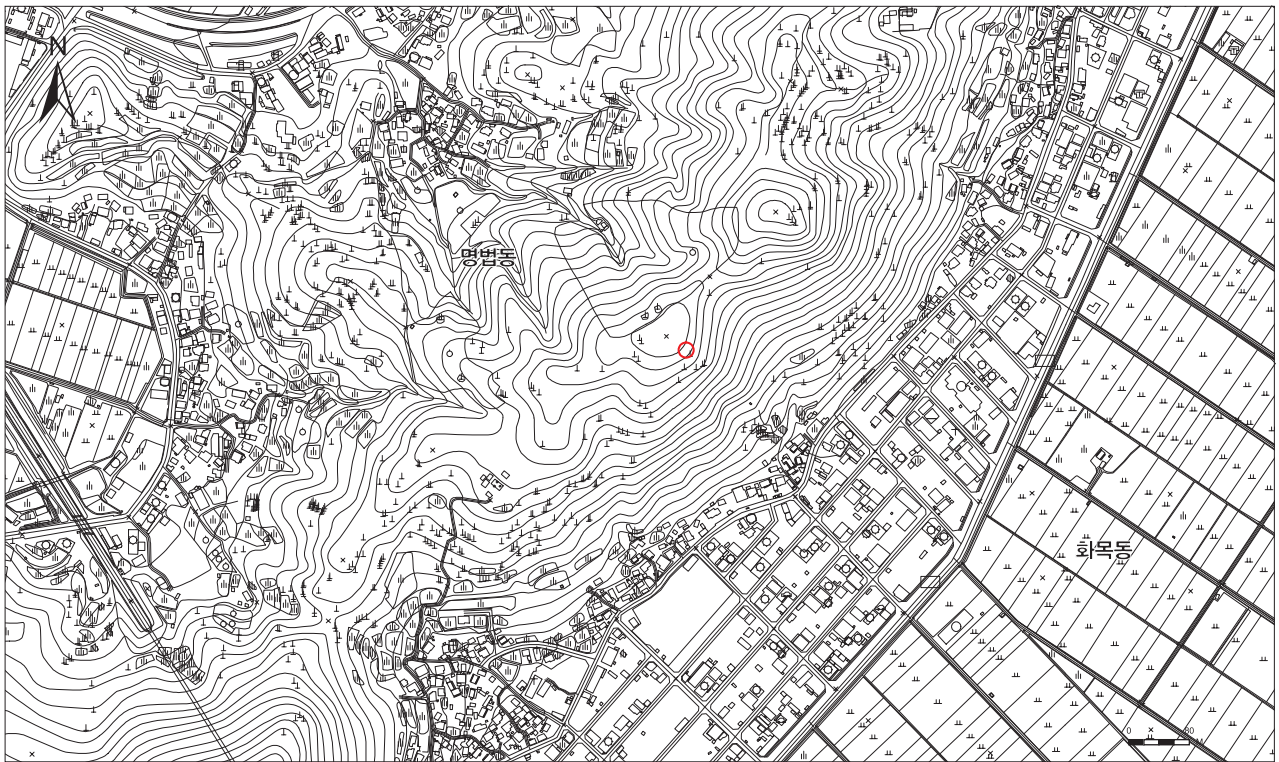
| 경상남도기념물 제98호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산1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차 1987.8.~1987.10.
2차 1988.4.~1988.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단경호, 장경호, 철부,
철촉

유적은 김해시의 중심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 정도 떨어져 있다. 분묘들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칠산의 명법 1구 구릉 뒤쪽 해발 100m 전후의 산정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과거에는 '김해 명법동고분군'이라고도 불렸으며, 김해시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규모가 큰 고분군 중의 하나이다.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대부분 도굴과 파괴를 당해왔으나, 1987년과 1988년의 2차에 걸쳐 경성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목곽묘, 석곽묘, 목관묘, 옹관묘, 횡구식석실묘 등 119기의 삼국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한 Ⅰ지구에서는 목곽묘 23기, 석곽묘 3기, 토광묘 2기, 옹관묘 2기 등 30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분묘의 장축방향은 모두 남-북 방향이고 많은 분묘들이 중복 설치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를 이루는 목곽묘는 대부분 장방형의 단곽식이나 1·2·27호분은 주곽 남쪽에 방형의 부곽을 따로 파서 설치한 이혈묘광

유적 위치도

으로 ‘昌’자형의 주·부곽식이다. 목곽 내부에서는 각종 와질토기와 도질토기를 비롯하여 철정, 철부, 철모 등 각종 철기류와 수정 및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목곽묘는 기원후 3세기 후반에서 4세기말 무렵까지 계속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적의 가장 높은 능선의 상부에 위치한 Ⅱ지구에서는 석곽묘 4기, 횡구식석실묘 1기,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할석을 쌓아 축조한 것으로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다. 대체로 기원후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산정의 바로 아래 비교적 평탄한 곳인 Ⅲ지구에서는 목곽묘 12기, 석곽묘 15기, 횡구식석실묘 2기, 옹관묘 5기, 토광묘 3기 등 모두 38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모두 동-서 방향이고, 피장자의 머리 방향은 동쪽으로 추정된다. 축조시기는 기원후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 사이로 추정된다.

Ⅰ지구 남서쪽의 완만한 사면에 해당하는 Ⅳ지구에서는 석곽묘 8기, 옹관묘 5기, 목곽묘 31기, 근대의 분묘 1기 등 모두 45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Ⅰ지구와 같이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묘광이 얕고 긴 특징이 있다. 목곽과 묘광 사이에는 할석을 채워 목곽을 고정한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형태가 많은 편이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기원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칠산동고분군에서 조사된 분묘들은 제한된 범위에 서로 중복 축조되어 있어 묘제의 변화과정 및 유물의 편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조사된 목곽묘의 중심연대는 4세기대로, 금관가야 전성기의 묘제는 목곽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식의 석곽묘도 다수 조사되어 석곽묘의 출현시기 및 원류, 계보 등의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었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1989, 『김해칠산동고분군Ⅰ』.

Ⅲ지구 전경

Ⅱ－4호분

Ⅲ－11호분

Ⅲ－33호분

Ⅲ－29호 옹관묘

Ⅲ－38호분 출토유물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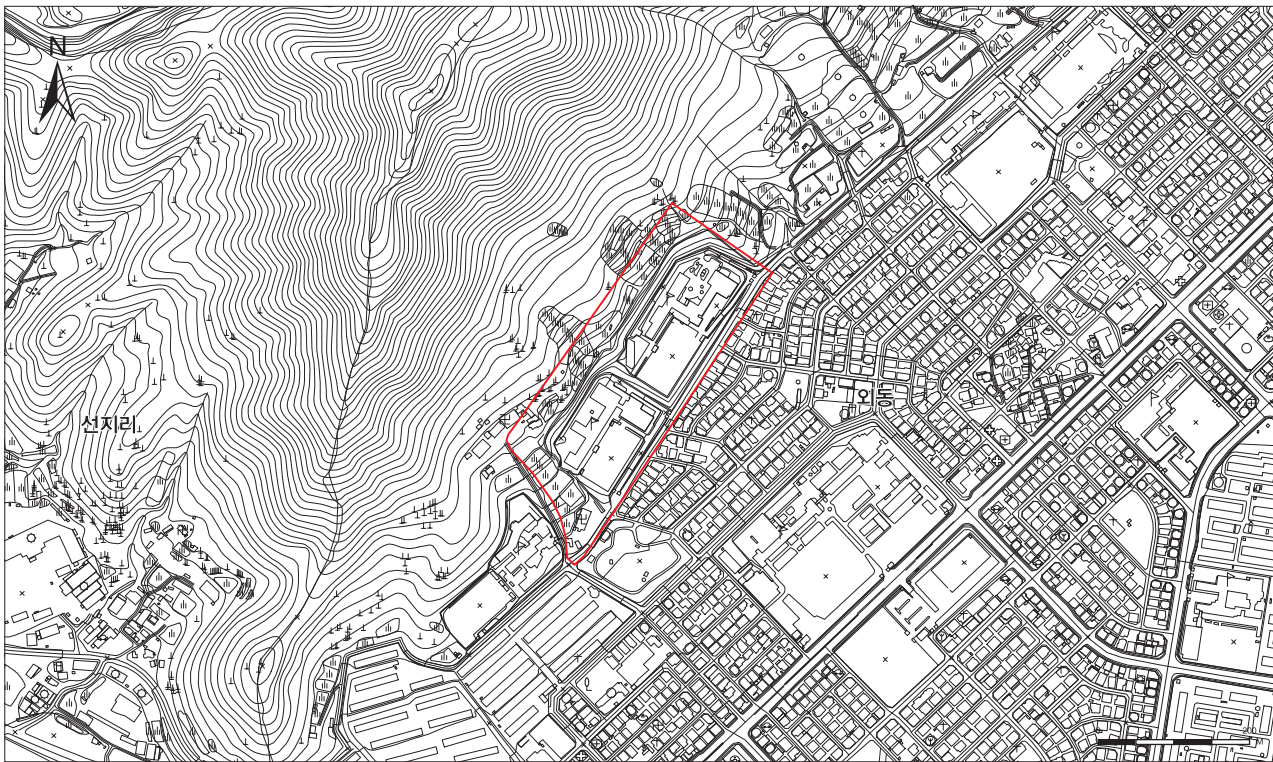
# 김해 서중·제일고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77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9.9.~2009.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토기 편

유적은 경운산(해발 378m) 산자락이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최근까지 계단식 밭과 과수원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지표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확인되는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었다.

조사는 유적의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트렌치를 구릉 상부와 하부로 구분하여 총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평면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릉 상부는 조사 이전 계단식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면서 형질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토층양상은 상부의 현대 경작층과 하부의 퇴적 및 기반층으로 구분된다. 또한, 구릉 하부의 경우에도 구릉 상부와 동일하게 현대경작층과 적갈색점질토의 기반층으로 구분되어 전반적인 층위는 대동소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평면 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석곽묘 1기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

유적위치도

지 1동, 소성유구 1기, 수혈 및 주혈 9기, 구 1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석곽묘 1기는 유적 북서쪽 구릉 상부에 설치된 9트렌치에서 노출되었으며, 트렌치의 규모는 길이 24m, 너비 2m이다. 조사 이전에는 밭 경작지였으며, 표토를 15~20㎝ 정도 제토하자 다양한 규모의 암반 편이 다량 포함된 적갈색점질토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트렌치 중간 부분에서 석곽묘 1기가 노출되었다.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고,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묘광은 길이 309㎝, 너비 161㎝이고, 매장주체부인 석곽의 규모는 길이 206㎝, 너비 77㎝이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 『김해 서중·제일고 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 전경

석곽묘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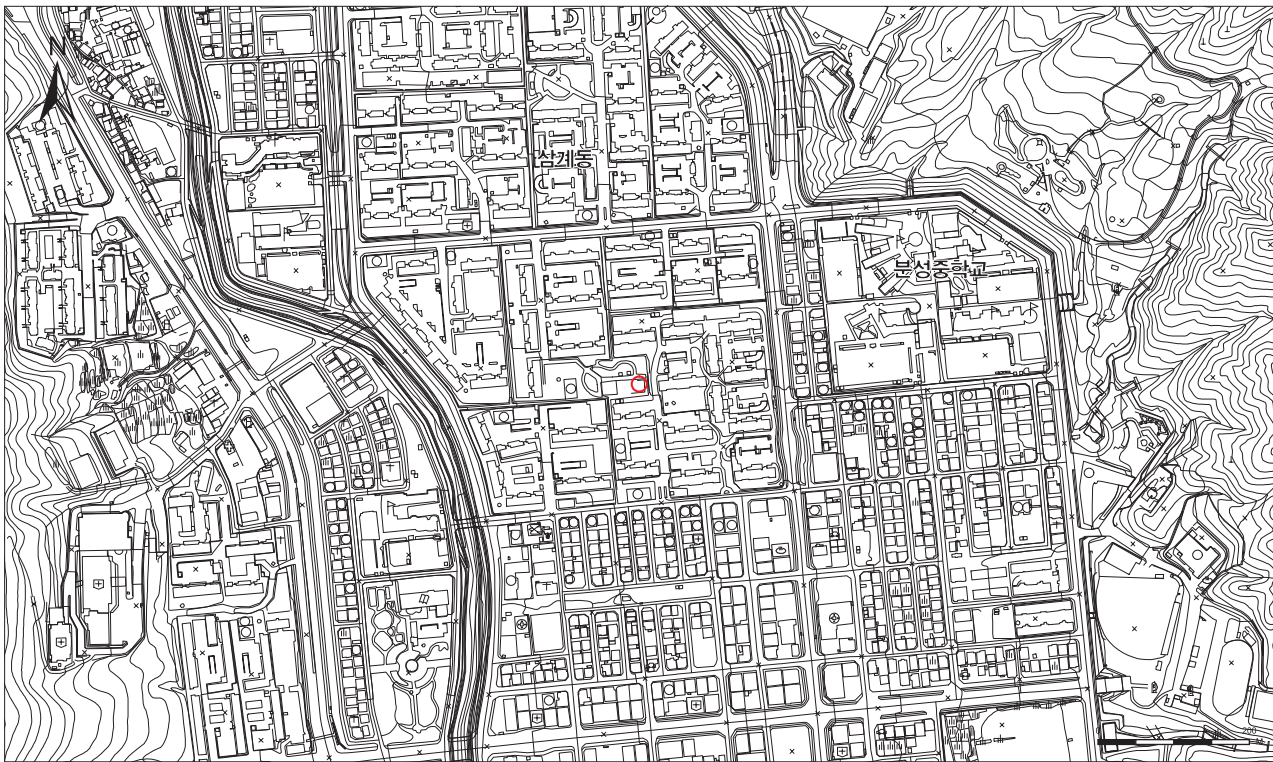
# 김해 화정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산38-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1차 1997.12.~1998.7.
2차 1999.2.~1999.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노형기대, 통형기대, 발형기대, 단야구, 철모

김해 화정고분군은 원래 공병학교 부지로, 김해 북부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되었다. 고분군은 분성산(해발 350m 전후)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소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해반천의 동쪽에 위치한 해발 35m의 저구릉상에 입지한다. 유적은 구릉의 중앙부의 작은 선상지를 기준으로 북쪽(Ⅰ지구)과 남쪽(Ⅱ지구) 구릉에 형성되어 있다. Ⅰ지구에는 원삼국시대 전기의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집석유구, 삼각점토대토기 단계의 옹관묘군, 삼국시대 숯가마와 6세기 후반~8세기대에 이르는 분묘, 조선 중기의 목관묘 등 15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Ⅱ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지석묘, 4세기 후반~5세기 전반대의 분묘, 7세기대의 분묘, 조선시대 목관묘와 주거지, 시대불명의 구, 석렬, 주혈, 가마 등 11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고분군의 중심은 Ⅱ지구이다.

Ⅱ지구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는 목곽묘 12기, 수혈식석곽묘 25기, 옹관묘 7기,

유적 위치도

토광묘 5기, 횡구식석실묘 2기로 모두 51기이며,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토광묘 등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묘제 간 시기차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목곽묘가 수혈식석곽묘보다 약간 선행하고 일부는 병존한다. 12기의 목곽묘는 구릉을 따라 종으로 배치되었는데, 목곽묘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수혈식석곽묘가 배치된 형상으로 서로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곽묘는 44호분 1기만 주·부곽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독곽식이다. 묘광과 목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바닥에는 17호분만 할석시상하였고 나머지는 시상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주로 토기를 남·북단벽에 집중하고, 도자와 철촉은 목곽 중앙에 소량 부장하였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기원후 4세기 후반이고, 일부는 수혈식석곽묘와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었다.

석곽묘는 25기로 전체 분묘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하였고, 석곽의 장단비는 3:1 이상의 세장한 형태이다. 바닥에는 양 단벽 부장공간을 제외한 중앙부에 자갈 또는 할석으로 관대 받침시설을 한 예가 대부분이며, 유물은 양 단벽 아래에 주로 부장하였다. 수혈식석곽묘의 축조시기는 기원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이다.

화정고분군은 삼국시대 고분이 100여 기 이상 조영된 대규모 고분군으로 삼국시대의 묘제 대부분이 축조되어 4~8세기대 김해지역 고분문화와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04, 『김해화정 유적Ⅰ』.

복천박물관, 2009, 『김해화정 유적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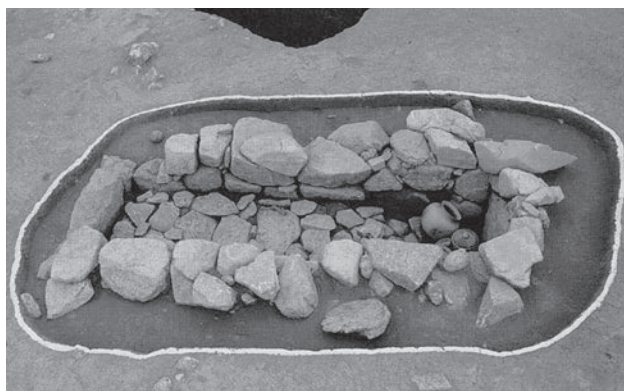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유구 배치도

44호분

12호분

4호분

26호분

28호분

# 07 김해 두곡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산5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대학교박물관 /
1997.12.~1998.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마면주, 몽고발형주,
차양주

김해 두곡 고분군은 해반천 동쪽의 분성산에서 뻗어 내린 구릉의 해발 50~60m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8기, 수혈식석곽묘 59기, 옹관묘 4기, 토광묘 2기, 숯가마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중복관계 없이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4~6m, 너비 1.8~2.5m 정도로 비교적 중소형분에 속한다. 이른시기의 무덤은 해발 55m 이상의 주능선상에 위치하는 등 정상부에서 말단부로 순차 조영되었다.

목곽묘는 부곽이 없는 단독곽식목곽묘이며, 바닥은 할석시상과 시설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22·33호분에서는 목곽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9호 목곽묘는 묘광을 2단으로 조성하였고, 목곽 축조시의 곽의 지지와 충전토 충진을 위해 세운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축조방식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세장방형으로 길이 2~3.5m, 너비 0.45~0.70m 정도로 중소

유적 위치도

22호 목곽묘

24호 석곽묘

철기류

형급이다. 바닥에는 할석시상과 관대시설, 무시설 등 다양하다. 장벽은 괴석이나 할석을 사용하였고 단벽은 판상할석을 이용한 예가 다수이다.

출토유물은 주로 토기류와 철기류이며, 특히 여러 점의 갑주가 출토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8호분에서 마면주. 22·23호분에서 몽고발형주, 43·72호분에서 판갑과 차양주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토기류가 출토되어 당시의 교류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두곡고분군은 이 지역 중심세력인 대성동고분군의 하위집단 중 하나로 파악되며, 인접한 화정고분군과 함께 5세기대 김해지역에 존재한 중소집단의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 「두곡유적 발굴조사결과 약보고서」.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 두곡유적 발굴조사」, 『영남고고학』23, 영남고고학회.

부경대학교박물관, 2006, 『부경대학교박물관도록』.

# 08

# 김해 유하리 후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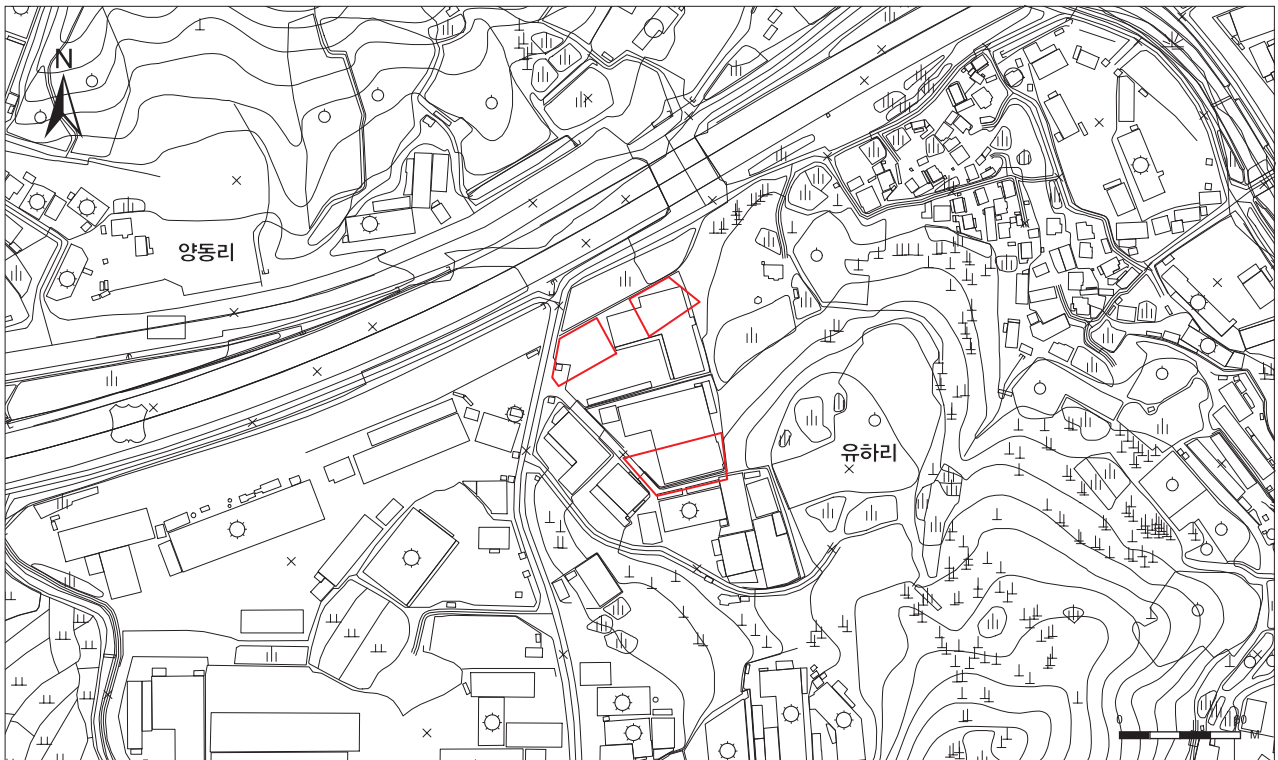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하후포마을 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12.~2010.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유개고배, 노형토기,
단경호, 철검, 등자,
교구

유하리 후포고분군은 김해평야 지대와 경계를 이루는 서쪽 구릉지대에 해당하는 하후포 마을에 위치하며 마을의 동쪽 구릉에 고분군이 넓게 분포한다. 공장신축을 위해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목관묘 1기, 목곽묘 8기, 수혈식석곽묘 4기, 옹관묘 1기, 시기미상의 수혈 2기, 주혈군,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구릉 정상부와 그 사면에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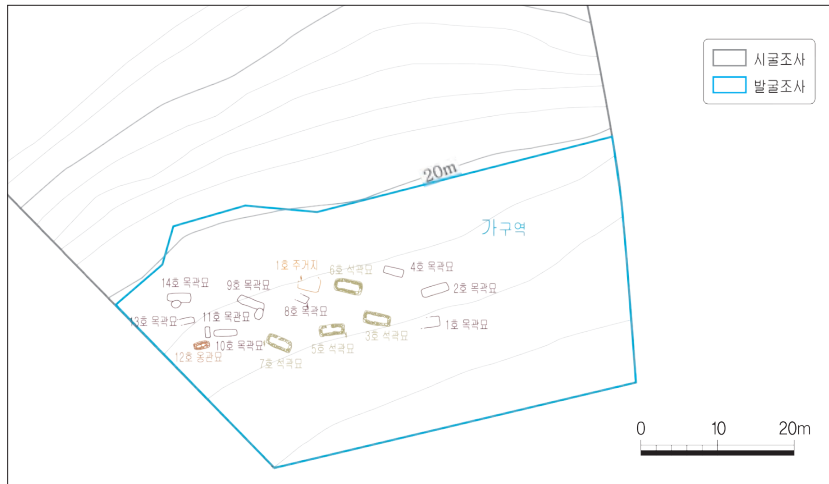
목곽묘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단독식목곽묘와 주·부곽식목곽묘로 구분할 수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6~3.8m, 너비 0.8~1.3m 정도의 중소형급에 해당된다.

석곽묘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개석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목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4~3.8m, 너비 1.1~1.8m 정도의 중소형급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석곽묘가 도굴로 인해 내부가 교란되어 내부 시설이나 부장유물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삼국시대 분묘에서는 고배, 파배, 단경호, 장

유적 위치도

경호, 옹, 파수부완, 광구소호, 소형기대, 노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모, 철부, 철촉, 도자, 교구, 청동환 등의 금속기류 등 총 11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편년을 통해 본 조사된 후포고분군의 분묘는 기원후 4세기 4/4분기·5세기 3/4~4/4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사된 지역이 기존에 알려진 후포고분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5세기 1/4분기에서 2/4분기에 해당되는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후포고분군에서 출토된 고배나 기타 유물을 통해 볼 때, 주변에 있는 능동고분군이나 칠산동고분군, 생곡가달고분군과 큰 차이는 없으며, 4세기 후반까지는 금관가야토기 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5세기 3/4분기 이후에는 신라토기문화권에 편입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김해 유하리 후포고분군 –김해 유하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가구역 유구 배치도

2호 목곽묘

3호 목곽묘

## 09

# 김해 내덕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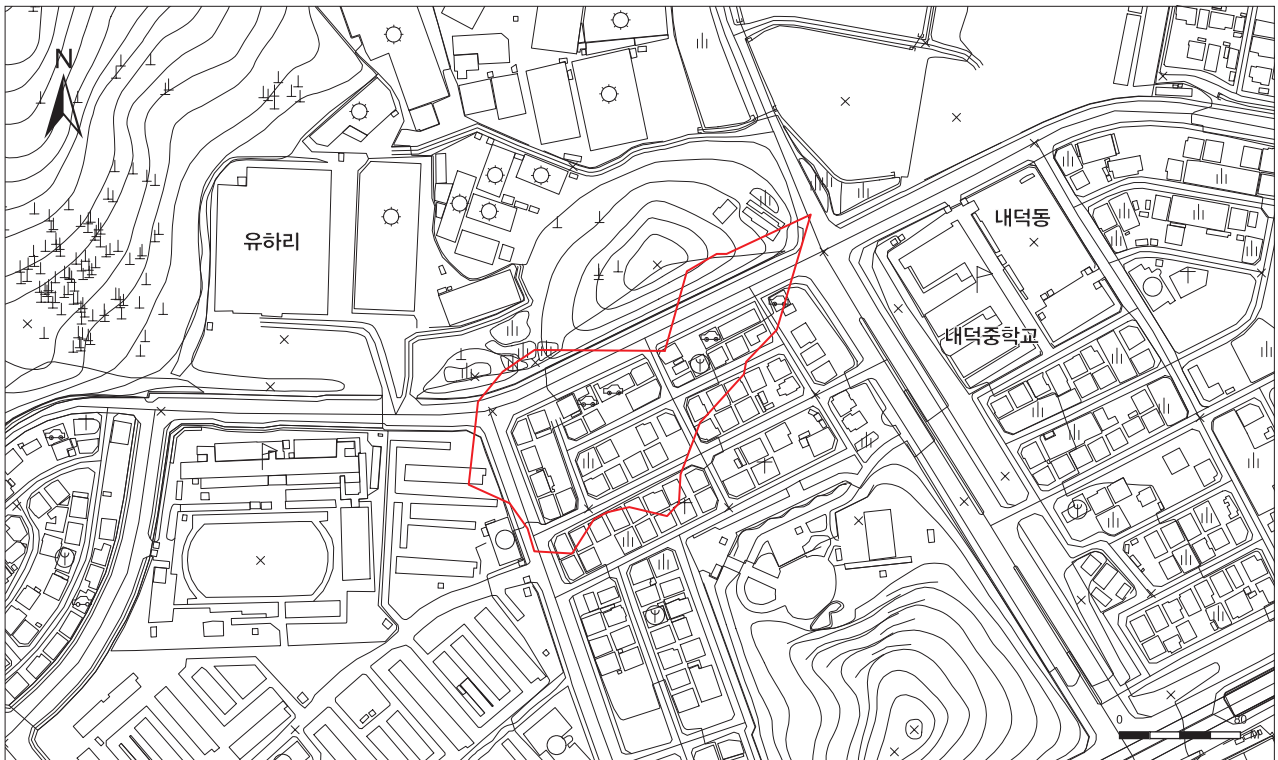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산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6.10.~1997.7.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광형동모,
통형동기, 방격규구사
신경, 파수부동검,
초금구

김해 내덕리고분군은 장유면 내덕리에서 주촌면으로 넘어가는 국도변 해발 34m의 야산에 위치하며, 장유 신도시개발로 인해 발굴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8동, 지석묘 5기, 초기철기시대 분묘 1기, 원삼국~삼국시대 분묘 87기, 조선시대 분묘 8기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삼국시대 분묘는 목관묘 2기, 목곽묘 18기, 수혈식석곽묘 42기, 횡구·횡혈식석실묘 3기, 옹관묘 15기, 토광묘 7기로, 기원후 5세기대 수혈식석곽묘가 42기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내덕리고분군 19호 목관묘에서 와질토기와 다수의 청동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동-서 방향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2.6m, 너비 0.98m, 깊이 0.82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16m, 너비 0.63m, 깊이 0.34m로 추정되며 바닥 중앙에는 길이 0.63m, 깊이 0.15m 정도의 요갱이 시설되어 있다. 부장유물은 방격규구

유적 위치도

사신경 1점과 청동제검초가 요갱에서 출토되었고, 광형동모가 동남쪽 모서리에서 신부 일부가 결실되어 세워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충전토에서는 주머니호 1점과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2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외, 파수부동검과 원통형동기, 동단추도 출토되었다.

목곽묘 중에서 32호분은 장축방향이 동-서향의 말각장방형으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2.6m, 너비 1.16m, 깊이 0.73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2.11m, 너비 0.66m이다. 목곽 내부에서 연질옹 2점, 단경호 1점, 고배 1점,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 중에서 14호분은 장축방향 동-서향으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1.65m, 깊이 0.5m이고, 목개를 시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연질단경호 1점, 경질단경호 2점, 고배 3점, 연질옹 1점이 출토되었다.

석실묘는 도굴로 현상 파악이 어렵고, 6세기대의 토광묘는 동시기 석실묘를 축조하지 못한 서민용 묘제로 추정하였다.

내덕리 고분군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다양한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내덕리 19호 목관묘는 해당시기 수장급의 분묘로 다호리·양동리·대성동에 치우쳐 있던 구야국·금관가야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7, 「김해 내덕리고분군 발굴조사 및 추가 발굴조사 약보고서」.

동의대학교박물관, 1997, 「김해 내덕리고분군 및 추가발굴조사」, 『영남고고학』21, 영남고고학회.

정징원 외, 1998, 『김해의 고분문화』, 김해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유적 전경

유구 노출모습

19호분

46호 목곽묘

## 10

# 김해 능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9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울산대학교박물관 /
1차 1996.12.~1997.2.
2차 1997.7.~1997.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통형기대, 등잔형토기, 고배, 단경호, 장경호, 기대, 대도, 철모, 유자이기, 마구, 철겸, 철부, 소찰 편

김해 능동고분군은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720m 높이의 용지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장유 신도시개발로 인해 발굴조사되었으며 조사지역은 3개 지구(가~다지구)로 구분된다. 얕은 계곡을 두고 가·나지구로 구분하고 나지구에서 북으로 240m 이격된 지구를 다지구로 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1기, 수혈식석곽묘 8기, 석실묘 1기, 토기가마 2기와 조선시대 이후의 석열 4개소가 조사되었다. 나지구에서는 목곽묘 27기와 수혈식석곽묘 42기, 조선시대의 기와가마 1기가 조사되었고, 다지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기와가마 2기가 조사되었다. 능동고분군에서는 분묘 이외에 삼국시대 토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는데,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며, 이른 시기의 평요에서 등요로 전환되어 구조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가마로 추정된다.

가지구에서 조사된 무덤은 주로 6세기대이며, 나지구의 목곽묘와 석곽묘는 대개 5세

유적 위치도

기대의 유구들이다. 나지구 목곽묘와 석곽묘는 길이가 5m 미만이 대부분으로 중소형에 속한다. 묘광의 장단비는 2.5:1 이하로 장방형에 가깝고,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 중 고배는 김해지역을 대표하는 외절구연고배와 창녕계, 함안계 등 지역색이 강한 고배류가 함께 출토되어 주변지역과 다양한 교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단경호, 장경호, 기대류가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대도, 철모, 철촉, 유자이기, 마구류, 철겸, 철부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으며, 25호 목곽묘에서는 갑의 소찰 편도 확인되었다. 능동고분군 나지구에서는 목곽묘와 석곽묘가 동일묘역 내에 불규칙적으로 혼재하고 있지만 중복양상은 보이지 않는데, 봉분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능동고분군은 기원후 4세기 말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목곽묘와 석곽묘가 혼재한 고분군으로 중소규모의 단위취락에 의해 조영된 집단묘역이다. 단위유적의 전체가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금관가야 쇠락기에 영남 각지에서 제작된 토기가 유입되는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정징원 외, 1998, 『김해의 고분문화』, 김해시.

울산대학교박물관, 2001, 『김해능동유적 I -목곽묘-』.

울산대학교박물관, 2012, 『김해 장유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김해능동유적 II -석곽묘-』.

유적 전경

1호 토기가마

19호분

19호분 유물 출토모습

1호 석곽묘

출토유물

11

# 김해 윗덕정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75-1·7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차 1995.12.~1996.2.
2차 1996.7.~1996.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단경호, 노형토기,
장경호, 철부, 철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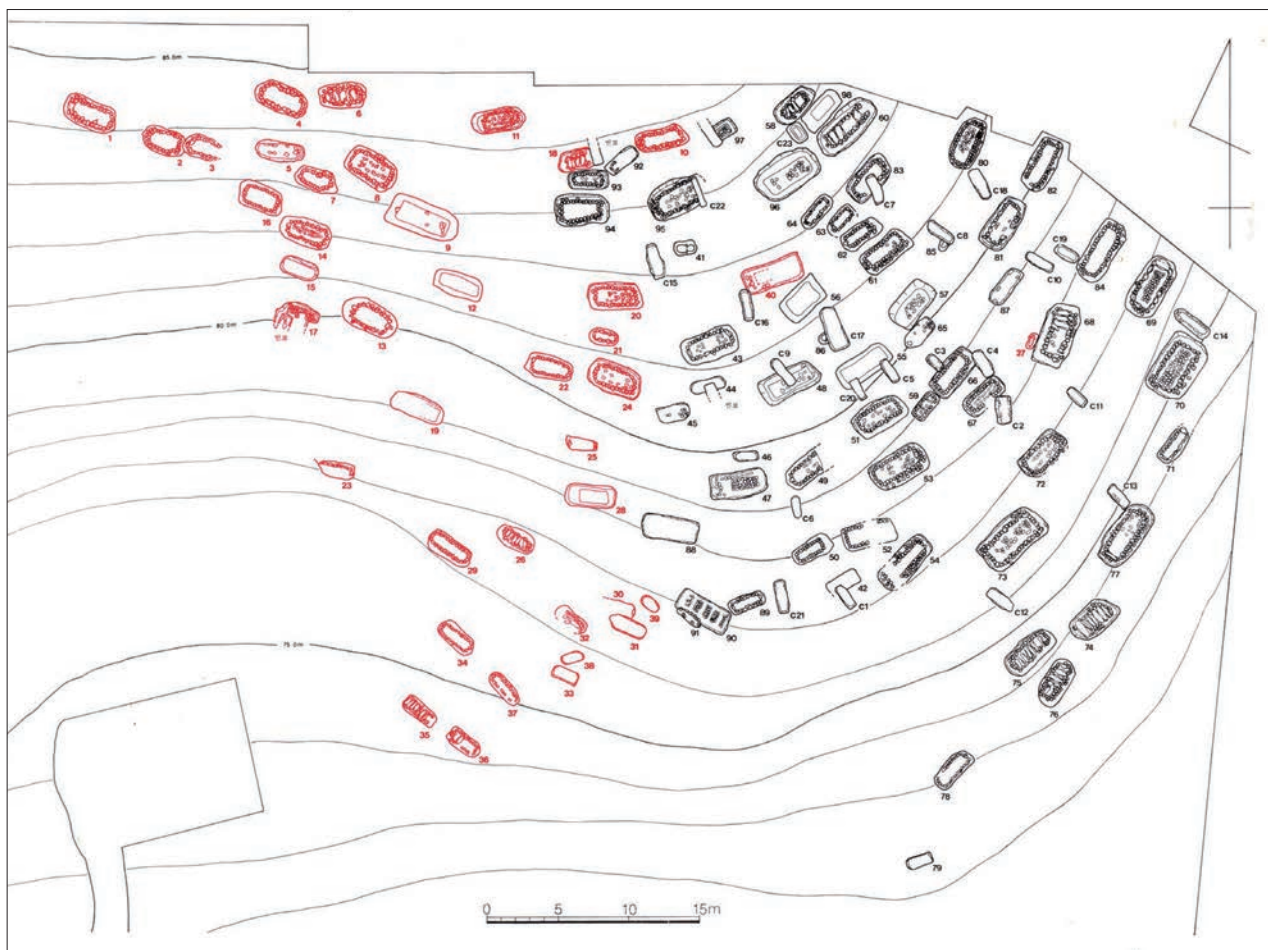
김해 윗덕정유적은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를 경계짓는 화산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발 154m의 독립된 봉우리, 즉 윗덕정마을 뒷산인 이 봉우리의 남쪽 사면에 형성된 대규모 분묘유적이다. 제한적인 유적 범위로 인해 전체 유적의 범위는 알 수 없지만, 유적의 북쪽 정상부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이어진 독립된 봉우리까지 유구가 조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총 98기의 삼국시대 분묘와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목곽묘 19기, 석곽묘 63기, 옹관묘 4기, 수혈계횡구식석실묘 1기 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석곽묘가 이 유적의 중심 묘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석곽묘 가운데 68·73·80호는 북쪽 주축방향을 따라서 2~3줄의 석렬을 돌려 만든 묘역시설이 확인되었다. 모든 분묘는 경사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조영되어 있었으며, 피장자의 두향은 유물의 부장양상 등으로 보아 거의 동쪽이었던 것 같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약 400점, 철기류 약 180점, 금제이식 2점, 방추차 14점, 숫돌 2점, 청동환 1점, 철제

유적 위치도

환 1점 등이 있다.

분묘의 조성연대는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목곽묘의 대부분은 기원후 4세기 말~5세기 전엽, 일부 목곽묘와 석곽묘의 대부분은 기원후 5세기 중엽 이후부터 6세기 후반까지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2001,『김해윗덕정유적Ⅰ』.

유구 배치도

1호분

1호분 유물 출토모습

12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3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6.4.~2006.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노형토기, 대부단경호, 단경호

# 김해 본산리유적 _ 김해 진영 본산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김해 본산리유적은 낙동강 연변의 소구릉에 형성된 4세기대의 목곽묘군이 중심을 이룬 분묘유적이다. 이외에도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는 총 21기로 구릉 정상부에 형성된 상위계층의 묘와 그 주변에 형성된 하위계층의 묘로 구분된다. 15호와 19호묘는 I 단계의 최상위층 묘이며, 13호와 14호는 II 단계의 최상위층 묘이다. 조성된 목곽묘의 수량이 적은 것으로 보아 구릉 주변의 소집단에서 한정된 기간에 사용한 묘역임을 알 수 있다.

본산리유적은 인근 지역의 김해 대성동·양동리·예안리유적, 창원 도계동유적에 비하면 소규모이다. 그러나 '11'자형 주·부곽식목곽묘와 목곽 상부를 점토로 밀봉하는 형태, 목곽 내부를 시신과 함께 불태우는 형태 등 타 유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목곽묘가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세장방형목곽묘에서는 대부분 목곽 상부에 유물을 깨뜨려 부장하는 독특한 제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목곽묘 15호와 19호에서

유적 위치도

는 상부유물이 상호 접합되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수량이 적지만 양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12호 출토 함안계 토기는 낙동강을 통한 지역간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15호 출토 하지키와 기타의 유구에서 출토된 다수의 하지키계 토기는 낙동강을 통한 한일 교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김해 본산리유적 – 김해 진영 본산 농공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II지구 전경

II 지구 14호 목곽묘

II 지구 15호 목곽묘

13

# 김해 본산리·여래리유적 _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 여래리
일대

**조사 기관 / 조사 기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011.8.~2012.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통형기대, 노형기대,
발형기대, 환두대도,
찰갑, 망치, 집게, 모루

김해 본산리·여래리유적은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하며, 조사는 크게 2개 구역(Ⅰ-가·나, Ⅱ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Ⅰ-가·나구역은 본산리의 대산평야 남단의 해발 25m 정도의 독립구릉에 위치한다. Ⅱ구역은 Ⅰ구역의 남동쪽으로 900m 떨어진 여래리에 입지하는 낮은 구릉에서 남쪽 구릉 사면부와 말단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Ⅰ-가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석실묘 1기, 탄요 1기, 지상식건물지 4동, 석렬유구 1기, 수혈유구 23기, 토광묘 4기, 구상유구 5기, 주혈군 등 총 42기가 조사되었으며, Ⅰ-나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삼가마 1기, 수혈유구 4기 등 총 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Ⅱ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동, 삼국시대 목곽묘 37기, 수혈식석곽묘 78기, 옹관묘 20기, 석실묘 13기, 탄요 2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60기, 지면식건물지 1동, 석축유구 1기 등 총 218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무덤은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석실묘이며 주로 Ⅱ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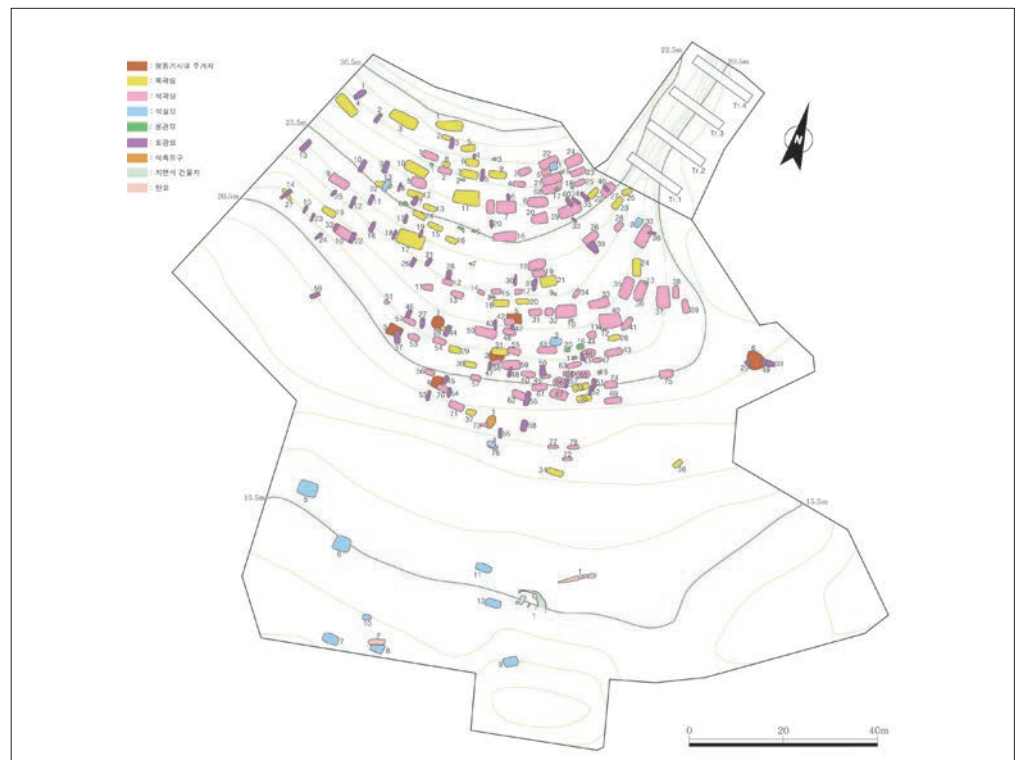
목곽묘는 중형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대형 목곽묘는 '日'자형 동혈주·부곽식목곽묘로 북서쪽에 밀집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며 바닥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무시설이 대부분이며 37호 목곽묘의 경우, 대호 편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고배, 통형기대, 노형기대, 발형기대, 소형기대, 장경호, 광구소호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철모, 주, 철부, 살포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79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78기가 Ⅱ구역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이혈합장묘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단독식이다. 대형 석곽묘는 북동쪽과 동쪽으로 구분되어 밀집조영된 양상이다. 옹관묘는 석곽묘의 배장묘적 성격을 가진다. 바닥에는 전면시상, 관대석 설치, 무시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물은 고배, 대부직구호, 광구소호, 장경호, 단경호, 파배,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철모, 삼지창, 찰갑, 살포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59·74호 석곽묘에서는 망치, 집게, 모루, 끌 등의 단야구도 출토되어 인접하여 조사된 여래리유적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목곽묘와 석곽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3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는 36호 목곽묘를 제외하면 대체로 기원후 4세기 후엽~5세기 중엽까지로 편년되며 단기간에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석실묘는 가야멸망 이후의 7세기대에 조성되었다.

본산리·여래리유적 Ⅱ구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고분군은 남쪽으로 400m 정도 이격된 여래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의 제철생산 취락집단과 관련된 고분군의 가능성이 높으며, 석곽묘에서 출토된 단야구 세트와 백탄요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 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김해 본산리·여래리 유적-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Ⅰ~Ⅲ』.


Ⅱ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7호 목곽묘

32호 석곽묘

토기류

금속류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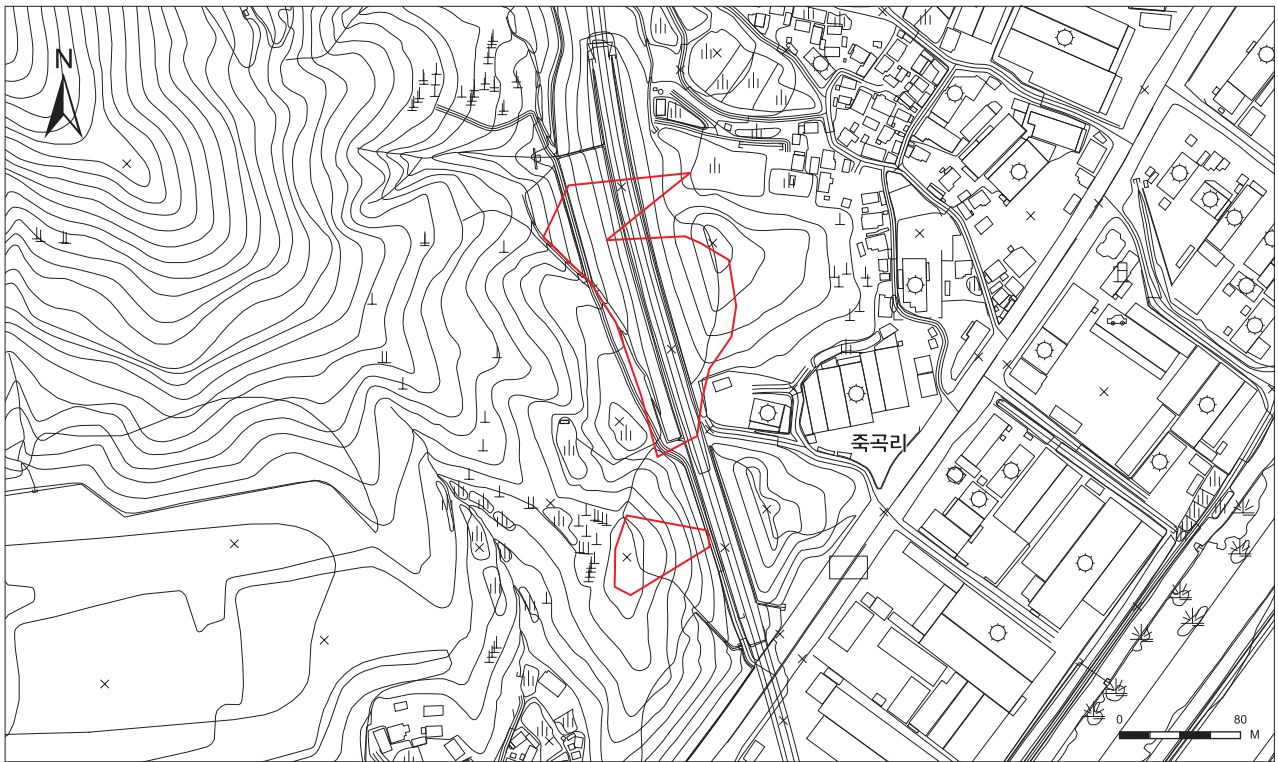
# 김해 죽곡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영읍
죽곡리 산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6.10.~2007.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파배, 충각부주, 경갑

김해 죽곡리유적은 진영평야와 김해시 사이의 진례분지 내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곳의 해발 312.6m의 태승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상에 입지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부산신항 제2-1공구 배후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어 발굴조사되었다. 가~다지구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나지구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시 a~c의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가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소형 매납유구 1기, 조선시대 분묘 20기, 대형 수혈 1기, 시기미상 구상유구 1기 등 총 2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나지구에서는 삼한시대 주거지 13기,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및 옹관묘 등 분묘 131기, 수혈 2기, 구 4기,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241기 등 총 44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다지구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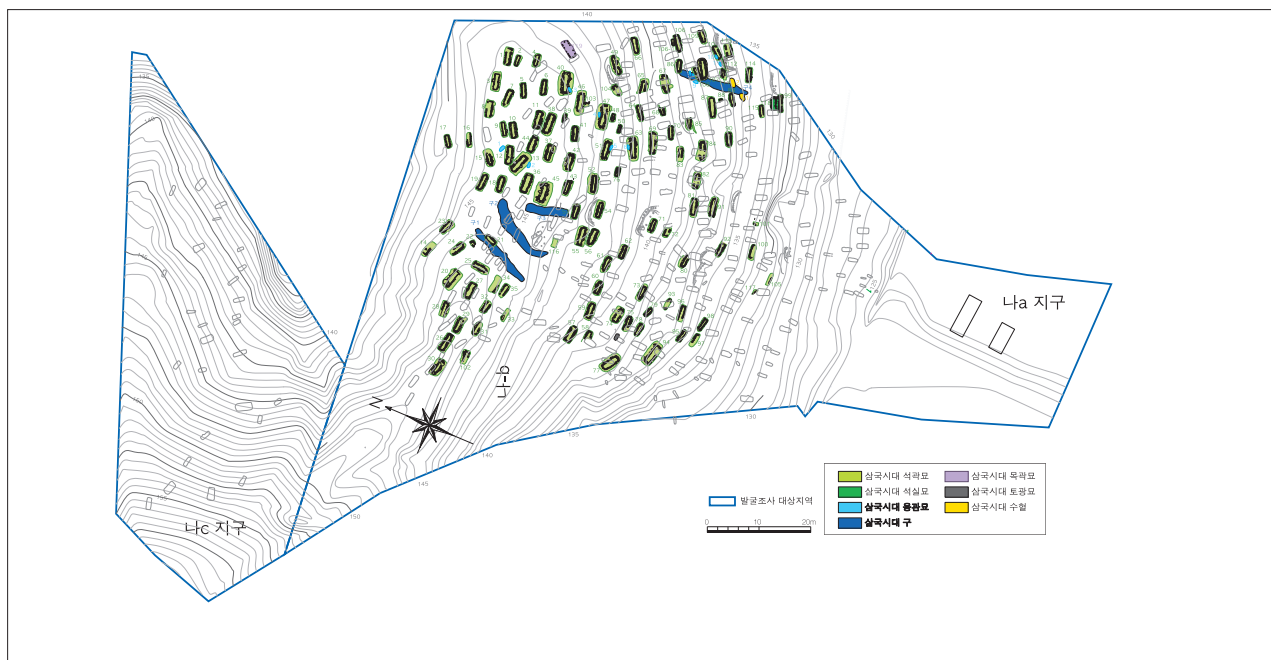
나b지구 구릉 정상부에서 남사면에 걸쳐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17기, 위석식목곽묘 1기, 토광묘 1기, 석실묘 1기, 옹관묘 11기 등 131기의 분묘가 조영되었는데, 석곽묘

유적 위치도

의 규모 및 부장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금관가야의 중하위급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분묘는 일정한 군을 이루며 조영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양상을 통해 당시 단위 고분군 내에서의 소집단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죽곡리유적에서는 토기의 대각을 분리시켜 묘광과 벽석 사이에 매납하는 행위와 관대석이 마련된 석곽의 경우 정지과정에서 토기 혹은 철기를 매납하는 등 축조 과정상의 의례행위의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석곽묘에서는 소가야양식, 아라가야양식, 비화가야양식 등의 다양한 지역색의 고배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의 고배는 이러한 지역색과 금관가야 양식이 혼합된 융합품으로 재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관가야 쇠퇴기의 토기양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금관가야 토기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주로 고배, 파배, 단경호 등 토기류가 중심이며, 철기류는 철부, 도자, 철겸 등의 농공구류가 대부분이며 일부 환두대도, 재갈 등의 마구류가 소수 부장된다. 94호분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축조 과정에서의 토기 파쇄 등의 장속 및 왜계 충각부주와 경갑이 출토되어 고분군 내에서 최고 위계의 무덤으로 분류된다. 고분군의 조성시기는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기원후 5세기 전엽~후엽으로 편년된다.

죽곡리유적에서는 고분군이 축조되기 전 3세기대의 주거지가 구릉 사면을 중심으로 조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후대 석곽묘와 옹관묘 등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선대의 생활역을 분묘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특징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죽곡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금관가야 중하위급 고분군에서 보이는 석곽 축조방법의 다양성·축조과정에서의 제의형태·동일 고분군 내에서의 군집현상 등 다양한 고고학적 정보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 죽곡리유적Ⅰ』.

나b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55호 석곽묘

94호 석곽묘

출토유물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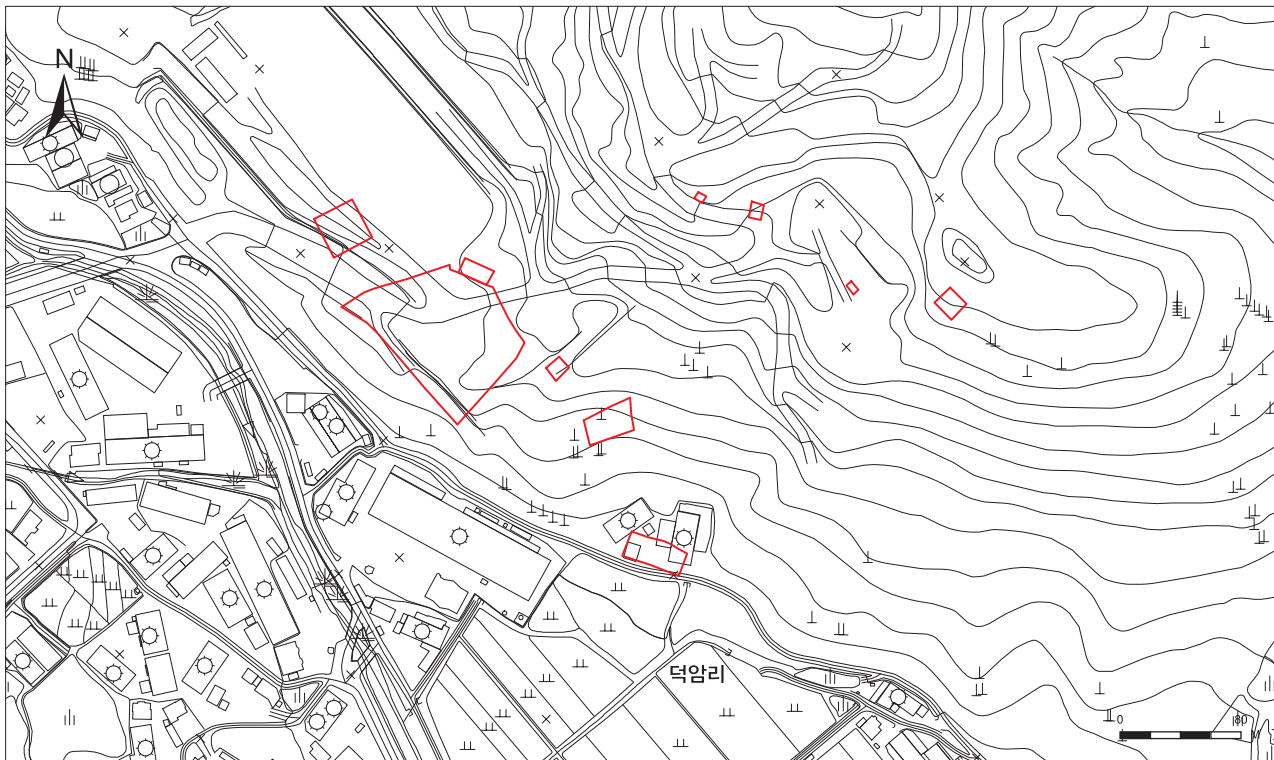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8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1차 2014.7.~2014.9.
2차 2014.10.
3차 2015.7.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노형토기, 단경호,
도자, 철겸, 철부

# 김해 덕암리유적 _ 김해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김해 덕암리유적은 낙남정간 구계의 구릉성 산지인 금음산(해발 376.3m) 남쪽 산록에 입지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목곽묘를 위주로 하는 분묘 36기와 탄요 1기가 조사되었다. 목관묘와 석곽묘 1기씩을 제외하면, 목곽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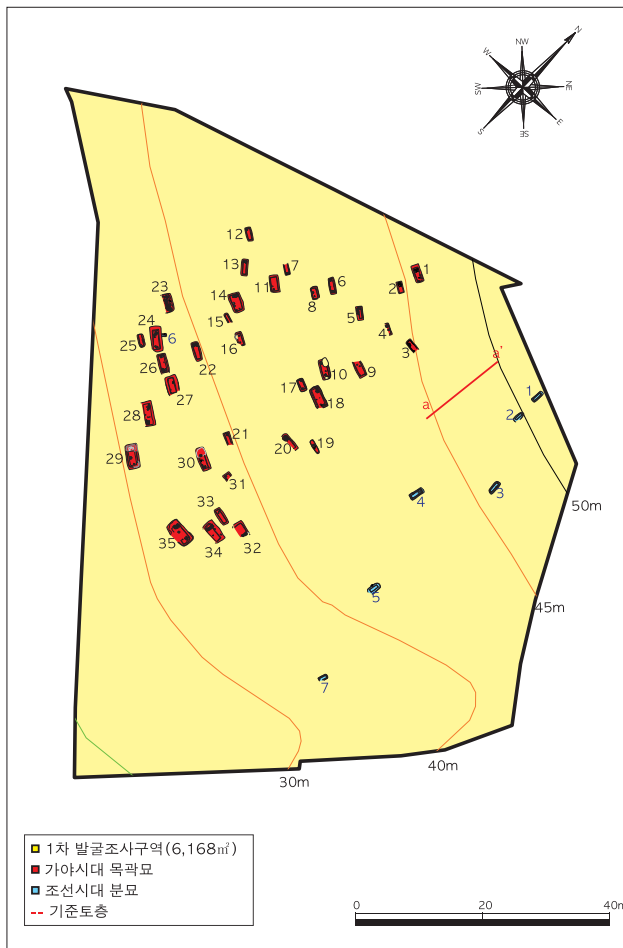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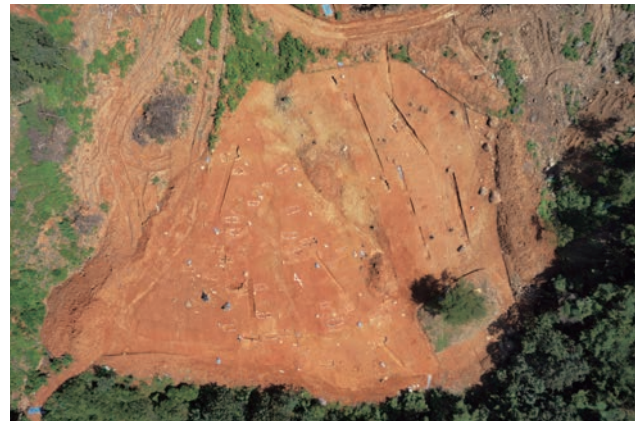
목곽묘군은 전체 조사구역 중 하나의 가지 능선에만 분포하고 있어 짧은 기간에 제한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목곽묘의 규모는 1.84~4.35×0.66~2.42m 정도로 중소형으로 묘광의 장단비는 3:1미만의 장방형이 대부분이다. 유물의 부장은 목곽의 안이나 밖에 둔 것으로 나뉜다. 내부 부장은 양쪽 단벽에 부장하는 유형과 한쪽 단벽에만 부장하는 유형으로 나뉘며, 약간 규모가 큰 무덤은 한쪽 단벽에 유물 부장갱을 따로 두기도 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의 부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철기의 구성에서는 무기류 보다는 농공구류가 우세하고, 장신구의 부장 사례가 없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분묘

유적 위치도

의 조성연대는 기원후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중엽에 해당한다.

한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판명하기는 어려우나, 입지와 형태 등이 삼국시대에 주로 확인되는 측구식백탄요와 유사한 탄요 1기도 조사되었다.

덕암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재지적 성격이 강한 토기류의 부장이 우세하고, 소가야양식의 고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연산동고분군 등에서만 출토되어 그 사례가 희소한 도형고배桃形高杯의 존재도 본 유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김해 덕암리 유적 –김해 이노비즈 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1차 발굴조사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4호 목곽묘

# 16 김해 망덕리유적 _ 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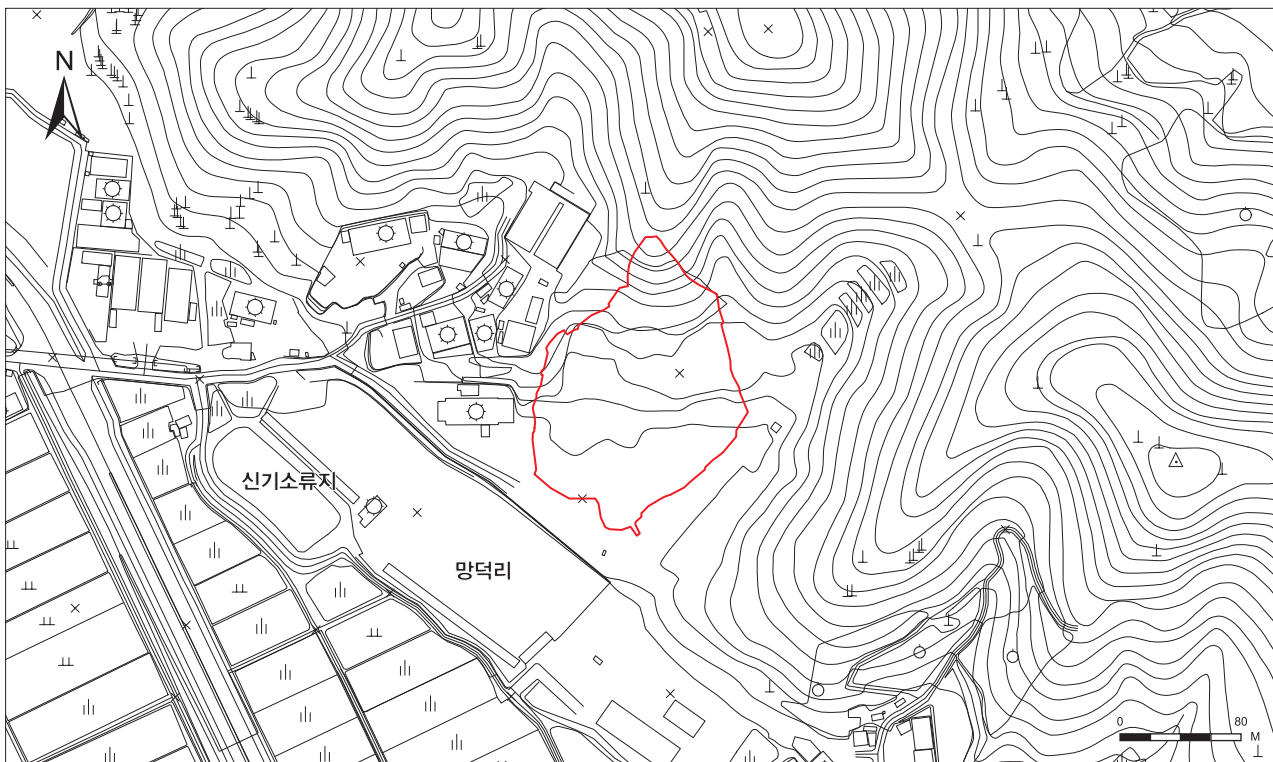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산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0.10.~2011.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노형기대, 통형기대,
발형기대, 환두대도,
판갑, 경갑, 통형동기

김해 망덕리유적은 김해시 주촌면과 진례면의 경계를 이루는 황새봉(해발 272.4m)과 주지봉(해발 276m)에서 남동방향으로 길게 뻗은 해발 약 130m의 구릉 남사면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곡부를 중심으로 2개 구역(Ⅰ·Ⅱ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분묘 10기, 원삼국시대 목관묘 3기·옹관묘 5기, 삼국시대 목곽묘 321기·토광묘 28기·수혈식석곽묘 50기·횡혈식석실묘 6기·옹관묘 32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01기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해발 23~25m 사이의 구릉 남사면 말단부에 분포하며, 목관묘의 구조는 보강토와 규모로 보아 판재식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철검, 철모, 주조철부, 단조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옹관묘는 장동파수부호를 주옹으로 하는 합구식이다.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옹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전 1세기대이다.

삼국시대 목곽묘는 구릉 전면에 밀집 분포하며, Ⅰ구역에서 195기, Ⅱ구역에서 126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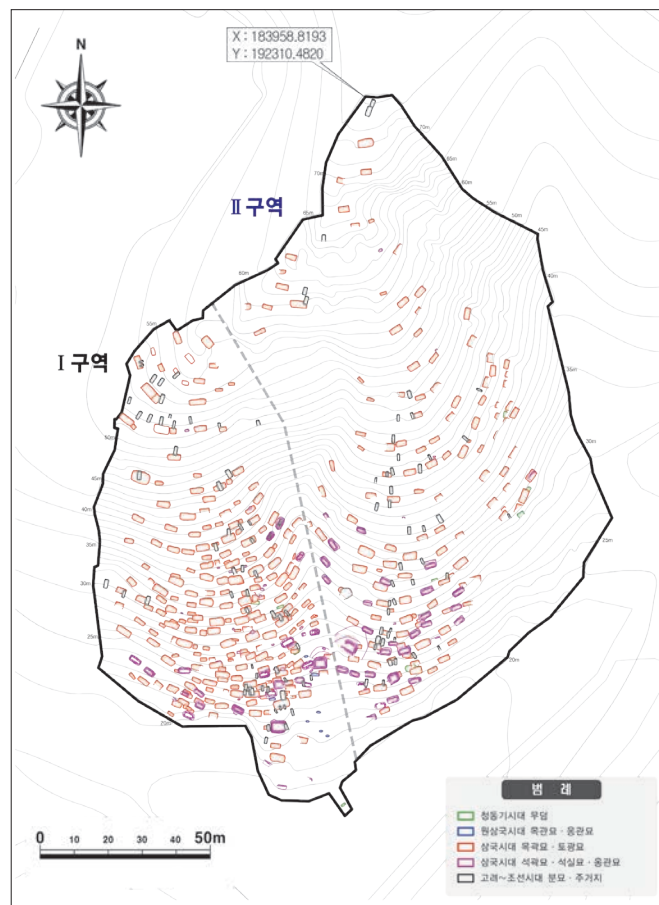
기 등 모두 321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단독곽식목곽묘이며 내곽와 외곽을 설치한 이중곽식과 이혈주·부곽식도 일부 확인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Ⅰ구역에서 22기, Ⅱ구역에서 28기 등 모두 50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개석이 결실되었고, 바닥은 일부 이단굴착 또는 할석을 이용해 관대시설을 하였으나 대부분 무시설이다. 목곽묘와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노형기대, 통형기대, 발형기대, 소형기대, 압형토기, 각배, 대호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철모, 철촉, 단조철부, 주조철부, 철겸, 유자이기, 경갑, 판갑, 철정 등의 철기류, 유리제경식, 금동제 이식, 청동환, 통형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목곽묘와 석곽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엽으로 편년된다.

석실묘는 연도가 마련된 횡혈식석실묘이다. 바닥에는 추가장의 횟수 파악이 가능한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물은 고배, 개, 대부장경호와 철도자,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 정도로 편년된다.

옹관묘는 대부분 주옹은 장동옹, 부옹은 파수부옹을 이용한 합구식이다. 유물은 주옹 내에 연질옹, 묘광과 옹관 사이에 광구소호와 단조철부 등이 일부 부장되었다.

삼국시대 무덤의 조영시기는 기원후 4세기~7세기대로 금관가야 묘제의 변천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며, 대성동·양동·칠산동 등 금관가야 고분군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분군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5, 『김해 망덕리유적-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Ⅰ~Ⅳ』.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Ⅰ-13호목곽묘

Ⅰ-13호 목곽 유물 출토모습

Ⅰ-13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Ⅰ-13호 목곽묘 출토 통형동기

# 17

# 김해 고모리유적 _ 김해 상록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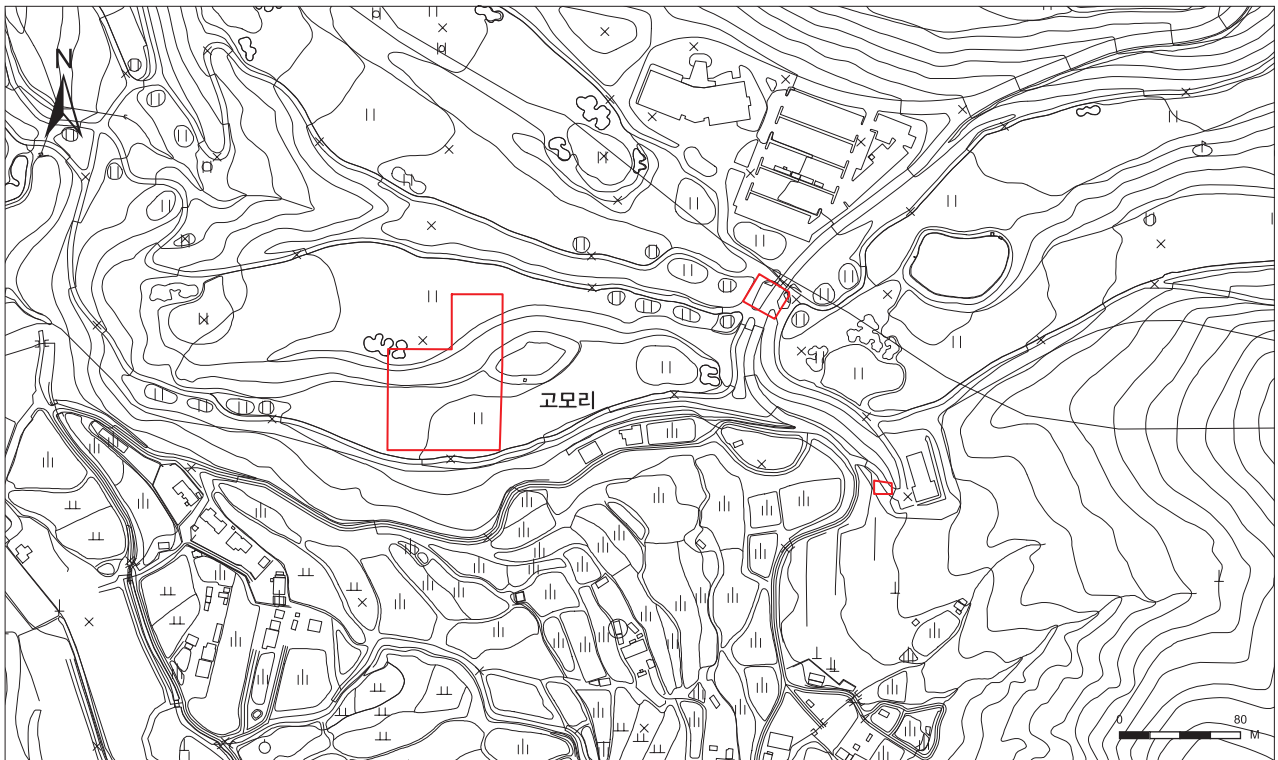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1.11.~2012.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개,
고배, 기대, 광구소호,
유개대부직구호, 철부,
철모

김해 고모리유적은 무릉산(해발 313m)-황새봉(해발 393m)-매봉산(해발 338m)으로 이어지는 분지상에 위치하며, 서쪽과 북동쪽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조사지역은 곡부를 포함하는 구릉성 산지에 해당된다. 삼국시대 분묘 2기를 비롯한 조선시대 분묘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분묘는 2구역 정상부에서 확인된 목곽묘 1기와 석곽묘 1기이다. 삼국시대 목곽묘와 석곽묘가 위치하는 2구역은 1구역과 3구역 사이로서 무덤은 모두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지만 특이하게 여타 고분군에 비해 군집을 이루지 않고 단독묘로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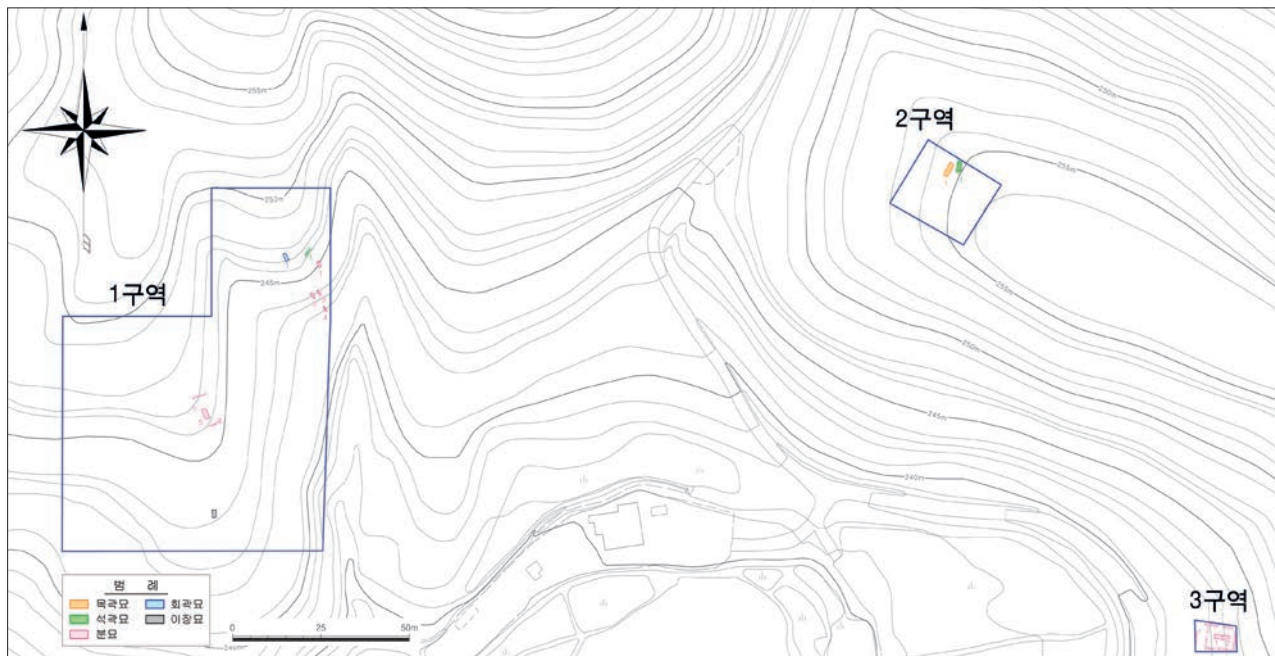
목곽묘는 묘광이 3.9m, 너비 1.65m, 깊이 0.52m이며 내부 목곽의 크기는 길이 3.27m, 너비 0.83m, 깊이 0.30m로 장단비는 3.94:1이며 내부면적은 2.71㎡이다.

석곽묘의 묘광 잔존규모는 길이 3.4m, 너비 1.37m, 최대 깊이 0.71m이며, 석곽 내부 규모는 길이 2.5m, 너비 0.54m로 장단비는 4.63:1이며, 내부면적은 1.35㎡이다. 두 유구는 묘광 규모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내부 규모에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유적 위치도

바닥시설의 경우, 목곽묘와 석곽묘 2기 모두 무시설식이다. 출토된 유물은 목곽묘에서 토기류로 개 1점, 외절구연고배 4점, 기대 3점, 단경호 6점, 광구소호 2점, 유개대부직구호 1점, 컵형토기 1점, 호 저부 편 1점 등 모두 20점이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는 재갈, 철겸, 철도자,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모, 철삭, 철착, 철촉, 불명철기 등 모두 24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에서는 기대 1점, 단경호 3점, 고배 3점, 방추차 1점, 철도자 1점 등 모두 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토기 중 기대는 발형기대이며, 특징적으로 화염형투창으로 추정되는 투창이 8개 뚫려 있으며, 이 화염형투창은 아라가야의 특징으로 김해지역의 전형적인 외절구연고배와 함께 부장되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외절구연고배, 유개대부직구호, 단경호 등 본 유적의 목곽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김해지역의 기존 편년안에 근거할 때, 조성시기는 기원후 4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며, 석곽묘는 목곽묘보다 약간 늦은 시기인 기원후 5세기 초엽으로 편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고모리 유적 –김해 상록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유구 배치도

2구역 1호 목곽묘

2구역 1호 석곽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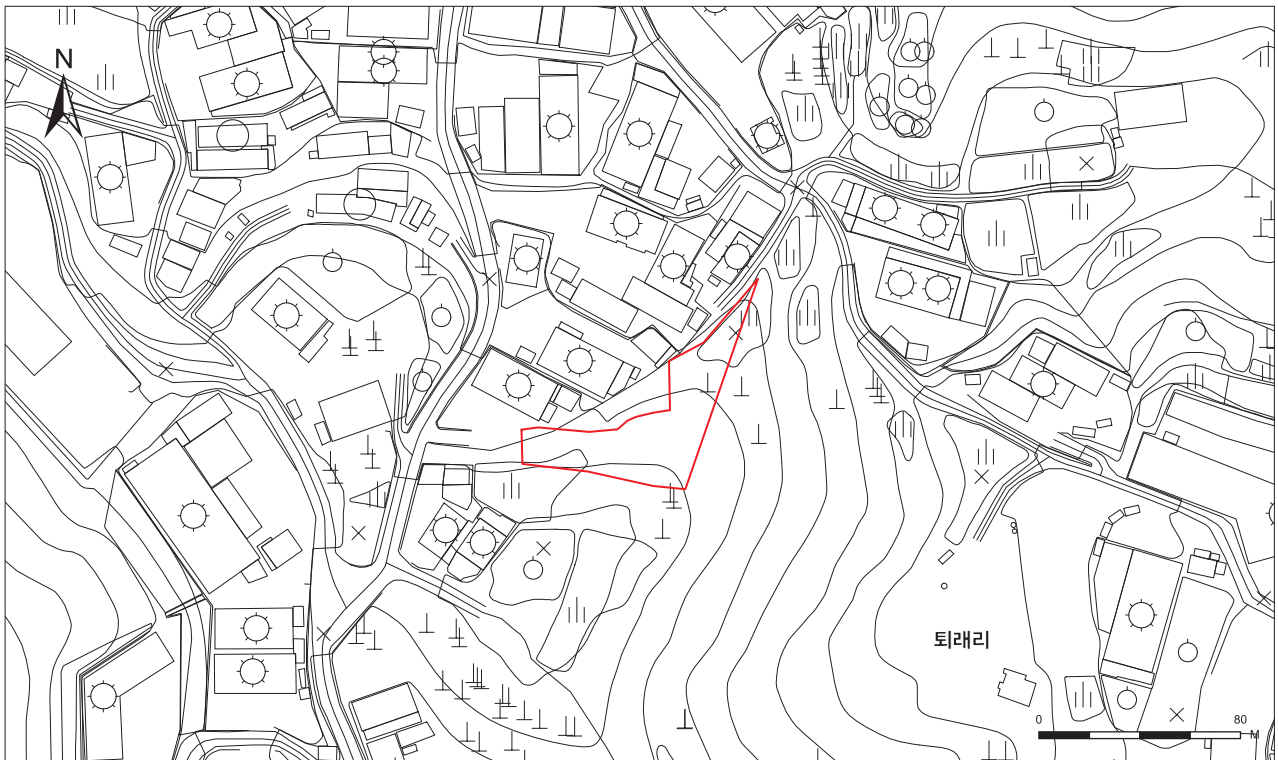
# 김해 퇴래리유적 _ 김해 퇴래리 산8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산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6.4.~2016.7.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개, 고배,
발형기대, 광구소호,
단경호, 철부, 대도

유적은 공장신축부지로 퇴은마을의 남쪽에 위치하며, 퇴래미산의 동쪽 해발 60m 정도되는 구릉의 북쪽 사면에 해당된다. 유적 남동쪽과 동쪽에 위치하는 완만한 구릉 일대는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보고된 '퇴래리고분군 ①·②'가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10기, 석곽묘 28기, 옹관묘 2기와 조선시대 분묘 1기, 수혈 1기, 구 1기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삼국시대 분묘가 주를 이루는 유적으로 밝혀졌다.

유적의 목곽묘는 해발 55~60m를 중심으로 2개의 그룹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 묘역을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향으로 축조되었다. 군집간 축조순서는 Ⅰ군→Ⅱ군의 시계 반대방향으로 조성되었다. 다만 Ⅰ군에 속한 퇴래리 793번지 유적의 목곽묘는 본 유적의 목곽묘들보다 구릉 하위에 조성되어 있어 축조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목곽묘의 축조는 구릉 상위에 먼저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목곽의 규모는 대체로 3개 군으로 구분되는데, 1군은 길이 3m

유적 위치도

이상, 2군은 2m 이상~3m 미만, 3군은 2m 이하로 대별된다. 장단축비는 2.95:1~4:1로 나타나며, 대체로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면적은 0.9~5㎡ 정도로 대부분 소형이다. 목곽묘의 바닥은 시상의 존재 유무로 구분되는데, 피장자 주공간에만 10㎝ 정도의 역석을 시설한 것은 2기가 있으며, 나머지 목곽묘는 모두 굴착된 흙을 정지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석곽묘는 유적 내 조영위치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해발 45~60m 선상에 조영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조영순서는 목곽묘와 마찬가지로 구릉을 중심으로 Ⅰ→Ⅱ→Ⅲ→Ⅳ군의 시계 반대방향을 보인다. 즉, 해발 55~60m 상의 구릉 상위에 위치한 Ⅰ, Ⅱ군의 석곽묘가 먼저 축조된 후, 그 아래의 45~55m 상의 구릉 하위로 내려오면서 늦은 시기의 석곽묘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곽묘들은 목곽묘와 시간차가 거의 없이 혼재되어 조영되어 있으며, 양 묘제간 중복양상이 확인되지 않고, 각각 일정 묘역을 형성하여 축조된 특징을 보인다. 유적에서 조사된 석곽묘는 대체로 4세기 후엽~5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된 초기 석곽묘의 특징을 보여주는 평면형태 장방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평면형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장방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유물을 부장하는 '부장갱'이 확인되는 점이다. 이는 경주지역 석곽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 주변지역인 신라 문화권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출토유물을 통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8, 『김해 퇴래리 산8번지 유적』.

유적 전경

출토유물

# 19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산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도문화재연구원 /
2017.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고배

# 김해 퇴래리유적 _ 김해 한림면 퇴래리 산8번지 일원 추가변경부지 내 유적

유적이 위치한 퇴래리는 한림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퇴래천과 용덕리, 남쪽으로는 병동리, 서쪽으로는 화포천과 진영읍 설창리, 북쪽으로는 장방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유적은 퇴래미산(해발 150.7m)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부와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는 부지로 해발 61.5~63m 내외이다. 주변 지형은 완만한 남고북저형이며, 퇴래리고분군을 비롯해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한다. 또한, 유적은 '김해 퇴래리 고분군①'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김해 퇴래리유적-김해 퇴래리 산8번지 유적'과 접한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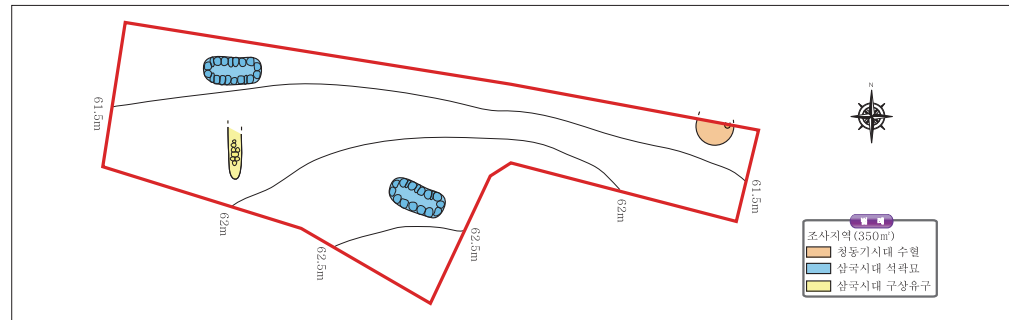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 1기와 삼국시대 석곽묘 2기, 석렬 1기가 조사되었다. 1호 석곽묘는 유적 중앙부 해발 62m 선상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남-북향, 묘광의 규모는 길이 353㎝, 너비 178㎝, 깊이 70㎝ 정도이며, 장단비는 1.98:1이다. 매장주체부인 석곽의 규모는 길이 230㎝, 너비 70㎝ 정

유적 위치도

도이며, 바닥은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다. 유물은 남동단벽 바닥에서 유개고배 2점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기 보고된 퇴래리고분군 일대의 고분군과 동일한 시기와 성격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삼도문화재연구원, 2017, 「김해 한림면 퇴래리 산8번지 일원 추가변경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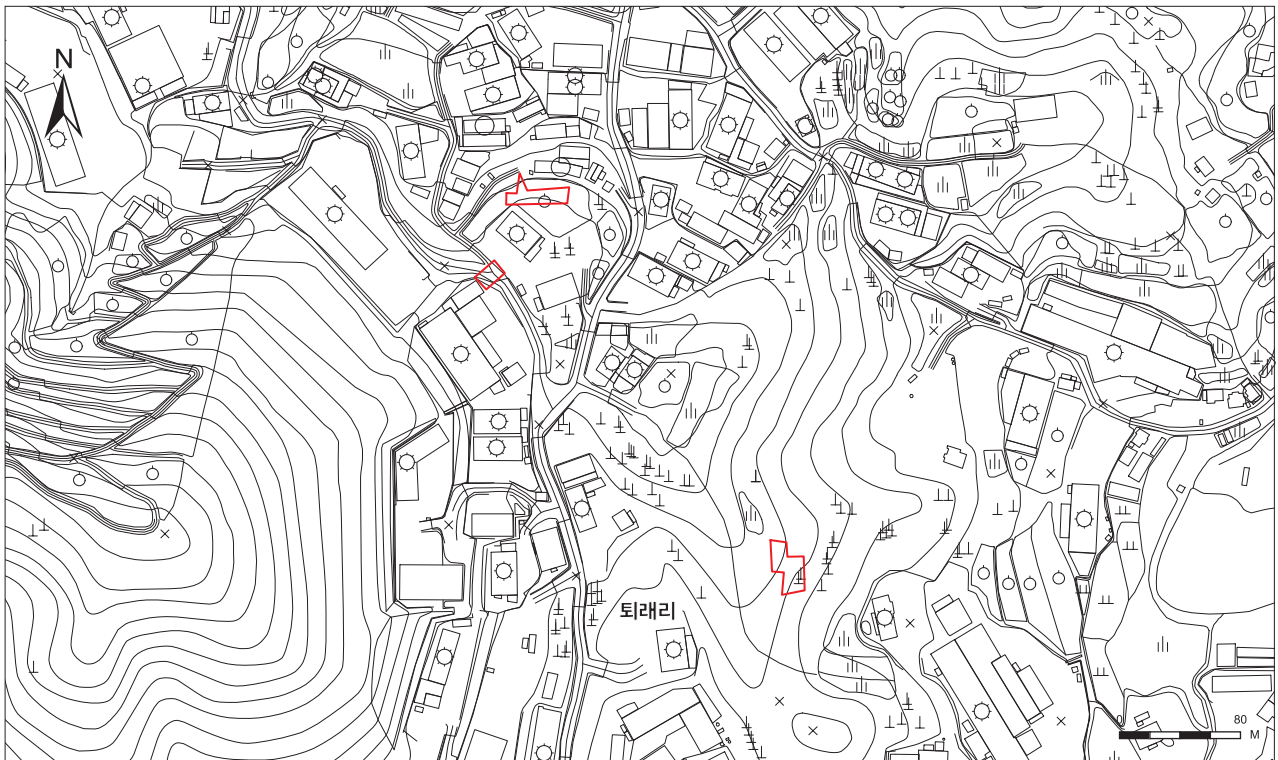
# 김해 퇴래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산9-1·
산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성균관대학교박물관 /
1차 1984.7.
2차 1985.7.~1985.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목곽묘,
옹관묘 / 고배, 개,
단경호, 노형토기, 기대,
철부, 갑주, 유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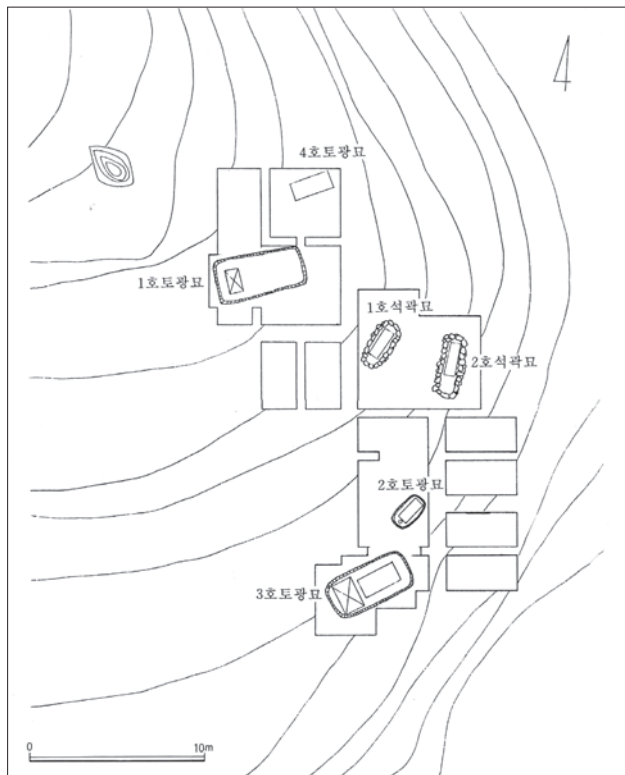
유적은 해발 150m 정도의 퇴래미산의 동쪽 기슭에 펼쳐진 구릉성 대지 위에 위치한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김해와 마산간 14번 국도가 떡고개에 막혀서 조망되지 않으며 동쪽에서 북쪽으로는 산지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진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성 대지의 대부분은 조사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분묘조성과 도굴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원지형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굴조사 결과 석곽묘 2기, 목곽묘 11기, 옹관묘 14기가 조사되었다. 먼저, 석곽묘는 내부에서 꺾쇠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석곽 내에 목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모서리를 말각으로 처리한 타원형에 가까우며 유물은 대체로 철기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목곽묘는 전반적인 구조와 형태상 김해지역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목곽묘와 대동소이하다. 주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바닥에 할석을 깐 것과 깔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은 대체로 양 단벽에 연접하여 부장되었

유적 위치도

는데,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유물 중에는 김해지역에서 출토되는 특징을 갖춘 토기가 대부분이지만, 함안과 창원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배와 노형토기도 출토되어 김해를 위시한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시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적에서는 동시기 다른 분묘유적과는 달리 옹관묘가 다수 조사되었는데, 대형 옹관묘가 조사된 창원 삼동동유적과 비교할 수 있다. 옹관묘는 모두 14기인데 대부분 주옹의 크기가 60㎝를 넘는 대형이라는 점에서 부산·김해지역의 소아용 옹관과는 구별된다. 옹관은 모두 주옹과 부옹으로 이루어진 합구식 구조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토기와 철기로 대별된다. 먼저, 토기류는 원저단경호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며 노형토기와 고배의 수량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노형토기는 비교적 규모가 큰 목곽묘에서 출토되고, 고배는 도굴 되지 않은 목곽묘와 가장 많은 토기가 출토된 목곽묘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점을 통해 볼 때, 고배의 부장은 선별적이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철기류는 대체로 2차 조사에서 다량 출토되었고, 1차 조사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지점에 위치한 7호 목곽묘에서만 출토되었다. 기종은 철촉, 도자, 철부, 철모, 유자이기, 철겸, 철제교구, 철정 등 다양한 편이다. 이와 같은 출토유물을 주변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검토하면 유적의 전반적인 시기는 대체로 4세기 중엽에서 5세기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989, 『김해퇴래리유적』.

나지구 유구 배치도

1호 토광묘

출토유물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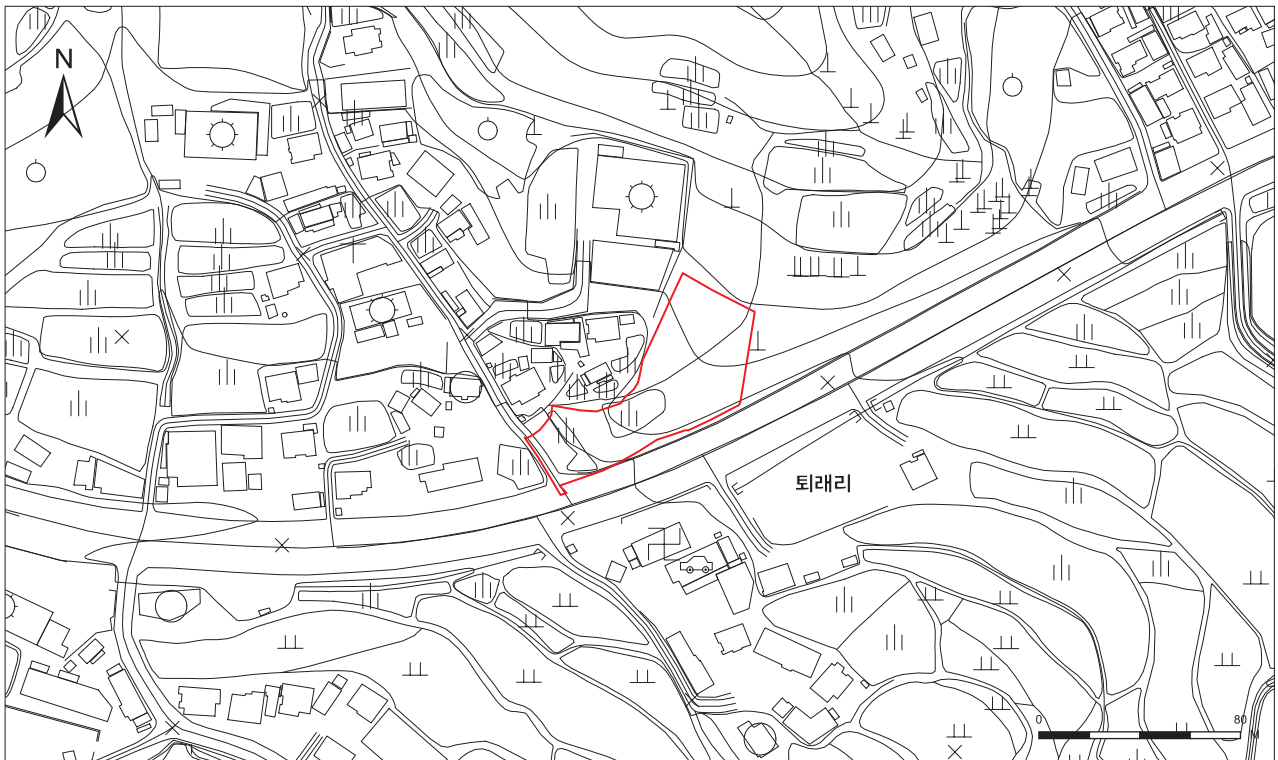
# 김해 퇴래리 소업I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산5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5.10.~2015.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단경호, 발형기대,
노형토기, 철모, 망치,
재갈, 교구

유적은 북쪽의 퇴래미산(해발 150.7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부와 능선에서 다시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구릉 사면부를 포함한다. 해발 30~50m 선상의 구릉부에는 기 보고된 김해 퇴래리 윗소업 유물산포지가 분포하며, 동쪽으로 작은 고개를 넘어 8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는 김해 퇴래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윗소업유물산포지는 지석묘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토기 편이 확인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 2기, 삼국시대 목곽묘 9기, 석곽묘 4기, 토광묘 2기, 조선시대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삼국시대 목곽묘와 석곽묘는 해발 30~40m 선상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복관계 없이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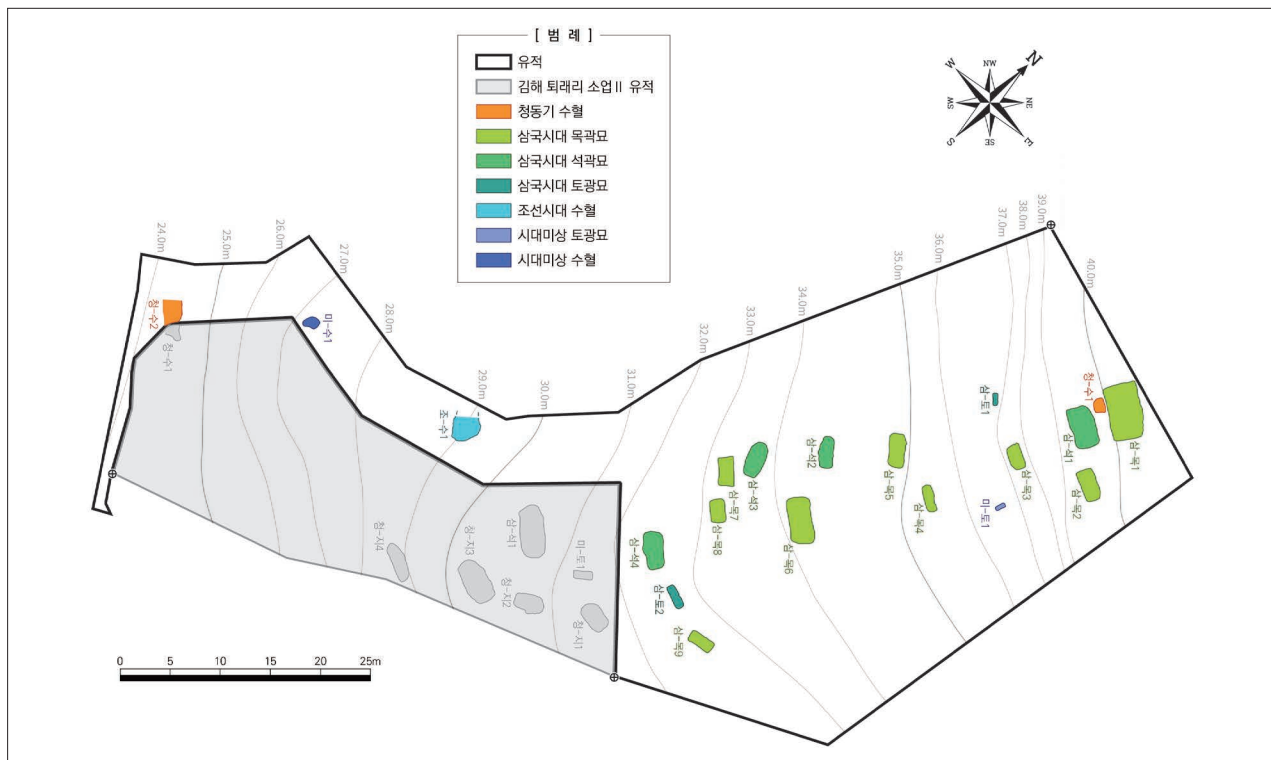
목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바닥은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무시설식, 사질점토와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한 경우, 할석 및 천석을 혼용하여 시상을 마련한 경우로 구분된다. 유물은 양단부장으로 서단벽에는 노형토기,

유적 위치도

발형기대, 소형기대,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대부직구호, 광구소호, 고배 등의 토기류, 동단벽에는 대도, 철모, 철겸, 철촉, 철부, 집게, 망치 등의 철기류를 부장하였다. 묘광의 규모가 중대형에 속하는 1·6호 목곽묘에서는 단야구에 해당하는 집게와 망치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 외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대도, 유자이기 등을 포함하여 철촉, 철부, 철모, 철겸 등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연접한 김해 퇴래리 소업Ⅱ유적의 1호 석곽묘를 포함하여 총 5기가 조사되었다. 배치양상을 살펴보면,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정형성 없이 단독으로 조성되어 배치양상으로는 시간차이나 친연관계 등은 파악할 수 없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바닥은 서단벽쪽의 유물 부장공간을 제외한 바닥 전면에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1~2단으로 시성석을 설치한 경우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된다. 2·3호 석곽묘 내부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질흔이 석곽 벽석을 따라 평면형태 장방형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양단부장 하였는데, 동단벽에 비해 서단벽에 부장량이 많고, 1호 석곽묘에서는 평면형태 말각방형의 부장공간을 설치하였다. 유물은 고배, 노형토기, 발형기대, 대부호, 대부직구호, 단경호, 호, 광구소호, 소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철부, 교구, 재갈, 철겸, 도자 편, 철촉과 단야구인 집게, 망치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기원후 4세기 4/4분기~5세기 2/4분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7,
『김해 퇴래리 소업Ⅰ유적』.

유구 배치도

# 22 김해 퇴래리 788-7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88-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2013.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대호, 단경호

유적은 퇴래미산(해발 150.7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지형은 설상구릉 남서쪽과 동쪽에 개설된 지선도로로 인해 지형이 단절되어 야트막한 독립구릉의 형상을 보이며 구릉의 서쪽 및 북쪽 일대는 감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유적의 북동쪽에 면해 현대 가족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가 1기만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묘광의 평면형태가 장방형(1.88:1)이며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340㎝, 너비 180㎝, 깊이 154㎝이다. 내부구조는 별도의 부장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단독식 구조이다.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묘광과 곽 사이에는 토사를 이용해 보강하였다. 퇴래리 고분군 내에서는 구릉 상부에 조성된 목곽묘는 모두 이와 동일한 구조인 반면, 구릉 말단부에 축조된 나지구 2~4호에서는 바닥에 할석을 깐 형태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와 대별된다. 바닥은 무시설에서 시상석을 부설한 형태로 변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유적 위치도

므로 고분군은 구릉 상부에서 하부로의 축조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부 조사과정에서 내부토층과 유물의 매납양상을 통하여 고분의 축조과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며 목곽묘의 구조도 목관이 안치된 목곽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의 매납양상은 전형적인 목곽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데, 깊은 묘광과 목곽 사이의 보강토 내 유물 매납(1차)·목관 내 유물 미부장·목관 상부 유물 매납(2차) 등의 목관묘적인 요소가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목곽 상부 유물 매납(3차)·봉토 내 유물 매납(4차)·유물의 파쇄 등 목곽묘적인 요소도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과정을 잘 반영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단, 목곽묘의 축조연대는 내부 출토유물 중 단경호와 노형토기를 참고할 때, 4세기 전엽 정도로 편년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목곽묘가 성행하는 단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유적이 속한 퇴래리고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목관묘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적에서 조사된 목곽묘에서는 유물의 출토위치를 통해 볼 때, 고분을 축조하는 각 단계에 따라 유물을 매납하는 과정이 확인되는데, 출토유물은 분묘 내 단순 부장품이 아니라 축조와 관련된 당시의 의례행위가 단계별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부경문물연구원, 2015, 『김해 퇴래리 788-7번지 유적』.

1호 목곽묘

목곽 상부 유물 출토모습

# 23 김해 퇴래리 793번지 유적

**소재지**
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93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6.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개, 고배, 광구소호, 단경호, 철부

유적은 공장조성부지로 퇴은마을의 남쪽에 위치하며, 퇴래미산의 동쪽에 위치하는 소구릉(해발 60m)의 완만한 북사면부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하는 소구릉 일원은 기 보고된 '퇴래리고분군 ①·②' 뿐만 아니라 '김해 퇴래리유적 -김해 퇴래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김해 퇴래리유적 -김해 퇴래리 788-7번지 유적' 등 다수의 삼국시대 분묘유적이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기, 목곽묘 1기,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먼저, 유적의 전반적인 층위는 구릉 사면부에 해당하여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유구가 설치된 기반층이 바로 확인된다. 전반적인 양상을 통해 볼 때, 원 지형은 대부분 삭평되거나, 교란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묘는 유적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친 해발 53m 선상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는 동-서향, 묘광의 규모는 길이 381㎝, 너비 172㎝, 깊이 53㎝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2.22:1)이다. 시상석과 보강토로 추정한 목곽의 규모는 길이 302㎝,

유적 위치도

너비 112㎝, 깊이 46㎝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2.7:1)이다. 바닥은 14~32㎝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서단벽에서 개 1점, 고배 1점, 단경호 1점, 연질호 1점, 호 편 1점, 중앙부에서 철부 2점, 북단벽에서 철촉 2점 등 9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유적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해발 54m 선상에 입지한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는 동-서향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0㎝, 너비 156㎝, 깊이 52㎝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2.21:1)이다. 매장주체부인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4㎝, 너비 94㎝, 깊이 40㎝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2.6:1)이다. 바닥은 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정지한 후 7~42㎝ 정도의 할석을 이용해 시상석을 마련하였다. 시상이 설치되지 않은 서단벽 부분에는 10~40㎝ 정도의 할석을 2열로 마감하여 유물 부장공간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서단벽에 설치한 유물 부장공간에서 고배 2점, 광구소호 1점, 호 1점, 연질호 1점, 노형토기 1점, 철겸 1점, 철부 1점, 북장벽 중앙부에서 철부 2점 등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기 보고된 퇴래리고분군 일원의 고분군과 동일한 시기와 성격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8, 『김해 퇴래리 793번지 유적』.

1호 목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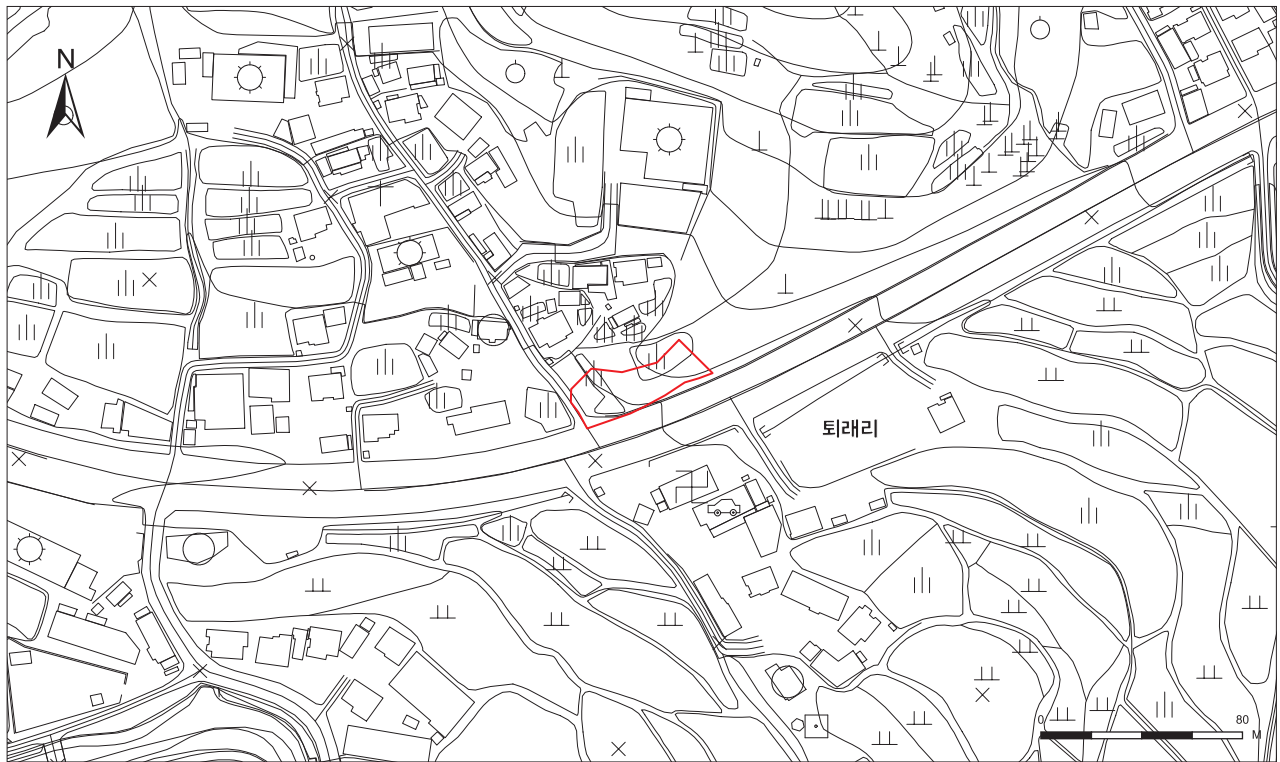
# 24 김해 퇴래리 소업II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177-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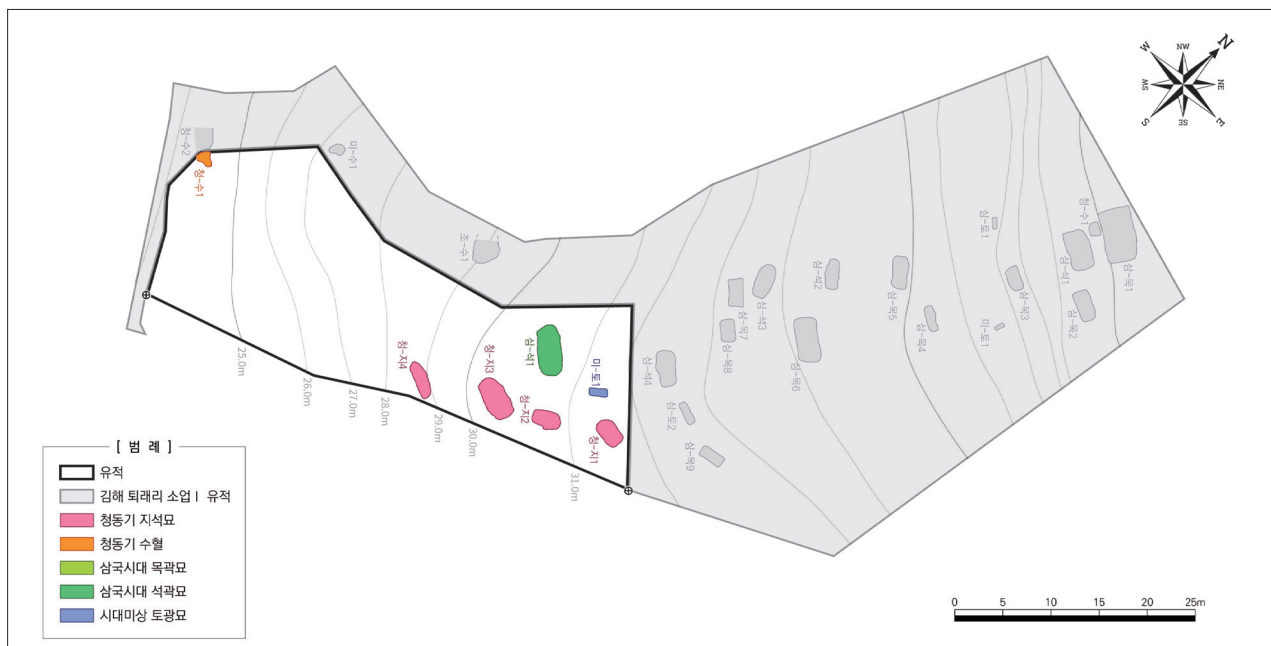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발형기대, 노형토기,
철모, 망치, 재갈,
교구, 은제세환이식,
유자이기

유적은 북쪽의 퇴래미산(해발 150.7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부와 다시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구릉사면부를 포함한다. 해발 30~50m 선상의 이 구릉에는 기 보고된 김해 퇴래리 윗소업 유물산포지가 분포하며, 동쪽으로 작은 고개를 넘어 약 800m 이격된 곳에는 삼국시대 중요 고분군인 김해 퇴래리고분군이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4기, 수혈 1기와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시기미상의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동일 구릉에 연접하는 김해 퇴래리 소업I유적에서도 청동기시대 수혈과 삼국시대 목곽묘, 석곽묘 등 동일한 시기와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고, 퇴래미산의 동쪽 구릉지에서도 삼국시대 분묘를 비롯한 생활유적이 조사되고 있어 퇴래미산 일대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석곽묘는 유적 북동쪽 사면부의 해발 30.8m 선상에 입지하며, 대형의 개석 7매를 묘광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횡가하고, 개석 상부와 주변으로 중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유적 위치도

보강하였다. 묘광의 잔존규모는 길이 526㎝, 너비 248㎝, 깊이 138㎝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2.12:1)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남동-북서향이고, 목관의 중간 높이인 20㎝ 내외 부근의 보강토와 목관 경계면에서 꺾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통나무관을 상하로 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 보강토로 추정된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8㎝, 너비 62㎝ 정도이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4.37:1)이며, 규모는 길이 402㎝, 너비 92㎝, 깊이 110㎝이다. 유물은 남동단벽에 인접하여 종장판주 소찰 편, 철기제작과 관련된 집게, 망치, 철착 등의 단야구, 철촉군이 포개져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기원후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연접한 퇴래리 소업Ⅰ유적과 동일한 성격의 분묘이며, 가장 대형분에 속한다.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철기제작과 관련된 집단의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7, 『김해 퇴래리 소업Ⅱ유적』.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1호 석곽묘

철기류

25

# 김해 안양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6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2.1.~2002.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환두대도, 유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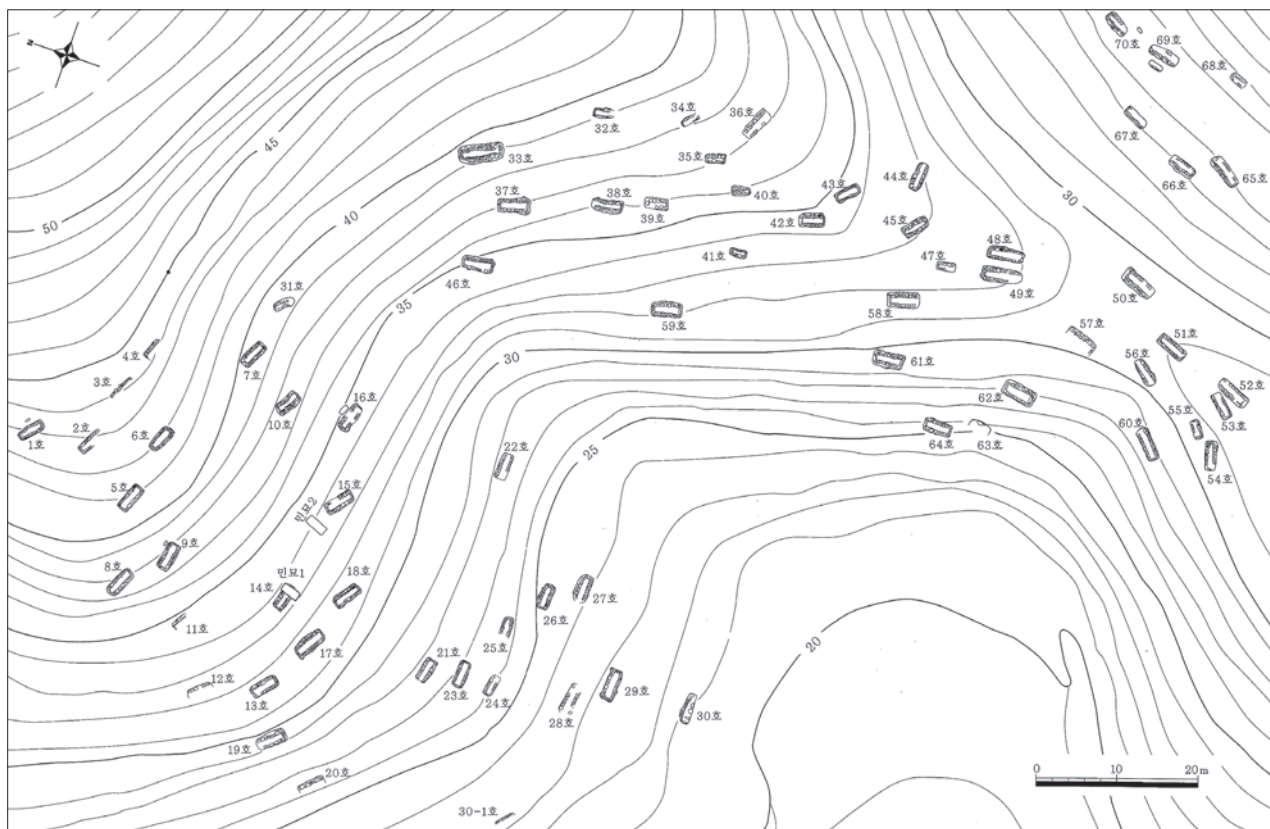
김해 안양리고분군은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와 도율리에 걸쳐 있는 사망산의 서쪽 완만한 구릉으로 안양 소류지 북서쪽에 위치한다. 안양리고분군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발굴조사되었으며, 사면 위치를 기준으로 2개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71기와 조선시대 목관묘 2기 등 총 7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의 주축방향은 A지구는 북서-남동향, B지구는 북동-남서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안양리고분군 석곽묘는 단벽을 대형 판상할석으로 수적한 후 그 상부를 횡평적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유개고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장경호의 토기류 위주로 부장되었으며, 일부 환두대도, 유자이기가 부장되긴 하였으나 대부분 도자, 철부, 철겸 등 농공구류 위주로 소량이 부장되었다. 출토된 토기로 보아 조성시기는 기원후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며 단기간에 조영된 고분군으로 파악된다. 출토된 고배 중에 함안과 창녕지역 양식의 것들이 다수 출토되어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김해 안양리고분군』.

있으며, 5세기 후반대의 유구에서는 신라계 유물도 많이 보여 김해의 최북단에 조영되어 있는 안양리고분군이 이 시기에 낙동강 서안의 신라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안양리고분군은 신라의 세력확장과 관련하여 금관가야 중소형고분군의 축조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유구 배치도

17호 석곽묘

42호 석곽묘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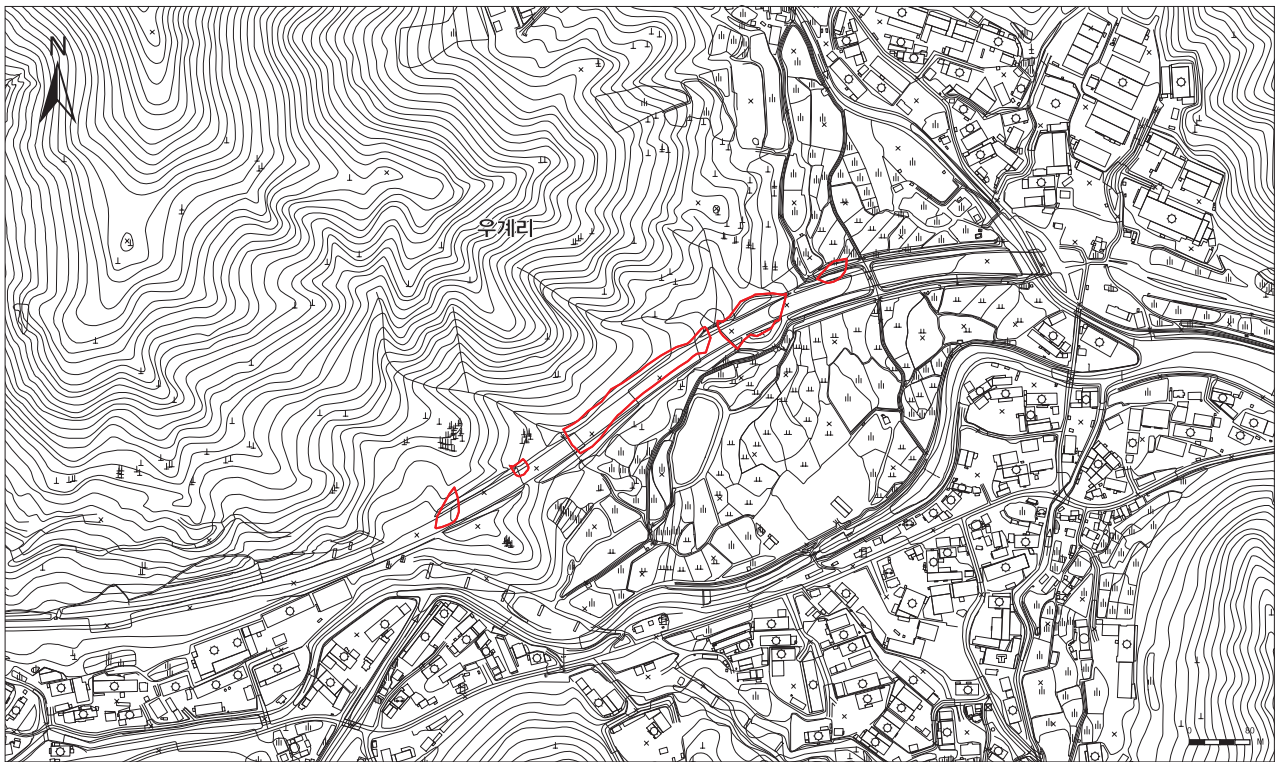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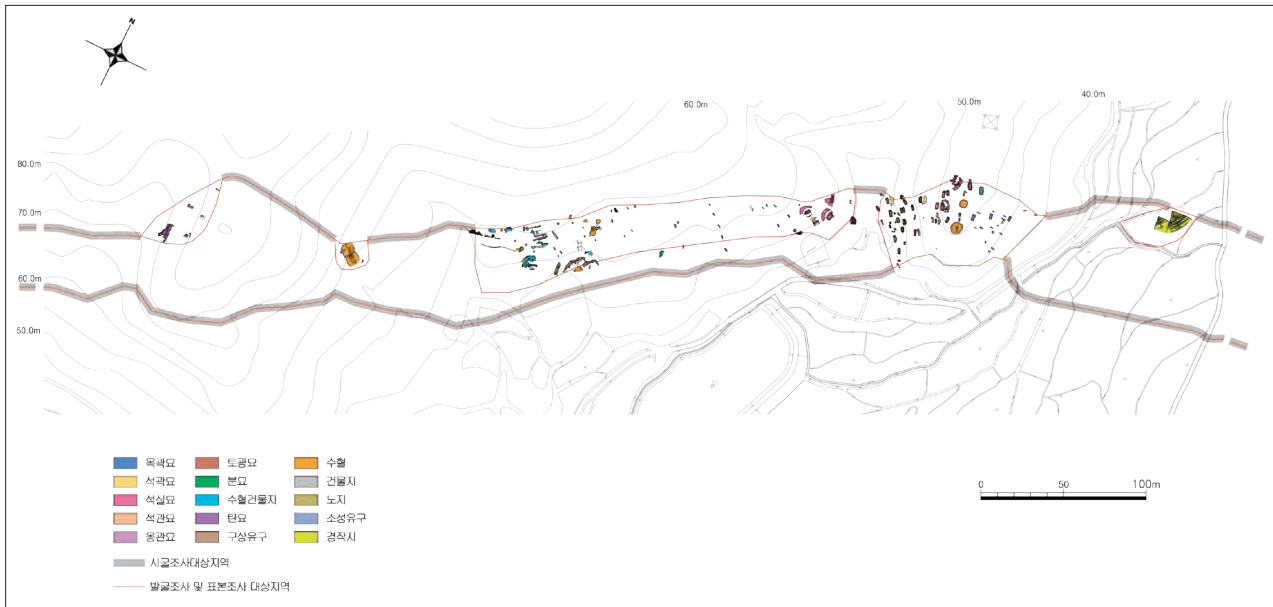
# 김해 우계리유적 _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건설 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9.12.~2010.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개, 단경호,
대부직구호, 광구소호,
대호, 철모, 철부

김해 우계리유적은 석룡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장군봉(해발 330.9m)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크게 3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의 수혈건물지, 삼국시대 고분, 생산유구,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고분은 조사 대상지역 전체에 걸쳐 확인되고 있어 우계리고분군의 분포범위가 현재 알려진 지역을 포함하여 주변까지 넓게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고분군은 1구릉의 동·서쪽 구릉사면과 2구릉의 말단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목곽묘의 규모는 묘광 길이 3.24~5.14m, 너비 1.64~2.88m 정도이고, 목곽의 크기는 보강토의 잔존범위로 볼 때, 길이 2.66~3.70m, 너비 1.02~1.38m이다. 목곽묘의 장단축비는 1.8:1~2.3:1로서 중소형의 장방형목곽묘가 사용되었다. 바닥은 그대로 이용하거나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석곽묘는 모두 33기로서 정상부를 포함한 1구릉의 서쪽사면부에 집중되어 있다.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1~3.3m, 너비 0.64~1.24m로 석곽묘의 규모는 정상부에 위치하는 것이 비교적 크며 사면부로 내려갈수록 소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유적의 조성연대에 관해서는 목관묘 단계는 기원후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석곽묘 단계는 5세기 중후반~6세기 중반, 석곽묘와 석실묘가 공존하는 단계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우계리고분군의 입지상 특징은 대형 분묘들은 구릉의 상위에 축조되고, 구릉의 중하위에 중소형 분묘가 중복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다는 것이다. 우계리고분군의 조사를 통해 김해 외곽지역의 고분 변화양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2,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건설구간 내 김해 우계리유적』.

1-2지구 전경

1지구 3호 목곽묘

1지구 6호 석곽묘

1지구 2호 옹관묘

4호 탄요

27

# 김해 봉황동유적

| 사적 제2호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시굴 1992.3.
발굴 1992.12.~1993.3.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주거지, 구 /
노형토기, 장동옹,
시루, 고배, 소형기대,
옹, 발, 단경호, 기대,
도자, 골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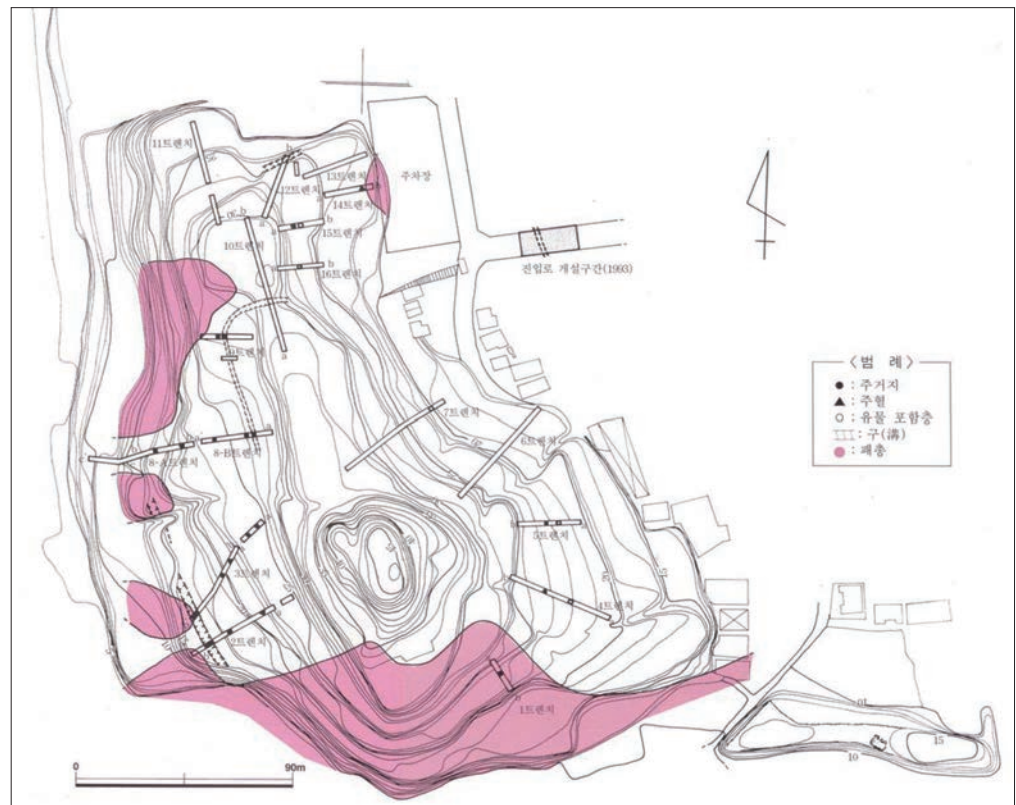
유적은 사적 제2호인 봉황동유적의 중앙에 위치하는 돌출된 독립구릉으로 과거부터 봉황대라 불리는 지역과 진입로 부분에 해당한다. 봉황대 구릉 정상부를 제외한 사면부를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병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봉황대에서는 바위가 있는 구릉 정상부와 동쪽 사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유구가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쪽 사면 일부에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도 주위 정황을 통해 볼 때, 유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황대 구릉은 비교적 경사가 심하며, 유구가 설치된 후 상부로부터 점토의 이입이 거의 없이 삭평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구릉 정상부에 가까운 지역의 유구는 훼손이 심한 편이다. 봉황대 구릉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사질성이 강하며, 점토의 함유량이 매우 적은 편인데 특히, 동쪽 사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점토가 거의 없어 유구의 훼손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릉 정상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지형

유적 위치도

조건을 감안하면 특별한 의식이나 제의가 행해진 장소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패총은 해발 15~20m가 상한선으로 그 아래쪽에 유존하며 모두 6개소가 확인되었다. 시기는 2세기에서 6세기대 걸치고 있다. 이 중에서 봉황대 구릉 남쪽 사면에 형성된 패총은 패각의 퇴적량이나 분포범위를 통해 볼 때, 가장 규모가 큰 패총으로 봉황동유적의 중심 패총으로 추정되며 중심연대는 3세기로 판단된다. 주거지는 삭평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 외에는 거의 모든 트렌치에서 노출되었는데, 특히 구릉의 서쪽 사면에 설치된 2트렌치와 8트렌치에 걸친 지역에 밀집 분포한다. 주거지는 형태가 부정형한 구와 주혈이 함께 혼재하고 있다. 이들 주거지들은 봉황동유적이 방어의 목적이 강한 고지성 취락이라기 보다는 저지의 주거지가 자연재해 등을 당했을 경우 이용하는 임시 주거지일 가능성과 제의 등과 관련된 특수목적의 공간일 가능성이 있다 판단된다. 구는 3곳에서 확인되었다.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한 구는 2트렌치 남쪽에서 시작하여 8트렌치 남쪽 단애면까지 이어진 구이다. 단면은 'U'자상이며, 전체 길이는 76m, 너비는 2.5m 정도이다. 12트렌치 하부에서 확인된 구는 단면이 'V'자상이며, 봉황대 구릉에서 확인된 구 중에서 가장 시기가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8·9·10트렌치의 해발 30m 정도되는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도 구가 조사되었는데, 전술한 2기의 구와는 달이 너비도 좁고 얕은 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적은 봉황대 구릉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였으나, 거의 전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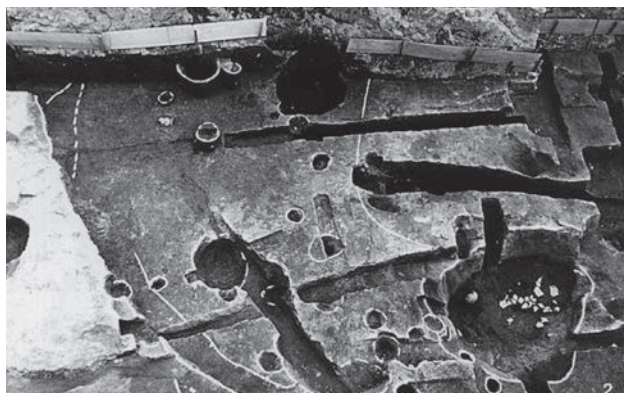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봉황대유적』.

지역에서 당시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봉황대 구릉을 위시한 지역은 금관가야의 중심지역으로 알려진 바 있는 만큼 유적 일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보존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진입로 개설구간 상층 유구 전경

진입로 개설구간 하층 유구 전경

진입로 개설구간 15 수혈

진입로 개설구간 24호 주거지

# 28 김해 회현리패총

| 사적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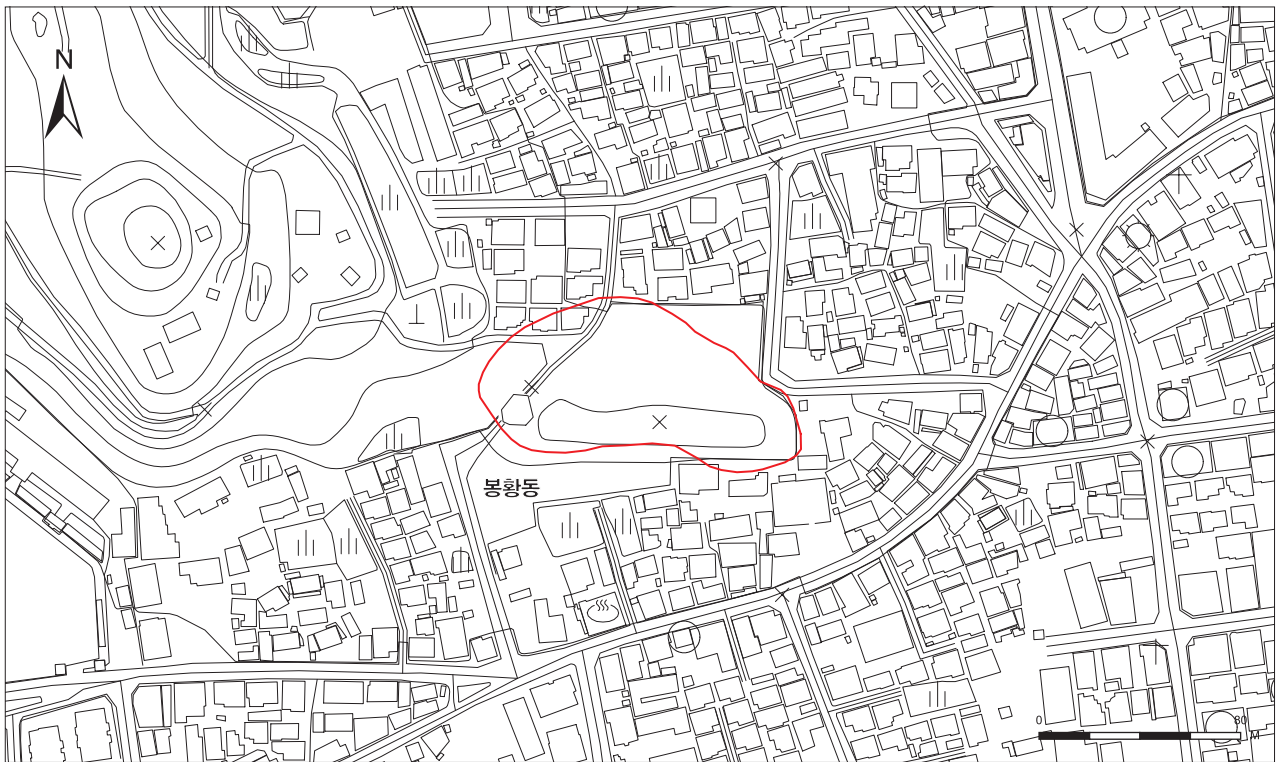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65-17·25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인문대학
고고학과 /
시굴 1998.10.~1998.11.
삼강문화재연구원 /
1차 2005.3.~2005.6.
2차 2005.8.~20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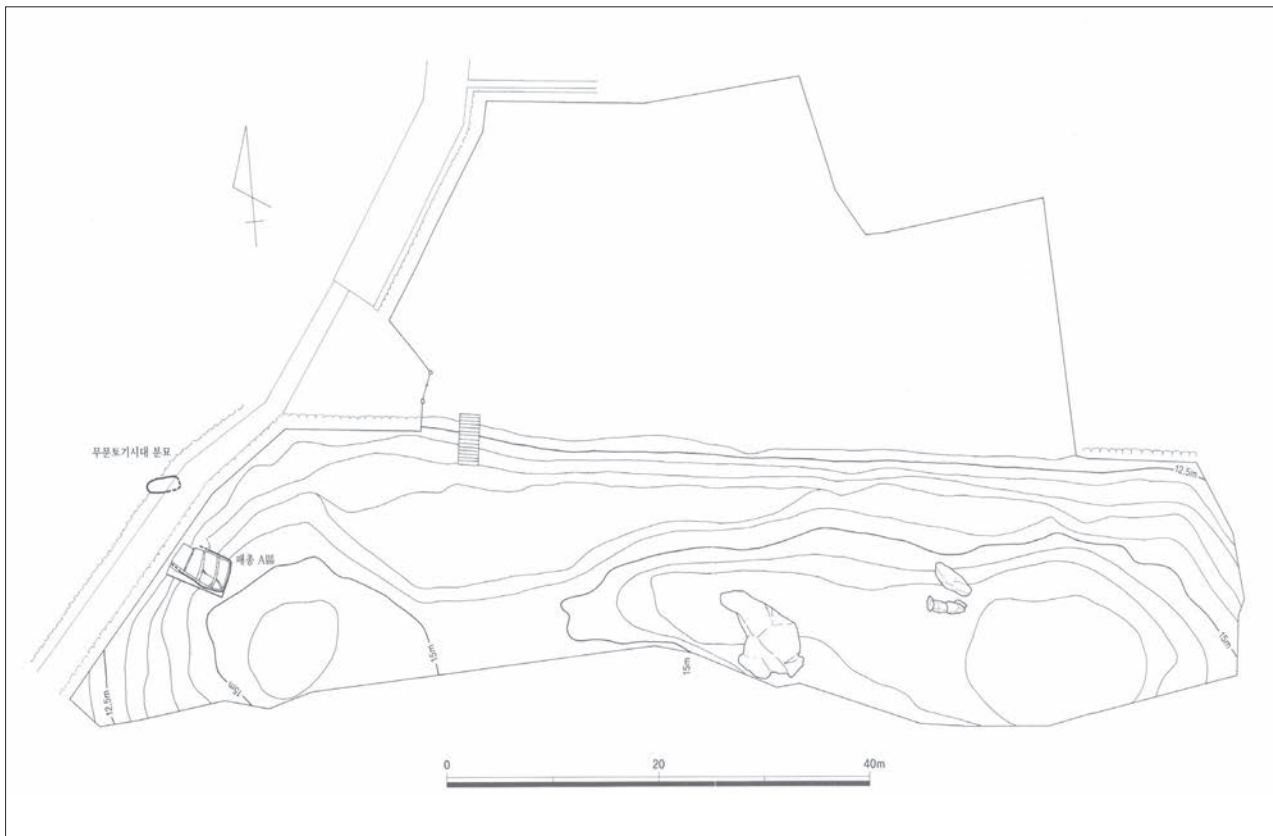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옹, 발, 호,
패각, 골각기

유적이 위치하는 김해시는 낙동강에 의해 형성된 삼각주의 충적평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분성산(해발 323m), 경운산(해발 378.6m), 임호산(해발 177.9m)에 둘러싸여 있다. 유적은 김해 시가지 중심에 솟아오른 사적 제2호인 봉황대유적이 위치하는 소구릉의 동남쪽 말단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봉황대와 연결되어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약 1㎞ 이격된 곳에는 김해 부원동유적이 위치한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8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에서 패총 전사를 위한 사전조사로 1920년에 조사된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패총전시관 건립을 위해 봉황동 253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 1920년 조사에서 확인된 Ⅰ~Ⅲ층과 Ⅳ층 일부가 대부분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잔존양상을 감안하면 형성 당

유적 위치도

시의 패총은 6~7m의 깊이로 아주 두껍게 퇴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패총의 퇴적방향은 1920년 발굴조사에서는 현재의 구릉 사면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적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오히려 봉황대와 패총이 형성된 구릉 사이에는 소구릉이 돌출되어 있었으며, 패총은 돌출된 소구릉과 회현리패총 A구 사이에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물은 과거 아라미츠 교이치有光教一의 지적처럼 Ⅰ층이 Ⅱ층보다 새롭고, a층이 b층보다 새롭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16층에서 와질토기가 확인되고, 상층에서도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현상은 회현리패총의 퇴적양상이 순차적인 퇴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현리패총의 형성연대에 대해서는 출토유물을 검토한 결과, 기원전후로부터 기원후 4세기대까지 형성되었으나, 1920년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을 포함한다면, 유적의 하한연대는 다소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삼강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중심으로 볼 때, 56층을 경계로 크게 2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00층에서 57층까지를 Ⅰ단계, 56층에서 3층까지를 Ⅱ단계로 구분된다. Ⅰ단계는 88층을 경계로 a, b로 분기되는데, Ⅰa기는 유물수량이 많지 않아 유물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흑색마연장경호의 형식이나 격자문타날의 부재를 통해 Ⅰb기와 구분할 수 있다. Ⅰb기는 소형옹이나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 등을 기준하면 고식와질토기의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Ⅱ단계의 경우

유구 배치도

에도 28층을 기준으로 a, b기로 구분할 수 있다. Ⅱa기는 노형토기를 대표로 하는 신식 와질토기단계에 해당되며 Ⅱb기는 평행문타날, 도질토기의 특징에서 도질토기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 하한은 4세기대로 추정된다. 평면조사 지역에서 노출된 개별 유구에서 단 1점의 무문토기 저부 편만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기형의 특징으로 보아 무문토기시대 만기로 추정되며 표토 및 상부 교란층에서는 4~5세기대 도질토기가 다량 출토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볼 때, 유적은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걸친 패총으로 추정되는데, 유적의 상한은 기원전후에서 하한은 4세기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 2002,『김해 회현리패총』.

삼강문화재연구원, 2009,『김해 회현리패총Ⅰ·Ⅱ』.

유구 전경

출토유물

# 29 전 금관가야궁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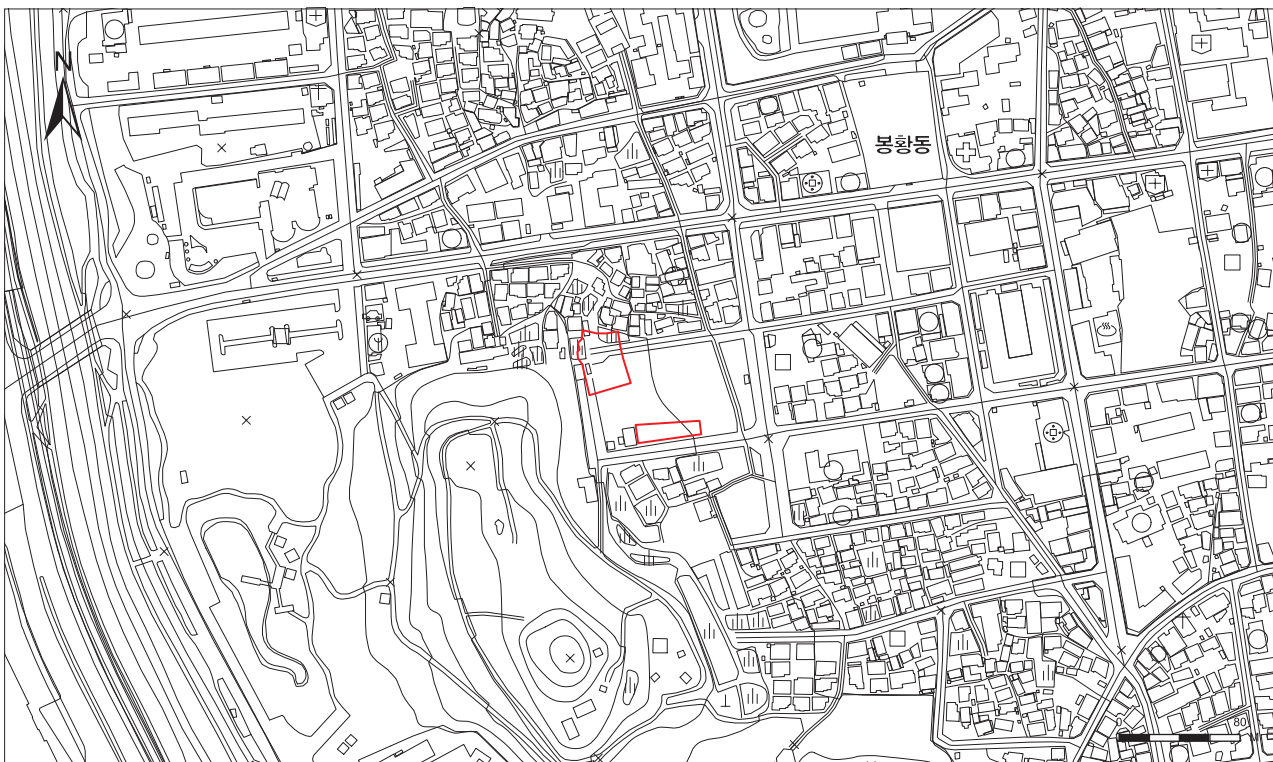
| 사적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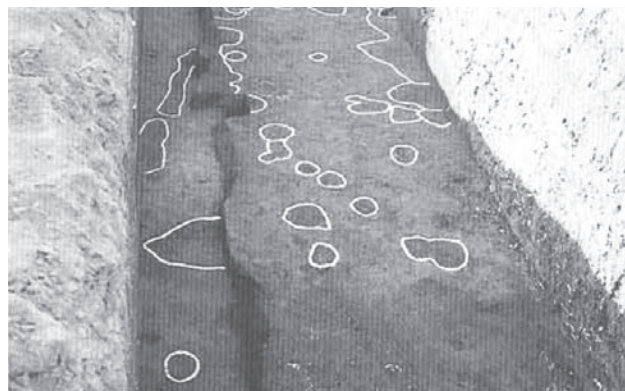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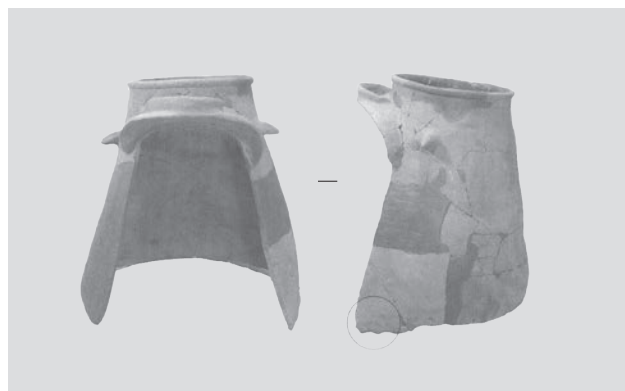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67-2·368-4·312·312-5~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시굴 1999.12.~2000.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고배, 시루, 부형토기, 옹

유적은 사적 제2호인 봉황동유적이 위치한 구릉 사면의 동쪽에 해당되는 곳이다. 크게 봉황동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입구에서 그 진입로 북쪽으로 연접한 지역과 구릉 바로 앞 주차장과 연접한 지역 등 2지역으로 구분된다. 유적은 봉황대 구릉 사면의 가장 하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상부의 구릉 사면에 형성되어 있던 패총의 패각과 부식토들이 흘러내려 혼패층이 비교적 두껍게 형성된 곳이 확인되었으며, 토층의 퇴적도 구릉의 경사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퇴적되어 있었다.

시굴조사 결과, 유구는 주거지와 수혈로 추정되는 것들과 방형주구형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성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렌치 내에서는 소토와 목탄이 다량 포함된 유구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성격불명의 유구들은 봉황동 일대 및 김해 시가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유물은 대체로 4~6세기대에 이르는 연·경질토기들이 주류

유적 위치도

트렌치 위치도

3트렌치

4트렌치 출토유물

를 이루며 최하층에서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와 석기 등도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문화층과 그 상부의 삼한시대 문화층도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봉황동유적은 분포범위가 봉황대 구릉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 전역에 이른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과거 회현리패총을 비롯하여 북으로는 대성동고분군과 인접하는 구릉 북단까지 연결된다. 또한, 금관가야의 중심 주거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봉황대 진입도로 구간 내 유적과 현재 가야궁허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비롯하여 봉황대 구릉 사면 말단부와 평지 일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2006, 「전금관가야궁허지」.

# 30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

| 사적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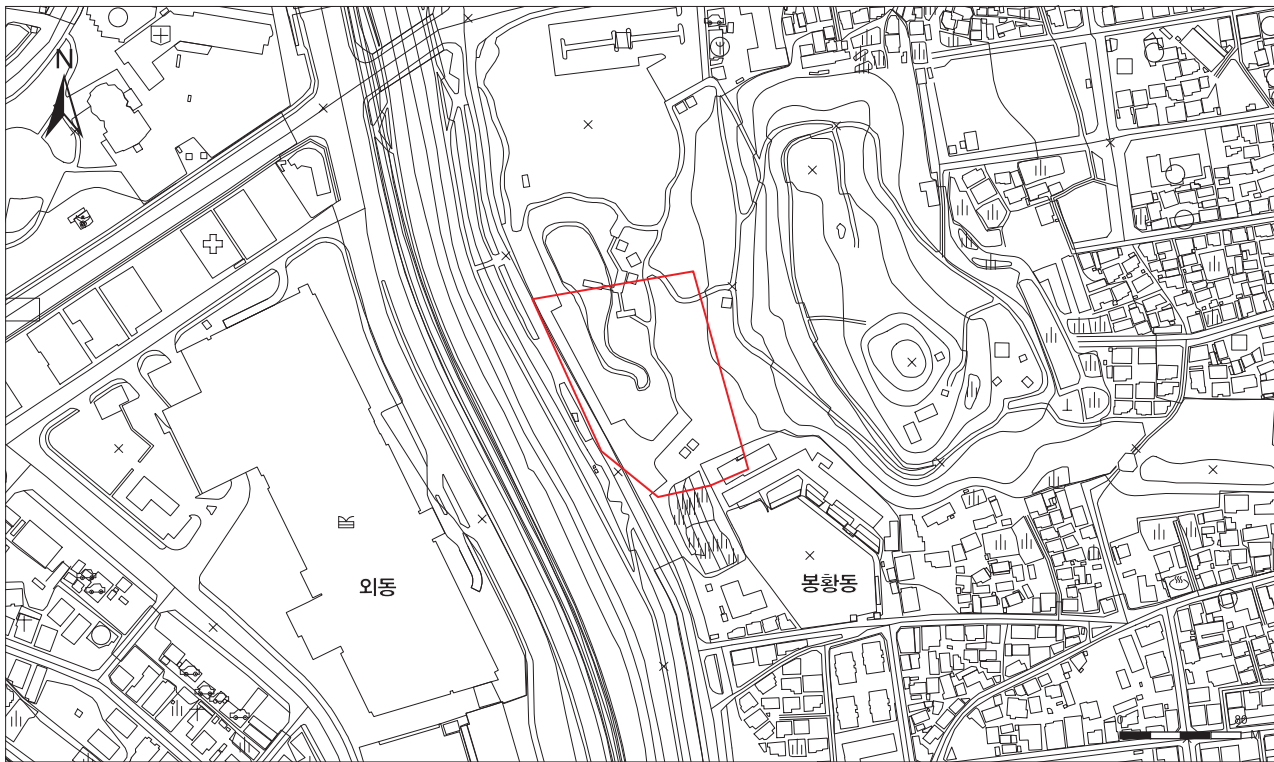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66-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차 2002.4.~2003.11.
2차 2003.4.~2003.10.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토성,
가마 / 고배, 두형토기,
옹, 양이부호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봉황대 구릉의 서쪽 기저부와 해반천 사이 충적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봉황토성의 체성 일부와 토루시설, 고상건물 22동, 수혈 30기, 가마 4기, 주혈군, 경작유구 등이 조사되었고, 고려시대의 하도 및 호안시설도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크게 2개의 층으로 대별되는데, 하층은 대체로 4~5세기대, 상층은 6세기 이후에 해당된다. 하층에서는 봉황토성의 기저부와 토루시설, 토기가마, 고상건물이 확인되고, 상층에서는 수혈, 경작유구 등 일부만 조성되어 있어 유적의 중심 시기는 하층인 4~5세기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출토유물은 주로 취사용 토기의 출토량이 많고, 왜계 유물도 적지 않은 수가 출토되었다. 이 중 이동식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아궁이모양토기와 부형토기가 주목되는데, 금관가야의 생활유적에서 아궁이모양토기와 부형토기의

유적 위치도

출토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유적에서 다수 조사된 고상건물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금관가야 지역에서 다수의 사례가 간취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외에 왜계 유물의 출토량도 적지 않은데, 인근의 구산동유적에서 야요이집단의 취락이 확인되었고, 대성동고분군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유물이 부장되는 양상을 감안하면 유적이 위치한 김해지역은 동아시아 교류의 결절지라고 유추해도 무리가 없으며, 본 유적이 그 관문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유적은 봉황토성과 토성 외측의 저습지에 형성된 대규모의 고상건물로 구성된 특수한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통해 볼 때, 봉황토성은 봉황대 구릉의 기저부를 따라 일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형조사와 토층조사를 통해 지금의 해반천과 봉황대 사이는 저습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감안해 볼 때, 고상건물이 집중분포하는 B지구는 해안에 접한 지역으로 우기에는 건물의 기둥이 물에 잠겨 수상가옥과 같은 경관을 보였으리라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 문화센터, 2005,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 문화센터, 2013,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Ⅱ』.

유적 전경

1·2호 가마

1호 굴립주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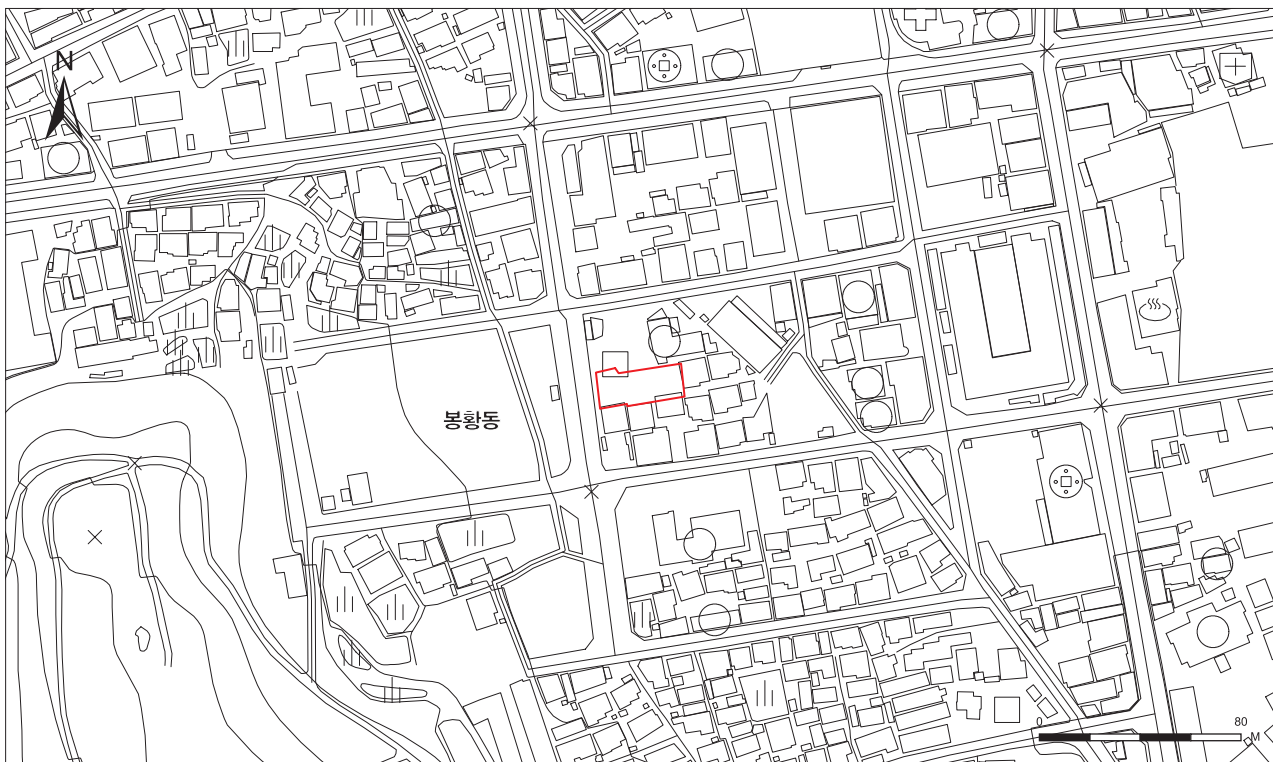
3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80-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5.2.~2015.3.

**주요 유구 / 유물**
석축, 수혈 / 개, 고배,
양이파수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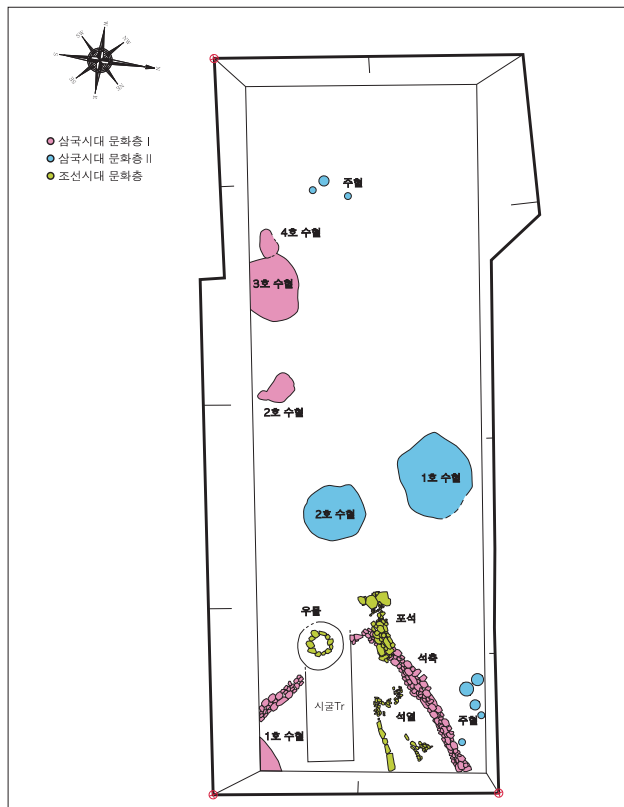
#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_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은 북서쪽으로 경운산, 동쪽의 분성산(해발 330m), 서쪽의 임호산(해발 178m) 등 삼면이 구릉성 산지들에 둘러싸여 있다. 서쪽으로는 해반천이 남쪽 방향으로 김해 시가지를 관통하며 서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해반천의 동-서 양안으로는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 및 해발 50m 이하의 소규모 단독 구릉들이 발달해 있다.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제2호)의 구릉이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ㄴ'자상으로 뻗어오다가, 급경사를 이루면서 낮아지는데 구릉의 북동쪽 일대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유적의 입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인자로 작용한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고고학연구소 등 주변 지역 발굴조사를 통해 서쪽과 남쪽은 패총이 분포하고 동쪽과 북쪽은 주로 주거지역이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구릉 서쪽 경사면 아래의 저지대에서는 토기생산과 해상교역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유적 위치도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문화층 3개소와 조선시대 문화층 1개소가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문화층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 문화층에서는 삼국시대 석축과 수혈, 주혈, 조선시대 석열,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Ⅰ은 석립·니질·소토·목탄을 이용하여 유사판축(다짐층)한 층으로, 석축과 수혈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석축은 집수지로 추정되고 초축 및 수축부가 기존 봉황토성 조사에서 확인된 외벽과 축조수법이 유사하다. 방형으로 추정되는 평면과 단면이 둔각을 이루는 사선의 형태는 고대 산성의 집수시설과 유사하다. 이 시설은 형태 및 축조수법을 볼 때, 봉황토성 내측에 설치한 집수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문화층Ⅰ에서는 삼국시대 회청색경질의 토기 편과 적갈색연질의 토기 편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Ⅱ 상면에서는 사질토로 이루어진 범람층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층에서는 수혈 2기와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Ⅲ은 조사 여건상 수혈, 주혈군 등 평면의 유구만 확인하였다. 이 층 유구와 토기 편이 확인되고 있어 하부에 계속해서 문화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문화층Ⅰ의 석축은 집수시설로 추정되고, 초축 및 수축부가 기존 봉황토성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외벽의 축조수법과 유사하며, 유물은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옹, 호, 개, 고배, 완, 기대, 파부수토기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전반적인 양상을 통해 볼 때, 5~6세기대로 추정되며 중심시기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석축

삼국시대 1호 수혈

# 32

## 김해 봉황동유적 _ 김해 봉황동 119-1·22-6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19-1·22-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2012.2.~2012.6.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목책열 / 선박부재, 개, 고배, 옹

유적은 행정구역상 김해시 봉황동 119-1, 22-6 일대에 위치한다. 먼저, 119-1 일대은 서쪽으로 약 80m 지점에 해반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북쪽에는 삼한~삼국시대 취락과 패총이 확인된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대유적 중 봉황대 구릉이 위치하며 조사지역은 봉황대 구릉의 남서쪽 저지대에 해당된다. 그리고 22-6 일대는 봉황대 구릉의 남동쪽 말단에 위치하는 회현리패총에서 남동쪽으로 약 320m 지점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119-1 일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수혈 2기, 고상건물 2동, 목책열 1기와 고려~조선시대의 목주열 1기, 소성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적 일대은 패총의 분포양상이나 조사된 유구를 통해 과거 해안과 인접한 지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유적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상건물은 해안변에 조성되어 창고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층위별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문화층Ⅰ은 외절구연단각고배 등을 통해 볼 때,

유적 위치도

3~4세기대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문화층Ⅱ는 개와 옹 등을 통해 5~6세기대로 추정된다. 또한, 고선박 부재는 실물이 확인된 삼국시대 유물로는 유일한 것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양항해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선박이 3~4세기대에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선박 실물이 확인된 것은 문헌기록에 전하는 대로 삼국시대 당시 동아시아 각 국 간에 철기 등의 교역품을 매개로 한 활발한 해상교역이 가능하였음을 실증하는 단초가 되는 점에서 조사의 의의가 매우 크다. 비록 선박을 제작한 목재의 수종이나 형태면에서 일본 선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박 건조와 관련한 기술이 한반도에서 전래되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기의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의 활발한 교류 및 교역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임에 그 의의가 있다.

김해 봉황동 일대은 금관가야의 중심지로 고 김해만 형성기의 내만으로서 인접한 해반천의 하구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항구가 입지하기 좋은 여건에 해당되어 바다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적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확인된 고상건물도 가야의 해상교역과 관련하여 항구와 인접한 창고시설로 추정되는데, 유적에서 출토된 선박 등의 자료를 통해 해상교역의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봉황동 지역이 당시 해상활동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4, 『김해 봉황동유적-김해 봉황동 119-1 및 22-6 일원 주택 신축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1호 수혈유구

고선박 부재 출토모습

# 33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26-1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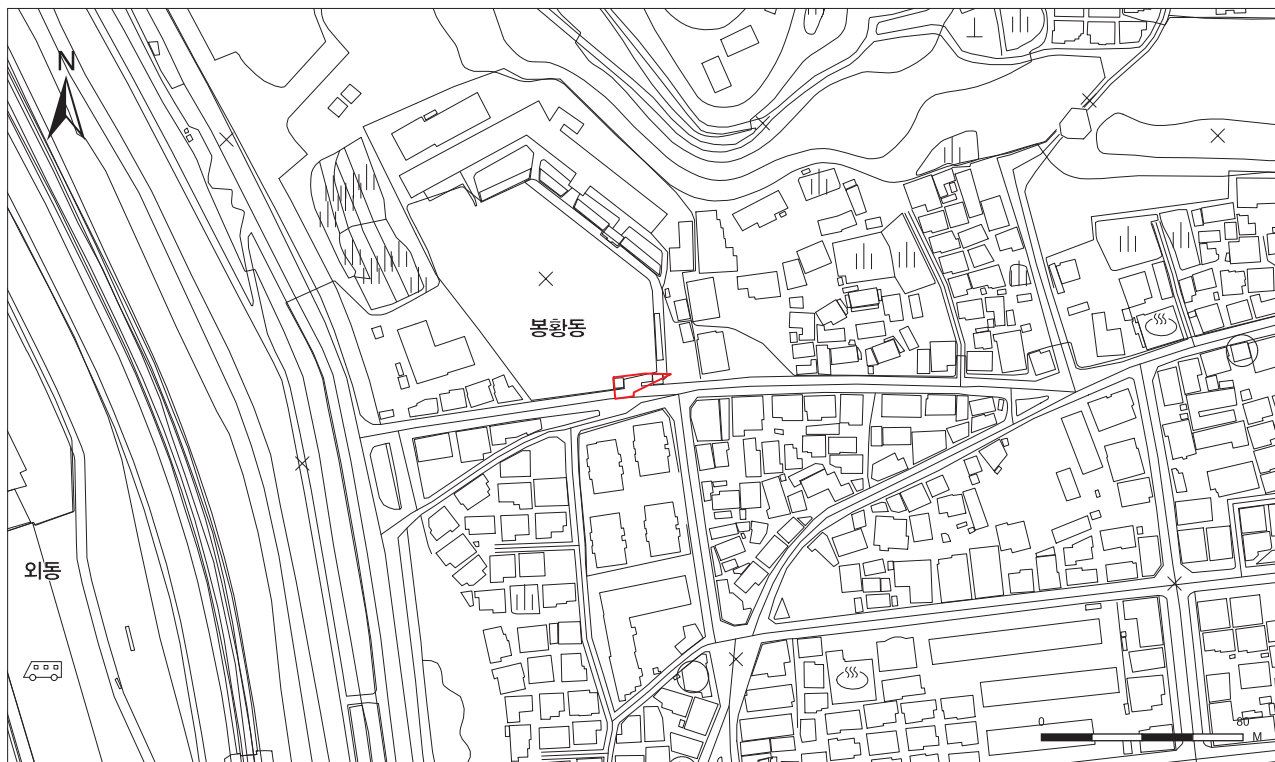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4.7.

**주요 유구 / 유물**
목주 / 호 편

# 김해 봉황동유적 _ 김해 봉황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 중 봉황대 구릉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서 이어지는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해반천이 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유입된다. 북쪽에는 봉황대유적이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연접하여 동양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금관가야의 선박 부재가 출토된 봉황동 119-1 및 22-16 유적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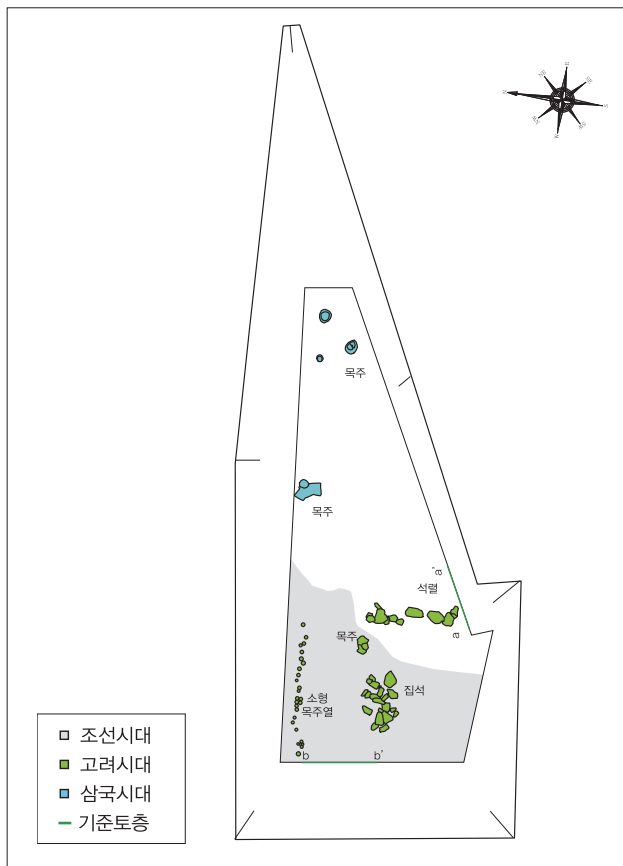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층위는 크게 5개 층으로 대별된다. 표토층, 조선시대 유물포함층, 고려시대 문화층, 범람층, 삼국시대 문화층 순으로 수평에 가깝게 퇴적되어 있다. 이들 문화층에서는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된 고려~조선시대의 자기 편, 기와 편 등의 유물을 포함한 조선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이 문화층 하부의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소형 목주열, 석열, 집석 등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문화층 하부에는 목주가 확인되는 삼국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은 고려시대 문화층 하부에서 확인되었는데, 고상건물 또는 초반시

유적 위치도

설로 추정되는 목주 4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경계가 좁아지는 동쪽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으며 4개의 목주 중 1개 목주의 단면양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바닥에 석재를 이용한 초석시설이 확인되었다. 인접하여 조사된 봉황대 유적의 고상건물은 구조상 주공식+초석식인데 비해 봉황동 119-1번지 유적의 고상건물은 초석식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적에서 확인된 목주와 초석시설은 봉황동 119-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고상건물과 구조가 유사하며 해안과 가까운 곳에 축조되어 가야의 해상교역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 유물은 토기 편이 수 점 출토되었다. 회청색경질과 회백색와질의 동체부 외면에 격자타날된 유물들인데, 대체로 호 편으로 추정된다. 김해지역에서 타날을 지우지 않는 정면기법은 주로 5세기대 고분 출토유물에서 확인되며 인접한 봉황동 119-1번지 유적에서도 동일한 정면기법을 보이는 옹이 출토된 바 있다. 따라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5세기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조사 성과를 감안하면, 유적은 과거 해안과 인접한 지점으로 봉황동 일대의 삼국시대 유적들과 대동소이함을 보이고 있으며 봉황동 119-1번지 유적의 범위에 속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6, 『김해 봉황동유적(김해 봉황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문화층 전경

목주

# 34 김해 회현동 13·14·15통 소방도로 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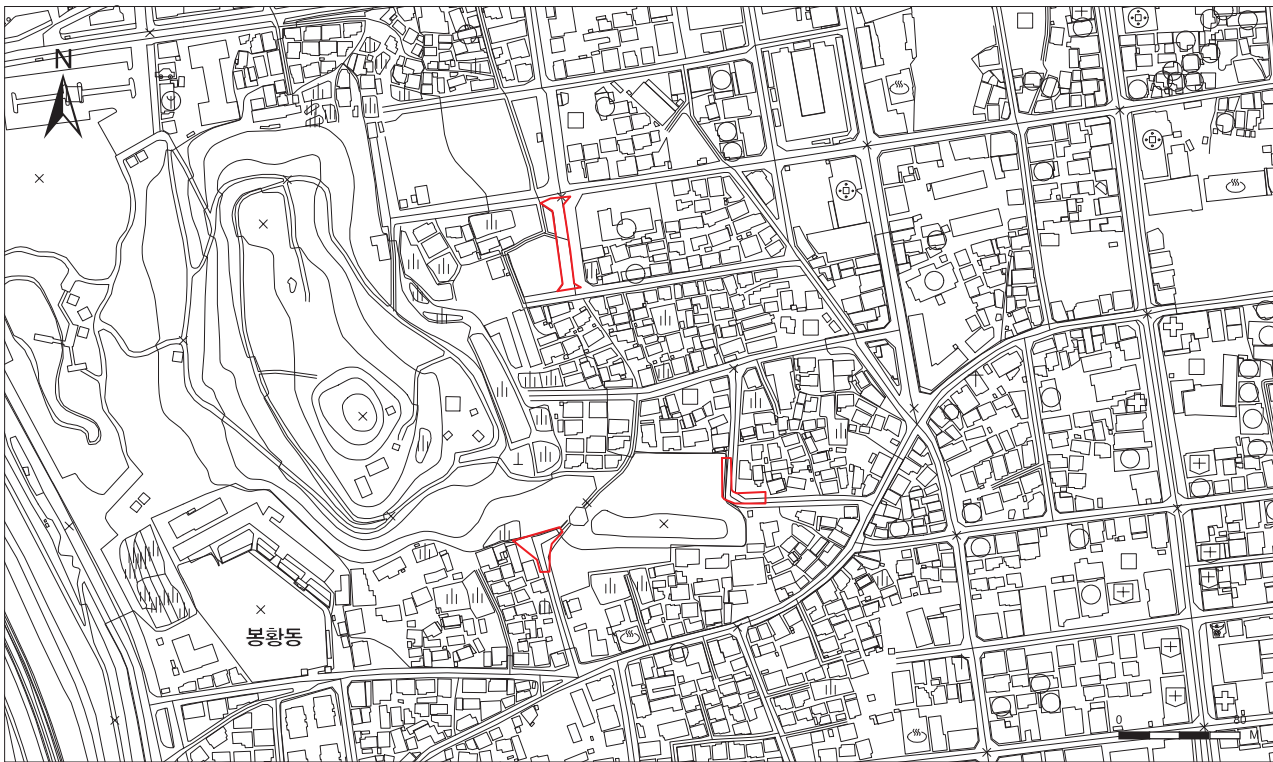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72–1·270·170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1.8.~2002.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구 / 개,
고배, 노형토기, 옹,
하지키계토기, 시루,
골각기

유적은 분산성과 임호산(해발 179m) 사이에 위치한 낮은 구릉인 봉황대 주변에 위치한다. 유적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추정되는 동쪽 구릉 사면 말단부인 회현동 13통 소방도로 구간과 남쪽 구릉 사면 말단부의 패총이 분포하는 지역인 회현동 14·15통 소방도로 구간에 해당한다.

유적에 대한 시·발굴조사 결과 13통에서는 삼국시대 문화층 3개소와 조선시대 문화층 1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유구는 삼국시대 주거지 4동, 수혈 66기, 주혈군 2개소, 구 1기, 토기군 1개소, 조선시대 수혈 14기, 주혈군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14통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문화층 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유구는 삼국시대 주거지 1동, 수혈 34기, 주혈군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15통 지역에서는 패총이 일부 확인되었다.

유구는 주거지와 수혈이 대표적인데, 13통 지역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 또는 말각방형이며 잔존규모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 주거지를 기준으로 길이 448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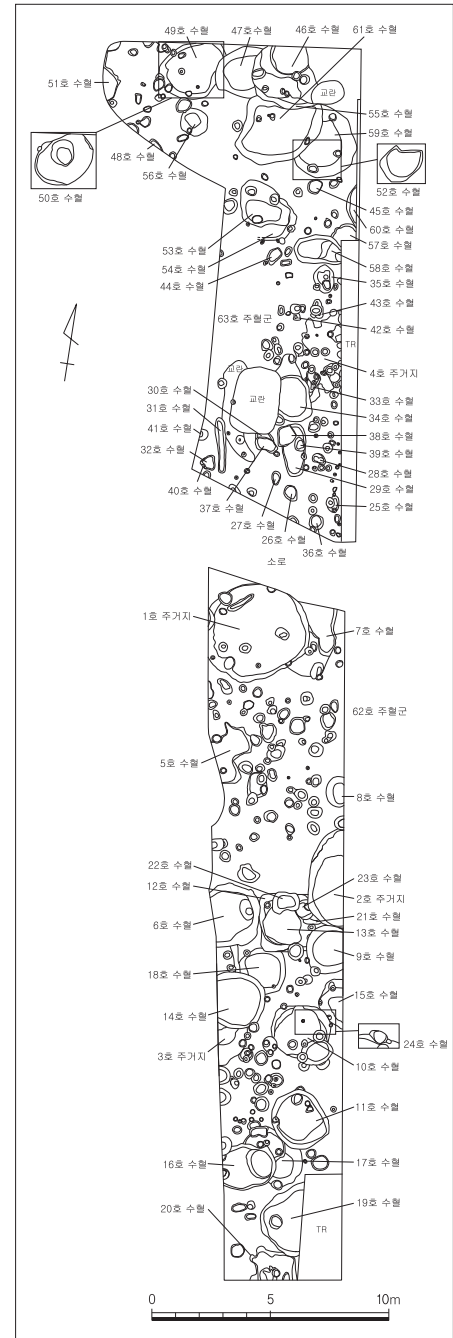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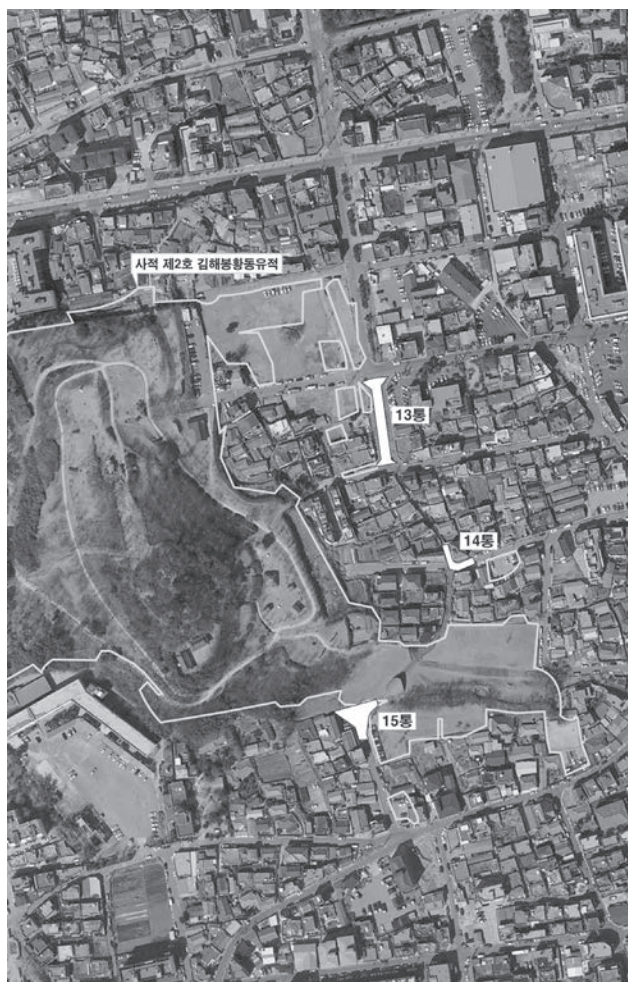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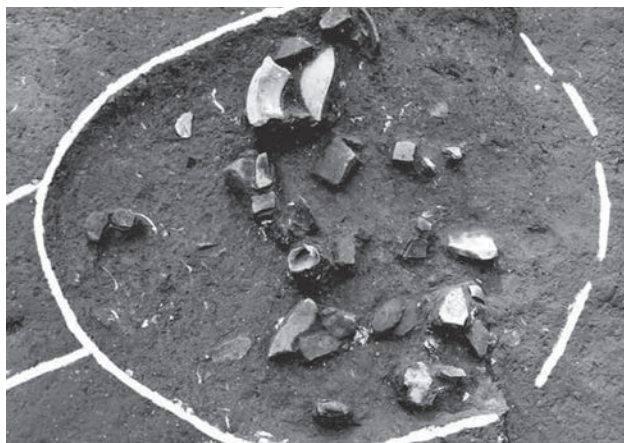
㎝, 너비 397㎝, 깊이 44㎝이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와 고래시설이 조사되었다. 아궁이는 점토를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중앙부분은 토기를 걸칠 수 있게 비워두어 조리시설로 이용하였으며 고래는 아궁이에 연결되어 아궁이를 통해 전달된 온기를 보존하여 주거지 내부를 난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인 단각고배, 완, 대각편, 동물뼈 등을 통해 볼 때, 대략 6~7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그리고 4호 지면식건물지는 건물지의 흔적이 대부분 파괴되어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바닥에서 점토로 정지하여 불다짐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14통 지역의 주거지는 11·12호 수혈과 중복되고 일부는 유적 외곽으로 연장되어 일부만 조사되었다. 잔존형태로 보아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판재 형태의 대형 목탄이 노출되었는데, 벽체나 지붕시설의 일부로 추정되며 벽면에는 아궁이와 연결된 시설로 추정되는 소토화된 점토가 확인된다. 수혈은 가장 많이 조사된 유구로 평면형태와 규모, 유물 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중복도 매우 심하다. 내부토는 부식토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소토·목탄·재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것, 소결된 소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 등 다양하다. 수혈의 정확한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조사성과를 감안하면 1회용이나 단기간에 사용한 후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대부분 토도류이며 대체로 트렌치 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잔 편으로 기종은 옹, 호, 개, 고배, 완, 기대, 파수부토기, 이형토기 및 토제품 등으로 이 중 옹류의 출토량이 가장 많다. 전반적인 시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중심시기는 5~6세기로 판단된다. 유적은 김해지역 삼국시대 자료의 확보에 그 의의가 있으며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13통 2층 유구 배치도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김해 회현동 소방도로 구간 내 유적 -13·14·15통-』.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김해 회현동 소방도로 구간 내 유적Ⅱ-13·14·15통-』.

유적 전경

14통 삼국시대 1층 15호 수혈

출토유물

## 35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76-2·
16·1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시굴 2005.4.~2005.5.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호안시설 / 노형
토기 편, 녹각제병도자

# 김해 봉황동 _ 176-2·16·17번지 유적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대유적의 남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는데, 남-북 방향으로 길고, 동-서 방향이 짧은 장방형의 평탄대지에 해당한다. 유적에 대한 문화재 조사의 방법이 시굴조사인 관계로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북쪽 부분의 지표에서 50㎝ 정도를 굴착하자 남쪽으로 경사지게 퇴적된 혼패토층이 바로 노출되었다.

트렌치의 층위는 표토층부터 시간순으로 1층~31층으로 구분되는데, 크게 5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토층인 1층, 고려시대층인 2층, 6~7세기대층인 3층~7층, 봉황대 패총의 붕적과 고 해반천의 동향에 의해 형성된 8층~24층, 패총에 해당되는 25~31층으로 대별된다. 이 중 25~31층은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대로 추정되고, 3세기대 노형토기 편들이 혼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3세기대층이 하부에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는 고려시대층에서 구 1기, 6~7세기대층에서는 다수의 수혈과 주혈, 5세기대 층

유적 위치도

에서는 호안시설, 4세기대 층에서는 패총이 확인되었다. 이 중 호안시설로 추정되는 유구는 가야인 생활 체험촌에서 확인된 석렬유구 2호의 상부시설 또는 그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토기류 위주로 각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3세기대 노형토기 편들이 다수 출토되기 때문에 하부에 3세기대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외에 녹각제병도자와 골촉, 다수의 동물뼈 등도 다량 노출되었다.

이상의 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주변유적과 시간적으로 동일한 유구의 유존이 확인되므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07, 『김해봉황동유적-176-2·16·17-』.

유적 전경

출토유물

# 36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77·240·260·284·442-5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시굴 2004.9.~2004.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소성유구 / 토기 편

유적은 행정구역상 김해시 봉황동 일대에 해당하며,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과 인접해 있다. 개발사업에 앞서 국가사적에 인접한 지역들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여부를 파악하고자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봉황동 240번지에서는 Ⅱ층에서 고려시대 이후의 시설로 추정되는 석렬과 회현리패총에서 흘러내려 재퇴적된 혼토패각층, 그 아래에서 계단상을 이루는 3단 내외의 석렬이 조사되었다. 석렬은 뻘층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호안석축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인접한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들에서도 동일한 유구가 노출된 바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260번지에서는 조선시대의 석축기단렬과 4~5세기대에 해당하는 수혈과 주혈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상층은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현 지표 하 0.3~1m 지점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문화층은 사질의 충적토 상에 입지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유적 위치도

수차례 중첩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문화층의 아래에는 삼한시대 유구가 큰 훼손 없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이전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84번지에서는 3~5세기대의 유물포함층과 동시기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Ⅳ·Ⅵ층에서는 제철로로 추정되는 평면형태 타원형의 소토유구와 철 산화물이 얇은 두께의 판상으로 용착된 소토유구가 확인되어, 이 일대에 제철과 관련된 시설의 유존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퇴적층이 1.5m 이상 계속되는 양상을 감안할 때, 비교적 장기간 제철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77번지에서는 인접한 유적들과 동일한 성격과 시기의 유구들이 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확인되었으며 유적은 구릉의 최말단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5,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유적 전경

출토유물

## 37

# 김해 봉황동유적 _ 229-1·4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29-1·4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성동고분박물관 /
2006.6.~2006.7.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부석유구 /
토기 편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 중 회현리패총이 입지하는 구릉의 남쪽 말단부에 인접한다. 단독주택 신축부지로서 문화재조사는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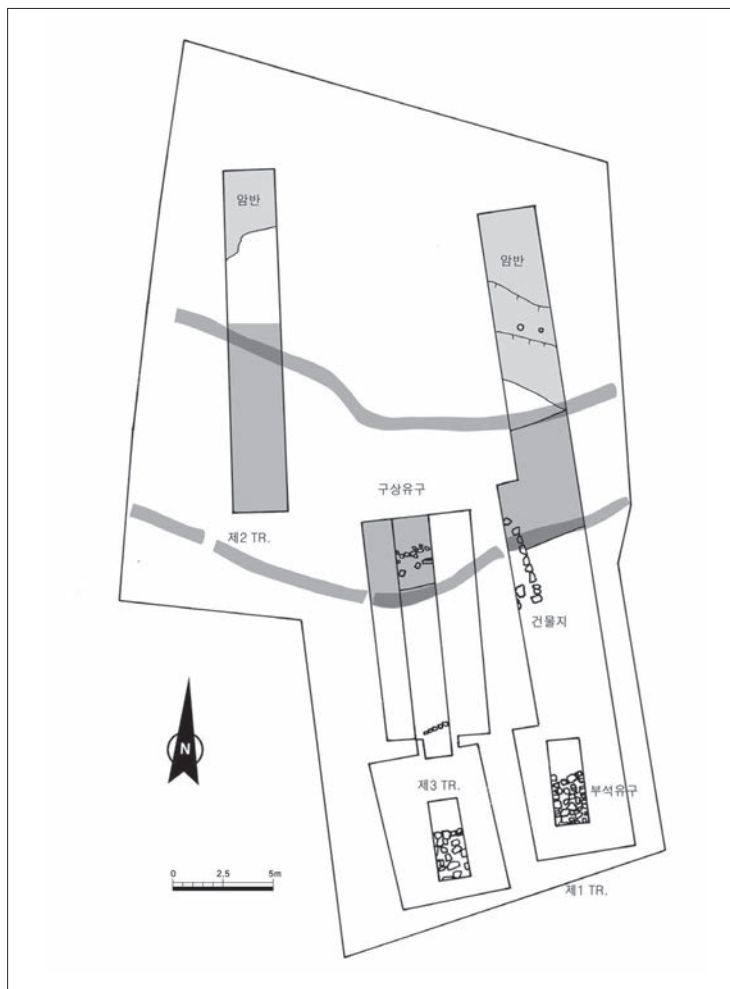
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3~4세기대로 추정되는 부석유구, 7세기대 전후의 패총, 고려시대 건물지 및 조선시대 석렬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패총과 부석유구로서 패총은 회현리패총과 인접해 있고, 부석유구는 유적 최남단에 위치한다.

패총의 중심은 2트렌치를 기준으로 서쪽에 집중되고, 동남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데, 확인된 패총의 두께는 3m 정도로 매우 두껍다. 패총의 시기는 각 층별로 특정시기의 유물이 집중되는 현상이 거의 없는 점과 각층에서 7세기대 전후의 토기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7세기대로 추정된다. 또한, 패총이 한 시기에 두껍게 쌓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라, 이 일대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석유구는 유적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조사된 할석의 상면은 해발 0.8~1.2m

유적 위치도

에 해당하고, 너비 2.5m 정도의 범위만 확인된다. 주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진행하는데,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부석유구와 비슷한 해발을 지닌 석렬유구들이 봉황대 구릉 주변에서 확인되는데, 형태에서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난다. 다른 유적의 석렬유구들은 1~3단의 할석들이 일렬로 돌려져 있지만, 본 유적의 부석유구는 할석을 일정한 면적에 맞춰 의도적으로 한 벌 깐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한편, 부석유구와 관련되는 이질퇴적층의 고환경분석 중 규조화석에 의하면, 이 층의 상부구간에서는 담수성 규조만 확인되고, 하부구간에서는 담수성 규조를 중심으로 소량의 기수성 규조가 수반된다. 즉 부석유구의 존재시기 전후의 유적은 해안과 매우 인접한 저습지 환경이었다가,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하천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질퇴적층 위로 하천 모래들이 조선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범람하였다는 점 등에서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지속된 저습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석유구 역시 다른 유적의 석렬유구들과 구조와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시설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성동고분박물관, 2008, 『김해 봉황동유적- 229-1·4번지 주택신축부지 -』.

트랜치 배치도

1트렌치 부석유구

1트랜치 건물지 및 토층 모습

# 38

# 김해 봉황동 40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00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시굴 2013.7.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고배 편

김해 봉황동 40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과 인접하고 있어 동일시기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추정된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는 관계로 유구의 유존을 확인하는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서 방향으로 1개소의 트렌치가 설치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유적의 층위는 표토층, 흑암갈색사질토(퇴적층), 암갈색사질점토(2문화층), 회황갈색사질점토(1문화층), 흑암갈색사질점토(퇴적층) 등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이 중 2문화층은 표토 아래 60~70㎝ 지점에서 확인되며 삼국시대 추정 주거지가 1동과 수혈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문화층 하부에서 1문화층이 확인되는데, 추정 주거지 2동과 주혈군이 노출되었다. 유물은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배 편, 호 편 등의 토기류와 가공된 목기류가 소량 출토되었다.

시굴조사의 한계로 인해 유적의 정확한 시기와 노출된 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봉황동 40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양상을 감안하면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 일대에서 확인되는 금관가야의 생활유적과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된다.

유구 배치도

2문화층 추정 주거지

1문화층 주혈군

## 39

# 김해 봉황동 126-12번지 단독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26-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화문물연구원 /
2017.4.

**주요 유구 / 유물**
목주열 / 없음

유적은 해반천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70m 정도 이격된 단독주택 건립예정부지로 최근까지 주택지로 사용된 곳이다. 지난 2017년 3월 두류문화연구원의 시굴조사 결과, 해발 약 2m 지점의 Ⅲ층은 분청사기 편이 확인된 조선시대 유물포함층, 해발 약 1m 지점의 Ⅳ층은 고려시대 기와 편이 확인된 고려시대 유물포함층, 해발 약 0.4m 지점의 Ⅵ층은 삼국시대 석렬 1기와 목주 2기가 확인된 삼국시대 문화층이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중세시대 목주열 1기, 삼국시대 목주열 및 집석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는 2개소의 pit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는데, 1pit의 남쪽 해발 0.87~1.4m 사이에서 직경 3~11㎝ 정도의 목주 16기로 이루어진 목주열 1기가 노출되었다. 목주열의 주축방향은 동-서 방향, 잔존길이는 246㎝, 목주 간 간격은 4~35㎝이다. 층위상 기준토층 Ⅶ·Ⅷ층에 해당하며 2pit의 동일층에서 고려시대 도기 편 및 조선시대 기와 편 등이 확

유적 위치도

인되어 목주열의 조성시기는 중세로 추정된다. 그 하부의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해발 0.17~0.4m 사이에서 직경 6~31㎝ 정도의 목주 8기와 집석이 노출되었다. ①~④번 목주는 직경이 16~31㎝로 ⑤~⑧번 목주에 비해 직경이 크고,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장축방향이 남-북방향으로 길이 75㎝, 너비 22㎝ 정도인 직사각형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목주 주변에서 노출된 집석들은 목주 주위를 둘러싸는 듯한 형태로 확인되어 목주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pit의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해발 0.3m 지점에서 집석이 노출되었으며, 1pit에서 조사된 집석들과 규모와 형태가 유사해 동일한 성격의 집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목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동일시기의 유적들과 비교검토하면 삼국시대 목주는 해안지역에 설치한 선박 또는 항구와 관련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화문물연구원, 2017.4, 「김해 봉황동(126-12번지) 단독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 40

# 김해 봉황동 295-18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95-18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6.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개, 고배, 대호

유적은 분성산(해발 382m) 남쪽 사면에 해당하며, 서쪽은 분성산에서 발원한 해반천이 김해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고,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제2호)의 동쪽에 위치한다. 발굴조사에 앞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조선시대의 문화층 및 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적과 인접한 지역에는 김해 봉황대유적(사적 제2호) 등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읍성,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 2기와 주혈이 조사되었으며 고배 편, 구연부 편, 대각 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12개 층으로 세분되나, 크게 5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층부터 현대 교란층-삼국~조선시대 자연퇴적층-삼국시대 문화층-삼국시대 기반정지층-삼국시대 자연퇴적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삼국시대 수혈은 해발 6.5m 선상에 해당하는 유적 중앙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유적 위치도

후축인 1호 수혈에 의해 2호 수혈의 북쪽부분이 일부 파괴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약 204~245㎝, 너비 110~210㎝, 깊이 24~38㎝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상이다.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배 편, 개 편, 대호 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혈은 3기가 확인되었으며, 해발 6.5m 선상에 해당하는 유적 중앙부에 위치한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너비 약 20㎝, 깊이 약 20㎝이다. 주혈은 단면 'U'자상으로 굴착하였으며, 내부토는 수혈과 동일하다.

이상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과 연관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6, 「김해 봉황동(295-18) 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2호 수혈

출토유물

41

# 김해 봉황동 30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0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7.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노형토기, 고배,
기대

유적의 북서쪽에 자리한 분성산(해발 382m)의 서쪽 구릉 사면이 김해 시가지 방향으로 뻗어 구지봉을 거쳐 대성동고분군과 봉황대유적까지 이어지고, 동쪽과 서쪽은 각각 수로왕릉과 해반천의 배후습지로 연결된다. 또한, 삼계에서 발원한 해반천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충적지를 형성하고, 분성산에서 발원한 호계천 및 금강천 등의 소하천이 북동에서 남으로 흐르며 서상동·동상동·대성동·봉황동 일대의 수계를 이룬다. 유적은 봉황대유적 구릉의 동쪽 사면 말단부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다수의 삼국시대 유적들이 조사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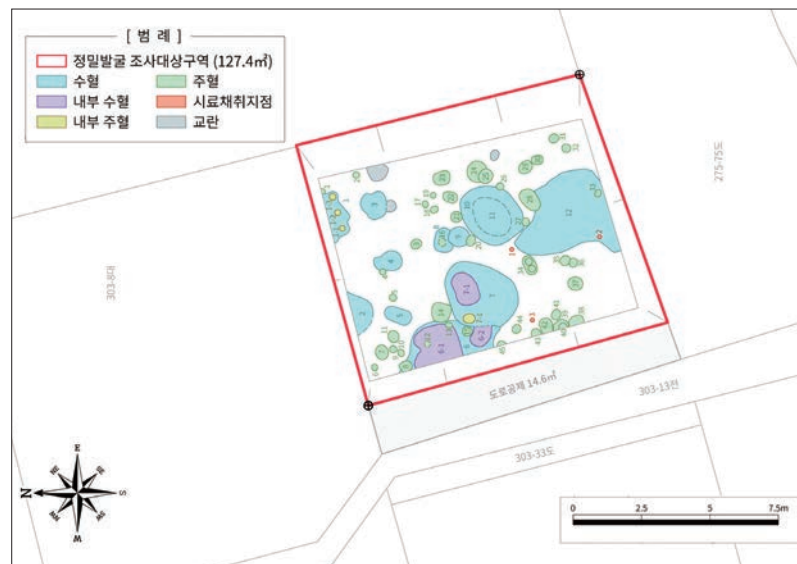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토층퇴적양상은 총 5개의 층이 확인되었는데, 현대 복토층(Ⅰ층)→삼국~조선시대 퇴적층(Ⅱ층)→삼국시대 1문화층(Ⅲ층)→하천범람층(Ⅳ층)→삼국시대 2문화층(Ⅴ층, 발굴조사 시 Test Pit에서 확인) 순으로 구분된다. Ⅰ층은 현대 복토층으로 표토를 포함하여 30~50㎝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생활쓰레기가 확인되며,

유적 위치도

조사 직전까지 상면을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었다. Ⅱ층은 삼국~조선시대 퇴적층으로 약 40~80㎝의 두께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 삼국시대 토기 편, 조선시대 자기 편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Ⅲ층은 삼국시대 1문화층으로 약 50~60㎝ 두께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이 출토되고, 목탄과 소토, 점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목탄이나 소토는 대상帶狀이나 소형의 block으로 관찰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하천범람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토 및 실트층의 일부 낮은 지점의 요철을 보완하여 성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삼국시대 1문화층의 상면에서 수혈과 주혈 등의 유구가 설치되었다. Ⅳ층은 하천범람층으로 약 10㎝ 두께로 퇴적되었으며, 범람시 퇴적된 모래 및 실트로 형성되어 있다. 하천범람층은 하부의 Ⅴ층(삼국시대 2문화층)과 Ⅲ층 사이의 간층으로 확인되는데, 본래 Ⅴ층이 형성된 상태에서 범람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면에 유구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Ⅴ층은 삼국시대 2문화층으로 발굴조사시 피트에서 노출되었다. 약 60~70㎝ 두께로 퇴적되었으며 내부에 목탄과 소토, 점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층위양상을 감안하여 유구가 설치된 삼국시대 1문화층에 대한 조사결과, 삼국시대의 수혈 12기, 주혈 45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타원형 또는 부정형이며, 내부 시설로는 내부 수혈 및 주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부에 지석 등의 유물이 확인되어 작업공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목탄 및 소토가 인위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아 최초 용도가 끝난 이후 폐기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옹, 파수 편, 기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혈은 평면형태가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과 'V'자형으로 나타난다. 일부 주혈의 경우 목주흔이 잔존하며, 평면상에서 고상건물지 등의 배치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혈은 수혈에 비해 대부분 후축되었으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약 5~6세기대의 것으로 시기차이는 거의 없었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7.3, 「경남 김해 봉황동 30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유구 배치도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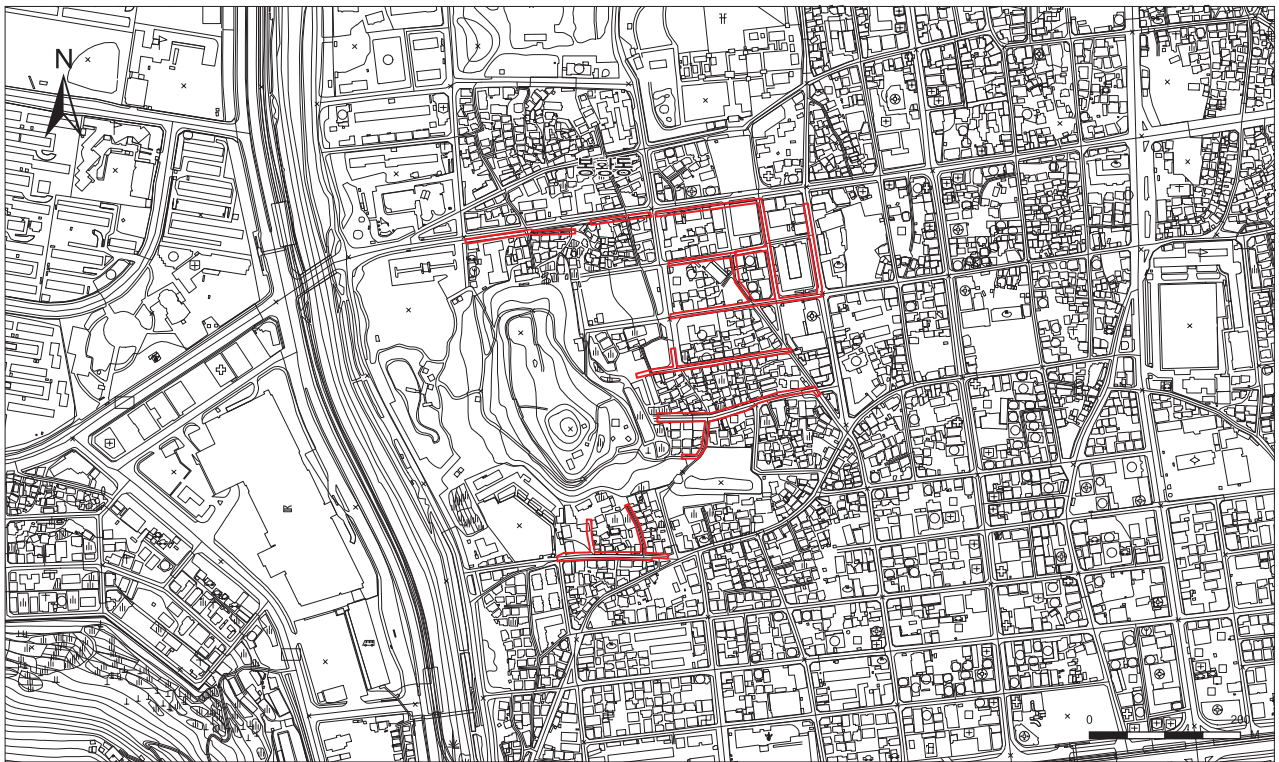
#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서상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차 2013.1.~2013.4.
2차 2014.8.~2014.9.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노형토기, 개, 고배, 옹, 기대

유적은 사적 제2호인 봉황동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경운산(해발 378.7m)이 남-북향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남서쪽에 위치한 임호산(해발 177.9m)에서 동-서 방향으로 국부적인 변화를 보이고, 동쪽으로는 상동면과 경계를 이루는 나밭고개로부터 영운리고개-분성산으로 이어지는 북-북서향의 산계를 형성하다 말단부에서 봉황동유적으로 이어진다. 지형조건은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산지가 둘러싸고, 남쪽으로는 개방된 소규모 분지상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나밭고개에서 발원한 해반천은 유적의 서쪽에서 남-북향으로 흐르는데, 하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며 깔때기 모양의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시킨다. 전반적으로 해발 5m 내외로서 봉황동유적과 근접한 서쪽 구간은 저평한 사면부를 이루고, 동쪽 구간은 고 김해만 당시 해반천의 범람원 영역에 포함된 충적저지대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라인별로 이루어졌으며, 1차와 2차로 대별된다. 면

유적 위치도

1호 석열

2호 석열

저 1차 조사에서는 지대가 높고 원지형이 부분적으로 잔존하는 3개 라인의 2개 문화층에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하층에 해당하는 1문화층은 해발 6.7~7.1m 선상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3동·수혈 1기·주혈군 3개소가 조사되었고, 상층인 2문화층은 해발 5.7~7.7m 선상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6동·수혈 6기·주혈군 4개소·석열 3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기 조사된 봉황토성의 내측에 해당하는 해발 6.5~11m 선상의 비교적 지대가 높고 원지형이 잔존하는 5개 라인에서 삼국시대 수혈 18기, 주혈과 조선시대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유구는 대체로 주거지와 수혈, 주혈 등의 생활유구이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회현동 소방도로구간 내 유적에서도 동일한 시기와 성격의 유구가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들도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유구들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출토유물을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성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5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적은 봉황대 구릉의 영향을 받는 해발 6.5m 이상에서는 다수의 생활유구가 분포하는 반면, 그 외측은 고 김해만 및 해반천의 영향으로 형성된 뻘 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다. 또한, 기 보고된 봉황토성 추정선 내측으로는 봉황대 구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간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봉황토성 외측은 기수역으로서 선박의 입·출항에 유리한 환경을 보인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5,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Ⅱ』.

# 43 김해 봉황동 380-24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80-24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3.12.~2004.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개, 고배

유적은 사적 제2호인 봉황대유적의 동쪽에 위치하며, 도로와 주택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협소한 면적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 21기, 조선시대 수혈 1기와 다수의 주혈이 조사되었다. 제한된 면적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봉황대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삼국시대 유적과 동일한 성격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먼저, 유적의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된다. Ⅰ층은 암갈색부식토의 표토층, Ⅱ층은 석비레와 부식토, 쓰레기가 섞여 있는 복토층, Ⅲ층은 삼국시대 수혈과 주혈 및 후축된 조선시대 수혈이 조성된 문화층이며 Ⅳ층은 삼국시대 문화층 하층에 해당하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층위만 확인하였다.

삼국시대 수혈은 형태와 구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1유형은 수혈의 바닥을 황갈색점토로 다진 형태이다. 이때 점토는 사질성이 강한 흙과 갈대와 같은 초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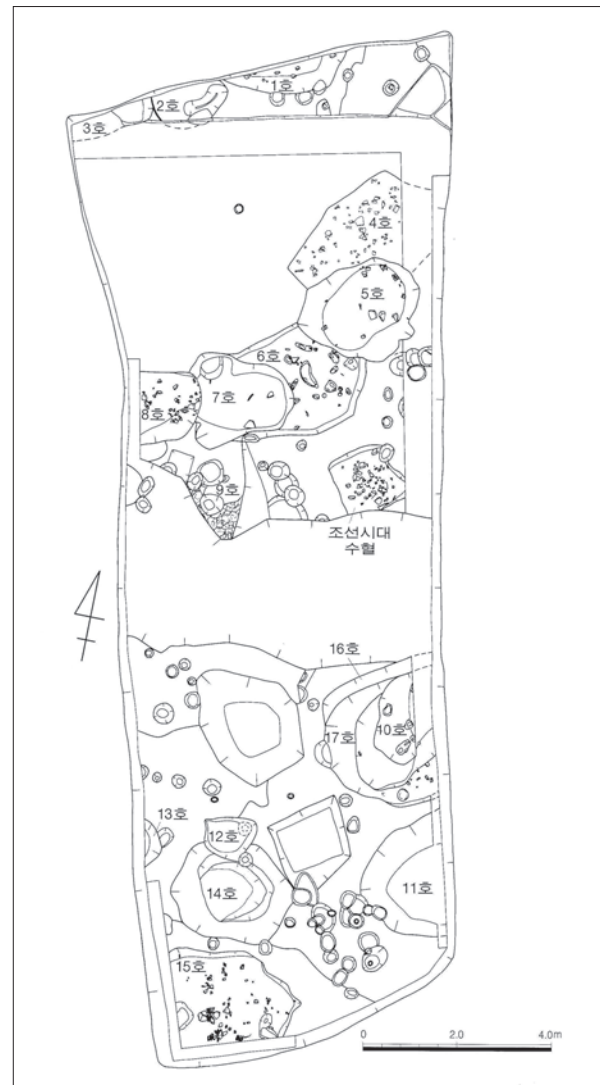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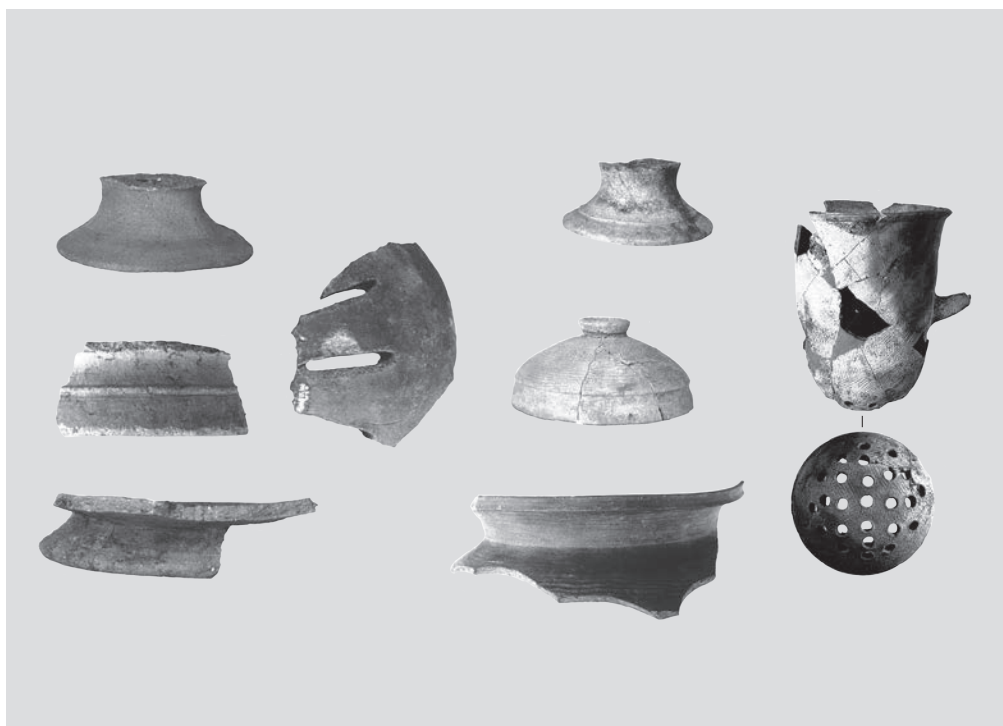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를 섞기도 하였다. 유물의 출토위치가 점토의 상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층이 바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점토의 두께는 2호 수혈의 경우 5㎝ 정도이며 바닥에 주혈 등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부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주혈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유형은 수혈만 확인되고, 내부시설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유형이다. 다른 수혈에서 확인되는 토기 및 유기물질의 폐기흔적도 관찰되지 않는다. 퇴적토의 매몰 상태도 자연적인 매몰 과정을 거친 완만한 'U'자상을 보이며 매몰토가 사질이 강하여 다른 수혈과는 차이가 있다. 3유형은 2유형과 같이 바닥시설 및 주혈 등은 없다. 그러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으며 바닥 가까이에서 다량의 파손된 토기 편과 패각, 소토, 유기물질의 부식으로 추정되는 점토가 확인되고 있어 폐기장으로 판단된다. 특히 점토가 상당한 두께를 보이는 점과 부식이 심한 점 등을 보아 유기물질의 폐기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의 폐기는 폐기된 수혈의 매몰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수혈의 자연적인 매몰과정 중 일어난 인위적인 폐기와 매몰의 증거는 토층상에서도 유기물질의 부식으로 보이는 회색점토로 추정된다. 한편 폐기된 수혈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자연 매몰 과정에서 그 상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소토 및 목탄의 흔적으로 볼 때, 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6·14호 수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시기는 대체로 5~6세기대로 추정되며 수혈 상호 간의 중복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유물의 상대편년에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하부에 3~4세기대 문화층이 유존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유구 배치도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김해 봉황동 380-24번지 유적』.

유적 전경

출토유물

# 44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08-2·10·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2001.5.~2001.7.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토기 편

유적은 사적 제2호인 봉황동유적이 위치한 구릉 사면의 최북단에 해당하며, 최근에 보고된 김해 봉황동 442-7유적에서 남쪽으로 불과 약 13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시굴조사는 408-2·10·11이며, 시굴조사지역 서편의 저습지 부분을 확장조사한 곳이 408-2, 발굴조사한 곳이 408-10·11에 해당된다.

시굴 및 발굴조사 결과, 저습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습지는 유수의 작용에 의해 니탄층과 사질층이 교대로 퇴적되어 있었는데, 최하층에서는 'Y'자상의 말목열이 확인되었다. 노출된 말목열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말목열 위에 잔목이나 나뭇가지들이 다량 노출되는 양상을 감안하면 인위적으로 깔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저습지와 접해 있는 지역의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 지반이 무른 저습지에 촘촘히 말목을 박고, 그 상부에 잔가지 등을 깔아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 후 매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저습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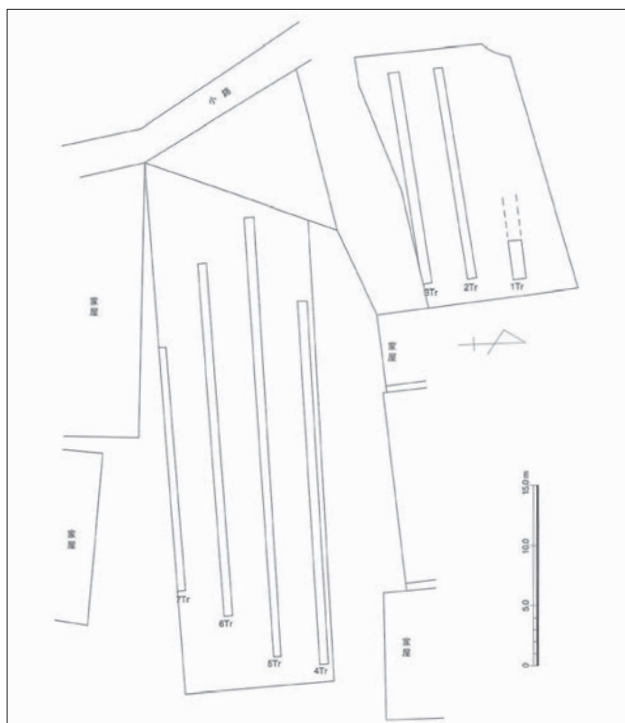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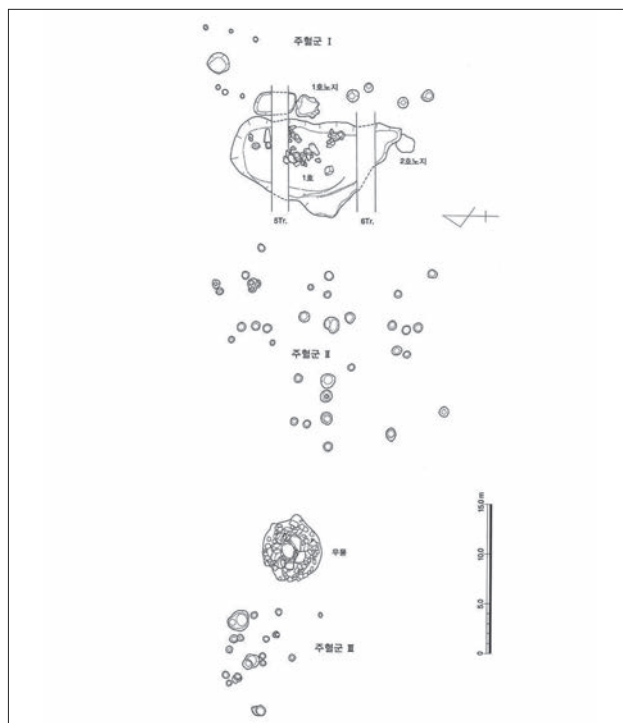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과정에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주목되었다. 4면 모두에 묵서되어 있는데, 논어가 수록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물로 그 중요성이 높다. 목간의 연대는 동일 층위에서 출토된 토기를 통해 볼 때, 6~7세기대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로 추정되는 부정형 수혈 1기, 주혈, 우물, 노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수혈은 5, 6트렌치 사이에서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노출된 집석이 온돌이나 부뚜막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수혈과 주혈, 그 상층부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실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경질토기류가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은 금관가야 해체 이후 조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김해지역의 경우 규모의 차에 상관없이 본 유적과 동일한 시기와 성격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2007,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트렌치 배치도

유구 배치도

시굴확장부 1pit 말목열

1호 수혈

# 45 김해 봉황동 412-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12-4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5.2.~2015.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없음

유적은 김해시 봉황동 일대의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며, 인접하여 다수의 삼국시대 유적들이 조사된 바 있다.

발굴조사 결과, 3개의 문화층에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수혈 11기, 구 1, 주혈 등이 조사되었고,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수혈 13기, 구 1기, 주혈,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적심 1기, 우물 1기, 수혈 1기,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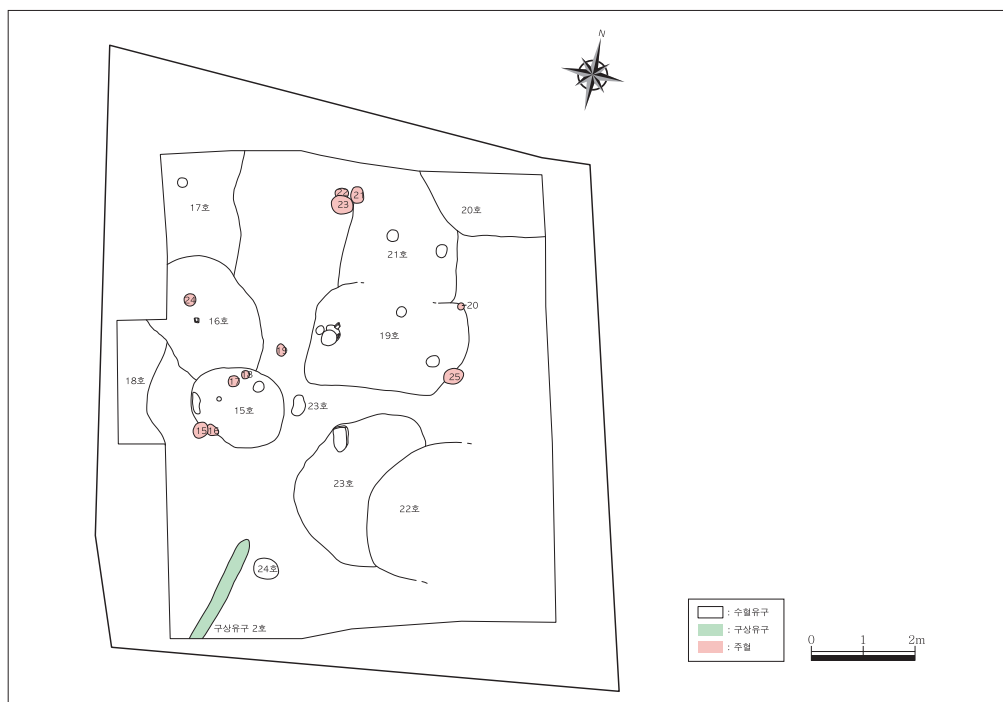
삼국시대 문화층은 표토 아래 1.3m 정도인 해발 4.6m 선상에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된 수혈은 대부분 규모가 2~3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원형, 타원형 등이다. 주변으로 주혈도 다수 확인되는데, 정형성은 간취되지 않는다. 또한, 수혈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도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유물 중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잔 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유적에서는 각 층위별로 유구 및 유물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5, 「김해 봉황동 412-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등 직접적인 생활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혈이 다수 조성되어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시기적으로 김해 봉황동유적(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등과 같은 생활유적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이다.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 46 김해 봉황동 413-4번지 일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1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6.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호, 철겸,
철촉

유적은 지형적으로 사적 제2호인 봉황대유적이 입지한 구릉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 말단부에서 해당한다. 조사 이전까지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개발로 인해 일부 지역은 훼손되었다. 유적 북쪽으로 봉황동 442-8번지 유적, 남서쪽으로 봉황동 소방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김해고읍성 등 삼국시대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적심건물지 2동과 집수시설 1기가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수혈 3기와 구 1기, 소성유구 1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7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근·현대 복토 및 경작층-자연퇴적층-조선시대 문화층-자연퇴적층-삼국시대 문화층-자연퇴적층-기반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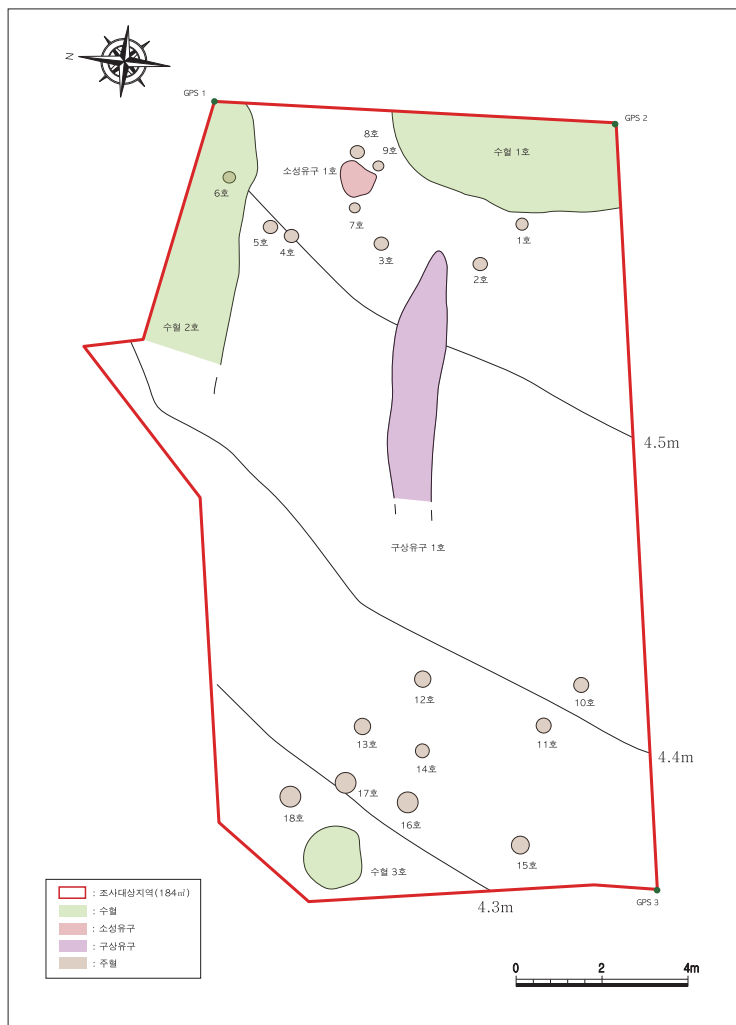
삼국시대 1호 수혈은 동쪽 경계부분에서 노출되었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400㎝, 너비

유적 위치도

220㎝, 깊이 20㎝ 정도이며,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부만 조사되었다. 내부에서는 연질토기 편과 경질토기 편, 도자,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2호 수혈은 북쪽 조사경계에 맞물려 노출되었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480㎝, 너비 100㎝ 정도이다. 1호 수혈과 동일하게 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3호 수혈은 서쪽 조사경계에 위치하는데, 내부에 할석이 일부 노출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직경 100㎝, 깊이 60㎝ 정도이다. 소성유구는 바닥에서 피열흔과 목탄, 소토 등이 노출되어 야외노지로 추정된다. 구는 동-서 방향으로 진행하며, 잔존규모는 길이 370㎝, 너비 80㎝, 깊이는 30㎝ 정도이다. 주혈은 배치양상을 통해 볼 때,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되어 4~5기가 노출되었는데, 직경은 30㎝, 깊이는 20㎝ 정도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유적은 사적 제2호인 김해 봉황동유적과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봉황동 413-4번지 일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시굴 및 정밀발굴)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1호 수혈

출토유물

47

# 김해 봉황동유적 _ 김해 한옥생활체험관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23-2 일대

**조사기관/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4.12.~2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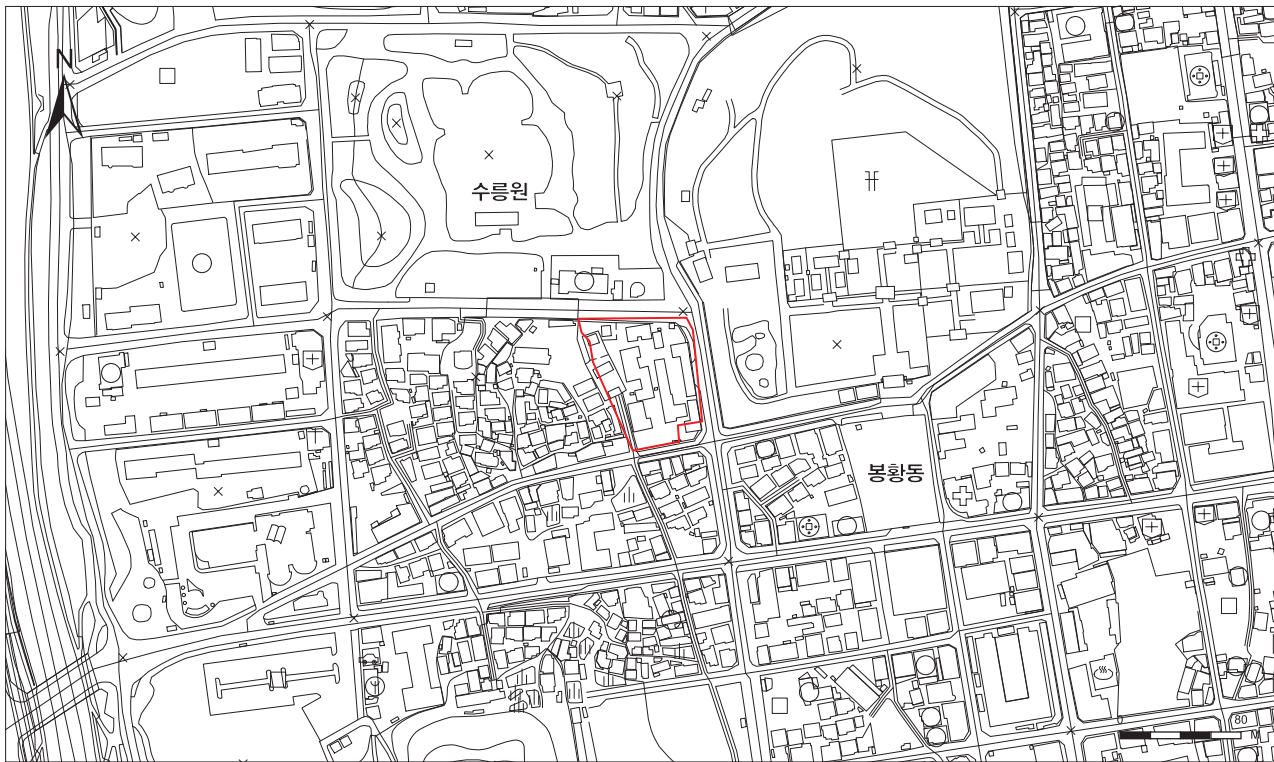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노형토기, 개, 고배, 옹, 기대

유적은 수로왕릉의 서쪽편에 인접하며, 북쪽으로는 금관가야의 수장층 고분군으로 알려진 대성동고분군, 남쪽으로는 금관가야의 생활유적인 봉황대유적 사이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과거부터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예상되었던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유구 조성층은 시대별로 크게 고려~조선시대 유구 조성층과 삼국시대 유구 조성층의 2개 층이 확인되었으며, 각 층에서 조사된 유구는 고려~조선시대 유구조성층에서 주거지 6동, 각종 건물지 11동, 석조 등의 노지 6기, 우물 5기, 수혈 12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유구 조성층에서는 주거지 2동, 적심석 및 지상식건물지 3동, 토기제작용 작업공방 및 기타 수혈 22기, 가마 2기, 석곽묘 1기, 점토채취장 1기와 제방 1기 및 저습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유적의 삼국시대에는 점토채취장, 가마, 토기제작과 관련된 수혈 등이 조사되어 토기제작과 관련한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

유적 위치도

된다. 또한, 유적의 남쪽 경계에서는 대규모 제방이 유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방의 내측에 형성되어 있는 저습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토제 및 목제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대성동고분군과 같은 수장층의 묘역과 봉황동유적 일대에 해당하는 주거영역의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유적은 다양한 생산관련 시설들이 조사됨에 따라 금관가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한옥생활체험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유구 배치도

68호 제방·70호 저습지

공방지 관련 유구군

# 48 김해 봉황동 442-7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42-7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99.6.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목곽묘 / 개,
단경호, 부가구연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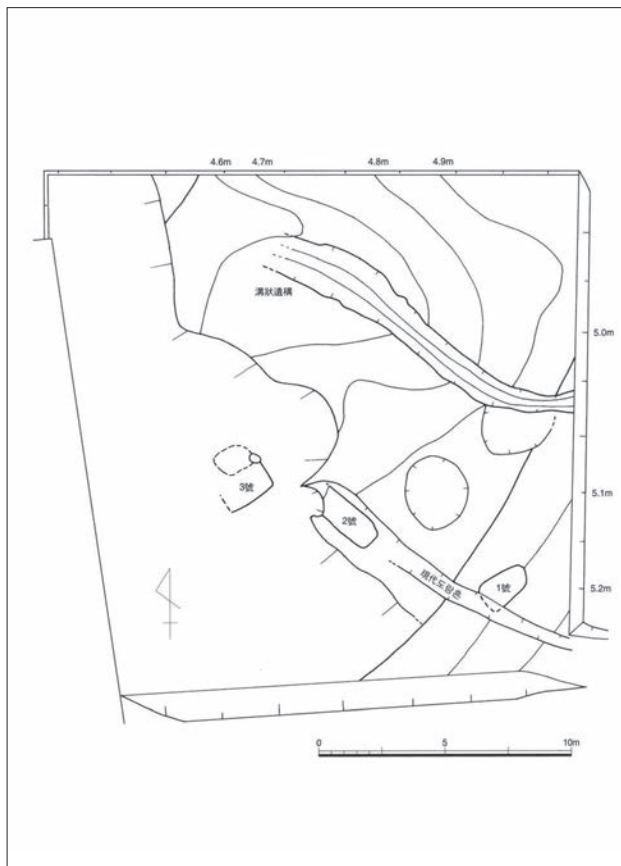
유적은 사적 제2호인 봉황대유적이 위치한 구릉 사면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북쪽에 인접하여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하며, 동쪽으로 약 300m 이격되어 수로왕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김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중에도 엄청난 분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주민들의 전언도 있을 정도로 동일 유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동, 목곽묘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분묘 1기, 단경호 1점이 출토된 분묘 추정유구 1기와 조선시대 구가 조사되었다. 택지조성을 위한 삭평과 교란이 심해 정확한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유구 중 목곽묘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분묘에서는 비교적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부가구연장경호, 개, 단각고배 등을 통해 볼 때, 6세기 후반대로 추정된다. 또한, 삼국시대 주거지의 경우에도 출토유물을 감안하면 6세기 후반대로 추정되어 본 유적은 6세기 이후의 주거지와 분묘 등이

유적 위치도

조성된 유적으로 판단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이 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구의 설치 및 전반적인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 일대에서 와질토기 편들이 수습되는 양상을 감안하면, 대성동고분군과 봉황동유적 사이의 평탄부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야 문화권 조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김해시에서 대성동 공설운동장 일대의 조사를 의뢰하여, 경남고고학연구소와 동아문화연구원에 의해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목관묘, 옹관묘, 석곽묘, 석실묘 등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어 유적이 위하는 지역 일대에 당시의 유적이 분포함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2006, 『김해 봉황동 442-7번지유적』.

유구 배치도

2호묘

2호묘 유물 출토모습

49

# 김해 부원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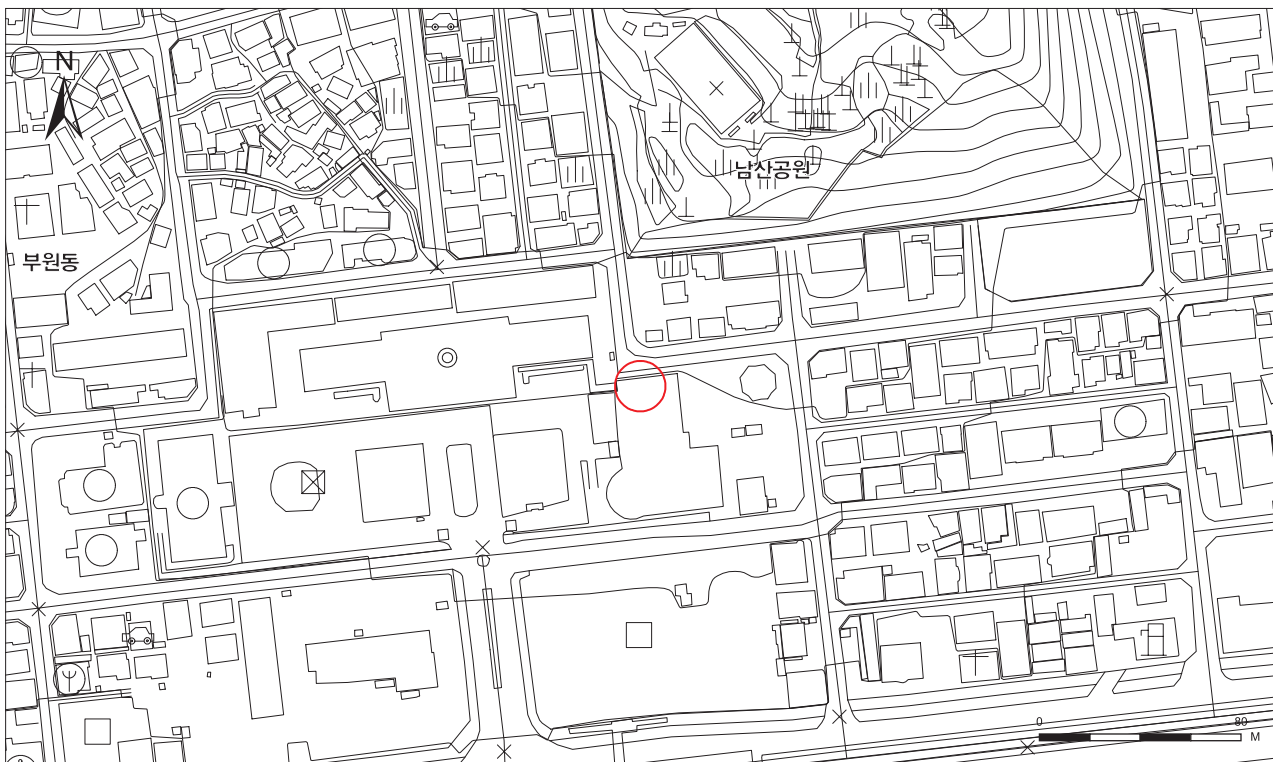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36·643·68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80.4.~1980.7.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주거지, 석관묘, 토광묘 / 개, 고배, 단경호, 장경호, 광구소호, 소형기대, 기대, 장동옹, 시루, 옹, 발, 토우, 골각기

유적은 김해 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남산을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 사면에 각각 위치하며, 과거에는 부원동패총 또는 남산패총이라 불렸던 지역이다. 부산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의 김해분기점 입구가 위치한 지역으로 1920년에 발굴조사된 회현리 패총과는 동쪽으로 1㎞ 정도 이격되어 있다.

발굴조사는 패총지역과 무문토기 산포지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였는데, 남산 서쪽 기슭의 조개무지지역(A지구), 동쪽 삼정동과 경계하고 있는 조개무지지역(B지구), 그리고 동쪽의 무문토기 산포지역(C지구)으로 구분된다.

먼저, A지구의 패총은 구릉 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는데, 생토층 위에 다섯층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각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은 서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종류는 대체로 동일하며 토기, 철기, 골각기, 석기, 탄화곡물 등이다. 그리고 패총 기저부에서는 주거지 3동과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패총과는 떨어진 위치의 기반

유적 위치도

층에서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3동 모두 패총 최하층인 제Ⅴ층의 부식토층을 이용하였으며, 평면형태상 원형과 방형의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종과 기형상 특별한 것이 없으나, 1호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대략적인 시기를 보여준다. 분묘는 3기가 노출되었으나, 그 형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기 뿐이며, 석관묘에서는 호와 발이 출토되었고, 토광묘에서는 적갈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A지구의 전반적인 조성시기는 삼한에서 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3~4세기경에 해당된다고 추정된다.

B지구는 남산 동쪽 기슭의 약간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패총은 길이 40m, 너비 4m, 높이 1.5m 규모로 황갈색기반층 상부에서 5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특별한 생활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토기·골각기·석기·탄화곡물 등이 출토되었다.

C지구는 B지구에 인접한 경작지 일대으로 평면형태가 원형인 주거지 3동과 구가 조사되었으며 상부 퇴적층에서는 토기, 철기, 골각기, 석기, 탄화곡물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3동은 중앙에 위치한 단면 'V'자형의 구를 중심으로 그 좌측에는 제1호와 2호, 우측에는 제3호 주거지가 각각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남서쪽에 취사시설을 두고 실내에 배수구를 배치하는 형태이다. 한편, 출토유물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특징이 B지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C지구에 거주한 사람들이 B지구의 패총과 퇴적층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A지구 유구 배치도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부원동유적』.

이상과 같이 유적은 김해의 충적평야가 바라보이는 언덕 기슭에 조성된 패총과 주거유적으로, 금관가야가 성립된 삼한시대부터 중흥기에 이르기까지 거주한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A지구 주혈

A지구 원형 주거지

출토유물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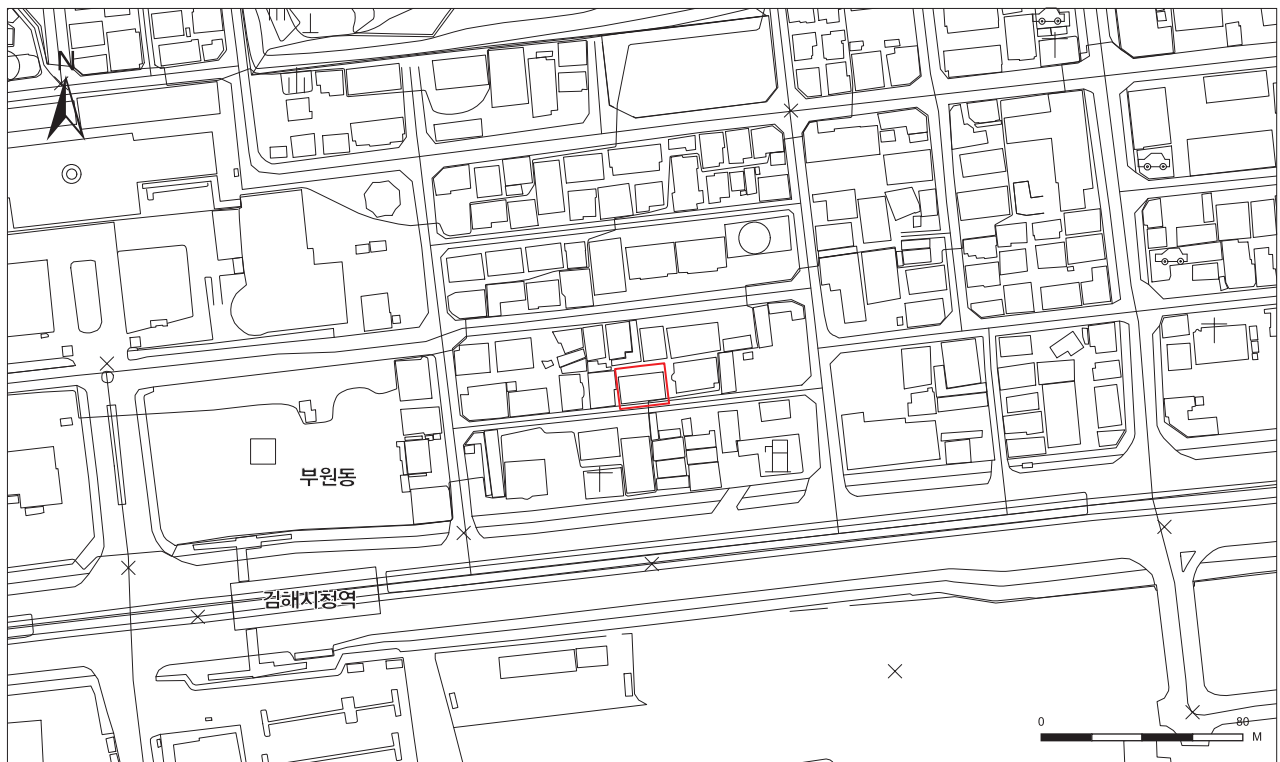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6-1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2011.11.~2011.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 고배, 옹

# 김해 부원동 626-1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은 분성산(해발 382m)에서 뻗어 내린 지맥인 남산(해발 105.2m)의 남쪽 말단부와 원래는 바다였으나, 일제시대 이후 간척사업에 의해 경작지로 변한 김해평야로 이어지는 충적 저지대의 경계 변환점에 입지한다. 김해지역의 해발 5m 이하 지역은 과거 고 김해만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곳으로 본 유적 또한 고 김해만과 연접한 배후습지성 소택지상에 조성되었다. 유적의 북쪽에 위치한 남산의 능선상에는 삼한~삼국시대 생활유적인 부원동유적(동아대학교박물관)이 위치하고, 분성산 정상부에는 분산성이 축조되어 있으며 산성에서 관망되는 분성산과 해반천 사이의 범람원에는 다수의 금관가야 유적들이 밀집분포하고 있어, 유적을 포함한 주변일대는 당시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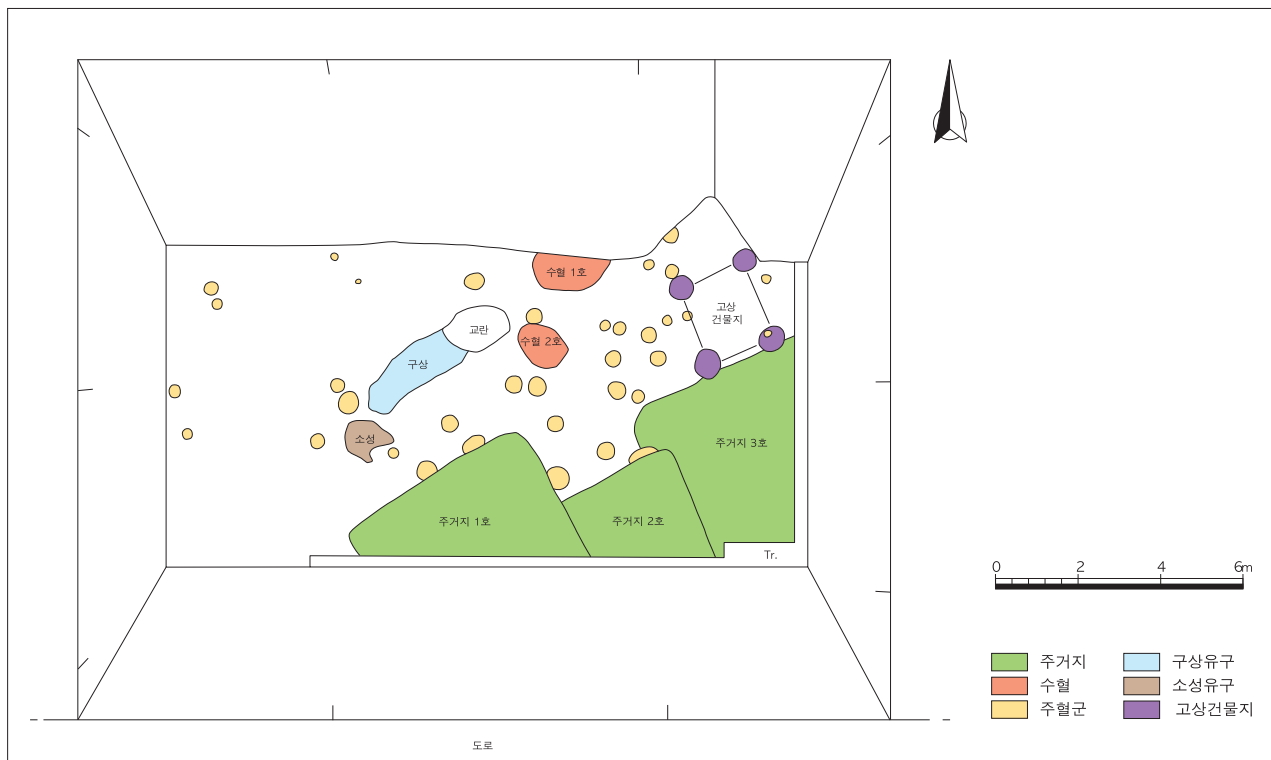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3동, 고상건물 1동, 소성유구 1기, 구 1기, 수혈 2기 등과 함께 외절구연고배, 장동옹, 하지키계土師器系 파수부옹, 방추차 등의 유물도 소량 출토되었다. 먼저, 유적의 층위는 크게 북쪽의 구릉으로부터 흘러내린 갈색점사질토와 암갈색사질토

유적 위치도

로 이루어진 붕적층, 그 하부에 고려~조선 전기 범람층 아래에 모래와 실트가 포함된 하성퇴적층, 소토와 유물, 유기물 등이 소량 포함된 퇴적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층은 하부의 퇴적층에 해당된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정연하지는 않으나, 3동 모두 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 중 노시설은 1호 주거지에서 부뚜막, 3호 주거지에서는 구들이 확인되며, 3동의 주거지 모두 정형성이 없는 부정형의 피열흔이 관찰된다. 노시설은 대체로 점토를 이용하였으며 주거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는데, 배연 등을 위해 지대가 높은 지점에 연접하게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 배치는 1호 주거지의 경우 벽주혈은 일정하지 않지만, 20~40㎝ 정도의 간격으로 네 벽에 설치되고, 중심 주혈은 벽에서 50~80㎝ 정도 이격된 지점에 대략 180㎝ 정도 간격으로 4주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성과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생활유구가 중심인 유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분성산은 겨울의 계절풍을 막아주고,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자재나 식량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성산에서 발원한 해반천이 인접하고 있어 식수확보가 용이하고, 남쪽으로 고 김해만이 위치하며 식량공급 및 교통 등이 편리하여 당시의 취락이 입지하기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시기는 4세기대로 판단된다.

김해 부원동 626-10번지 유적은 김해지역의 삼국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취락의 구조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부원동과 봉황동 일대을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의 생활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13, 『김해 부원동 626-1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김해부원동626-10 번지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51

# 김해 대성동 85-8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85-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5.7.~2015.8.

**주요 유구 / 유물**
구 / 경질토기 편

유적은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 입구 맞은편에서 대성동고분군으로 이어지는 구지로 112번길 동쪽에 접하고 있다. 주택밀집지역으로 유적 역시 조사 이전에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조사 직전에 철거되었다. 지형적으로 서쪽으로는 해반천을 두고, 동쪽의 분성산(해발 382m)에서 저지대로 이어지는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북쪽의 구지봉과 남서쪽 인근에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하는 소구릉 사이에 유적이 위치하는데, 이는 구릉 사이의 충적대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지는 교통망과 수계가 발달한 지역으로 배후의 안정적인 지역과 연계성이 좋은 지역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환호와 삼국시대 구 4기, 고려~조선시대 수혈 4기와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3개 층으로 대별되는데, 현대 교란층-고려~조선시대 퇴적층-범람퇴적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으며, 유구는 최하부인 기반층에서 노출되었다.

유적 위치도

삼국시대 유구인 구는 폭이 좁고 긴 형태로 서로 평행하게 진행한다. 평면형태상 밭과 유사한 형태이며 유적과 인접한 '김해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부지내 유적'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구는 평면상에서 고랑과 같이 뚜렷한 구상의 흔적은 확인되지만, 두둑으로 추정되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에서 조사된 구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경작흔으로 판단되는데, 고랑으로 추정되는 구 내부와 토층상에서 두둑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경작으로 인한 재굴착 및 퇴적흔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인은 유적의 입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해반천과 가까운 범람원으로 침수가 작은 지역에 해당하여 경작활동을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경작흔이 확인되는 것은 조성 당시 일시적으로 유적 일대이 경작이 가능할 정도 환경이 안정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구와 수혈 및 주혈 등에서 경질토기 편 7점이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삼국시대 후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7,『김해 대성동(85-8)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 전경

구상유구

구상유구

## 52

# 김해 대성동 89-18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89-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4.12.~2015.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경질토기 편

유적은 북동쪽에 위치한 분성산(해발 382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록 최말단부와 해반천의 배후습지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8.9m 내외의 평지에 해당한다. 최근의 택지조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원지형이 훼손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유구가 양호하게 잔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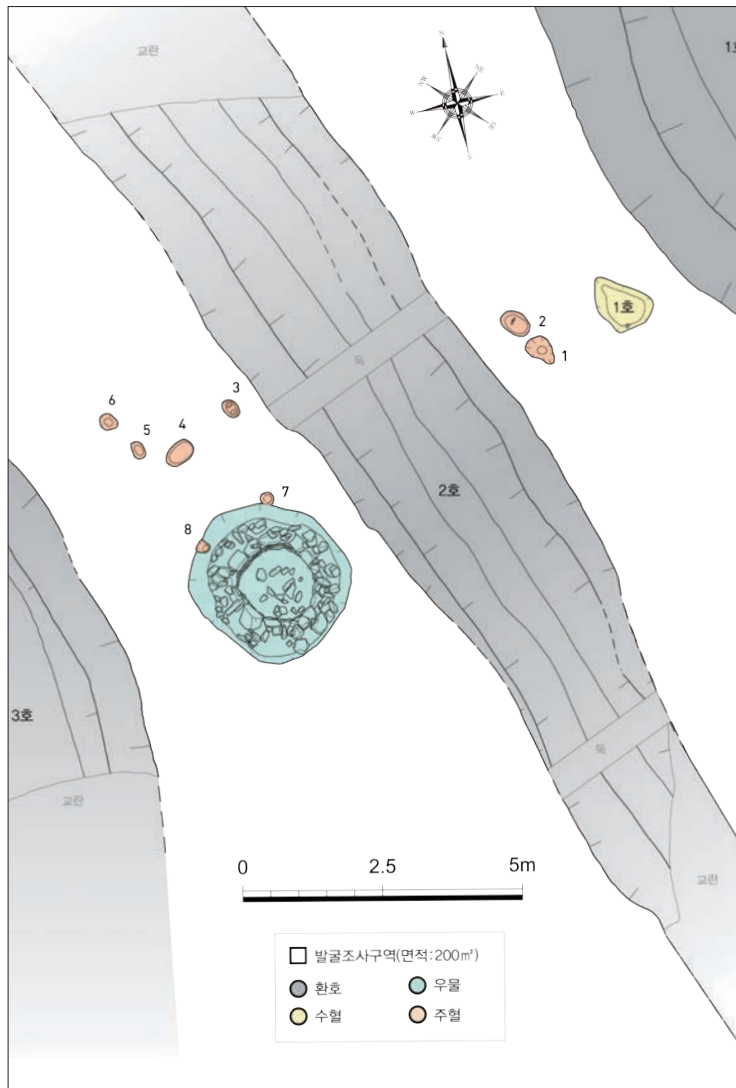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환호 3기와 삼국시대 수혈 1기, 조선시대 우물 1기 및 시기미상의 고상건물 1동과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적의 전반적인 토층양상은 다음과 같다. Ⅰ층은 두께 20㎝ 정도의 명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닐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들이 확인되는 교란층이다. Ⅱ층은 두께 30~40㎝ 내외의 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었으며 구릉 사면에서 흘러 내린 퇴적층으로 추정된다. 또한, Ⅱ층의 존재를 통해 청동기시대 환호 외부에 토루를 구축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Ⅲ층은 암·회갈색사질점토이며 환호 내부토이다. 그리고 Ⅳ층은 황갈색풍화암반토로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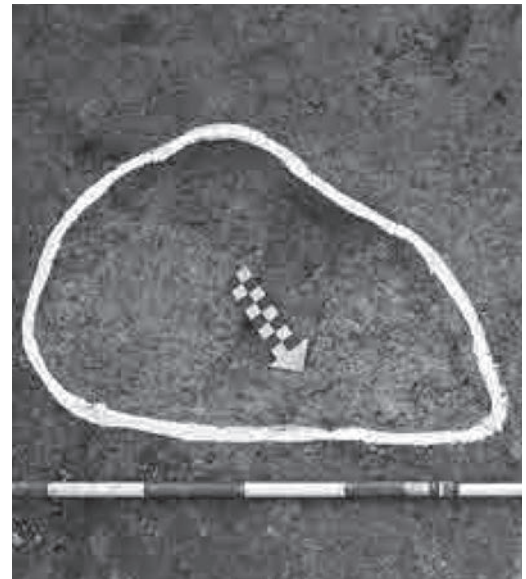
구성된 기반층이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인 수혈은 청동기시대 1호 환호와 2호 환호 사이에서 노출되었다. 수혈 상부는 후대 삭평과 교란 등으로 대부분 유실되어 거의 바닥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96㎝, 너비 68㎝, 깊이 5㎝ 정도이다. 청동기시대 환호와 동일하게 명황갈색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바닥은 고르지 못하고 요철면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남쪽 벽면에 연접하여 경질토기 동체부 편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김해 대성동 89-18번지 건물신축 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결과약보고」.

1호 수혈

1호 수혈 세부

유구 배치도

53

# 김해 대성동 320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320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6.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목관묘 / 개,
고배, 완

유적은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내측에 위치하고, 전반적인 지형은 분성산(해발 382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충적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관묘 1기, 수혈 3기, 구 4기, 주혈 등과 조선시대 수혈 2기, 주혈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전반적으로 근·현대 복토층-통일신라시대 유물포함층-삼국시대 문화층-기반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삼국시대 문화층은 사질토가 다량 혼입된 층으로 목관묘, 수혈, 구 등의 유구가 확인되는데, 김해 봉황동과 대성동에 입지한 유적들에 형성된 층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삼국시대 문화층 상부에 통일신라시대 유물포함층이 수평퇴적되었고, 근·현대 복토층은 통일신라시대 유물포함층 상부를 성토하여 형성되었다.

삼국시대 목관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1㎝, 너비 119㎝로 소형이다. 삼국시대 3호 수혈의 토층 조사과정에

유적 위치도

서 목관묘의 굴광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구간 선후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1호 목관묘가 3호 수혈 굴광선을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보아 유구간 선후관계는 삼국시대 3호 수혈이 선축, 1호 목관묘가 후축되었다. 목관묘의 토층양상은 함몰토, 충전토, 목관부식토로 대별되는데, 총 6개층으로 세분된다. 1~4층은 함몰토이고, 5층은 충전토, 6층은 목관부식토이다. 축조방법은 벽면을 직선에 가깝게 굴착한 후,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목관과 묘광 사이는 흙으로 충전하였는데, 충전토가 묘광 내부로 함몰되어 평면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동단벽과 남장벽 충전토 내부에서 유물을 부장하였으며, 내부에는 평면형태 장방형상의 목관부식토가 4㎝ 정도 두께로 깔려 있었다. 토층양상과 유물 부장위치 및 목관부식토를 감안하면 충전토 너비는 18~22㎝, 목관 규모는 길이 240㎝, 너비 100㎝이다. 유물은 개 4점, 고배 배신부 편 1점, 완 5점이 충전토 내부에 부장되어 있었고, 내부조사 과정에서 개 2점과 단각고배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개 1점과 단각고배 1점은 조합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 2점과 고배 배신부 편 1점은 목관묘 북장벽 충전토 내부에서 동단벽을 따라 확인되었고, 개 2점은 남장벽에서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은 목관묘 외에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수혈과 구 등의 생활유구로 후대 삭평과 교란으로 인해 정확한 구조나 축조시기를 알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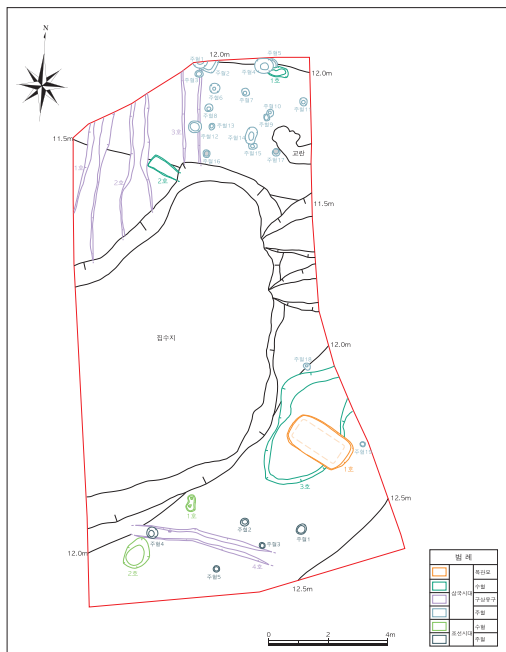
유물을 통해 볼 때, 주변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검토하면 6세기 2/4분기 이후로 편년된다. 이는 인접한 봉황동 447-2번지,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대성동 한옥생활 체험관 조성부지 내 유적,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등과 동일한 시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수혈과 구 등은 후대 삭평 등으로 인해 형태가 정연하지 않고,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경질토기 편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김해 대성동 320번지 유적 –김해 대성동(320)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1호 토광묘

54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산2-1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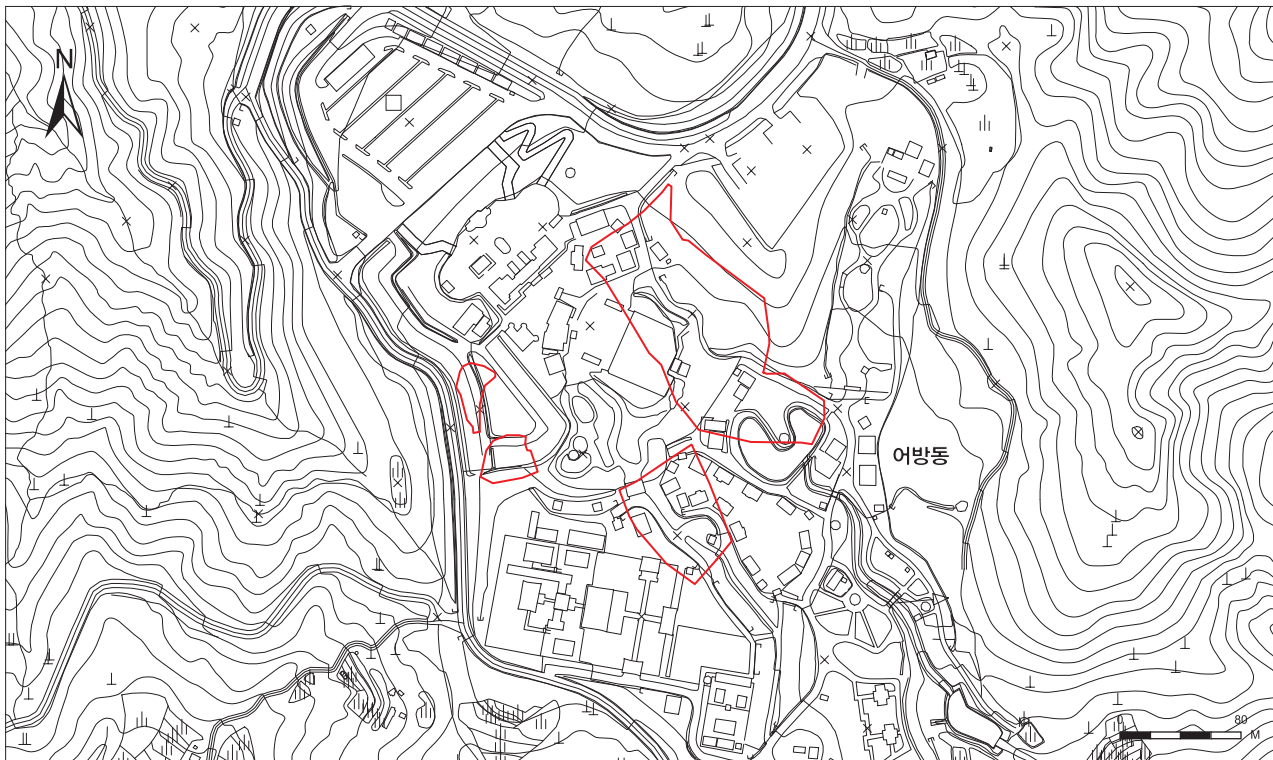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2006.5.~2007.3.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 토기 편

# 김해 어방동 분산유적 _ 김해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

유적은 김해시 어방동 산2-15 일대에 위치하며, 신어산(해발 630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구릉이 고 김해만에 몰입한 침식산지인 분성산 일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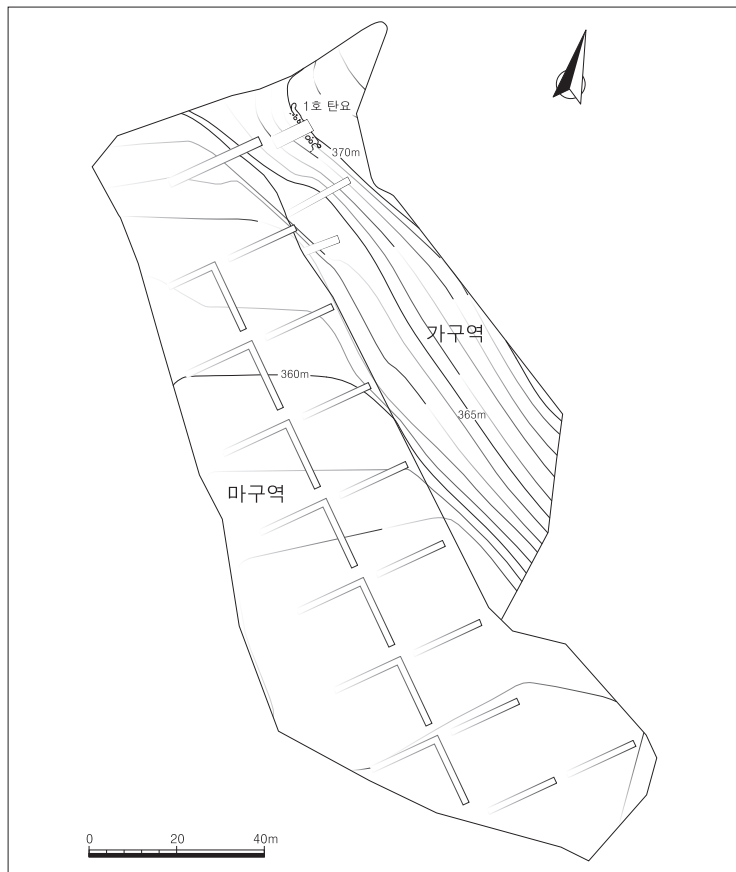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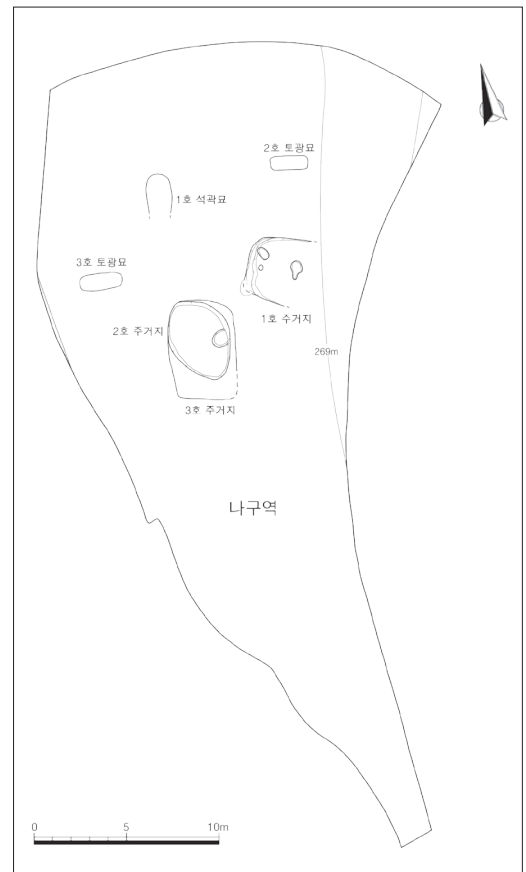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주거지 2동, 통일신라시대 수혈 1기와 탄요 2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6기가 조사되었다. 먼저, 유적의 층위는 지형에 따라 구릉부와 곡간부로 구분된다. 구릉부는 정상부와 사면부에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60㎝ 정도의 표토에 덮여 있다. 표토층 아래 두께 20㎝ 정도의 적갈색점질토가 퇴적되어 있고, 그 하부에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다. 유구는 적갈색점질토 내지는 기반층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곡간부는 경작층인 표토층 아래에서 회청색토층, 회황색토층, 황색토층, 흑회색토층, 회색점질토층으로 이루어진 두께 1m 정도의 점질토층 아래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확인된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천문대가 위치한 정상부에서 곡간부로 이어지는 구릉의 동남쪽

유적 위치도

사면과 곡구가 만나는 구릉 사면에 해당하는 나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타원형이며 내부에서 아궁이 시설이 조사되었다. 이 중 2호 주거지는 암다갈색사질점토인 3호 주거지의 내부토를 굴착해서 조성되었으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동쪽 부분의 유실이 심하다. 평면형태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장타원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4.7m, 너비 3.1m 정도이다.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서벽에 연접하여 아궁이가 1개소 조사되었다. 아궁이의 구조는 양변에 소형 판석 2매를 세워서 봇돌로 삼고 전면에 지각으로 추정되는 할석을 세워 놓았다. 또한, 바닥에서는 직경 30㎝ 정도의 피열흔도 관찰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유물은 아궁이 부분에서 단경호와 연질호 편, 아궁이의 우측으로 1m 정도 이격되어 개와 각종 연·경질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은 1·2호 주거지의 유물 중 부가구연장경호 편, 단각고배, 장경촉 등은 6세기에 출현하는 유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삼국시대 주거지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김해 어방동 분산 유적은 북쪽에 신어산을 등지고 나머지 삼면이 바다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고지로서 방어에 유리한 입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적 일대는 지형에 따라 다양한 공간활용이 이루어져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영위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09, 『김해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 김해어방동분산유적』.

가·마구역 유구 배치도

나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1호 주거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55 김해 유하패총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유하동 180-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1차 2015.7.~2015.9.
2차 2016.8.~2016.10.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고배, 옹, 노형토기, 소형기대, 시루, 광구소호, 기대, 토우, 철정, 도자, 골각기, 유리제구슬

유적은 북서쪽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91호인 양동산성이 위치한 봉우리의 정상부(해발 331.9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유적과 양동산성의 중간 지점에서 사적 제454호인 양동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유적은 세부적으로 유하동 하손마을 배후의 해발 50m 정도인 낮은 야산의 남동쪽 사면부에 해당한다. 유적의 남쪽에서는 조만강의 지류인 유하천이 동쪽으로 흐른다. 유하천은 지류인 내삼천과 합류하며 남쪽으로 흘러 서낙동강의 지류인 조만강으로 합류한다. 이처럼 크고 작은 강의 지류 및 소하천이 흐르는 유적 주변의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에는 하천범람으로 형성된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다.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처음 알려졌으며, 1970년대 인접한 양동리고분군이 발굴조사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해발 4~8m 정도의 저지대에 위치하는 Ⅰ구역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패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해발 15m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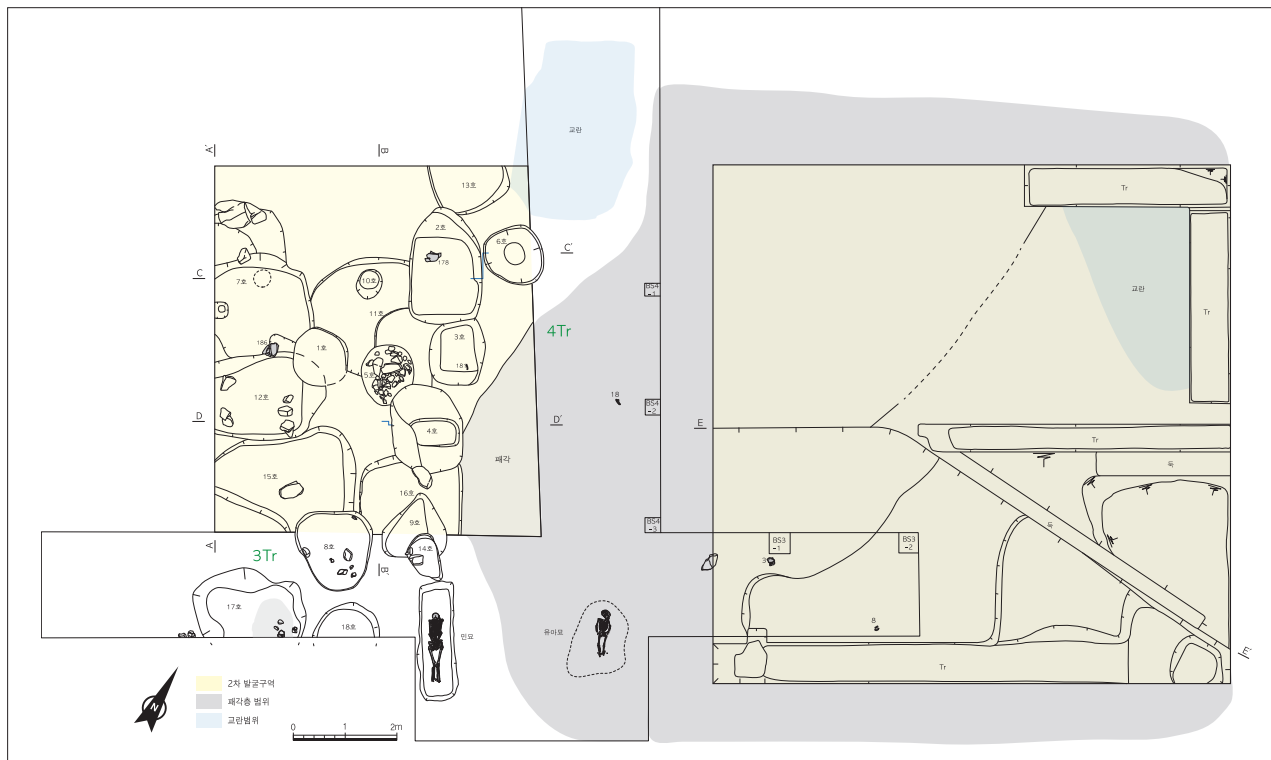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의 낮은 구릉 사면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총에서는 모두 19개 층이 확인되었으며, 남동쪽 경사면을 따라 조사지역 외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면에서는 패각층과 소토층이 교대로 퇴적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식량자원의 폐기 및 지면 정지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접한 지역을 장기간 점유하였던 집단의 주거공간이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으로 보여준다. Ⅲ층에서는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토기들이 출토되며, Ⅴ~Ⅶ층에서는 외절구연단각고배와 컵형토기 등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토기들이 확인되므로 패총의 조성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패총 서쪽에서는 다수의 수혈들이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해발 13~15m 선상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 원형, 말각방형 등이며 서로 중첩되어 확인되어 각 수혈 간에 시기차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내부토가 동일하면서 연속 또는 중복으로 조성된 수혈들은 의례유구나 토취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혈들은 유적과 가까운 김해 신문리·망덕리·여래리유적, 진해 용원유적 등과 기장 고촌유적, 고성 동외동유적 등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수혈들의 조성시기는 중복관계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상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를 종합하면, 유적은 김해 양동리고분군, 후포고분군 등과 지형적으로 연결되는 구릉 말단부에 형성된 패총으로 상기한 고분군과 관련된 생활유적의 유존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17, 『김해 유하패총』.

유구 배치도

2그리드 남벽 토층

2그리드 전경

3트렌치 유아묘

1그리드 Ⅱ-1층 노출모습

토기류 1

토기류 2

# 56 김해 유하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77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7.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야요이계 토기

유적은 용지봉(해발 683m)과 매봉산(해발 338m)에서 파출되어 나온 준평원화 간계에 이른 구릉지에 해당된다. 동쪽으로 길게 뻗어 내려온 구릉 끝자락의 남쪽 사면이며, 구릉의 북쪽에 해당하는 정상부는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고, 동쪽은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된다. 조사당시에는 대부분 밭과 무덤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분묘 이장으로 인해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남쪽 구릉 사면에서 삼한시대 수혈 1기와 조선시대 분묘 30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동쪽 말단부의 해발 11.7m 지점에 위치하며, 적황갈색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조선시대 30호묘에 의해 남서쪽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사면 아래로는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벽면은 경사져 있다. 바닥은 다소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유물은 야요이계彌生系 토기 편과 승문타날된 단경호 편이 상부에서 출토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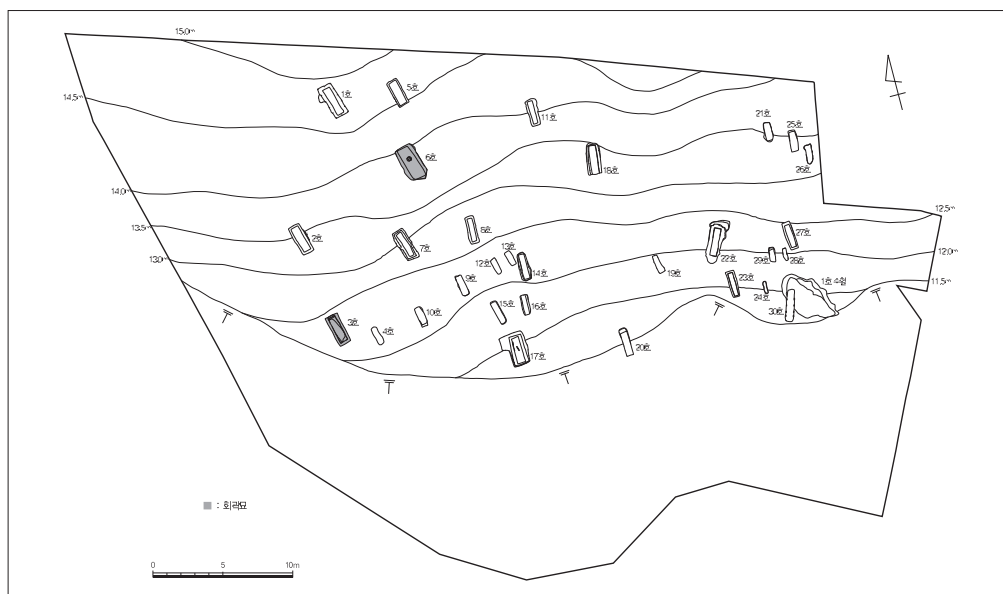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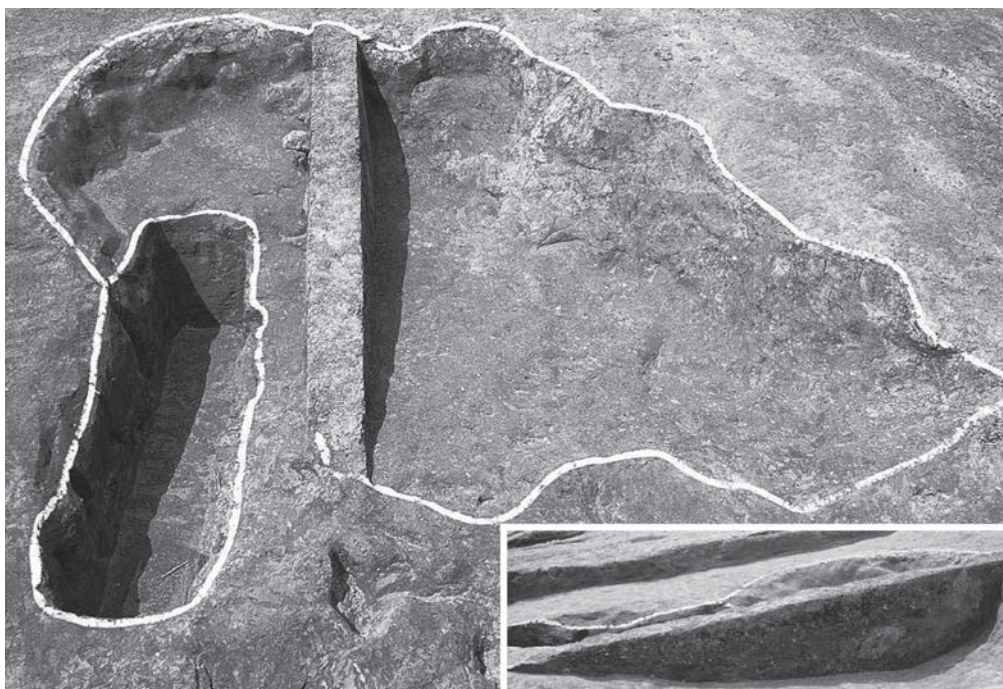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07, 『김해 유하리 유적-김해 유하리 공장 신축부지 내 발굴조사 보고서-』.

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455㎝, 너비 254㎝, 깊이 77㎝이다.

이상과 같이 유적에서는 삼한시대 수혈 1기만이 조사되었지만, 지형과 주변환경을 고려하면 유적 주변에서도 동시기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배치도

1호 수혈

57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산17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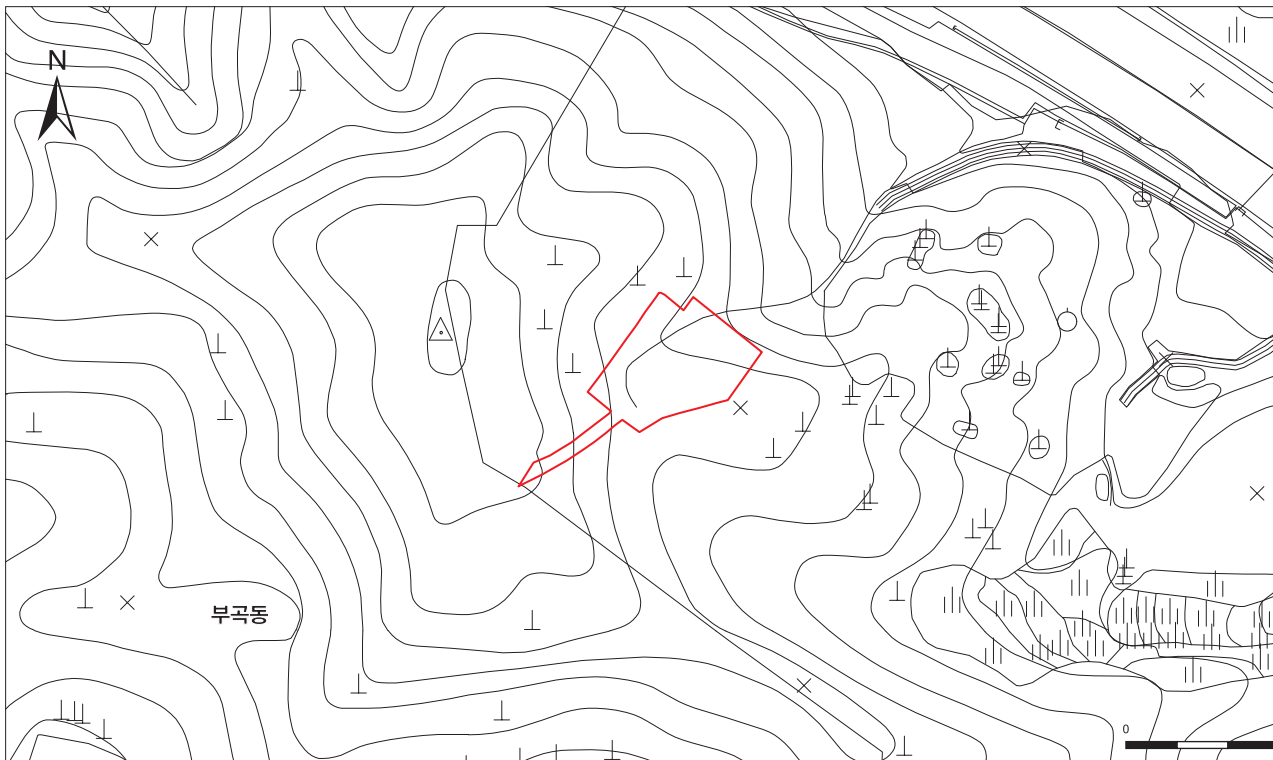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4.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두형토기, 시루

# 김해 부곡동유적 _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유적은 과거부터 교통로로 이용되어 온 장고개와 냉정고개 사이의 구릉에 위치하며, 주변에서는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한시대 수혈 8기와 주혈, 시기미상의 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표토층-퇴적층-유구설치층(기반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다.

수혈은 유적의 북서쪽에 밀집분포하며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에 등고선을 따라 조성되었다. 수혈은 경사면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상 대부분 경사면 아래쪽이 유실되었다. 이러한 수혈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등 다양한데, 대체로 원형이 우세하다. 축조형태는 기반층을 비교적 얕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편평하게 설치하였다. 내부에는 일부 수혈에서 노시설이 확인될 뿐 별다른 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혈들은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수혈들과는 그 입지나 형태에서 다른 양상을 보

유적 위치도

이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적으로 유적은 구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뻗은 곡부와 이어지는 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곡부 사면에 위치하여 외부에서는 조망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통해 볼 때,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은 일반적인 생활유적과는 성격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후적으로 유적은 겨울에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구릉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공간으로는 불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수 확보가 어려우며 북쪽의 음지에 위치하므로 일조권 확보도 불리하여 주거가 중심이 되는 취락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들은 주거 등과는 다른 성격의 유구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로 적갈색연질토기류이며, 김해지역에서 3세기 중반 이후에 출토되는 경질토기류가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수혈의 조성시기는 3세기 중반 이후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창원지역의 외동유적, 창곡동유적, 석동유적, 성산패총 등과 비교할 때에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양상을 감안하면, 유적의 수혈들은 입지적 요인 등을 통해 볼 때,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제의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는데, 청동기시대 검파두식을 비롯한 일부 유물들이 지표상에서 출토된 점 등도 이를 반증하는 자료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6, 『김해 부곡동·봉황토성-154kV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유구 배치도

2호 수혈

2호 수혈 노지시설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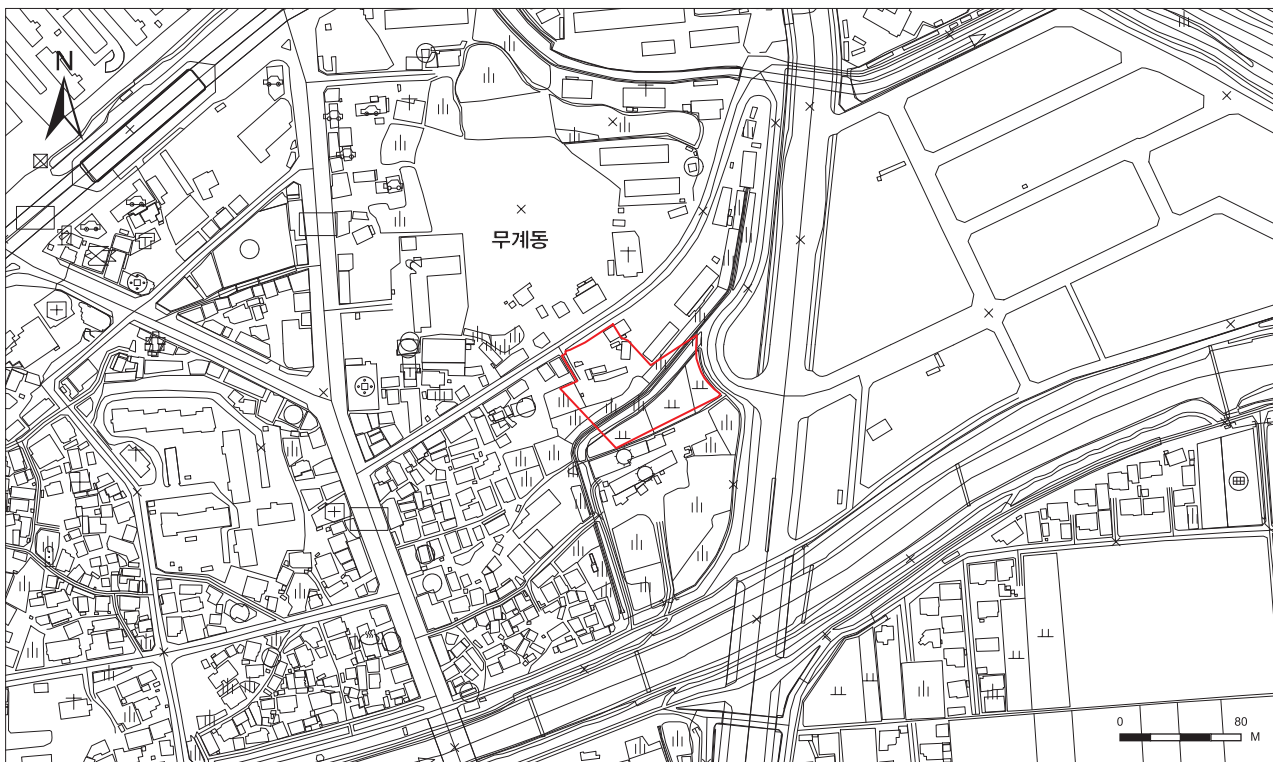
# 김해 무계동 213-3번지 일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213-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6.1.~2016.3.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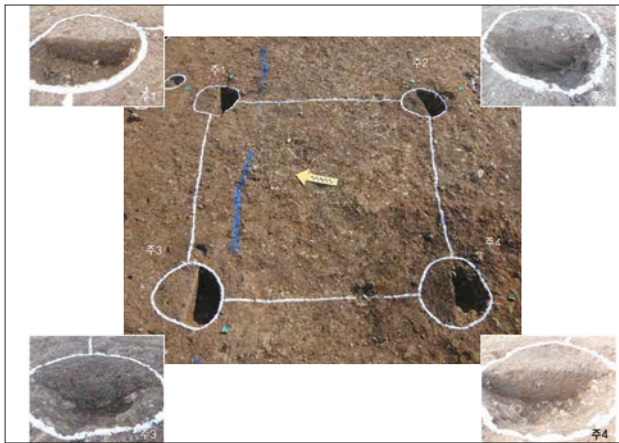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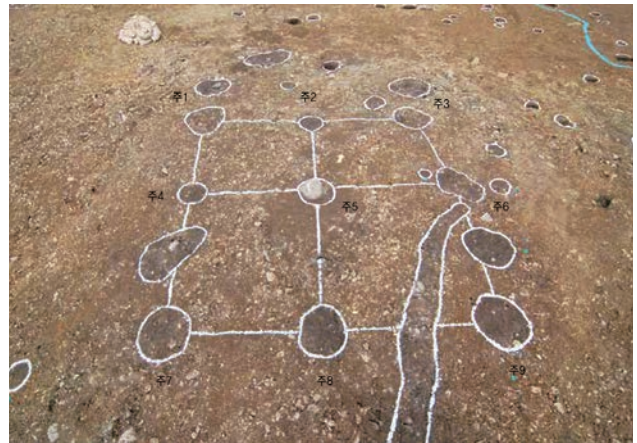
김해 무계동 213-3번지 일대 유적은 해발 4m 전후의 소하천변에 입지하며, 인접하여 무계리지석묘군, 대청리유적 등의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유적을 동-서로 관통하는 수로를 중심으로 남쪽을 Ⅰ구역, 북쪽을 Ⅱ구역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Ⅰ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고상건물, 수혈, 주혈, 목주열, 조선시대 수혈, 구, 주혈이 Ⅱ구역에서는 삼국시대 고상건물, 수혈, 주혈, 조선시대 구 등의 다양한 시기와 성격의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고상건물은 구조상 1×1칸, 2×2칸이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원형, 장타원형, 부정형 등이며 내부에서는 기형을 알 수 없는 도질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목주열은 유적 남쪽 외곽부 하상자갈층이 형성된 지역의 해발 4m 지점에 위치한다. 모두 18기의 주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경 30㎝ 정도의 주혈 2기가 대칭을 이루며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주혈 간 거리는 동-서가 약 2m, 남-북은 1.5m 정도이다. 이

유적 위치도

러한 목주열은 그 성격파악이 용이하지 않은데, 인접한 무계동 194-1번지 유적과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등에서 확인된 자료를 통해 일부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주열은 지형적으로 구하도와 미고지가 연접한 지점에서 열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울타리로서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 제방으로서의 기능, 항구의 모습으로 보이는 관동유적의 잔교와 같은 기능 등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유적의 목주열은 구하도와 경계부에 위치하고, 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곽 경계를 표시하는 제방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8, 『김해 무계동 213-3번지 일대 유적』.

유적 전경

Ⅰ구역 1호 고상건물

Ⅱ구역 1호 고상건물

# 59

# 김해 신문동 663-2번지 율하이엘센트럴시티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6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7.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노형토기 편

유적은 지형적으로 반룡산(해발 238.1m) 동쪽 구릉 사면 말단부와 충적지에 해당한다. 대부분 마을 주택 및 밭, 과수원 등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철거되었다. 유적 주변으로는 기존 지표 및 분포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석검 편 및 삼국시대 생활토기들이 확인되었고, 유적에서 남쪽으로 50m 정도 이격되어 김해 신문리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시기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굴조사는 이전 실시된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 3개소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수혈, 구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1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수혈 3기, 구 1기, 주혈군, 조선시대 진단구 1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구연부 편, 연질파수부 편, 백자대접, 도기호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타원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155~426㎝, 너비 121~288㎝ 정도이다. 별다른 내부시설은 없으며, 1호 수혈 바닥에서 노형토기 편이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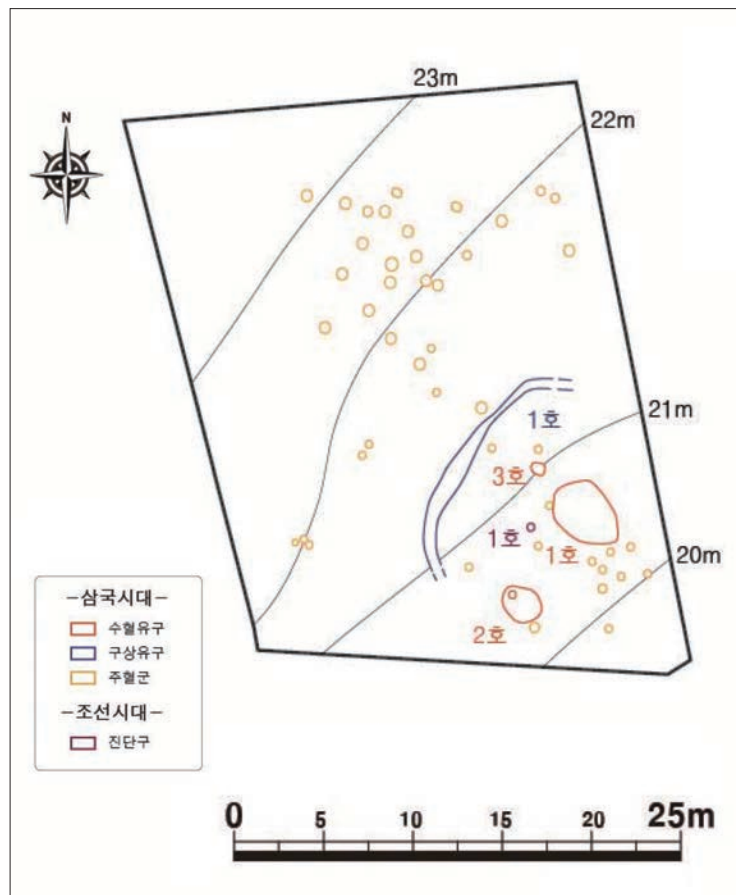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토되었다. 삼국시대 구는 1구역 남동쪽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주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12.53m, 너비 1m이다.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질토기 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2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수혈 2기, 구 2기가, 3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수혈 5기와 연질발저부 편, 단경호구연부 편, 연질파수부 편 등 생활과 관련된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2구역의 삼국시대 수혈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타원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206~286㎝, 너비 106~154㎝ 정도이다.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대체로 편평하고,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삼국시대 구는 2구역 북쪽과 서쪽에 위치하며, 각각 수혈과 인접한다. 3구역의 삼국시대 수혈은 서쪽 경계부분에 인접하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으로 다양하다. 잔존규모는 길이 185~479㎝, 너비 115~416㎝ 정도이며,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은 남쪽에 위치한 기 조사된 김해 신문리유적과 서쪽 구릉 상부의 용산고분군 및 관동리고분군과 관련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7, 「김해 신문동(663-2) 율하이엘센트럴시티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구역 유구배치도

1호 수혈 및 유물 출토모습

1호 수혈 출토유물

60

# 김해 신문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817-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1.6.~2012.6.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패총 / 개, 고배, 노형토기, 옹, 골각기

김해 신문리유적은 반룡산(해발 238m)의 남동쪽 구릉 사면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는 남해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반룡산과 단절된 구릉부에 해당하고, 해발 3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입지한다. 반룡산 서쪽 구릉은 관동리고분군, 서쪽 하단부에는 김해 관동리유적이 인접해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김해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주위를 조망하기에 탁월한 위치이다. 유적 주변으로는 패총유적인 용산유적을 비롯하여 관동리고분군, 신문리 용산유물산포지, 김해 관동리유적, 아랫덕정유적, 구관동유적, 대청유적, 능동유적 등 시대와 종류를 달리하는 많은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분묘 3기,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24동·수혈 109기·고상건물 1동·패총 3개소·주혈군 2개소, 조선시대 분묘 6기 등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4개 층으

유적 위치도

로 구분되는데, 표토층-삼국시대 문화층-삼한시대 문화층-기반층의 순서로 퇴적되어 있다. 표토층 하부에 형성된 삼국시대 문화층은 주로 유적 북서쪽 구릉 상부에서 노출되고, 얇은 표토를 제거하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삭평 등으로 인해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패총이 위치한 동쪽 곡부 반대편 구릉 중앙부와 서쪽 사면부에 밀집분포하며, 대체로 해발 29m 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후대 삭평 등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평면형태는 대체로 방형이다. 내부시설은 주혈과 수혈, 벽구, 노지, 외부돌출구 등이 설치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특징은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벽구를 설치하여 배수를 한다는 점으로 4호 주거지의 경우 내부에서 외구와 내구가 확인되는데, 모두 경사 아래인 남쪽부분의 외부돌출구와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외에 노지는 1호와 7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된다. 벽에 치우쳐 설치된 무시설식 노지로 부뚜막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은 해발 29~32m 선상에 위치하며 평면형태가 부정형·방형·원형 등 다양하고, 밀집·중복된 상태이다. 내부에서 주로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33호 수혈에서는 판상철부 1점과 주조철부 1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전반적인 양상을 감안하면 수혈 출토유물들은 일반적인 생활용이 아닌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수혈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지만,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패총은 3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사면 곡부에 형성되었으며, 주거지와는 일정부분 이격되어 위치한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패총의 형성기는 3세기 후엽에서

유적 원경

4세기 전엽, 확장기는 4세기 중후엽, 소멸기는 5세기 전중엽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김해 신문리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유적은 고 김해만 일대의 패총문화, 고대 금관가야인의 대외교류 및 문화양상, 식생활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5,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내 김해 신문리유적』.

주거지 전경

패총A 전경

토기류 1

토기류 2

토기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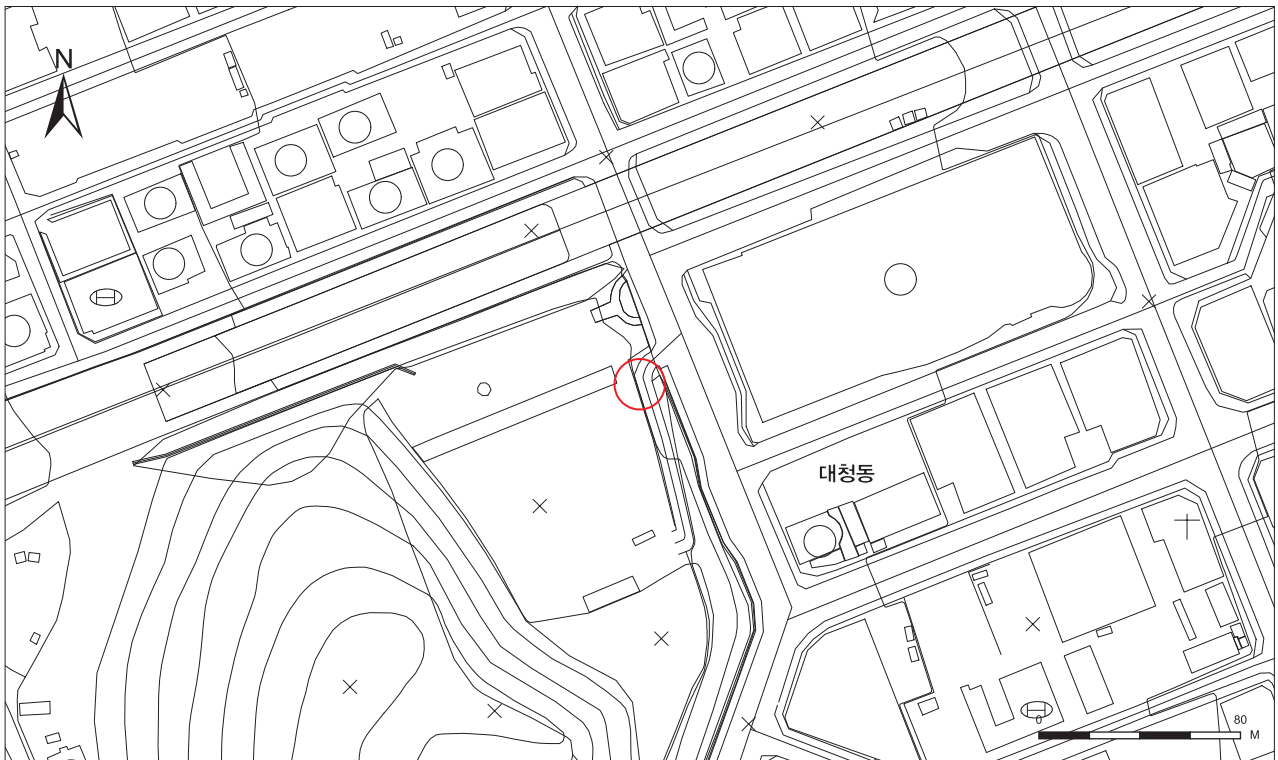
골각기류

# 61 김해 대청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269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96.11.~19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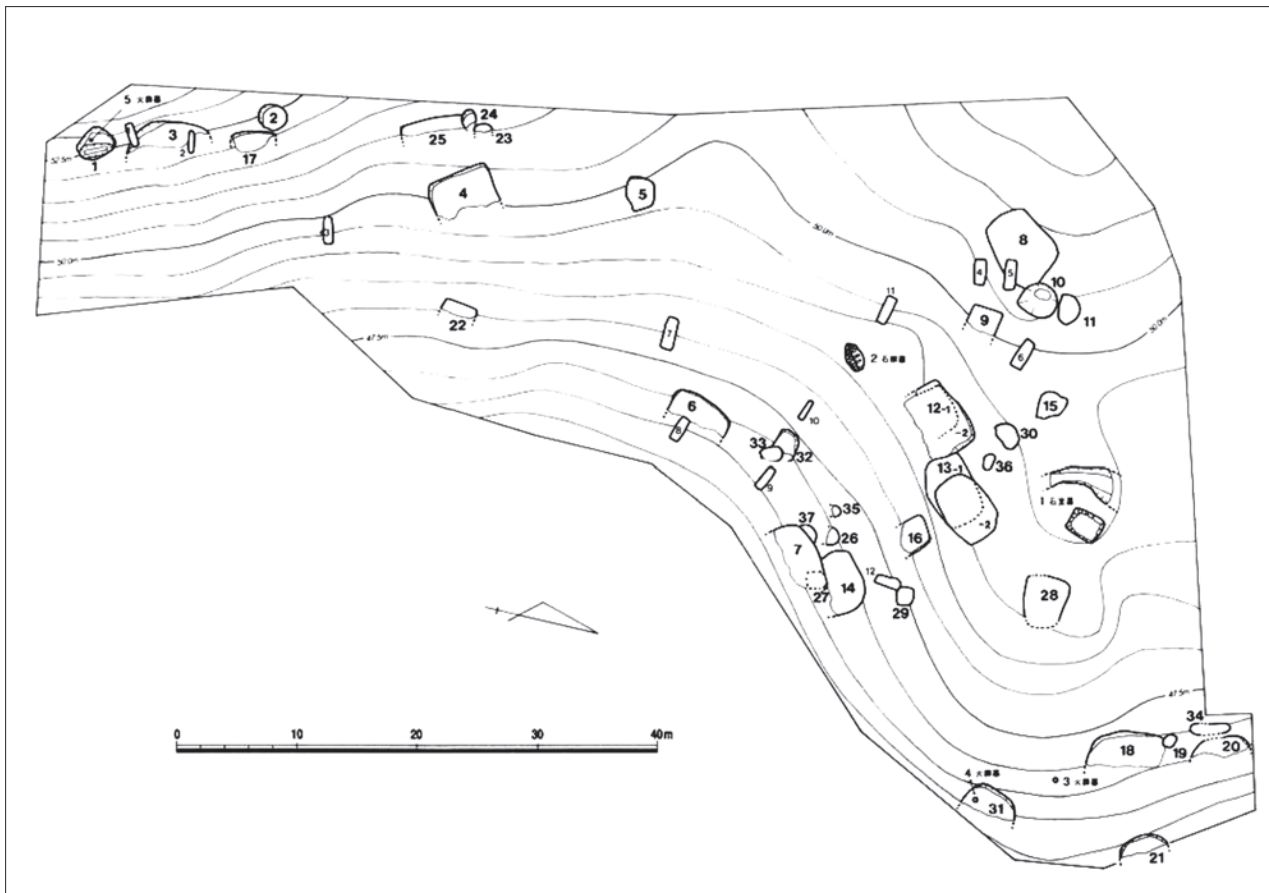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석곽묘,
석실묘 / 옹, 호,
대부장경호, 대부완

김해 대청유적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69 독립구릉(해발 80m)의 북동쪽 평탄지와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김해와 창원의 경계를 이루는 험준한 산악지대와 김해평야의 중간지역으로 천변의 저지대는 역석층이 두껍게 형성되거나 일부 저습지를 이루어 밭 또는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유적의 서쪽과 남쪽으로는 비음산(해발 510m), 대암산(해발 607.4m), 용지봉(해발 728m), 불모산(해발 810.7m), 굴암산(해발 662m)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험준한 산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달한 소규모의 능선이 동-서, 또는 북서-남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천은 이러한 능선을 따라 수지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의 남쪽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청천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조만강과 합류한 후 다시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낙동강과 합쳐 남해에 이른다. 유적의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소구릉 사이에 선상지가 발달되어 있고, 칠산을 지나서는 김해평야의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 위치도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삼국시대의 주거지 및 수혈 39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 석곽묘 1기, 화장묘 4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2기 등 여러 시기의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들은 대체로 경남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유구들과 대동소이하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한~삼국시대 주거지들이 혼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유적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유적이 형성되어 삼국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석실묘와 석곽묘는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생활유구들보다는 늦은 시기에 해당하고, 그 입지도 구릉 사면보다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삼국시대까지 존속한 마을이 폐기된 이후 분묘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유적은 고 김해만과 2.5㎞ 정도 이격되어 있고, 주변에 비교적 큰 하천과 선상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생업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삼국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지형이 협소하여 대규모 마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2002, 『김해 대청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1호 석실묘 출토유물

62

# 김해 장유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산4-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6.~2009.8.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호, 옹, 점토대토기

유적은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와 창원 진해구 마천동을 잇는 웅동~장유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이다.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는 2009년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개 지점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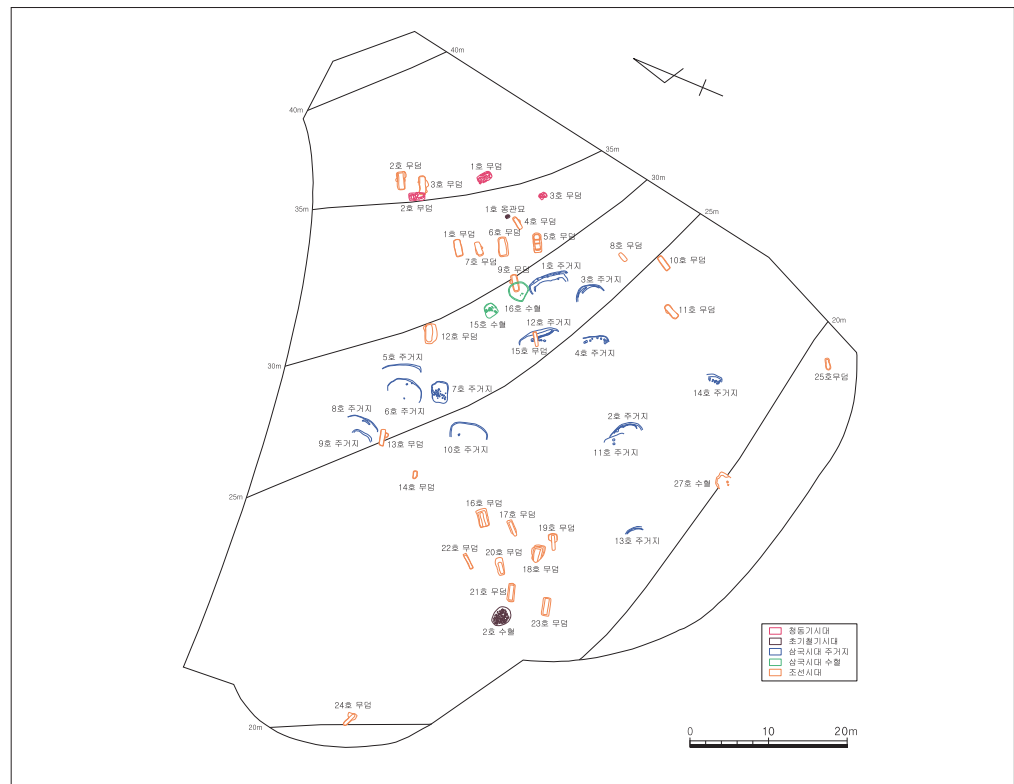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분묘 6기, 초기철기시대 수혈 1기, 옹관묘 1기, 삼국시대 주거지 14동, 수혈 2기, 조선시대 분묘 25기, 건물지 1동, 수혈 1기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이 중 초기철기시대와 삼국시대 유구와 유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출토된 수혈 1기,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흑도장경호의 형식이 고식에 해당되므로 2호 수혈은 원형점토대토기 초기 단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옹관묘는 횡치단옹식이며 소형 할석으로 메우고, 상부를 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목판으

유적 위치도

로 입구를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 14동과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내부시설로 벽구와 벽주가 있으며, 훼손이 심해 많은 수의 유구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에서는 와질소성의 도질토기, 적갈색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와질소성의 단경호가 4세기 전중반으로 편년되는 김해 예안리 160호분 출토품과 유사하여 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4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반면, 12호 주거지에서는 야요이 후기의 복합구연호가 출토되었는데, 야요이 후기 후반을 3세기 전중반으로 볼 때, 주거지의 조성시기도 4세기 이전으로 편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유물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기간과 유물의 존속기간을 감안하면 다른 삼국시대 주거지의 조성연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11, 『김해 장유리유적』.

I 지구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15호 수혈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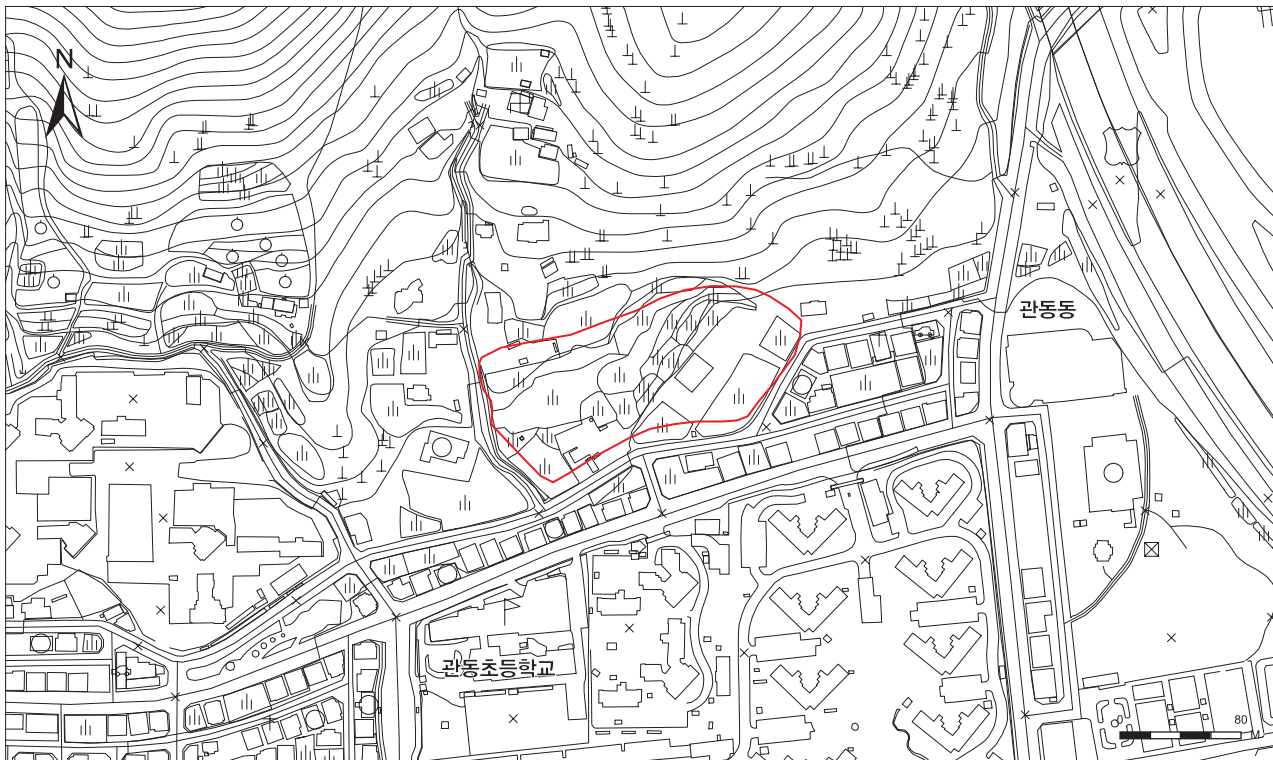
# 63 김해 관동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14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1차 2015.7.~2015.8.
2차 2017.6.

**주요 유구 / 유물**
지면식건물지 / 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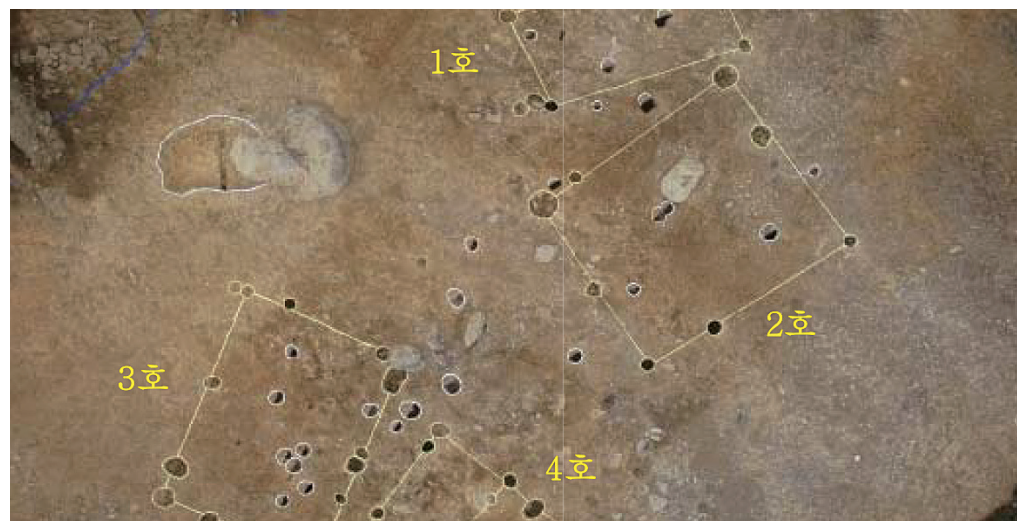
유적은 지형적으로 반룡산(해발 237.6m)의 남쪽 및 남동쪽 구릉 사면 말단부 일부와 이를 개석한 소규모의 선상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지면식건물지 4동과 주혈,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와 수혈 5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인 지면식건물지는 상부가 삭평되어 당시의 생활면을 포함한 건물지와 관련된 노지나 아궁이 등의 시설에 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방형 3동, 장방형 1동이며, 구조는 1×1칸 2동, 2×2칸 2동이다. 주혈 간 간격은 1×1칸의 경우 장축 4.5~5.5m, 단축 2.3~5.2m 정도이고, 2×2칸의 경우 장축 4.5m 내외, 단축 3.5m 내외이다. 또한, 주주혈 사이에는 보조주혈이 배치되었으며, 규모는 대체로 10~29㎡ 정도이다. 이상과 같은 지면식건물지는 인접한 '관동리 진지유적'에서 조사된 2×2칸 구조의 고상건물과 비교할 때, '관동리 진지유적'의 건물은 주거 목적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본 유적에서 조사된 지면식건물지

유적 위치도

는 창고 또는 작업장 등의 시설로 판단된다. 또한, '관동리 진지유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유적의 범위는 본 유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주거공간과 부속시설 공간이 일정한 계획성으로 가지고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유구의 특성상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나, 3호 건물의 주혈 내부에서 연질토기 파수 편과 경질토기 동체부 편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그리고 주혈은 유적의 동쪽 경계부근에서 북쪽 중앙부 일대에 밀집분포하며, 지면식건물지와도 혼재한다. 배치양상에 있어 정형성도 간취되지 않고, 주혈의 규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와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인접하고 있는 지면식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혈 내부에서 옹 구연부 편, 완 구연부 편, 호 동체부 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38번 주혈 내부에서 출토된 편구형의 동체부 편을 감안하면 대체로 6~7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 「김해 관동동 공동주택 건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 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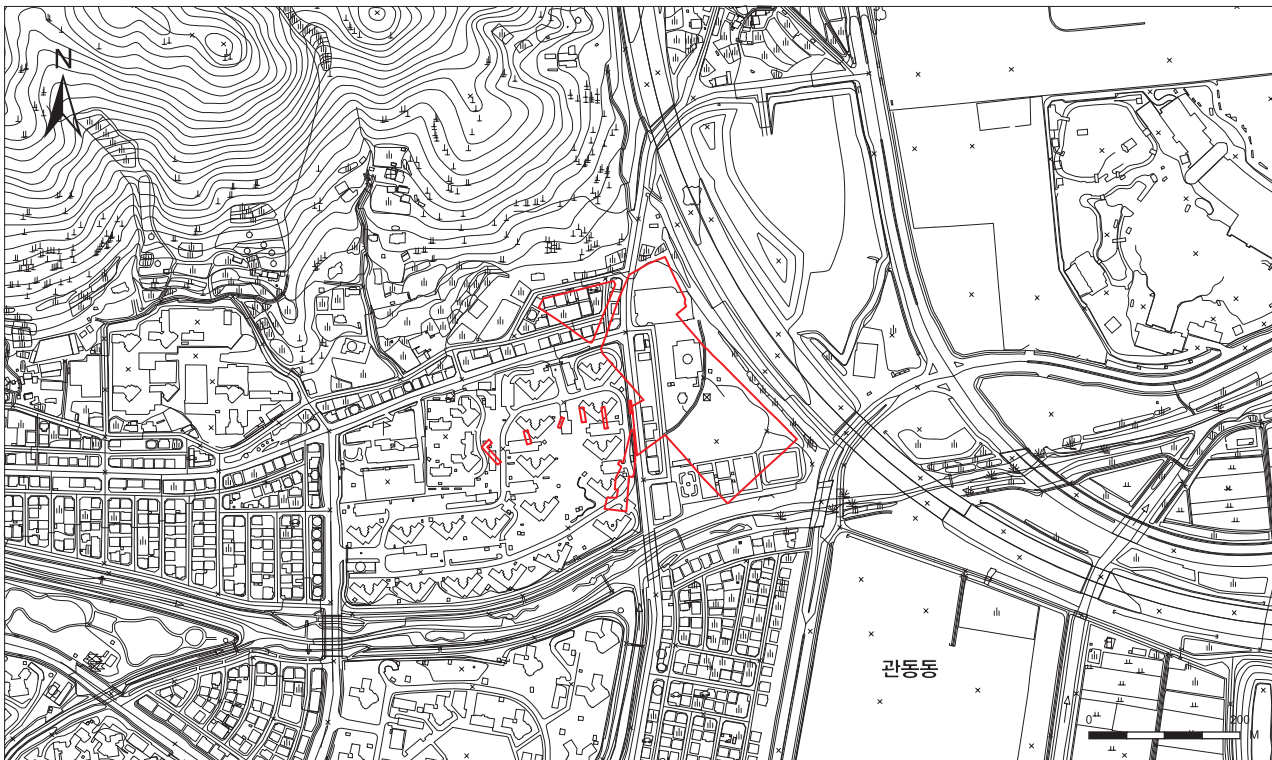
# 64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206-3·119-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05.6.~2007.12.

**주요 유구 / 유물**
건물지, 고상건물, 수혈, 우물, 구, 도로, 잔교 / 고배, 호, 시루, 각종 목기류

유적이 위치하는 장유면 율하리, 관동리 일대은 김해와 창원, 진해와 경계를 이루는 불모산(해발 801.7m), 화산(해발 799.2m), 굴암산(해발 662m) 등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김해평야로 이어지는 곡저평지가 발달된 지형으로 최근까지 논과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 구관동유적은 굴암산(해발 662m)의 북동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과수원과 밭, 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관동리유적은 반룡산(해발 237m)의 남동사면 하단부와 율하천 배후습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며, 율하천의 범람 또는 고 김해만의 기수역 환경에 위해 형성된 충적지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구관동, 관동리유적은 고 김해만의 해안가에 해당되는 곳으로 특히, 삼국~통일신라시대가 중심이 되는 생활유적이다. 지면식건물지, 우물, 구, 수혈, 도로가 일정공간을 차지하면서 입지하는 것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지면식건물지는 다양한 평면형태와 구조의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도로는 2개

유적 위치도

1구역 전경

의 간선도로와 4개의 지선도로가 조사되었으며 도로가 설치된 지반의 조건에 따라 가공방법을 부분적으로 달리한다. 간선도로는 유적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지반이 단단한 황갈색풍화암반토에서 지반이 경미한 회색점질토로 전환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도로의 축조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지선도로 또한 지반의 조건에 따라 축조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간선과 지선이 만나는 교차로가 3부분에서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지선도로가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간선도로에 연접한다. 이 외에 잔교는 유적의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하며 구해안선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하며 북쪽으로 지면식건물지와 수혈 등이 인접하고 있다. 잔교의 평면형태는 '丁'자상이며 세부적으로 교량과 호안시설로 구분된다. 먼저, 교량은 남-북 방향으로 길이 24m, 너비 2.5~3m로 길게 설치되었으며 내륙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교량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호안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호안시설은 교량을 육지면에 고정시키고 동시에 파랑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진다. 호안시설의 상부 구조물은 부식된 상태였고, 회색뻘층에 박혀 있는 말목열과 부재가 다량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전체 길이는 12m, 너비 5~6m 정도이며 동-서 방향으로 교량의 진행방향과 직교된다. 이상과 같은 발굴조사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대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호 간선도로

3호 지선도로

건물지군

잔교

첫째, 대규모 노변취락이 조사되었다. 관동리유적에서는 107동의 지면식건물지와 선착장인 잔교, 다양한 축조방법과 측구, 암거시설이 잘 남아있는 도로가 조사되었다. 둘째, 취락의 틀은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방향의 간선도로와 동서방향의 지선도로라 교차로를 형성하고 있고, 도로를 따라 건물지를 배치한 점에서 구획성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지면식건물지의 조사는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지면식구조의 건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 주었다. 지금까지 고상식으로 판단된 구조 중에는 지면식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바닥에서 소결토와 이동식아궁이가 확인 및 출토되었으며, 황색점토를 이용해 정지하였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김해 율하택지사업구간 내 발굴조사보고-』.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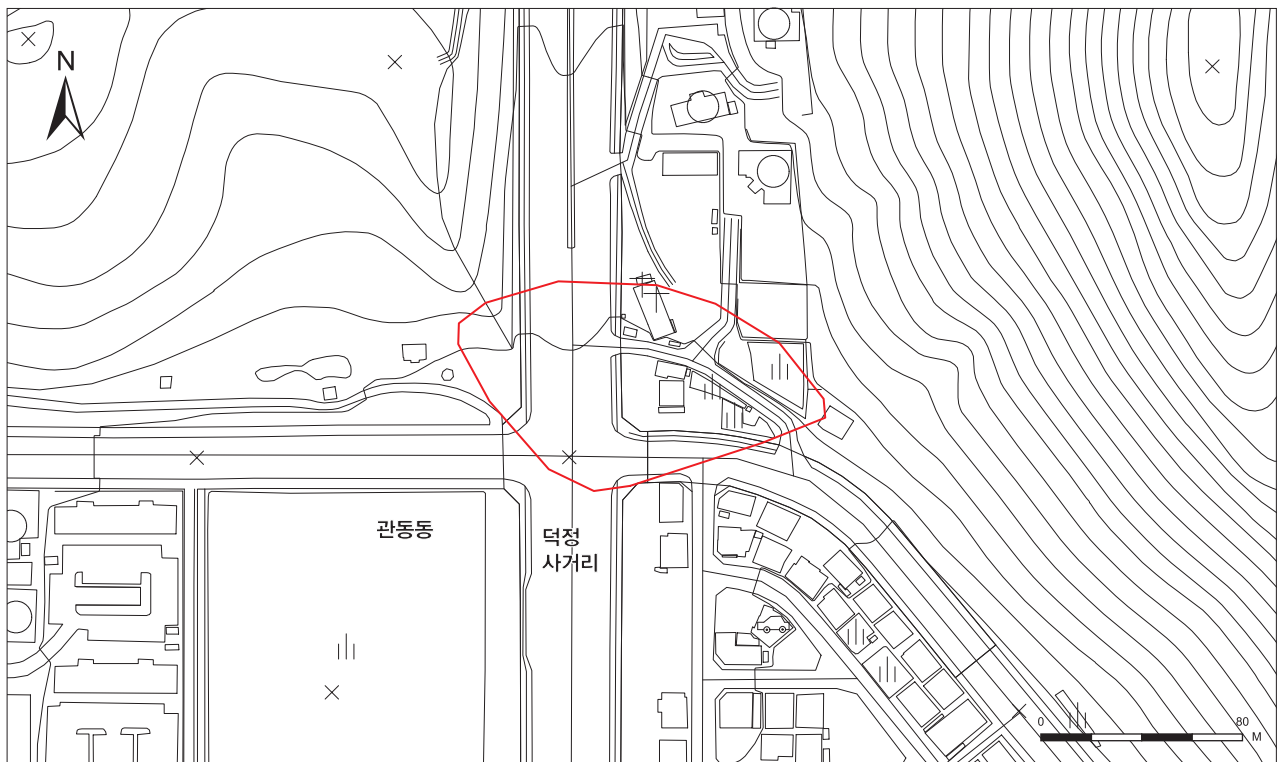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525·527·528-1·528-2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7.9.~1997.12.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우물 /
고배, 대부완, 철부

# 김해 아랫덕정유적 _ 김해 장유 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유적은 장유에서 부산으로 가는 58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신안으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800m 정도 이동하면 나타나는 평지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유적의 북쪽으로는 화산의 동쪽 말단에 위치한 해발 154m의 독립된 봉우리와 반룡산(해발 236.8m) 지류가, 서쪽으로는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를 경계 짓는 화산(해발 798.4m), 남쪽으로는 굴암산의 지류인 해발 398m 정도의 높은 봉우리가 둘러져 있는데, 유적은 북편에 위치한 이들 산지의 남사면 말단부와 동-서로 길게 펼쳐진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적은 북, 서, 남쪽으로 높은 산이 둘러져 있고, 그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와 소하천이 동-서로 길게 흐르로 있는데, 유적에서 보면, 산을 등지고 전방에 있는 평지와 하천을 조망할 수 있어 당시의 마을이 입지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상건물 25동, 수혈 5기, 우물 1

유적 위치도

기, 도로 1개소, 옹관묘 2기와 다수의 주혈이 조사되었고, 배, 고배, 철부, 유대완 등 다양한 유물도 출토되었다. 건물지의 배치양상은 남동-북서향으로 2~3열을 이루면서 배치된 상태로 기획성을 보여주며, 면적을 감안하면 주거용으로 추정되는데, 중대형급 14동은 14.4~29.8㎡이고, 비주거용으로 추정되는 소형은 2~9.3㎡로 8기이다. 구조상 고상건물로 추정되며, 대형에 속하는 3·7호는 출입시설로 판단되는 노대를 갖춘 건물지로 추정된다. 그리고 12호는 유적 내 위치와 규모, 할석으로 축조된 담장시설을 가진 특징 등으로 고려할 때, 유적의 공공집회장소나 특수목적의 건물로 판단된다. 건물의 기둥은 주혈 내에 일부 잔존하는 목재의 크기로 보아 두께는 대략 10~17㎝ 정도이며, 수종은 수거한 자료 17점을 분석한 결과, 참나무류가 8점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건물의 지붕은 유적 내에서 기와 편이 2점 밖에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와 지붕이 아닌 짚이나 갈대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는 너비가 2.3m, 잔존길이는 12m 정도만 잔존하고 있으나, 조성된 위치를 감안하면 유적의 주출입로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의 중앙부에서 확인된 너비 10~34㎝, 깊이 1.5~5.5㎝ 정도의 바퀴자국은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이 수레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의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2004, 『김해 장유 택지개발지구 내 아랫덕정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2호 건물지

12호 건물지

12호 건물지 목주

12호 건물지 유물 출토모습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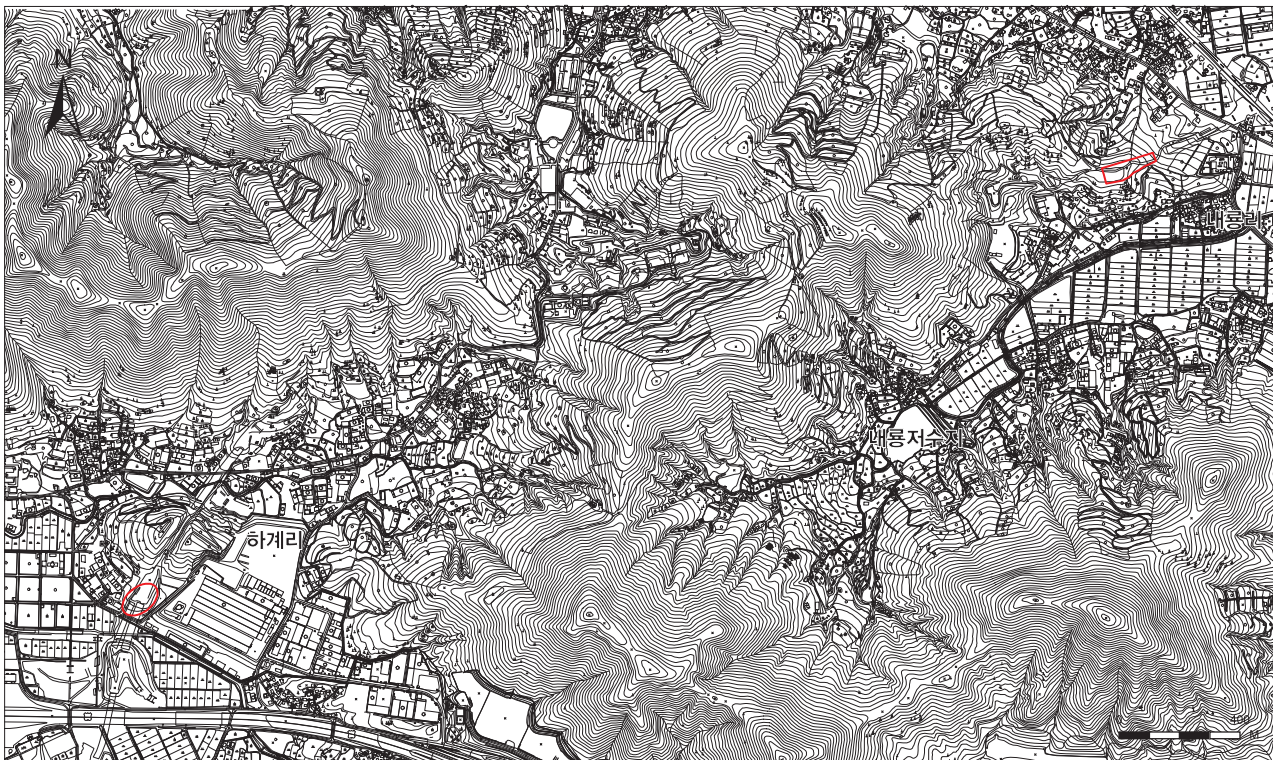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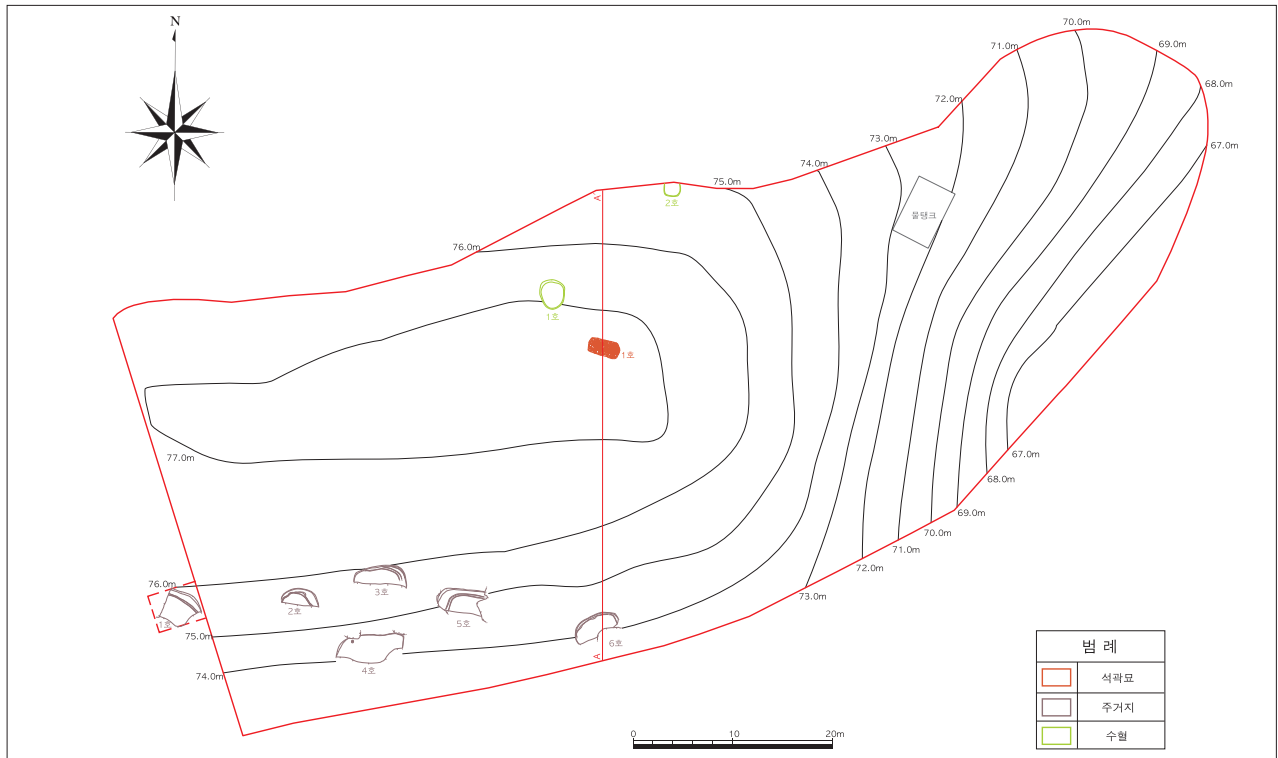
# 김해 하계리·내룡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및 내룡리 35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1차 2013.5.~2015.9.
2차 2015.9.~2015.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토기 편

유적은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해당하여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와 내룡리로 구분된다. 하계리유적에서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적심건물지 2동, 고상건물 1동, 수혈 4기, 구 8기, 석렬 1개소,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내룡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6동,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삼한~삼국시대 주거지는 내룡리유적에서 6동만 조사되었지만, 지형조건과 배치양상을 감안하면 유적의 남쪽과 남동쪽 하부에 더 많은 주거지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모두 구릉의 경사면에 설치되었으며 경사면에 위치하는 관계로 경사면 아래쪽은 유실이 심하다.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지형조건과 후대 삭평 등으로 인한 유실로 내부에 설치된 벽구가 벽면을 따라 일주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벽구의 너비는 15~20㎝ 정도이며 길이는 10㎝ 정도이다. 대체로 주거지 벽면을 따라 일주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내측에 판자 등을 이용하여 내벽을 세웠던 것으로

유적 위치도

내룡리 유적 유구 배치도

추정되며, 벽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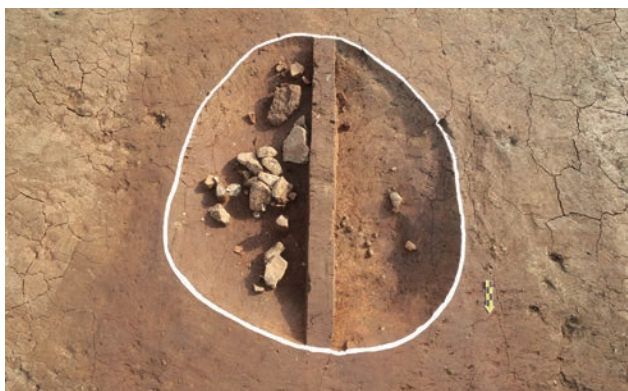
유물은 주거지에서 연질토기 편 5점, 도질토기 편 1점, 수혈에서 무문토기 편 1점, 연질토기 편 4점, 도질토기 편 2점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들은 대부분 잔 편으로 정확한 기형파악은 어렵다. 유물 중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와 연질 및 와질토기를 통해 볼 때, 사천 봉계리유적의 Ⅱ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봉계리유적의 Ⅱ기는 교상파수가 부착된 도질제의 단경호 등과 같은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들에 해당되는데, 도질토기 출현 이후의 주거지이다. 봉계리유적 Ⅱ기의 상한은 대체로 3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고, 하한은 5세기 전반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본 유적의 시기는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김해 하계리·내룡리유적』.

유적 전경

3호 주거지

5호 주거지

1호 수혈

출토유물

## 67

# 김해 여래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2.~2007.11.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구,
탄요, 도로, 옹관묘 /
호, 옹, 기대, 발, 고배,
시루, 송풍관, 철광석

유적은 금병산(해발 272m)과 낙동강 사이에 펼쳐진 대산평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상지성 충적지대와 북동쪽 구릉 사면부에 해당한다. 선상지성 충적지대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동쪽 구릉 사면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사져 있다.

발굴조사 결과 선상지성 충적지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수혈 6기·구 1기와 삼국시대 지상식건물 27동·수혈 147기·구 7기·주혈·탄요·도로·옹관묘와 조선시대 논층이 1개소 조사되었고, 북동쪽 구릉 사면부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42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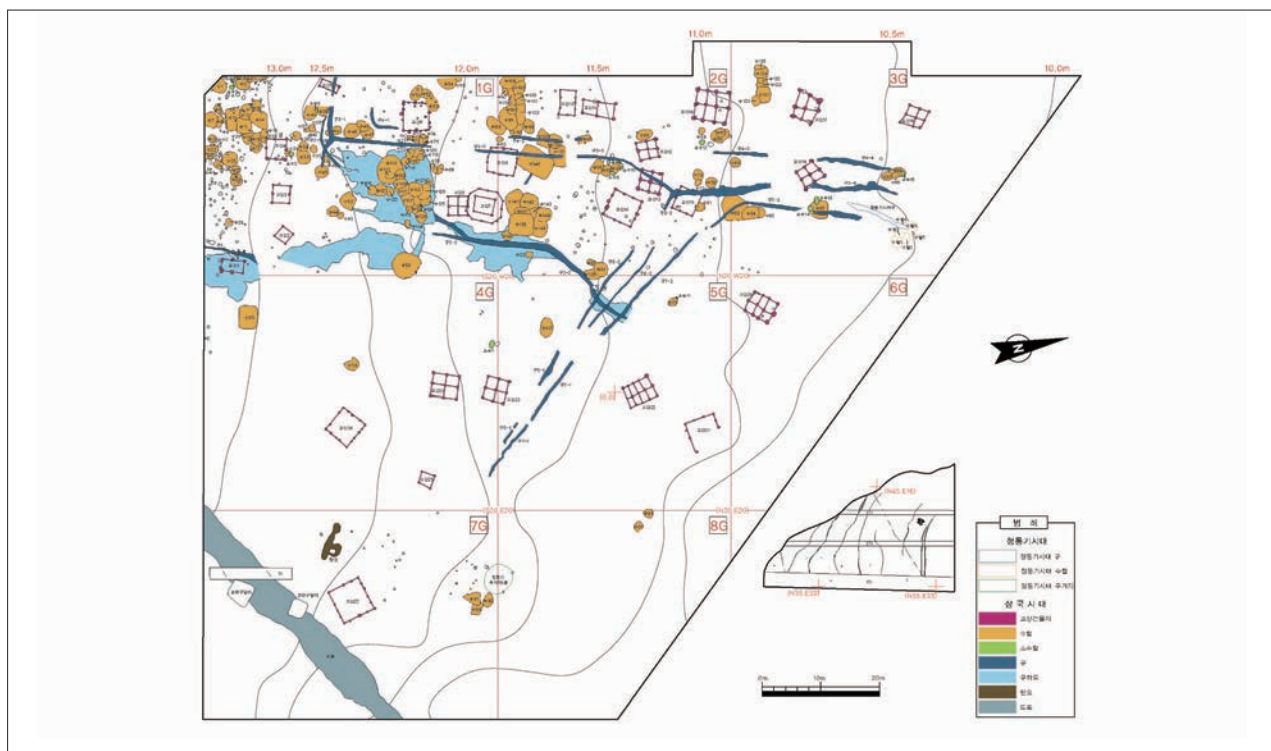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유적은 제철과 관련된 유적이라는 점과 함께 다른 취락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취락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첫째, 주거용 수혈건물이 거의 없다. 147기의 수혈 중 146호를 제외하고는 그 형태나 시설로 보아 주거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27동의 지상식건물의 경우에도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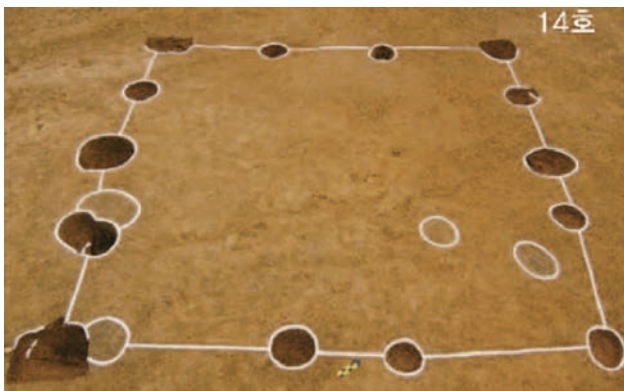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의 형태를 감안하면 고상식과 지면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유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둘째, 수혈의 경우 절반이 넘는 상당수가 중복관계에 있으면서 반복적인 폐기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제철관련 유물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폐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혈 내에 유입되었는데, 수혈과 제철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다. 셋째, 지상식건물 중 고상식이 팔각건물지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팔각건물지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점으로 유적 내에서 매우 특별한 건물로 추정된다. 넷째, 본 유적은 무엇보다도 출토유물을 감안하면 제철과 관련된 점이 중심이나, 소량이지만 토기제작과 관련된 내박자와 이기재 등도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당시 복합적인 생산유적으로서의 특수 취락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특징과 함께 제철과 연관성이 깊다고 추정되지만, 제철관련 유구와 공반 조사된 사례가 극히 적은 탄요, 매우 특이한 방식의 도로, 주거용도의 건물이 매우 적은 점 등은 삼국시대 제철과 관련된 생산취락의 표준적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여래리유적은 유물상으로 볼 때, 빠르면 4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철과 관련된 취락의 중심시기는 5세기 중반에서 6세기대로 판단된다. 그리고 취락 중에서도 제철과 관련된 생산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제철과 관련된 다량의 유물을 감안하면 제련, 제강, 단야의 전 제철공정이 이루어진 일대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 여래리유적』.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취락전경

14호 지상건물지

삼국시대 중복수혈

출토유물

# 68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번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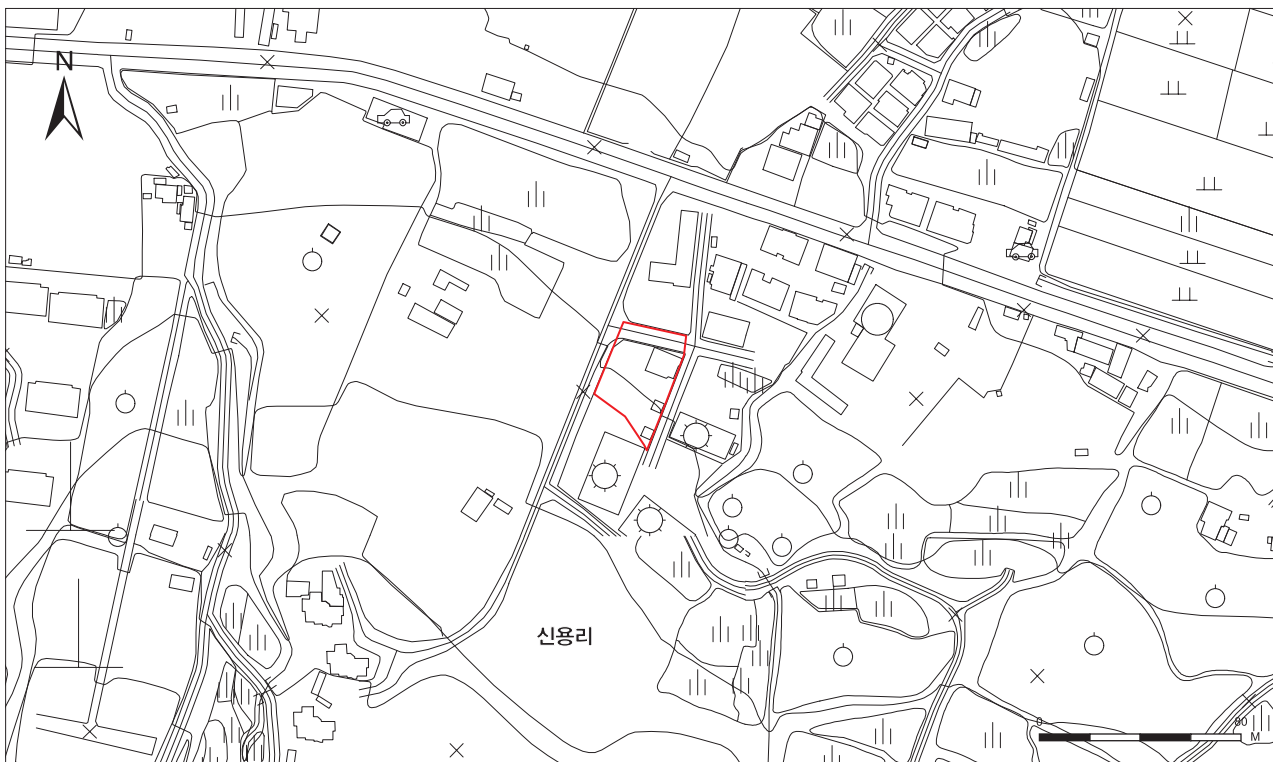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연구원 / 2013.9.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구 / 고배, 타날문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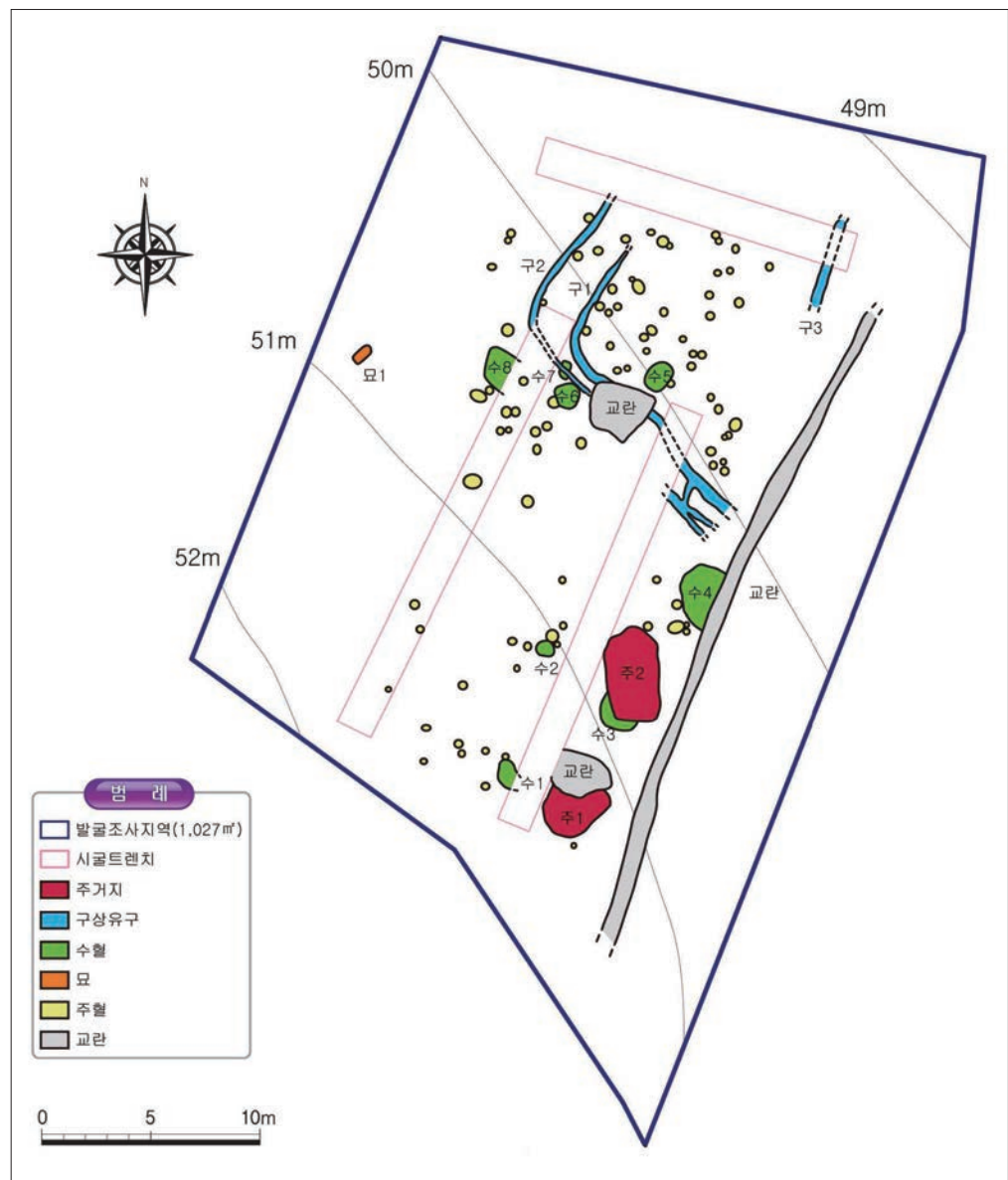
유적이 위치한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 일대는 남서쪽으로 높은 산지가 이어지고, 북동쪽으로 곡간부가 형성되는 남고북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형성된 구릉부 사이의 곡간부에 해당하며, 선상지의 형태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유적은 소곡간부와 구릉 말단부가 연결된 완만한 평탄지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임도 및 철거된 폐건물지가 잔존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최근까지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는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등고선과 직교하게 남-북 방향으로 총 10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유적의 평면형태가 부정형에 가까운 관계로 동-서 방향간 도로부지에는 각각 동-서향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흔적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시굴조사 결과, 서쪽에 위치한 3개소의 트렌치에서 구와 주혈 등의 유구가 노출되었으며, 무문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2·4·5트렌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

유적 위치도

과,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2동, 수혈 8기, 구 3기, 다수의 주혈, 목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구의 분포는 유적 서쪽과 중앙부에 집중되며, 동쪽은 하천범람과 근세 교란 등에 의해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구의 분포양상을 감안하면 유적은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로 주거지 2동에 집중해서 출토되고, 구와 수혈에서는 소량만 출토될 뿐 기타 유구에서는 시기를 파악할 만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주거지에서는 고배, 타날문토기 편 등 삼국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구 기저부에서는 타날문토기 편 2점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수량과 범위에 비해 유물의 출토량이 적고, 최근까지 지속된 경작 등의 교란으로 인해 정확한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연구원, 2013,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번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주거지

2호 주거지

1호 주거지 유물 출토모습

# 69

# 김해 진영 신용리 579-1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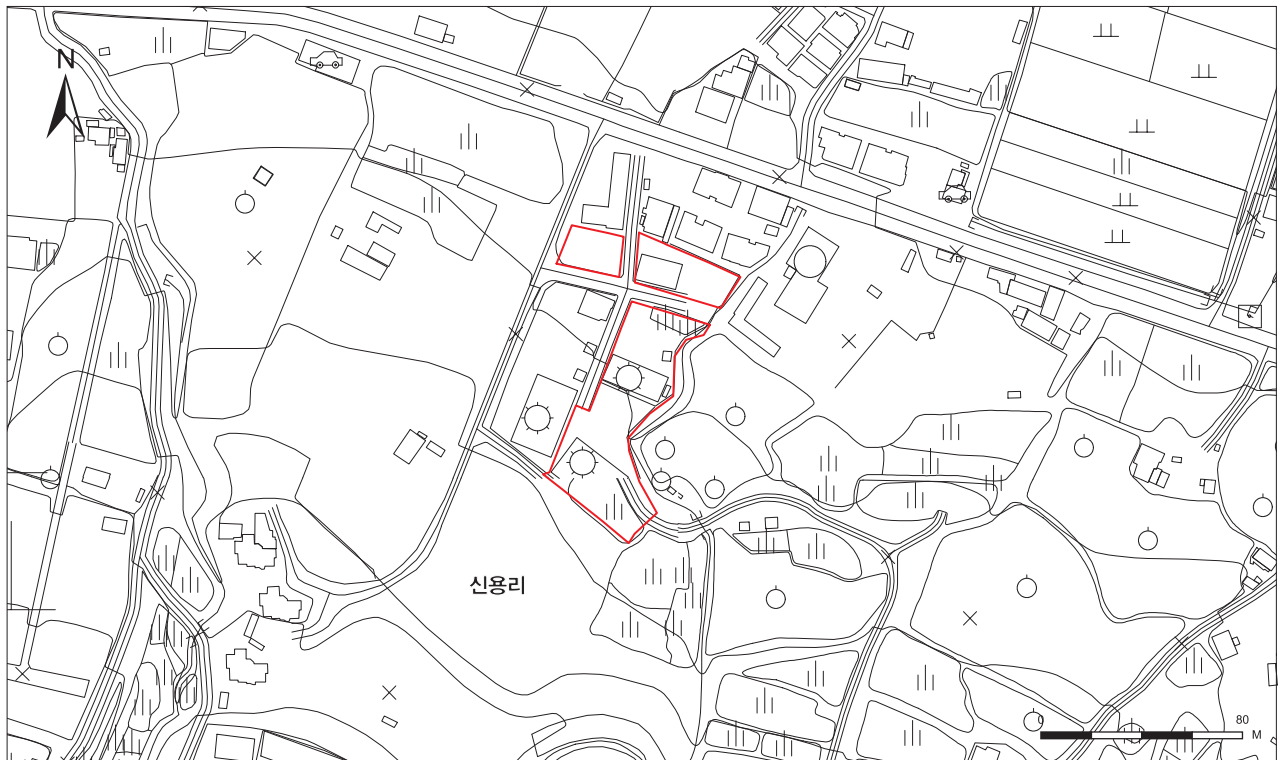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4.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개, 고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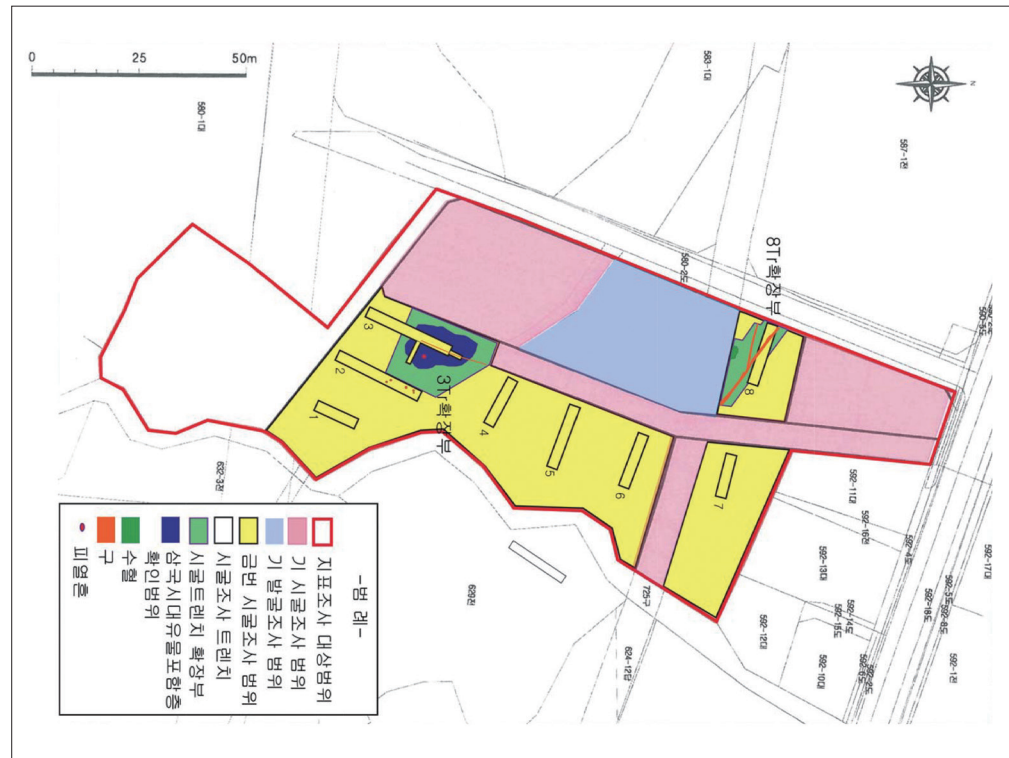
유적은 지형적으로 낙동강 주변의 대산평야를 남쪽에서 감싸고 있는 응봉산(해발 283.5m)의 북편 구릉 말단이자, 금변산(해발 271.8m)의 동편 구릉 말단에 위치한 해발 227.8m 정도의 구릉부 북쪽 사면 말단부에 이어 전개된 선상지성 지형 내 단구면으로 판단된다. 북쪽으로 인접하여 14번 국도가 위치하며, 지난 2013년 한국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지역은 신일전기 공장이 조성되어 있다.

먼저, 시굴조사는 8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3·8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유물포함층과 유구가 노출되어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전반적인 층위는 크게 3개 층으로 대별되는데, 1층은 후대 복토층이며, 2층은 황갈색사질실트층으로 삼국시대 문화층이며 다량의 유물이 노출되었다. 3층은 황갈색·갈색조의 사질점토층으로 자연퇴적층으로 추정된다.

수습조사는 3·8트렌치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3트렌치 확장부는 유적의 최남단으로

유적 위치도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한다. 상부 현대층 바로 아래에서 삼국시대 유물포함층이 3트렌치를 중심으로 남-북 13.5m, 동-서 8m 정도의 범위에 최고 0.4m 내외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대체로 기형을 알 수 없는 잔 편이며, 유물포함층 북쪽에서는 구와 같은 시설이 조사되었다. 8트렌치 확장부는 유적의 북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낮은 지대에 해당되며, 복토층의 깊이가 50~90㎝ 정도로 깊다. 평면형태 'Y'자상의 삼국시대 구 1기와 평면형태 부정형의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잔존규모가 길이 290㎝, 깊이 30㎝이며 내부에서는 기대 대각부를 비롯하여 연질토기 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김해 진영 신용리 579-1번지 외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및 수습조사 결과보고서」.

유구 배치도

8트렌치 확장부 구 및 수혈

8트렌치 확장부 부정형 수혈

# 70 김해 망덕리·신문리 생활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신문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망덕리 2010.1.~2010.10. 신문리 2011.3.~2011.1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 고배, 부형토기, 파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노형토기, 옹, 단경호, 도자

유적은 고속국도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며, 위치상 망덕리유적과 신문리유적으로 대별된다.

망덕리유적은 양동리고분군과 망덕리고분군 사이의 해발 5~6m 선상의 선상지형 충적지에 입지한다. 북서쪽에 위치한 황새봉(해발 393m)과 매봉산(해발 338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두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곡간평야로서 북쪽과 서쪽에는 소구릉, 남동쪽에 소지류가 발달하여 그 유적을 따라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상건물 2동, 수혈 15기, 저습지, 주혈, 우물 1기 등이 조사되었다. 고상건물은 나지구에서 2동이 조사되었는데, 주변에 산재하는 주혈을 감안하면 더 많은 수의 고상건물이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혈은 가-1지구의 해발 5.7~5.9m 선상에 설치되었으며, 규모와 평면형태, 유물 수량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다양한 수혈들이 중복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 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 계속적으로 반복 축조

유적 위치도

망덕리 유적 전경

신문리 유적 전경

되었으며, 내부토는 대부분 수평퇴적되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매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4호 수혈에서는 소의 하악골 1개체가 출토되어 특징적이다. 소 하악골은 가로로 누워진 상태였으며, 절개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의례행위에 사용된 소의 머리부분을 매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지역에서는 대성동고분군 1호 목곽묘의 봉분 내에서 소 하악골이 출토된 바 있는데, 분묘유적이 아닌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의례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 상부는 일부 유실되었지만, 저습지 외곽 경사면을 따라 소형 목주열 1열이 조사되었다. 목주는 지름이 5㎝ 내외이며 단면 원형의 자연목을 말단부만 가공하여 10~30㎝ 간격으로 촘촘히 박았는데, 동시기의 창원 신방리유적, 부산 고촌유적, 아산 갈매리유적, 무안 양장리유적 등에서 조사된바 있다. 그리고 출토유물은 고배, 기대, 노형토기, 광구소호, 단경호, 장경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4세기 전엽~후엽으로 편년된다.

신문리유적은 반룡산 남동쪽의 곡간부 사이에 위치하는 독립구릉인 대암의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사면부에 입지한다. 유적의 남서쪽인 반룡산의 남사면 말단에는 삼국시대 선착장 및 도로, 대규모 고상건물군이 조사되어 금관가야의 포구로 추정되는 관동리유적이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신문리유적에서는 삼한시대 주거지 3동·수혈 17기·구 4기와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6동·지상식건물 1동·혼토패각층 1개소, 삼국시대 주거지 5동·고상건물 2동·수혈 110기·구 4기·목주열 1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

지들은 곡부를 피해 능선 사면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에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경사면에 위치하여 경사면 하단부는 유실되었거나, 다른 유구와 중복 축조되어 있어 정연한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기를 달리하는 3개의 문화층을 기반으로 조성되었고,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내부시설은 없거나, 주혈, 수혈만 설치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벽구와 노지 등이 추가된다. 수혈은 각 문화층에 조성된 주거지 주변에서 다수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혈들은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내·외부에서 별다른 시설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수혈들은 주거지 주변에 분포하고, 상호 중복도도 낮은 편인데 반해, 삼국시대 수혈들은 최대 10기가 중복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확인된다. 유물은 고배, 노형토기, 개, 배, 광구소호, 기대, 양이부호, 옹, 발, 부형토기, 시루, 왜계 토기 등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주로 수혈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일시적으로 폐기된 수혈의 경우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전반적인 유물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삼한~삼국시대 문화층은 3세기 중후엽, 삼국시대 Ⅰ단계는 4세기 전중엽, 삼국시대 Ⅱ단계는 4세기 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망덕리·신문리 생활 유적』.

토기류 1

토기류 2

기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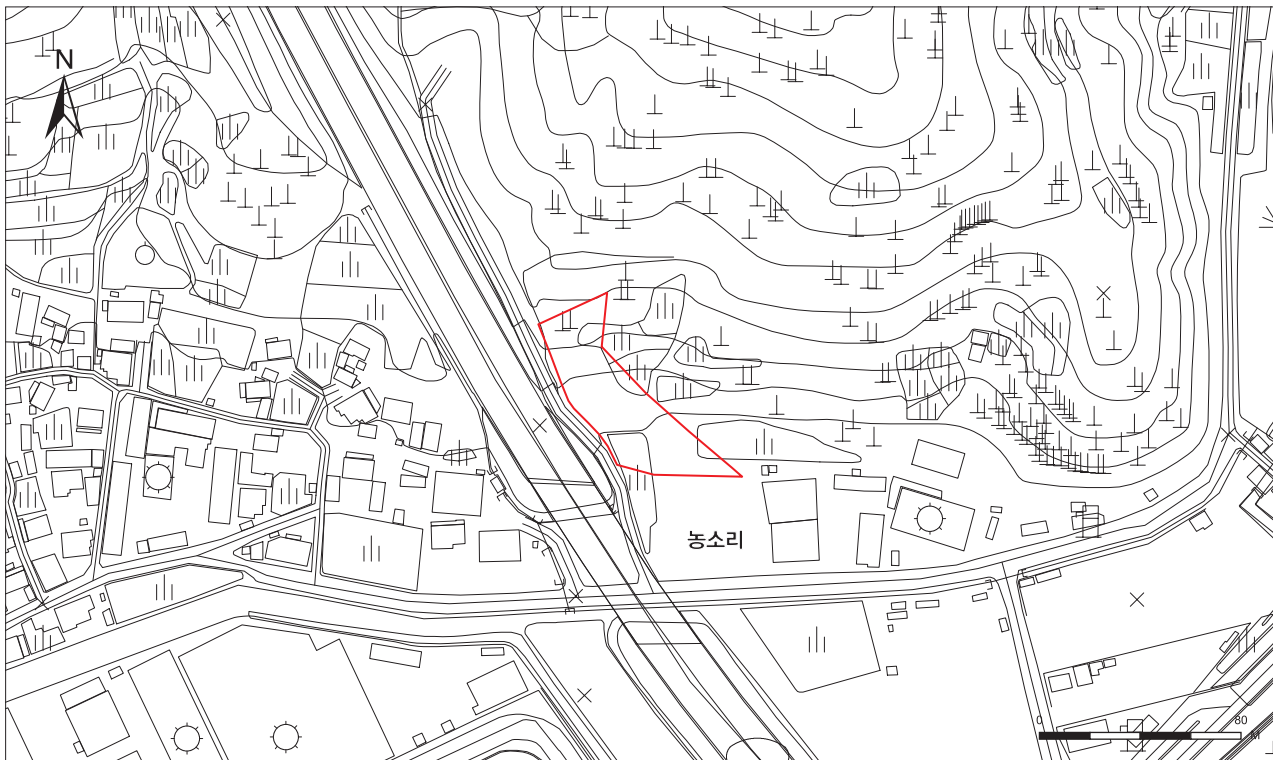
칠기완

## 7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산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5.10.~2015.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옹, 시루, 부형토기, 단경호

# 김해 농소리유적 _ 김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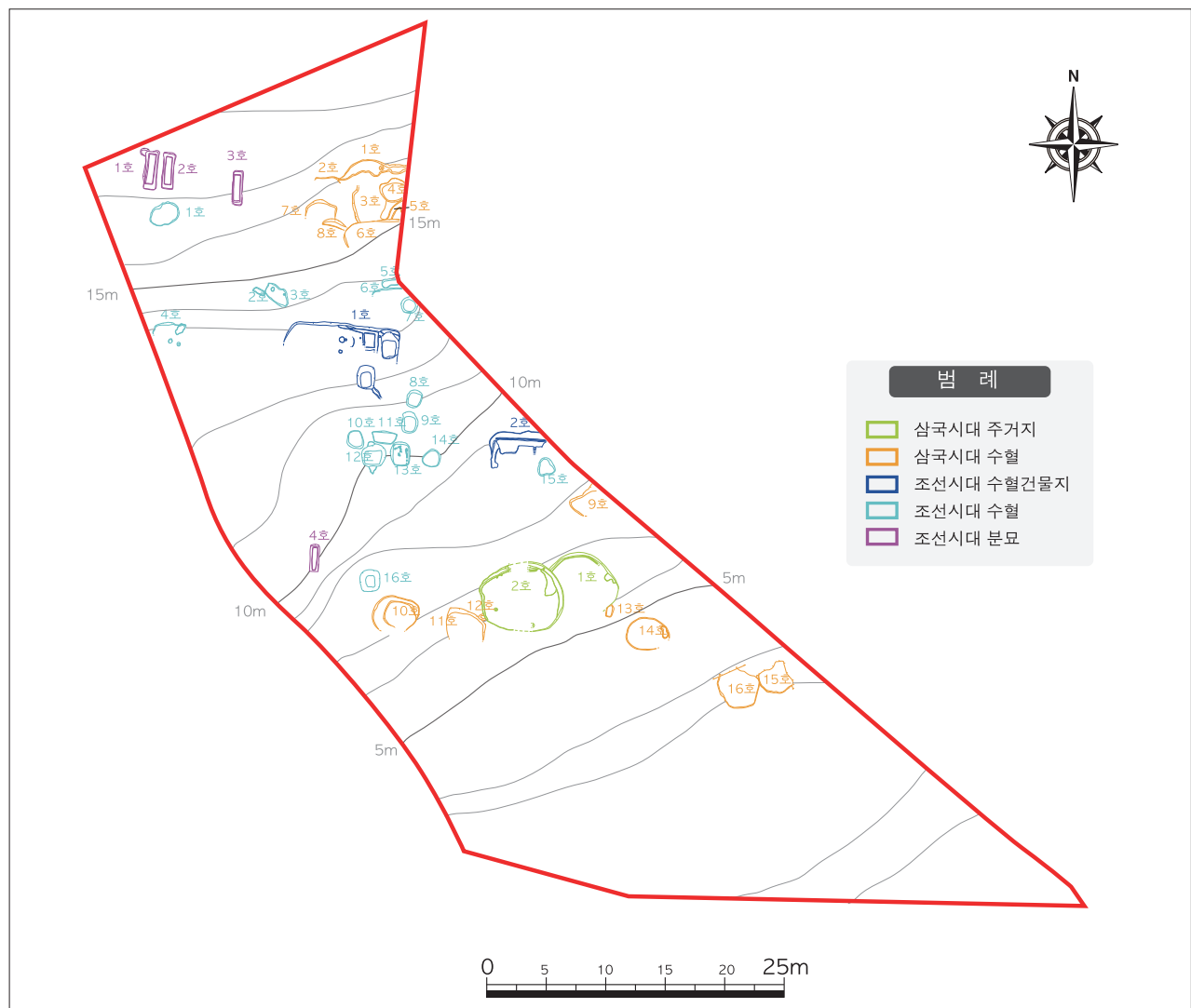
유적은 황새봉(해발 393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와 평탄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금음산(해발 376m)에서 발원한 조만강이 주촌면 일대를 관류하다가 서낙동강에 유입된다. 유적은 이전 조사된 농소리패총 분포범위의 서쪽부분에 포함되며 북쪽으로 연접하여 신답왜성과 농소리유적(경남문화재연구원, 2004)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2동, 수혈 16기와 조선시대 수혈건물지 2동, 수혈 16기, 분묘 4기 등의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주거지는 해발 6.5~7m 선상의 구릉 사면 말단부에 조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단비는 1.12~1.16:1이다. 2동의 주거지는 상호 중복 조성되었는데, 후축된 1호 주거지가 2호 주거지의 벽면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어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주거지의 바닥은 점질토로 정지하였으며 일부 경화면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벽구와 노지, 주혈이 확인되

유적 위치도

었다. 벽구는 주거지 내부에 유입되는 물을 빼기 위한 외부돌출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벽체의 기초를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주혈은 1호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2호 주거지에서 6기가 조사되었다. 규모는 직경 10~25㎝, 길이 5~28㎝ 정도인데, 주혈 간 간격은 불규칙하며 정연한 배치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지는 무시설식이 설치되었다. 1호 주거지의 노지는 북동벽에 연접해서 설치되었으며 상부구조가 유실되어 정연한 구조는 알 수 없다. 2호 주거지의 노지는 바닥에 피열흔만 관찰되며 북동쪽에 설치되어 있다. 수혈은 주거지에 비해 유구수는 많지만, 평면형태가 부정형, 장방형, 원형 등으로 다양하고, 중복양상이 심해 정연한 구조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유물은 시루, 부형토기, 장란옹, 단경호, 고배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적의 시간적 배경은 삼한~삼국시대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3~4세기대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농소리유적과 동일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7, 『김해 농소리유적-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호 주거지

10호 수혈

출토유물

# 72

## 김해 농소리유적 _ 김해 국도대체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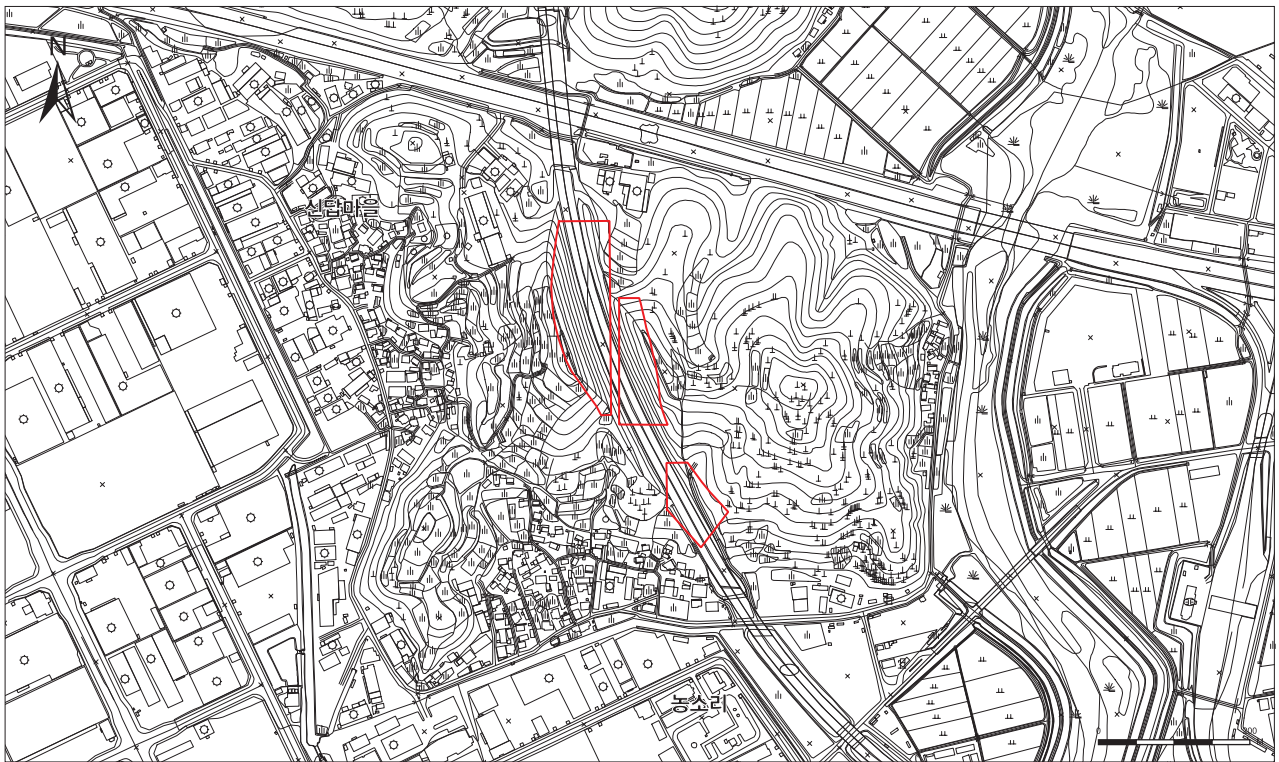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7-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1.6.~2002.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연질토기 편, 방추차, 철부, 석기

유적은 김해시 진례면 황새봉(해발 313m)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신답왜성의 북쪽에는 천곡산성이 위치하고, 천곡산성과 신답왜성 사이에는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삼한시대 유적은 신답왜성 본환이 위치하는 구릉 정상부와 2지환이 위치하는 A구간 사이의 남쪽 구릉 사면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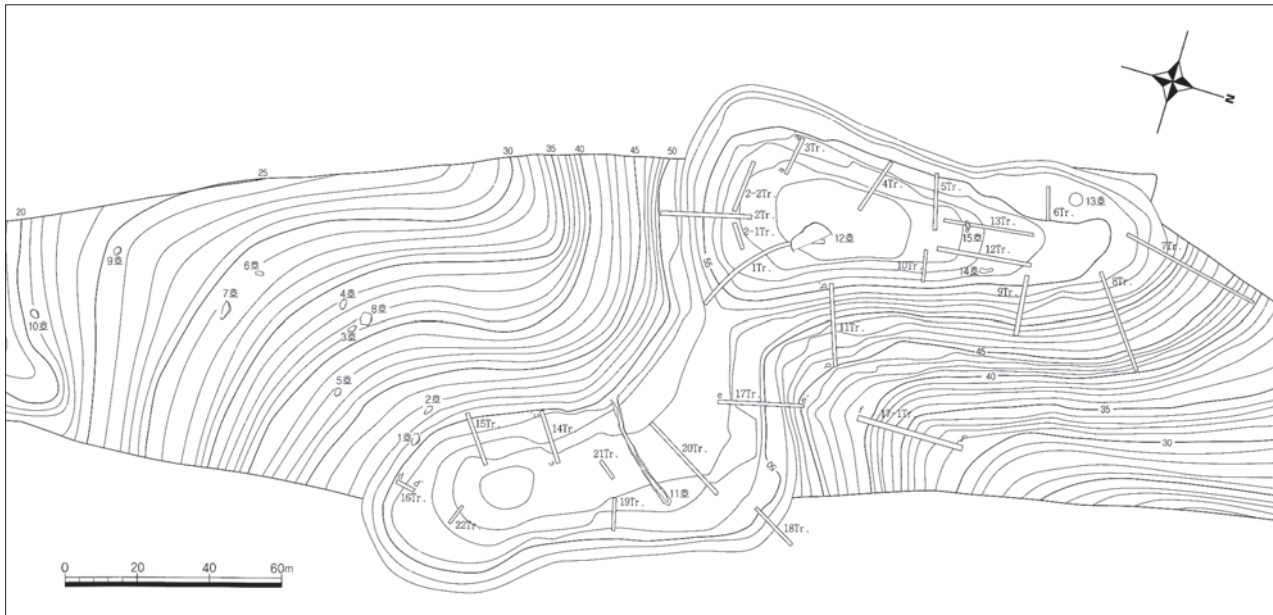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한시대 유구는 수혈 14기와 구 1기가 조사되었다. 대체로 구릉 사면을 이용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폐기된 이후 장기간 지속된 풍화와 퇴적작용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고, 표토를 제거하면 대부분 기반층이 바로 확인된다.

잔존양상만을 가지고 수혈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규모와 내부양상, 유물 등을 감안할 때, 주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수혈은 4기 정도이다. 이 중 13호 수혈은 규모가 길이 372㎝, 너비 355㎝, 깊이 18㎝로 큰 편은 아니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동-서향이며 잔존한 깊이를 감안하면 상부는

유적 위치도

대부분 삭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동쪽과 서쪽 구릉의 연결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33.2m, 너비 2m, 깊이는 1m 정도이다. 입지상 주변을 조망하기 유리한 지점에 축조된 점과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 편들이 출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나, 정확한 성격을 알 수는 없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며 방추차, 철부, 석기 등도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대부분 적갈색과 회백색조의 연질토기이며 회청색경질토기도 일부 출토되었다. 대부분 잔 편으로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외면에 타날문이 시문된 편들도 확인된다.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할 때, 창원 창곡동유적 등과 비슷한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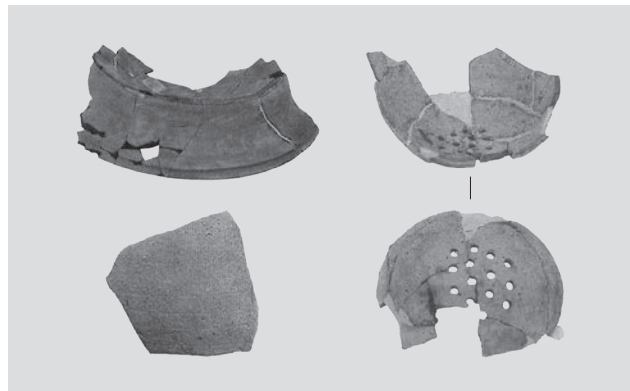
이상 유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은 임진왜란 시 왜성이 조성될 정도로 입지가 탁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삼한시대부터 인간생활이 영위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김해국도대체구간 내(퇴래–농소) 김해 농소리유적』.

유구 배치도

13호 수혈

출토유물

# 73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5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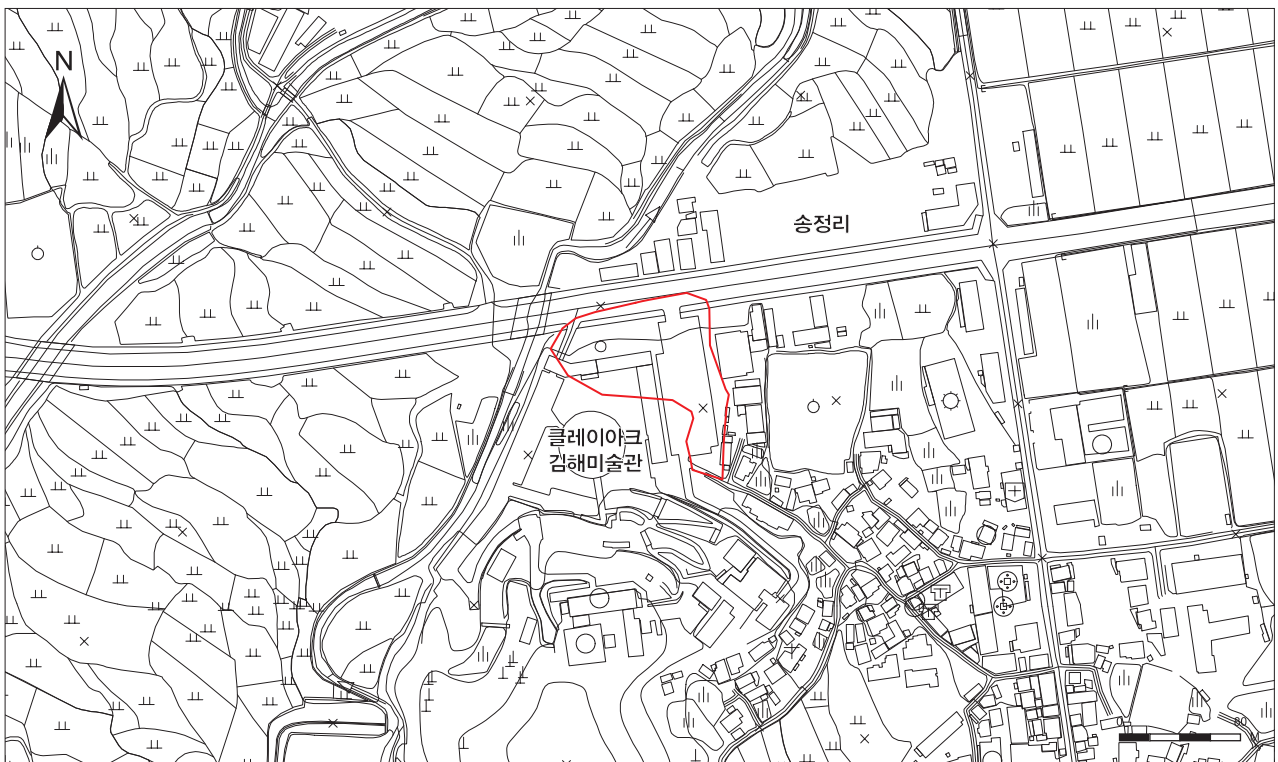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3.4.~2003.7.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 고배

# 김해 송정리유적 _ 김해 진례 도예촌 조성부지 내 유적

유적은 진례면사무소의 서편에 위치한 해발 30~5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성 산지와 북서쪽으로 인접한 충적대지로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된 지역이다. 주변지형은 남서쪽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북쪽은 논 경작지 일대, 동쪽은 진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상건물 3동, 수혈 16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총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Ⅰ층은 지표 아래 30㎝ 내외로 흑색사질점토의 표토층이다. Ⅱ층은 회갈색사질점토의 망간 침전층이며 25㎝ 내외이다. Ⅲ층은 40㎝ 내외의 회색사질점토이며 Ⅳ층은 풍화암반층으로 기반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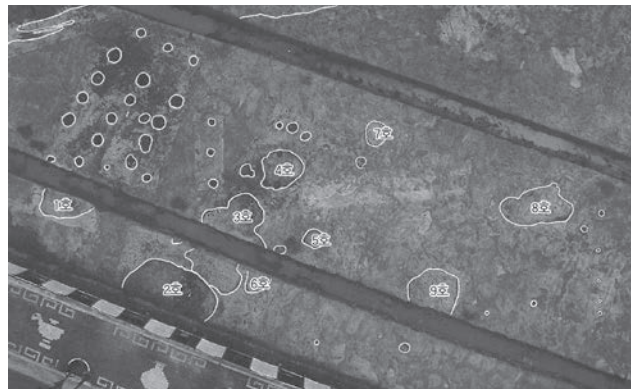
고상건물은 유적의 동쪽에 치우쳐, 남-북 방향으로 3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축방향은 동일하고,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 구조는 2×1칸, 3×2칸이다. 이러한 고상건물의 입지와 배치양상을 통해 볼 때, 유구가 수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량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저장하기

유적 위치도

위한 용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대구 시지동유적 등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정형성이 있는 것이 6기, 부정형인 것이 12기이다. 평면형태가 정형성을 갖춘 수혈은 원형, 타원형, 장방형, 방형 등으로 구분되며 2호 수혈을 제외한 나머지 수혈들은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2호 수혈은 유구의 북쪽이 도로개설과 측구 설치로 인해 파괴되어 1/2 정도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520㎝, 너비 216㎝, 깊이 10㎝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단각고배 대각을 비롯하여 파상문이 시문된 호의 구연부 편, 기형파악이 어려운 적갈색연질토기 편 등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주혈이나 부뚜막 등 내부시설은 없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감안하면 저장시설이나 토취갱일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며 잔 편이다. 전술한 2호 수혈에서는 일단투창고배와 단각고배 대각이 출토되었는데, 일단투창고배는 장방형 투창이 뚫려 있으며 투창 하단에는 돌대가 둘러져 있다. 대체로 6세기대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6세기에 접어들어 유적을 조영한 집단은 신라의 세력권 아래 있던 지역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해 일대에 신라의 영향권이 강화될 시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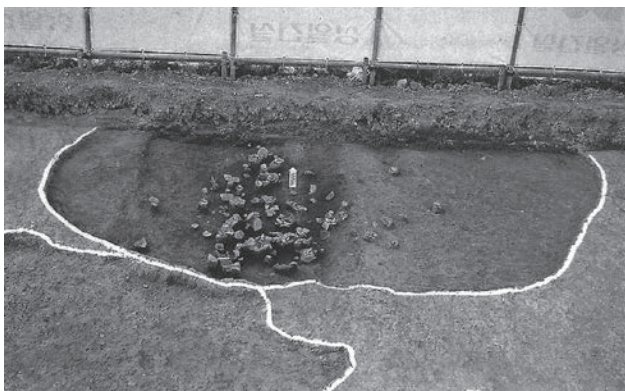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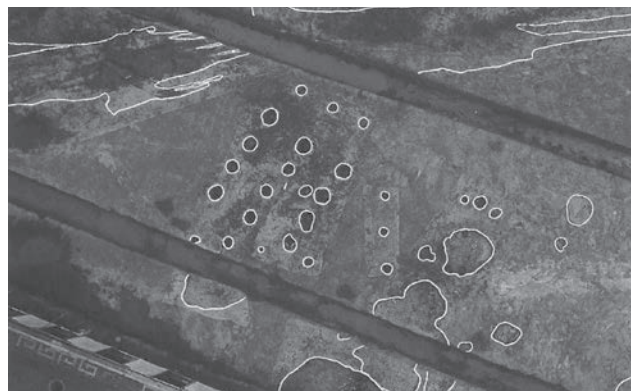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 『金海 進禮 陶藝村 造成敷地內 道 金海 松亭里 遺蹟』.

유적 전경

수혈유구 전경

2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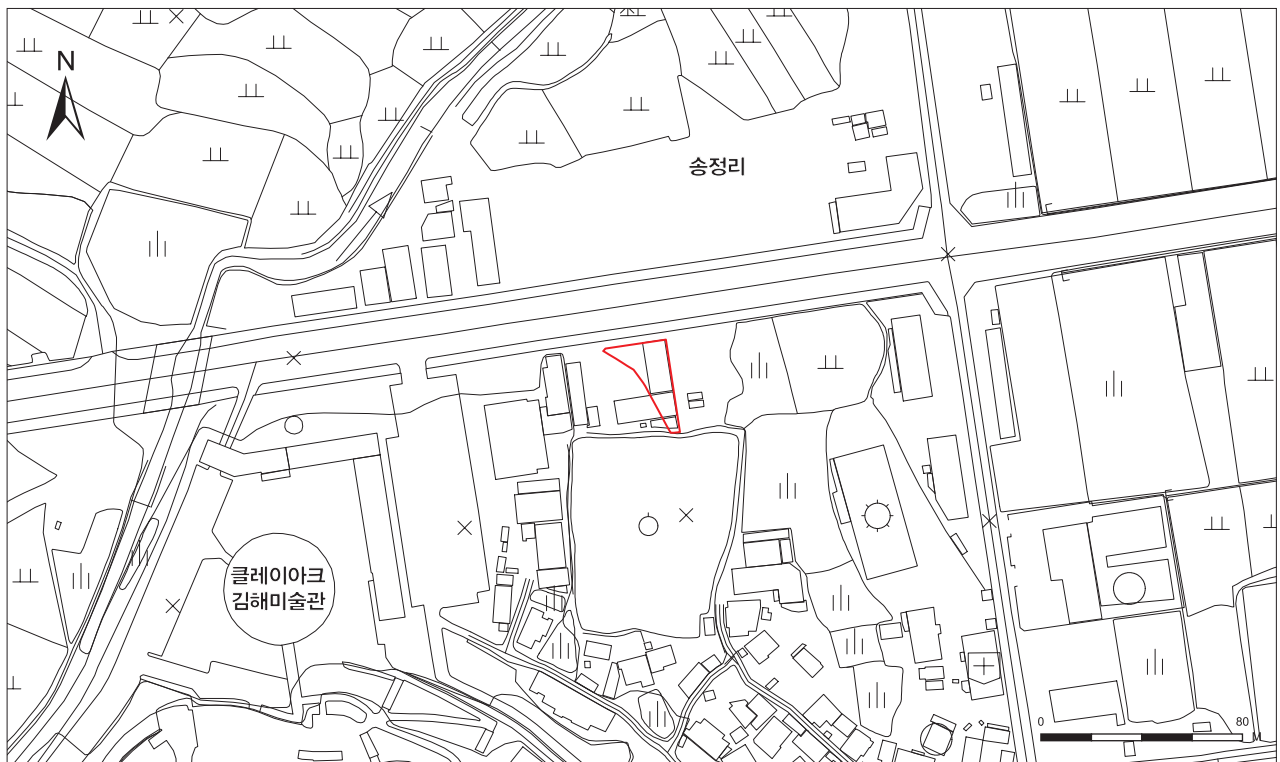
1호 고상건물

74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6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3.5.~20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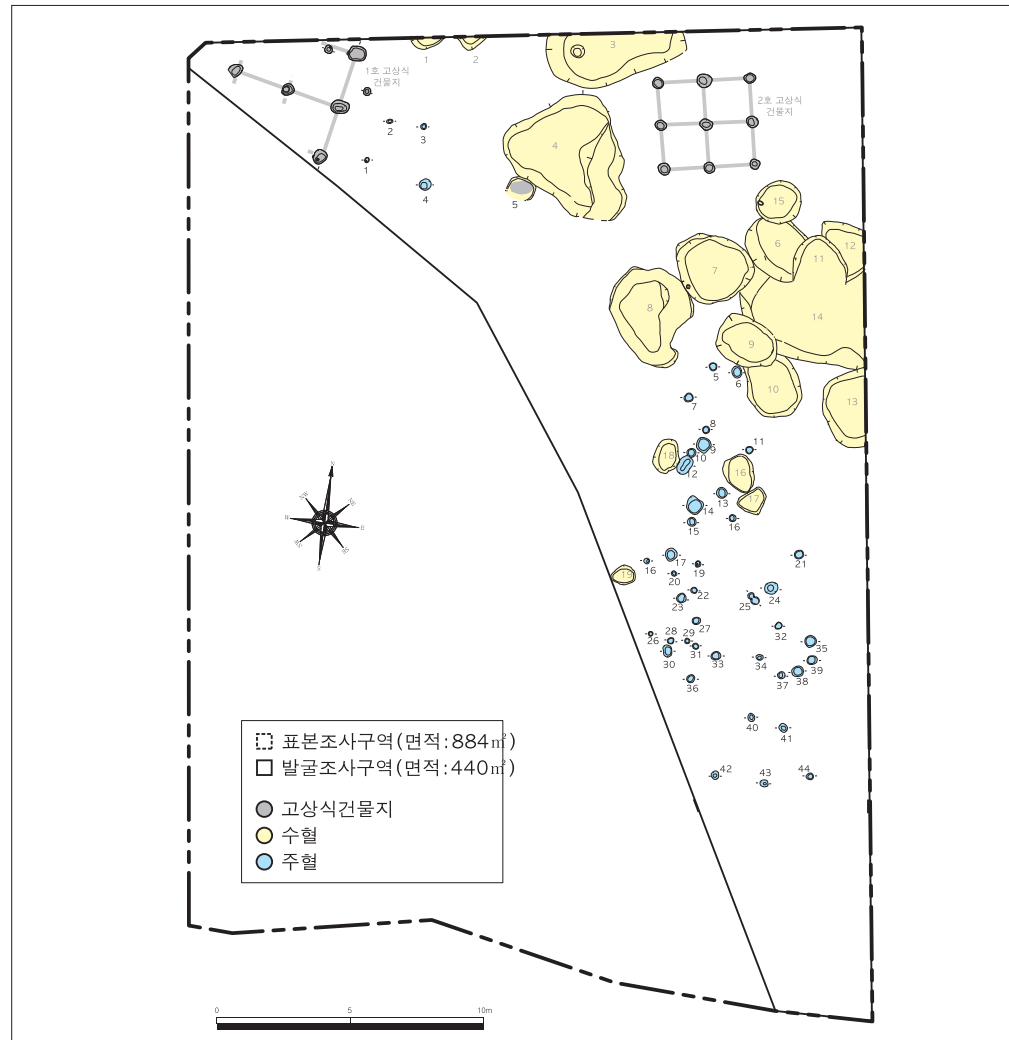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고상건물 / 개,
고배, 파배, 광구소호,
대부완, 시루, 기대

# 김해 송정리 36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은 지형적으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배후의 저산성 구릉지(해발 30~50m 내외)와 접하는 북서쪽 일대의 충적지에 해당한다. 지세가 험하지 않은 야트막한 구릉을 배후에 등지고 전방으로 비교적 넓은 선상지가 펼쳐져 있어 인간생활이 용이한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고상건물 2동과 수혈 19기 등의 유구와 개, 고배, 파배, 광구소호, 대부완, 시루, 기대 등의 삼국시대 유물이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조사된 수혈은 유적의 남쪽보다 북쪽에 설치된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단독 조성된 것도 있지만, 각각 2~10기 정도의 복잡한 중복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수혈은 노출양상을 감안하면 주거지보다는 공방과 폐기장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물은 비교적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으나, 출토위치가 불분명하거나, 기형이 제대로 잔존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기를 감안하면 대체로 5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적은 5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라에 병

유구 위치도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5, 『김해 송정리-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6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합되기 이전의 가야 재지세력의 유적으로 신라에 병합되기 이전부터 신라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행한 유적으로 추정된다.

유구 배치도

수혈 중복모습

2호 고상건물지

# 75 김해 산본리 창고 신축 예정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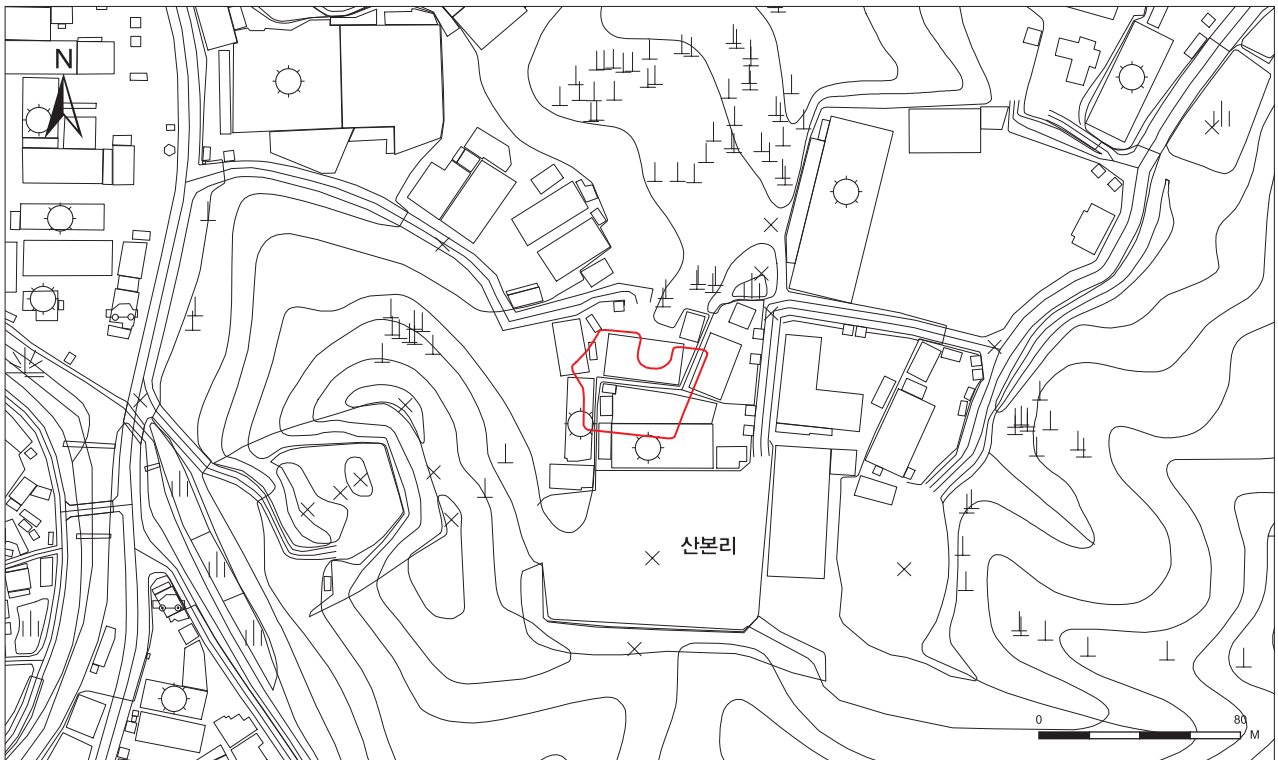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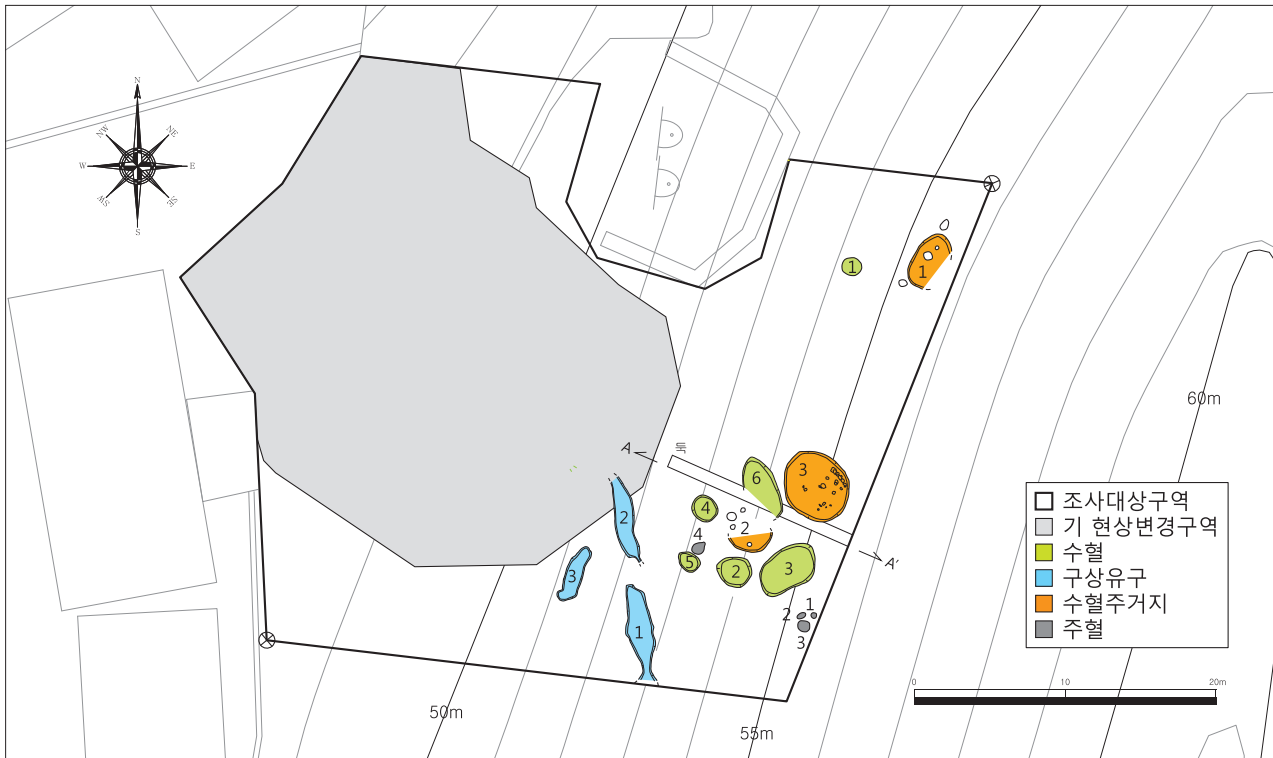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산16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1.2.~2011.3.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토기 편

유적은 진례면의 남서쪽에 위치한 매봉산(해발 336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려오는 해발 50~60m 선상의 남서쪽 구릉 사면부에 위치한다. 유적 일대는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학성고분군과 남서쪽으로 인접한 지역이며 대성동고분박물관의 입회조사에 문화층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2동, 수혈 3기, 고려시대 주거지 1동, 구 3기를 비롯하여 시기미상의 수혈 3기와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해발 54~56m 선상의 북동쪽 구릉부 남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잔존규모는 직경 4m 내외이고, 장단비는 1.1~1.4:1, 면적은 17㎡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이다. 내부시설은 삼국시대의 경우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나, 정연한 구조와 특징은 알 수 없다. 바닥은 부분적으로 회갈색점질토를 이용하여 다짐한 것도 확인되나, 그 외는 특별한 시설 없이 기반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주거지의 양상을 통해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볼 때, 유적의 삼국시대 주거지는 주변유적과 비교하면 평면형태 및 규모, 내부시설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시간적인 차이라 판단되는데, 본 유적의 주거지들이 주변유적들에 비해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호, 대부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8점에 불과하다. 토기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거나, 승석문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부분적으로 정면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감안하면 4세기대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삼국시대 유적은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유적들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3, 『김해 산본리 창고 신축 예정지 내 유적』.

유적 전경

3호 수혈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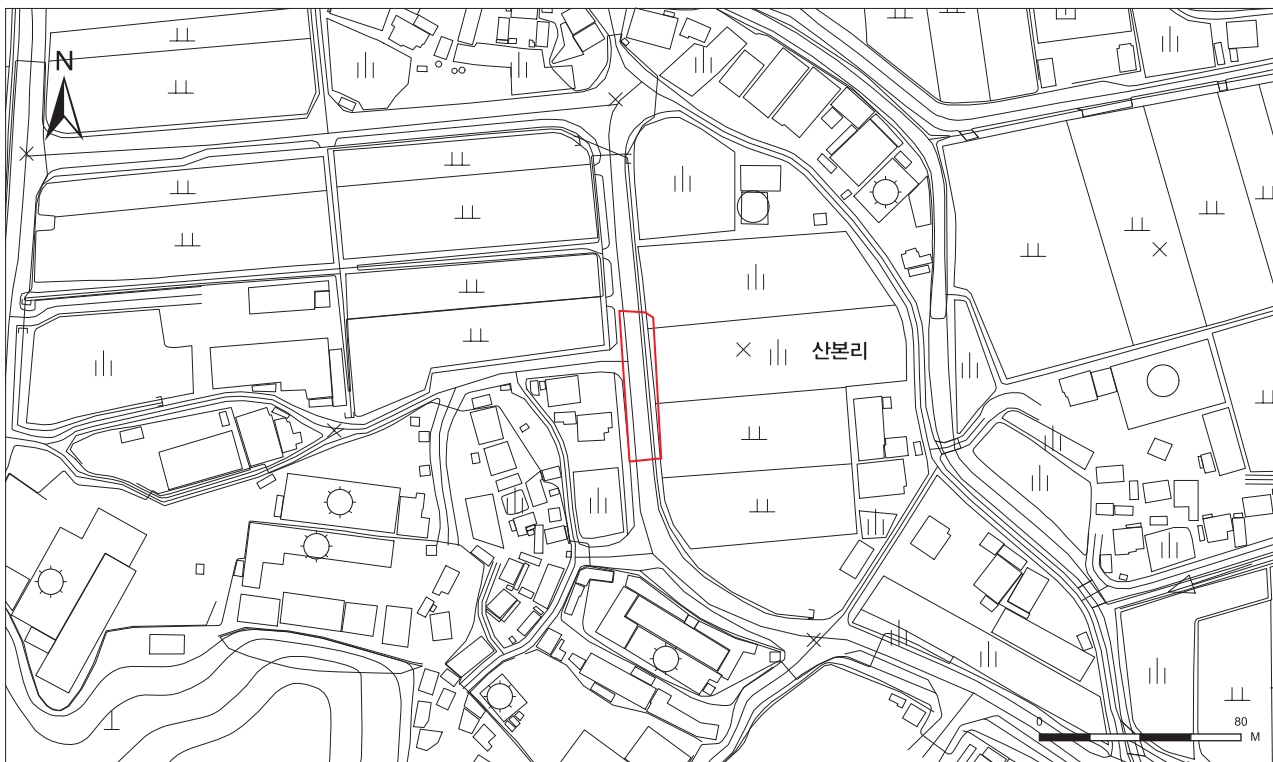
## 76

# 김해 진례 송현리유적 _ 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68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2005.12.~2006.1.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 고배, 기대, 옹, 호

유적은 매봉산(해발 338m)에서 서쪽으로 뻗은 지맥으로 학성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71m 정도되는 구릉의 사면 말단부(해발 26~27m)에 위치한다. 조사 이전에는 경작지(논)로 사용되었는데, 경지정리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져 원형이 훼손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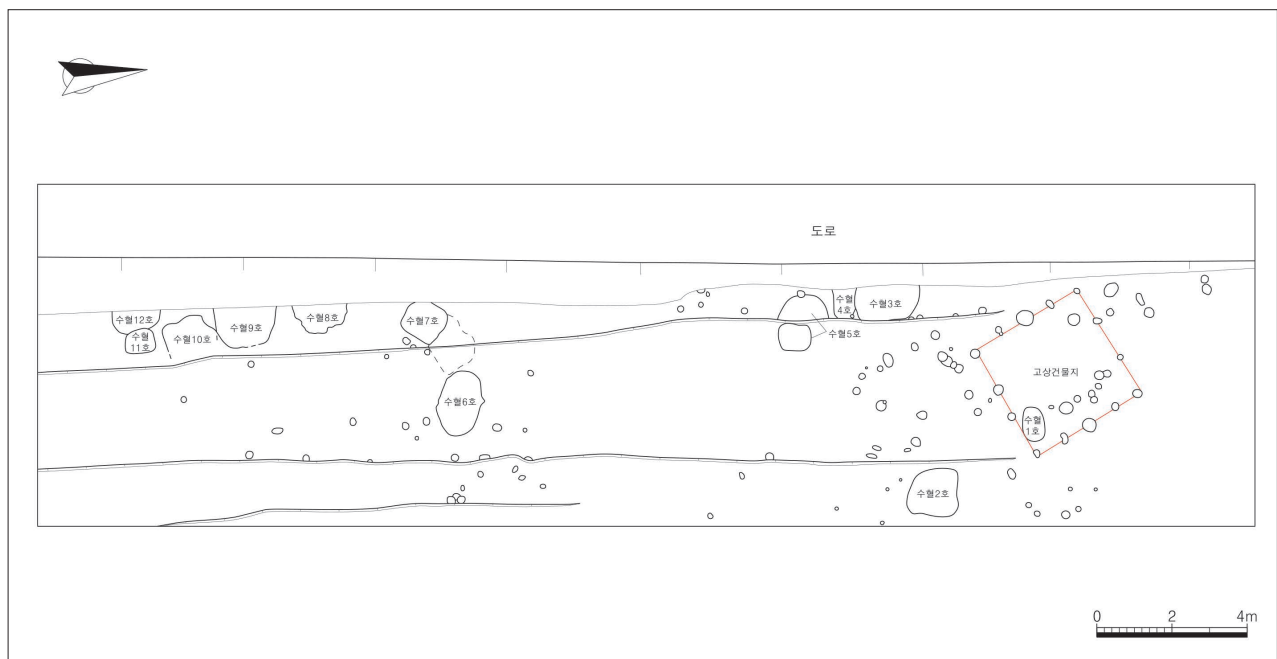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고상건물 1동과 다수의 주혈, 수혈 12기가 조사되었다. 먼저, 유적의 층위는 5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Ⅰ층은 표토층으로 해발 27m 선상에 형성되었다. Ⅱ층은 명회갈색사질점토에 산화철 성분이 많이 포함된 간층으로 현대 경작층의 하층으로 판단된다. Ⅲ층은 삼국시대 문화층으로 해발 26.5m 내외에 위치하며 암회갈색망간침전층으로 수혈과 주혈 등의 유구가 노출된다. Ⅳ층은 황갈색 점사질토로 점성이 강한 층이며 Ⅴ층은 명갈색 점질토로 풍화암반층이다. 전반적으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으며 매봉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지맥으로부터 붕적되어 형성된 층위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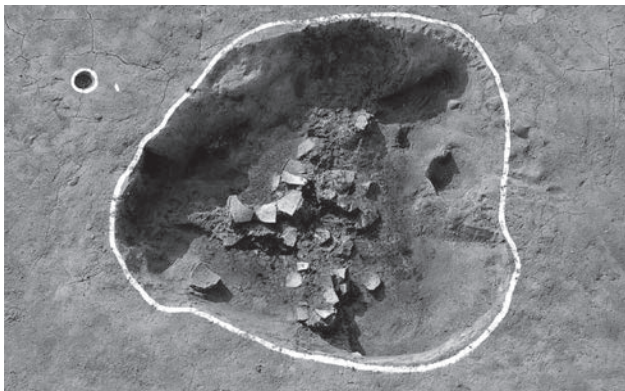
고상건물은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5m, 너비 5m 정도이다. 주축방향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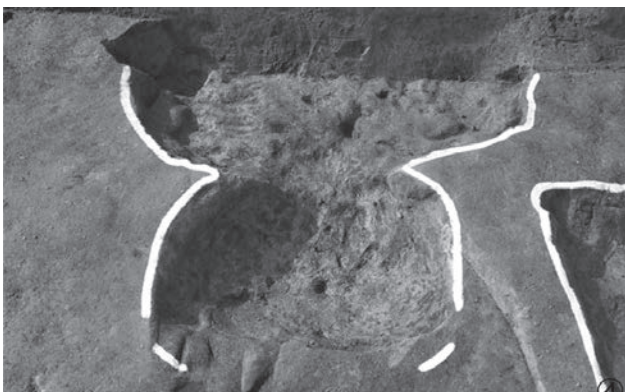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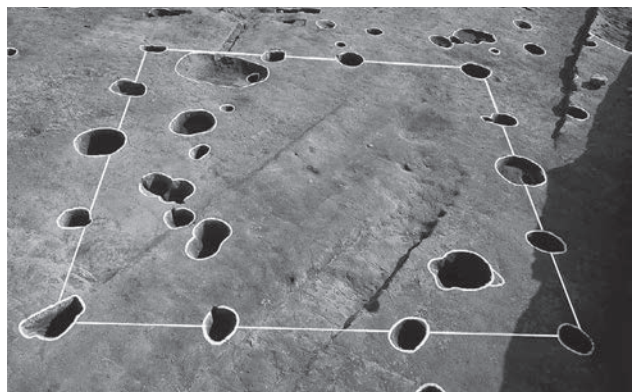
남동-북서향으로 정면 4칸, 측면 4칸의 구조이다. 주혈은 고상건물 1동 외에 정연한 배치파악은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남동-북서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수혈은 총 12기가 조사되었는데, 교란으로 훼손이 심하고 일부 유구들은 도로 하부로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서쪽부분에서만 수혈이 확인되며 4기를 제외하면 모두 유적 외곽으로 연장되고 있어 정연한 구조파악과 내부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타원형과 부정형이며 잔존규모는 대체로 직경 3m 이하의 것이 대부분이다. 바닥은 요철이 심하며 정형성이 없는 주혈이 설치된 수혈도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수혈에서는 많은 양의 목탄이 노출되었고, 8호 수혈에서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것이 탄화되어 바닥 전체에 깔려져 있었다. 유물은 토기 편이 대부분이나, 8호 수혈에서 지석, 9호 수혈에서는 대석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의 정확한 성격은 잔존양상만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우나, 주거지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공방, 토취장, 저장시설 등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 다수의 토기류와 도자, 지석 등 비교적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무투창고배 각부 편 등은 소량이 출토되고, 5세기 초중반으로 편년되는 파상문이 시문된 발형기대, 유개대부완, 이단교호투창고배 등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심시기는 5세기 초중반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 문화층이 잔존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08,『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3-2호선)사업부지내 진례 송현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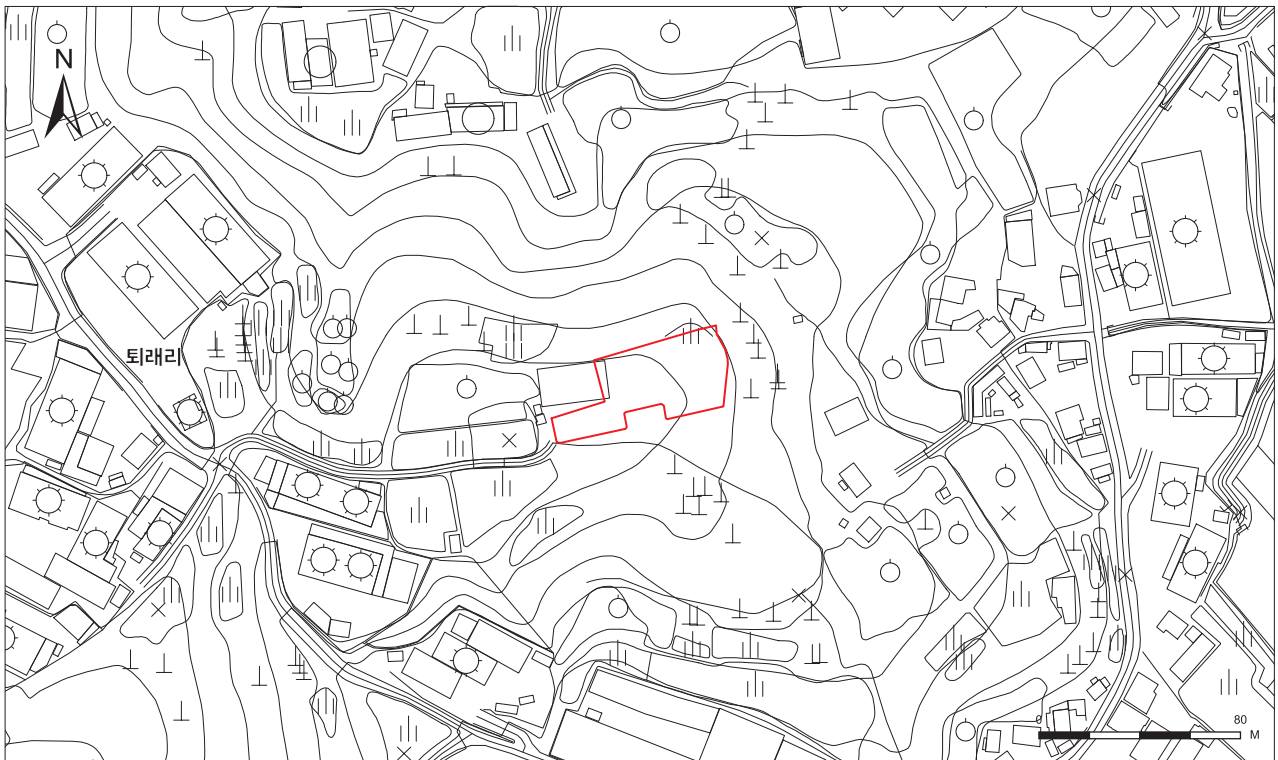
9·10호 수혈

11·12호 수혈

고상건물지

# 77 김해 퇴래리 841-2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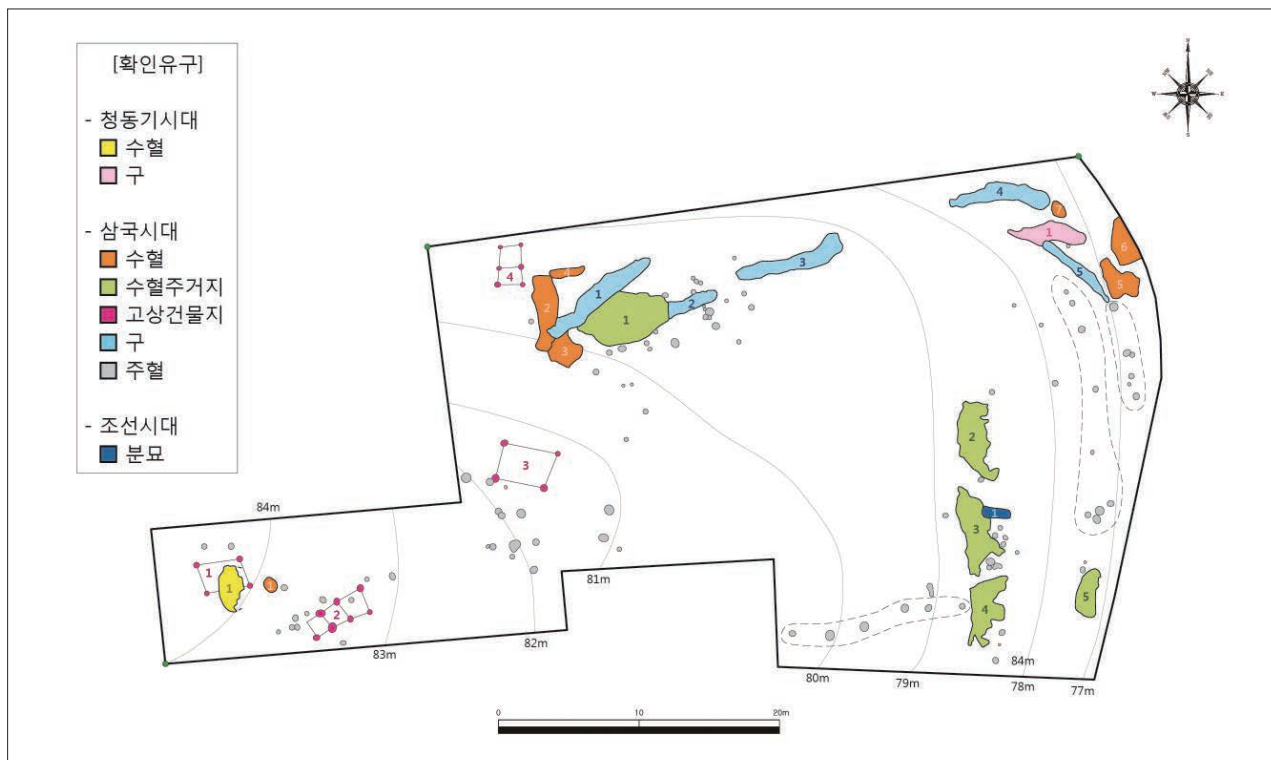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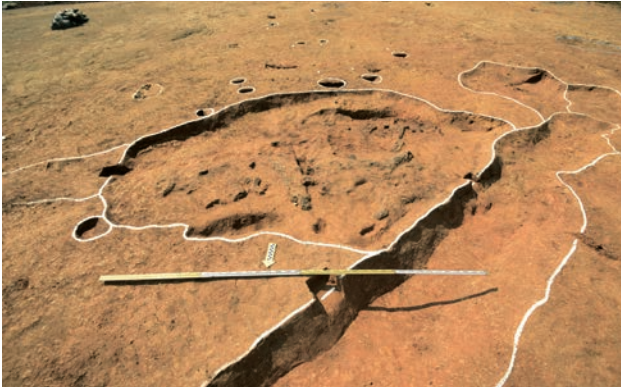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841-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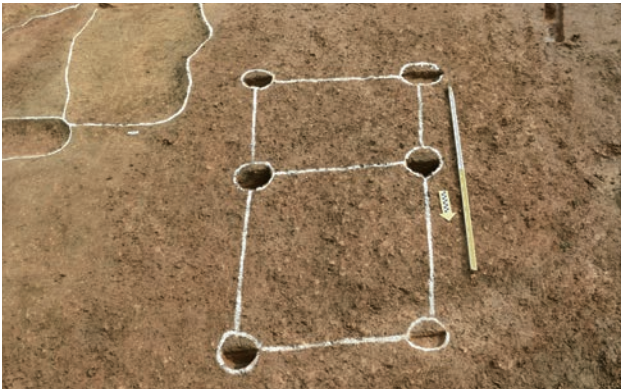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6.4.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 토기 편

유적은 지형적으로 남동-북서로 발달한 선구조를 따라 명동 저수지에서 퇴래들 방향의 곡간지대의 사이로 금음산(해발 376m)에서 남동-북서 방향으로 발달한 중저산성 산지가 위치한다. 화포천과 이 산지가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분기한 것이 퇴래미산(해발 150.7m)이며 화포천은 구심상하계망을 가진 진례 분지에서 집수되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유적이 위치한 신촌마을은 퇴래미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 둘레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퇴래미산에서 화포천의 배후습지인 퇴래들 방향으로 돌출된 구릉의 남동쪽 능선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퇴래리고분군 ①, ②가 위치하며, 지표상에서도 삼국시대 토기들이 확인된다. 남쪽으로는 과거부터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국도 14호선이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 동쪽으로 김해, 서쪽으로 진영과 연결된다. 유적은 퇴래미산의 동쪽 능선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최근까지 가죽나무 및 보리밭으로 경작되어 원지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유적 위치도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 1기, 구 1기와 삼국시대 주거지 5동, 고상건물 4동, 수혈 7기, 구 5기, 주혈, 조선시대 분묘 1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전체적으로 삭평이 심하여, 대부분 표토층 아래에서 기반층인 황갈색풍화암반토가 바로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표토층-퇴적층-삼국시대 유물포함층-기반층으로 퇴적되어 있다.

삼국시대 유구 중 1호 주거지는 유적 북쪽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유구의 북쪽은 후축된 1호 구가 조성되면서 파괴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잔존규모는 장축 6.6m, 단축 3.4m, 깊이 0.6m 정도이다. 바닥은 기반토를 굴착한 후 평탄화하여 상면床面으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상부는 일부 삭평되었으며, 주거지의 남장벽은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비교적 저평하게 굴착한 2단 굴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반의 기능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는 목탄이 전면적으로 확인되는 갈색점질토가 일시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면에서 불에 맞아 소결된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폐기된 화재주거지로 판단된다. 유물은 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이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는 유적 동쪽에 위치하며 남쪽과 동쪽을 삭평으로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다. 잔존규모는 길이 5.3m, 너비 2.2m, 깊이 0.2m이며, 내부에 벽구와 주혈이 설치되었다. 벽구는 벽면 하부와 바닥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였으며, 기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후 서장벽을 따라 2열로 설치하였다. 주혈은 벽구의 진행방향을 따라 8기가 조사되었으며, 잔존규모는 직경 20~26㎝, 깊

유구 배치도

1호 수혈주거지

4호 수혈주거지

4호 고상건물지

출토유물

이 25~92㎝로 다양하다. 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그리고 수혈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부정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0.8~5.4m, 너비 1.2~2.4m, 깊이 0.1~0.4m 정도이다.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2·5·6호 수혈에서는 내부에서 경질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고상건물은 유적 서쪽에서 조사되었는데 구조는 1×1칸, 2×1칸, 3×1칸 등 다양하다. 고상건물 주변으로 다수의 주혈들이 확인되는데, 고상건물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며 내부퇴적토 등을 감안하면 삼국시대 유구들과 동시기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유구의 배치양상을 통해 볼 때, 유적 중앙부에는 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지를 중심으로 고상건물과 수혈, 구, 주혈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수량이 적고, 대부분 잔 편으로 정확한 기형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인접한 김해 퇴래리유적, 김해 퇴래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을 참고할 때, 동시기인 4~5세기대의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8, 『김해 퇴래리 841-2·1051-1번지 유적』.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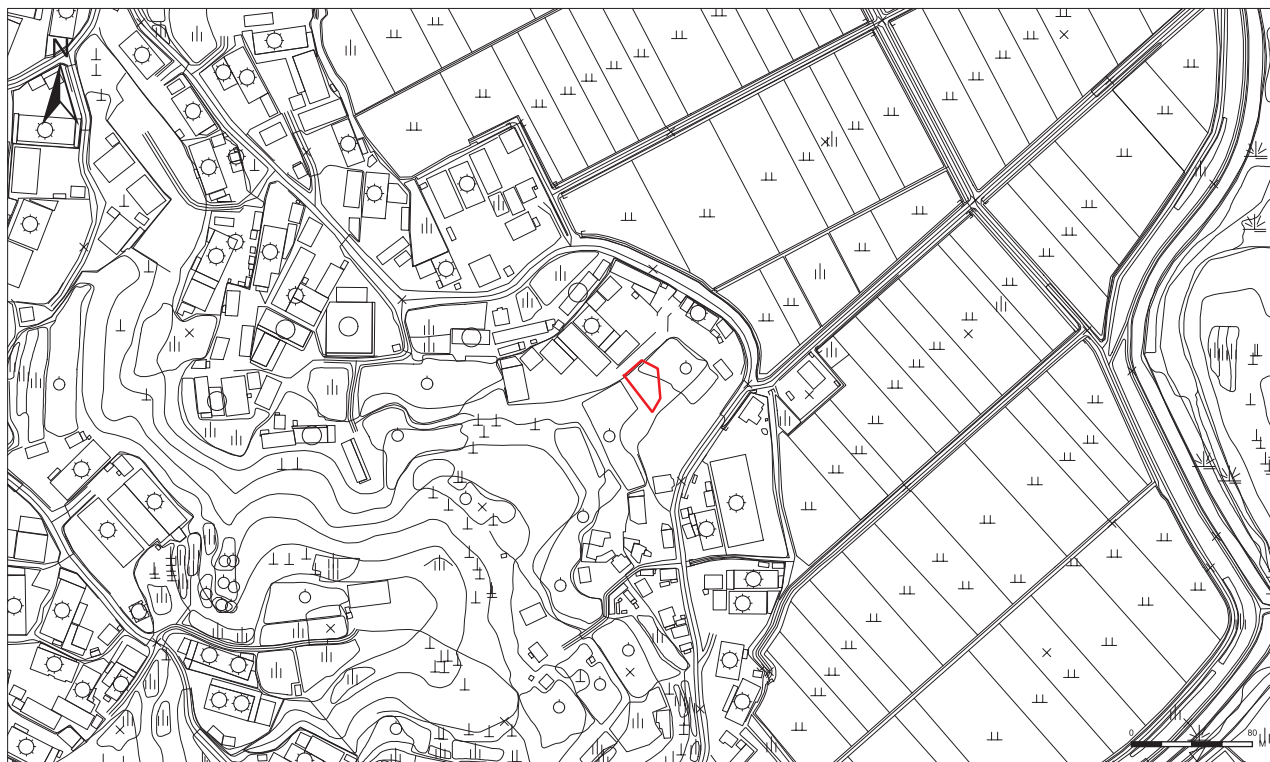
# 김해 퇴래리 875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퇴래리 87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5.12.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
고배 편, 연질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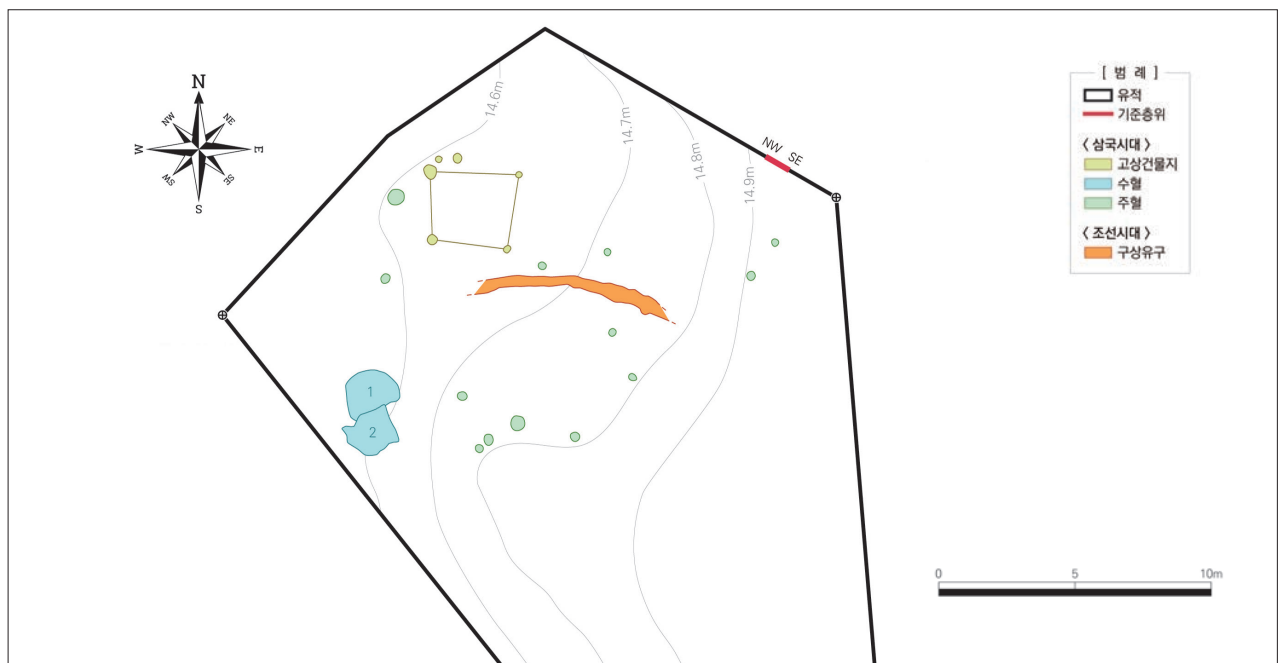
유적은 퇴래미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에 형성된 소구릉상의 정상부 및 완만한 사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서쪽의 퇴래미산(해발 151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부에 형성된 소구릉으로 남동쪽 경계면은 신촌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와 접해있고, 북-북서쪽은 비교적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퇴래미산에서 동쪽과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소하천이 개석해 형성된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고상건물 1동, 수혈 2기, 주혈 등과 조선시대 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전반적인 층위는 비교적 평탄한 저구릉의 정상부 및 완경사면에 해당하여 퇴적활동보다 침식활동이 우세한 관계로 표토층 아래에서 유구가 확인되는 기반층이 바로 노출된다. Ⅰ층은 표토층으로 현대 경작 및 교란으로 인해 형성된 층이며 Ⅱ층은 황갈색풍화암반토이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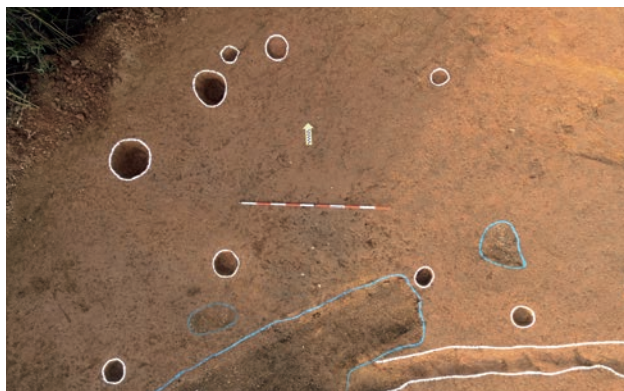
삼국시대 고상건물은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4기의 주 주혈과 2기의 보조주혈로 이루어졌다. 구조상 1×1칸 건물이며, 바닥 면적은 6.88㎡로 소형이다. 보조주혈은 고상건물의 북동쪽 모서리 부근 외곽에 고상건물의 축과 나란하게 2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출입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 내측 상면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사다리 흔적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상면은 지표와 이격시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혈 내부토 상에서 뚜렷한 목주흔은 관찰되지 않지만, 목주를 세운 자리로 추정되는 부분에 목탄 및 소토가 혼입된 갈색·암회색·암황갈색조의 실트질토가 확인되고, 굴착면 사이 공간을 굴착한 흙을 이용해 되메워 충전하였기에 목주의 설치를 유추할 수 있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부정형이며 중복 축조되었다. 선축된 2호의 북벽을 파괴하고, 1호가 설치되었는데, 2기 모두 깊이가 얕고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수혈 내부에서 고배 편, 연질토기 편 등이 출토되는 점을 볼 때, 고상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군은 유적의 북쪽 일대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규모는 직경 22~60㎝, 깊이 6~26㎝ 정도로 고상건물의 주주혈과 규모가 대동소이하다. 유적이 협소하고 분포에 있어 정형성이 없어 명확한 성격은 알 수 없지만, 내부퇴적토의 양상과 규모가 고상건물과 유사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 일대는 기존의 지표조사 결과, 퇴래리고분군 ②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발굴조사에서는 생활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출토유물과 연륜연대측정 결과로 볼 때, 4세기대 조성되었고, 인접한 김해 퇴래리 소업유적과 퇴래리고분군의 경우 6세기대까지 조영되었기 때문에 본 유적도 이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7, 『김해 퇴래리 875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2호 수혈

1호 고상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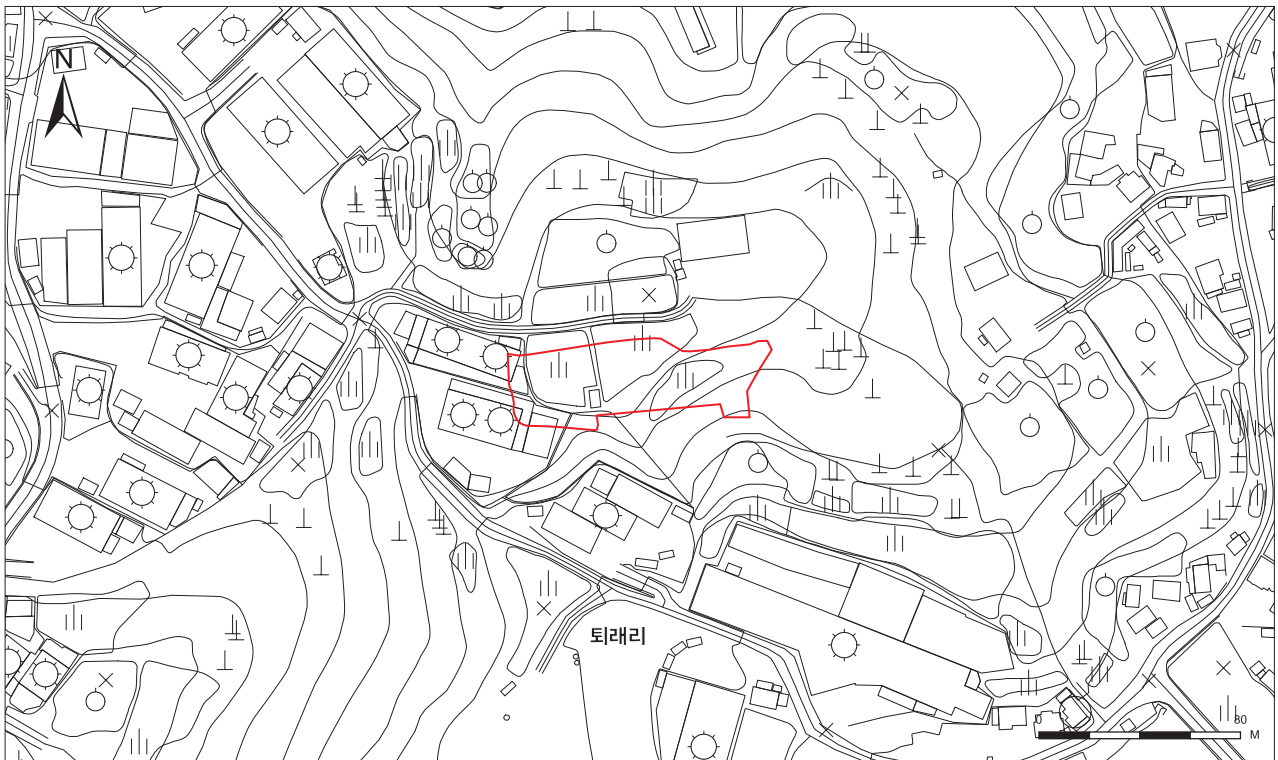
# 79

# 김해 퇴래리 1015-1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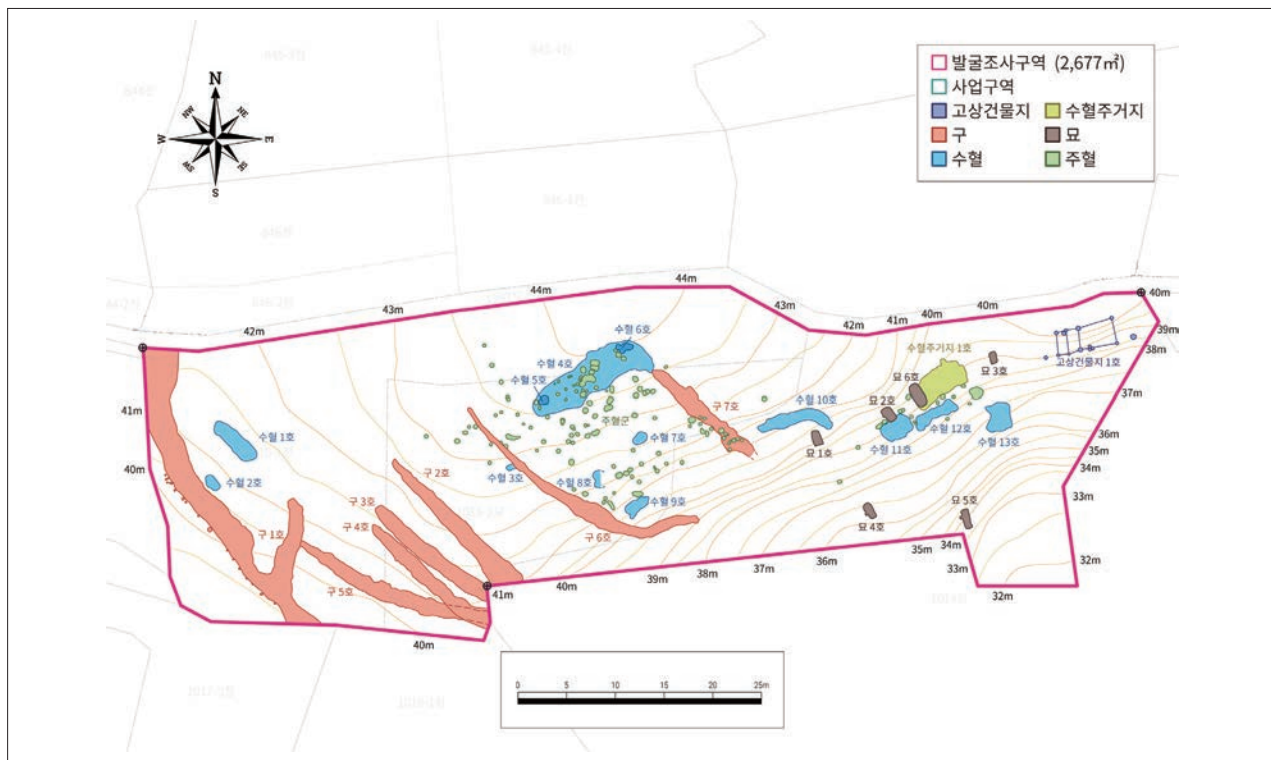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01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6.10.~2016.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구 / 토기 편

유적은 지형적으로 남동-북서로 발달한 선구조를 따라 명동 저수지에서 퇴래들 방향의 곡간지대의 사이로 금음산(해발 376m)에서 남동-북서 방향으로 발달한 중저산성 산지가 위치한다. 화포천과 이 산채가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분기한 것이 퇴래미산(해발 150.7m)이며 화포천은 구심상하계망을 가진 진례분지에서 집수되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유적이 위치한 신촌마을은 퇴래미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 둘레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퇴래미산에서 화포천의 배후습지인 퇴래들 방향으로 돌출된 구릉의 남동쪽 능선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퇴래리고분군 ①, ②가 위치하며, 지표상에서도 삼국시대 토기들이 확인된다. 남쪽으로는 과거부터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국도 14호선이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 동쪽으로 김해, 서쪽으로 진영과 연결된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화포천의 배후습지로 형성된 퇴래들이 유적 동쪽까지 넓게 펼쳐져 있어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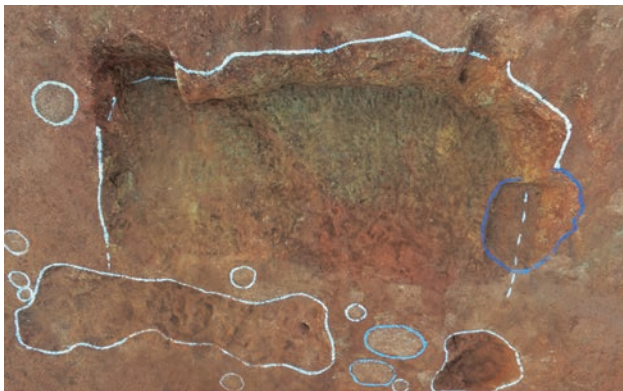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동, 수혈 13기, 구 7기, 고상건물 1동, 주혈 등과 조선시대 분묘 6기가 조사되었다. 먼저, 유적의 층위는 전체적으로 삭평이 심하여 대부분 표토층 아래에서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유구의 기반층인 황갈색풍화암반토가 바로 노출된다. 다만 유적 중앙부 및 동쪽 곡부사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된다. 층위는 크게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표토층 및 근·현대 퇴적층 Ⅰ층-삼국시대 유물포함층 Ⅱ층-기반층 Ⅲ층으로 구성된다. Ⅰ층은 세부적으로 2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Ⅰ-1층은 표토층이며 Ⅰ-2층은 복토층으로 현대 생활쓰레기가 일시에 퇴적된 양상이 관찰된다. Ⅱ층은 기반암이 노출된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 사면 아래로 퇴적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삼국시대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Ⅲ층은 경도가 약한 기반암의 풍화로 이루어진 기반층이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유적 동쪽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유구의 서쪽 일부는 후축된 조선시대 분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동단벽 일부는 나무뿌리 등에 의해 교란되었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며, 잔존규모는 길이 5.3m, 너비 2.8m, 깊이 0.6m 내외이다. 기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벽면을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기반토를 굴착한 후, 굴착면에서 5~10㎝ 정도 두께의 명갈색점토를 다짐하여 상면으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중앙부에서는 목탄이 일부 확인되나, 소결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목탄이 수혈주거지 상면 상부 매몰토와 함께 대상으로 퇴적되는 양상으로 보아 주거지가 폐기와 매몰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수혈주거지 바

유구 배치도

닥면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이 확인되었으며, 내부 매몰토에서 승석문이 타날된 토기 동체부 편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대체로 구릉부에 위치하는데, 상부는 대부분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또는 부정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0.8~13.2m, 너비 0.6~4.2m, 깊이 0.1~0.7m 정도이다. 내부토는 소토 및 목탄 등이 혼입된 갈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축조방법은 기반토를 굴착한 후 별도의 시설 없이 바닥 상면을 비교적 편평하게 정리하여 사용하였거나, 별다른 정지 없이 요철이 많은 풍화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삼국시대 연질 및 경질토기 편 등이 확인되나 토기 편이 모두 잔 편으로만 존재하며, 11호 수혈에서는 대호 편 1점이 수습되었다. 구는 일정 간격을 두고 북서-남동 방향으로 진행하며, 단면은 'U', 'V'자상으로 확인된다. 고상건물은 8기의 중심 주혈과 5기의 보조 주혈로 구성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장방형 건물이다. 주혈군은 유적 중앙부에 밀집분포하는데, 북서-남동 방향으로 열상배치된 주혈이 확인된다. 열상배치된 주혈의 내측은 주거지 및 수혈, 외측은 구가 주혈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북서-남동 방향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열상배치된 주혈은 서쪽과 동쪽의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구획 또는 방어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개체수가 적고, 대부분 잔 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형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인접한 퇴래리 일대의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 검토할 때, 4~5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8, 『김해 퇴래리 841-2·1051-1번지 유적』.

1호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출토유물

# 80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345-2·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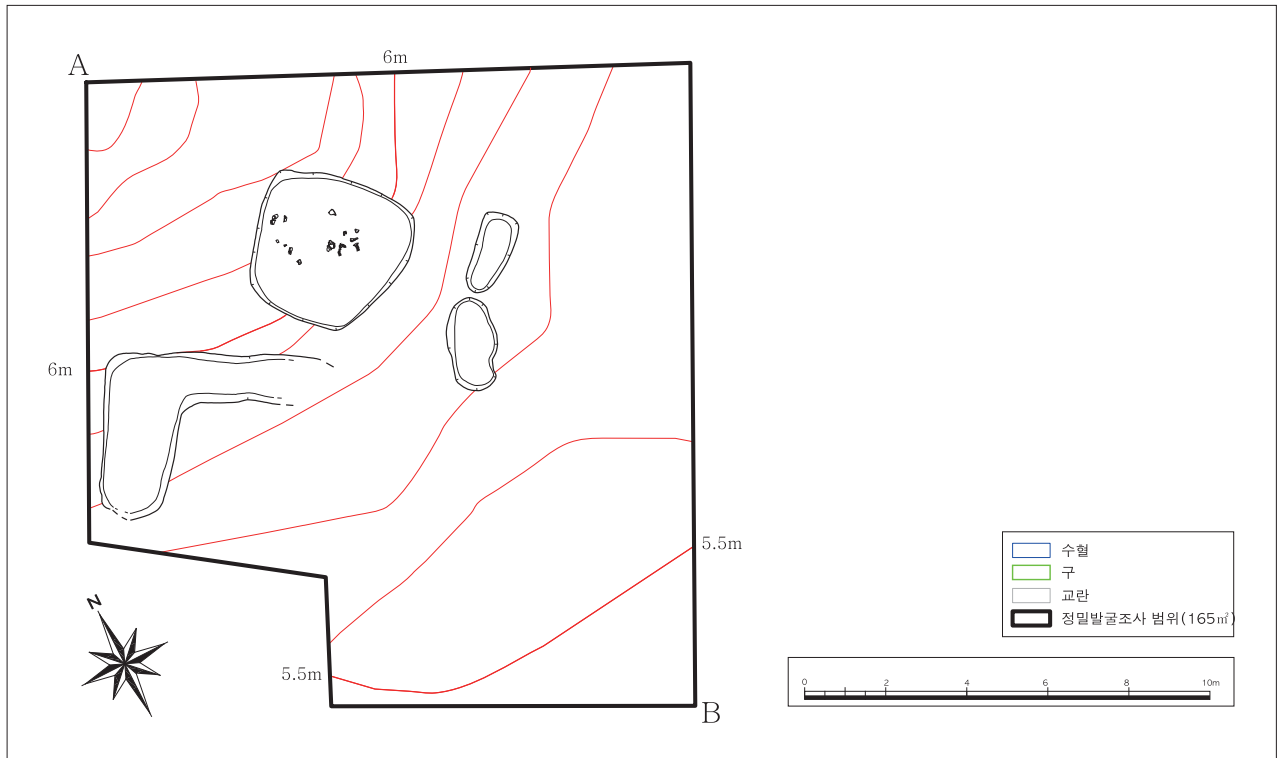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화문물연구원 / 2017.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기대

# 김해 안하리 1345-2·3번지 근생시설 및 주택 건립 부지 내 유적

유적의 서쪽과 남쪽에는 화포천이 흐르고, 북쪽에는 작약산(해발 377.8m), 북동쪽 멀리 김해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능선 상부에는 마현산성이 위치하여 낙동강으로부터 김해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유적은 지표조사 결과, 장재리 큰골유물산포지에 포함되어 있고, 유적에서 300m 이내의 지역에 장재리 큰골요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 3기와 구 1기가 조사되었다. 1호 수혈은 유적 중앙부의 해발 약 6m 선상에 입지하며 남동쪽으로 1.5m 정도 이격되어 2호 수혈, 남쪽으로 1.5m 정도 이격되어 3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386㎝, 너비 366㎝, 깊이 12㎝이다. 내부토는 풍화암반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이며 별다른 내부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유물은 통형기대 편, 단경호 편, 연질호 저부 편, 대각 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2호 수혈은 유적 중앙부의 해발 약 5.75m 선상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 1.5m 이격되어 1호 수혈, 남서쪽으로 0.3m 이격되어 3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 잔존규모는 길이 204㎝, 너비 90㎝, 깊이 12㎝이다. 내부토는 풍화암반알갱이가 다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이며 내부시설과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3호 수혈은 유적 중앙부의 해발 약 5.75m 선상에 입지하며, 북쪽으로 1.5m 이격되어 1호 수혈, 북동쪽으로 0.3m 이격되어 2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 장축방향은 남-북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230㎝, 너비 124㎝, 깊이 24㎝이며, 내부토는 풍화암반알갱이 다량, 목탄 소량이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이다. 2호 수혈과 동일하게 내부시설과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는 유적의 동쪽 경계부근에서 1기가 조사되었는데, 남서-북동향으로 진행하다 역'ㄱ'자상으로 꺾여 북서-남동향으로 진행한다. 길이는 890㎝이며, 별다른 내부시설과 유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1호 수혈에서 출토된 통형기대 편과 단경호 편 등은 김해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유적의 조성시기는 4세기 중후반대로 편년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화문물연구원, 2017, 「김해 안하리(1345-2·3) 근생시설 및 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적 전경

1호 수혈

1호 수혈 유물 출토모습

1호 수혈 출토 통형기대

1호 수혈 출토 단경호

# 81 김해 생철리 61-4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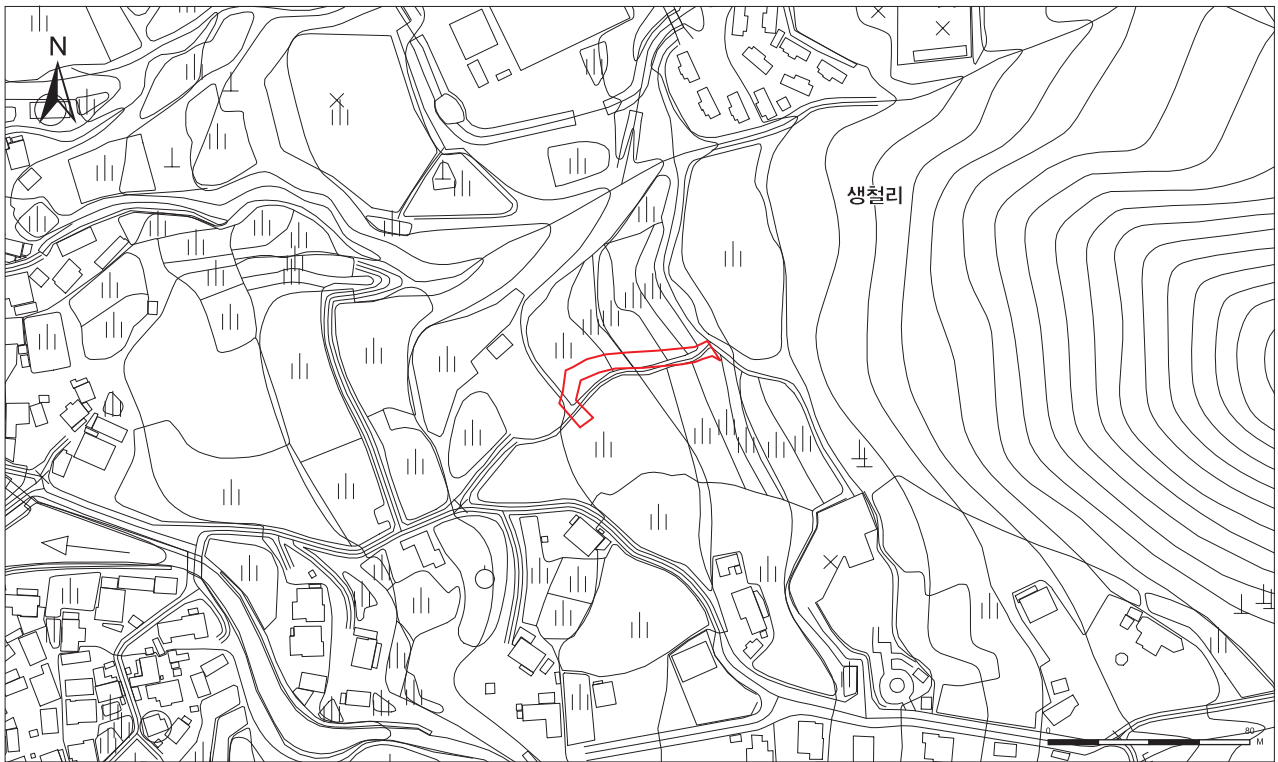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6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5.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경질토기 저부 편

유적은 무척산(해발 702.1m)의 북동쪽 지맥 말단부에 해당되며, 본생철마을 동쪽에 소재한 낮은 야산의 서쪽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일부가 '본생철고분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과거부터 예상되었던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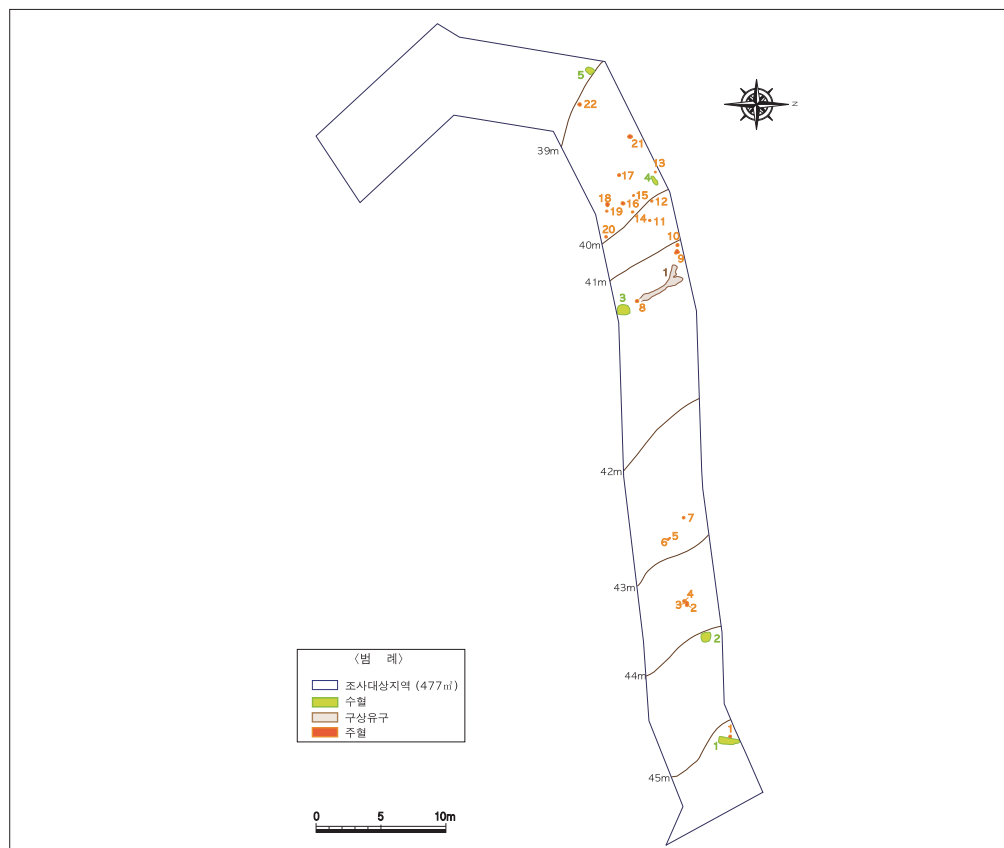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수혈 5기, 구 1기와 다수의 주혈이 조사되었으며, 유적의 중앙부와 남서쪽을 제외한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경작이 이루어진 표토층-망간이 집적된 자연퇴적층-기반층의 순서로 퇴적되었으며, 유구는 기반층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타원형, 원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며, 내부에서는 별다른 시설과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토는 대체로 갈색조의 사질점토가 단일층 또는 2개 층으로 퇴적되어 있어, 단시간 동안 사용된 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3호 수혈 내부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경질토기 저부 편이 1점 출토되었다. 기형파악이 어

유구 위치도

려워 정확한 시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5~6세기대로 추정된다. 구는 평면형태가 'Y'자형이며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내부토가 수혈과 유사하고, 수혈과 중복양상이 간취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수혈과 동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은 총 22기가 조사되었는데, 주로 유적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서쪽에 정형성 없이 분포한다.

이상과 같이 김해 생철리 61-4번지 유적은 제한적인 범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성격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본생철고분군'과 관련된 당시의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7, 『김해 생철리 61-4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3호 수혈

3호 수혈 출토유물

82

# 김해 초정리 655번지 일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55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7.7.~2017.8.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 수혈, 구 /
옹, 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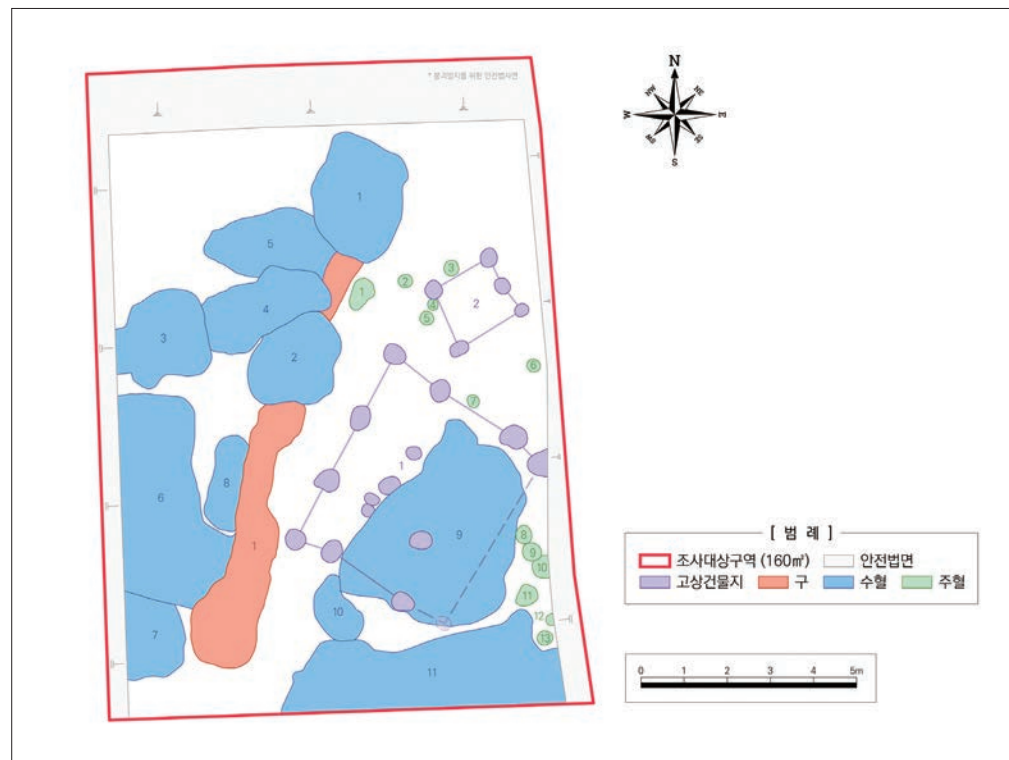
유적은 초정리마을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백두산(해발 353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이 개석되며 형성된 선상지성 지형의 선단부와 예안천 사이에 형성된 경사 변환대 내지는 평지에 해당하며, 남쪽에는 대동면의 동쪽을 관류하여 남동쪽에서 낙동강에 합수되는 예안천이 인접해 있다. 유적은 삼국시대 타날문토기 편, 각종 경질토기 편 등의 삼국시대 유물과 고려~조선시대 자기 편 등이 확인되는 초정리 유물산포지의 분포범위에 속하며, 남동쪽으로 600m 정도 이격되어 사적 제261호인 김해 예안리고분군을 비롯해 마산 고분군, 산산창지 등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고상건물 2동, 수혈 11기, 구 1기, 주혈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5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Ⅰ층은 황갈색역혼입사질토로 인근의 도로공사 당시에 반출된 흙을 복토한 복토층, Ⅰ-1층은 암회갈

유적 위치도

색니혼입사질토로 경지정리 및 대지 평탄화를 위해 복토한 현대 복토층이다. Ⅱ층은 암회갈색사혼입니질토이며 사면기원 자연퇴적층으로 층 내에서 경질토기 편, 연질토기 편, 자기 편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Ⅲ층은 황갈색역혼입니질토이며 선상지성 자연퇴적층으로 층 하위면에 요철이 확인되고, 역석이 다량 혼입되어 분급이 불량하다. Ⅳ층은 황갈색니질토이며 선상지성 자연퇴적층이 고토양화된 층으로 삼국시대 유구 확인층에 해당한다.

고상건물은 유적 동쪽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1호 고상건물은 주주혈 9기, 보조 주혈 5기로 구성되었으며, 주혈의 배치형태상 정면 3칸, 측면 3칸의 구조이다. 규모는 길이 500㎝, 너비 400㎝로 면적은 약 20㎡이다. 주혈간 간격은 40~150㎝ 정도이며, 대칭되게 설치되어 있다. 주혈의 단면형태는 'U'자상이며, 초반시설은 하지 않고 흙를 채워 목주를 보강하였다. 그리고 2호 고상건물은 1호 고상건물에서 북쪽으로 1m 정도 이격되어 설치되었는데,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구조이다. 1호 고상건물과 인접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하면 1호 고상건물의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수혈은 유적 전면에 걸쳐 11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대체로 부정형이며, 복잡한 중복관계를 보인다. 잔존규모는 길이 160~640㎝, 너비 90~250㎝, 깊이 30㎝ 내외이고, 바닥은 요철이 심하며,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퇴적토는 암회갈색조의 사질점토로 목탄과 소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구는 유적 북쪽 중앙부에서 북동-남서방향으로 이어진다. 잔존규모는 길이 10m, 너비 1m 정도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자형이다. 내부에서 연질토기 편과 호 편, 대호 편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전반적인 유구 간 중복관계를 통해 볼 때, 고상건물이 폐기된 후 수혈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혈과 구, 주혈은 평면형태 및 배치양상에 있어 정형성 없이 중복되어 설치되었다. 유물은 수혈과 구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기종상 연질 파수 편·구연부 편·고배 편·저부 편과 경질단경호 편·대호 편·통형기대 편·소형기대 편·대각 편·동체부 편 등으로 대별되며 대부분 완형이 아닌 잔편으로 출토되었다. 일상용토기가 주로 출토되었지만,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경호 및 대각 편 등을 인접한 예안리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검토하면 4~5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유적에서 조사된 고상건물은 중복관계로 보아 수혈보다 이전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내부토와 유물을 감안하면 시기차는 크기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고상건물은 인접한 예안리고분군 축조집단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7, 「경남 김해 초정리 655번지 일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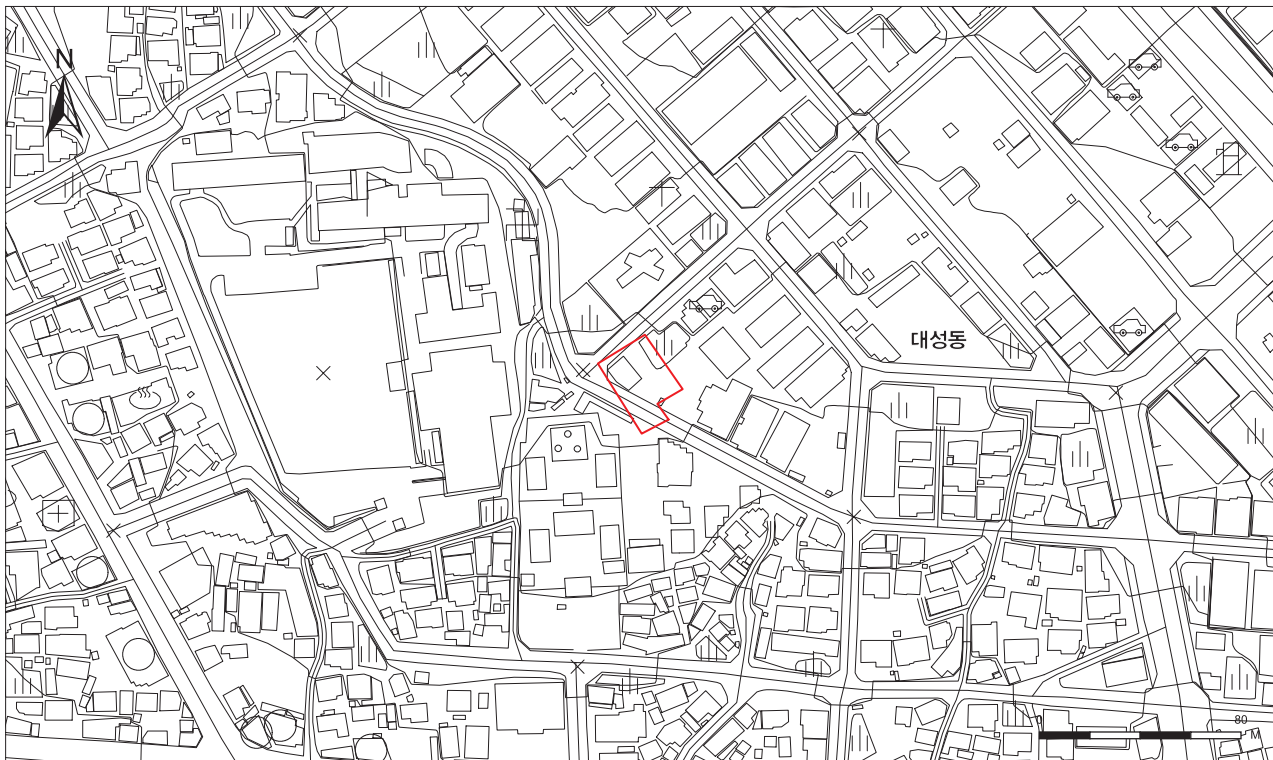
# 김해 대성동 소성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203·204·225-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대학교박물관 / 1994.11.~1995.1.

**주요 유구 / 유물**
소성유구, 석곽묘 / 점토대토기, 개, 시루, 파수, 방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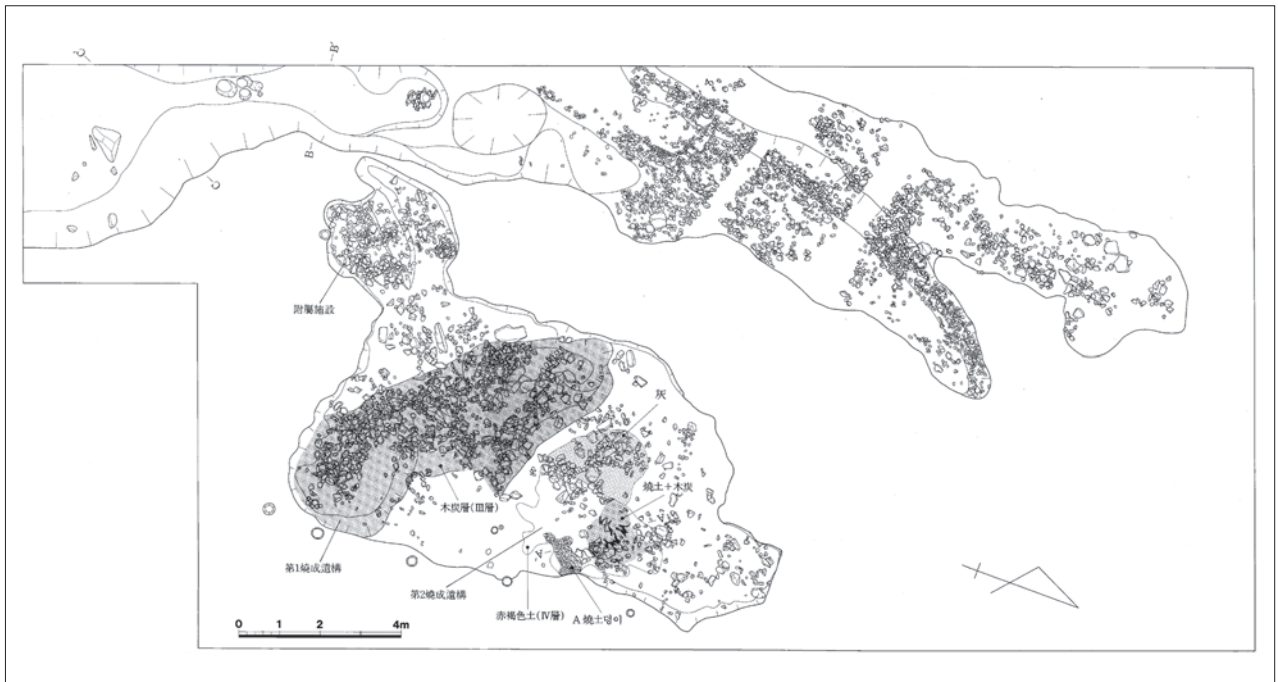
유적은 김해시 중심지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김해향교의 뒷담벽 모서리에 접하여 위치한다. 김해시 북동쪽에서 남-북으로 형성된 해발 350m 전후의 분성산(해발 323m)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하는 김해 시가지로 뻗어내린 소구릉과 '서재골'로 불리는 골짜기가 점차로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시가지와 접하는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다량의 지표수습된 유물과 소성유구, 석곽묘, 구 및 도로가 조사되었다. 소성유구는 말각장방형상에 양 모서리가 돌출된 부정형의 수혈 내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소성유구의 조성 이전에 주위를 구획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의 주위로는 동쪽 굴광선을 따라 직경 20~30㎝ 정도의 주혈이 외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남서쪽 돌출부에만 주혈 1기가 확인될 뿐이다. 전체적인 양상을 통해 볼 때, 소성유구는 수혈 내에서 3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원 전후로 편년되는 시기에 각각 토기를 소성한 구덩이로, 벽체 또는 천정 등을 통해 상부구조나 일부 화

유적 위치도

구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유물은 무문토기부터 와질토기까지 다양한 기종과 기형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소성유구는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석곽묘는 수혈식석곽묘이며 주축방향은 남서-북동향이다. 상부는 후대 삭평 등으로 유실되어 서장벽과 북단벽이 1단 정도 잔존한다. 내부에서는 석곽 북서쪽 장벽에 연접하여 완형의 대부완 1점과 병 1점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조사 성과를 종합하면 유적은 청동기시대 후반에서 삼한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점의 토기 생산시설로 추정된다. 다만,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유구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구조와 성격,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 대성동소성유적』.

유구 배치도

유물 출토모습

소성유구 부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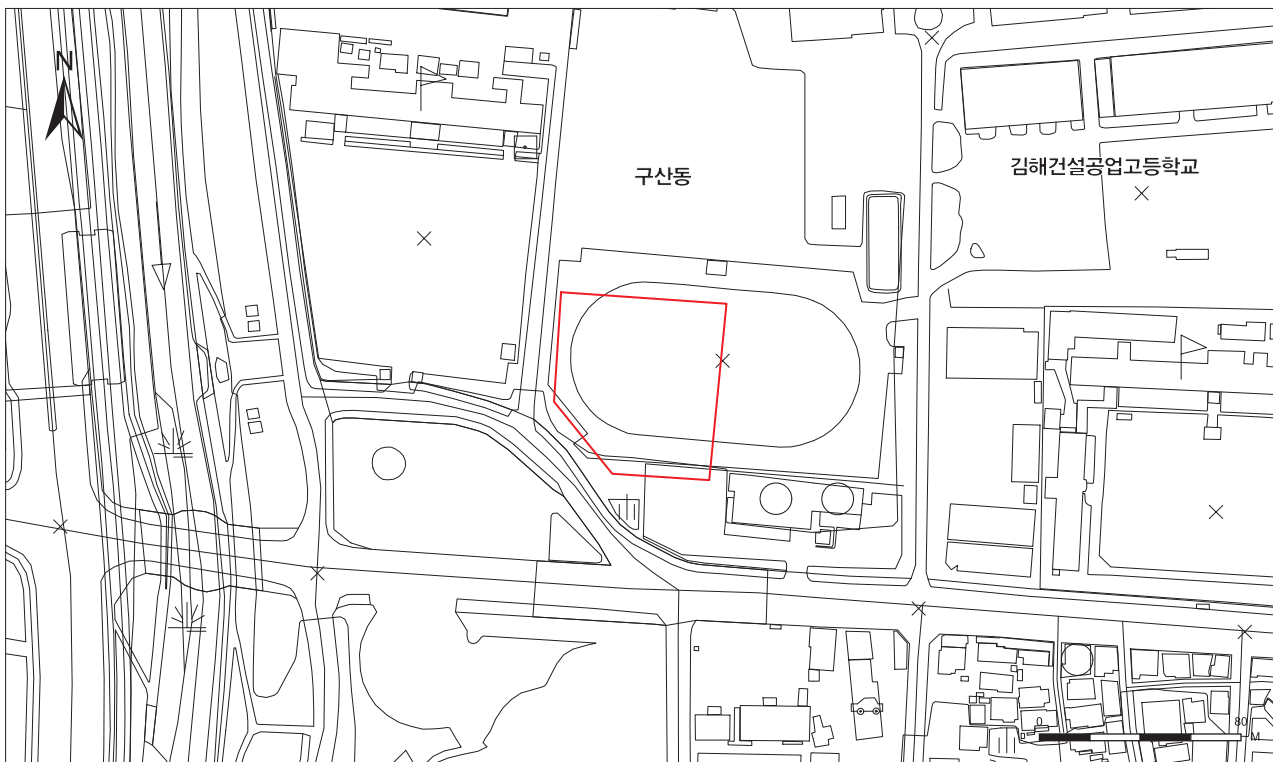
# 84 김해건설공고 운동장 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8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강산문화연구원 /
2017.11.~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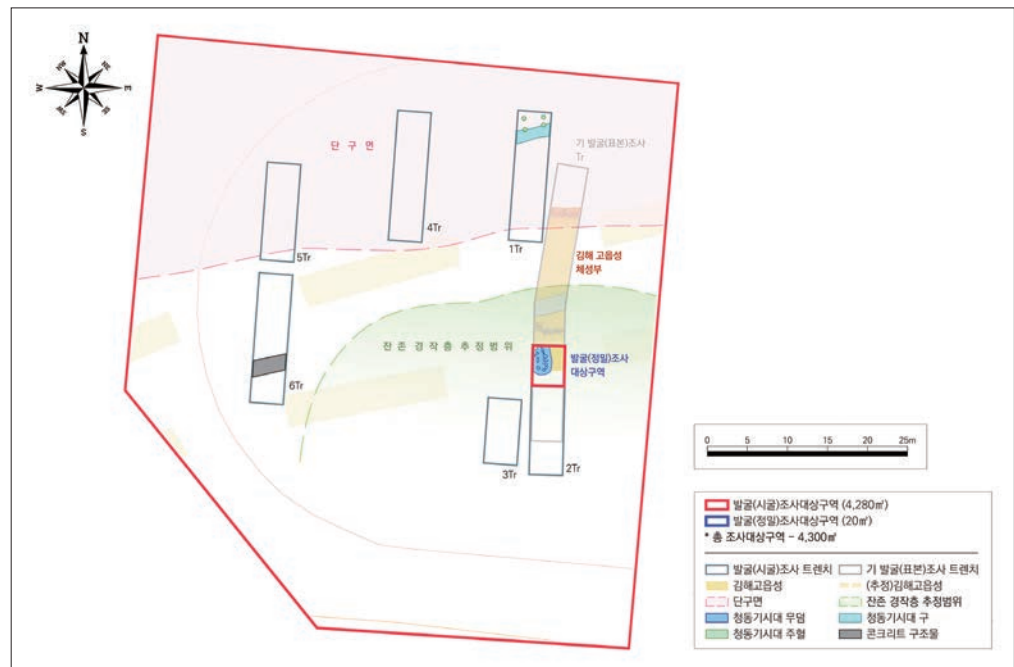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전 / 토기 편

유적은 분성산(해발 382m)과 경운산(해발 377.2m)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곡저평야에 위치하며, 분성산의 구릉말단부 서편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 볼 때, 북쪽의 배후 산계는 황새봉(해발 392.6m)-경운산-신어산(해발 630.4m)을 잇는 동북동 방향의 저산성에서 중산성 산지가 발달해 있으며, 서쪽의 경운산, 동쪽의 분성산, 남서쪽의 임호산(해발 178m)에 둘러싸여 남쪽 방향의 김해평야로 개방되어 연결되는 지형을 보인다. 분성산의 남서쪽 말단부를 따라 비교적 넓은 완경사지대가 발달하였으며, 그 말단에는 봉황동·대성동 구릉이 단속적으로 독립구릉을 형성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조사는 표본과 시굴, 발굴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조사에서는 김해 고읍성 체성 내·외벽 보강석축 및 보강토, 고읍성 축조 이전의 경작층(수전), 청동기시대 분묘 1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시굴조사는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의 분포 범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총 6개소의 트렌치를 설치

유적 위치도

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트렌치에서 청동기시대 구 1기 및 주혈, 2·3트렌치에서는 삼국시대 수전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수전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경작이 이루어진 반습답~습답으로 김해 고읍성 축조 이전에 조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층의 상부면을 모재층으로 하여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전층에서는 각종 경작활동의 흔적과 삼국시대 토기 편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삼국시대 수전은 금관가야의 고도 각지에서 조사되었던 분묘 및 주거유적에 비해 조사사례가 거의 없는 생산유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대성동고분군 등을 조성한 금관가야인들의 식량 생산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기에 이후 금관가야권 내의 분묘역, 생활역과 더불어 생산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산문화연구원, 2017, 「김해 건설공고 운동장 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유구 배치도

2트렌치 서쪽 논 경작층 세부

2트렌치 동쪽 논 경작층 세부

85

#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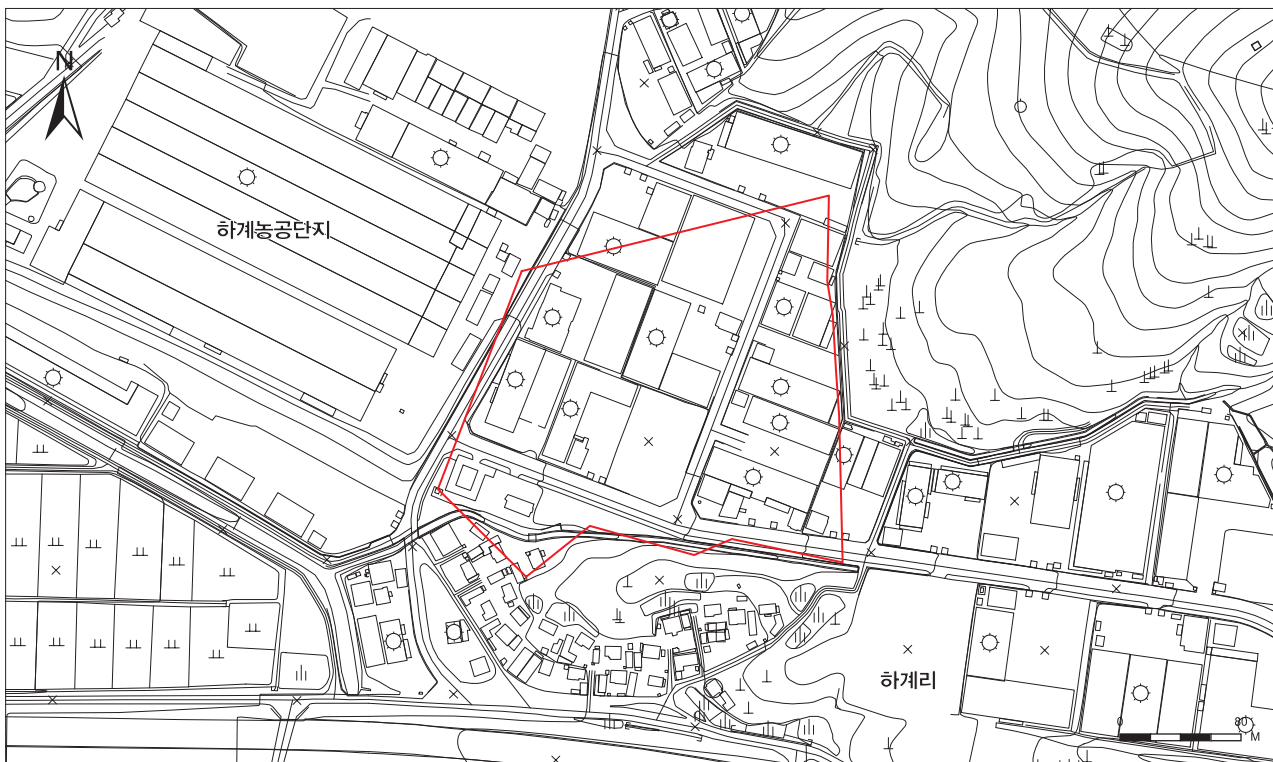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75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9.7.~2009.12.

**주요 유구 / 유물**
제련로, 수혈, 주거지,
구 / 고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기대

유적은 김해시에서 진영읍 하계리 일대에 시행예정인 '김해 하계농공단지 조성부지'로서 응봉산(해발 284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삼영타일공장, 남쪽은 남해고속도고가 인접한다. 그리고 서쪽은 조황천, 남쪽은 오척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의 퇴적과정에서 형성된 충적평야가 주변에 넓게 분포하며 산세가 험하지 않은 야트막한 구릉부에 해당하여 인간활동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지형조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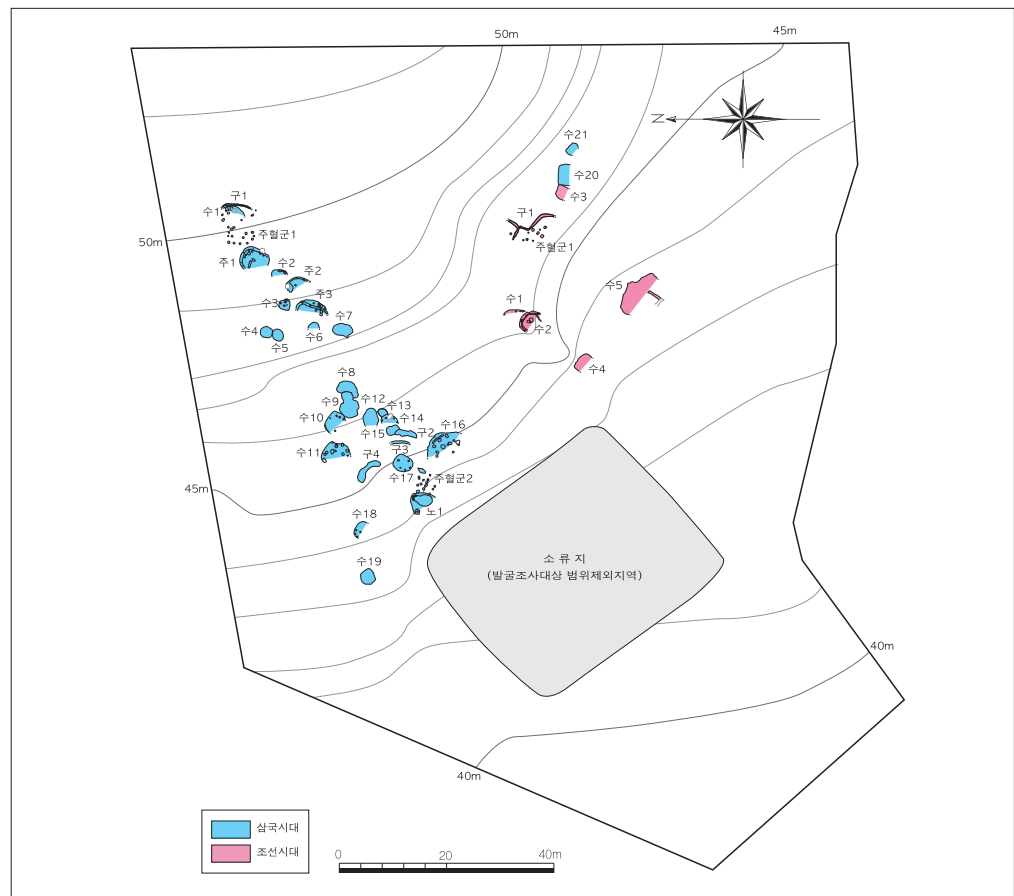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제련로 1기, 주거지 3동, 수혈 21기, 구 4기, 주혈군 등과 조선시대 수혈 5기, 구 1기, 주혈군 등 다종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상부가 대부분 후대 삭평으로 유실되어 표토를 제거하면 유구가 설치된 기반층이 바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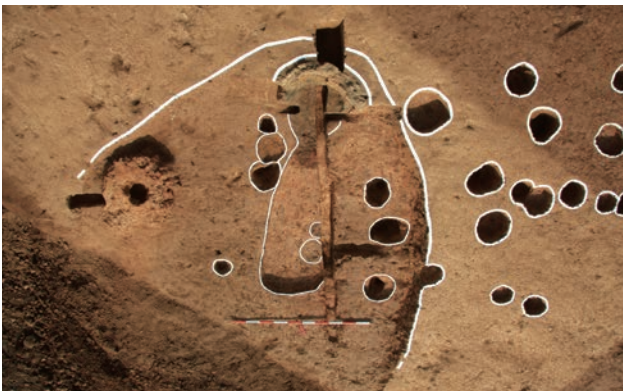
삼국시대 제련로는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주변에서 배소시설도 함께 조사되

유적 위치도

어 금관가야의 철 원자재 및 철제품 생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특히, 배소시설의 경우 유적에서 출토된 철광석의 금속학적 분석결과, 배소처리과정을 거친 것으로 밝혀져 철광석을 제련로에 장입하기 전에 예비환원처리 과정인 배소 공정이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철광석·초기환원괴·슬래그 등에서 동일하게 고탄소 성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적의 제련로는 차후 공정에서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인 고탄소의 환원괴를 생산하는 제철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변유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입지상 구릉 사면 상단부에는 주거지와 수혈, 구릉 사면 하단부에서는 제철관련 수혈과 제련로 등이 분포하고 있어 공정과 생업환경에 따라 공간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각 유구에서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는데, 무투공외절구연고배는 공반된 중경호, 통형기대, 발형기대와 동일 시기에 등장하며, 이후로 외절구연고배의 대각이 장각화된다. 전반적인 양상을 감안하면 유적의 중심시기는 4세기 전중반으로 추정된다.

이상 조사성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은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제철유적으로 인접한 김해 여래리유적 등과 연계하여 당시의 제철관련 유적의 성격과 유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제련로

제련로 노

1호 주거지

5호 수혈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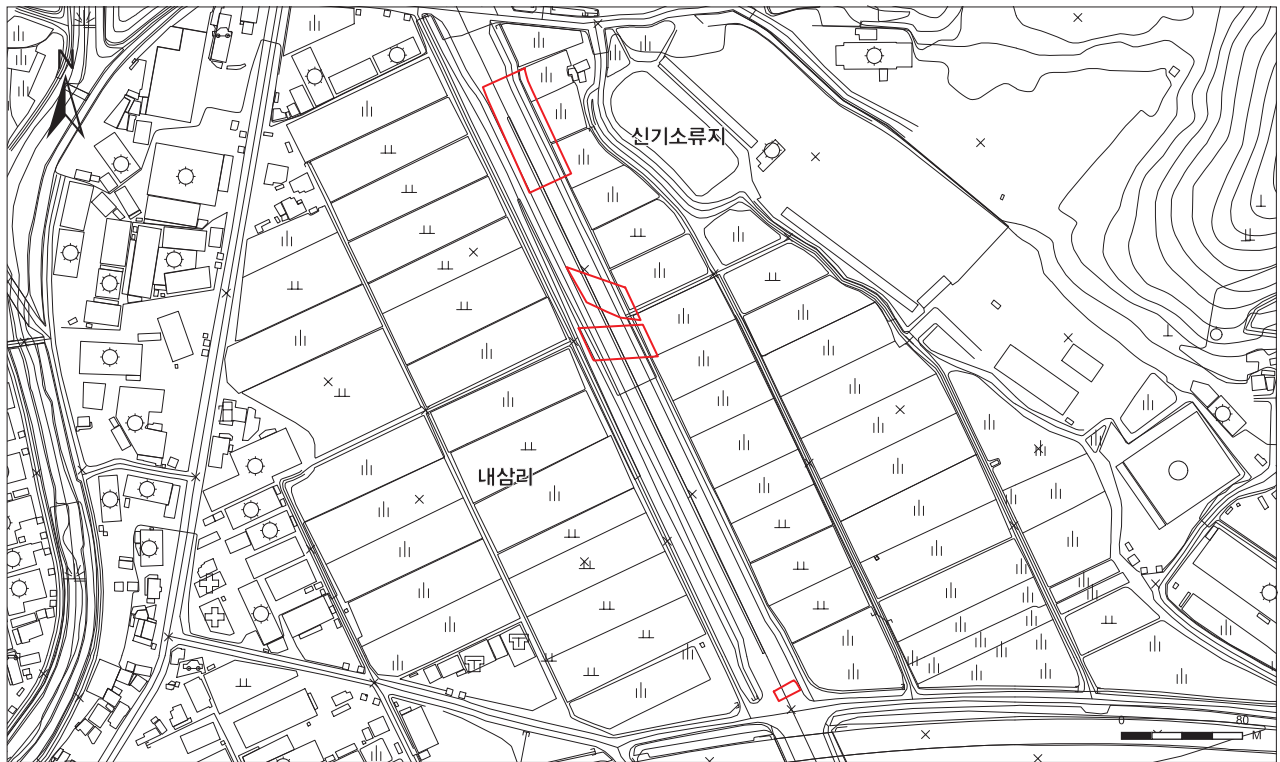
# 86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786-1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3.1.~2013.3.

**주요 유구 / 유물**
논 / 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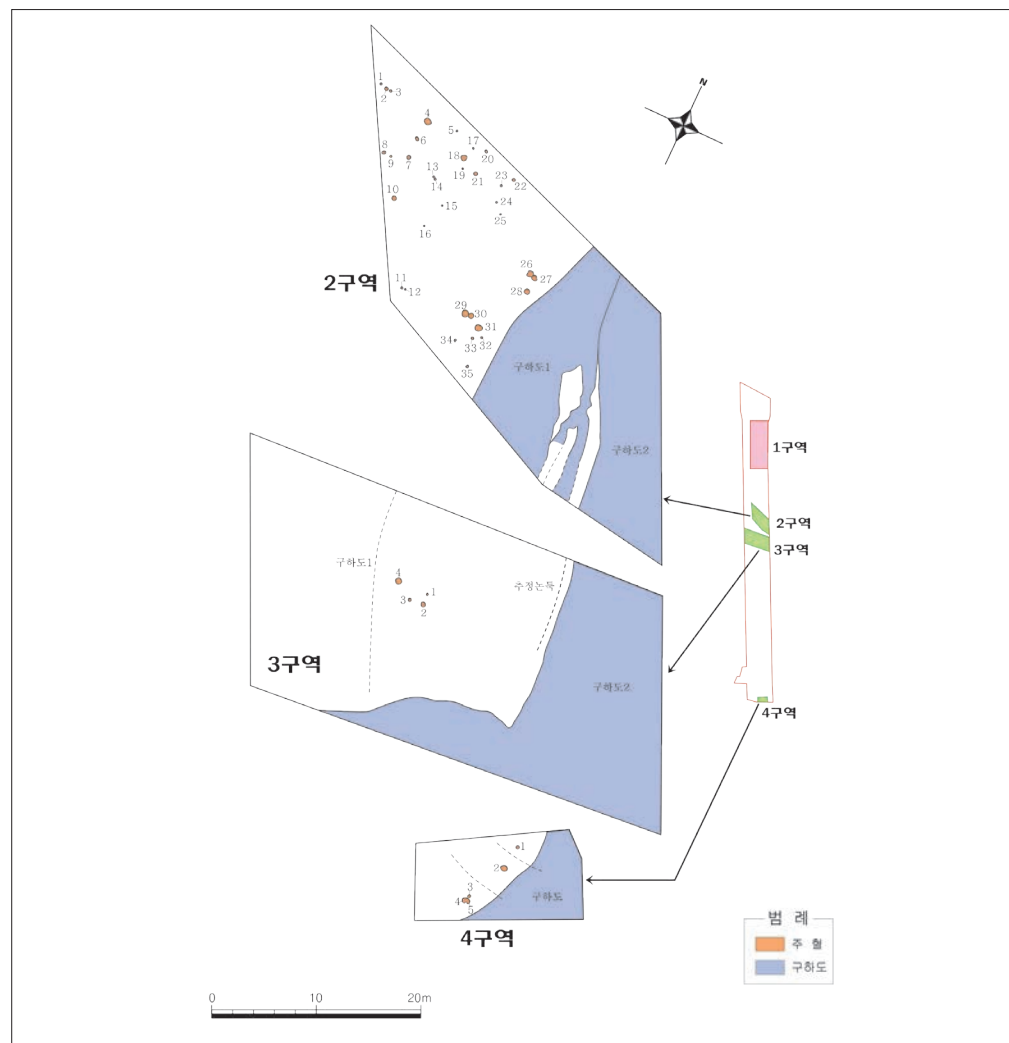
유적은 김해시 주촌면 신기마을과 망덕마을 사이에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황새봉(해발 393m)과 매봉산(해발 338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두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곡간평야지대로서 서쪽으로 3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서 내삼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하천활동의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4개 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 구 등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논층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는 2~4구역에서 확인되었는데, 2구역은 층위가 크게 3개로 구분된다. Ⅰ층은 현대 복토 및 경작층, Ⅱ층은 근현대 경작층으로 모두 현대 논층으로 판단된다. 2구역 서쪽에서는 Ⅱ층 하부에서 바로 기반층이 확인되는 반면, 동쪽에서는 Ⅱ층의 하부에서 구하도층이 확인된다. 구하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도의 방향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연·경질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3구역의 층위는 2구역과 대동소이하며 구하도는 2구역과 동일하게 서쪽에서

유적 위치도

동쪽으로 유로를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시굴조사에서 주혈이 확인되었던 층은 구하도 상부에 형성된 논층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층은 동쪽과 서쪽의 경계에 해당하는 구하도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주혈은 경작흔으로 추정된다. 논의 기능층은 상부 현대 논의 경작으로 인해 대부분 삭토되거나 교란이 심하여 평면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나, 동쪽 구하도의 경계와 맞물린 지점 일부에서는 논둑으로 추정되는 층이 평면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추정 논둑은 단면상에서 확인은 힘들지만, 평면상 산화철 및 산화망간이 집적된 띠상의 형태가 구하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논층에서는 족적 및 삼국시대 토기 편들이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 논층은 구하도와 상부 경작층으로 인한 훼손으로 인해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지만, 경작흔과 삼국시대 경질토기 편 등이 확인되고, 산화철과 산화망간이 집적된 형태의 논둑이 평면상에 일부 관찰된다. 유물을 통해 볼 때, 신라계로 보여지는 고배 편이 출토되어 시기는 대체로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유적/김해2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2·3·4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3구역 전경

1구역 전경

4구역 전경

3구역 구하도 토층

# 87

# 김해 송현리유적 _ 김해 송현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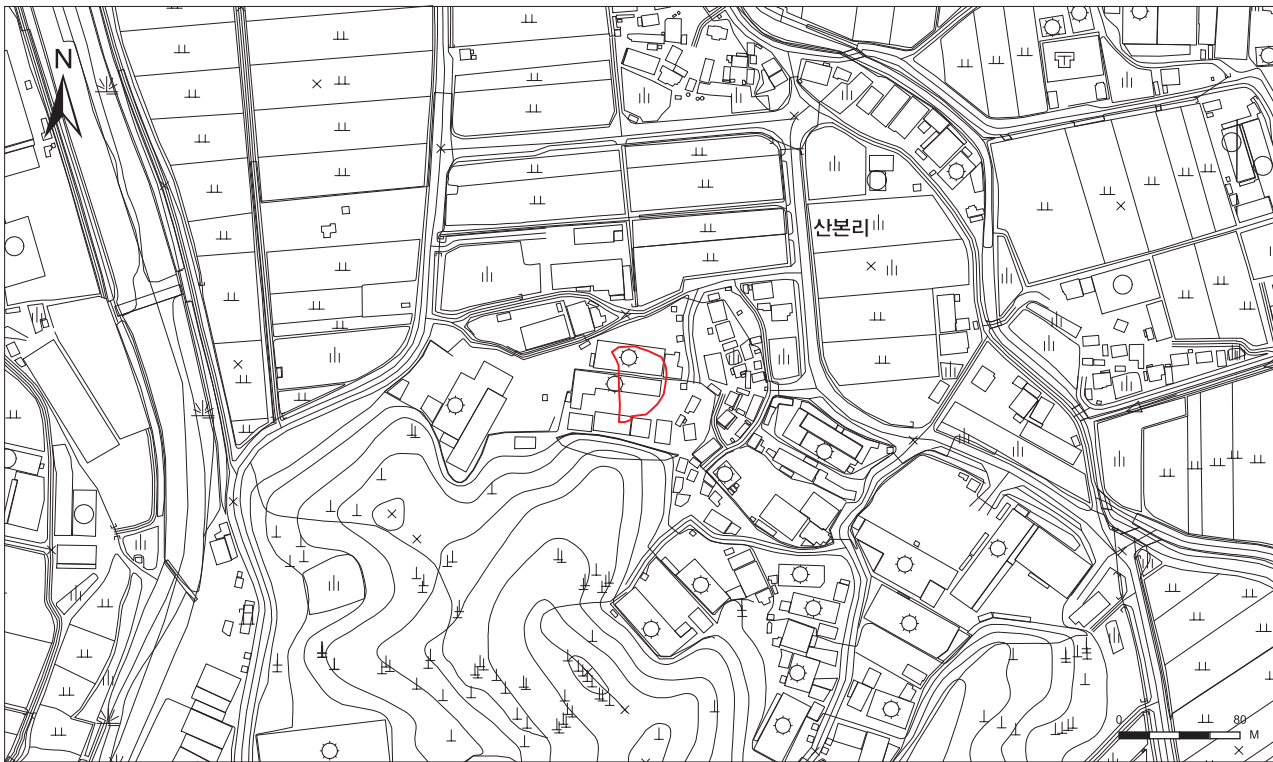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산12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9.12.~2010.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토기요, 건물지 / 고배, 개, 대부장경호, 호

유적은 진례면과 주촌면의 경계에 있는 매봉산(해발 338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기존에 알려진 학성리고분군의 북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또 주변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진례 평야를 중심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릉 사면부에 해당하며, 동쪽과 서쪽 사면에는 공장조성과 과수원 등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일부 이루어진 지역이다. 조사된 유구는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기, 석실분 1기, 소형석관 1기, 토기요지 1기, 수혈건물지 1기, 수혈 10기 등 총 15기가 조사되었다. 이외 조선시대 분묘와 건물지,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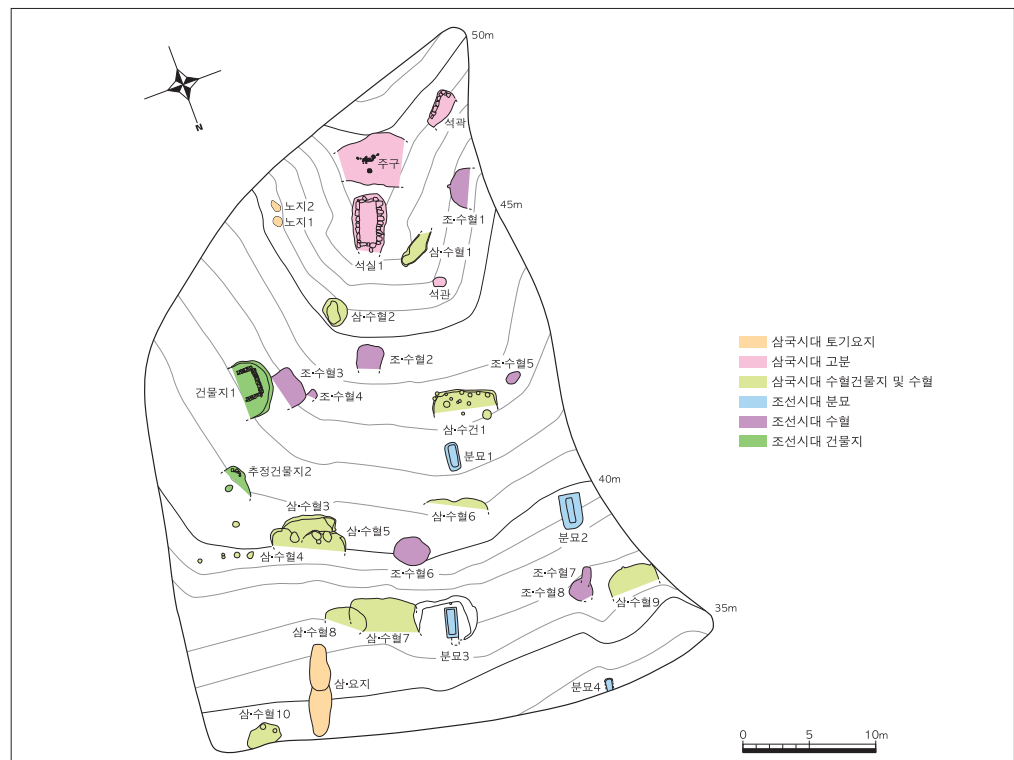
석곽묘는 해반지하식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는 북동-남서향이다. 석곽의 내부 크기는 잔존길이 224㎝ 최대너비 70㎝, 잔존깊이 74㎝이다. 바닥에는 10㎝ 정도의 역석을 전면에 1겹 정도 깔았다. 내부에서는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소형 석관묘는 평면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는 북서-남동향이다.

유적 위치도

석관의 내부 크기는 길이 62㎝, 너비 20㎝, 잔존 깊이 36㎝이며 석관의 바닥에는 할석 2매를 전면에 1겹으로 깔았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석실분은 반지하식 구조로 묘광은 평면 말각장방형으로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을 굴착하였다. 석실은 평면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북동-남서향이며 석실의 내부는 길이 3.02m, 너비 1.40m, 잔존깊이 0.6m이다. 석실의 전벽에는 동쪽 일부를 이용한 입구부를 마련하였는데, 할석 2매로 폐쇄하였다. 석실 내부의 시상은 0.2~0.5m 정도의 할석을 길이 2.3m, 너비 1m, 높이 0.18m로 조성한 후, 할석과 할석사이에는 5㎝ 내외의 역석을 채웠다. 시상은 부장유물로 보아 2회에 걸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내부에서는 개, 고배, 장경호, 단경호, 적갈색연질발, 대부완, 우각형파수부호, 철겸, 철도자, 금동지환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구에서는 단경호, 대호 등이 출토되었다.

상기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인근의 죽곡리고분군, 화정유적, 구산동고분군, 예안리고분군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분묘와 비교할 때, 6세기 초·중반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현동유적은 학성고분군의 일부로서 금관가야 또는 신라 병합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의 김해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진례평야의 고분군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삼국시대 토기요지 1기가 조사되었다. 이 요지는 조사지역의 구릉말단부 끝지점인 해발 34~37m에 위치하는 지하식등요로서 평면은 세장한 장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북동-남서향이며 전체 규모는 길이 7.1m, 최대너비 1.72m, 최대깊이

유구 배치도

석실분

토기요지

수혈주거지

석관묘·석실분 출토유물

1.59m이다. 요지는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궁이는 평면 말각장방형이며, 연소실 바닥과 50°의 경사를 이루면서 외고내저로 연결되고 바닥은 중앙이 약간 오목하다. 연소실은 평면 말각장방형이며 연소실과 소성실로 연결되는 단은 높이 40㎝이고 경사도는 60°이다. 소성실은 무단으로 중앙이 볼록한 장타원형이고 크기는 길이 2.92m, 최대너비 1.70m, 깊이 0.8m이다. 양 벽면은 입면상 반원형이고 높이는 연소실에서 연도쪽으로 갈수록 차츰 줄어들며 경사도는 전체적으로 28°이다. 연도는 반타원형으로 소성실 바닥과 약간 꺾여서 연결되고 높이는 소성실에서 연도의 끝부분쪽으로 갈수록 차츰 줄어들며 바닥의 경사는 29°이다. 지상에 노출된 연도의 연통부는 외반된 입술형태의 반타원형을 이루고 적갈색 소결면이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은 연소실 내부 바닥에서 호, 발, 옹으로 추정되는 적갈색연질토기이며 상부퇴적토 또는 함몰토에서 적갈색연질 발, 호, 고배 편 등이 출토되었다. 고고지자기 분석결과, A.D.495±20년으로 측정되어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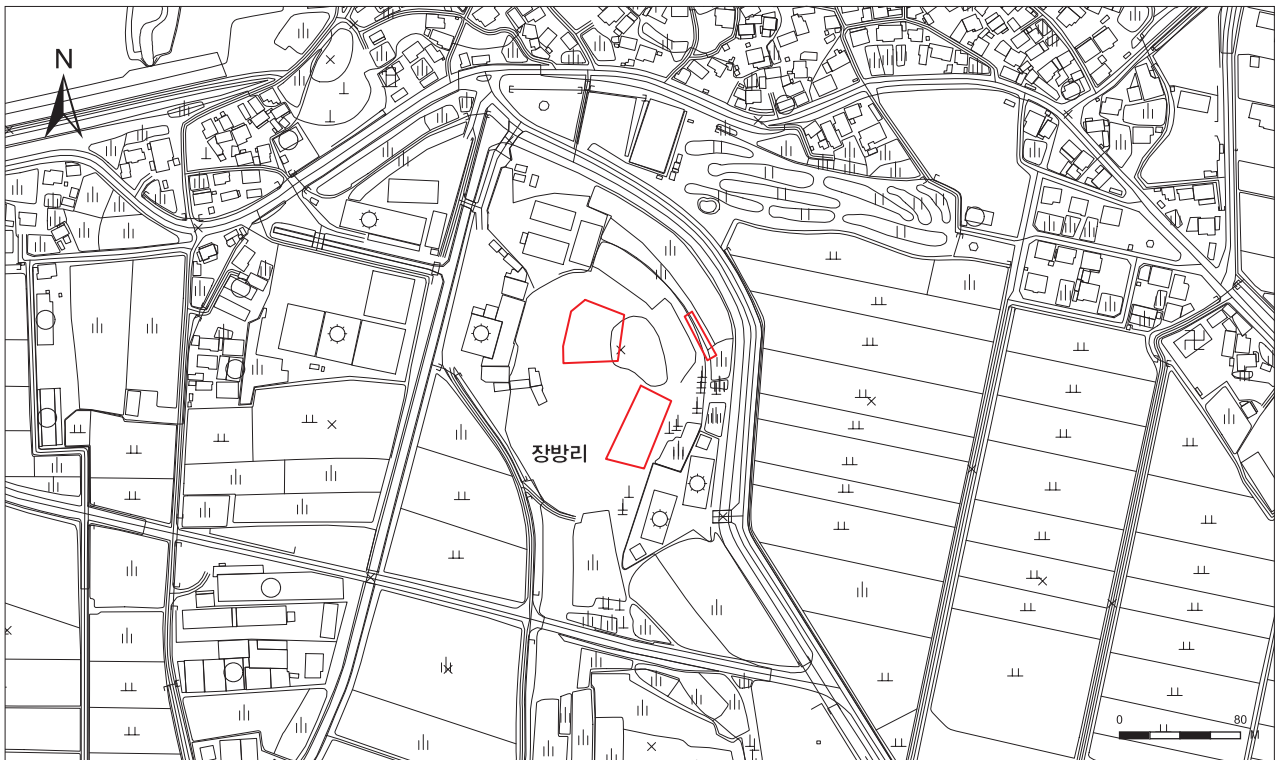
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김해 송현리 공장신축부지 내 김해 송현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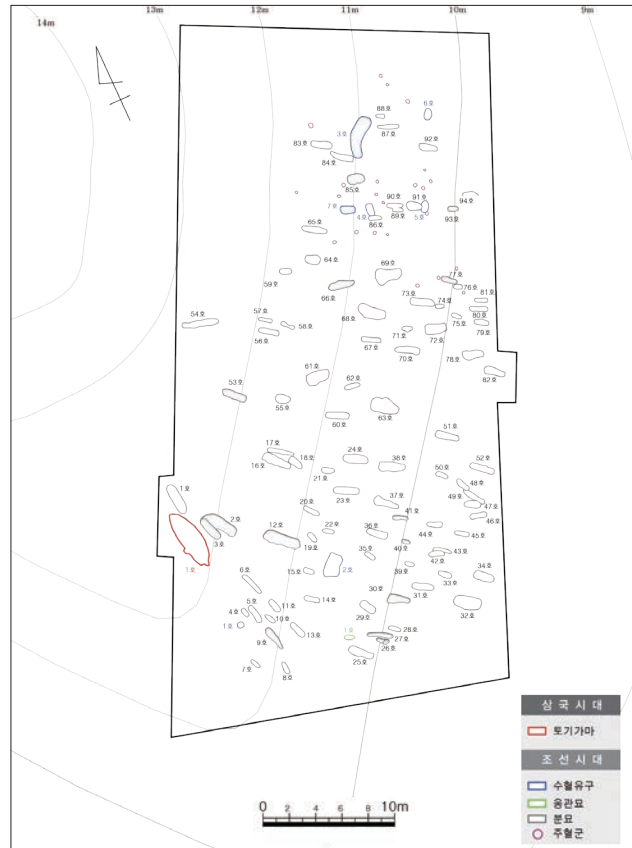
# 88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87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3.7.~2013.8.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 토기 편

## 김해 장방리유적 _ 김해 장방리 875번지 일대 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유적은 봉화산(해발 120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형성된 독립구릉에 해당하며 북쪽에는 낙동강의 본류 및 낙동강 주변의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 주변의 지표조사 결과, 시산리 진말유물산포지 및 시산리 시호유물산포지에 속하며,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의 유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Ⅰ구역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6기, 수혈 4기, 구 3기, 주혈, Ⅱ구역에서는 조선시대 수혈 2기와 주혈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Ⅲ구역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가마 1기, 조선시대 분묘 94기, 옹관묘 1기, 수혈 7기, 주혈이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토기가마는 Ⅲ구역 남서쪽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구릉 사면의 해발 12m 선상에 위치하며, 후대 삭평 등으로 인해 소성부와 연소부 일부만 조사되었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잔존규모는 길이 488㎝, 너비 157㎝, 깊이 15㎝이다. 잔존한 연소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무단식 구조이다. 규모는 길이 120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Ⅲ구역 유구 배치도

㎝, 너비 115㎝, 깊이 10㎝이다. 연소부 내부에서는 아궁이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탄흔적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소성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무계단식이다. 규모는 길이 360㎝, 너비 155㎝, 깊이 15㎝이다. 바닥과 벽면은 조업 시 발생한 고온으로 인해 환원소결되었으며, 벽체 외곽은 적갈색조의 피열흔이 일정한 두께로 확인된다. 가마는 잔존한 토층 및 바닥과 벽체 등을 감안할 때, 기반암을 반지하식으로 굴착하였으며, 연소부는 평탄하고, 소성부는 10~15° 정도의 경사면을 가진다. 바닥은 기반토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축하였다. 가마 내부에서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대호 편이 바닥에 깔려 확인되는데, 이상재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삼국시대 토기가마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가마의 구조와 형태, 축조방법 등을 감안하면 경주 손곡동 A39호 가마, 창녕 계성리토기가마, 창원 중동 1·2호 토기가마 등과 동일한 시기인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한 토기가마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5, 『김해 장방리유적-김해 장방리 875번지 일대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Ⅲ구역 전경

Ⅲ-1호 토기가마

Ⅲ-1호 토기가마 세부

## 89 김해 봉황토성

김해 봉황토성은 분성산의 남쪽 끝자락과 임호산으로 둘러싸인 고 김해만의 한 가운데 위치한 독립구릉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조사된 지역은 대부분 소방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거 정비사업, 주택건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발굴조사되어 일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우선, 경남고고학연구소 조사지역에서는 표토 직하에 있는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우물 1기, 구상유구 2기, 수혈 4기가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토성 1열, 수혈주거지 11동, 고상건물지 10동, 지면식건물지 3동, 수혈 1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은 2개층이 확인됐으며, 그 아래로는 이전 시기이 문화층도 존재하고 있다. 이 중, 봉황토성은「北」區의 중심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약 7m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이어지는 2군의 다중 석축열이 봉황대 구릉의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북서-남동향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에서는 1문화층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3동·수혈 1기·주혈군 3개소, 2문화층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6동·수혈 5기·석열 3기·주혈군 3개소, 2-1문화층에서 삼국시대 수혈 1기·주혈군 1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2문화층에서 조사된 석열 3기는 기 조사된 경남문화재연구소 조사구간의 봉황토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지막으로 두류문화연구원 조사지역에서는 봉황토성의 외벽 체성 일부가 동-서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 연번 | 조사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봉황토성 -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3.6.~2003.11. | 봉황토성-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2005) |
| 2 |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 1차 2013.1.~2013.4.<br>2차 2014.8.~2014.9. |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Ⅰ(2015)<br>김해 봉황동 생활유적Ⅱ(2016) |
| 3 | 봉황토성 -김해시 서상동 331-2번지 건물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 두류문화연구원 | 2014.3.~2014.4. | 봉황토성-김해시 서상동 331-2번지 건물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2016) |

## 89-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80-30·서상동 331-2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3.6.~2003.11.

**주요 유구 / 유물**
토성, 주거지 / 고배, 단경호, 대호, 연질옹, 광구소호,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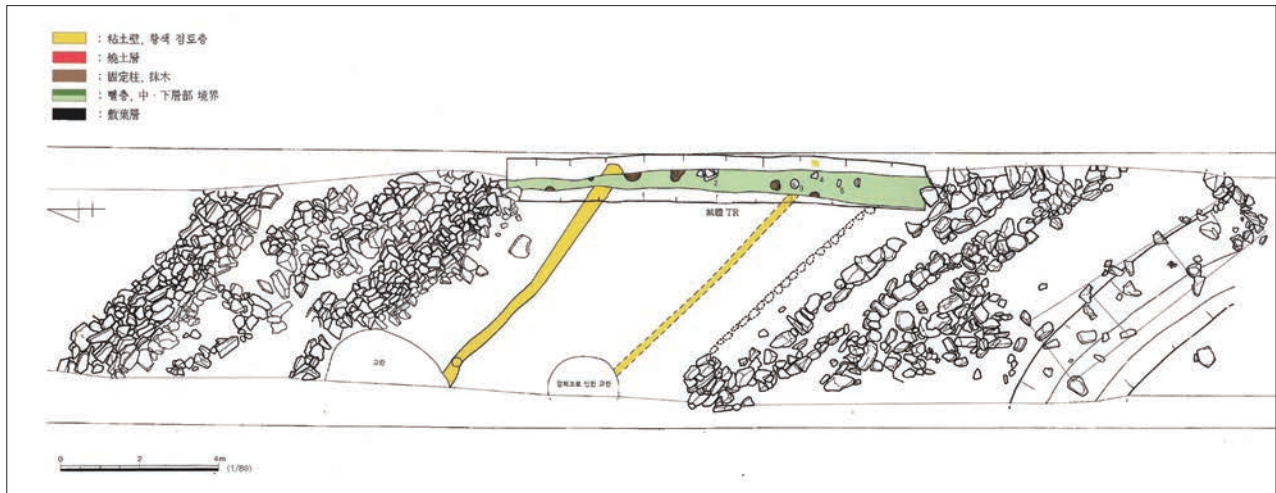
# 봉황토성 _ 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본 유적에서 조사된 토성은 조사 여건의 제약으로 기저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조사 시에 관찰된 바로는 저습지의 니층을 정리하여 기저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1m(사방향으로 측정된 수치) 간격으로 기둥을 남북으로 박은 6개의 기둥 열이 있다. 북에서 2번째 기둥과 6번째 기둥의 상위에는 생전 혹은 토낭으로 쌓은 동-서 주향의 담장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남북의 기둥 열과 동서의 담장으로 조립한 당토장, 즉 판이 확인되었다. 이 판은 순지리토성에서 검출된 판과 같이 장체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기둥 간 내지 기둥 바깥에서 확인되는 목봉의 성격은 국부적인 조사로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성토층들의 강화를 위해 박은 파일과 같은 역할이다. 두 번째는 1~6번 기둥으로 축조된 당토장의 보조 기둥이었을 가능성이다. 2번 기둥 이북과 6번 기둥 이남의 층준이 경사를 이루고 있어 2번 기둥에서 6번 기둥까지의 구역이 장체이고 그 외측은 호성파로 보인다. 기둥의 뿌리 부근에서 토기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봉황토성-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의 큰 파편들이 검출되는 것으로 볼 때, 판축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奠基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 내·외측 호성파의 기저부 가까이에서 나뭇잎과 가지를 깐 부엽층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장체 상위의 층준 및 외부 제1축의 표면에는 소결면이 확인되었다.

북구 4호 토성

4호 토성 전경

4호 토성 전경

4호 토성 내·외벽

4호 토성 내·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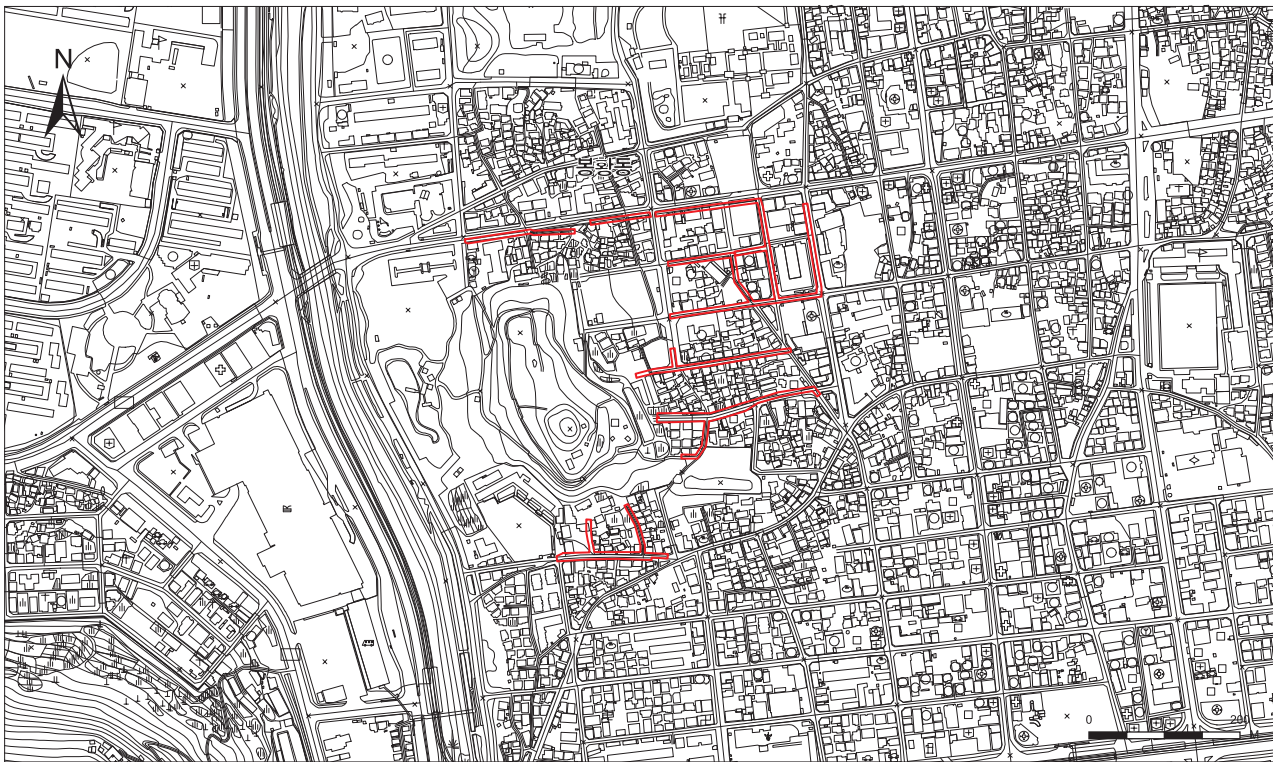
# 89-2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서상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차 2013.1.~2013.4.
2차 2014.8.~2014.9

**주요 유구 / 유물**
석렬, 주거지, 수혈,
주혈군 / 개, 고배,
노형토기, 통형기대,
대호

본 유적은 봉황동·서상동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사되었으며, 1문화층의 해발 6.7~7.1m 선상에서 삼국시대 주거지·수혈·주혈군, 2문화층의 해발 5.7~7.7m 선상에서 삼국시대 주거지·수혈·주혈군·석렬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봉황토성과 관련된 유구는 4·5라인과 12라인에서 노출된 석렬로 모두 2문화층에 조성되어 있다.

4라인 1호 석렬은 4라인 북쪽 경계에서 남쪽으로 7m 정도 이격된 해발 6.3m 선상에 입지한다. 석렬은 1~1.5m 간격으로 3열이 노출되었는데, 15~45㎝ 크기의 할석으로 북쪽을 면고름하였다. 조사 결과, 상부는 현대 도로 및 주택조성으로 인해 교란되고 목탄·패각이 소량 포함된 갈회색점질토 상면에 최하단석만 잔존한다. 석렬의 진행방향은 남동-북서향으로 조사대상지역 동편의 봉황토성 추정선과 동일하나 석렬의 해발고도가 기 조사된 봉황토성 추정선과 3.9m 가량 차이가 있다. 석렬 내외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유적 위치도

5라인 2호 석렬은 5라인 동쪽 경계에서 서쪽으로 17.8m 이격된 해발 4.8m 선상에 위치한다. 석렬은 북서-남동향으로 1~2단이 잔존하는데, 20~45㎝ 크기의 할석을 동쪽으로 면고름하였으나 축조상태는 전반적으로 조잡하다. 2호 석렬의 진행방향 역시 기조사된 봉황토성과 동일한 점으로 볼 때, 1호 석렬과 같이 봉황토성과 관련된 석렬로 추정된다. 석렬 내외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2라인 3호 석렬은 12라인 동쪽 경계에서 16m 이격된 해발 4m 선상에 입지한다. 석렬은 2.4m 간격으로 열이 노출되었는데 25~45㎝ 크기의 할석으로 1~3단을 쌓았으나 축조수법은 조잡하다. 조사 결과, 상부는 현대의 도로 및 복토로 인해 교란된 상태였으며 유규는 갈회색점질토상에 조성되었으나 동쪽 석렬의 외측(동쪽)으로는 대수층이 형성되어 있어 지반침하 등 안전상의 문제로 최하단석까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노출된 석렬의 방향은 북서-남동향으로 봉황토성 추정선과 동일하며 석렬 내외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이 석렬들은 각 라인의 종점에 인접한 해발 4.1~4.8m 선상에서 조사되었는데, 축조수법이나 진행방향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봉황토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봉황토성 추정선을 경계로 석렬의 내측에는 주거지 등의 생활유구가 조성된 반면, 석렬 외측으로는 뻘층만 관찰될 뿐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추정선을 봉황토성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데, 봉황대 구릉의 서쪽에서 조사된 가야인 생활 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의 호 석렬, 남쪽의 회현동 소방도로 구간

2·2-1문화층 유구 배치도

내 유적의 석렬은 호안시설로 보고되었으며 봉황대 구릉 남쪽 사면의 봉황동유적에서 삼국시대 고선박 부재와 노, 목책열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본 유적에서 조사된 석렬도 상기 유적에서 조사된 석렬과 해발고도 및 축조수법, 자연환경 등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유적의 성격을 토성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호안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본 유적은 구릉에서 저습지로 이어지는 남고북저, 서고동저의 지형으로서 봉황토성 추정선의 내측인 해발 5.7~7.7m 선상은 봉황대의 낮고 완만한 구릉에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이 중층으로 입지하는 반면, 석렬 외측은 뻘층이 형성되어 유적이 입지하기 힘든 조건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밀 GPS 측량결과, 봉황토성 보고서(경남고고학연구소, 2003)의 토성에 표기된 해발고도가 실제보다 1.5m 정도 낮게 오기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발 4m 내외에 기 보고된 봉황토성을 비롯한 본 유적의 석렬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렬은 주거역이 분포하는 생활권과 해반천 및 고 김해만의 영향을 받은 뻘층의 명확한 경계지점에 설치된 점으로 볼 때, 해반천과 고 김해만의 영향으로 인한 지형의 침식을 막고 주거역을 보호하기 위한 호안시설로서 당시 김해지역이 바다를 통한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고배, 배, 대호, 기대 등의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5세기 경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5,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Ⅱ』.

1호 석렬

2호 석렬

3호 석렬

출토유물

# 89-3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33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4.3.~2014.4.

**주요 유구 / 유물**
토성 / 고배, 파수부소호, 장경호, 골각기

# 봉황토성 _ 김해시 서상동 331-2번지 건물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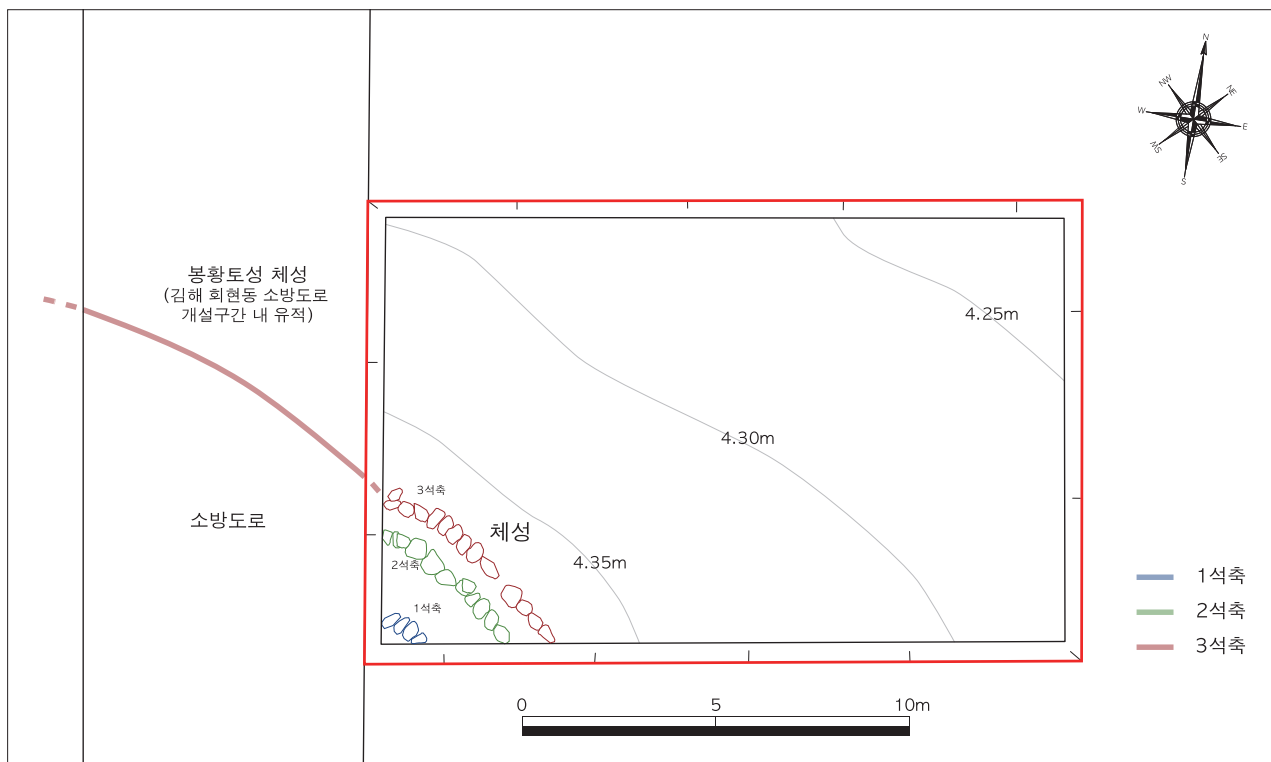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 조사된 토성은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봉황토성과 연결되는 곳으로 기 봉황토성의 체성 외벽 석축렬과 연결된다. 봉황동유적은 수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듯 취락유적, 패총, 야철지, 토기가마, 고상건물지, 토성, 선착장 또는 접안시설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창고군 및 선박재 등이 중층으로 밀집분포하고 있어 김해 가락국의 중심 거주역이라 할 수 있다. 즉 봉황토성은 북쪽의 대성동고분군을 포함하는 분묘영역과 봉황동유적 일대 주거영역의 경계이며 중심 거주역을 방어하고 고김해만과 해반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의 남벽 토층을 보면 토성의 외측으로 암녹색뻘층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봉황토성은 고 김해만과 해반천의 배후습지의 영향을 받은 경계지점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기 조사한 토층의 양상과 유사하며, 이러한 이지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최근 봉황토성의 성격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성곽

유적 위치도

인지, 제방의 목적인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유적의 입지적 요인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저부 조성 시 불다짐으로 바닥정리를 한 점이다. 3석축 바깥쪽 바닥에서 전면적으로 확인되는 경화면은 불다짐에 의한 것으로 0.3㎝ 두께로 2석축 아래에서도 확인된다. 조사구역의 협소로 1석축 바닥 부분의 양상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2석축까지의 양상만으로도 축조 당시에 상당한 공력을 들여 부지를 정지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다짐의 목적은 봉황토성이 입지한 지형이 저습지임에 따라 제습과 부지조성을 위한 지반강화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는 봉황토성과 마찬가지로 저습지에 입지한 경주 미탄사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봉황토성의 서편 권역인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부지에서 봉황토성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다. 기저부에 부엽공법으로 조성하였으며 본 조사구역에서 나타난 불다짐을 사용하여 부지를 조성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다만, 본 유적 동편의 봉황토성과는 달리 혼축 양상이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봉황토성의 체성으로 예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토성의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 서편의 해반천 하구환경 또는 고 김해만의 내만성 기수역과 동편의 저습한 지형환경에 따른 축조방법의 차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3석축 성벽 내부에서 확인되는 점토덩이의 존재이다. 3석축 내부에서만 토낭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2석축까지는 내부를 흑갈색 혼토패각층으로 성토하였고 기존의 토벽을 이용하여 3석축을 새로 쌓으면서 토낭과 혼토패각층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할

유구 배치도

석축

석축 하부 경화층

수 있다. 토낭은 토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심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기 조사된 봉황토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토낭의 사용은 토성의 축조기술에 있어 어느 정도 발전된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토벽의 외부를 불다짐한 소토층의 존재에서 그 기능과 목적(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연접하고 있는 경남고고학연구소 조사에서도 토벽에 불다짐한 소토층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토벽에 불다짐한 것은 앞서 설명한 기저부에 불다짐한 것과 같이 봉황토성이 저습지에 입지하며, 성토 시 사용된 성토재의 습기를 제거하는 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봉황토성과는 달리 고지대에 입지한 백석동 토성의 경우에서도 같은 불다짐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입지적인 요소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한다면 불다짐 목적은 축조 시 성토재의 습기를 제거하고 방습을 통한 토벽의 강화, 우기에 흙이 흘러내리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이해된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체성 노출과정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골과 패각혼입층에서 참굴, 백합, 소라 등의 패각류가 일부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는 대부분 전체 기형을 알 수 없는 파편이며, 외절구연고배, 파수부소호, 파수 편 등이 출토되었다. 일부 유물은 토성 기저부 조성을 위한 하부 경화층에서 출토되었고 체성 내부 노출과정에서 출토된 외절구연고배 등을 통해 볼 때, 인근한 김해 대성동고분군 70호분, 대성동유적 3호 환호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한 것으로 출토유물을 통한 토성의 축조시기는 5세기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6, 『봉황토성-김해시 서상동 331-2번지 건물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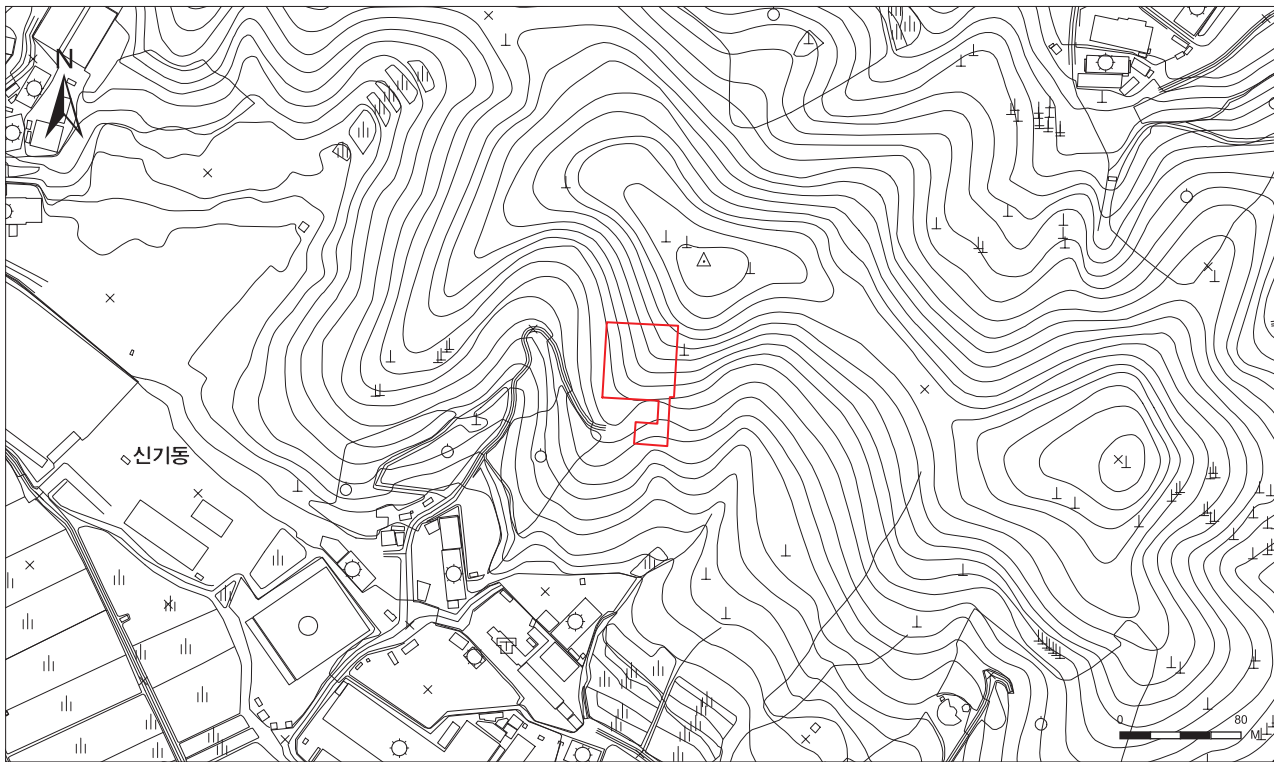
# 신기산성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산
1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3.2.~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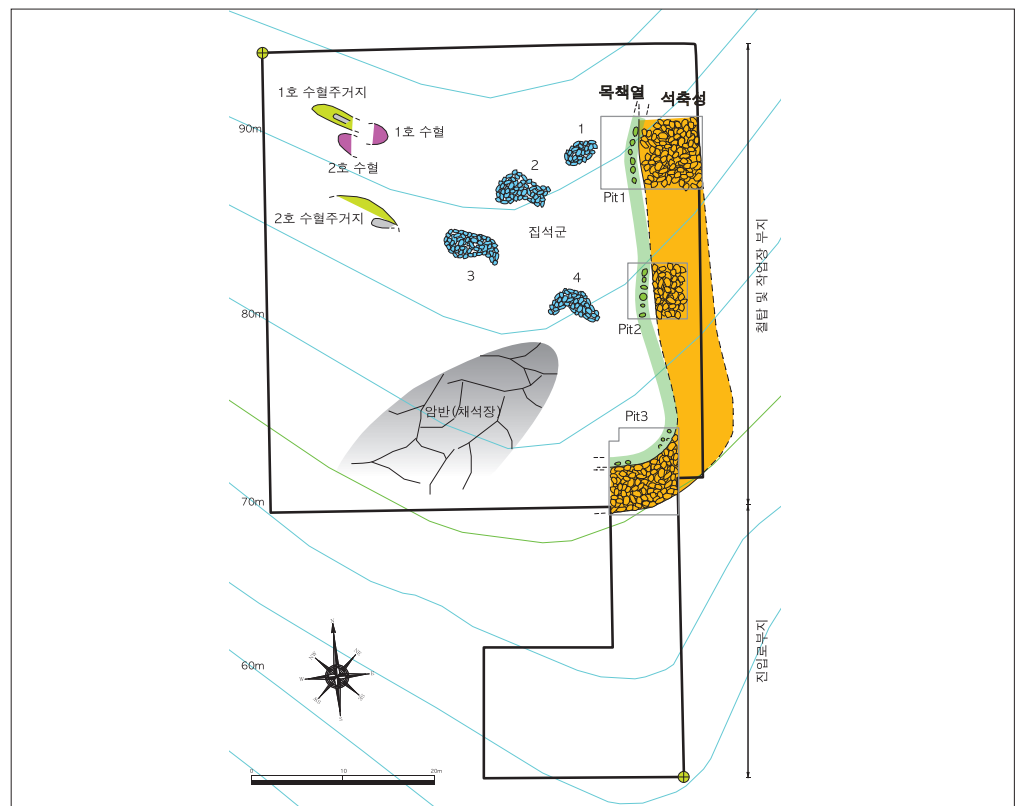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책, 수혈 / 고배,
대부장경호, 장란형토기,
단경호

김해 신기산성(해발 110m)은 주봉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저산성 구릉의 정상부(해발 110m)와 침식곡을 낀 7부 능선을 두르는 포곡식 산성이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가야시기에 목책성을 초축한 후, 서진하는 신라에 의해 석축성으로 새롭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은 고 김해만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분산성(해발 330m)과 양동산성(해발 333m)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해발 70~100m 선상에 소곡을 끼며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김해지역에 분포하는 다른 산성들에 비해 가시권이 다소 좁은 편이다. 그러나 신기산성의 입지는 남쪽으로 김해평야(고 김해만)와 낙동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진례와 삼랑진 방향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관망할 수 있는 요로에 축성되어 있다. 또한 분산성이나 양동산성처럼 높지는 않지만 동시대 주변 관방유적과 연계하여 차단성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위치에 입지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구역내에서 확인된 유구는 목책성과 석축성의 체성부, 수혈, 집석군, 채석장 등이

유적 위치도

다. 이 중 목책성 및 석축성은 조사구역 동쪽(해발 90m) 경계의 능선을 따라 두르다 남쪽(해발 70m)으로 꺾여 진행된다. 그리고 수혈은 조사구역 서쪽 상단과 중단으로 위치하며, 집석군은 조사구역 상단과 중단에 불규칙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양상이다.

이 중, 가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책성은 석축성의 체성부 내벽과 인접하여 등간격으로 조성되었다. 토층에서 석축성 체성부가 주혈을 파괴하면서 축조되어 석축성 이전에 조성된 목책임을 알 수 있다. 축조순서는 먼저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목책을 조성하였다가 이후, 목책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후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그 상부에 석축성의 체성부를 축조한 양상이다. 또한 석축성의 진행방향과 목책의 진행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목책을 인지하면서 석축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석축성 축조를 위해 목책을 인위적으로 폐기시키고 목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석축성을 새롭게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수혈은 총 4기로 조사구역 서쪽에 밀집하는데, 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이다. 수혈 내부에서 2열로 된 터널식구들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간이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에서 삼국시대 장란형토기 및 호편 등이 출토되어 목책성과의 관련성이 상정된다.

조사구역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 편과 적갈색연질토기 편으로 석축성 내부와 수혈 내부에서 소량 출토되었으며 채석장 주변 퇴적토에서도 수습되었다. 정리된 유물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시기차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토된

유구 배치도

1피트 전경

2피트 전경

유물의 기종은 고배 배신부와 대각 편, 대부장경호 대각 편, 장란형토기, 단경호 구연부 및 동체부 편, 개신부 및 손잡이, 병 구연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석축성 내부 적심 및 체성부에서 출토된 고배의 대각 편은 대각이 짧고 원형 투공이 뚫렸거나 비교적 작은 방형 투창이 뚫어져 있다. 이는 고배의 단각화 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석축성의 조성시기가 6세기 초중반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공반하여 출토된 개 역시 손잡이의 형태가 환상형이거나 보주형을 띠고 있어 유사한 시기로 편년된다. 다만, 석축성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목주혈 내부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목책성의 축조시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나 성 내부에 조성된 수혈과 주변 지표상 확인된 유물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수혈 내부와 성 내부 지표상에서 채집된 유물은 대부분 생활용토기, 즉 호류로 잔존하는 기형은 구연부와 동체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물의 특징은 외면에 선문 및 격자문 등의 문양이 타날되어 있고 구연부의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기준으로 심발형과 장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혈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토기는 장란으로 외면에 선문 등이 타날되어 있거나 구연이 살짝 외반하며 동최대경이 중앙에 위치한다. 이 유물들에 대한 기형, 색조, 태토, 문양 등을 관찰한 결과, 이 유물들의 제작시기는 5세기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은 석축성 축조 이전에 조성된 목책 및 수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5, 『신기산성-김해 154KV 주촌분기 T/L구간 철탑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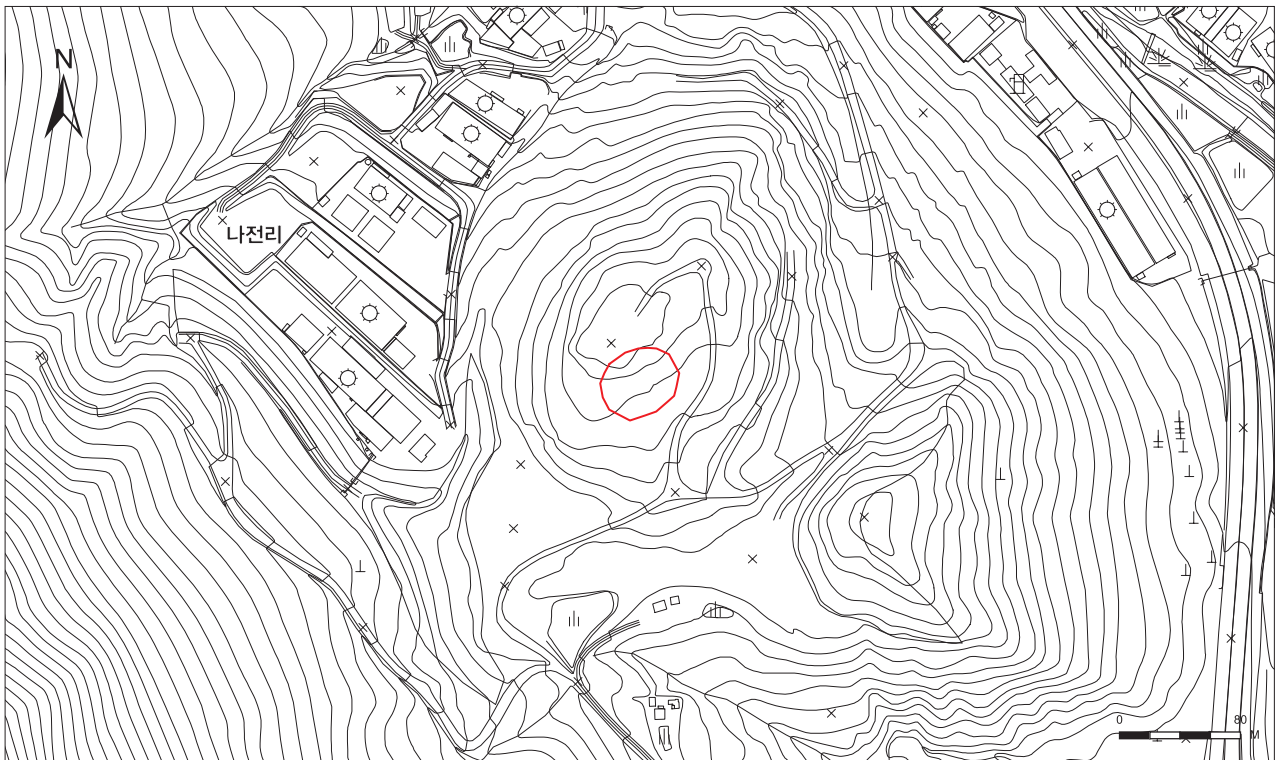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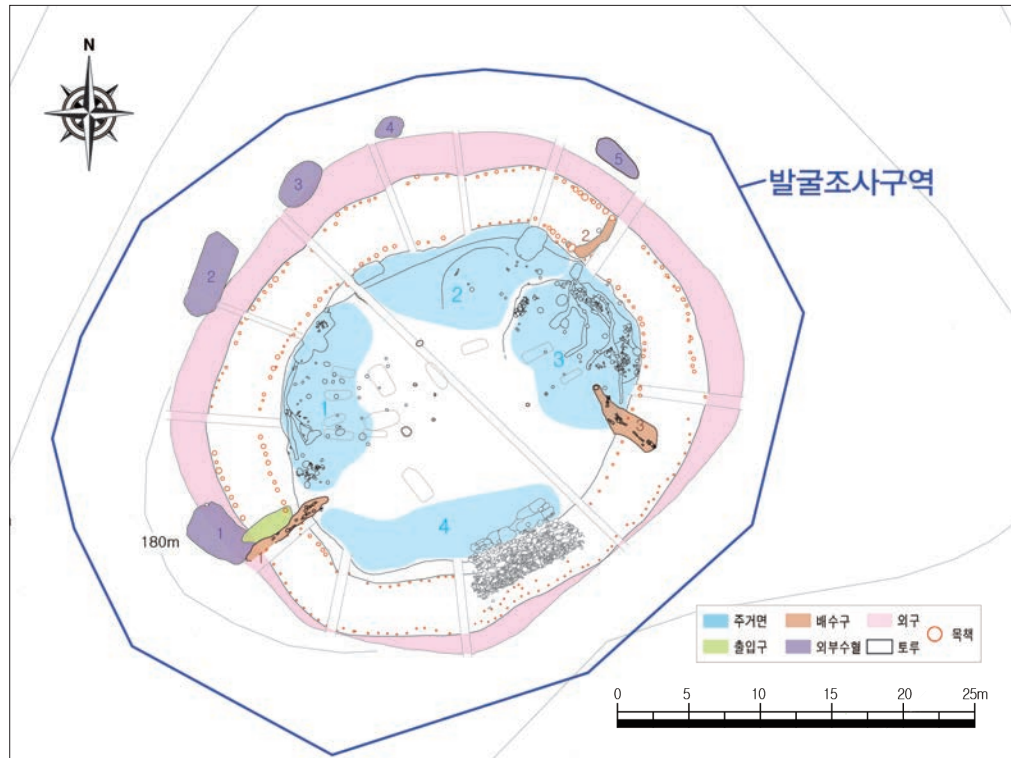
# 91 김해 나전리토루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7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시굴 2009.1.~2009.3.
발굴 2009.3.~2009.4.

**주요 유구 / 유물**
토루, 토루체성부 내 시설, 토루 내부시설, 수혈 / 파수부완, 호, 파수

김해 나전리토루는 하나전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해발 182.2m)에 위치한다. 나전리는 나전羅田 이외에 나현羅峴 또는 로현露峴이라는 지명이 불리는 고개로 옛지도에서 보면 김해도호부를 중심으로 생림면 입구에 해당하면서 낙동강지역에서 김해도호부쪽으로 병목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지리적으로도 매우 주목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전리토루는 구릉 정상부에 방어적 성격의 토루시설과 더불어 내부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유적의 성격을 가진 유적으로 판단된다. 고구려 중심으로 알려진 보루성은 그 존재가 일찍부터 알려져 왔지만,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인 토성도 아닌 소규모 보루성의 발굴조사는 전무하다.

토루의 평면형태는 산 정상부의 자연지형을 따라 원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축조되었다. 북벽은 양호하게 잔존하며 남벽은 토성의 체성 내부가 일부 삭평되었다. 토루축조의 기본적인 기법은 구릉사면의 구지표층과 구릉정상부를 일정부분 삭토한 후 구릉 정상부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외면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목주를 30㎝ 간격으로 촘촘히 박아 토루의 내외 너비를 3m로 일정하게 조정하고 기반토와 할석을 섞어 2m 높이로 성토하였다. 토루 외부에 수혈을 굴착하여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연지세에 따라 북쪽 토루의 외부에는 목주가 드러나 있었으며 급경사의 남쪽 토루는 자연암반에 할석부를 일정부분 편축으로 쌓아 계단처럼 채워 놓았다. 즉, 토루 체성부의 축조방법 중 기저가 연약한 부분은 삭토를 통해 성토재를 확보하고 목주열과 횡가목의 목책을 토루성채 틀로 구획하였다. 따라서 토루 기저부 너비나 상부 높이를 구획하는데 목주가 사용되며 내·외 주향을 따라 3m 간격으로 하부는 넓게 굴착하여 목주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횡가목을 결구하였으며 목주의 상부는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나전리토루는 내·외면을 일정 높이로 쌓는 판축과는 차이가 있고 기존의 구릉정상부 높은 지점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내면의 목주는 흙을 지지하는 정도로만 쓰이고 외부의 목주열은 외구를 만들면서 생긴 성토재를 적재하면서 외부쪽으로 흙이 많아진다. 따라서 내부 목주열보다 많은 하중을 받으면서 토루의 체성부를 지지하고 있어 내부 목주열보다 깊고 넓게 굴착되어 있다.

토루의 체성부를 제외한 토루 구조물로는 출입구와 3개의 배수구가 있다. 그 외 토루 내부는 475㎡로 좁은 편이며 내부 주거시설과 수혈구조가 확인된다. 정상부 내에는 대형 주혈이 확인되어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망루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구는 남쪽으로 확인된다. 보루의 전체 지형 중에서 경사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며 할

석 무더기 아래에서 남-북으로 긴 배수구가 시설되어 있어 출입구로 추정된다. 배수구는 토루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남쪽의 1호와 북쪽의 3호가 전형적인 형태를 띤다. 유적 내 가장 높은 곳과 배수구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는 80cm이며 배수구 아래로 더 낮아지는 곳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물이 배출되어 낮은 쪽은 더 이상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토루 내연 가까이에 '凹'자상을 띠며 하나의 수혈처럼 구축되어 있으나 위치에 따라 각각 공간 분할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유물 출토위치를 통해 총 4곳의 주거공간을 추정할 수 있다. 제1주거면은 점토를 이용하여 세운 판석 2매가 50cm 간격으로 조사되었으며 원통형의 적갈색연질토기가 바닥에 박혀있고 그 주변에 많은 그을음과 목탄이 검출되고 있어 배연시설을 가진 온돌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2주거면은 내부에 주거시설로 불을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화재로 소실된 당시 주거지 상부구조의 할석과 점토가 토루 내연을 따라 약 2m 너비로 확인된다. 이 곳에서는 수혈 4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3·4호 수혈 내부에서 철마鐵馬 2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일종의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주거면은 소형 할석이 함몰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구가 배연시설로 추정되는 혈穴로 연결되고 상당 수의 생활용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제4주거면은 벽체로 추정되는 소토덩이와 할석이 무너져 있고 할석을 이용하여 평탄한 바닥면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창고나 막사건물 등으로 추정된다.

나전리토루는 화재로 인해 일시 폐기되었던 것으로 유물의 동시성이 인정된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장동옹·장경호·연질발 등의 생활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단경호·고배·개 등의 경질토기도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폐기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금관가야 멸망 이전 단계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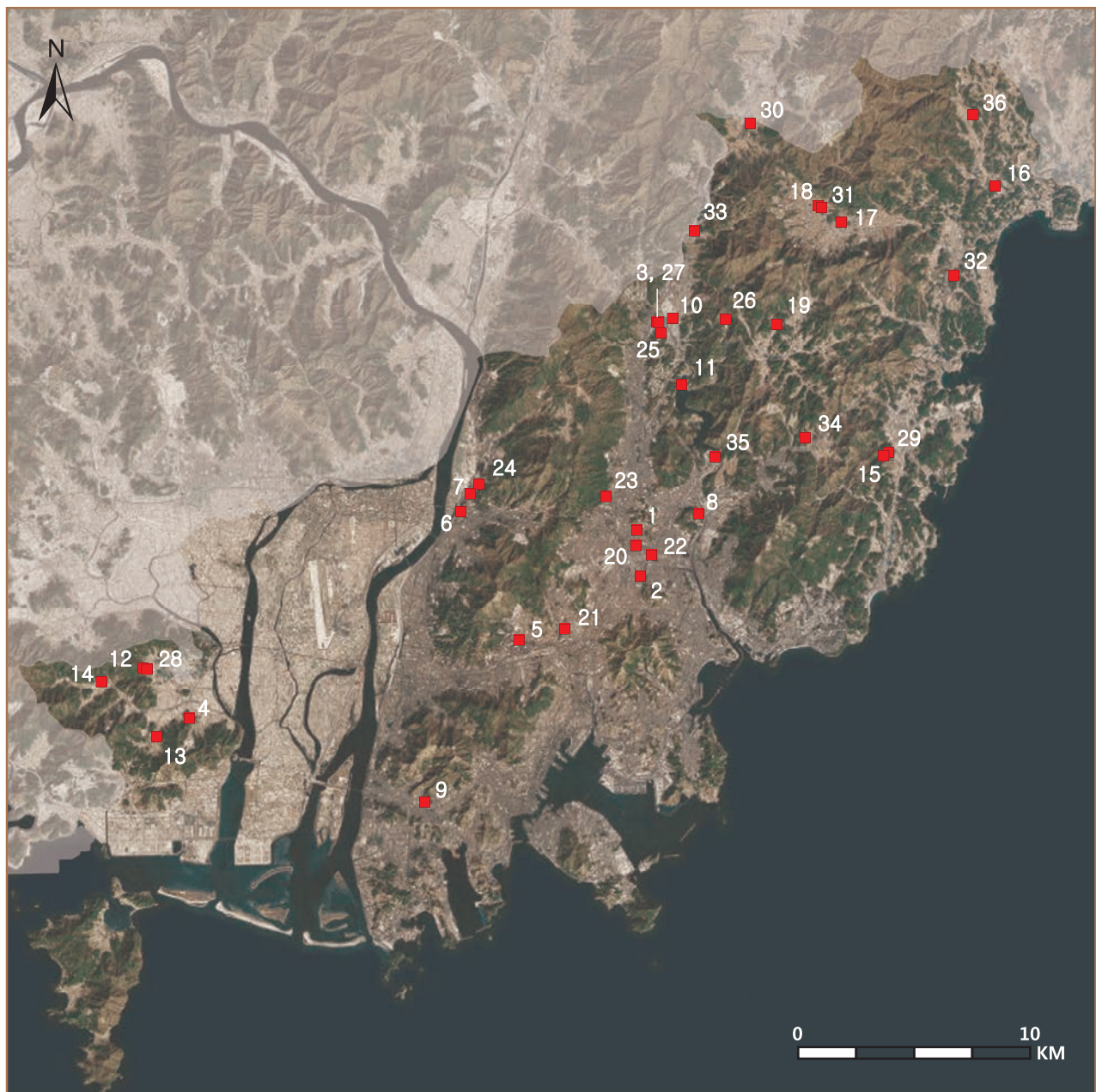
동서문물연구원, 2012, 『김해 나전리토루-김해 나전리 토취장 사업부지내 유적-』.

서쪽체성부A~B구간

東萊
左水營
釜山浦
豆毛浦
草梁倭館
絶影
牧
開雲浦
海雲浦
萬世德碑
五六島
機張
梵魚寺
金井山
荒嶺山
輪山
仙岩山
嚴光山
松峴山
龜峰
勝岳山
多大浦
甘同
溫井
休山
雲峯山
鐵馬山
巨文山
新明
南山
上山
佛岩津

# Ⅱ. 부산

N
30
36
16
18
31
17
33
32
3, 27
10
26
19
25
11
34
35
29
15
24
7
6
23
8
1
20
22
2
5
21
12
28
14
4
13
9
0
10
KM

01

# 부산 복천동고분군
## 釜山 福泉洞古墳群

| 사적 제273호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산50번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부산 동래 중심부 북쪽에 반달 모양으로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는 마안산에서 동래구청 사이에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유적의 남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는 동래패총이 이웃하고 있으며, 또한 남으로 약 1.8㎞ 떨어진 곳에는 연산동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다.

1969년, 택지개발공사 진행 중 우연히 고분이 확인되어 긴급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조사의 시작이다. 이후 8차례에 걸친 정식 발굴조사와 수차례의 수습·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구릉의 정상부에는 부곽을 갖춘 대형의 목곽묘가, 구릉의 사면 및 주변부로는 중소형의 목곽묘, 수혈식석곽묘가 은밀하게 축조되어 있다. 대체로 구릉의 동남쪽에서 서남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축조되었다. 2세기 전반부터 7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확인된 무덤의 종류도 목관묘,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횡구식석실묘 등 다양하다. 그 중 4~5세기 대에 해당하는 목곽묘, 수혈식석곽묘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복천동고분군은 같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만들어진 무덤 유적이므로 무덤의 변화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에 따른 유물상의 변화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파악에 매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고분의 조성이 오랫동안 진행 된 만큼 출토된 유물의 숫자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복천동고분군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면서 발굴이 한창 진행 중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중요성이 큰 유적이다. 토기류, 철기류를 포함한 금속류, 유리제구슬을 포함한 장신구류, 골각제와 같은 기타 여럿이 출토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4~5세기로 편년되는 토기들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당시 부산지역 고대문화를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야와 신라문화를 이해함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금속류는 2016년 보물 제1922호로 지정된 10·11호분 출토 금동관을 비롯하여 각종 장식대도, 갑주류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경주지역과 같은 화려한 금·은제유물은 많지 않으나 철제유물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단일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최대 수량이 확인된 무구류·갑주류는 가야의 우수한 철기문화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복천박물관, 2006, 『복천동고분문화』.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6, 『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학연문화사, 2003, 『가야의 유적과 유물』.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동래 복천동 제1호 고분 | 동아대학교박물관 | 1969.9. | 동래 복천동 제1호 고분 발굴 조사보고(1971) |
| | 부산 칠산동 제1호 고분 | 동아대학교박물관 | 1970.4. | 부산 칠산동 제1호 고분 발굴 조사 보고, 문화재6(1972) |
| | 동래 복천동 고분 | 동아대학교박물관 | 1970.~1971.2. | 동래 복천동고분 발굴조사보고, 상노대도(1984) |
| | 동래 복천동 학소대고분 | 부산대학교박물관 | 1974.9.~1974.10. | 동래 복천동 학소대고분(2001) |
| 2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1차 발굴조사 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0.10.~1981.2. | 동래 복천동고분군 I (1983)<br>동래 복천동고분군 II (1990) |
| 3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2차 발굴조사 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6.7.~1986.8. | 동래 복천동고분군 2차조사개요, 영남고고학6(1989) |
| 4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3차 발굴조사 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br>부산박물관 | 1989.8.~1989.10. | 동래 복천동53호(1992)<br>동래 복천동고분군–52·54호–(2001)<br>동래 복천동고분군 제3차조사개요, 영남고고학7(1990) |
| 5 |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 | 부산박물관 | 1989.11.~1989.12. |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1990) |
| 6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4차 발굴조사 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 1991.7.~1991.9. | 동래 복천동고분군 III –제4차발굴조사 57·60호–(1996) |
| 7 | 동래 복천동고분군<br>–38호분 주곽 |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3.8.~1983.9. | 동래 복천동고분군 –38호–(2010) |
| | 부산 부천동고분군<br>–제5차 발굴조사 유적 | 부산박물관 | 1994.3.~1995.1. | 동래 복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 개보(1995)<br>동래 복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 38호분–(2010) |
| 8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6차 발굴조사 유적 | 복천박물관 | 1998.5.~1998.6. | 동래 복천동고분군–제6차 발굴조사 141~153호·조선시대 유구(1999)<br>복천동고분군–제6차 발굴조사 126~132호분–(2015) |
| 9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7차 발굴조사 유적 | 복천박물관 | 2002.6. | 복천동고분군 제7차 조사보고(2004) |
| 10 |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지역<br>시굴조사 유적 | 복천박물관 | 2002.6. |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지역시굴조사 보고(2004) |
| 11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8차 발굴조사 유적(160~166호) | 복천박물관 | 2006.7.~2006.10. | 동래복천동고분군–제8차발굴조사 160~166호–(2008) |
| 12 | 부산 복천동고분군<br>–제8차 발굴조사 유적(167~174호분) | 복천박물관 | 2008.2.~2008.3. | 동래복천동고분군–제8차수습조사 167~174호(2010) |

## 01-1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차 1969.9.
2차 1970.4.
3차 1970.~1971.2.
부산대학교박물관 /
1974.9.~1974.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금동관, 각배, 찰갑,
견갑, 마구

# 부산 복천동고분군 _ 긴급수습조사 유적

부산 복천동 1호분은 1969년 9월 택지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마안산 자락에서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터파기를 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부산시와 문화재관리국은 긴급 발굴조사를 결정하였고,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복천동 1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조사당시 지표에서 개석까지의 깊이는 140cm이고, 그 중 60cm 부피로 흑색점질의 밀봉토가 개석을 덮고 있었다. 처음에는 높은 봉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지 않는다. 석곽은 경사면에 자리를 잡아 지반을 깊게 굴착하고 석축으로서 묘광을 튼튼히 하여 그 위에 거대한 개석을 덮은 형식이다. 묘광은 장방형으로 길이 890cm, 너비 130~140cm, 깊이 130cm이다. 매장주체부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서 2개의 토기군과 함께 남쪽 가까운 중앙에는 장신구가, 남쪽 벽면을 따라서는 각종 철기류가 배치되어 있었다. 금동관은 남쪽부분의 좁은 공간에 바른 자세로 놓여 있었다. 금동관 옆으로는 세환이식 1쌍도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71, 『동래복천동 제1호 고분 발굴 조사보고』.

동아대학교박물관, 1972, 『부산 칠산동 제1호 고분 발굴 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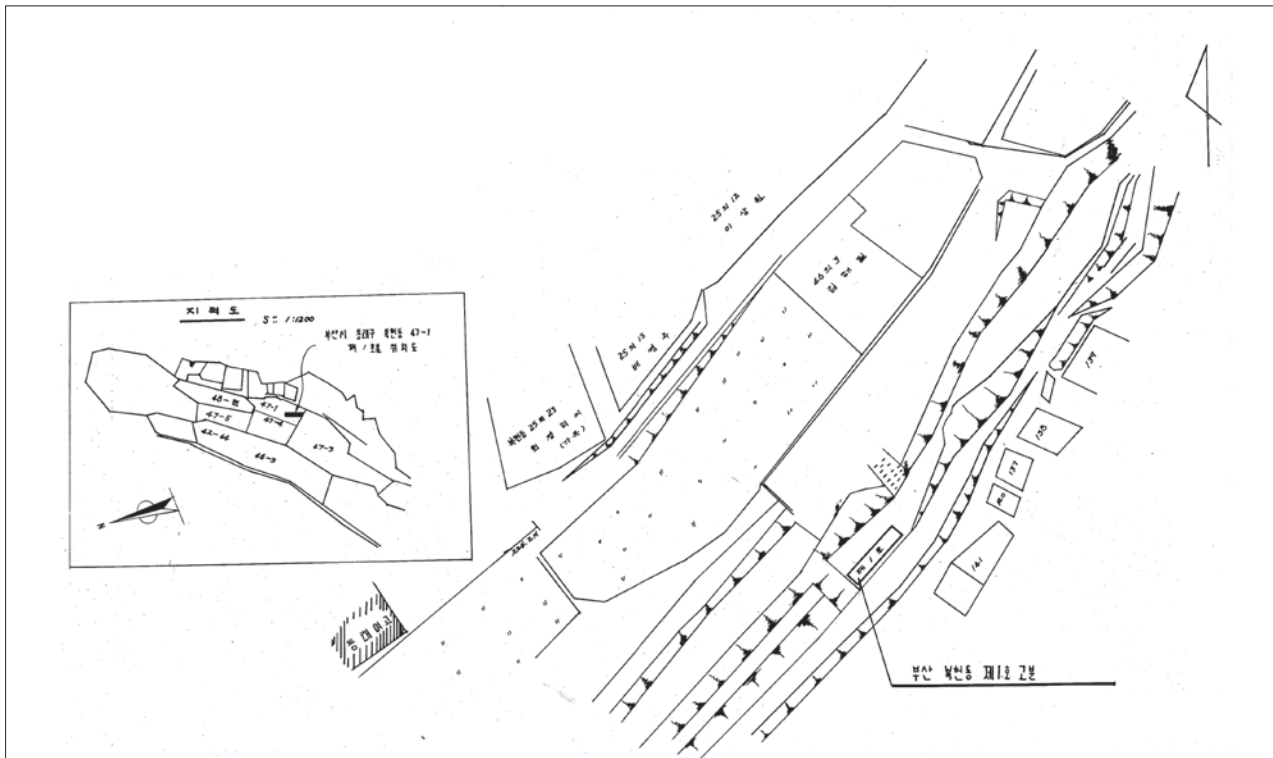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동래복천동 고분 발굴조사 보고』, 『상노대도』.

부산대학교박물관, 2001, 『동래복천동 학소대고분』.

복천박물관, 2009, 『복천동 고분문화』.

복천동 1호분은 택지개발공사 진행 중 긴급으로 조사된 1기이지만, 그 규모와 풍부한 부장품들로 부산지역에 가야의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다.

1970~71년에는 구릉 서쪽 사면의 고분 9기가 긴급 조사되었다. 1호분과 유사한 수혈식석곽묘와 주·부곽식(석)목곽묘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7호분(동)에서는 마두식각배(보물 제598호) 한 쌍이 출토되었고, 이와 함께 환두대도, 세환이식, 경갑도 수습되었다.

1974년에는 구릉 동쪽 사면 일대의 택지공사 중 석곽묘 2기와 목곽묘 1기가 긴급조사되었다(학소대고분으로 명명). 주·부곽식목곽묘인 1구 2·3호분의 찰갑은 700매 가량의 소찰을 사용하였다.

유적 전경

1호분 유물 출토모습

1호분 출토유물

# 01-2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1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산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0.10.~198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금동관, 고배, 통형기대, 행엽, 갑주

복천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당시 택지조성예정지였다. 택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주민들이 이 구릉지대를 삭평하여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자 이 지역이 중요한 고분 유적지임을 인식하고 있던 부산시의 문화재 관계자들은 공사전에 유적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위하여 먼저 공사예정지역인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산50번지 일대의 2,324평에 대한 예비조사를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였다. 부산대학교박물관은 이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표 아래 10~40㎝에서 상태가 양호한 고대 집단고분군의 흔적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부산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시 당국은 다시 시굴이 실시된 구릉 정상부의 600여 평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였다.

우선 발굴지역 전면의 표토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유구의 배치상황을 확인하였다. 대형분들은 분구 중심부의 정상부를 따라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소형분들

유적 위치도

이 불규칙하게 혼재하고 있었다. 대형분들의 경우 유구 자체가 지표 하 2~3m 정도로 깊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보존상태도 양호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총 27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구릉 정상부의 대형분들은 낮은 쪽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조영되어 있다. 제1차 조사에서는 복천동 10·11호분, 21·22호분을 비롯한 정상부에 있는 대형의 분묘가 여럿 조사되었다.

복천동 10·11호분은 제1차 조사를 대표하는 분묘로, 구릉의 정상부에서 동북으로 차츰 낮아지는 사면의 중앙에서 서남으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최정상부에서 대략 서북으로 25m 떨어진 곳으로 북쪽에는 7호분이, 동쪽에는 8·9호분이, 남쪽에는 15호분과 21·22호분이 각각 인접하고 있다. 주·부곽을 갖춘 대형분 중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분묘이다. 10·11호분은 독립된 토광목곽의 부곽을 가진 수혈식석곽묘로서 주곽은 서남쪽에, 부곽은 동북쪽에 일직선으로 각각 축조되어 있다. 유구의 축조는 먼저 2개의 깊은 대형 수직광을 70㎝의 간격을 두고 굴착한 후 서남쪽의 것은 장방형의 개석을 축조하여 주곽으로 사용했으며, 동북쪽의 것은 내부에 목곽만을 넣어서 부곽으로 이용했다. 즉 주곽은 수혈식석곽으로, 부곽은 토광목곽으로 축조하여 하나의 분묘를 형성한 것이다. 가장 깊은 쪽인 주곽의 남벽 깊이는 3m가 넘으며, 가장 낮은 쪽인 부곽의 북벽 깊이는 1.5m 정도로 내부 주체시설은 완전 지하식이다. 묘광의 지상에는 일정한 크기의 봉토가 만들어졌으리라는 것이 묘광 내 함몰부의 토층단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부곽인 10호분의 묘광은 길이 600㎝, 너비 350㎝, 깊이 200㎝~150㎝ 가량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다. 바닥상면은 주곽상면보다 약간 높으며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다. 묘광 내에 목곽을 넣고 그 사이의 사방공간에 흙을 채워 넣어 목곽을 고정하였다. 주곽인 11호분 수혈식석곽은 묘광 내에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지게 축조되어 있다. 묘광은 길이 750㎝, 너비 450㎝, 깊이 220~320㎝이다. 석곽은 길이 430㎝, 너비 150㎝, 깊이 150㎝이다. 측벽은 비교적 크기와 형태가 고른 할석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쌓아올렸다. 묘광과 석곽벽 사이의 사방공간은 측벽석과 같은 크기의 암석으로 횡평적하면서 흙으로 그 틈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강하여 측벽상단까지 메웠는데, 이 측벽보강은 측벽축조와 동시에 병행하여 쌓아 올린 것이다. 석곽 위에는 길이 210~240㎝, 너비 105~160㎝, 두께 35~60㎝ 크기의 대형개석 4매를 발라 완전히 봉하였다. 석곽의 바닥에는 길이·너비 20㎝ 이내의 납작한 할석을 한 벌 깔아 시상을 만들었다.

부곽인 10호분에서는 유물이 120여 점 확인되었다. 목곽 상면에 매납한 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곽 내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에는 주 유물군이, 중앙에는 마주와 마구류가, 남쪽에는 장경호와 결합된 발형기대와 소량의 철기가 매납되어 크게 3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곽인 11호분은 도굴되지 않은 완형의 대형 석곽으로 내부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목곽 설치범위를 중심으로 목곽 내에 매납된 것, 목곽 남쪽의 곽 외에 부장된 것, 목곽 북쪽의 곽 외에 부장된 것까지 총 3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은 고배·발형기대·통형기대를 비롯한 토기류, 금동관·철촉·철부·철정·환두대도·철모·갑주·마주·행엽·등자·안장을 비롯한 금속기류 등 다종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동래복천동고분군Ⅰ』.

11호 주곽

10호 부곽

# 01-3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2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산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6.7.~1986.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재갈, 철정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2차 발굴조사는 제1차 조사 시 시간과 예산관계상 조사가 다소 미진하였던 유구를 중심으로 이를 마무리 짓는, 말하자면 제1차 조사를 보완하는 성격을 띤 것이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주·부곽식의 대형 목곽묘인 31·32호묘를 비롯하여, 39·40호묘 등이 조사되었다.

제2차 조사의 대표분인 복천동고분군 31·32호분은 고분군 북쪽 구릉 중앙정선부에 조영된 대형의 이혈주·부곽식목곽묘이다. 구릉의 주능선상에 입지하며,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주곽(32호)은 남쪽에, 부곽(31호)은 북쪽에 위치하며 주·부곽 간의 간격은 80㎝ 정도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며, 주곽은 흙과 다량의 돌을 섞어 보강한 데 비해 부곽은 흙만을 채워 보강하였다. 주곽은 길이 712㎝, 너비 449㎝, 깊이 265㎝의 장방형 묘광을 파고, 길이 480㎝, 너비 80㎝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돌과 흙을 섞어 보강한 복천동의 다른 묘제에 비해 적석의 양이 상당한 편이다. 유구의

유적 위치도

전체적인 크기는 26호와 비슷하나 매장주체부가 480×80㎝로 너비가 좁아지고 매우 세장한 형태이다. 유구의 형태는 석곽의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관을 넣어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서 180㎝ 위에서부터 돌이 나타나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이는 목곽이 함몰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동장벽 내부로 회색점토띠가 나타나며, 서장벽 부분에서도 이것이 부분적으로 연결되며, 회색점토띠는 목질흔을 수반한다. 이외의 부분에서도 석축사이의 공간은 20㎝ 정도의 폭을 가지며 돌과 점성이 있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로 검은 점토가 연장되어 석축이 이어지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는 32호의 보강 상태를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데, 보강석과 보강토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매장주체부를 감싸고 있다. 묘광벽 공간에는 적색과 황색 계통의 흙을 판축상으로 쌓아올렸다. 32호는 유구의 측면 보강 형태로 보아 판축상을 띠고 있으며 목가구를 설치하고 봉토를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묘광 사이와 목곽 상부 모두를 돌로 채우는 적석목곽묘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전형적인 목곽묘라고 볼 수 있다. 주곽의 유물은 주로 관상 내 출토품과 관상 외 출토품으로 구분되는데, 관상 외에서는 북편 즉 시신의 두부와 우편에서만 유물이 확인된다. 관상 내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형 토우부기대·발형기대·고배류 등이 있다. 철기는 꺾쇠를 비롯하여 철정 1점이 확인되었다. 꺾쇠나 철정을 제외하면 모두 관의 상부에 놓였던 유물로 판단된다. 시신의 두부에 해당하는 북편에는 고배류를 비롯한 다종의 토기가 배치되며, 철기는 철도자 1

유적 전경

31·32호분

32호 주곽

31호 부곽

점이 출토되었다. 서쪽 장벽에는 기대류의 편들이 흩어져서 일렬로 집중 매납되어 있으며 시신의 왼편에 해당하는 동쪽 장벽과 남단벽으로는 특별히 유물이 부장되지 않는다.

부곽은 길이 600㎝, 너비 320㎝, 깊이 215~270㎝의 장방형 묘광을 파고 길이 460㎝, 너비 170㎝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주곽에 비해 곽의 너비가 넓다. 반면 보강토의 높이가 약 70㎝로, 곽의 높이는 주곽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곽에서는 곽 이외의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간 구획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북단벽과 서북쪽 모서리로 치우친 토기 매납구역, 남단벽에서부터 유구의 중앙부까지 미치는 토기의 집중매납구역, 그리고 이 두 구역의 사이로 넓은 면적의 빈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단경호가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으며, 발형기대 1점과 대호 1점이 확인되었다. 또 재갈 1점이 출토되는데, 유물 배치상 대호 내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편 토기 집중 매납 공간에는 고배류·대부파수부소호·광구소호·소형기대·파수부완 등의 소형기대, 소량의 단경호와 기대류·연질옹 등이 출토되는데, 이 공간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유물 매납의 공간 구획이 관찰된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5, 『동래 복천동 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 개보』.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복천동고분군V』.

전옥년·이상율·이현주, 1989, 「동래복천동고분군 제2차 조사개보」, 『영남고고학보』6.

# 01-4

##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3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산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박물관 /
1989.8.~1989.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종장판주, 철정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3차 발굴조사지역은 제1·2차 발굴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이며, 고분군이 조영된 구릉의 중간 부분이다. 5세기대의 분묘가 중심을 이루는 제1·2차 발굴조사지역과 4세기대의 분묘인 38호분을 중심으로 한 1991년도의 제4차 발굴조사지역의 중간지점에 해당된다. 원래는 가옥이 조밀하게 들어서 있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집들이 모두 철거되고 아무런 지장물이 없이 풀만 자라고 있었다. 표토 하 20~40cm 정도에서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어 일정한 두께로 묘광 내부의 표토를 제거하였는데 묘광의 내부가 부분적으로 가옥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형 목곽묘인 54호분의 주곽에서는 연탄 아궁이와 건물의 기초가 확인되어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차 조사 결과 목곽묘 11기와 석곽묘 3기 등 총 14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그 중 복천동 54호분은 3차 조사를 대표하는 대형 주·부곽식목곽묘로, 3차 조사 전까지만 해도 외곽에 치우친 입지라고 생각되었으나, 이후에 실시한 제5차·6차 조사결과 구릉의 중심고분임이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54호

54호분 주·부곽은 모두 장방형의 묘광을 파고, 그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였다. 주곽은 길이 760㎝, 너비 370㎝, 깊이 185㎝로 묘광을 파고 내부에 길이 590㎝, 너비 257㎝의 목곽을 설치하였으며, 주곽의 바닥이 부곽의 바닥보다 130㎝ 더 깊다. 목곽은 서쪽과 북쪽 모서리에서 'ㄴ'자형으로 홈을 파서 연결하였고, 남쪽 모서리에서는 'ㄷ'자형으로 홈을 파고 연결하였으며, 동쪽 모서리에서는 홈을 파지 않고 연결하였다. 이것으로 목곽의 동·남장벽을 먼저 설치한 후 시계방향으로 목곽을 설치해 갔음을 추측할 수 있다. 목곽의 장벽 안쪽에서는 각각 3개씩의 모두 6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목곽의 축조 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곽 내부에는 전면에 할석을 깔아 시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장자의 목관을 안치한 중앙부분의 높이가 양쪽의 높이보다 낮은 '凹'자상을 띤다. 이 시상 외연의 높은 부분에는 목관의 결구에 사용된 관정이 10개 출토되었으며, 목관의 내부에는 노형토기와 단경호·고배·경식·철도자 등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피장자

의 안치방식은 복천동고분군의 4~5세기 초 목곽묘 대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목관의 구조는 목관내부 바닥에서 출토한 철제유물의 수착상태로 보아 목판 혹은 직유織維를 깔고 주변을 돌로 돋우고 난 후 바닥이 없는 100×360㎝의 '冂'자형 목관을 덮은 것으로 추측된다. 목곽 외부는 대체로 파낸 흙을 다시 채워 넣었다. 6~10개 층으로 구분되지만 적갈색 또는 황갈, 녹황색이며 점토와 사질토가 혼재되어 있으나, 굳이 판축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54호분은 봉토가 가옥의 설치로 일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광이 깊어 내부는 전혀 교란되지 않고 양호한 유물 부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부곽 모두에서 총 214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주곽 내 유물배치는 크게 목관 안과 밖으로 구분된다. 우선 목관 밖은 시신의 머리 쪽과 발치 쪽으로 나뉜다. 시신의 머리 쪽에는 토기 외에도 칠흔적으로 보아 목기류 등을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목곽 내 동북쪽 모서리 부분에는 유개고배 1점, 무개고배 6점, 대부파수부호 1점, 대부직구호 1점을 서북 모서리에는 통형기대와 무개고배를 배치하였다. 목관 밖 남쪽 발치에는 잔돌만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고, 남동 모서리에는 노형기대 1점과 양이부호를 놓았다. 목관의 내부도 머리와 발치 양쪽으로 구분하여 유물을 부장하였다. 머리쪽에는 노형기대에 양이부호를 담아 놓고 그 옆에 유개대부직구호와 고배류를 안치하였다. 경식은 이들 토기에서 약 60㎝ 떨어져서 확인되었다. 목관 내 발치에는 단경호 1점만이 놓여있다.

54호분의 부곽은 주곽의 북쪽에 거의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며, 약 150㎝정도 떨어져 있다. 묘광은 길이 585㎝, 너비 285㎝, 깊이 80㎝로 파고, 그 안에 길이 480㎝, 너비 200cm 크기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묘광의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부곽의 모든 유물은 목곽의 남서쪽인 주곽에 치우쳐 200×360㎝의 공간 내에서만 출토하였다. 목곽 내부에는 먼저 원형 토광을 3개 파고 그 안에 대호를 안치하였다. 그 중 가장 큰 대호 안에 소형 철정 10매씩 묶은 4다발을 가죽 등과 같은 유기물질에 싸서 넣었고, 봉상철정 10개와 중형 철정 10매를 끈으로 엮은 1다발 등 철정 60매를 매납하였다. 그리고 노형토기 위에 단경호를 얹어서 전면에 놓은 다음 그 위에 주곽쪽으로 단경호를, 그리고 고배와 여타의 토기를 부장하였다. 마구와 투구는 서장벽을 따라 토기 위에 얹혀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2001, 『동래복천동고군-52·54호-』.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2, 『동래복천동53호분』.

출토유물

## 01-5

# 동래 복천동 내성유적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989.11. ~ 1989.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철부, 철촉

부산 복천동 내성유적은 복천동고분군 구릉의 동남 사면의 아래쪽에 입지하고 있는데, 복천동고분군과 동장대 사이에 형성된 서남향하는 계곡의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1989년 10월경 내성초등학교 뒷마당에서 동래교육청사 신축 중 가야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은 부산대학교박물관과 부산직할시립박물관이 합동으로 발굴한 복천동고분군 제3차 조사 시 알려지게 되었고, 관계 연구자들의 현장 조사 결과 내성유적 일대에는 삼국시대 분묘와 무문토기시대 주거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부산시립박물관에서는 내성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시 문화재 관계자와 협의하여 긴급발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1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발굴범위는 동래교육청사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를 확인하였다.

유적 위치도

내성유적은 발굴 조사전, 동래교육청사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터파기 공사로 인해 상당히 파괴 유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의외로 무문토기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이 혼재하는 복합유적임이 드러났고, 여기서 다량의 유물들이 검출됨에 따라 선사 및 고대의 문화상을 규명·복원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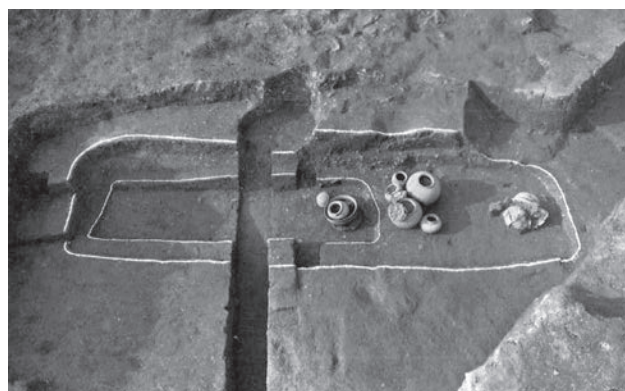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목곽묘 7기, 토광묘 2기, 옹관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 중 5호분만이 거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5호분이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범위 밖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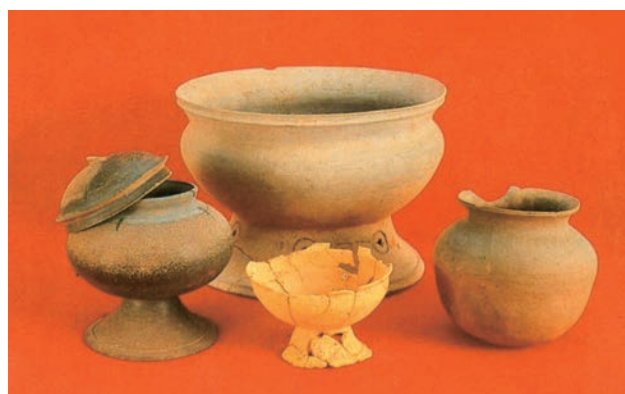
5호분은 세장방한 묘광을 길이 460cm, 너비 120cm 정도로 파고 그 내부에 레벨을 달리하여 시신을 안치하는 주곽과 유물을 부장한 부곽을 설치한 형태이다. 주곽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280cm, 너비 120cm, 깊이 55cm정도이다. 목곽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목곽과 토광 사이의 유존 보강토의 흔적을 통해 볼 때 그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75cm정도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곽에서 노형토기 1점, 단경호 1점, 유개대부직구호 1점, 철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부곽에서는 단경호 5점, 경질고배 2점, 연질옹 1점, 노형토기 1점, 철부 1점, 철촉 7점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봉토매납 유물로 생각되는 대호 편 1점이 내부함몰토에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부산박물관, 1990, 『동래복천 동내성유적』.

유적 전경

5호분

5호분 유물 출토모습

5호분 출토유물

# 01-6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4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산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91.7.~1991.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판갑, 도자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4차 발굴조사는 사적지정구역의 남쪽 하단부로 약 500평 범위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제3차 조사까지의 조사 결과로 볼 때, 4세기 전반대의 비교적 이른시기 목곽묘가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제4차 조사의 목적은 4세기 전반대의 자료를 확보하여 복천동유적의 고분 변천과정과 문화상을 계기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복천동고분군의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4차 조사에서는 목곽묘 17기와 석곽묘 2기, 횡구식으로 추정되는 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 특히 57·60호분은 제4차 발굴조사 사례 중 가장 최대형에 속하면서 다른 무덤에 비해 부장품이 풍부하고, 또한 중요한 자료가 많이 확인되어 4세기대 복천동고분의 문화양상을 살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분묘라 할 수 있다.

복천동 57호분은 56호를 정점으로 하는 낮은 봉우리의 완만한 남사면에 위치하고,

유적 위치도

남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주축은 능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남쪽에는 부곽이 있고, 북쪽으로는 56호, 동쪽으로는 65호, 서쪽으로는 64호가 인접하고 있다. 상부에는 주택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였다. 유구는 풍화암반층을 파고 형성되었는데, 묘광의 서쪽은 비교적 단단한 암석지반이고, 북쪽과 동쪽은 연약한 풍화암반층이다.

묘광은 장방형을 띠며 길이 590㎝, 너비 280㎝, 깊이 150㎝이고, 목곽은 길이 490㎝, 너비 200㎝, 높이 60㎝지만 결구상태나 구조를 알 수 있는 흔적은 없다. 목곽의 외부는 남쪽 단벽에만 할석을 1~2단 쌓은 후 흙으로 채우고 나머지 3면은 대체로 파낸 흙을 그대로 채워 넣었다. 3~5층 정도로 구분되지만 명갈색 또는 갈색이며 자갈과 모래의 혼입이 많고 판축하지는 않았다. 목곽상부에는 봉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목곽 내부의 바닥은 10~30㎝ 크기의 할석을 남쪽의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한 벌 깐 후 피장자의 주위에는 다시 1~2단 높게 쌓아 전체적인 횡단면 형태가 '凹'자상이 되도록 하였다. 피장자부위에는 돌 틈새에 잔자갈을 채워 면을 고르게 하였고, 돌출부의 석렬은 머리쪽이 넓고 발치쪽이 좁은 형태이다. 바닥의 정중앙에서 절자옥과 관옥, 남색유리구슬 등이 발견되어 피장자는 머리를 중앙에 두고 남쪽으로 치우쳐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장자의 머리쪽 석렬 내부에는 고배 6점과 소형 기대 1점을 두었고, 석렬과 단벽 사이의 공간에 노형기대와 단경호, 통형기대 등을 두었다. 북쪽 모서리에는 연질고

57호분

토기류

갑주

유자이기

배 2점과 판갑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머리의 좌우측 장벽 부근에서는 소형 토기와 연질파수부옹을 모아 두었고, 발치쪽에서도 연질노형기대와 내만구연호를 두었다. 특히 연질노형기대는 조각으로 남쪽 전면에 흩어져 있었고, 대호 편 2점도 섞여 있었는데, 이것들은 의도적으로 깨뜨려 부장한 것 같다. 철기는 피장자의 오른쪽에 도자 2점이 놓여 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장벽쪽의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목곽의 결구와 관련되는 꺾쇠는 9점이 출토되었지만 1점을 제외하면 장벽을 따라 대칭적으로 4개씩 놓여 있었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96, 『동래복천동고분군Ⅲ』.

# 01-7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산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시굴 1993.11.~1993.12.
1994.3.~1995.1.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3.8.~1983.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철모, 판상철부

#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5차 발굴조사 유적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는 고분군의 정화계획에 따라 1993년 11월~12월에 걸쳐 일부 파괴되는 정화대상이 되는 고분군 주위의 담장 설치 지역과 고분군의 서남쪽에 설치되는 후문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유구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부곽을 포함하여 34기의 목곽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1994년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94년 전반기 조사는 앞서 확인된 34기에 대한 발굴조사였으나 후문지의 이동 및 담장설치방법의 변경으로 공사가 시급한 제4차 발굴조사지역의 남쪽사면과 야외전시관 건립지를 중점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전체 고분군에 대한 미발굴 유구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차 발굴조사지역의 남쪽에서는 목곽묘 11기, 석곽묘 3기, 옹관묘 2기 등 16기의 분묘가 조사되었고, 야외전시관 주위에서는 부곽이 있는 목곽묘와 석곽묘가 각 1기씩 조사되었다. 제1차 발굴조사지의 동쪽에서 주차장 예정지의 옹벽공사 중 석곽묘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1기와 목곽묘 1기가 노출되어 수습하였으며, 고분군의 최북단인 영보단 동쪽에서 석곽묘 2기를 조사하였다. 유구확인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발굴 조사된 것과 1993년도 조사 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70여 기에 달한다. 후반기 발굴조사는 제4차 발굴조사지의 서쪽사면과 제4차 발굴조사 시 가옥의 미철거로 조사하지 못한 38호분 주곽, 전반기 조사 시 공사용 자재 및 잔토의 야적으로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사하지 못한 11기의 목곽묘가, 구릉의 남쪽 정상부에서는 38호 주곽과 1기의 목곽묘, 제1차 발굴조사 지역의 동쪽사면에서는 석곽묘 11기, 목곽묘 4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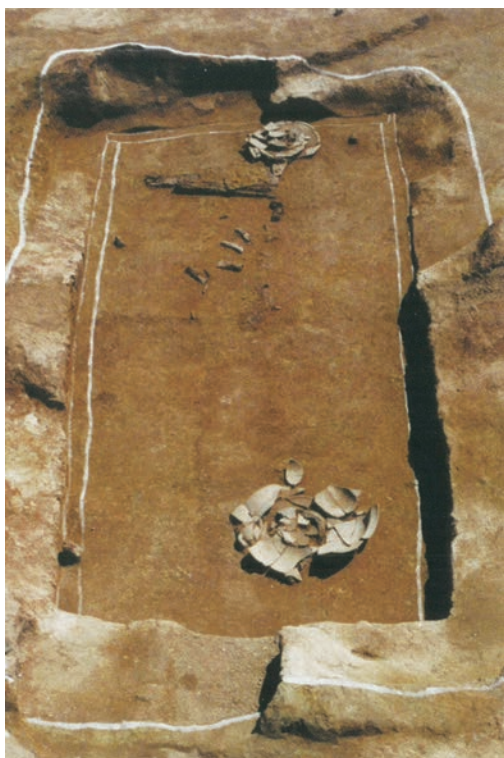
제5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미발굴조사 유구는 총 74기이고, 부곽이 있는 목곽묘 2기, 부곽이 있는 석곽묘 1기, 단독 목곽묘 28기, 단독 석곽묘 18기, 옹관묘 2기 등 총 5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제5차 발굴조사에서 주목되는 성과는 80, 84호묘와 같이 이전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4세기 전반대의 목곽묘가 확인되었고, 1983년 수습조사 때 알려진 38호분의 주곽까지 조사가 완료된 점이다.

38호분은 주·부곽의 목곽묘로 1983년 8월 상순에 압형토기 두부 편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어 부곽에 대한 수습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후 5차 발굴조사의 주곽도 민가 화장실로 묘광 및 봉분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부곽보다 묘광이 깊어 바닥까지는 교란되지 않아 부장 당시 모습이 남아 있었다.

38호분 주곽의 묘광은 길이 750cm, 깊이 135cm, 너비 330~370cm이다. 목곽 충전토는 네 벽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 보강토의 높이는 135cm이다. 목곽은 두께가 약

10cm 되는 판재로 조립된 것으로 보인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535cm, 너비 250cm이다. 목곽의 내측에 연해서 평면 타원형의 주혈이 4개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목곽 내부는 바닥 전면에 5cm 정도 두께로 모래를 깔고 북서쪽 모서리를 제외한 전면에 인두대 크기의 할석을 깔았는데, 목곽 조립 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 내부 상면이 단면 '凹'자형을 이루는 구조에 대해서는 최근 통나무형 목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견해가 있다.

주곽의 유물 부장은 크게 3개군으로 1군은 피장자에게 착장된 경식 1식과 도자 3점이 있고, 신변에는 환두대도와 대도가 있는데, 환두대도는 선단부가 피장자의 머리방향인 남쪽을 향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에 대도·연질완·습자·칠기·철촉군과 발치쪽에 도질 단경호가 담긴 노형기대가 2세트씩 놓여져 있었다. 2군은 '凹'자형 시상석의 높은 부위에 철정·통형동기·유자이기·재갈·종장판주·철모·철촉군·옥제촉·흑색칠 등이 확인되었고, 동장벽에는 찰갑, 남단벽에는 철촉군과 곡도, 북단벽에는 종장판갑 1령, 주조철부 1점, 양끝이 뾰족한 이형철기 3점, 단조철부 3점이 확인되었다. 3군에서는 할석이 깔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철검 3점, 곡옥 1점, 도자 1점이 있고, 목곽선 안쪽으로 20~60cm 정도 떨어져 총 16점의 꺾쇠가 출토되었다.

38호분의 부곽은 장방형 묘광으로 폭 280cm, 잔존길이 340cm, 잔존깊이 40cm이다. 내부의 목곽은 추정 너비 200cm, 길이 300cm 정도이며,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토는 암갈색의 부식토와 명갈색부식토를 교대로 채워 다져 판축하여 목곽을 고정시켰

80호분 주곽

80호분 유물 출토모습

80호분 출토유물

38호분 주곽

38호분 출토유물

다. 또한 바닥이 '凹'면을 이루는 암반면은 약 5cm 두께로 풍화암반토를 깔아 다졌다.

유물의 배치상태는 파손으로 인해 유물의 대다수가 결실되었으며 동북부에 노형기대, 소형 단경호가, 서남부 유물군에 압형토기 두부 한 쌍과 청동제검파두식이 유개대호, 양이부호, 철기류와 함께 확인되었다.

80호분은 단독의 목곽묘이다. 주택의 설치로 인하여 유구의 상부가 파괴되어 깊이가 약 30c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남쪽의 일부분은 바닥 가까이까지 교란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길이 577cm, 너비 322cm, 깊이 30cm이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458cm, 너비 186cm이다. 보강토의 공간은 남쪽부분을 제외하고는 50cm 정도로 동일하나 남쪽부분의 보강토 너비는 32cm로 매우 좁다. 목곽의 조립은 양 장벽의 남쪽 끝부분과 서쪽 장벽의 북쪽 끝부분을 'ㄴ'자상의 홈을 파고 그 안에 단벽의 판재를 끼워 넣었고, 동장벽의 북쪽 끝부분과 북단벽의 판재는 맞물리게 설치되었다. 목곽은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판재를 사용했다.

유구의 일부분이 교란되어 유물의 부장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토기는 양 단벽에 연한 가운데에 노형토기가 대칭되게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남쪽 단벽의 노형토기 북쪽에서 주축과 직교되게 신부가 서쪽으로 향한 철모 3점과 판상철부 3점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단조철부·철겸·도자·철촉·경식 등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5, 『동래 복천동 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 개보』.

복천박물관, 2010, 『동래복천동고분군–제5차발굴조사38호분–』.

## 01-8

#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6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42-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1998.5.~1998.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철모, 보습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제5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1996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의 개관과 함께 복천동고분군의 구릉 정선부를 중심으로 한 사적지 지정구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 이후 고분군의 서쪽 사면에 대한 발굴조사로 제6차 조사가 복천박물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건물 축조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괴된 복천동고분군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판자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가옥의 증(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유구가 파괴·도굴되었다. 제6차 조사 대상지인 고분군의 서쪽 사면도 가옥들이 있던 지역으로 건물 축조 및 축대 건설과 정지작업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구가 파괴된 상태였다. 최종 조사 결과 서쪽사면의 유구는 조사구역의 중앙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등고선에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수혈식석곽묘 9기, 목곽묘 4기가 조사되었다. 시기는 대부분 5세기 후반에 해당되어 복천동고분군 구릉 중 서편지역을 동편이

유적 위치도

131호묘

131호묘 유물 출토모습

나 정상부 보다 늦은 시기에 분묘 공간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차 조사에서 확인된 목곽묘는 폭 95~103㎝ 내외의 묘광 내에 목곽을 설치한 구조로,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등고선과 평행하는 장축 방향을 가진다. 규모는 복천동고분군의 다른 고분보다 소형에 속하며 유구의 파괴와 유실로 출토 유물이 많지 않다. 토기류는 고배·연질파수부호·파수부옹·단경호·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는 출토되지 않았다. 석곽묘는 모두 수혈식석곽묘로 장방형의 할석을 세워쌓기 하였다. 128~130호묘는 바닥에는 별다른 관대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131호묘는 강돌을 관대석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131호묘는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묘로 이번 조사 고분 중 가장 많은 유물이 부장된 유구이다. 철기에 비해 토기의 부장량이 월등히 많으며, 석곽 한쪽 끝에 얕은 수혈을 판 후 대호를 안치하고, 그 주위에 토기류를 적재하였다. 이로 보아 131호묘는 복천동고분군에서 주·부곽식의 대형분이 소멸하고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주를 이루던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1999, 『동래복천동고분군-제6차 발굴조사 141~153호분』.

복천박물관, 2015, 『동래복천동고분군-제6차 발굴조사 126~132호분』.

## 01-9

#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7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117-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2002.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주머니호,
고배, 기대, 철모, 철겸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삼국시대인 4~5세기대의 분묘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 시기의 분묘에 대한 조사는 극히 저조했다. 그러던 중 고분군의 상한시기에 대한 단서가 제6차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말기 목관묘와 등장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어 늦어도 기원후 2세기대에는 복천동고분군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의 문화내용을 상세하게 다룰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제7차 조사는 동래구청~내성초등학교 연결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공사 시행 전, 매장문화재 확인조사 의뢰로 인해 진행되었다. 제6차 조사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었던, 삼한시대에 해당하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추가로 조사되어 주목받았다.

조사 이전, 대상지의 상황은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대부분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았다. 조사 결과 대상지의 면적이 33평에 불과하였지만, 목관묘 2기, 목곽묘 2기, 수혈식석곽묘 1기 등 5기의 분묘가 밀집해 있음을 확

유적 위치도

154호묘

158호묘

토기류

금속류

인하였다. 5기 모두가 동일시기에 조성된 것은 아니며, 1~2기씩 시기 차이가 있다.

출토된 유물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양유부단경호·노형토기 등 삼한시대 토기류와 고배·광구소호·통형기대 등 삼국시대 토기류, 그리고 철모·철검·철부·철촉 등 금속류가 확인되었다.

제6차 조사에 이어 제7차 조사에서도 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호 등 2세기 대의 유물이 부장된 시기가 빠른 유구가 조사되었다는 것은 복천동고분군이 축조된 상한시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보아 목관묘는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복천동고분군의 구릉자락에는 더 많은 목관묘와 빠른 시기의 목곽묘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04, 『복천동고분군 제7차조사 보고』.

# 01-10 부산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지역 시굴조사 유적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시굴 2002.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철모,
철부, 철촉

부산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지역 시굴조사는 부산 동래구청에서 복천동고분군의 동편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적지 정비를 위해 주택의 철거, 배수로 설치, 잔디 식재 등의 사업으로 인해 유구가 파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과 함께 유구의 분포확인 조사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당시 본 지역은 민가 철거 후 주민들에 의해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사적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자재가 사적지 내에 쌓여있으며, 이에 대한 철거도 함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조사 후 유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원 정비를 위한 것이므로, 유구의 존재 확인을 위한 트렌치만을 설치하고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한 후 다음의 발굴조사를 위해 자료를 남겨두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보존이 어려운 유구에 한해서만 수습 조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방법은 전체면적에 트렌치를 5m 간격으로 설치하여 묘광선만 확인하였으며, 노출되는 유물은 다음의 조

유적 위치도

사를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및 수혈식석곽묘 14개 유구에 대해 묘광만 확인하였으며, 파손이 극심하여 보존이 어려운 159호에 대해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159호분은 목곽묘로 장축방향이 북동-남서향이다. 해발 48~49m 선상에 조영되었다. 인근 남쪽에는 제5차 조사 시 확인된 94호묘가 위치한다. 유구의 잔존상태는 경사면을 따라 서장벽이 완전히 결실되었고, 소형기대와 완 등 유물들이 경사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묘광은 풍화암반생토를 파고 설치하였으며 목곽과 묘광의 사이는 적갈색 점토로 된 충전토가 폭 20cm 가량으로 뚫려져있다. 바닥은 아무런 시설이 없으며 유물은 북단벽쪽으로 치우쳐 부장하였다. 잔존길이는 260cm, 깊이는 40cm이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04,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지역 시굴조사보고」.

유구 배치도

159호분

159호분 출토유물

# 01-11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8차 발굴조사 유적(160~166호)

**소재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2006.7.~2006.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판갑, 철겸, 유자이기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8차 조사는 동래구청에서 실시한 복천동고분군 동편 정비사업과 도로개설에 따른 문화재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지는 내성초등학교로 통하는 일차선 도로와 복천동고분 동편 구릉 사이 부지로 조사면적은 총 1,848㎡이다. 해당 조사구역은 민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주택 건축으로 원 지형이 많이 변형·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유구도 상당히 파괴·유실된 상태였다.

제8차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총 9기이다.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목곽묘 6기와 수혈식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분묘는 후대 가옥의 축조와 자연적인 유실로 잔존상태는 극히 불량하며, 거의 훼손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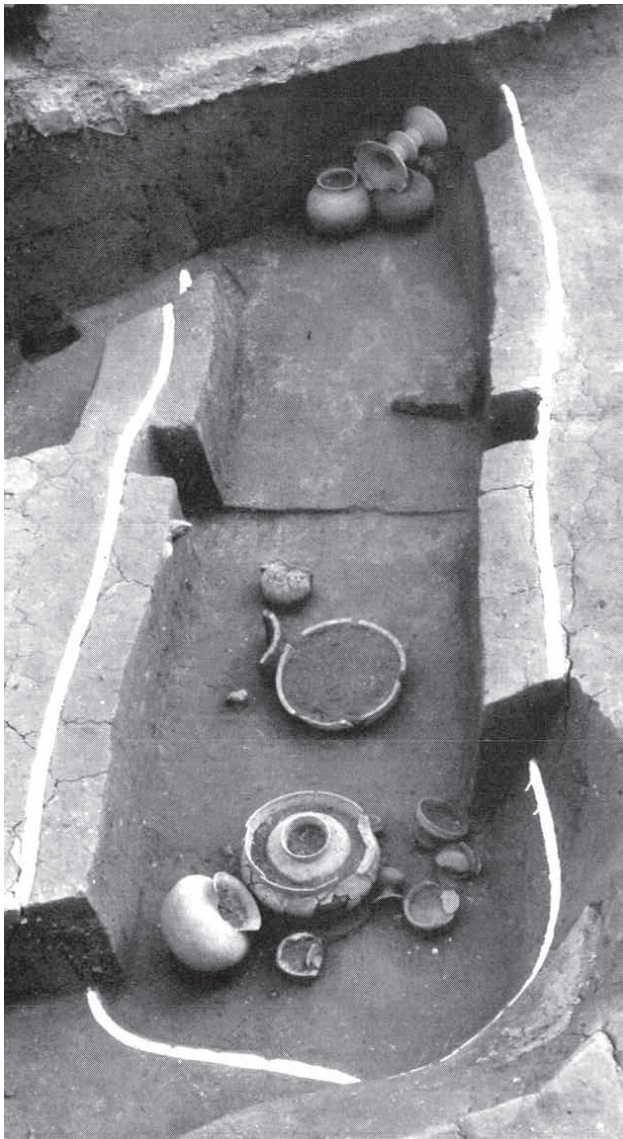
목곽묘는 폭 120~180㎝ 내외로 구조는 토광 내에 목곽을 설치하고 보강토를 충전한 형태이다. 규모는 복천동 고분의 다른 분묘보다 소형에 속하며 유구의 파괴와 유실로 출토 유물이 많지는 않다. 토기류는 노형토기, 와질·도질단경호, 통형기대, 발형기대, 고

유적 위치도

배 등이 철기류로는 철도자, 철겸, 철부, 유자이기 판갑 등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유구의 유실이 적은 164호분은 장축비가 1:3.7내외로 추정되는 세장방형으로 출토 유물의 기종 구성, 형태 등으로 보아 복천동 고분군 60호분과 같거나 약간 후행하는 4세기 3/4 단계로 추정된다. 그 외 목곽묘는 토기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보아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추정된다.

석곽묘의 경우는 소형에 속하는 것으로 측벽은 큼직한 할석 1매를 수적하고 그 위에 소형 할석을 평적한 형식이다. 석곽 내부 피장자 발치 쪽에 호류 등의 부장품 매납을 위해 시상바닥에서 깊이 15㎝ 가량의 원형수혈을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는 복천동고분군뿐만 아니라 당감동고분군, 청강리고분군, 반여동고분군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부장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대략 5세기 후반대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08, 『동래복천동고분군-제8차발굴조사 160~166호-』.

164호묘

166호묘

164묘 유물 출토모습

166호묘 유물 출토모습

# 01-12 부산 복천동고분군 _ 제8차 발굴조사 유적(167~174호분)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86-3·86-4·69-1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2008.2.~2008.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철정, 철모, 철부, 재갈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8차 발굴조사 중 2008년도 조사는 동래교육청 북서쪽의 복천동고분군 동쪽구릉 부분이며, 제5차 발굴조사 시 확인된 8, 90번대 분묘의 바로 남쪽에 대한 조사이다.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4세기 전엽~5세기 중엽경의 목곽묘 8기가 확인되었다. 172호분이 대형의 주부곽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는 묘광 길이가 300cm 내외인 크지 않은 단곽식목곽묘이다.

172호분은 대형 주·부곽식목곽묘의 부곽으로 171호의 후축으로 인해 남쪽이 크게 파괴되었다. 주곽은 부곽의 서쪽에 위치하며,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치만 파악하였다. 유구의 장축은 동-서 방향이다. 매장주체시설은 목곽이며 부곽의 규모는 길이 282cm, 너비 160cm, 잔존깊이 48~66cm이다. 유물은 부곽의 동단벽 중앙에 대호를 배치하고 주변에 단경호, 노형기대 등을 두었다. 주곽 상부에서 연질옹과 도자, 철모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10, 『동래 복천동고분군 -제8차 발굴조사 167~174호』.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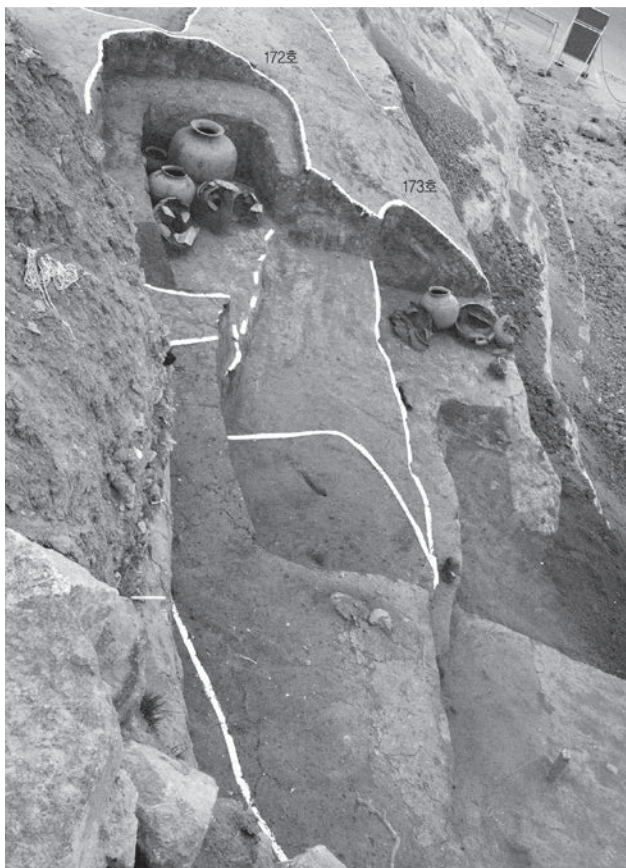
168호묘

172호묘

169호묘

02

# 부산 연산동고분군
## 釜山 連山洞古墳群

| 사적 제539호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91·92·120·121·12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황령산의 북쪽 지맥에 속하는 표고 254m 배산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40~60m 전후의 능선 정상부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18기의 고총고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구릉 사면에는 1천여 기 이상의 중소형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은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복천동고분군과 2㎞ 남짓 떨어져 있다. 고분군의 주능선은 반송로와 과정로가 합류하는 과정삼거리까지 뻗어 있고, 그 능선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은 경사면을 이룬다. 현재 이 구간은 도로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당초에는 고분군이었다. 실제 2007년도에 이 일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 사업에 수반된 발굴조사에서는 연산동 고분군 내의 고분과 동일 시기의 석곽들이 수 십기가 확인되었다.

연산동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철제갑주류가 출토되어 고대의 한일관계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시기적으로 보아 부산 동래 복천동고분군에 이어 조영된 고분군으로서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1987년 처음 정식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5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1차례의 수습조사가 실시되었다.

연산동고분군은 구릉 능선 정상부에는 봉토를 가진 대형의 고총고분이, 능선의 지선과 사면에는 봉토가 작거나 없는 중소형분이 위치하고 있다. 구릉 정상부에는 18기의 고총고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구릉 능선을 따라 나란하게 배치되지 않고, 봉분 직경이 20m 이상인 대형분을 중심으로 3개의 군을 이루고 있다. 1군은 구릉 북동쪽 끝자락에 M3호분을 중심으로 M1·M2·M4·M5호분이, 2군은 구릉 정가운데 M6호분을 중심으로 M7·M8·M12·M13·M14호분이, 3군은 구릉 남쪽 끝자락에 M10호분을 중심으로 M9·M11·M15·M16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각 군의 중심고분들은 출토 유물상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5세기 후반~6세기 초까지 짧은 시간 내에 축조되었다. 같은 시기에 각 1기의 중심고분을 중심으로 3개의 군을 이루고 있는 점은 연산동고분군 축조 집단의 내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연산동고분군 고총고분의 매장주체시설은 모두 수혈식석곽이다. 그 중에서 M3호분은 남북 길이 18.24m, 동서 너비 5.8m, 깊이 2.3m 크기의 묘광을 가진다. 묘광 전체 길이가 18.24m인 예는 현재까지 영남지역은 물론 한반도 내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이다. 또한 묘광 내부에 길이 7.0m, 너비 2.3m, 깊이 2.0m 규모의 주곽과 길이 7.57m, 너비 1.85m, 깊이 1.8m 규모의 부곽을 가지는데 이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다.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부산 연산동 4호분 |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 1987.12.~1988.2. | 부산연산동 4호분 발굴조사보고(1989)<br>연산동고분군(2016) |
| 2 | 연산동 M8호분 | 경성대학교박물관 | 1987.12.~1988.2. | 연산동M8호분(2014) |
| 3 | 부산 연산동유적 | 복천박물관 | 2000.4.~2000.7. | 부산연산동유적(2003) |
| 4 | 부산 연산동고분군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4.~2007.6. |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2009) |
| 5 | 연산동고분군 | 부산박물관 | 2009.12.~2010.12. | 연산동고분군(2012) |
| 6 | 연산동 M3호분 | 부산박물관 | 2011.7.~2012.6. | 연산동 M3호분(2014) |
| 7 | 연산동 M7·M10호분 | 부산박물관 | 2012.10.~2013.1. | 연산동 M7·M10호분(2014) |

연산동고분군은 대형의 매장주체시설을 가진 고총고분이 축조된 만큼 유물의 숫자도 많고 다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된 모든 고총고분은 도굴되어 유물의 정확한 양상을 살피기 어렵다. 현재까지 연산동고분군에서 도굴 등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유물로는 일본 오구라콜렉션의 철제관모, 원두대도, 차양주 등이 있는데, 이들 유물은 매우 화려한 것으로 연산동고분군의 위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근년의 정식 발굴조사에서는 토기류, 철기류를 포함한 금속류, 유리제 구슬을 포함한 장신구류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출토 된 유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고배·기대 등 전형적인 삼국시대 토기를 비롯하여 오리모양토기·복숭아모양토기·꽃모양토기 등의 이형토기도 확인되었다. 특히 M3호분에서는 연산동식고배라 불리는 다돌대고배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는 5세기 후반의 연산동고분군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다. 금속류로는 금동제행엽·철제안장·금동제성시구 등 장식성이 강한 장신구류를 비롯하여, 다수의 철제 갑옷과 투구가 확인되었다. 철제갑주류는 삼각판갑·장방판갑·경갑·굉갑·견갑·충각부주·종장판주 등 5세기 후반 영남의 여타유적에 비해 다종다양한 것들이 확인되었다.

5세기 이후 영남의 각 지역들은 앞 다퉈 대형의 봉토를 가지는 고총고분을 축조하기 시작한다. 연산동고분군도 봉토를 가진 고총고분으로 당시 부산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유적이다. 연산동고분군의 수장무덤은 이혈의 주·부곽무덤에 격벽을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학연문화사, 2003, 『가야의 유적과 유물』.

설치하는 점, 무덤 한 쪽에 구덩이를 파서 유물 부장공간을 마련하는 점 등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대형 무덤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대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당시 부산지역 묘제의 전통을 구현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 축조 시작과 동시에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대형분의 축조가 중단되는데, 이는 수장층의 묘역이 연산동고분군으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묘제의 특징과 함께 확인되는 연산동식토기는 연산동고분군의 정체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연산동고분군의 존재는 부산의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라 주변지역이 언제 신라세력에 편입되는가, 즉 '부산지역이 언제 가야에서 신라로 되는가?' 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고총고분이 소멸되기 전까지의 연산동고분군 세력은 비록 신라 중기양식의 토기가 출토되는 등 중심지 신라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며 주변국들과 교류관계도 맺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대 부산의 역사는 물론이고 가야사의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02-1 부산 연산동 4호분

**소재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0-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 1987.12.~1988.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철촉, 유자이기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철제갑주류가 출토되어 고대 한일관계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 받아 왔다. 시기적으로 보아 동래 복천동 고분군에 이어 조영된 고분으로서 그 성격을 일부나마 규명하기 위해 1987년 정식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M4호분과 M8호분을 우선 조사하였는데, M8호분은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 M4호분은 부산여자대학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전 M4호분의 형태는 봉토의 정상부에는 큰 소나무가 서 있고 주변에는 잡목과 잡초가 어우러져 있어 봉토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경 3m 내외의 커다란 도굴갱이 파여져 있지 않았다면 고분으로 생각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연산동고분군은 1930년대에 일본인의 입회 하에 공공연하게 도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때 M4호분도 함께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M4호분은 '日'자형으로 축조된 주·부곽을 갖춘 수혈식석곽이다. 전체적으로 구릉 사

유적 위치도

면의 표토층을 풍화암반층까지 깎아 내어 평평하게 만든 다음 묘광을 굴착하고 벽석을 축조한 뒤에 개석을 올려놓고 성토하여 봉토를 조성하였다. 약 15도 정도 경사진 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봉토의 높이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 개석의 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잔존하고 있는 봉토 중심 정상부까지의 높이는 2.16m이다. 봉토는 장경 16.4m, 단경 12.7m의 타원형이며 입체적형태는 반구형에 가깝다. 묘광은 풍화암반토를 길이 10.54~10.88m, 폭 3.7~4.16m, 깊이 2.22~2.52m 정도로 파고 설치된 것으로, 다만 봉토의 남쪽부분에는 암반층위에 50㎝ 정도를 성토한 위에 호석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곽은 묘광의 벽에 기대어 할석을 써서 축조되었는데 중간에 격벽이 있어 주곽과 부곽의 2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부의 크기는 주곽 길이 443~455㎝, 너비 182~202㎝, 잔존높이 74~150㎝이고, 부곽은 길이 331~349㎝, 너비 161~170㎝, 높이 135~172㎝이다.

봉토는 먼저 석곽의 개석 상부에 회색점토를 한겹 다져 덮어서 석실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 그 위에 황갈색의 부드러운 사질토와 회색점토를 한 겹씩 번갈아 가며 여러 겹을 다져쌓기 하여 봉토 전체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 쌓고 그 위에는 주변의 흙을 올려 쌓은 양상이다. 석곽은 풍화암반층을 굴착해서 만든 묘광 바닥을 벽석이 놓이는 부분만 3~10㎝정도 더 파고 10~40㎝ 크기 내외의 할석을 난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석곽의 네 귀퉁이 축조방법은 양벽 엇물려쌓기이고, 벽석을 쌓아올리는데 생기는 돌 틈과 벽석과 묘광 사이의 빈틈은 점토로 채워 가면서 쌓았다. 벽석 상단에는 점토를 두텁게 놓고 무게가 3톤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판상석 9~10매를 개석으로 덮었다.

유적 전경

석곽 내부에는 목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극심한 도굴과 석곽이 개방된 상태로 오랫동안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린 탓으로, 목곽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러진 꺾쇠 1점 외에는 목곽이 설치되었던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M4호분에서는 토기 편과 철기 편 그리고 약간의 금동제 편이 출토되었는데, 완형의 유물은 단 1점도 없었다. 수습된 토기류는 고배·장경호·단경호·대호·기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성시구 편으로 생각되는 금동 편과 함께 철촉·유자이기 등 금속류 등도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안춘배, 1989, 「부산연산동 4호분 발굴조사보고」, 『부산여대사학』6·7합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출토유물

## 02-2

# 연산동 _ M8호분

**소재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0-4·90-4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987.12.~1988.2.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989.11.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석곽묘 / 고배,
대부호, 기대, 찰갑,
철촉

경성대학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0번지 일대에 영조되어 있는 고총고분군 중 M8호분을 발굴조사 하였다. 이 발굴은 이 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한 부산시 당국이 경성대학교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시행되었다. 발굴조사 전 M8호분은 원분으로 봉토의 유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이었으나, 연산동고분군의 모든 고분군이 그러하듯이 일제강점기부터 도굴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남북 직경이 22m, 동서 직경 17m, 높이 2.4m 정도의 타원형 봉분으로 봉분의 기부에 호석을 돌렸다. 정지된 평탄면위에 20~50㎝ 정도로 암적갈색점질토를 깔고 그 위로 다량의 풍화암반이 포함된 황갈색사질토를 100㎝ 내외의 두께로 성토하였는데 봉분주변으로 가면서는 얇아진다. 그 다음 회흑색점질토를 20~100㎝ 정도의 두께로 성토하였는데 두께 차이가 많은 것은 최근 조사된 M3호분의 성토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점토괴에 의한 성토임을 알 수 있다. 회색 혹은 회흑색의 점토괴를 번갈아가면서 성토함으로 인해

유적 위치도

성토단위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상부인 명갈색부식토는 20~70㎝ 정도의 두께로서 상부는 두께가 두껍고 하부로 갈수록 얇아지는 양상이다. 각 토층 내에서는 세부적으로 지그재그 상으로도 나뉜다.

호석은 서쪽이 일부 유실되었으며 이로 볼 때 호석이라기보다 봉토의 유실방지를 위한 즙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봉분 정중앙으로부터 약 7~10m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 경사가 비교적 심한 동쪽사면의 석렬이 가장 양호한 편인데 거의 2열을 이루면 2~3단으로 쌓았으며 길이 650㎝, 너비 40㎝ 정도로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연하게 석렬을 쌓은 것은 동쪽 봉분의 사면이 급경사를 이루는 점에서 봉분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동북쪽 및 북쪽, 서쪽은 정연하지 않은 양상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으로 묘광 길이 12.4m, 너비 5.3m, 깊이 2.1m 정도로 능선방향과 일치하는 거의 정남-북향에 가깝다. 묘광은 능선방향과 일치되게 정지면으로부터 깊이 90㎝ 정도까지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로 하나의 묘광으로 굴착하였다. 이후 이 묘광 내에서 다시 깊이 120㎝까지는 주곽과 부곽을 일직선이 되게 나누어 판 후, 묘광 내에 각각의 석곽을 영조하여 주곽과 부곽을 마련하였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710㎝, 너비 530㎝, 깊이 210㎝이며, 부곽의 규모는 길이 480㎝, 너비 530㎝, 깊이 210㎝이다. 주곽과 부곽의 경계를 이루는 묘광벽은 너비 50㎝ 정도로서 도굴로 인해 가운데 부분이 훼손되어 서로 관통되어 있었으며, 남쪽의 묘광벽도 상부가 훼손되어 있었다.

M8호분

석곽은 개석이 구지표에 드러나 있을 정도의 지하식이다. 석곽은 20~50cm 크기의 화강암을 가공하거나 자연석을 사용하여 9~10단으로 쌓았다. 석곽의 규모는 주곽이 길이 540cm, 너비 180cm, 깊이 150cm이고 부곽은 길이 370cm, 너비 150cm, 깊이 150cm이다. 석곽 내부는 주곽과 부곽을 따로 축조하였으나 개석은 주곽과 부곽의 구별 없이 공유하게끔 덮어 외관상으로는 단독석곽묘의 형상을 띠고 있다. 개석은 대형 개석 10매가 덮여 있었는데 도굴로 인해 중앙의 3개 정도를 제외하고 이탈되었다. 개석과 개석의 사이에는 석곽의 벽석에 사용된 할석과 동일한 것으로 채웠으며, 이들 할석 사이에는 점토로 밀봉하였다. 벽석은 전체적으로 9~10단 정도를 쌓았다. 단벽은 도굴 등으로 인해 파괴가 극심한 편이었는데, 부곽의 북쪽 단벽이 그나마 양호하게 남아 있었다. 부곽 단벽의 축조방법은 최하단을 세로쌓기 후 상단은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병행하여 불규칙한 편이다. 최상단석은 가로쌓기로 마무리하였다. 주·부곽 장벽은 주로 최하단석은 세로쌓기이고 그 위로는 주로 가로쌓기로 구축하였다. 벽석 사이의 빈 공간에는 담황색의 점토를 사용해서 메운 것이 군데군데 확인되었다. 한편, 석곽과 묘광사이는 너비 100cm 내외의 넓은 공간이다. 이는 석벽에 근접해서는 벽석을 쌓으면서 돌을 채우고 돌 사이에는 점토를 넣어 고정하는 등 충전하였으며, 묘광에 근접해서는 주로 흙을 다져서 충전하는 것으로 보강하였다. 석곽 바닥면 시설은 부곽은 무시설이지만 주곽에는 직경 7cm 내외의 역석을 전면적으로 한 겹 정도 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굴 등으로 인해 원위치를 거의 이탈하여 발굴당시에는 일부만이 남아 있었다.

M8호분 석곽내부는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도굴당하여 유물의 출토량은 빈약하였다. 원위치에서 출토된 것은 거의 없었으며, 전부 파편의 형태로 석곽내부로 이입된 교란토에서 수습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철기류·장신구류가 확인되었다. 원위치에서 출토된 것은 부곽의 북쪽 석벽근처 바닥에서 출토된 대호 편 뿐으로 이로 볼 때 부곽에는 대호를 석곽 단벽쪽에 매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곽에는 발형기대·장경호 등 비교적 큰 토기류를 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류는 찰갑 등 갑주류가 다수를 차지하며, 철촉 등 무기류가 다음으로 출토량이 많다. 장신구류로는 유리제옥 등이 주곽 남쪽 바닥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한편 1989년 11월 예비군 참호를 설치하던 중 토기가 출토되어 긴급수습조사를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토광묘 1기와 화장묘 1기가 수습되었는데, 위치는 고총고분 중 하나인 M2호분에서 북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있다.

토광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길이 304cm, 너비 124cm 규모이다. 목관이나 목곽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최대깊이는 40cm이다.

토기 11점은 수습조사 전 묘광 서단벽쪽에서 이미 수습되었고, 철기는 묘광의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1988, 「부산 연산동 8호분 발굴조사」, 『영남고고학』5.

송계현, 1993, 「동래 연산동 수습유구 발굴보고」, 『부산박물관연구논집』2.

경성대학교박물관·부산박물관, 2014, 『연산동M8호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 02-3 부산 연산동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2000.4.~2000.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재갈, 대도, 철촉

연산동고분군의 2000년도 조사는 연제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해 고분군을 관통하여 연산교차로와 토곡 방향을 연결하는 터널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시행된 조사이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노선변경을 건의했으나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민원이 빈번하여, 유적의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 후 원지형을 최대한 복구하는 조건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대형 봉분이 남아있는 고분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M10호분의 경사 아래의 동서쪽 주변지역으로 터널 갱구부 공사로 인해 파괴되는 곳이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 22기 중 수혈식석곽묘가 8기, 횡구식석곽묘가 1기, 목곽묘가 11기, 옹관묘가 2기 확인되었다. 연산동고분군의 대형분들은 이미 수차례 도굴 등으로 인해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이 지역의 유구들도 도굴과 파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져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한편으로 파괴되지 않은 유구는 1기뿐이다. 그러나 도굴갱에서 많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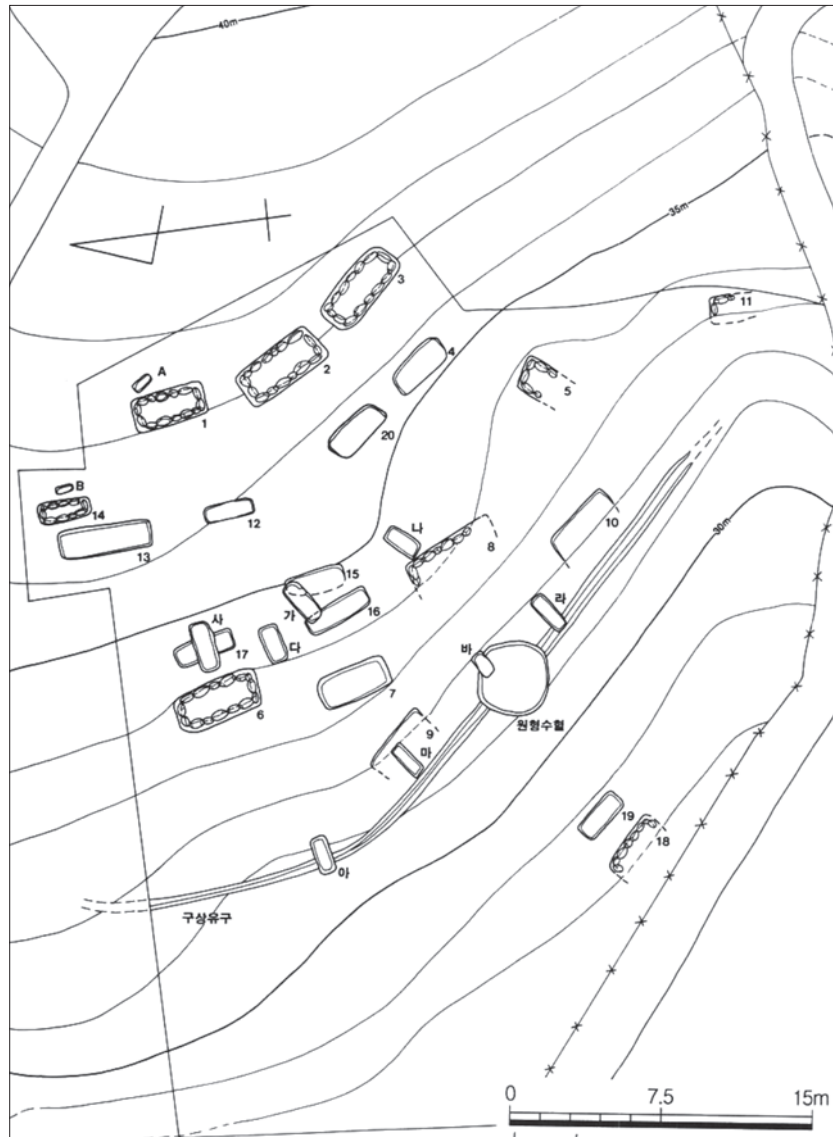
은 유물들이 수습되어 유구의 연대와 성격에 대해서는 짐작 할 수 있다. 유구의 배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장축이 대체로 남-북 방향이다. 석곽묘와 목곽묘 간에 구분 없이 혼재하여 있으며, 옹관묘는 각각 1호묘와 13호묘에 딸린 배묘로 추정된다.

유구 내 부장품의 배치는 북단벽쪽에 치우쳐 고배·단경호·대부장경호 등 많은 양의 토기류를 놓았으며, 양 장벽에 연해서는 철촉·철도 등 철기류를 놓았다. 철기유물의 위치로 보아 두향은 남단벽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고배·기대 등의 토기류, 철촉·대도·재갈 등의 금속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연산동고분군의 구릉 서쪽 사면에는 5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이르는 고분이 지속적으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에는 수혈식석곽 뿐만 아니라 옹관·목곽·토광 등 다양한 묘제가 병존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연산동고분군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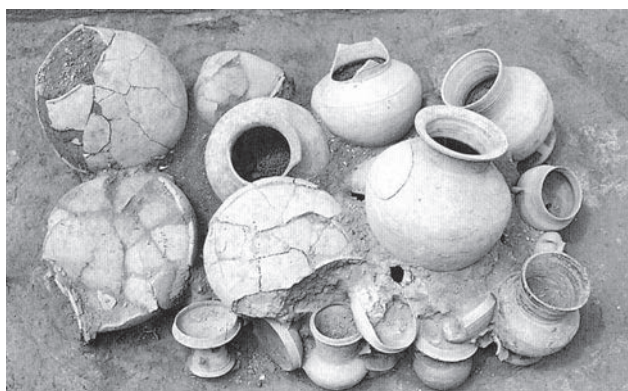
복천박물관, 2003, 『부산연산동유적』.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유구 배치도

1호묘

1호묘 유물 출토모습

A호 옹관

13호묘

13호묘 유물 출토모습

13호묘 출토유물

## 02-4

# 부산 연산동고분군 _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4.~2007.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개배,
철모, 청동령

연산동고분군의 2007년도 조사는 우리문화재연구원이 공동주택 예정부지에 대해 시행한 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산동고분군 북쪽의 주택 밀집지역 일대이다. 이 일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주택지역이었다. 이 일대에 주택재개발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사전에 실시된 문화재 확인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고분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지역 내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현재 지정 보호되고 있는 연산동고분군의 북쪽 끝자락에서 30m 정도 떨어진 주택과 주택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얕은 구릉지이다. 이곳에서 모두 17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반경 15m 내에 심하게 중복된 상태로 조영되었다. 17기 중 목곽묘가 8기, 수혈식석곽묘가 7기, 옹관묘가 2기이다.

목곽묘는 수혈식석곽묘와 조선시대 토광묘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었거나 주택공사에 의해 삭평되어 대부분 바닥만 남아 있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묘광 규모는 300×

유적 위치도

150㎝ 이하로 모두 소형이다. 유물은 목곽 내 양쪽 가장자리에 부장되었는데, 단경호·대부장경호·고배 등의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조사된 목곽묘는 수혈식석곽묘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아 석곽묘에 앞서 조영되었지만, 석곽묘보다 시기가 훨씬 빠른 것은 아니다. 출토된 토기로 볼 때 목곽묘의 조영 시기는 대체로 5세기 중엽에서 후반이다.

수혈식석곽묘도 조선시대의 토광묘와 후대의 삭평 등으로 파괴가 심하여, 완존한 것은 1기도 없었다. 석곽의 규모는 400×150㎝ 이하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소형에 속한다. 3·5호 석곽은 경사가 높은 쪽에 초승달 모양의 주구가 돌아가고, 5호분 주구 내에는 대호 편을 파쇄하여 뿌렸다. 석곽 바닥은 생토면을 이용하였고, 유물은 석곽의 양쪽 가장자리에 부장하였다. 부장품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대부분이 토기류이다. 수혈식석곽묘는 석곽의 구조 및 축조기법, 출토 유물 등으로 볼 때 조영 시기가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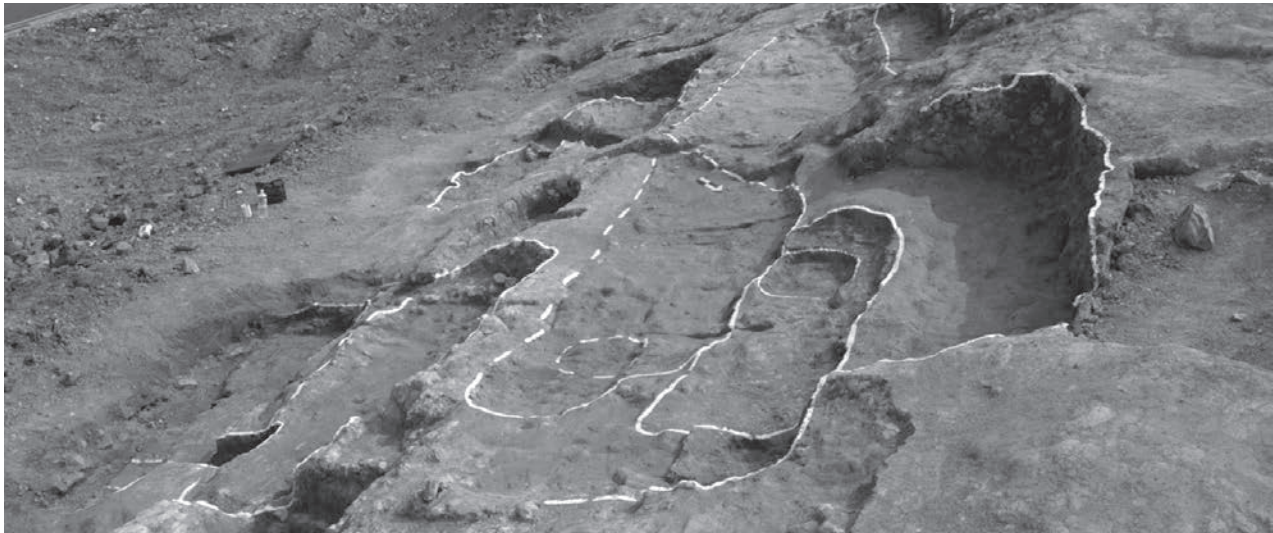
2기의 옹관묘는 연질옹 2기의 구연을 서로 맞대어 만든 합구식옹관과 대호에 단경호를 막음옹으로 한 옹관이다. 옹관묘는 수혈식석곽묘와 인접한 곳에 조영되었는데, 옹관묘의 피장자는 수혈식석곽묘 피장자와 친연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옹관에는 컵형토기 또는 옹·호를 부장하였다.

유구 배치도

2007년도의 조사구역은 주택에 의해 고분군의 대부분이 원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덜 된 구간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이 존재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 곳에 고분이 밀집해 있어 이곳 일대에 많은 수의 고분이 조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의해 연산동고분군에도 목곽묘가 조영되었음이 확인되었고, 5세기 중엽에도 수혈식석곽묘뿐만 아니라 앞 시기의 묘제인 목곽묘 역시 연산동고본군의 주 묘제의 한 종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유적 전경

1호 석곽묘

5호 석곽묘

출토유물

# 02-5 연산동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박물관 /
2009.12.~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철모, 철촉

연산동고분군의 2010년도 조사는 부산박물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조사는 고총고분의 정비 복원에 앞서 예비 정보의 획득을 위한 10기의 고총고분을 대상으로 한 '十'자형 트렌치조사와 연제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될 구릉 사면을 대상으로 한 전면제토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고총고분의 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10기 외의 8기의 고총고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체육공원 부지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체육공원부지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중소형 고분은 고총고분 M10호분의 동쪽 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지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사면부에 밀집 분포한다. 이 지역은 도굴 및 자연 삭평에 의한 유실이 심각하여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봉분이 남아 있는 분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는 총 85기이며 이 중 수혈식석곽묘가 77기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으며,

유적 위치도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목곽묘와 옹관묘는 수혈식석곽묘와 구분없이 혼재하여 나타나는데, 특히 3호 옹관묘는 95호 석곽묘의 남동쪽에 연접하는 것으로 보아 배묘로 추정되었다. 횡구식석실인 62호묘와 99호묘는 각각 석곽묘인 62호묘와 100호묘를 파괴하여 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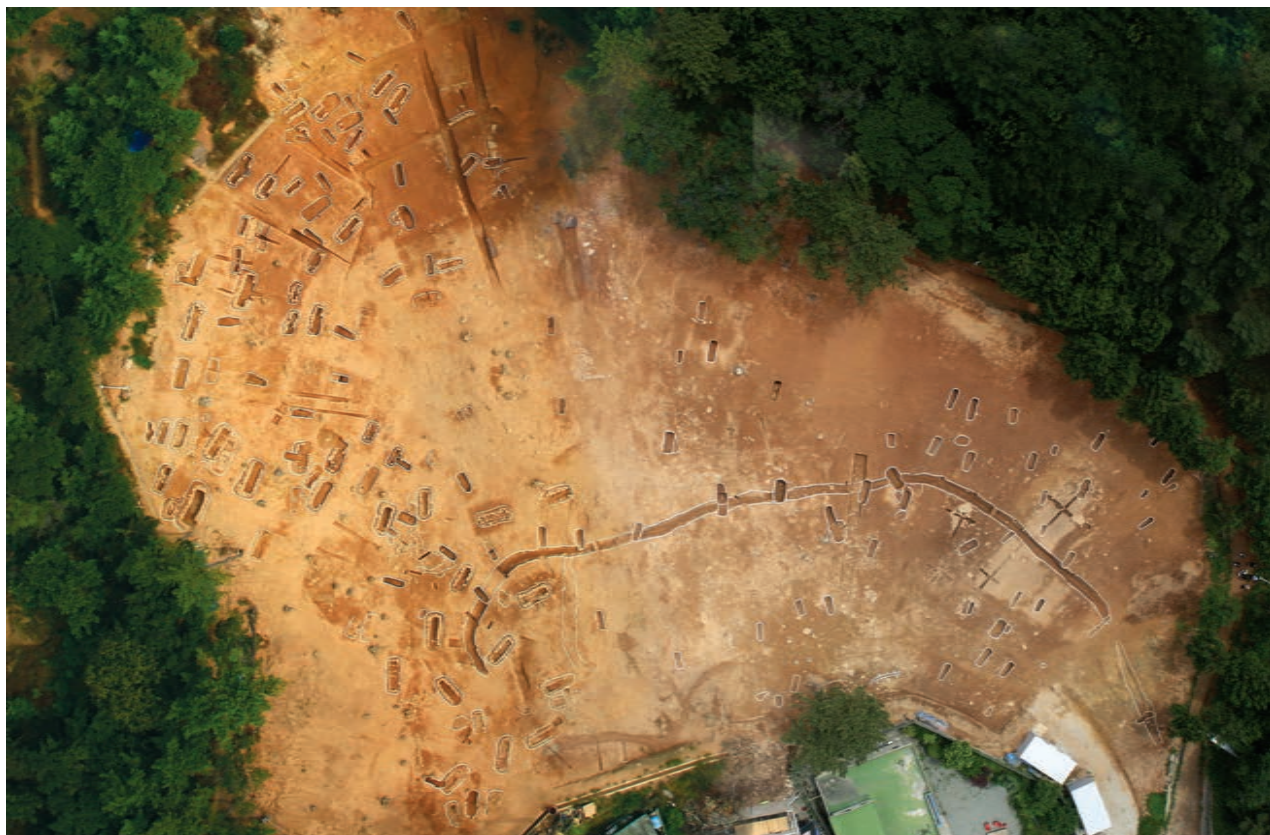
석곽묘는 묘광의 길이가 160~400㎝, 너비는 80~170㎝ 정도의 크기로 장방형의 묘광을 파고 내부에 석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길이는 150㎝~280㎝ 정도, 너비는 약 50~90㎝ 정도로 천·할석을 사용하여 전면에 깐 것과 드문드문 깐 것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중앙부 혹은 한 쪽으로 치우쳐 바닥의 일부에만 시상석을 마련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종은 고배·대부장경호·단경호·컵형토기·연질옹 등 모든 유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철기류는 철모·철도자·철촉·철도 등 무기류가 주를 이루며, 주조 및 단조철부·철겸 등 농공구류도 간혹 확인된다. 유구 내 부장유물의 배치는 예외 없이 북단벽에 치우쳐 있고, 양 장벽에 접하여 철도자·철촉·철도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일부 유구에서는 남단벽에도 토기를 부장하였는데, 수량은 1~3점 정도로 북단벽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철기 및 금동제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두향은 남쪽으로 추정된다.

목곽묘는 삭평이 심하여 잔존상태가 불량하나 규모나 부장유물의 기종 및 위치 등으로 보아 석곽묘와 유사하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토는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가 사용되었다. 특히 70호 목곽묘에서는 충전토 내부에서 철겸과 철부가 출토되었으며, 바닥에서 목곽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부산박물관, 2012, 『연산동고분군』.

고총고분군 트렌치 조사 전경

연제 체육공원부지 전경

M5호분 전경

58호묘(우), 59호묘(좌)

토기류·금속류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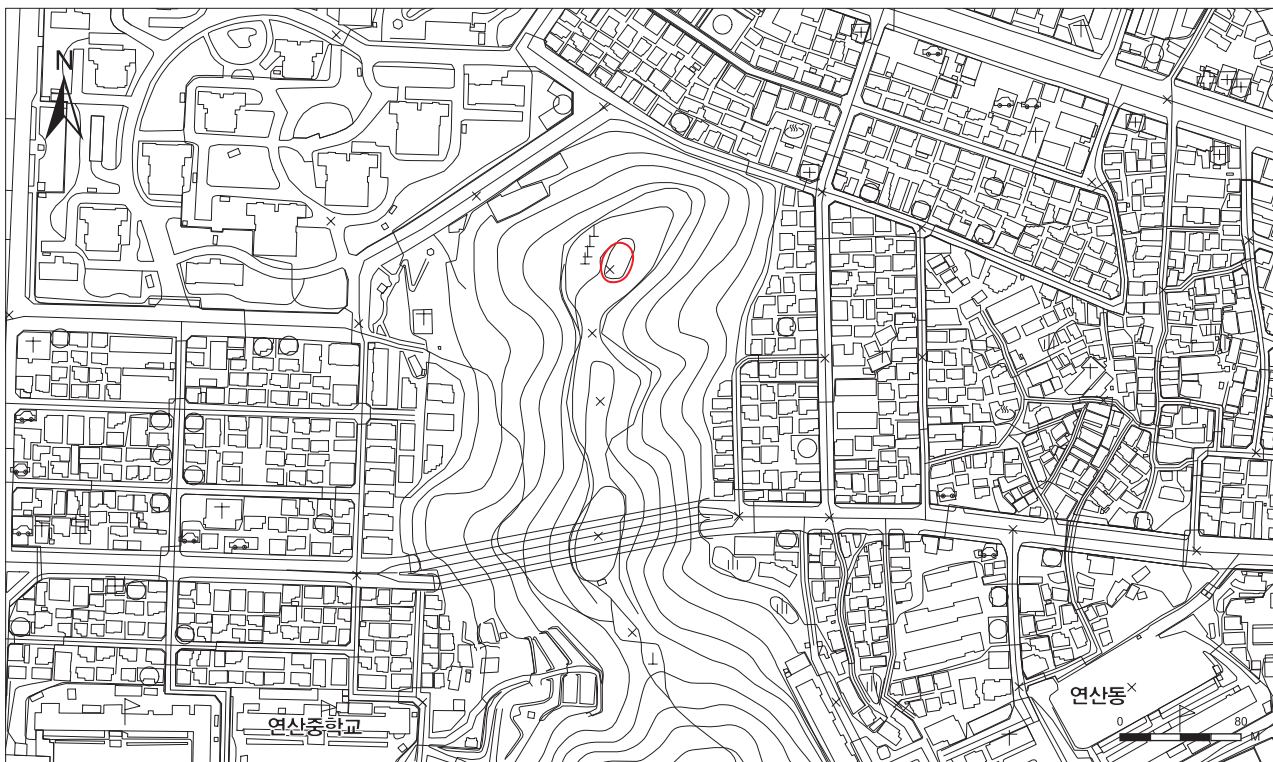
# 02-6 연산동 M3호분

**소재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박물관 /
2011.7.~2012.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행엽, 철촉, 찰갑, 종장
판주

연산동고분군의 2011년도 조사는 부산박물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2010년도에 실시한 고총고분의 규모와 평면형태 등을 근거로 연산동고분군의 성격 구명을 위한 M3호분의 조사와 향후의 복원 정비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고총고분이거나 봉분에 걸쳐 있는 중소형 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도 조사의 대표분인 M3호분은 연산동고분군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고총고분이다. 봉분 규모는 동-서 직경 16.4m, 남-북 직경 25.2m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다. 잔존높이는 동쪽 기저부에서 봉분 정점까지 약 4.0m, 동쪽 경사 바닥면에서 봉분 정점까지 약 7.1m이다. 봉분은 남-서 방향이 높고 북-동 방향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릉상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구릉 능선에 돌출된 지형의 정상부를 평탄하게 정지하고, 원지형이 높은 남-서쪽은 봉분 기저부를 이루는 자연경사면의 10~20㎝ 정도를 절토한 후 풍화암반이 포함된 명갈색점토를 쌓아 올려 평탄면을 만들었다. 원지형이

유적 위치도

낮은 북-동쪽은 풍화암반이 다량으로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층을 10~30㎝ 정도 쌓아 올려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봉분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봉분의 외형 및 규모를 극대화하였다. 연산동 M3호분의 봉분 조성은 지금까지의 고총고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토목기술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봉분을 조성하기 위해 장축인 남북의 2곳에 작업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봉분을 3등분으로 구획하여 구축한 점이다. 봉분의 구획 위치는 일정한 부위에 정해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가 동일하지 않고, 각 단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 구획된 부위는 성토재의 물성과 색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병행해서 단계별로 성토하였다. 성토단계란 물성이 같거나 유사한 성토재를 동일한 성토방식으로 쌓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개 공정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남·북에 각각 3개의 장방형 묘광을 굴착하고, 남쪽에 주곽, 북쪽에 부곽을 둔 독립된 주·부곽의 수혈식석곽이다. 주곽의 남쪽 단벽과 부곽의 북쪽 단벽은 도굴에 의해 상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개석의 대부분이 갈라지거나 일부는 내부로 내려앉아 있었고, 부곽의 벽석 일부가 무너져 내렸으나, 비교적 잔존상태는 양호하였다. 주곽은 길이 880㎝, 너비 580㎝ 규모의 묘광을 굴착하고, 묘광의 벽면에 회백색의 점질토를 발랐으며, 회백색의 점토괴도 일부 넣었다. 석곽 내부의 규모는 길이 720㎝, 너비 230㎝이다. 석곽 축조에 사용한 암질은 화강암의 할석으로 평적하여 수직으로 쌓고 그 위에

봉분 4차 조사

개석 제거 후 모습

주곽

부곽

7매의 장대한 화강암을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상하 벽석사이 및 벽석 사이의 틈, 벽면과 개석 및 벽면 상단석 사이에는 초본류를 넣은 점토를 발라 틈을 밀폐시켰다. 개석 윗면에는 1~3㎝ 두께로 회색점질토를 발랐고, 개석과 개석 사이의 틈에는 다소 두텁게 회색점질토를 발라 밀봉하였다. 부곽의 묘광은 주곽의 서쪽 장변에 맞추어 길이 920㎝, 너비 580㎝로 굴착한 후 내부에 흑회색계열의 점토괴를 묘광의 벽면에 쌓고 목탄이 포함된 풍화암반역층을 개석과 묘광 사이에 채워 넣었다. 점토괴 사이에서는 파쇄 된 기대 편이 출토되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800㎝ 정도, 너비 180㎝ 정도이다. 화강암의 막돌을 평적하여 수직으로 쌓고, 그 위에 7매의 장대한 화강암을 뚜껑으로 덮었다. 상하 벽석 사이 및 벽석 사이의 틈, 벽면과 개석 및 벽면 상단석 사이에는 초본류를 섞어 넣은 점토를 발라 틈을 밀폐시켰다. 개석 윗면에는 1~3㎝두께로 회색점질토를 발랐고, 개석 사이의 틈에는 다소 두텁게 회색점질토를 발라 밀봉하였다.

유물은 주곽에서 소찰 편·철촉·철모·철부 등의 철기류와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부곽에서는 삼각판혁철판갑·종장판주 등의 무구류와 고배·발형기대·단경호·장경호·컵형토기 등 60여 점 이상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부곽에서는 치아와 대퇴골이 확인되어 3명 이상의 순장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산동 M3호분은 주·부곽에 매납된 유물과 함께 봉분 주위나 봉분 내에 매납된 유물이 다수 확인된 것도 특징이다. 봉분 주위에서 확인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의 수혈을 파고 그 안에 토기류를 매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봉분의 북쪽 기저부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된 부정수혈이 있다. 이곳에서는 대호와 압형토기, 컵형토기를 파쇄하여 넣은 것이 확인되었다. 봉분 내에서도 다종다양한 유물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봉분의 북서쪽면 표토층에서 확인된 다수의 대호 편, 주곽의 남쪽 개석상부 성토층 속 파쇄된 연질옹, 그 아래에서 확인된 고배 편·철기 편, 부곽 묘광 내 점토괴 사이에 파쇄된 기대 편, 봉분성토층의 마두형토기 편 등으로 보아 봉분 성토 각 과정과 완성 이후 등의 공정단계에 따라 제의가 수차례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부산박물관, 2014, 『연산동 M3호분』.

# 02-7 연산동 M7·M10호분

**소재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박물관 /
2012.10.~2013.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안교, 행엽, 판갑

연산동고분군 2012년도 조사는 개석이 파괴되고 도굴 및 후대 훼손 등으로 인해 정비·복원 시 붕괴 위험이 있는 M7·M10호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도굴갱을 정리하고 도굴에 의해 파괴된 단벽을 통해 매장주체시설 내부로 진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도 조사의 대표분인 M10호분은 연산동 고분군의 남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북쪽에는 M9호분이 위치하는데, 훼손이 심하여 M10호분과의 경계 식별이 쉽지 않다. 남쪽으로는 M11·M15·M16호분이 인접하여 있다. 봉분은 외형상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산책로 조성에 의해 일부가 삭평되었다. 봉분의 남쪽과 북쪽은 완만하게 경사지고, 동쪽과 서쪽은 경사가 심하다. 조사 결과 고분의 남단벽을 통하여 주피장자 공간과 부장 공간까지 도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M10호분은 단곽식의 수혈식석곽묘로 장축방향은 구릉 능선 방향과 평행하는 남-북

유적 위치도

M10호분 전경

방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24㎝ 정도이나 너비는 알 수 없다. 석곽의 내부 규모는 길이 990㎝, 너비 160~170㎝, 높이 150~170㎝ 정도이다. 개석은 모두 10매를 사용하였다. 조사 당시 남쪽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개석은 무너져 있었고, 아홉 번째 개석은 깨어져 비스듬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석곽의 남쪽에는 주피장자 공간을, 북쪽에는 유물 부장공간을 배치하였다. 주피장자 공간의 길이는 시상의 범위로 추정이 가능한데 길이가 435㎝이고, 유물 부장 공간이 555㎝이다. 주피장자 공간보다 유물부장 공간의 길이가 더 길다. 대략 남쪽 첫 번째 개석 하단부터 네 번째 개석 하단까지의 범위가 주피장자 공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개석 하단까지가 유물 부장공간이다.

석곽의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였는데 편평한 면을 안쪽으로 두고 대략 11~13단 정도로 비교적 정연하게 평적하였다. 벽체는 대체로 하단은 긴 할석을 엇갈리게 쌓고, 그 위로는 긴 할석과 함께 비교적 작은 할석을 혼용하여 쌓아올렸다. 서장벽 북편이 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최하단부터 4~5단까지는 35~50㎝ 정도 길이의 비교적 긴 할석을 사용하여 쌓고, 그 위로는 이러한 할석과 함께 길이 20㎝ 내외의 할석을 함께 쌓아올렸다. 벽석 사이와 벽석 안쪽은 황색 또는 회백색점질토를 이용하여 미장처리 하였다. 벽석 표면에 바른 점토는 대부분 떨어져 나갔지만, 벽석 사이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주피장자 공간은 생토 바닥에 회백색점토를 깔고 길이 10㎝ 내외의 바다 자갈을 2~4겹 전면에 깔았다. 회백색점토와 자갈은 교란에 의해서 양 장벽과 남벽쪽에만 양호하게 잔존한다. 유물은 서장벽에 인접하여 철촉군과 철정군이 출토되었다. 철촉은 촉신이 석곽 안을 향하고 있었다. 철정군은 철촉군의 북편에 인접하여 놓여 있었다. 그밖에

주피장자 공간에서는 꺾쇠와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 부장공간 역시 주피장자 공간과 마찬가지로 생토바닥에 회백색점토를 깔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도굴과 교란으로 인하여 자세한 원상은 알 수 없다. 조사 당시 회백색점토는 3㎝ 정도의 두께로 양 장벽을 중심으로 잔존해 있었다. 유물은 동장벽에서 단조철부 3점과 철모 2점, 서장벽에서 단조철부 2점과 철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단조철부는 석곽 벽에 붙어서 인부를 바닥으로 향한 채로 부장되어 있었다. 석곽의 북편 끝에는 대호가 부장되었는데, 대호 부장공간은 동서 길이 140㎝, 남북 길이 110㎝의 비교적 동서로 긴 타원형의 수혈을 파 공간을 마련하였다. 대호는 부장공간 서편에 치우쳐 안치하였는데, 정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호 안에서는 발형기대 대각 편, 완 등이 출토되었다. 원래 대호 내부와 부장공간 동쪽에는 더 많은 유물이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굴에 의한 피해로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이외에 도굴갱 및 교란토 제거 시에 상당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고배·기대 등의 토기를 비롯하여 재갈·등자·안교·마갑·행엽 등의 마구류, 종장판주·판갑·찰갑 등의 무구류, 철촉·철모·철부·철검 등의 무기류, 곡옥·구슬 등의 장신구류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6, 『연산동고분군』.
부산박물관, 2014, 『연산동M7·M10호분』.

M7호분 주곽

M7호분 주곽

M10호분 주곽

M10호 부장갱

# 03 부산 노포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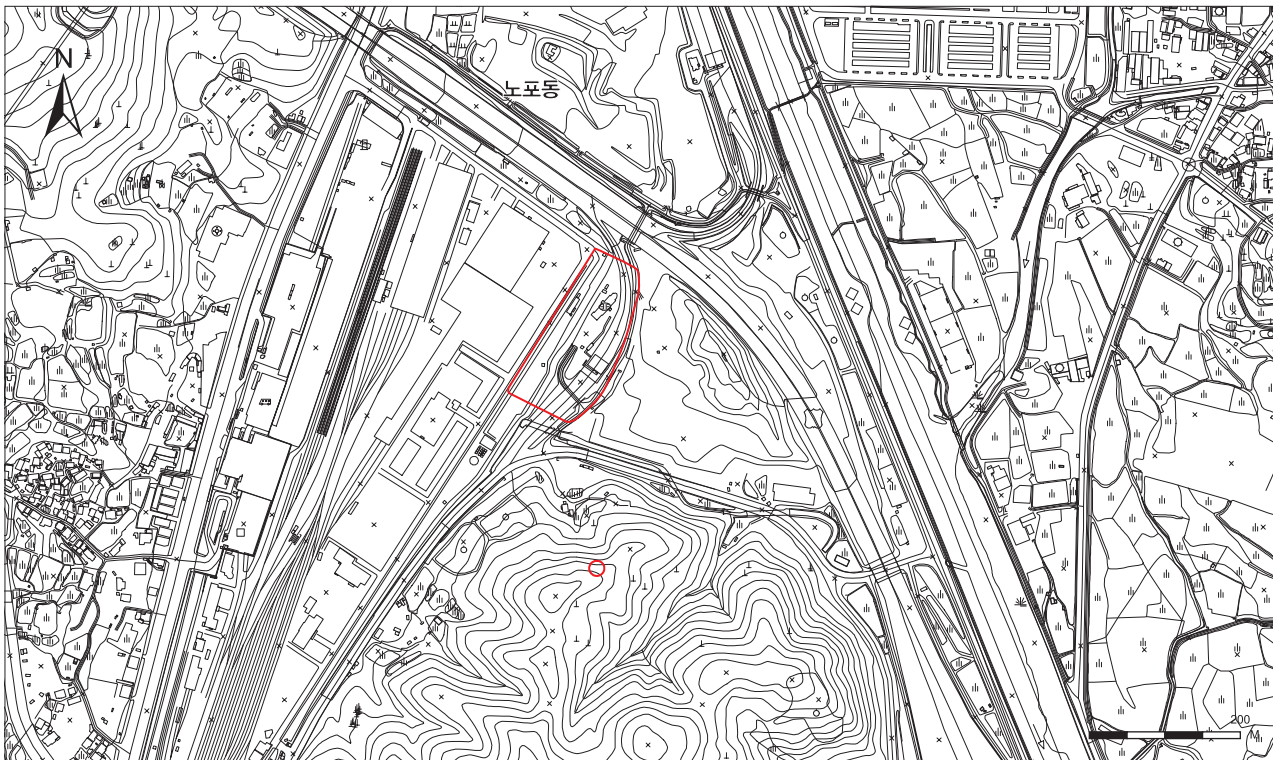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기념물 제42호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42-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차 1984.12.~1985.1.
2차 1985.10.~1986.1.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5.10.~1986.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5.1.~2005.6.
부산박물관 /
2017.6.~2017.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옹관묘 / 노형
토기, 단경호, 대부
직구호, 고배, 옹, 사이부
직구호, 완, 개, 철촉,
철부, 도자, 철모,
대도, 철경

부산 노포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42-1~4·1114-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금정산 정상부와 동쪽의 수영강 상류 사이에 형성된 충적대지의 주변에 있는 해발 111.5m인 야산 북서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의 지형 중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유적이 위치한 이 지역은 울산이나 양산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수영강 상류를 끼고 그 주변에 충적지와 낮은 구릉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유적이 들어서기에 비교적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노포동고분군 주변지역에도 선사에서 역사시대에 걸치는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노포동고분군은 부산직할시립박물관과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142-1~4번지 일대의 구릉과 그 맞은편의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조사한 1114-2번지 일대의 구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부산직할시립박물관과 부산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구역은 목곽묘가 주축을 이루는 3세기대의 무덤유적으로 1983년에 도굴유물 일부가 매장문화재로 신고되면서 처음 알

유적 위치도

려졌다. 당시 부산지방의 분묘유적 중에서는 그 연대가 가장 빨랐고,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와질토기가 중심인 유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존재가 알려진 뒤 1985년부터, 부산시립박물관 등에 의해 3차례 정식 발굴조사가 행해졌다. 중심을 이루는 묘제는 3세기대 목곽묘이다. 옹관묘도 일부 존재하는데 목곽묘의 배묘로 추정된다. 목곽묘는 길이가 5m 이하인 중소형인데, 길이가 3m 이하인 소형분과 그 이상인 중형분으로 구분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벽면 모두 충전 공간이 있어 명확하게 목곽이 확인되는 것과 장벽에만 충전 공간이 있고 단벽에는 없어 목곽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 전자는 묘광 내부에 함몰된 토층에서 확인된 목곽의 높이가 60~70㎝로 낮고, 충전 공간의 범위는 40㎝ 내외임을 알 수 있다. 4곳의 충전 공간 범위는 거의 동일하며, 유물은 모두 목곽 내부에 부장되었다. 후자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다. 충전 공간과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 분묘의 매장 방식은 목곽 또는 목관이 사용되지 않는 직장과 같은 방식일 가능성과 목곽이 설치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물은 대체적으로 토기류는 피장자의 발치 부분에, 철기류는 피장자의 좌·우측에 부장되어 있다. 주부장유물의 공간은 서쪽이다. 토기는 와질·연질·도질제 모두가 있는데, 와질제가 대부분이고, 연질제와 도질제는 소량이다. 기종은 노형토기·단경호·대부직구호·고배·옹·사이부직구호·완·개 등이 있다. 철기류로는 철촉·철부·도자·철모·대도·철겸 등이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005년도에 조사한 구역은 기원전 1세기 후반대의 목관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목곽묘·수혈식석곽묘도 확인되었다. 목관묘의 묘광은 길이 240㎝, 너비 130㎝이고, 목관은 길이 120㎝, 너비 50㎝이다. 유물은 두형토기·주머니호·철모·철착·숫돌·판상철부 등이 출토되었고, 시기는 기원전 1세기 후반대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부산지역 삼한시대 분묘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노포동고분군은 3세기에서 4세기가 중심인 목곽묘군으로,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매장문화를 보여준다. 목곽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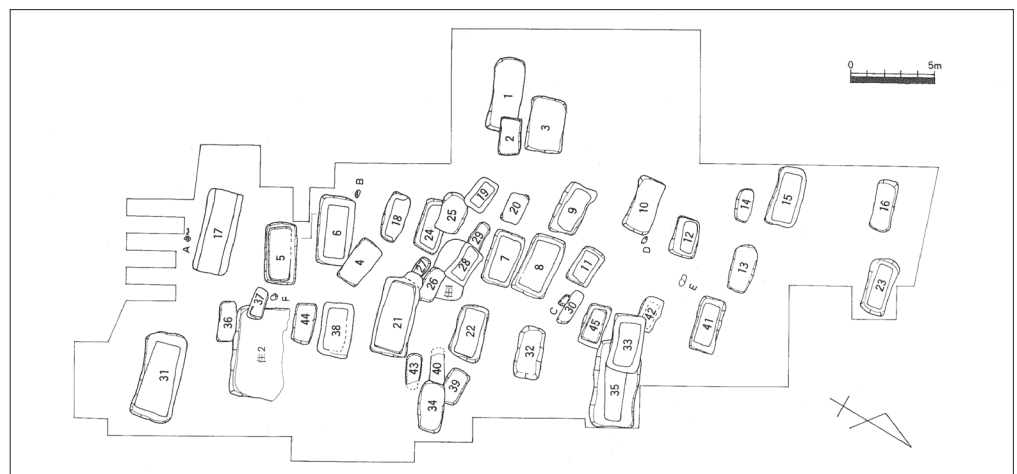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부산대학교박물관, 1988, 『부산노포동유적』.

부산박물관, 2017, 「노포동 고분군 일원 문화재 발굴(시굴) 조사 약보고서」.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86, 『부산노포동고분』.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88, 『부산노포동고분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노포동유적』.

유구 배치도

로 바뀌고, 부장된 토기는 와질토기를 중심으로 도질토기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입지상 부산지역과 경주·울산·양산으로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주와 울산 지역을 주 분포 지역으로 하는 와질고배와 대부광구호·대부직구호 등 진한계의 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고 있어, 부산지역과 영남의 여러 지역의 교류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6호묘

31호묘 유물 출토모습

31호묘

35호묘

35호묘 유물 출토모습

## 04

# 부산 생곡동 가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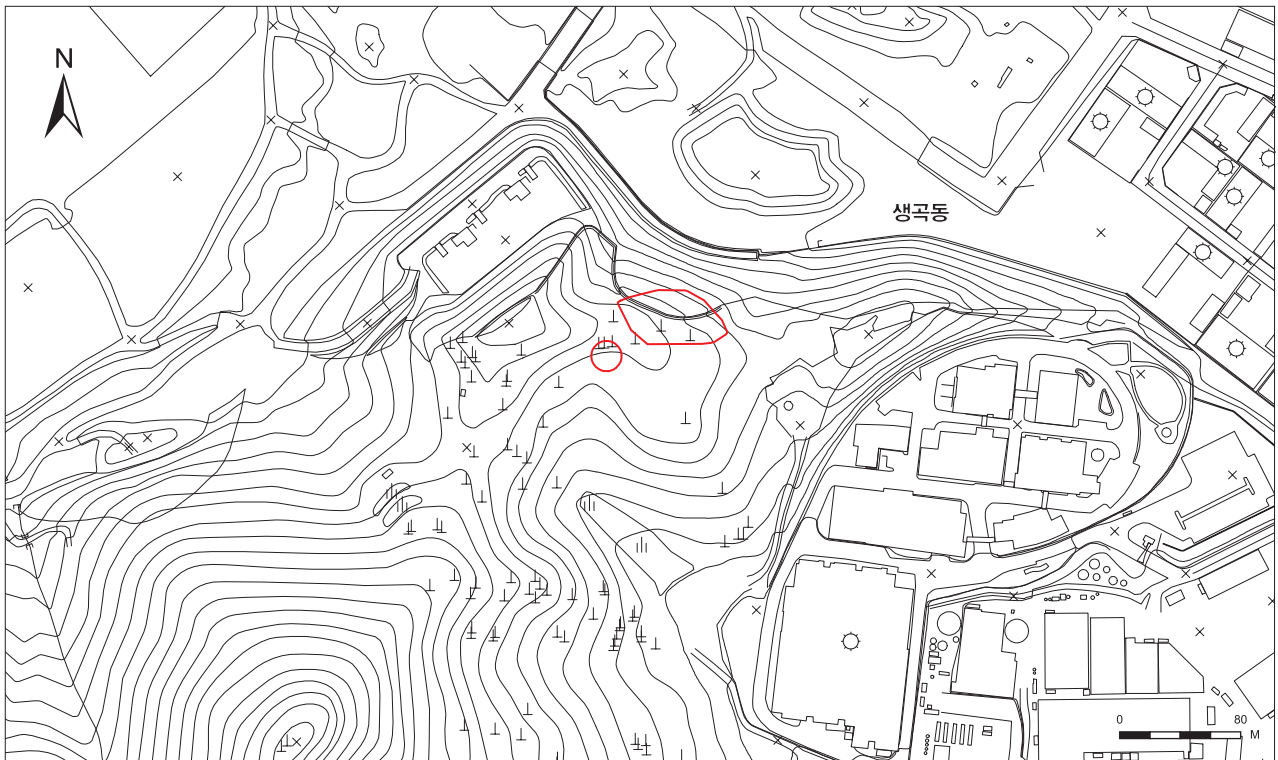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기념물 제43호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9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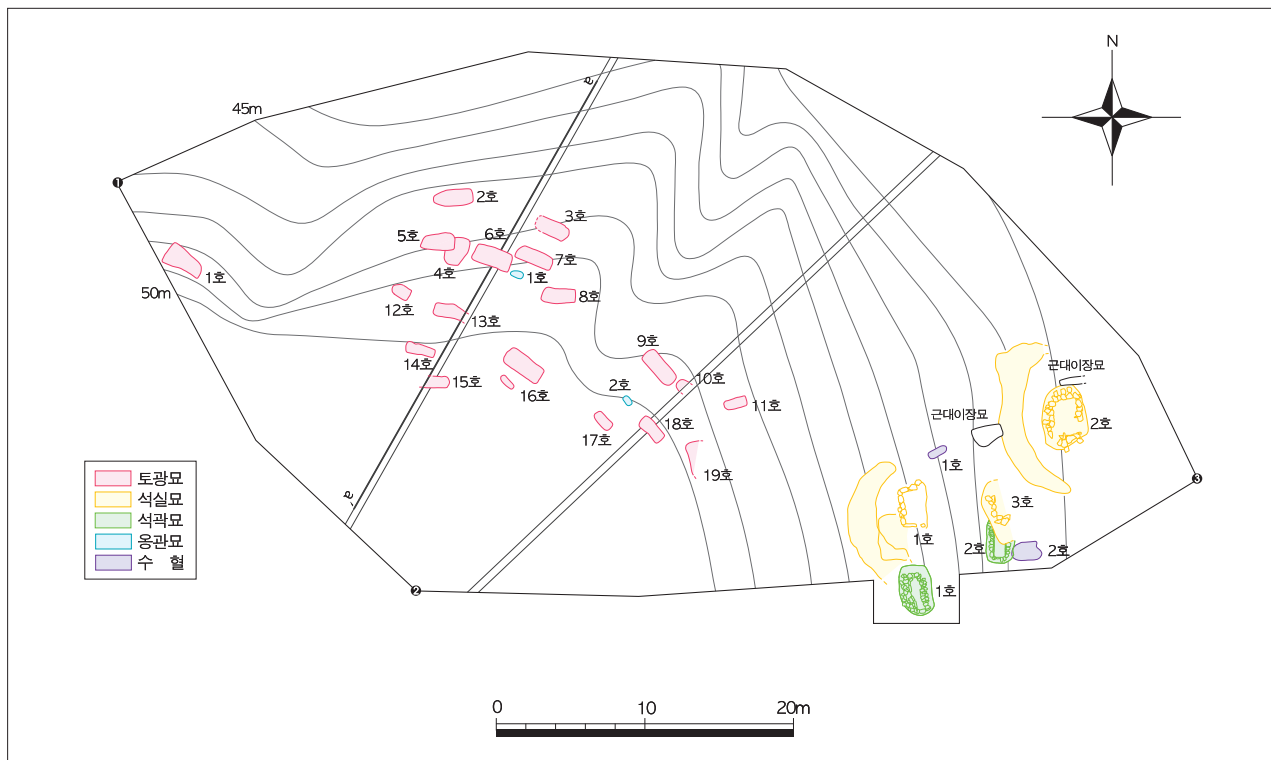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989.12.~1990.2.
부산박물관 / 시굴
1차 2012.3.~2012.5.
2차 2012.8.~2012.9.
동양문물연구원 /
2012.7.~2012.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삼각판갑옷, 통형기대

부산 생곡동 가달고분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9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가달 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의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편평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이 구릉은 서낙동강 서쪽에 넓게 형성된 충적지에 접한 구릉으로 낙동강을 따라 영남내륙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형성되어 있다. 주변 남서쪽으로는 구랑동고분군이, 북쪽으로는 분절고분군이 위치한다.

가달고분군은 오래전부터 도굴로 인해 파괴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 1984년 부산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유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1986년에는 지표조사를 통해 철제갑주자료가 채집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정식 발굴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정식 발굴조사는 부산직할시립박물관이 실시한 것으로, 1989년 1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2012년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실시한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달고분군의 해당구간을

유적 위치도

동양문물연구원에서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였다. 두 차례의 정식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토광묘 등 다양한 분묘가 확인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총 2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모두 삼국시대 분묘로 판단되는데, 수혈식석곽묘 15기, 소형 석곽묘 6기, 토광묘 2기, 옹관이 안치된 소형석관묘 1기,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총 2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그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토광묘 19기, 수혈식석곽묘 2기,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두 차례의 정식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분묘들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고 있으며, 일부 구릉의 평탄면의 넓은 구역에 위치한 경우 등고선과 무관하게 축조되고 있다. 유구가 위치한 입지와 도굴갱 및 주변에서 채집된 유물을 종합하여 보면, 편평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가달마을방향인 북동쪽 사면과 북쪽 봉우리로 연결되는 사면에는 4~5세기 전반대의 목곽묘가, 구릉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에는 5~6세기대의 석곽묘가 조영되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가달고분군의 주 묘제는 석곽묘로 중심연대 또한 석곽묘의 축조 연대인 5세기 전반~6세기 중엽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석곽묘는 목재를 뚜껑으로 한 것과 석재를 뚜껑으로 한 것으로 구분된다. 목재를 뚜껑으로 한 것은 석곽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바닥에 할석이 깔려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5·15·17호분(부산직할시립박물관)이 있다. 석재를 뚜껑으로 한 것은 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하고, 바닥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2·6·7·8·9호분(부산직할시립박물관) 등이 있다. 한편 소형 석곽묘는 옹관묘와 함께 소아용으로서, 중대형 석곽묘의 배묘적인 성격

유구 배치도

5호분

5호분 유물 출토모습

2호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출토유물

을 지니는 것도 있다.

출토유물은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조사에서 약 300여 점, 동양문물연구원 조사에서 110여 점이 확인되었다. 고배·장경호·단경호 등 토기류를 비롯하여, 대도·철촉 갑주·유자이기·철정 등의 철기류, 금제세환이식·유리옥·곡옥 등의 장신구류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는 다종다양한 것들인데, 소위 가야·신라양식이라 불리는 토기들이 혼재하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창녕양식 토기로 불리는 고배·파수부완 등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의 출자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달고분군의 축조연대는 토광묘, 석곽묘, 석실묘 등 각각의 묘제가 연속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아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까지로 판단된다. 중심연대는 5세기 전반~6세기 중엽에 해당되며, 김해·부산의 중심고분에 비해 비교적 하위집단의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도굴갱과 그 주변에서 철제판갑 편, 환두대도 등의 위세성이 강한 유물이 확인된 점, 가야·신라 특색을 가진 토기가 동시에 확인 되는점, 영남 내륙의 관문이 되는 낙동강 서안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가달고분군을 형성한 집단과 주변 집단 간의 위계와 교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동양문물연구원, 2014, 『부산 생곡동 가달고분군 -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가달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부산시립박물관, 1993, 『생곡동 가달고분군Ⅰ』.

부산시립박물관, 1996, 『생곡동 가달고분군Ⅱ』.

부산박물관, 2012,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송계현, 1990, 『부산생곡동가달고분군발굴조사개요,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연보』1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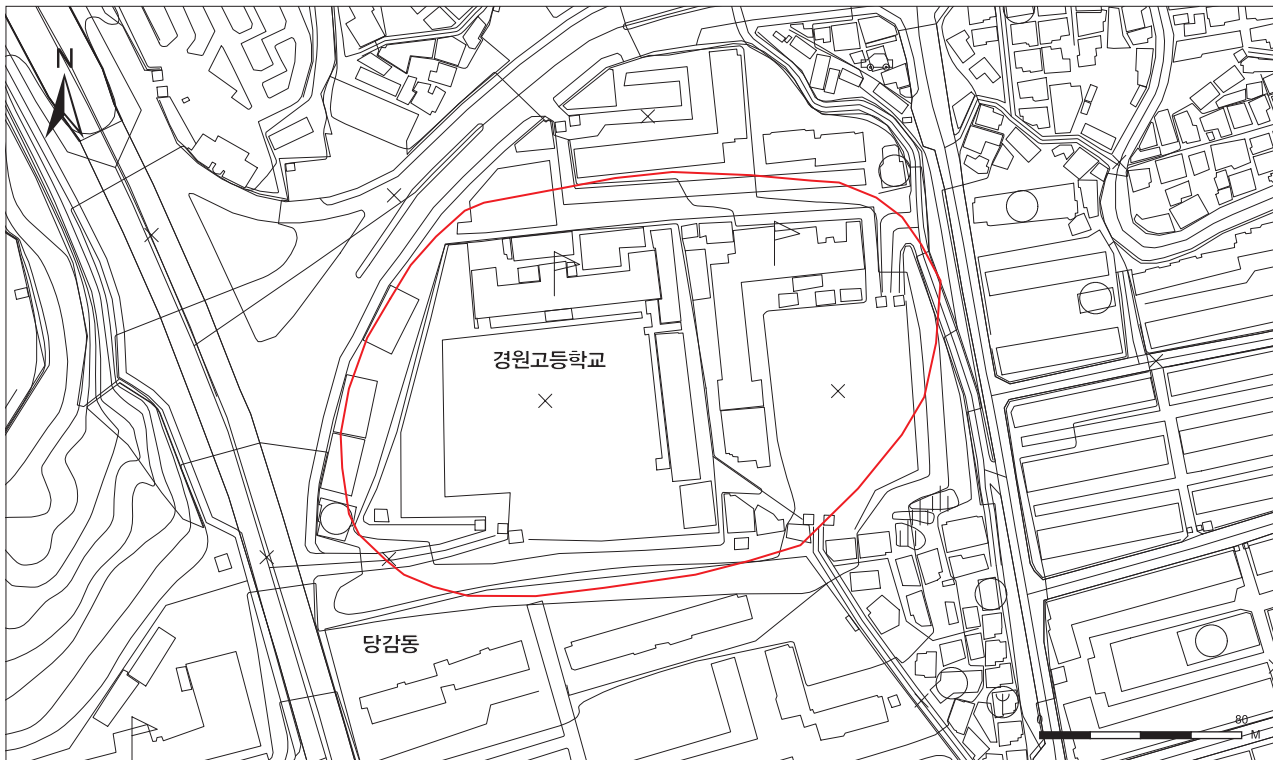
# 부산 당감동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산4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1.10.~19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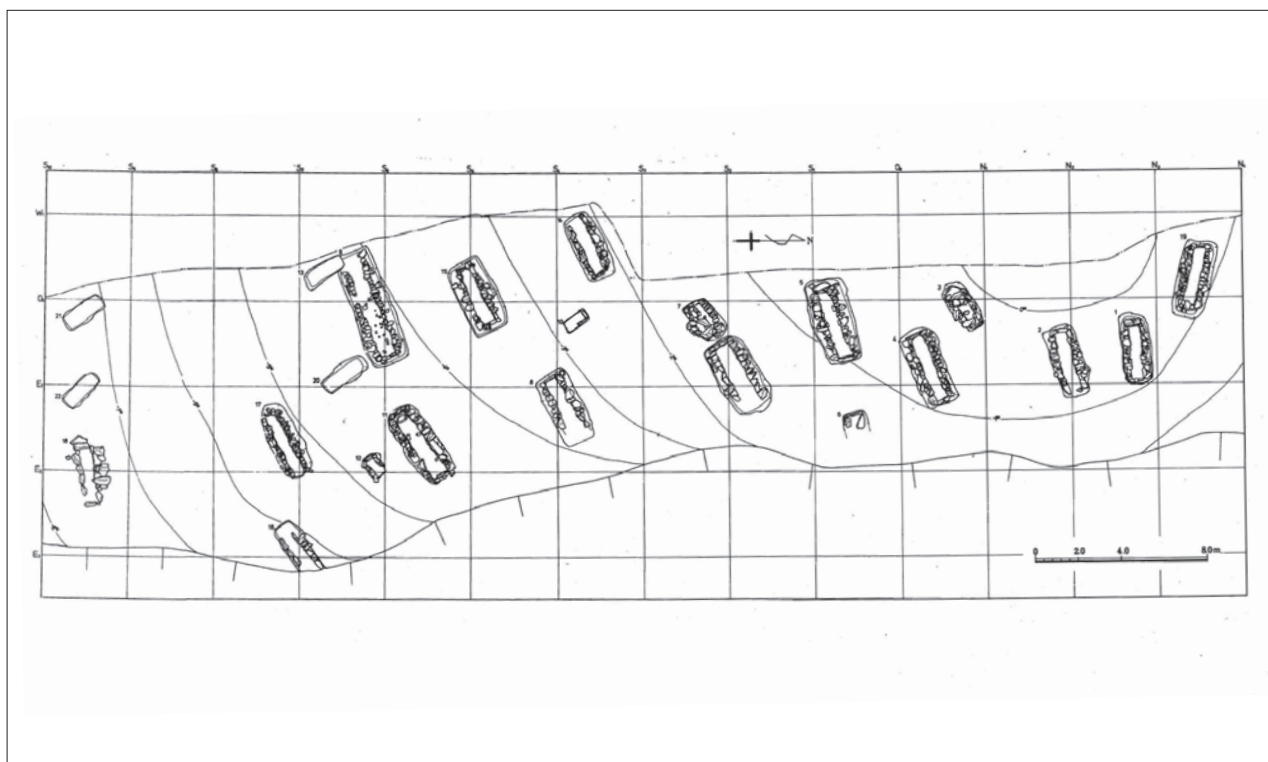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통형기대,
대도

부산 당감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산40-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해발 462m인 백양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말단부에 자리잡은 독립된 야산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 지역은 원래 5~10년생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이 울창하였으며, 정상부 주변은 지형이 평탄하여 고분입지로서는 적당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전의 도굴 등으로 유구가 파괴되어 지표면에서는 소수의 토기 편만 확인되었고, 개석이나 벽석 등과 같은 유구의 흔적도 극히 일부만 나타나 있어 외견상 대규모 고분군이란 느낌은 주지 않았다. 당감동고분군이 대규모의 밀집 분묘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까지 전혀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유도 대도시 도심지 가까이에 위치하여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당감동고분군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81년 부산시교육위원회가 이곳에 당평초등학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 하던 중 유적의 파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이

유적 위치도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부산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상조사를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였으며, 부산대학교박물관은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부산시에 보고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대학교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198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평초등학교 부지 내에 포함된 고분만을 대상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당감동고분군의 분포 지역 중 동쪽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발굴 당시 중앙부가 이미 잘려 나가있었으므로 자연히 발굴지역이 두 곳으로 나뉘었지만, 먼저 소멸된 중앙부를 포함하여 두 곳의 고분은 서로 연결되는 같은 유적이다.

발굴된 유구 중 삼국시대의 것으로 확인된 무덤은 석곽묘로 총 33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하나는 독립된 부곽을 가진 형식으로 주·부곽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7호분 1기가 여기에 속한다. 7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독립된 부곽이 없거나, 혹은 부곽이 동일 석곽 내부로 흡수되어 외형상 단일석곽의 형식을 띤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석곽형식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7호분과 같이 독립된 부곽을 가진 석곽이다. 이러한 석곽은 전대의 목곽묘에서 그 시원을 구할 수 있다. 주·부곽의 배치가 일렬식인 점, 주곽의 상면이 부곽의 상면보다 깊은 점 등의 특징들은 전대의 목곽묘에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감동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조사된 분묘들의 대부분은 도굴되었거나 파괴된 것들로 출토유물은 극히 적은 편이다. 토기류는 고배·통형기대·고배형기대·완·단경호·장경호·대호·연질옹 등이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는 대도·철검·철모·철촉·철부·철겸·철도자·철정 등

A지구 유구 배치도

9호분

7호분

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는 전형적인 5세기 후반 이후의 신라양식의 토기와 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배신외면에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 이단일렬투창고배, 발형기대, 통형기대 등은 가야양식 토기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감동고분군은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가야의 토착문화가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의 영향을 받아 점차 신라양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또한 당감동은 삼국시대 이래 오늘날의 부산 중심부를 다스렸던 대증현大甑縣과 동평현東平縣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동평현성東平縣城으로 전해지는 성터도 당감동고분군과 인접한 동평동의 야산에서 발굴조사 되었다. 당감동고분군의 파괴가 심해 자체적인 성격 파악은 어렵지만, 이 지역이 낙동강 하구에서 서면·동래 등의 부산 시내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삼국시대 이래로 주요 유적들이 입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부산당감동고분군』.

# 06

# 부산 덕천동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50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981.1.~1981.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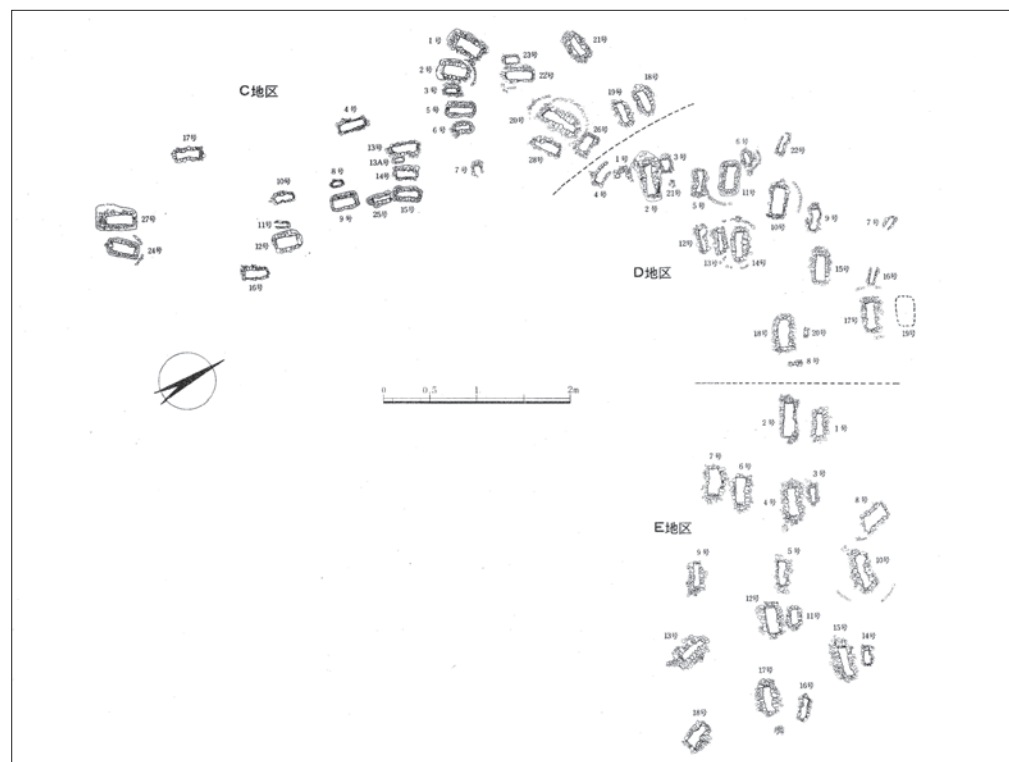
부산 덕천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5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이 위치하는 곳은 낙동강 하류의 동안으로, 금정산의 서록에 해당된다. 낙동강과는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남쪽에는 구포의 중심지가, 북쪽으로는 약 1㎞ 거리에 화명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1980년도 대한택지공사가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서 화명동에 걸치는 약 10만평의 택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덕천동 산50번지 일대의 야산에 산재되어있던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부산시는 즉시 문화재관계자 및 학자들로 하여금 현지의 상태와 보존가능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규모가 큰 고분군임이 확인되었으나 유적지의 일부가 공사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일부는 오래전부터 도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유적을 긴급발굴하기로 결정하고 부산박물관으로 발굴조사를 의뢰한 것이 본 유적 정식조사의 시작이다. 조사는 이미 유구가 파손되어 유적지임이 확실한 지역인 D·E지구와 인접한 A·B·C지구를 확대하여 A→B→C→D→E

유적 위치도

지구 순으로 진행하였다. 확인 결과 A·B지구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C지구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C·D·E지구에서 총 69기의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봉토가 잔존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삭평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조사된 분묘 중 삼국시대 분묘로는 소형 석곽묘 9기, 횡구식석실묘 58기가 있다.

소형 석곽묘는 모두 D지구에서 확인되었다. 구조는 생토면을 80~100㎝ 이상의 깊이로 굴착한 수혈식으로, 할석 또는 판석을 이용하여 네 벽을 동시에 축조한 구조이다. 바닥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곽 내에서는 고배·장경호·단경호 등의 토기류가 소량 매납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덕천동고분군의 C·D·E지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구조상 추가장이 가능한 것으로 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입구의 방향은 남향 또는 서향이 대부분으로, 단벽에 설치되어 있다. 입구의 특징은 단벽 전체를 입구로 이용한 것과 단벽을 사용하되 벽석의 1~2단은 석실 축조 시 먼저 쌓고 그 윗부분부터 입구로 이용한 것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석실의 바닥은 전면에 소형 할석을 한두 겹 깐 것, 바닥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하고 석실바닥의 중앙부에만 소형 할석을 깐 것, 그리고 양 장벽에 연해서 소형 할석을 깐 것 등으로 관대를 설치하고 있다. 석실 내에는 1회의 추장이 보편적으로 행해진 듯 하며, 추장이 행해질 때 마다 관대를 중복하여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주로 유구의 바닥 상면 중 돌이 깔리지 않은 입구쪽에서는 단경호·장경호·

유구 배치도

C지구 4호분

C지구 10호분

고배 등이 확인되었고, 관대 주위에서는 연질토기·고배가 간혹 확인되었다. 총 67기의 삼국시대 분묘에서 510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종류별로는 토기류가 430여 점, 철기류가 70여 점, 기타 장신구류가 10여 점이다. 토기류에는 고배·개·개배·완·대부완·단경호·장경호·연질옹 등이 확인되었다. 토기류의 대부분은 신라양식 토기이나, 고배 중 일부는 김해·부산지역을 중심으로 6세기 중엽에 유행한 특징적인 것도 있다. 유개고배로서 소성 정도가 매우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기벽이 매우 두텁고, 1단의 투공을 가진 단각고배가 그러한 것이다. 또한 대가야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흑색의 개도 2점 출토 되었다. 철기류는 철부·철겸 등의 농공구류와 철도자·철촉·대도 등의 무구류가 출토되었다. 철부·철겸 등 농공구류와 철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신구류는 과대금구·이식·청동령이 출토되었다.

덕천동고분군은 대체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의 두구동 임석고분군과 같이 횡구식석실묘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기 부산지역의 수장급 고분이라 할 수 있는 동래 복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 그리고 인접해 있는 화명동고분군의 주축묘제가 수혈식석곽묘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덕천동고분군은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횡구식석실묘의 본격적인 유행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고분군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83, 『부산덕천동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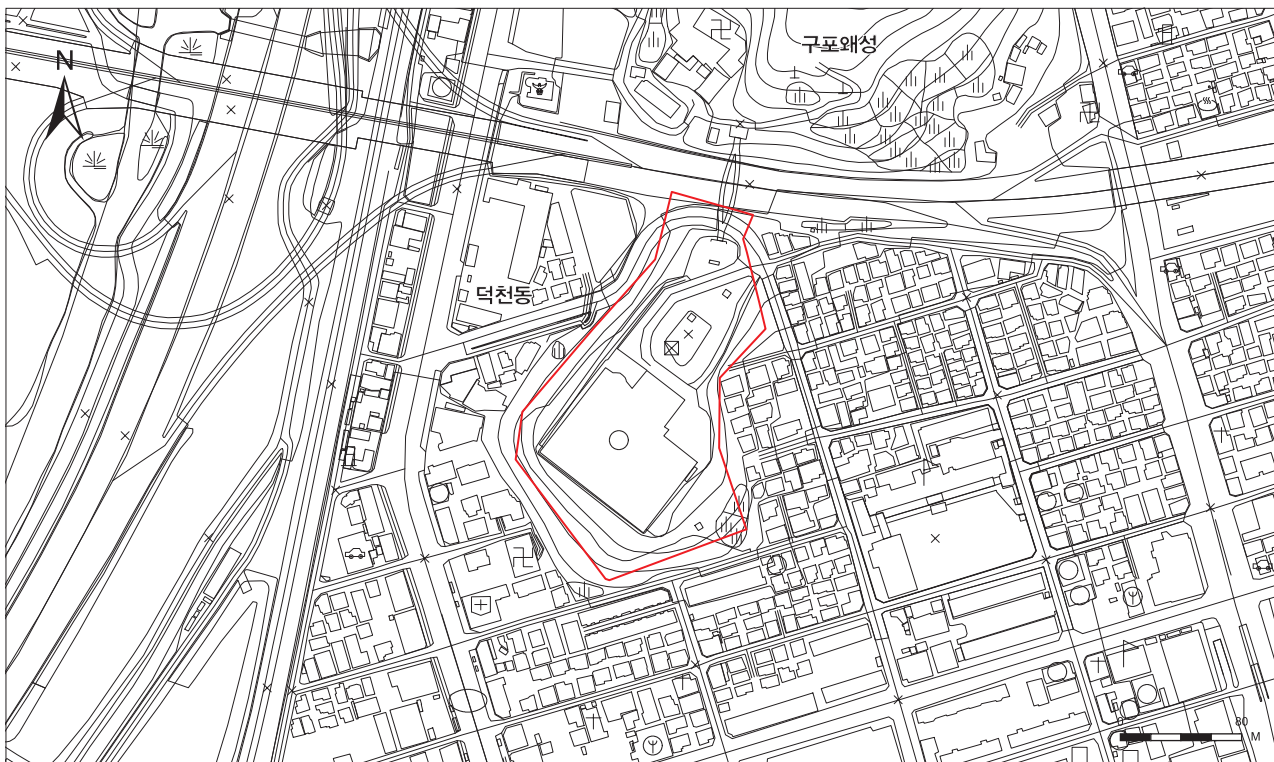
# 07 구포 덕천동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산107-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차 2002.2.~2002.8.
2차 2004.4.~2004.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화로형토기, 대부호, 단경호, 철부

구포 덕천동유적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산107-11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안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부산광역시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구포왜성의 본성이 있고 남쪽에는 지성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사지역은 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곳은 해발 36m의 비교적 평탄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한시대 목곽묘 2기와, 고려~조선시대 목관묘 36기, 옹관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왜성과 관련된 유구는 굴립주 건물지, 고상유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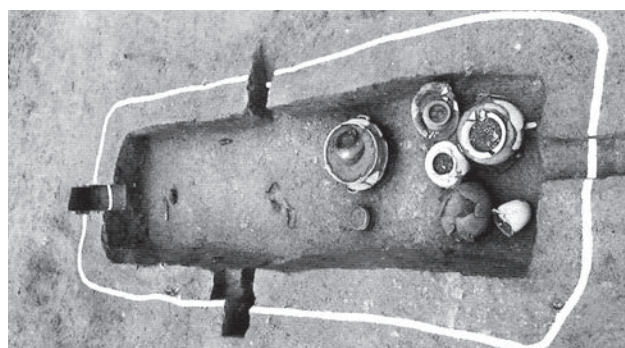
목곽묘는 구릉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다. 1호 목곽묘는 상부가 대부분 유실되었다. 길이 230cm, 폭 89cm로 내부에 대부호, 소도자, 소완이 출토되었다. 2호 목곽묘는 목곽 내에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395cm, 폭 159cm로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남쪽 단벽부에 단경호와 화로형토기, 목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중앙부에는 철부, 철겸 등 철기류가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구포 덕천동유적』

출토유물을 볼 때 대략 3세기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노포동고분군과 시기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전경

1호 목곽묘

2호 목곽묘

출토유물

08

# 부산 반여동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34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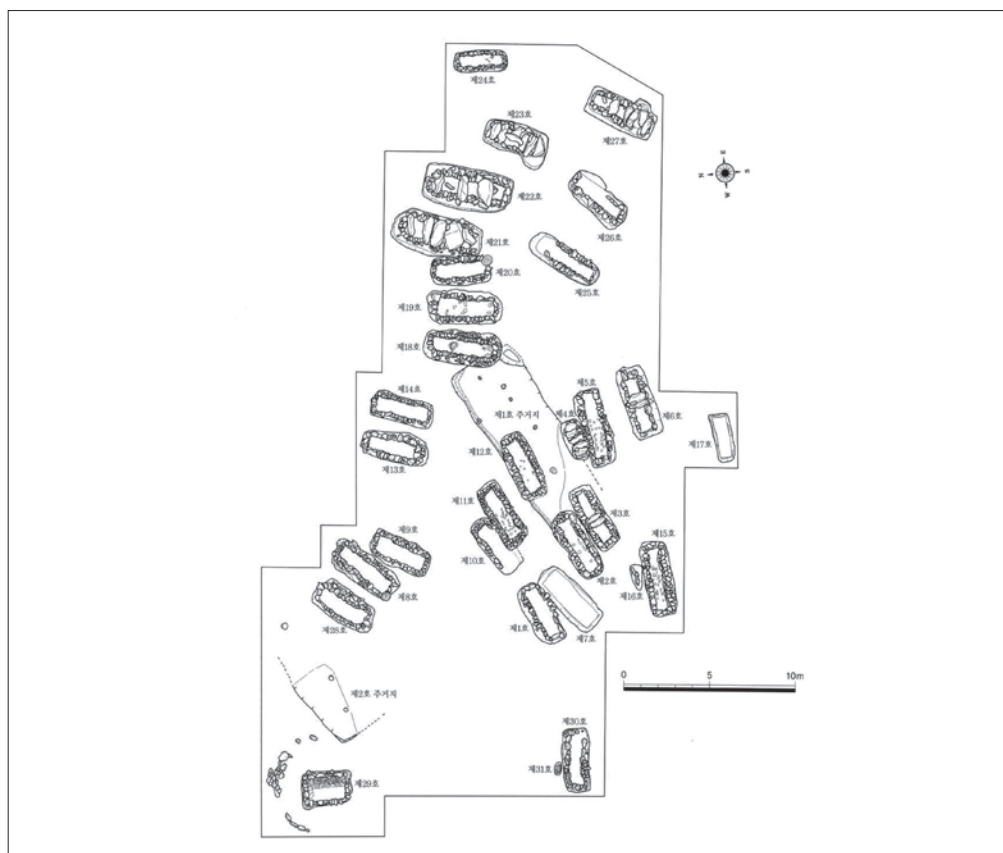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차 1986.8.~1986.9.
2차 1988.11.~1988.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옹관묘, 횡구
식석실묘 / 장경호,
고배, 발, 환두대도,
철정, 금제세환이식,
유리제경식

부산 반여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34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수영강 서쪽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는 삼어마을 뒤편에 위치한 야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가지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구릉은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낮아지는 지형이며 소나무와 잡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사 전 이곳은 지표상으로 고분의 큰 봉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표면 군데군데 도굴 구덩이와 석곽묘의 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었다. 반여동고분군은 일찍부터 분묘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반여아파트와 창신아파트 건립으로 유적이 조영되어 있던 구릉의 대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남은 부분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도굴과 경작 등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유적의 현상을 고려해 부산시는 유적의 정확한 규모·성격 파악 및 관리·보존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의대학교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2차례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 위치도

1차 조사는 1986년에 실시되었으며 삼국시대 유구로는 목곽묘 2기, 석곽묘 16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2차 조사는 1988년에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지로부터 사방으로 조금 연장한 범위로 이루어졌다. 2차 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유구로는 석곽묘 10기, 옹관묘 1기, 횡구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두 차례의 조사 결과 확인된 분묘는 총 31기인데, 이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기에 불과하다. 총 확인된 분묘 중 26기가 석곽묘로, 석곽묘가 주 묘제이다. 옹관묘는 석곽묘의 배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석곽의 두향은 서쪽이고,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석곽은 두향이 남쪽인 것이 특징이다.

석곽묘는 개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개석이 있는 유구는 7기이며, 나머지 유구에서는 개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자는 도굴이나 후대의 교란으로 인하여 개석이 유실된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석개 대신 목개를 사용하였던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묘에 목개를 채용하는 것은 부산지역의 여타 고분에서도 확인되는데, 석곽묘 축조 초기 단계부터 확인되는 특징이다. 석곽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유물을 부장하는 부장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한쪽 단벽 가까운 바닥에 원형 또는 타원의 유물 부장갱을 두고 있다. 이것은 호와 같은 규모가 큰 토기를 부장하기 위한 공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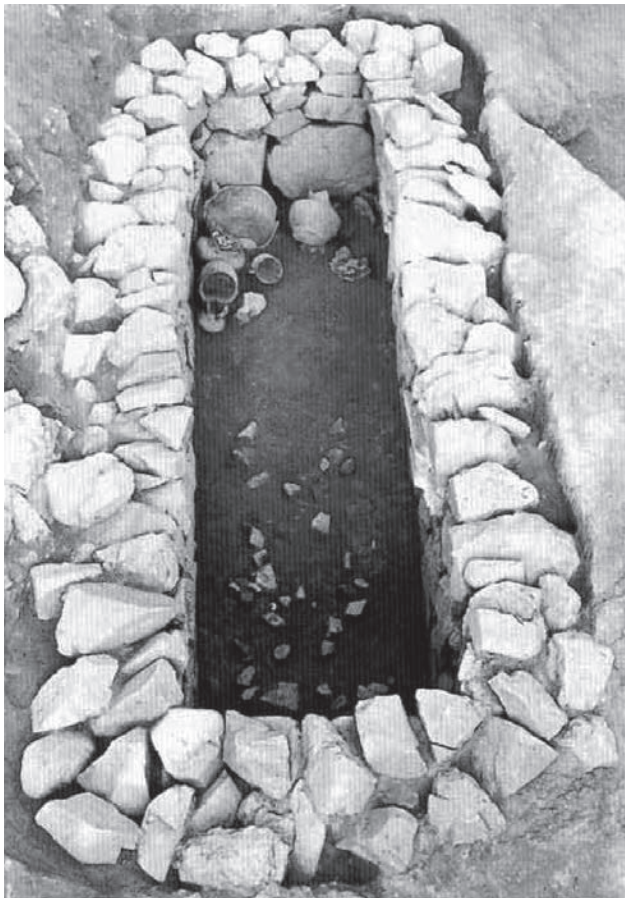
간이라 할 수 있다. 크기에 따라 유물 1점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것, 3~4개의 호를 부장할 수 있는 깊고 넓은 것, 그리고 깊이 10㎝ 전후의 얕고 넓은 것으로 구분된다. 부장갱이 있는 단벽쪽이 유물을 부장하는 주부장공간이며, 부장갱 내부에는 주로 단경호, 고배 등의 토기류가 부장되어 있다. 이러한 부장갱은 동래 복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당감동고분군 등 부산지역의 여타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유물은 장경호, 고배, 파수부발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철정, 철촉 등의 철기류, 금제세환이식, 유리제경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각 고분마다 파수부발을 부장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묘곽 내 양 단벽에는 토기를, 양 장벽을 따라서는 철기가 부장되어 있다. 또한 두향쪽으로는 소형 토기와 장신구 정도가 출토되고, 대형 토기와 대부분의 토기는 발치쪽에 부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여동고분군은 부산 수영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으로, 부산의 중심고분인 동래 복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의 하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유적의 조영 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 중심연대이며, 동시기 부산지역의 고분군들의 특징인 부장갱이 있는 중소형의 수혈식석곽을 주묘제로 채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동의대학교박물관, 2005, 『부산반여동유적』.


11호 유구



4·5호 유구

15호 유구

# 09 부산 괴정동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026-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성여자초급대학박물관
/ 1975.8.~1975.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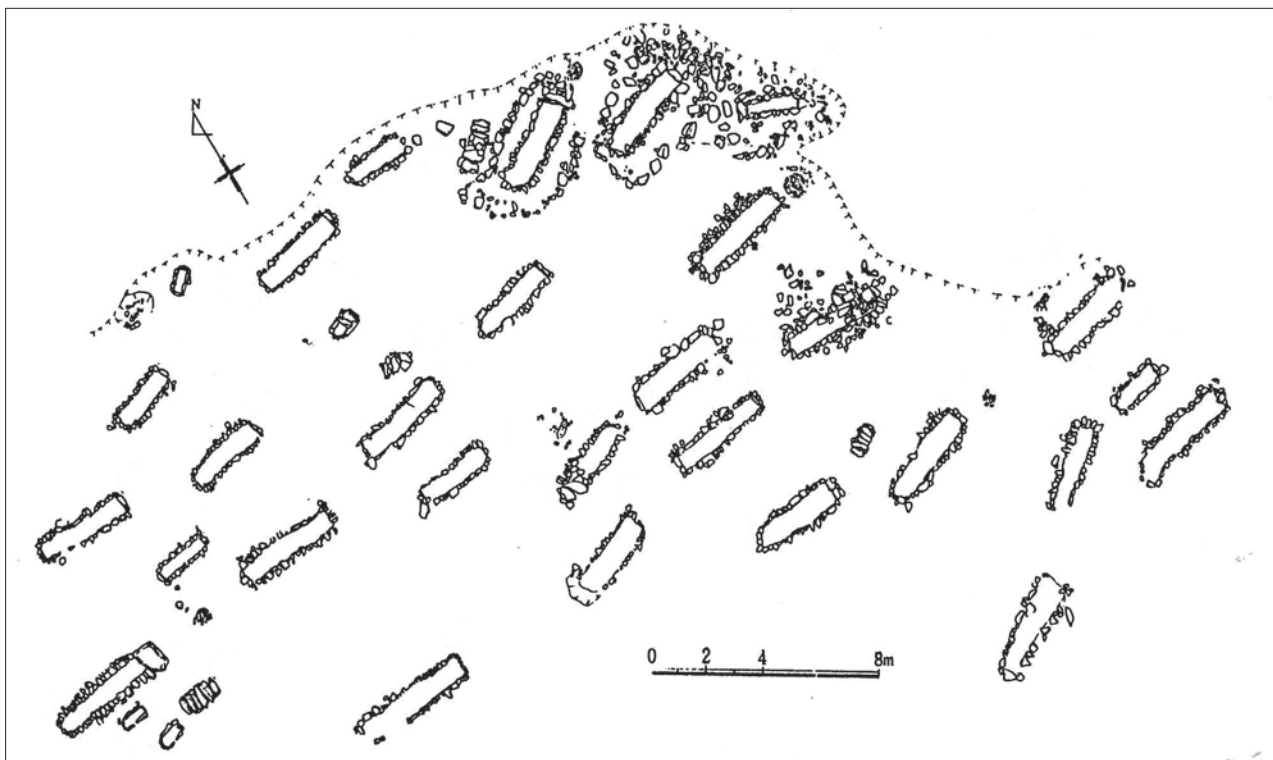
부산 괴정동고분군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026-3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구덕산 줄기의 남단에 연결된 해발 80~90m 정도의 나지막한 분구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분구의 아래쪽은 경사가 심한 편이나 고분군이 분포하는 위쪽은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어 평탄한 편이다. 조사전 이곳은 과수원이었으나 발굴당시에는 오성고등학교 구내였고,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원래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고분군의 남쪽에는 감천만이 내려다보이고, 서쪽으로 산모퉁이 하나만 돌면 바로 낙동강 하구이다. 고분군 구성의 입지로서는 양호한 편이므로, 처음에는 꽤 규모가 큰 고분군이었던 것 같으며, 실제 발굴당시만 하여도 주변에 남아있던 과수원이 모두 고분 분포지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괴정동에 고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위치와 성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 와중 1975년 6월경, 이곳에 있

유적 위치도

는 오성고등공민학교 부지 정지작업 시, 일부 고분유구가 파괴되고 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노출되면서부터 비로소 고분의 위치와 성격이 밝혀지게 되었다. 부산 서부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고분군이라 이 지역 학계에서는 관심이 깊었지만, 이미 유적의 일부가 파괴되고, 도심지에 인접해 있어 보존이 어려운 까닭에 부득히 긴급발굴을 한성여자초급대학박물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은 1975년 8월~10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 29기, 옹관묘 10기 등 총 3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평균 2~3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장축방향도 모두 동-서향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각 유구간의 거리간격이 거의 일정하여 전체 배치상태는 비교적 정연한 편이다.

석곽묘는 대부분 장축방향이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었다. 축조방법은 장방형의 묘광을 파고 그 안에 할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4측벽을 쌓아 올리고 위에는 뚜껑을 얹힌 방식이다. 발굴 시에는 개석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지만, 파괴되지 않은 무덤 중에 처음부터 개석이 덮히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석개가 아닌 목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 장벽의 축조방법은 중대형 석곽인 경우, 비교적 고른 할석에 부분적으로 작은 할석을 보강하거나 또는 하단은 큰 할석으로, 상단은 작은 할석으로 쌓았다. 소형 석곽은 판석에 할석을 부분적으로 보강하여 쌓았다. 양 단벽의 축조방법은 석곽의 폭이 좁기 때문에 1매의 판석을 세우거나 혹은 그 위에 작은 할석을 1~2단 보강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형 할석을 혼합하여 여러 단 쌓은 것은 소수

유구 배치도

29·30호분

출토유물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이 200~400㎝, 너비 60㎝~70㎝ 정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석곽의 바닥시설은 11호분 1기에만 자갈돌이 깔려 있고, 나머지는 무시설의 것으로 생토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옹관묘는 소형 석곽 내 2개의 토기를 결합하여 넣고 위에 개석을 덮은 석곽옹관묘이다. 석곽묘와 같이 장축은 동-서향이며 두향은 동쪽이다. 옹관을 보호하고 있는 석곽은 작은 묘광안에 판석을 부분적으로 보강하여 상자모양으로 축조하였으나, 작은 할석만으로 쌓은 것도 있다. 뚜껑은 판석 편으로 덮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68~78cm 내외, 너비 25~35㎝ 내외, 높이 25~35㎝ 내외이나 가장 큰 36호 옹관묘는 길이 116㎝, 너비 39㎝, 높이 39㎝이다.

출토유물은 고배·개·장경호·연질소옹 등의 토도류가 270여 점, 삼엽형환두대도·재갈·철촉·철부·철겸·철도자 등의 철기류가 300여 점, 장신구류가 30여 점 확인되었다. 전체 무덤의 2/3 정도가 파괴 도굴되어 정확한 부장양상을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물은 유구의 양 단벽에 집중 부장되어 있으며, 일부 도자 등 착장유물의 경우 시신이 안치된 위치에서 확인된다.

괴정동고분군은 석곽묘와 석곽옹관묘가 혼재하는 집단분묘유적으로 부산지방의 다른 고분군들과 마찬가지로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다. 무덤의 구조나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오륜대, 당감동고분군 및 복천동의 일부 분묘들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규모나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괴정동지역은 동래나 연산동지역처럼 강력한 권력집단이 존재하던 정치적 중심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괴정동고분군은 부산 서부지역에서의 유일한 것이며, 또 낙동강 하구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고분유적이다. 연대상으로 오륜대고분군이나 당감동고분군과 비슷한 시기로 이 시기 부산지역의 상호관계는 물론 낙동강 하류지역 고분문화의 전반적인 성격을 구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징원, 1992, 「부산괴정동고분군발굴조사개요」,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연구논집』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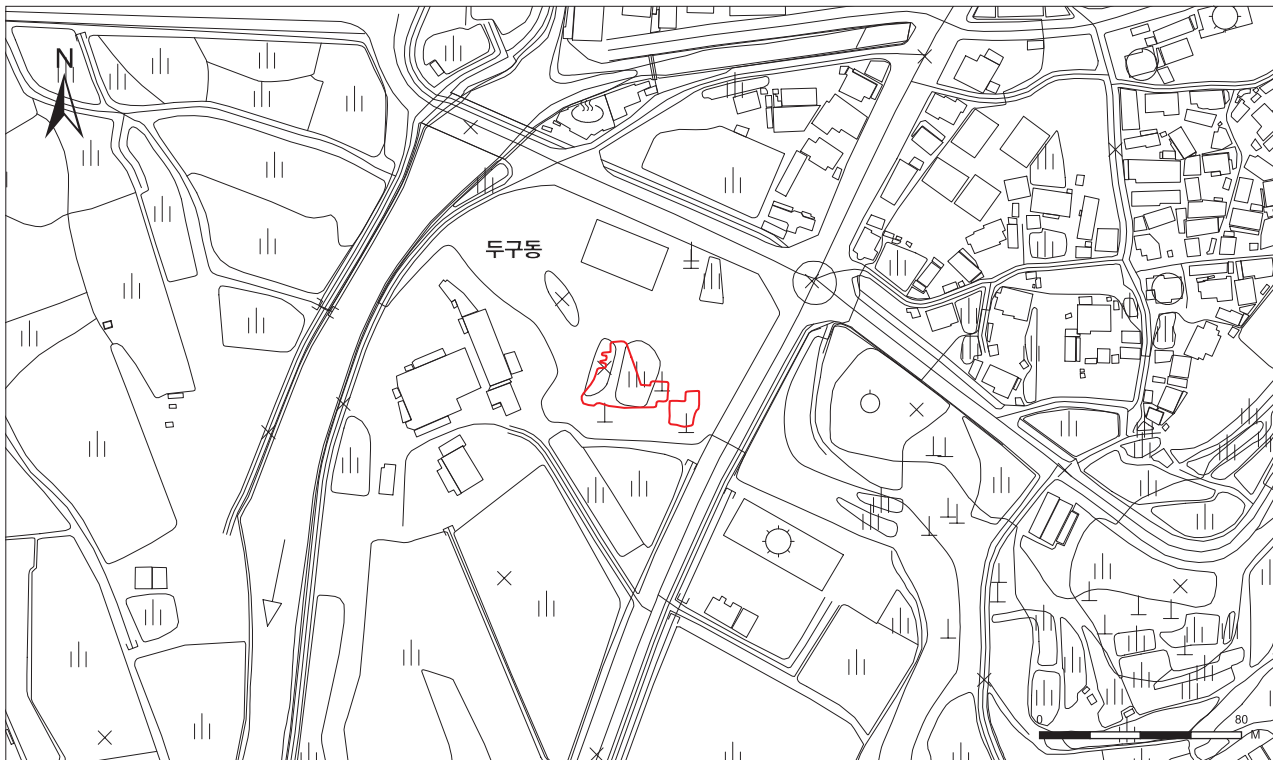
# 부산 두구동 임석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6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1987.9.~198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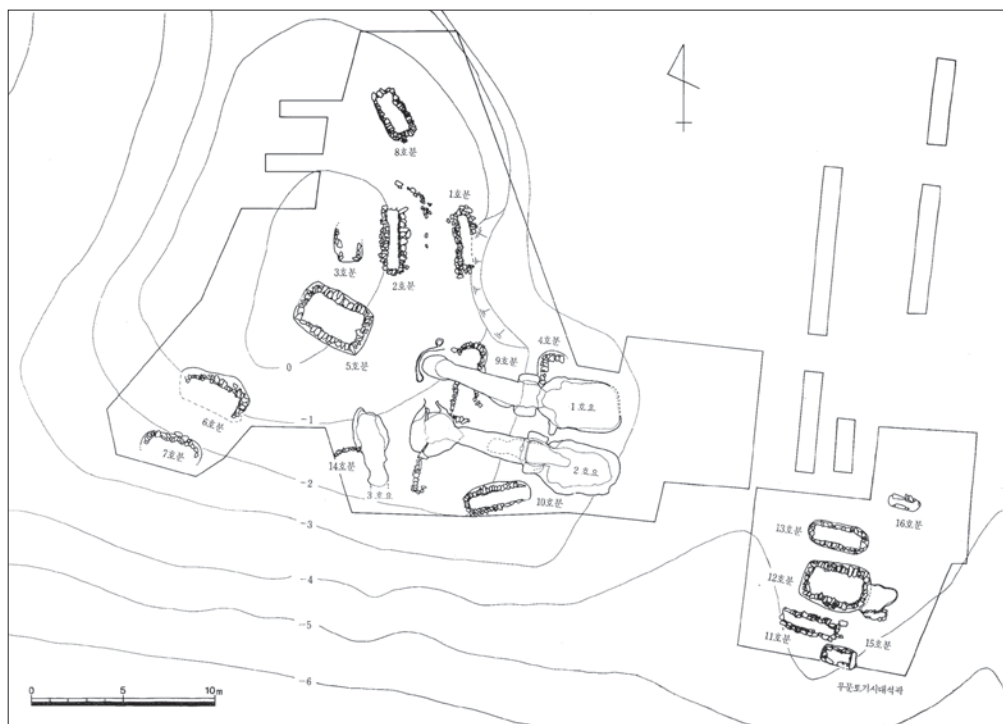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대부장경호,
등자

부산 두구동 임석고분군은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64-1·65-1번지 일대에 분포한다. 이곳은 부산광역시의 최북단이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계지점에 있는 공덕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의 말단에 해당된다. 구릉은 부산·울산 간 7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 지점에 있는 해발 50m의 낮은 구릉으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수영강이 남북으로 흐르며 서북쪽에는 두구동의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고분의 입지로서는 양호한 편이다.

두구동 임석고분군은 1986년 11월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부산시내의 유적 분포조사 때 처음 확인되었다. 확인 당시 이미 유적의 곳곳에 토기 편이 흩어져 있었으며, 석곽으로 보이는 돌들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두구동 임석고분군 인근에 있는 임석부락이 조성될 당시 많은 토기들이 출토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대부분은 부락 형성 시 파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산직할시립

유적 위치도

박물관은 1986년 분포조사를 실시한 고분군 가운데 두구동 임석고분군이 가장 파괴가 심하고 소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우선적으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식발굴조사는 1987년 9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구가 지표에서 확인되는 구릉의 상부 약 600㎡를 전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확인된 삼국시대의 무덤은 16기이다. 수혈식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가 확인되었다. 모두 도굴되어 파괴·유실된 것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1기도 없다. 고분군은 횡구식석실묘 중 규모가 큰 5호분과 12호분을 중심으로 각각 군집을 형성한다. 유적의 서편인 구릉 말단의 정상부에는 5호분을 중심으로 11기의 고분이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에서 남쪽으로 나온 소구릉에는 12호분을 중심으로 4기의 고분이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대형의 횡구식석실묘 1기를 중심으로 하여 소형의 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 수 기가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심에 있는 대형의 횡구식석실묘와 주변의 소형묘 사이에는 출토 유물로 보아 약간의 시기차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대형의 횡구식석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군은 축조될 당시 이미 축조위치가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5호분을 중심으로 한 소군의 경우 중심부인 5호분과 3호분에서만 금·청동제품이 출토되고 있고, 각 고분 간 묘역 파괴가 없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횡구식석실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있다. 중심 고분인 5호분과 12호분의 석실은 장방형이고, 이외의 석실은 세장방형이다. 5호분은 동남 단벽의 중앙부를

유구 배치도

입구로 이용하고, 석실 전체가 지하에 있다. 12호분은 동쪽 단벽 전체를 입구로 이용하고, 석실이 지상에 있어 구조가 다르다. 5호분과 12호분은 각 1회의 추가 매장이 있었다.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석실은 단벽 일부를 입구로 이용하여 매장하였고, 바닥 중앙부에 천석을 깔아 시상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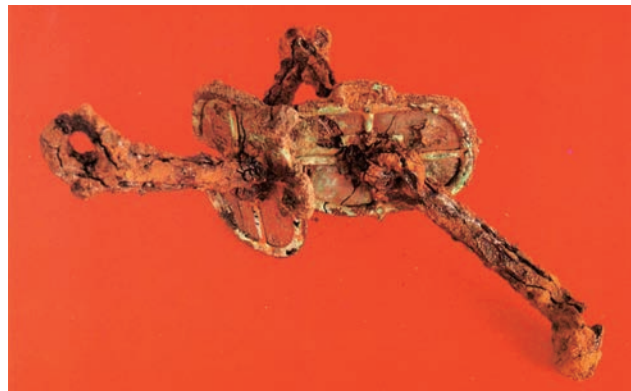
유물은 토기류·철기류·장신구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유개고배·대부장경호·원저단경호·원저장경호·연질파수부옹·소형의 유개연질옹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신라식 토기와 부산·김해지역의 독특한 형식의 고배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식 고배는 배신에 집선문 등이 시문된 유개고배로 1·2·10호분 등에서 확인되었다. 부산·김해식 고배는 기벽이 비교적 두텁고 소성정도가 양호하며 대각이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지는 단각고배로 3·10호분에서 확인되었다. 토기류 이외에 주목을 끄는 것으로는 5호분에서 출토된 재갈·행엽·운주 등의 마구류가 있다. 완전한 한 벌은 갖추지 않았으나 모두 철제금동장이다. 특히 자엽형행엽은 여타지역에 유례가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 철기 유물로는 삼엽형환두대도·대도·철모 등이 확인되었다.

두구동 임석고분군의 중심연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대로 비정 할 수 있다. 이 시기 부산지역 여타 삼국시대 고분은 수장급의 동래 복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과 같이 대부분 수혈식석곽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달리 두구동 임석고분군은 횡구식석실묘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횡구식석실묘와 같은 새로운 묘제가 이 지역으로 도입되는 것은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에 수반되어 신라식 토기·금동제 마구류 등의 부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라세력의 본격적인 이 지역 진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두구동 임석고분군은 당시의 가야·신라세력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0, 『부산 두구동 임석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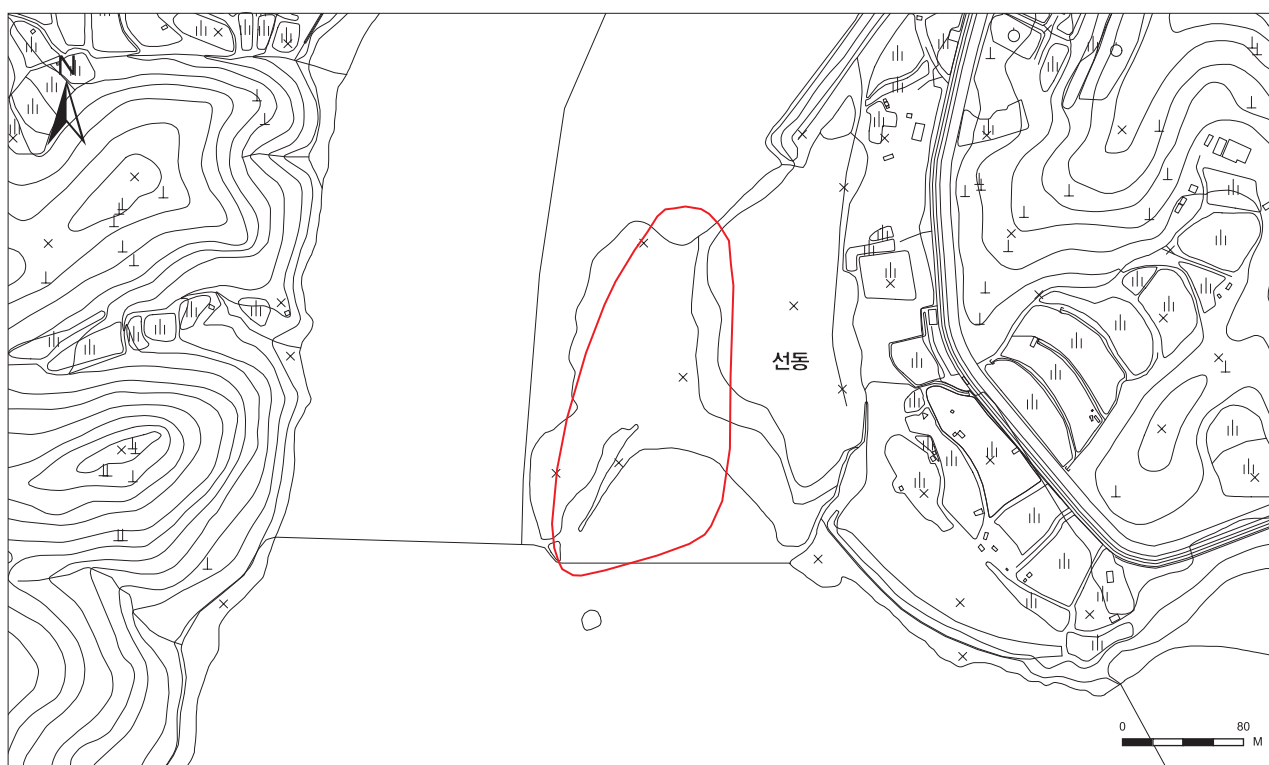
5호분

5호분 출토유물

## 11

# 부산 오륜대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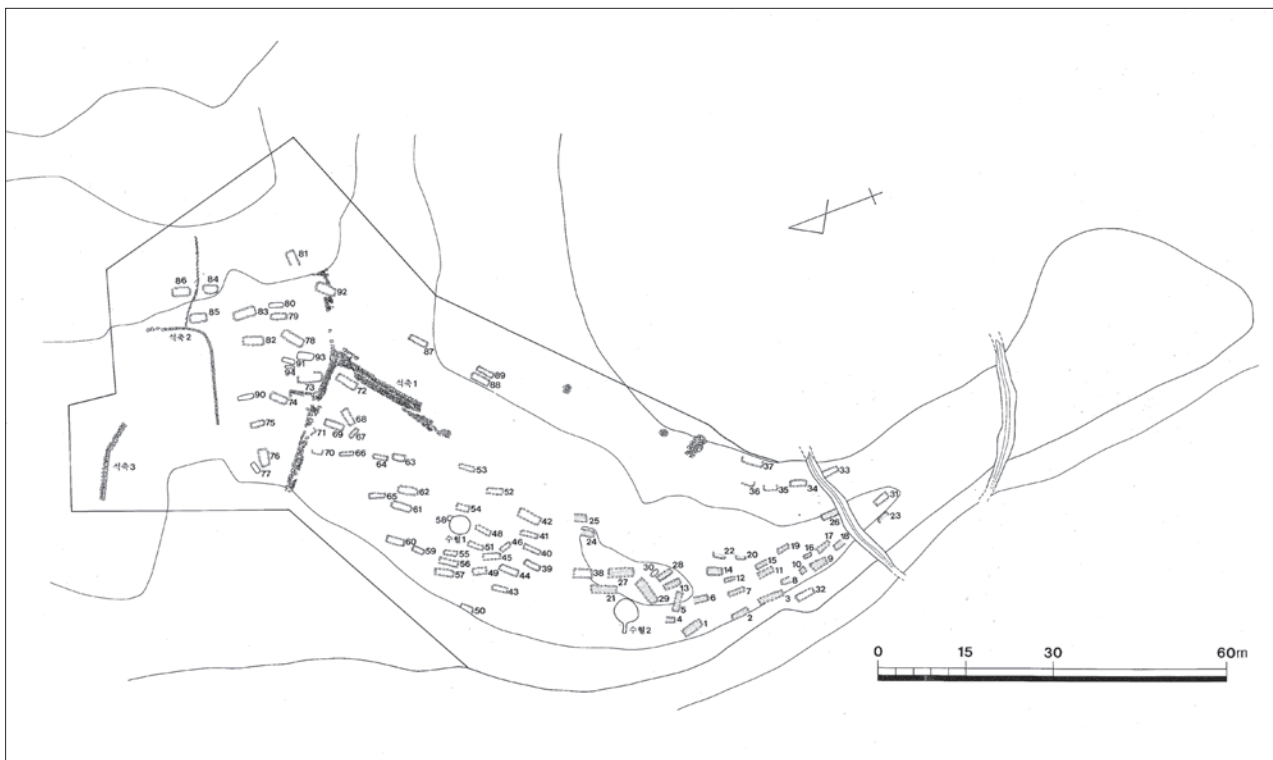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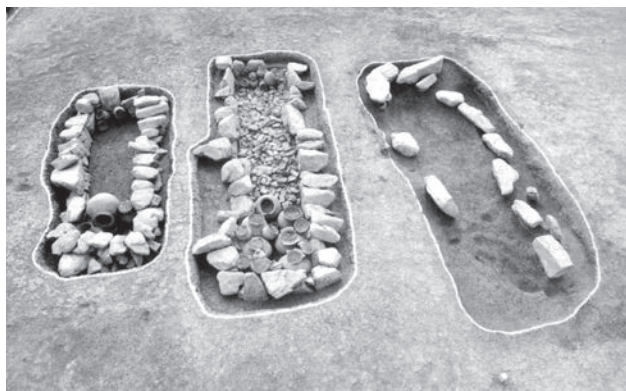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17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71.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
1차 1996.2.~1996.3.
2차 1996.5.~1997.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고배, 철부,
등자

부산 오륜대고분군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17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40년에 만들어진 회동수원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부락이었다. 고분은 부락의 북쪽에 위치하였던 남-북 약 200m, 동-서 약 50m의 세장한 구릉 능선에 조성되어 있었고, 그 주위는 논밭이었다고 전해진다. 1967년 수원지 확장공사 시 부락 및 유적이 위치하고 있던 구릉이 수몰되었다. 이후 1971년 수원지의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 유구가 노출되어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시 그 이후 유적은 20여 년 수몰된 상태로 있었고, 1995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에서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이사토 준설계획에 의해 유구확인 조사를 부산광역시립박물관으로 의뢰함에 따라 시굴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두 차례의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 93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2동, 석축 3동,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분묘는 남북쪽으로 연결된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부에 밀

유적 위치도

집되어 분포하고, 사면에도 분포한다. 총 93기의 분묘 중 토광묘가 6기, 횡구식석실묘가 3기, 나머지 84기는 석곽묘이다. 조선시대 이래 이곳이 거주 지역으로 사용되면서 유구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1기도 없었다. 잘 남아 있는 유구는 3~4단 정도의 벽면이 남아 있었고, 일부의 유구들은 벽석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삼국시대의 분묘는 대체적으로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대략 200년 간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7세기의 무덤은 3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이에 해당하는 무덤은 석곽묘가 대부분이다. 석곽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길이가 3~4m이고, 너비가 1m 내외로 세장방형이다. 석곽묘의 벽석축조는 하단에 천석을 수적하고, 2단부터 횡적한 것과 하단부만 횡적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양자간에 시기 차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묘 이외에 토광묘도 6기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길이가 3m를 넘지 않아 규모가 작은 편이다. 토광묘의 연대는 6세기 전반대로 석곽묘와 동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횡구식석실묘는 3기 조사되었는데, 3기 모두 파괴가 심하여 석실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없다.

삼국시대의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약 450여 점으로 토기·철기류 등이 있다. 토기는 고배가 대부분으로 이외에 대부장경호, 파수부옹, 연질옹 등이 확인되었다. 토기 기종의 구성을 보면 거의 모든 유구에 연질옹이 매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석곽에는 5~6점이 매납된 것도 있다. 고배는 거의 대부분이 유개고배로, 그 중 6세기로 편

유구 배치도

55·56·57호묘

출토유물

55호묘 유물 출토모습

넌되는 것은 고배와 뚜껑에 종밀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철기류는 주조·단조 철부, 철겸, 철촉, 대도 등의 농공구류와 무기류 등이 출토되었고, 68호 석곽에서는 등자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출토유물로 보아 오륜대고분군은 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축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비교적 출토유물의 수량이 적고 위세성이 강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오륜대고분군 축조집단은 당시 부산의 중심고분군인 복천동·연산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륜대고분군의 북쪽으로 2㎞정도 떨어진 곳에는 두구동 임석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임석고분군은 오륜대고분군과 동일한 수계에 위치하고 거리상으로 인접된 지역이지만 묘제와 고분군 배치, 출토 유물 등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오륜대고분군은 동시기 부산의 여타 고분군과 비교하여 소형묘로 이루어진 고분군이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보수성이 강한 집단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부산대학교박물관, 1973, 『부산 오륜대고분군』.

부산복천박물관, 1999, 『부산 오륜대유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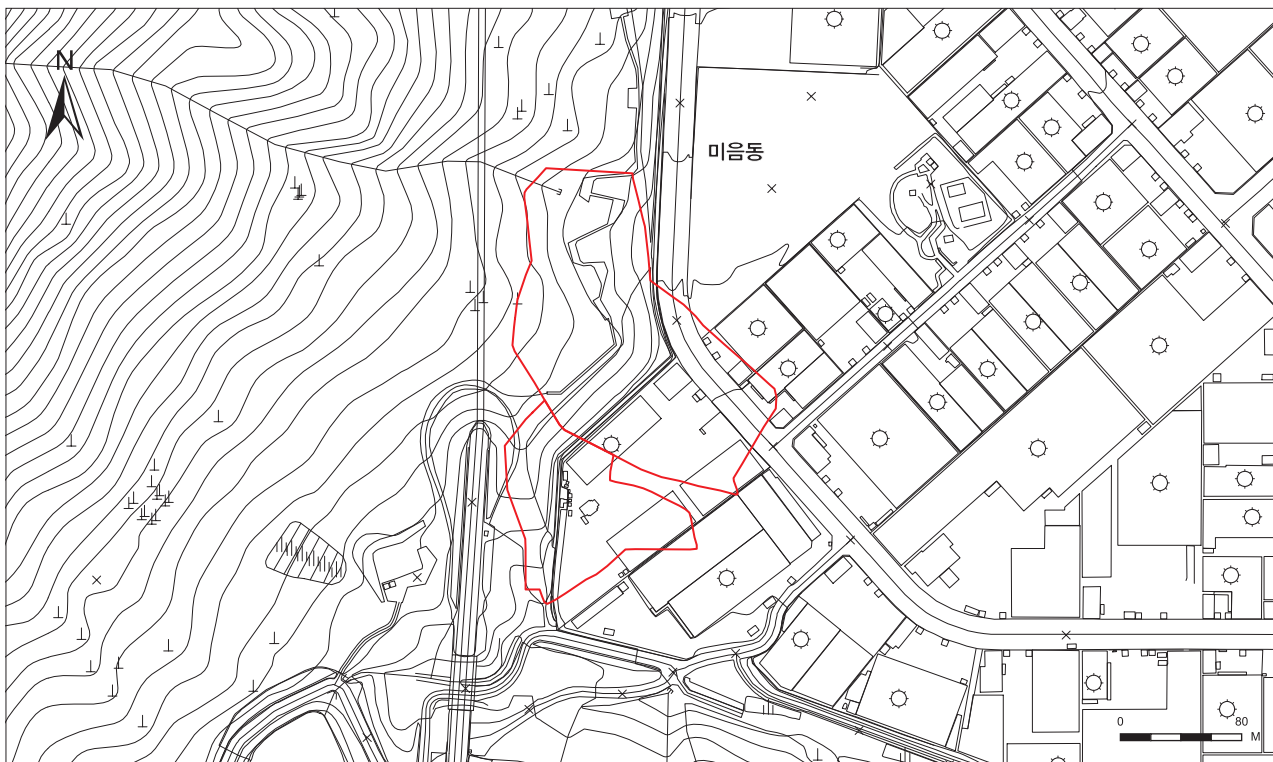
# 부산 미음동 1180번지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18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0.3.~2011.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광구소호,
하지키계 토기

부산 미음동 분절고분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18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낙동강 하류역에 위치하는 굴암산(해발 667.7m)이 두 갈래로 갈려져 동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미음동 분절마을을 감싸고 있는 옥녀봉(해발 336m)의 동남쪽 말단 구릉부와 사면(해발 20~50m)에 해당한다. 정상부 능선을 따라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나지막한 야산들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는 패각류들이 검출될 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 범방패총·범방유적, 삼국시대 압곡패총·분절패총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를 통해 과거 '분절고분군' 일대 앞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절고분군은 일찍이 유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후대 도굴과 경작 등으로 유적이 크게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지 조성의 일환으로 주변 일대의 대대적인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F지

유적 위치도

구에서 삼국시대 석곽묘·토광묘 등이 확인되어 처음으로 분절고분군의 실체가 알려졌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2010년 3월부터 약 1년간 정식 발굴조사 실시되었다. 정식 조사 결과 삼국시대 유구로는 석곽묘 96기, 옹관묘 19기, 토광묘 7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어 후대 경작과 자연 유실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한 유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토광묘의 경우는 잔존깊이가 얕아 내부토는 대부분 표토화 된 상태였다.

분절고분군의 중심묘제는 전체 96기가 확인된 석곽묘라 할 수 있다. 석곽묘는 평면형태에서부터 내부시설까지 다양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석곽묘 축조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간취된다. 첫 번째는 지형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곽묘는 구릉 완사면에 군집하여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고선을 따라 능선부를 감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 축조가 용이하게 장축방향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두고 조성되어 있다. 이런 축조의 효율성이 강조된 부분은 벽석의 축조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40·86호 석곽묘는 묘광 굴착 시에 노출된 자연 암반을 그대로 벽석으로 이용하였고, 24·31·44-1호 석곽묘는 선대에 축조된 무덤의 개석과 벽석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석곽묘 축조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석곽묘의 분포 상

유적 전경

25호 석곽묘 및 주변고분

출토유물

에서 드러난다. 석곽묘의 분포가 Ⅰ·Ⅱ구역의 경계부분을 중심으로 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Ⅰ·Ⅱ구역의 경계부분은 평지에 가까운 완사면이 형성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선호되는 지점이긴 하나, 완사면으로 이어지는 급경사면에도 석곽묘가 다수 축조되어 있어 지형적인 이점만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유적은 주능선을 기준으로 북동사면과 남동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동사면은 본 유적과 이어지는 구릉과 마주하고 있다. 반면 북동사면은 앞쪽으로 높은 산이나 구릉이 없어 멀리 조만강과 서낙동강까지 조망된다.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북동쪽 사면에 석곽묘가 집중분포하는 것은 당시에 무덤 입지 조건 사항에서 조망권이 중요시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분절고분군에서는 옹관묘도 19기 조사되었다. 옹관묘는 석곽묘의 배묘 또는 단독으로 조영되어 있다. 단옹식과 합구식이 공존하고 있는데, 합구식의 경우 2개의 연질옹의 구연을 마주보게 하여 토광 혹은 석곽 내에 안치하고 있다. 옹관묘는 모두 소형이고, 유아 또는 소아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옹관묘의 시기는 석곽묘의 시기와 비슷하다.

분절고분군의 주 묘제인 석곽묘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소형의 고배·중대형의 호 등 토기류와 도자·철부·철정·철촉·철모·대도 등 철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석곽의 양쪽 단벽 가까이에 부장되어 있다. 고분군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석곽에서 출토된 유물은 외절구연고배·광구소호·소형기대·유개대부직구호 등 소위 금관가야양식의 토기이다. 늦은 시기의 유물로는 김해지역의 특징적인 유물인 유개단각고배와 대부장경호, 대가야계통의 유개고배와 대부파수부완 등이 있다. 유물상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단일 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 11점의 하지키계열의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이 내만구연호이며, 일부는 단면 원형의 띠로 이루어진 파수가 달려 있다.

석곽묘의 구조와 형식, 출토된 유물의 특징으로 볼 때, 미음동고분군은 5~6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뿐만 아니라 신라계·소가야계·비화가야계 토기 등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출토된 것이 분절고분군의 특징이다. 특히나 주변의 구랑동고분군, 가달고분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하지키계열의 토기가 다수 확인된 것은 주변 집단과 달리 분절고분군 집단이 5~6세기에도 왜와의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로 보아 미음동 분절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낙동강 하류의 지정학적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에 종사한 집단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1, 『부산 미음동 1180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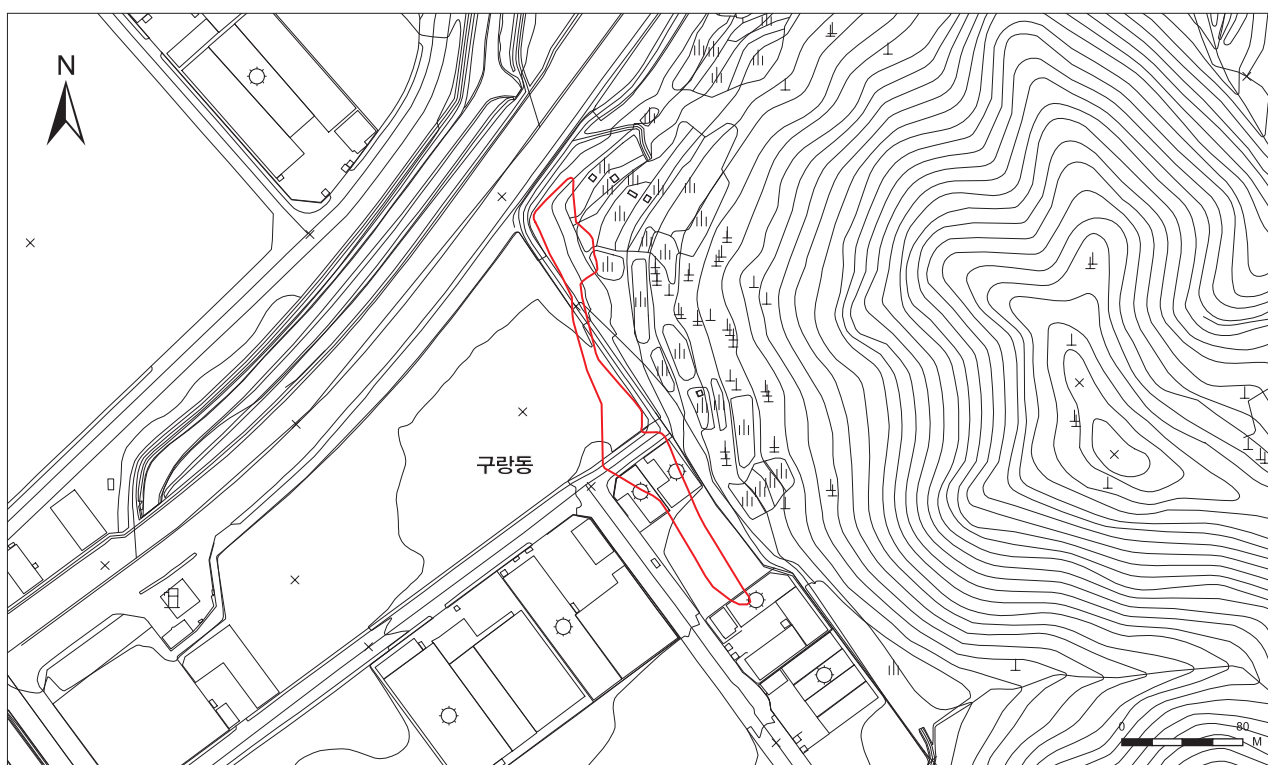
# 13 구랑동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산149-5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복천박물관 /
2009.5.~2009.12.
부산박물관 /
2010.11.~2011.3.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석곽묘 / 유개
고배, 금동제이식

부산 구랑동고분군은 강서구 구랑동 산149-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 동쪽 경계의 미음 지구에 속하는 곳으로, 동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생곡동 가달고분군이,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는 지사동고분군과 분절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의 평야지대에는 신석기시대 범방패총·범방유적, 청동기시대의 분절지석묘군, 삼국시대의 분절패총 등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넓은 시기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를 통해 과거 이 일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랑동고분군은 2006년 동아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구랑동고분군'으로 명명되었다. 2009년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조성을 위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시굴조사는 경남문화재연구원과 복천박물관이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토광묘 4기 등 삼국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후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굴착되는 구간

유적 위치도

에 한정하여 부산박물관이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 27기를 비롯하여 토광묘 1기, 조선시대 수혈 1기, 배수구 1기가 확인되었다.

구랑동고분군에서 확인된 삼국시대의 주 묘제는 석곽묘이다. 석곽묘의 바닥면은 적갈색실트질의 생토면과 풍화암반층까지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벽체는 대체적으로 잔존양상이 불량하여 1~2단 가량 남거나 완전 결실된 경우가 많으나, 양호한 것은 5~7단까지 잔존한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을 기본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석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석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세장방형을 띠는 경우가 많다. 확인된 석곽의 길이는 약 2~4m 정도인데, 매납된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매납된 수량도 많지 않다. 그러나 1호묘와 같이 다른 유구에 비해 규모도 크고 축조 기술이 정교하며 우월한 유물 부장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집단 내 계층성과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석곽묘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석곽을 구성하는 벽체의 축조 방식이 다양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벽체 구성에는 할석과 괴석을 사용하였는데, 중소형묘의 경우 벽석의 형태나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벽석 간 축조 양상도 치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엉성한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석곽의 경우에는 벽석 간 축조 양상이 비교적 치밀하여 잔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유물의 매납은 양 단벽, 가장자리, 석곽의 중앙 등 여러 곳에 매납되어 있다. 다수의 경우가 양 단벽에 매납하고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이 토기류이며, 철기류는 소량이 확인된다.

유적 전경

구랑동고분군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개고배·대부장경호·장경호·단경호 등 토기류, 철부·철모·대도·철촉·도자·꺾쇠 등의 철기류, 금동제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를 통해 구랑동고분군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의 양상으로 보아 총 3단계에 걸쳐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 1단계는 1·20호묘에서 출토된 이단직렬투창고배가 확인되는 시기로 5세기 3/4분기에 비정할 수 있다. 이 이단직렬투창고배는 부산 생곡동 가달고분군 5호묘, 김해 능동 10호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 지역의 전통이 강한 형식이다. 2단계는 이단직렬투창고배가 소멸하고 고성·창녕·함안·경주 등지의 지역적 색체가 강한 토기가 출현하는 시기이다. 재지계 유물의 매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단계로 5세기 4/4분기~6세기 1/4분기에 비정할 수 있다. 3단계는 외래계 토기의 매납이 중지되고, 이를 대체한 단각고배가 주로 매납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특정 정치체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공통적 토기 양식이 성립하는 시기로 6세기 2/4분기에 비정할 수 있다.

구랑동고분군은 이 지역 집단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소형 고분군으로, 지금까지의 조사로 확인된 구역은 고분군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면부에 해당한다. 고분군의 중심인 주능선에서는 4세기대의 유물도 확인되어, 정식 조사된 것보다 이른 시기의 무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정식조사에서 출토된 토기로 보아 오랜 기간 동안 고분군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각 단계별 토기의 양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단계에 창녕·고성·함안 등지의 지역색이 강한 토기들이 다종다양하게 확인되는 양상은 인근 지역과의 교류관계 및 교차편년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큰 의의가 있다. 종합하여보면, 구랑동고분군은 인근의 생곡동가달고분군, 지사동고분군, 미음동분절고분군 등 서낙동강 지역의 여타 고분군들과 비슷한 성격의 고분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복천박물관, 20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미음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약보고』.

부산박물관, 2013, 『구랑동고분군』.

27호묘

27호묘 출토유물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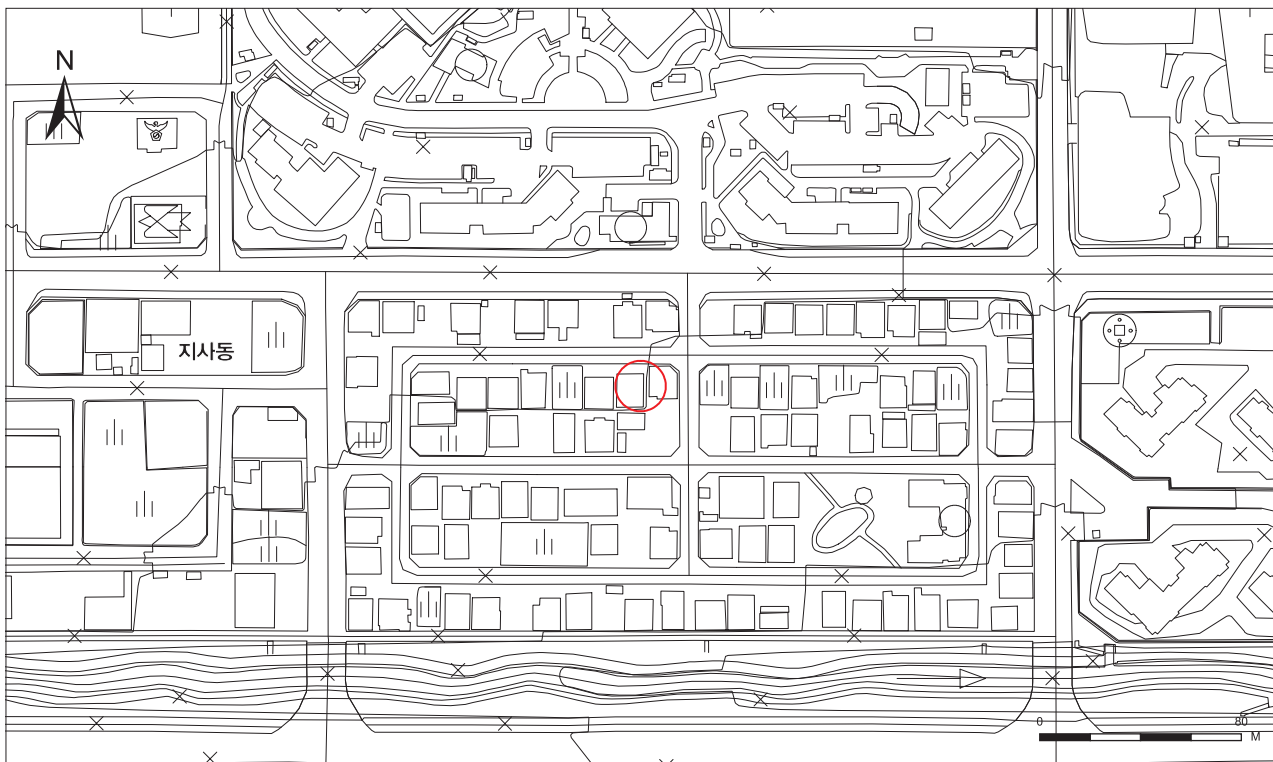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82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시굴 2002.8.~2003.2.
발굴 2004.6.~2005.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 부산 지사동유적 _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부산 지사동고분군은 강서구 지사동 지사마을 입구의 낮은 구릉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1997년 부산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부산 지사 과학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이다.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지사 과학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0여 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으며, 유적의 성격은 4세기의 목곽묘를 비롯하여 5~6세기의 석곽묘와 석실묘, 옹관묘 등으로 밝혀졌다.

고분군은 D지구에 분포하고 있다. D지구는 고분군 이외에도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곳은 원래 지사마을 중심부에 해당하는 소규모 구릉지역이며, 이 주변으로 지사교회와 민가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구릉 지역에는 민묘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택지로 개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민묘 주변으로는 잡목이 무성한 상태였다. 고분은 구릉 사면의 서쪽지역으로만 확인

유적 위치도

되고 있다.

고분의 장축방향은 전체적으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동-서향을 이루고 있지만, 그 중 30호와 80호만이 남-북향을 이루고 있다. 구조는 토광목곽묘와 목관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횡구식석실묘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이른 단계로 편년되는 목곽묘는 모두 50기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단곽식과 주·부곽식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주·부곽식인 경우에는 하나의 토광 내에 단을 이루면서 주곽과 부곽을 갖춘 동혈주·부곽식과 별도의 부곽으로 이루어진 이혈주·부곽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목곽묘 내부의 출토유물은 회청색 연·경질의 노형토기를 비롯하여 외절구연고배류와 단경호, 소형기대와 광구소호, 그리고 각종 옥제품과 유리구슬류 등이 있다. 시기적으로 4세기경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석곽묘는 100여 기 이상 확인되어 수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번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축방향을 동-서향으로 배치한 장방형을 이루지만, 한쪽 부분의 모서리각을 죽여 상원하방형 구조나 상원하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도 있다. 석곽 내부에는 장방형목관을 사용한 것과 할죽형목관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식과 같은 유물 배치를 고려할 때 두향은 동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 늦

D지구 154호 목곽묘

D지구 48호 석곽묘

D지구 목곽묘 유물 노출모습

D지구 57호 석곽묘 유물 노출모습

은 단계에 이르면 일부에서는 호석렬이 확인되기도 한다.

출토유물은 유개고배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장경호와 단경호, 적갈색 연질토기류 등이 있는데, 장경호의 경우 대각을 의도적으로 부수어 넣은 것들이 많다. 또한 고분 주변에서 제사유물로 추정되는 토기 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 당시 장례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출토유물에서는 대가야 계통에 속하는 고령계 토기와 창녕계 토기, 함안계 토기, 신라계 토기 등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변화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횡구식석식묘의 경우는 모두 4기가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파괴가 심한 편이다. 대부분 호석의 흔적이 확인되며, 횡구부는 잔존하지 않지만 내부에 할석을 깔아 시상대를 만들고, 추가장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모두 신라계 일색이어서 이 지역이 이 단계에 이르러 완전히 신라문화권에 복속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토광목관묘의 경우는 86호분이 유일하며, 출토유물은 주변의 수혈식석곽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옹관묘의 경우는 10여기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수혈식석곽묘 주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노형토기를 합구한 것과 회백색연질단경호를 합구한 것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곽묘와 같이 이른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3차) 약보고」.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낙동강·남해안의 문화유적』.

목곽묘 출토 장신구류

목곽묘 출토 철기류

목곽묘 출토 토기류

석곽묘 출토 토기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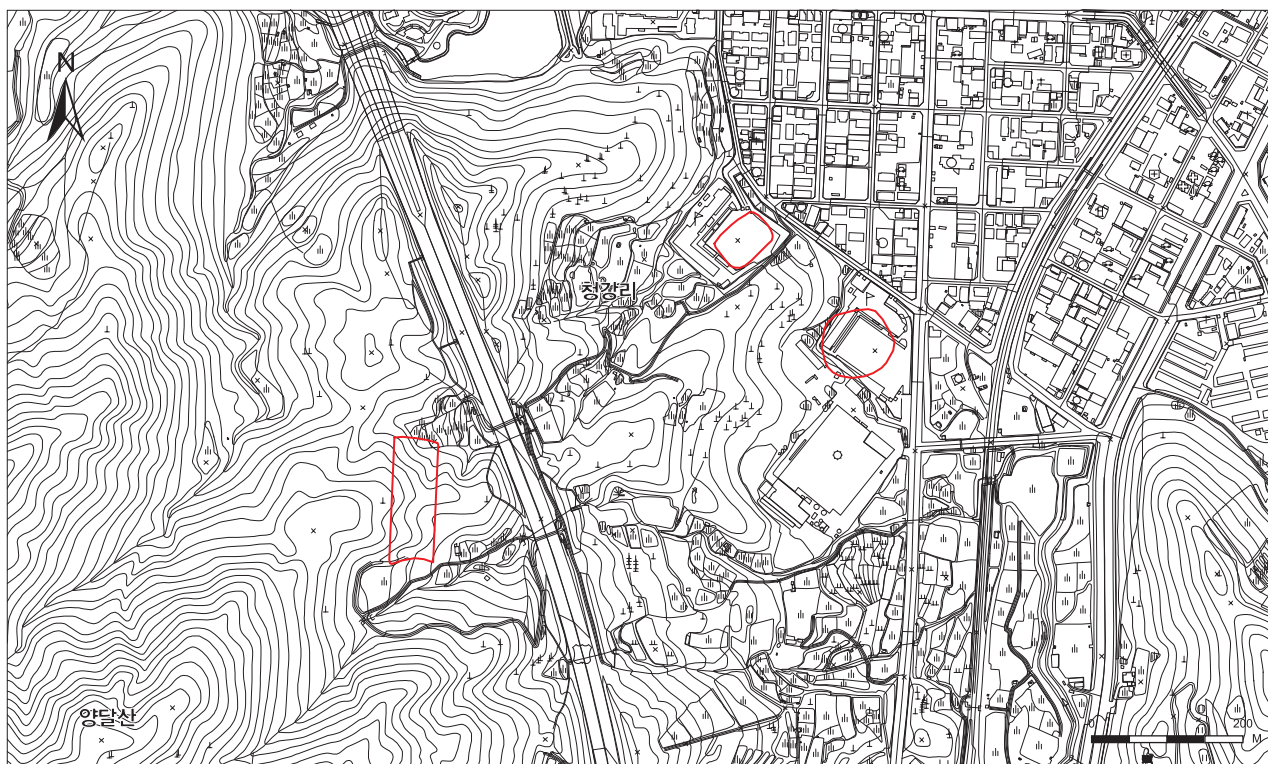
# 기장 청강리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43·693·대라리 산
1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1997.7.~1997.11.
복천박물관 /
2001.9.~2002.3.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6.3.~2008.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횡구
식석실묘 / 통형기대,
새모양토기, 대도,
철부, 유자이기

부산 청강리고분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43·693번지, 대라리 산15-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기장읍 중심지의 남쪽에 있는 청강리와 대라리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산의 동북쪽에 있는 해발 282m의 양달산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구릉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북서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반면, 남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1980년대 초 국립경주박물관에 원저장경호 등 토기 4점과 주조철부 2점, 단조철부 2점이 신고되어 처음 고분군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후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일부 봉분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도 있었으나, 수백 기의 소형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의 경우 1997년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를 시작으로 총 3번의 정식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발굴조사는 해운대교육청이 청강리고분군 주변으로 초등학교를 신축하려는 계획에 따라 부산박물관으

유적 위치도

로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해당구역은 대라리 229-1, 산14-1번지, 청강리 714-1, 산36-23번지 일대로 청강리고분군의 북쪽 끝자락에 해당된다. 조사 전 소나무와 잡목이 자라고 있어 낙엽 등에 의해 지표상황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 곳곳에 도굴의 흔적도 남아 있었으며, 지표에는 석곽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돌들이 흩어져 있었다. 조사된 유구 중 삼국시대의 분묘는 19기였으며, 수혈식석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2차 발굴조사는 2001년, 청강리 693번지 일대에 해운대교육청이 대청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복천박물관으로 학술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는 봉분이 남아있는 예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횡구식석실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3차 발굴조사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예정구간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경남문화재연구원으로 의뢰하였으며, 2005년부터 정식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은 대라리 산15-1번지 일대로, 총 연장 500m 정도의 좁고 긴 형태였다. 조사지역 내에는 구릉 4개소, 곡부 3개소가 형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릉에는 성격이 다른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Ⅰ지구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3차례의 정식 조사결과 청강리고분군은 4세기대 목곽묘에서부터 7세기대 석실묘까지 오랜 기간 유적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달산(해발 282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중턱에는 4세기대 목곽묘, 구릉 말단부 북동쪽 끝자락에는 5세기 후반

유적 원경

~6세기대의 석곽묘, 구릉 말단부 동쪽 끝자락에는 7세기대의 석실묘가 입지를 달리하여 조성되었다.

구릉 중턱에 조성된 목곽묘(경남문화재연구원 2005)는 대부분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일부 등고선과 직교하여 축조된 것도 있으나, 이들은 구릉 상부 평탄면에 조성된 것들로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방향이다. 부장갱 및 부장칸을 조성한 것들이 있으며, 대형의 목곽묘는 부곽을 채용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고배·단경호·통형기대·광구소호 등의 토도류, 갑주·유자이기·철모·철촉·단조철부 등의 철기류, 유리옥 등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구릉 말단부 북동쪽에 조성된 석곽묘(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7)는 대부분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며, 한쪽 단벽 가까이 유물 부장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닥시설로 시상은 비교적 큰 할석을 관대로 깐 것, 작은 할석을 깐 것,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도굴이 심하여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나, 고배·단경호·장경호·대부파수부소호·파수부완·통형기대·연질옹 등의 토도류, 대도·철모·철촉·단조철부·유자이기 등의 철기류, 세환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구릉 말단부 동쪽에 조성된 석실묘(복천박물관 2001)는 대부분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대체로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장

유적 전경

방형 및 세장방형도 있다. 세장방형은 주 묘제인 석실묘와 나란히 또는 주위에 조성된 배묘의 평면형태이며, 이러한 형태의 유구는 바닥전체에 시상석이 깔려 있다. 장방형은 주로 소형묘에 많이 나타난다. 비교적 지형이 높고 상대적으로 완만한 지역에 배치되어 거의 지상에서 측벽을 축조하여 남아 있는 측벽이 1~2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것은 상대적으로 대형의 분묘로, 다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사면을 'L'자상의 반지하식으로 정지하여 축조하였으며 측벽이 5~7단 정도로 비교적 잘 남아있는 유구가 많다. 출토유물은 부가구연장경호·단각고배·단경호·유개합·방추차 등의 토도류, 철촉·철겸·도자 등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부산 기장 청강리고분군이 소재한 기장은 삼국시대 갑화량곡현으로 불렸고, 신라 경덕왕대 이래로 동래 소속의 기장현으로 편제된 후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기장이 경덕왕 때 동래군 영현이 된 것으로 볼 때, 기장지역은 동래지역과 일정한 정치적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청강리고분군은 삼국시대 이래, 기장의 역사적 성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청강리고분군은 4~7세기대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구릉 정상부로는 3세기대의 목곽묘의 존재도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된 3차 조사에서는 고분군뿐만 아니라, 주거·제사공간도 확인되었다. 이로써 청강리고분군이 위치한 일대는 양달산에서 뻗어 나온 4개의 구릉을 대상으로 분묘 공간과 주거·제사공간이 존재하였고, 분묘와 일상 공간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량의 주거지와 주혈·고상건물지·저장시설·대형 건물지와 같이 주거와 관련된 시설, 목책렬 등의 제사와 관련된 시설이 분묘와 함께 확인된 점은 청강고분군 집단의 성격은 물론 삼국시대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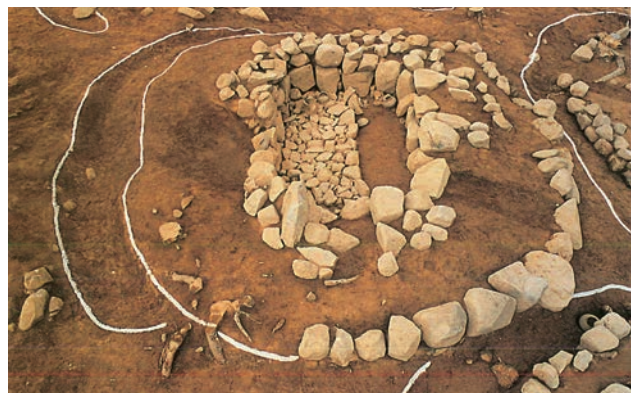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기장 청강·대라리유적(1지구)』.

복천박물관, 2008, 『고고학으로 본 부산의 역사』.

복천박물관, 2009, 『기장 청강리유적』.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8, 『기장청강리고분군』.


17호 목곽묘

14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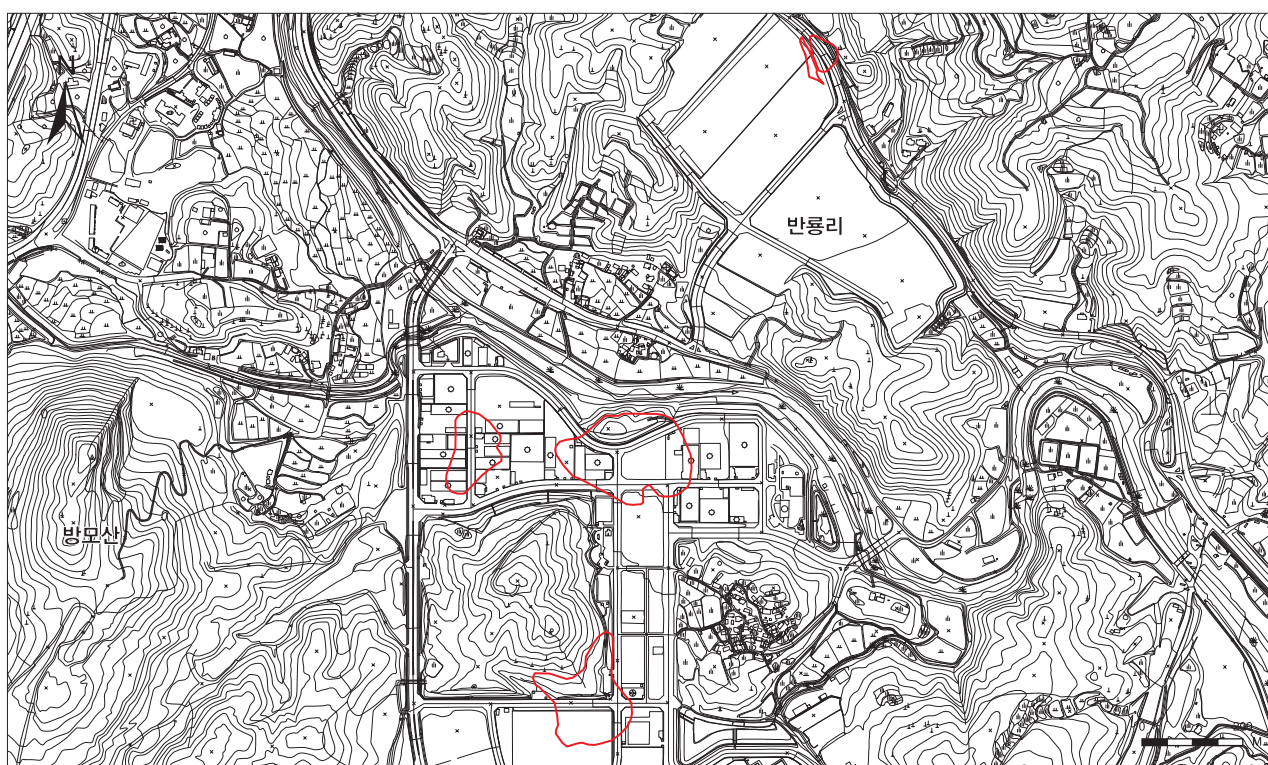
# 16

# 기장 반룡리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612·223-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7.3.~2007.6.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8.11.~2009.2.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4.6.~2014.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장경호, 대도, 철촉

부산 기장 반룡리유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612·223-1·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반룡리유적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나 당시의 지표조사는 기장군 전체에 걸쳐 실시되어 유적의 존재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가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 편, 자기 편, 기와 편 등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반룡리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 발굴조사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반룡리 612번지 일대로, 이곳은 중앙의 곡부를 중심으로 동-서쪽에 해발 27~37m 상에 위치한 저평한 구릉이다. 조사 결과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분묘로는 석곽묘, 석실묘, 옹관묘 등 20기가 조사되었다. 2차 발굴조사

유적 위치도

는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반룡리 223-3번지 일대로 이곳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해발 55m 정도의 산지성 구릉이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근대에 해당하는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분묘로는 석곽묘 21기, 목곽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는 한겨레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반룡리 223-1번지 일대로 이곳은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하였던 2차 조사구역과 같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가 2기 확인되었다.

1차 조사 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축조는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지상 구릉 정상부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중 석곽묘는 비교적 구릉 정상부의 동편에, 석실묘는 그 서편에 집중되어 서로 경계를 이루며 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6호 석실묘가 6호 석곽묘의 굴광을 훼손하며 중복되어 있어 후축된 양상이 명확한데, 이는 석곽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3차 조사 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축조는 조사지역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석곽묘 3기를 중심으로 동·남·서쪽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지상 구릉의 정상부와 7부 능선인 해발 51~55m사이의 중앙과 남

유적 전경

3·4호 석곽묘

출토유물

쪽에서 집중분포하고 있다. 석곽묘는 구릉 중심의 7·8·9호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단독의 석곽묘가, 남쪽으로는 '明'자형 석곽묘와 주·부곽식석곽묘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차례의 정식조사 결과 유물은 고배·장경호·대호 등의 토도류, 대도·철촉·도자·철부·세환이식 등의 금속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확인된 삼국시대 분묘들은 비교적 부장유물이 후대의 도굴·유실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로 양호하게 출토되어 유물의 공반관계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석곽묘와 석실묘의 경우 유물 부장양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파악되는 것이 특징이다. 석곽묘의 출토 유물은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순으로 부장양이 많다. 유개고배는 가장 늦은 단계로 편년되는 4호에서만 출토되었다. 석실묘의 출토유물은 유개고배, 고배, 대부장경호, 연질소옹의 순으로 부장양이 많다. 석실묘의 경우 가장 이른 단계인 1호에서부터 유개고배가 부장되고 있으며, 석곽묘와 달리 연질소옹의 부장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석곽묘 축조집단과 석실묘 축조집단간의 부장유물 선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석곽묘에서 석실묘로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종 선택과 각 기종별 조합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반룡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그 계통이 신라양식과 지역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신라양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된 토기들은 5세기 중반에서부터 6세기대로 편년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장 반룡리유적은 기장군에서 조사된 몇 되지 않는 삼국시대 분묘유적이다. 이전에 조사된 청강리고분군, 대라리유적, 교리유적 등이 대부분 기장읍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반룡리유적은 주변지역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혈식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가 공존하고 있어 기장지역에서의 석곽묘와 석실묘의 교체시기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알려져 있듯이 경주 외곽지역에서는 신라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6세기 전반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횡구식석실묘가 채용되기 시작한다. 동일한 시기가 되어 반룡리유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데, 석곽묘에서 석실묘로 전환됨과 동시에 출토유물 수량의 증가, 기종의 다양화, 제의행위 실시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석곽묘와 석실묘 축조집단의 신분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기장 반룡리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기장 반룡리유적Ⅱ』.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6, 『기장 반룡리 유적』.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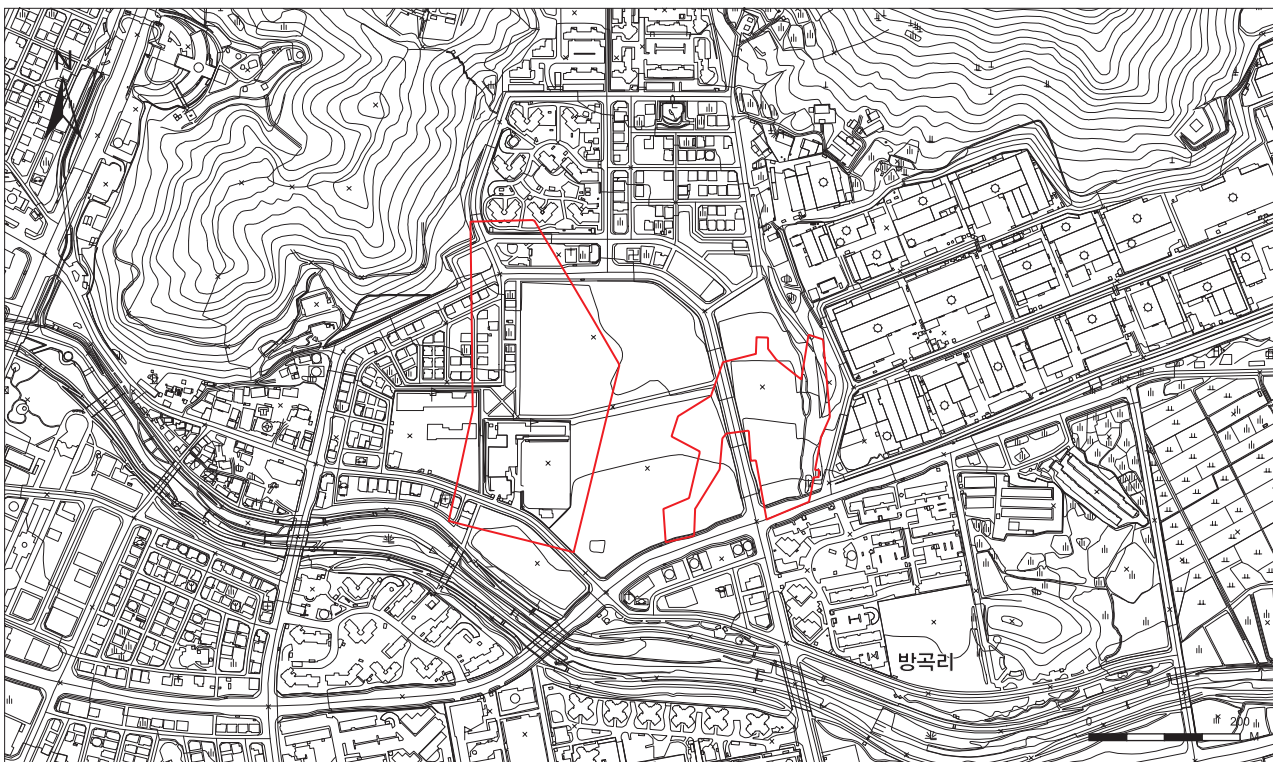
# 기장 방곡리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80-2·1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울산대학교박물관 / 시굴 2002.5. 발굴 2003.5.~2005.9.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주머니호, 검파두식

부산 기장 방곡리유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80-2, 11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부산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산 정관 신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표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 복천박물관이 실시한 지표 조사에서 416만 5,289㎡(126만 평) 사업부지 내에 모두 6개소의 시굴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2002년 5월 울산대학교박물관이 시굴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방곡리 유적을 최종 발굴 대상으로 확정짓고,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식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가야시대의 유구로 한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가지구에서 삼한시대 목관묘 11기, 토광묘 6기, 옹관묘 10기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입지를 살펴보면 목관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호 목관묘와 13호 목관묘가 길이 방향으로 2m 정도 거리를 두고 비교적 근접

유적 위치도

할 뿐 다른 유구들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유구 조성시, 육안상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식을 두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토광묘와 옹관묘는 목관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광묘는 1·6호가 나란히 배치되어있고, 2·3·4호도 지근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옹관묘도 이들 토광묘와 함께 전체적으로 좁은 범위에 밀집해 있다. 목관묘의 조성과 달리 토광묘·옹관묘는 근접하여 밀집조성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토광묘·옹관묘와 달리 목관묘는 일정 범위의 묘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방곡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여타의 목관묘와 형태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규모면에서는 크게 두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한 부류는 깊이 50㎝ 미만의 얕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대부분의 목관묘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다른 부류는 깊이 1m 이상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1·13호 묘가 해당된다. 이들은 출토유물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인정된다. 전자의 경우 주로 두형토기와 같이 토기류가 소량 부장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단경호·주머니호·완 등의 토기류가 다량 부장되고 있다. 이

가지구 유구 배치도

는 피장자의 계급이 유구의 구조와 유물 부장 양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삼한시대에 해당하는 출토유물로는 주머니호·두형토기 등의 토도류가 18점, 판상철부·철모·철검·검파 등 금속류가 12점, 경식 등 장신구류가 1점, 그리고 지석이 1점 확인되었다. 주머니호·두형토기들로 보아 전형적인 삼한시대 전기의 유물 부장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출토유물은 빈약한 편이다. 그렇지만 1호 토광묘에서 확인된 청동제검파와 검파두식을 갖춘 철검 등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화된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기장 방곡리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부터 삼한·삼국·고려·조선시대까지 시간적으로 폭넓게 조성된 유적이다.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면 고려·조선시대의 민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동기시대의 대형주거지, 삼한시대의 목관묘 등의 존재는 정관을 비롯한 기장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런 면에서 방곡리유적은 정관, 나아가 기장을 포함하는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기장 방곡리유적』.

가-1호 목곽묘

가-13호 목곽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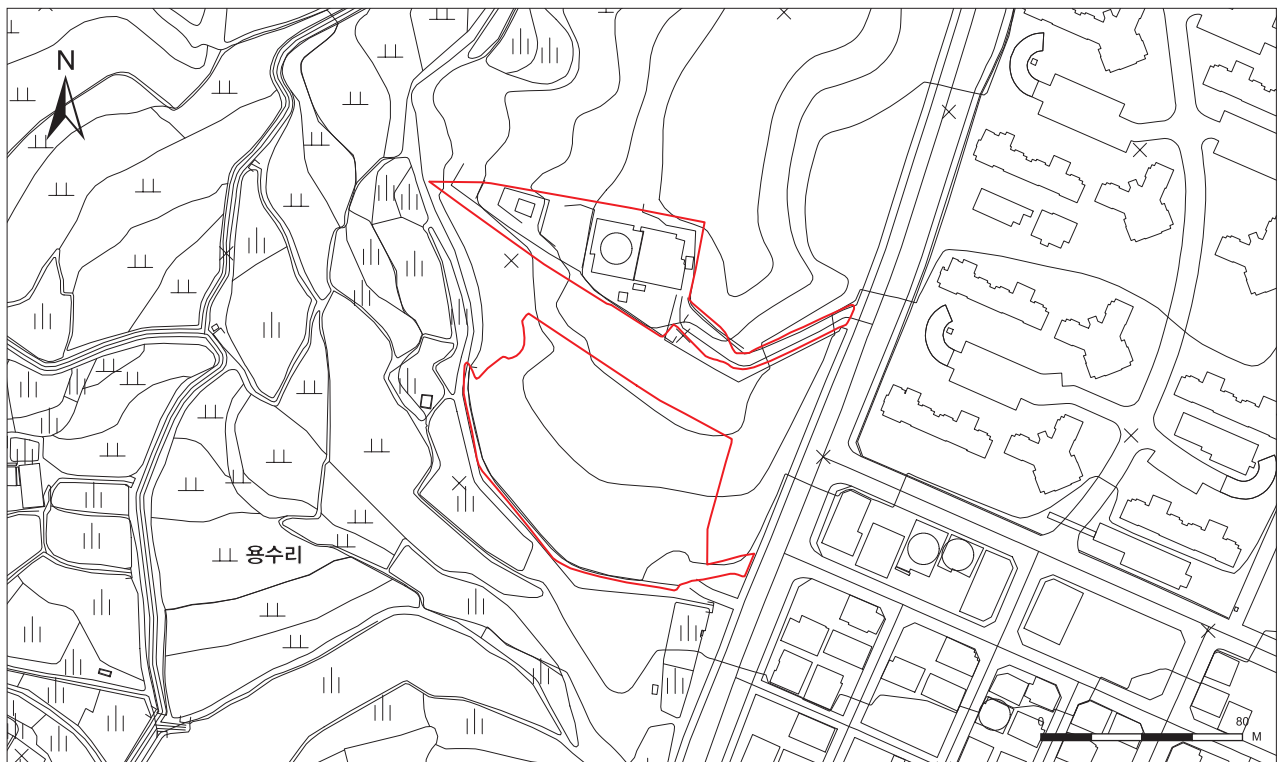
# 기장 가동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96·247-1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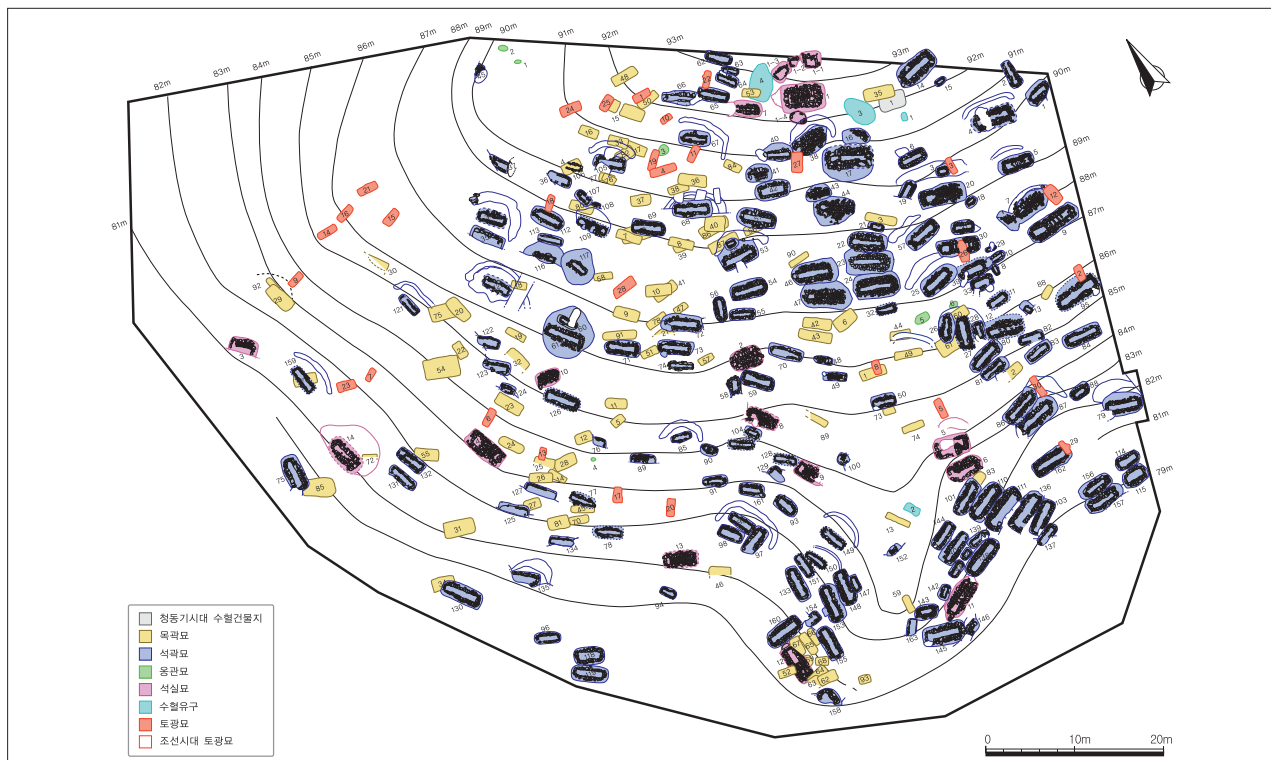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울산대학교박물관 /
2003.5.~2005.9.
부경문물연구원 /
2012.4.~2012.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
석실묘, 옹관묘 /
가형토기, 고배, 기대,
갑옷, 대도, 철촉,
이식, 다면옥

부산 기장 가동고분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96·247-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취락군과 함께 가동유적을 형성하고 있다. 가동유적은 가동마을을 둘러싼 낮은 산지와 그 중심으로 흐르는 골짜기로 구분된다. 삼국시대 취락은 고분군이 입지한 구릉의 동쪽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1.3m의 구릉 일대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입지하여 당시의 생활구역과 묘역이 구분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동고분군은 1995년 부산대학교박물관과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기장군 문화유적지표조사에서 용수리고분군으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유구의 도굴이 심해 무덤의 부재가 노출되어 있고, 유물이 지표에 깔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3차례의 정식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고분군의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1차 조사는 부산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 정관신도시 조성사업과정의 일환으로 울산대학교박물관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군으로는 5세기 후반 이후로

유적 위치도

편년되는 횡구식과 횡혈식의 석실묘가 확인되었다. 2차·3차 조사는 개인사업자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부경문물연구원으로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2차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군으로는 목곽묘·석곽묘·석실묘 등 수백 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 구간의 서쪽 잔여 구간에 해당하는 곳에 대한 조사로 석곽묘 1기·석실묘 2기가 확인되었다.

3차례의 정식조사 결과 삼국시대 가야의 분묘군이라 할 수 있는 유구는 2차 조사(부경문물연구원)에 해당하는 목곽묘·석곽묘·석실묘·옹관묘군이 있다. 유구 배치상태를 살펴보면, 목곽묘는 Ⅰ지구에서 Ⅱ지구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주 능선부를 따라 밀집 분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갑옷 부장묘(43호) 등을 비롯한 일부 유구는 남서쪽 능선부 주변에 수 기씩 군집화하여 분포하거나, 1기씩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목곽묘군은 축조양상에서 특징이 하나 간취되는데, 고분의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사각 혹은 직교하여 축조된 것이 다수 확인된다는 것이다. 전체 101기의 목곽묘 중 34기가 등고선과 사각으로 축조되었는데, 이것은 목곽묘 축조에 있어 지형적인 요건보다 매장주체부의 방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하여 고분축조의 용이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동-서향의 주축방향을 고려한 관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 된 것은 구릉 남사면 하단과 정상부의 경사가 매우 약한 곳에 조성되어 비교적 지형적 영향을 덜 받고 있다. 매장주체부의 방향도 남동-북서, 남-북향으로 일정하지 않아 등고선과 사각으

Ⅱ지구 유구 배치도

Ⅱ지구 42·43 목곽묘

가형토기

로 축조된 것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곽묘는 해발 95m 상부의 Ⅰ지구 능선 정선부에는 단 2기만 분포하고, 대체로 Ⅱ지구의 남서쪽 주능선에서 남쪽 능선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으로, 수 기씩 군집화 된 양상이 다수 확인된다. 석실묘는 Ⅰ지구 동사면(해발 95m 하부)에 비교적 밀집하여 분포하고, Ⅱ지구에서는 남서쪽 주능선에서 남쪽 능선에 걸쳐 1기씩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일부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으로 조성된 것들이 확인되지만,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 방향으로 구릉 사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옹관묘는 Ⅱ지구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석곽묘 주변에 배장묘 등으로 배치된 예가 많고, 일부는 단독묘로 조성된 것도 있다.

출토된 유물은 300여 기의 유구에서 가형토기·고배·기대·방추차 등의 토도류, 갑옷·대도·철촉 등의 금속류, 이식·다면옥 등의 장신구류 등 총 2,000여 점에 가까운 유물이 확인되었다. 목곽묘에서는 주로 3~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노형토기·와질단경호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곽묘에서는 고배·단경호·기대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철부·철촉·도자 재갈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특징 등으로 볼 때, 4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고분군의 축조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 용수리고분군이 위치한 정관읍은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고대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부산-울산을 이어주는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정관읍의 지형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상 지형으로, 분지 중앙에는 좁고 긴 곡간 충적지가 4~5㎞ 정도 이어져 있다. 때문에 가경지 확보에도 무리가 없을뿐더러 삼국시대 전반기까지 독자적인 정치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이다. 가동 용수리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는 가동유적은 삼한~삼국시대 취락과 함께 고분군 묘주들의 생활공간이었던 곳으로, 삼한~삼국시대 당시 이 지역의 생활 전반과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울산대학교박물관, 2008, 『기장 가동유적Ⅰ』.

부경문물연구원, 2014, 『기장 가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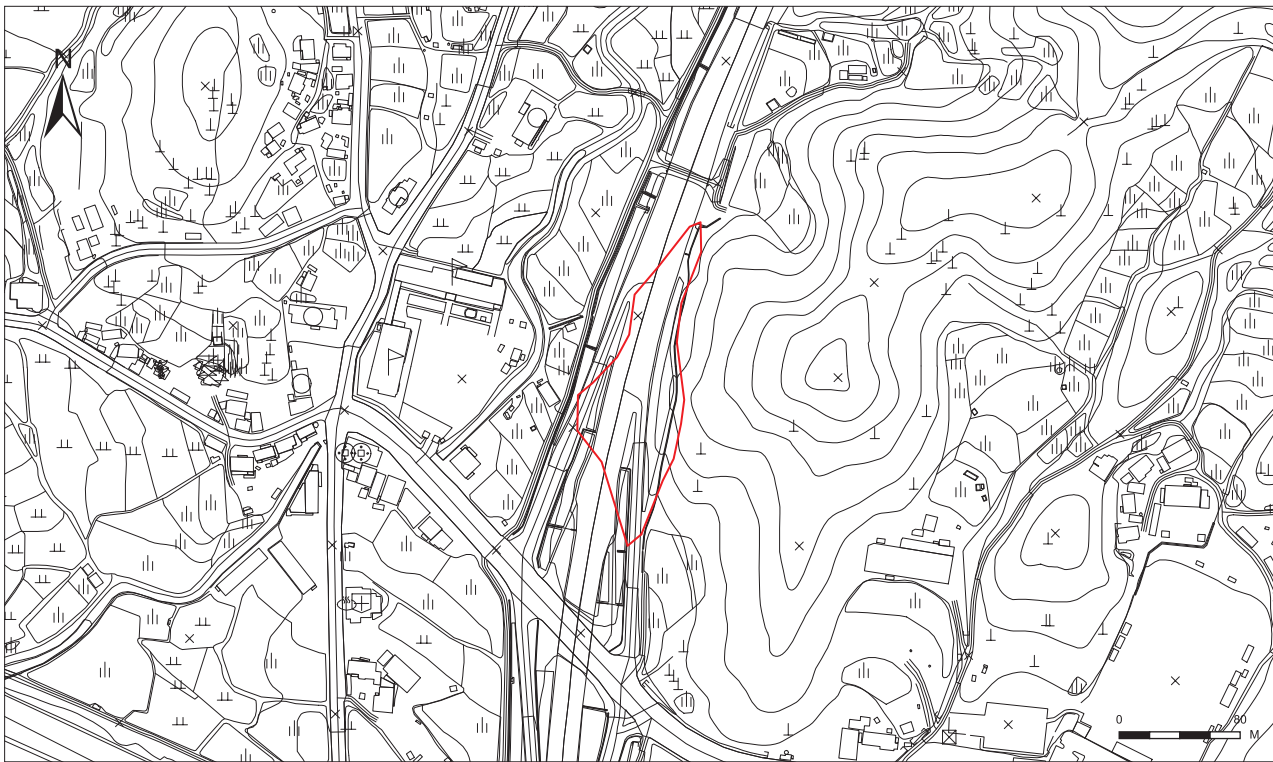
19

# 기장 연구리고분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11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7.12.~2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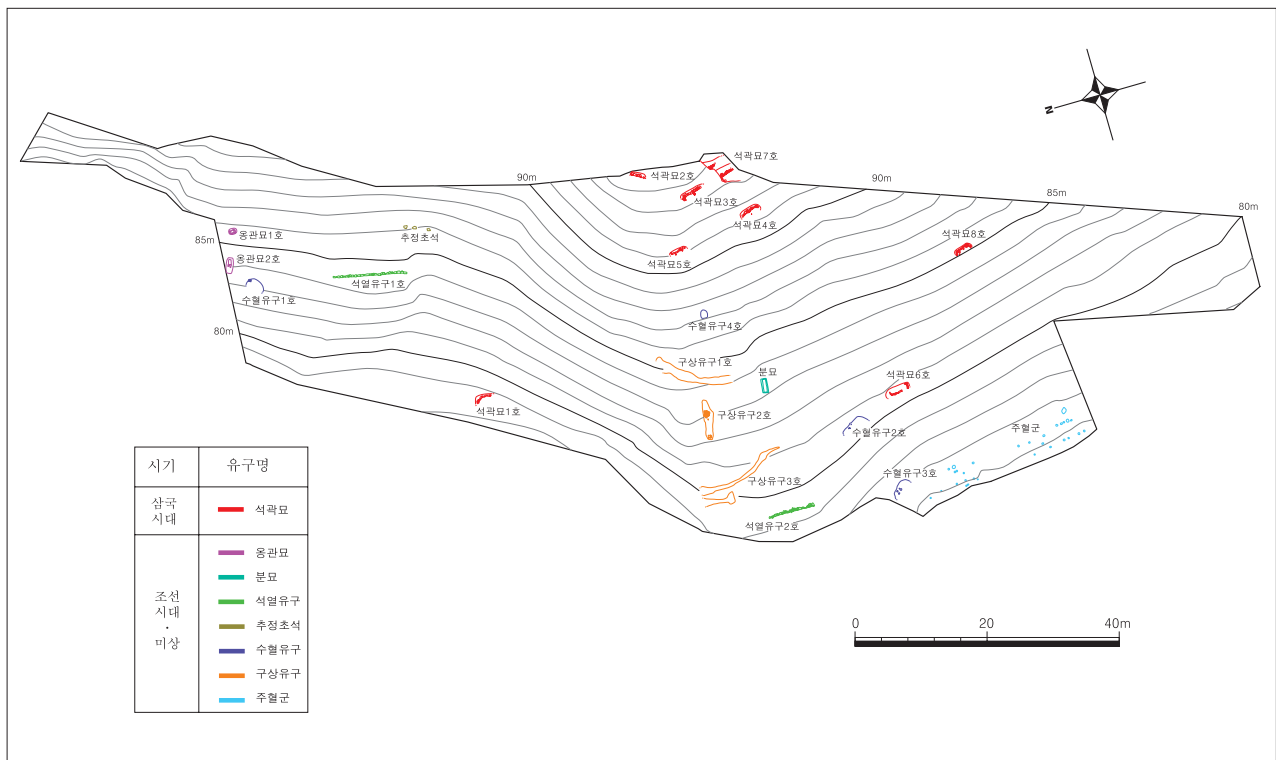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대부장경호, 고배

부산 기장 연구리고분군은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118-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기장군 철마면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기장읍 방향으로 약 400m 정도 지나, 길 좌측 남쪽으로 뻗어 내린 소구릉(해발 118.5m)에 입지하고 있다. 구릉 남쪽으로는 철마천이 흐르고, 남서쪽으로는 곡부 사이에 경작지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지역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구릉 사면이다. 이곳은 2004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경질토기 편과 조선시대 자기 편 등의 유물이 채집된 적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유적의 입지와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분묘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현대건설이 시행하는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일환으로 처음 정식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총 2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 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석곽묘 8기가 조사되었다.

유적 위치도

석곽묘는 해발 80~95m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사면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이다.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하는 북-남 방향이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계속된 경작과 최근에 조성된 민묘,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은 동장벽과 일부 단벽 1~3단 정도만 잔존하고 있었다. 석곽묘는 기반토인 황갈색점질토를 굴착한 뒤 벽석을 축조하였으며, 경사면의 위쪽인 장벽과 양 단벽 일부에서만 굴광선이 확인되는 반지하식의 구조이다. 크기는 3~4m 내외의 중소형급에 해당한다. 석곽묘 중 6·8호는 벽체의 잔존상태가 다른 석곽보다 양호하여 석곽의 축조수법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주로 횡평적하였으며, 축조방식의 통일보다는 높이를 맞추는데 중심을 두고 석곽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7호 석곽묘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소형 할석을 이용한 시상과 해발고도가 높은 상부에서 주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주구에서 대부장경호의 저부를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대호를 파쇄하여 매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제사와 같은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대체로 석곽의 중앙에서 동장벽과 인접하거나 양 단벽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회청색경질의 개·고배·대부장경호·단경호·대부완 등이고, 적갈색연질발도 확인된다. 철기류는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신라양식의 토기이다. 기형 및 태토에서 이전 토기양식의 재지적인 특징에 기반 하여 제작된 일부 고배·대부장경호가 이른 단계에 확인되지만, 점차 신라양식의 토기로 일변화한다. 출토유물로 보아 연구리고분군의 조성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판단되는데, 석

유구 배치도

곽묘는 큰 시간차이를 가지고 조성된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공간에서 중복됨이 없는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분군의 조성 기간이 고분 간의 위치가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 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연구리고분군은 가야식 묘제인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었지만, 부장품은 신라화가 진행되고 있어 부산 기장지역이 5세기 이후 점차 신라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기장 연구리고분군』.

유적 전경

8호 석곽묘

출토유물

# 20 부산 동래패총
## 釜山 東萊貝塚

| 사적 제192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및 수안동 일대에 해당하는 패총 및 생활·생산유적이다. 유적의 남서쪽으로 100m 앞쪽에는 금정산에서 발원된 온천천이 흐르고, 동쪽으로 4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거제천과 합류된다. 현재의 해안선은 유적으로부터 약 6㎞ 정도 떨어져 있다. 구릉지대의 1,365㎡만 사적 제192호 동래패총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주변유적의 최근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낮은 구릉지대의 서남쪽 경사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대규모의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낙민동유적, 낙민동패총, 동래패총 등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부산 동래패총'(2011.07.28. 고시)으로 정식명칭이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동해남부선 철도공사 중 4기의 옹관이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진 유적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삼한시대 문화상을 밝히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정화공사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동래패총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야철지 흔적이 확인되어, 패총이 형성되던 당시 철을 제작하던 곳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패총주변으로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여러차례 이루어졌는데, 낙민동 133-2번지 일대를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2002~2003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고, 복천박물관에서 2002년 조사한 수안동 40-1번지 주택건설부지의 발굴조사에서 동래패총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패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동래패총의 범위가 남쪽으로 100m가량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도에는 한국문물연구원에 의해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또한 2015년에는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동래패총 분포지역의 남쪽 중앙 구간에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조사를 통해 4세기대 혼토패총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이후로도 부경문물연구원에서 2016년에 낙민동 215-4번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패총에서는 다수의 토기류를 비롯해 골각기류, 동물유체, 패각류 등이 출토되었고 철 생산과 관련한 유구도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취락과 관련한 환호나 수혈주거지, 수혈 등의 유구들도 다수 확인되어 동래패총 문화의 종합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패총 주변으로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패총과 관련한 유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동래패총은 부산 복천동고분군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지배 지역집단이 남긴 중심 유적임을 알 수 있다. 패총의 존속 시기는 대략 3~4세기로 추정되는데, 부산지역의 흔치않은 삼한~삼국시대의 대단위 패총유적으로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동래 낙민동패총 | 국립중앙박물관 | 1차 1967.6.~1967.7.<br>2차 1968.3.~1968.4.<br>3차 1968.10.~1968.11.<br>4차 1970.6. | 동래 낙민동패총(1998) |
| 2 | 동래패총 | 부산박물관 | 1993.2.~1993.3. |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Ⅰ(1997)<br>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Ⅱ(1998) |
| 3 | 동래 수안동 다세대주택건설지 내 유적 | 복천박물관 | 2002.3. | 동래 수안동 다세대주책건설지 발굴조사보고서 –동래패총 주변지–(2008) |
| 4 | 동래 낙민동 패총–동래 낙민동 133–2번지 건설신축부지 내 유적 | 중앙문화재연구원 | 2002.11.~2003.1. | 동래 낙민동 133–2번지 건설신축부지내 동래 낙민동 패총(2004) |
| 5 | 동래 낙민동 303번지 유적<br>–부산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부지 내 유적 | 한국문물연구원 | 1차 2010.3.~2010.5.<br>2차 2011.4.~2011.8. | 부산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부지 내 동래 낙민동 303번지 유적(2013) |
| 6 | 부산 낙민동 100번지 내 유적 |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5.6.~2015.12. |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2018) |
| 7 | 부산 낙인동 215–4번지 유적<br>–부산 낙민동 세화약품 창고증축 부지 내 유적 | 부경문물연구원 | 2016.8. | 부산 낙민동 세화약품 창고증축 부지 내<br>-부산 낙민동 215–4번지 유적(2018) |

당시의 부산지역의 취락생활은 물론 철 생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왜계 토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집단은 원거리 대외 무역을 주도하면서 왜를 비롯한 진한·마한과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였고, 4세기쯤 금관가야의 중추 세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 20-1 동래 낙민동패총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00-1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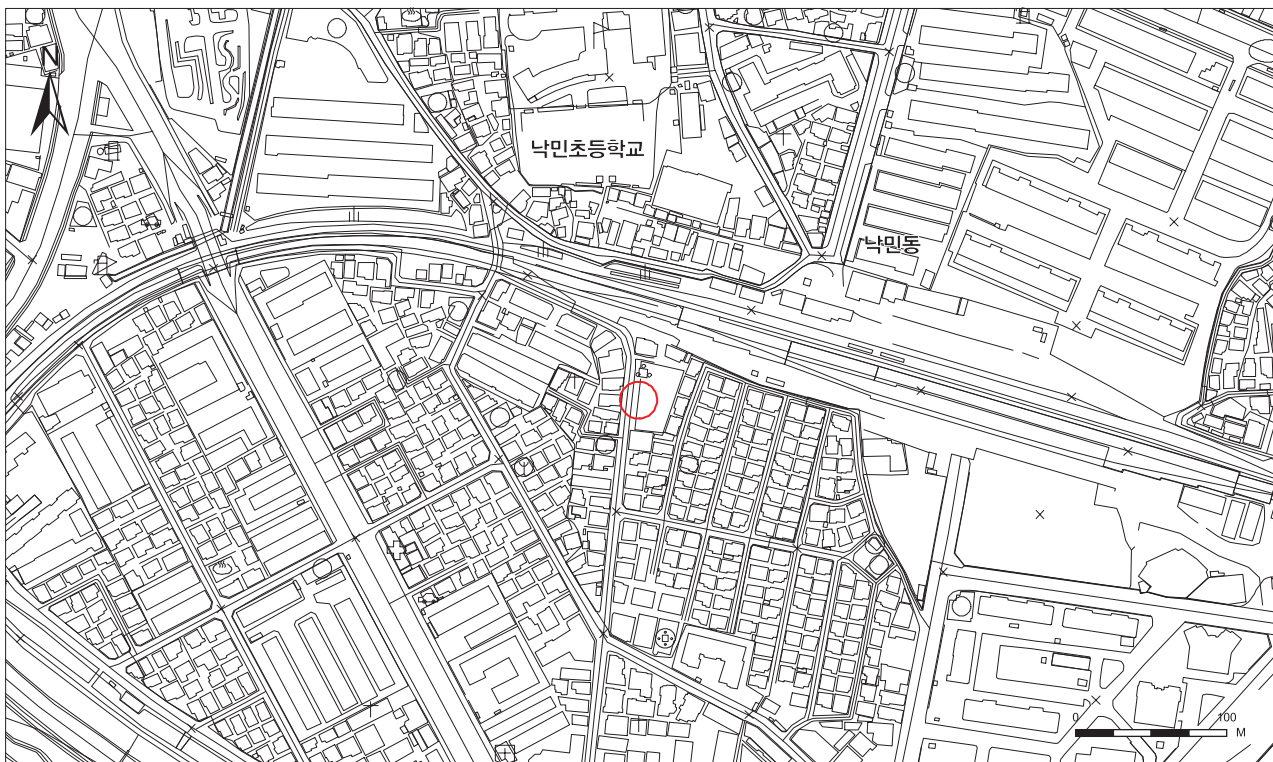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중앙박물관 /
1차 1967.6.~1967.7.
2차 1968.3.~1968.4.
3차 1968.10.~1968.11.
4차 1970.6.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철생산 관련)노지 / 노형토기, 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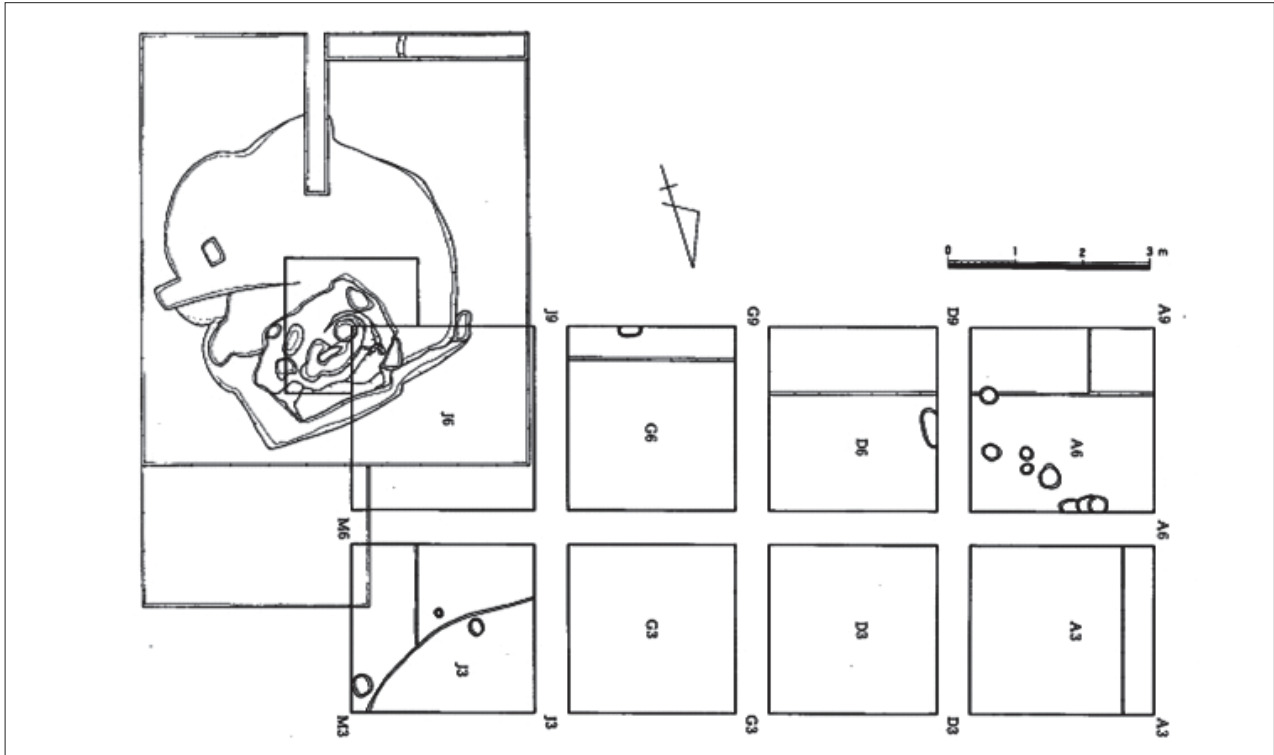
현재 사적 제192호로 지정된 동래패총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시에는 경상남도 임업시험장이었던 곳으로 현재 동쪽으로 약 120m 떨어져 동래역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온천천이 흐른다. 낙민동·수안동에 걸쳐 낮은 구릉지대의 서남경사면과 저지대 일부에 해당한다. 삼한시대 문화 구명과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4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4개의 층위로 나뉘는 패총과 함께 혼토패각층 내에서 다수의 동물유체와 골각기, 노형토기, 옹, 호 등의 다수의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패각층 아래에서는 일부 주혈들이 확인되어 어떠한 시설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며 패각층에서 송풍관 및 일부 철제품이 출토됨과 동시에 철생산과 관련한 노지도 확인되었다.

토층상에 나타나는 삼국시대 출토유물들로 살펴볼 때 중심연대는 3세기 후반으로 4세기 전반경까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범위는 한정적이지만 부산지역의 삼한시

유적 위치도

대 대단위 패총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 첫 조사로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 낙민동패총』.

1·3차 조사 평면도

출토유물

## 20-2

# 동래패총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00-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박물관 /
1993.2.~1993.3.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수혈유구 / 옹,
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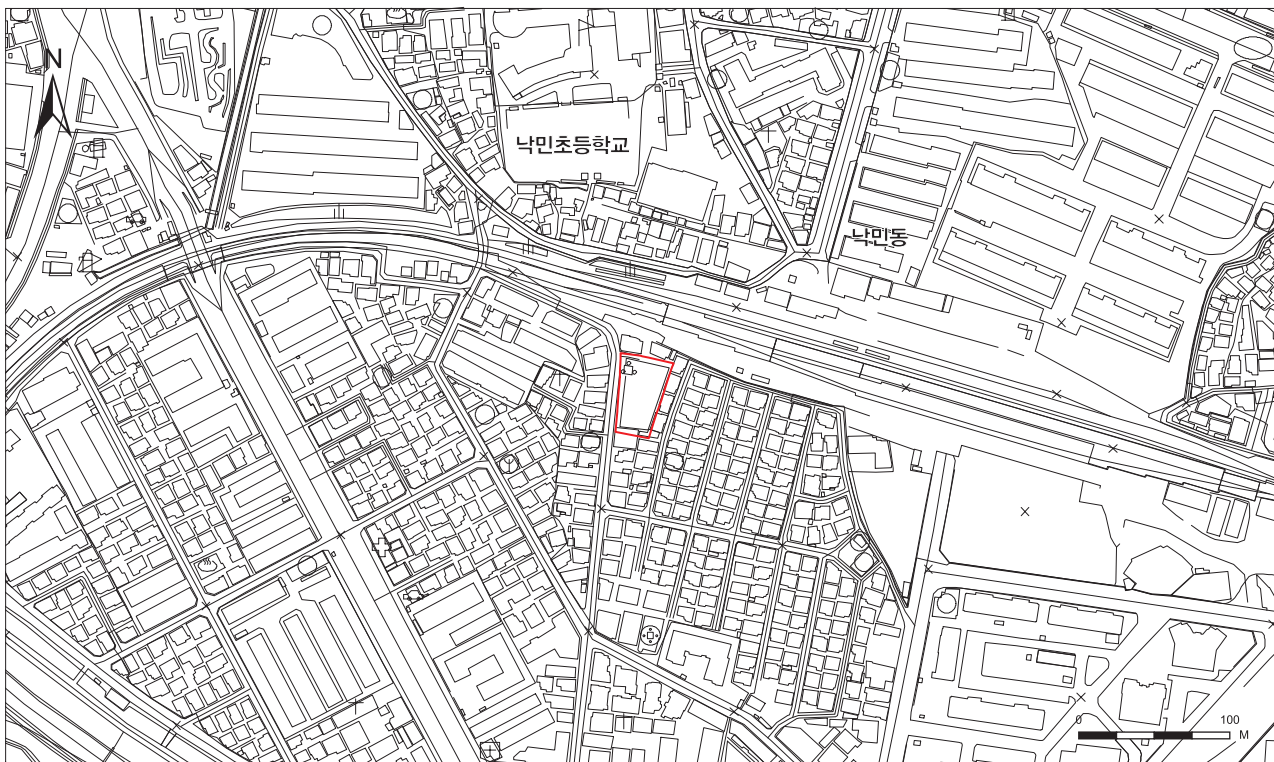
동래패총 사적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적지 정비를 위한 한식 담장 설치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담장이 들어설 구간 등에 4×4m의 피트 10개소를 설치하고 이중 상태가 양호한 A·F·J피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북쪽의 A피트에는 패각이 거의 혼입되지 않았으나 최하층에서 다량이 목탄과 함께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어 생활공간의 일부로 추정된다. 그 외 피트에서는 패각층과 순토층이 교대로 반복되어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두께가 얇아 퇴적의 시기 폭이 매우 짧았음을 보여준다. 패각층 등에서 옹, 시루 등의 다량의 토기와 골각기,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토층상에 나타나는 삼국시대 출토유물들로 살펴볼 때 중심연대는 3세기 후반 동래패총의 문화내용 구명에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 I -동래패총-』.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8,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 II』.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A피트 초본류

골각기류

출토유물

# 20-3 동래 수안동 다세대주택건설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0-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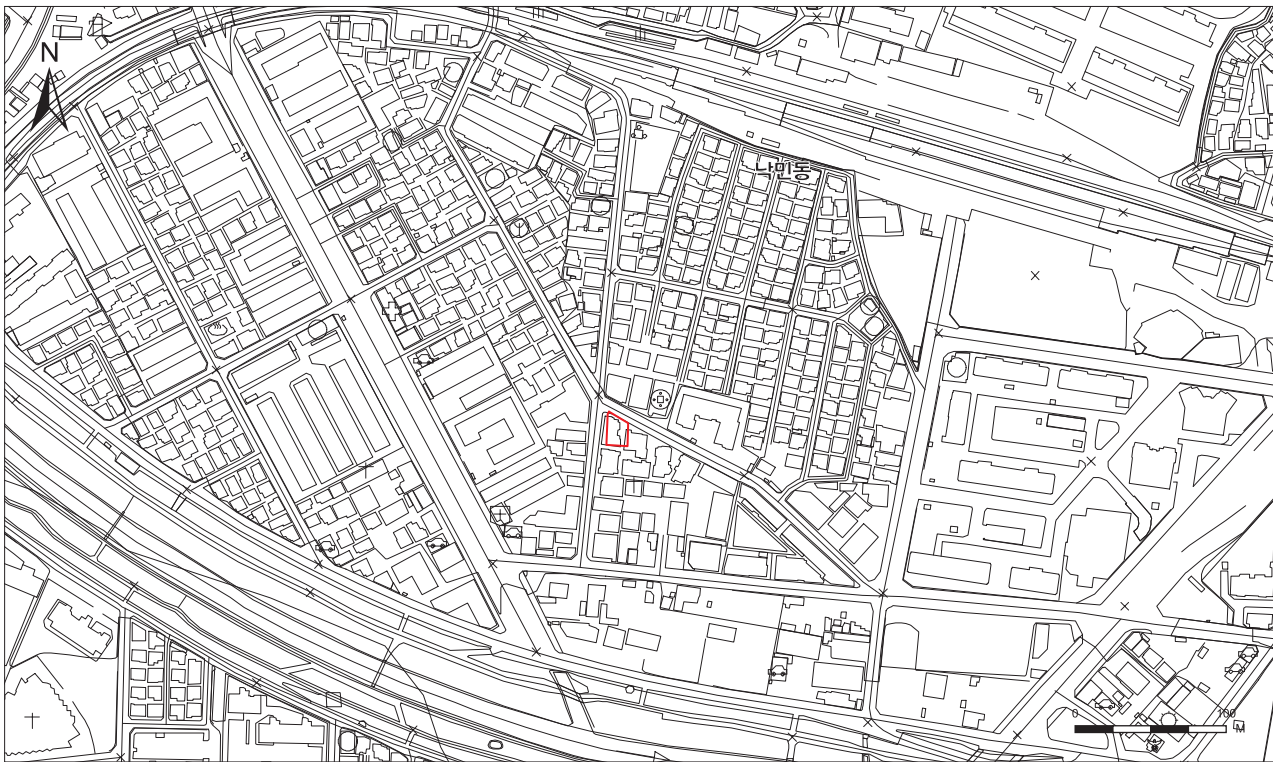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복천박물관 / 2002.3.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옹, 시루,
골각기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소규모(12㎡) 발굴조사로 북쪽으로 150m 정도 떨어져 동래패총 사적지가 위치하며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온천천이 흐른다. 동래패총이 낮은 저평한 구릉지 상에 입지한다면 본 유적은 구릉지의 끝자락부분에 위치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조사지역 내 피트 2개소를 설치하고 토층 및 피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트 내의 퇴적은 구지표면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이 120㎝ 정도이고 층위는 4개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부에서는 순수패각층은 아니지만 패각이 다수 혼입된 혼토패층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모든 층에 혼입되어 확인되는데, 옹, 시루, 호 등 다수의 토기 편과 함께 골침, 골촉, 도자병 등의 골각기류, 토제 방추차와 다수의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일본의 하지키계土師器 토기 편도 확인되었다. 본 유적은 주택건설로 인한 구제발굴로 조사범위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조사 결과 주변유적에서 확인되는 철생산유구나 다른 생활유구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 위치도

토층 상에 나타나는 출토유물들과 동물유체 등 인근지역의 출토품과 비교해 볼 때 중심연대는 3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전에 조사된 동래패총 분포범위보다 100m 이상 떨어져 남쪽에 위치한 상태로 확인되어 실제 패총과 관련한 범위를 더욱 확장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08,『동래 수안동 다세대주택건설지 발굴조사보고서-동래패총 주변지-』.

유적 전경

골각기류

피트 내 유물 출토모습

## 20-4

# 동래 낙민동 패총 _ 동래 낙민동 133-2번지 건설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3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중앙문화재연구원 /
2002.11.~2003.1.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옹형토기,
골각기

㈜일류주택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발굴조사로 서쪽으로 150m 정도 떨어져 동래패총 사적지가 위치한다.

조사 지역 내 피트 8개소를 설치하고 토층 및 피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은 해발 5m 내외에 위치하며 현 지표 약 3m 아래에 위치한다. 토층양상은 대체로 30~40개 층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층과 층 사이에 비교적 많은 모래가 형성되어 당시의 바닷물 또는 온천천의 범람으로 인한 교란 등을 보여준다. 순수패각층은 확인되지 않고 혼패토층을 이루는 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패각층 등에서 옹형토기, 노형토기, 시루, 대각편등의 다량의 토기와 골각기를 비롯해 사슴, 노루, 멧돼지 등의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외해성 패류도 다수 출토되어 채집활동 범위가 내만지역에 그치지 않고 외해역가지 넓게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토층상에 나타나는 삼국시대 출토유물들과 동물유체 등 인근지역의 출토품과 비교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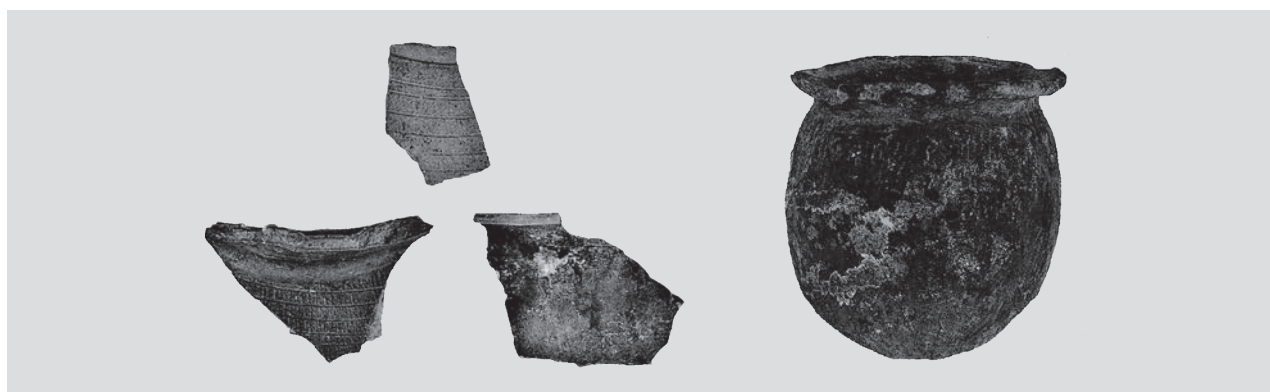
해 볼 때 중심연대는 3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동래패총과 관련한 실제 범위를 더욱 확장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동래 낙민동 133-2번지 건설신축부지내 동래 낙민동 패총』.

유적 전경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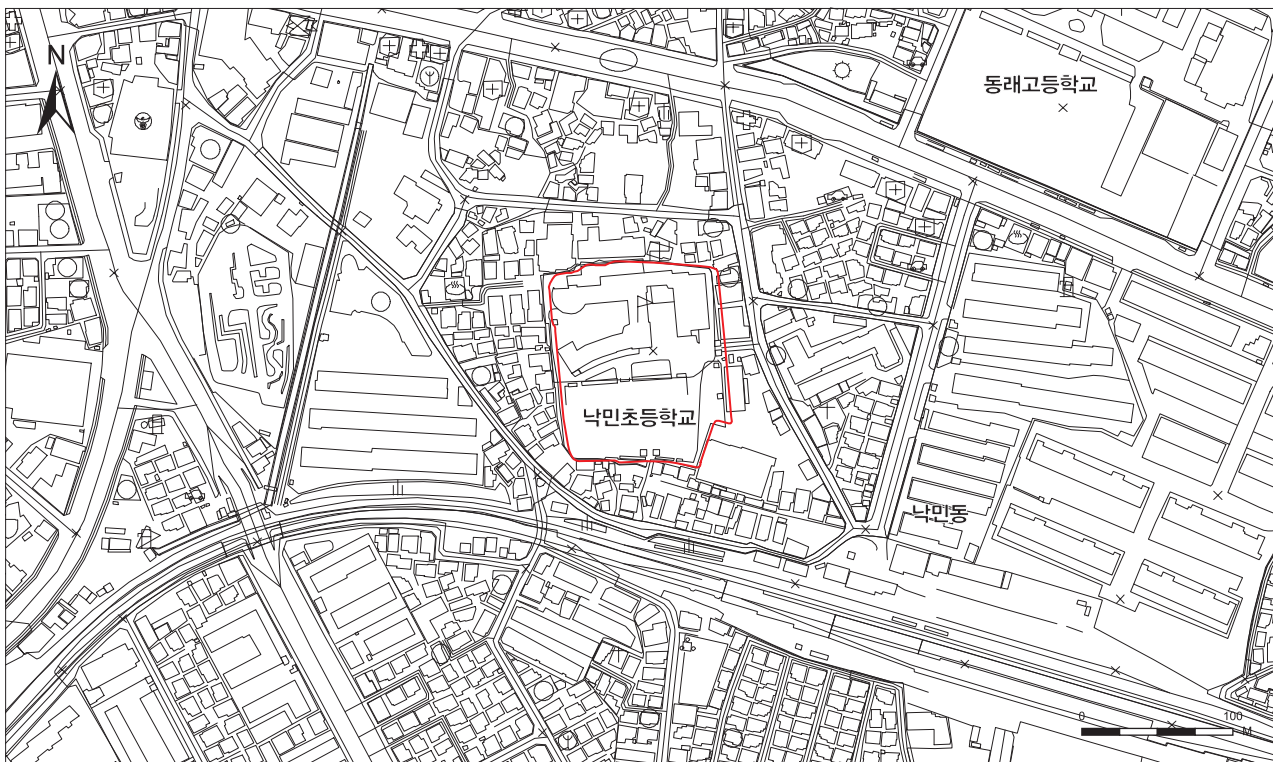
## 20-5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30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시굴
1차 2010.2.
2차 2010.3.
발굴
1차 2010.3.~2010.5.
2차 2011.4.~2011.8.

**주요 유구 / 유물**
환호, 수혈유구, 소성유구, 지상식건물지 /
옹, 호, 외절구연고배

# 부산 낙민동 303번지 유적 _ 부산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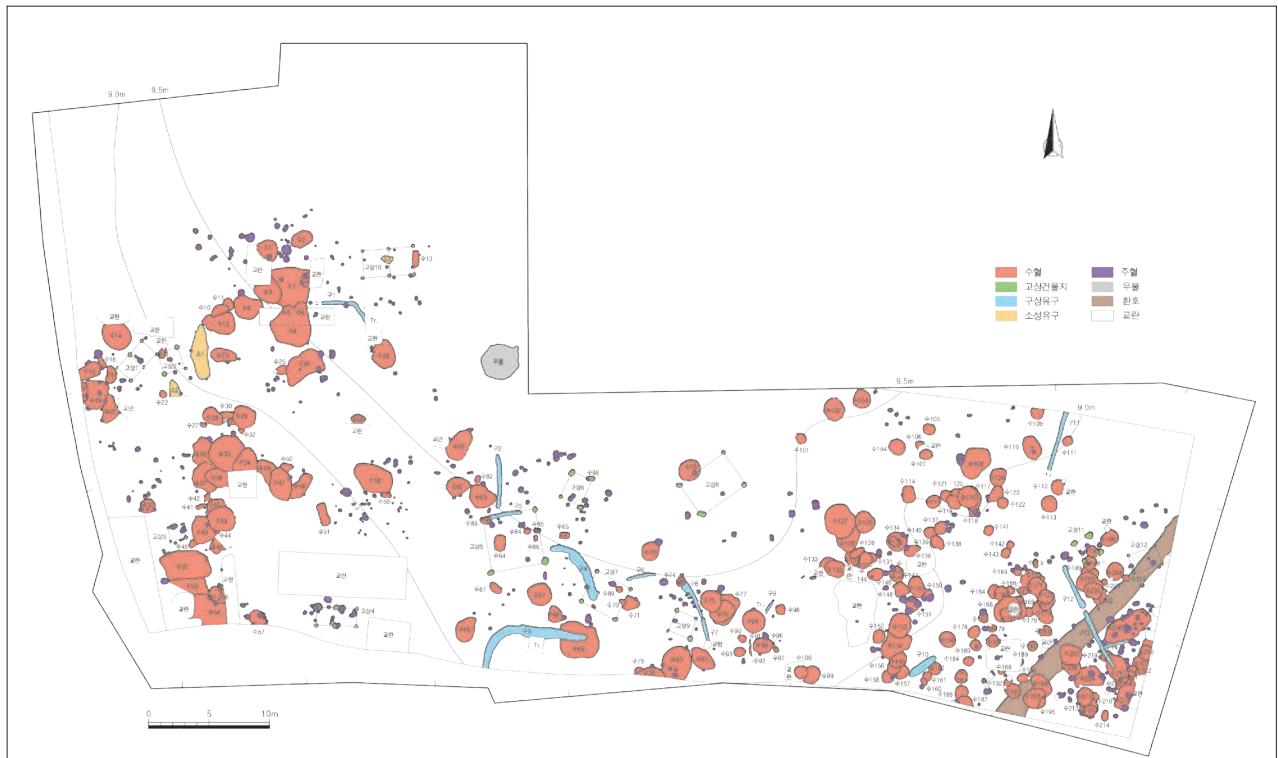
부산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부지이다. 마안산에서 뻗어 내린 해발 10m 내외의 낮은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100m 정도 거리에 동래패총 사적지가 위치한다. 조사전 이미 학교시설이 들어서면서 원지형의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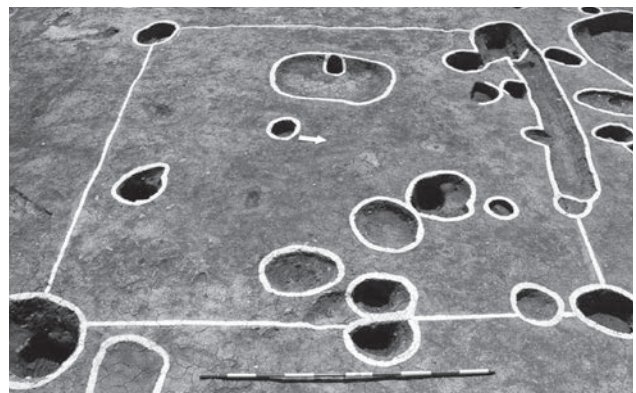
조사 지역 A(1차)·B(2차)구간으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삼한시대 환호 2기와 삼국시대의 수혈유구 223기, 소성유구 3기, 구상유구 14기, 지상식건물지 12기, 주혈군, 조선시대 가마 1기, 수혈유구 10기, 지상식건물지 2기, 우물 등이 확인되었으며, 옹, 호, 외절구연고배 등 다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환호는 조사지역 A지구 북서쪽에 위치하며 해발 9.6~9.3m 지점에 해당하며 조사지역 밖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단면 'U'자상으로 잔존규모는 길이 14m, 너비 1.9m 깊이 0.5m 정도로 기반층을 2단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그 외 유적에서 확인된 다수의 수혈유구 등은 저장, 토취

유적 위치도

또는 공방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삼국시대의 출토유물들을 살펴볼 때 중심 조성연대는 4~5세기대로 볼 수 있는데,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입지를 살펴보면 당시 복천동고분군을 조성한 집단 또는 지역과 관계된 생산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근 저지대의 동래패총과 삼한시대 환호유구의 존재 등으로 살펴보면 기존 동래패총유적과의 연계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유적은 동래패총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문화상 구명에 좋은 자료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13, 『부산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부지 내 동래 낙민동 303번지 유적』.

B구간 유구 배치도

A구간 환호

B구간 6호 고상건물지

## 20-6 부산 낙민동 100번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0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시굴 2015.6.~2015.6.
발굴 2015.6.~20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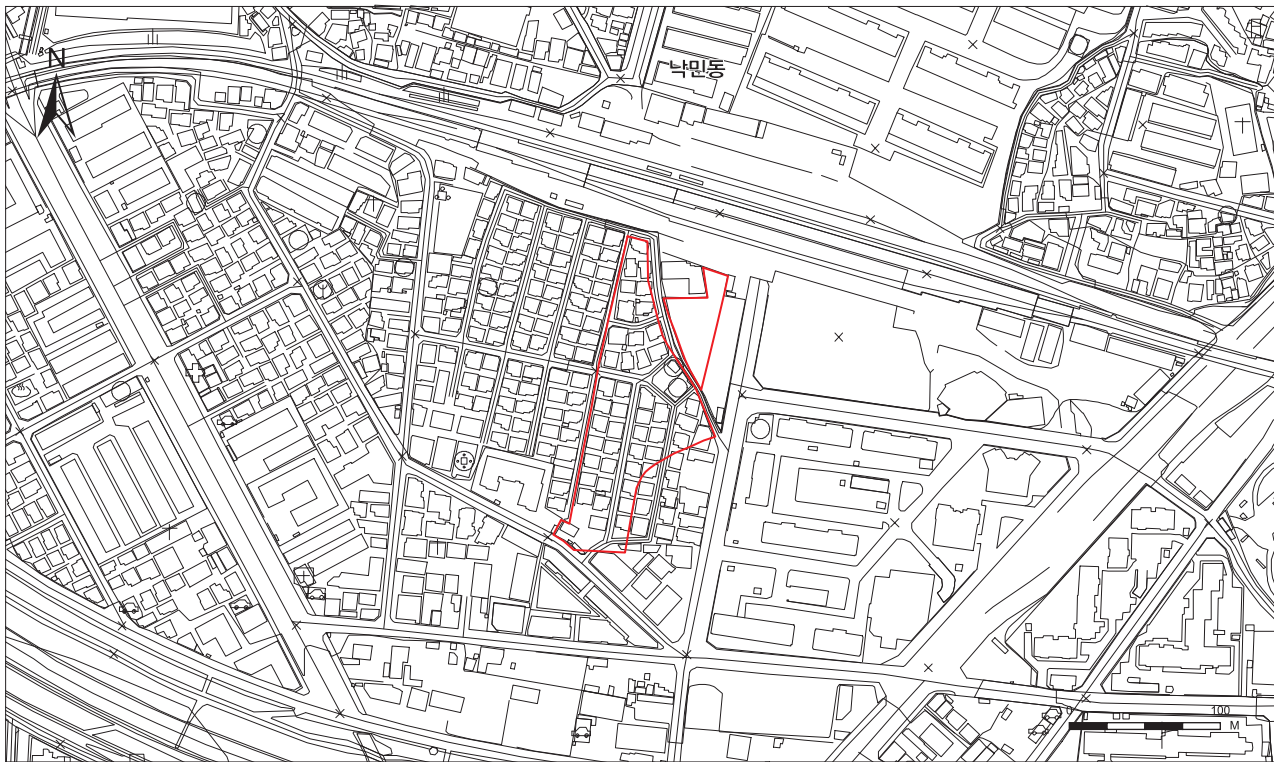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소성유구, 수혈
유구, 지상식건물지,
주혈 / 시루, 녹각제
병부, 골촉

공동주택신축부지로 동래패총 분포구역 내의 서남쪽 모서리에 해당한다. 해발 4~5m 정도의 편평한 충적대지로 낮은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동래패총 분포구역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서쪽으로 100m 정도 거리에 동래패총 사적지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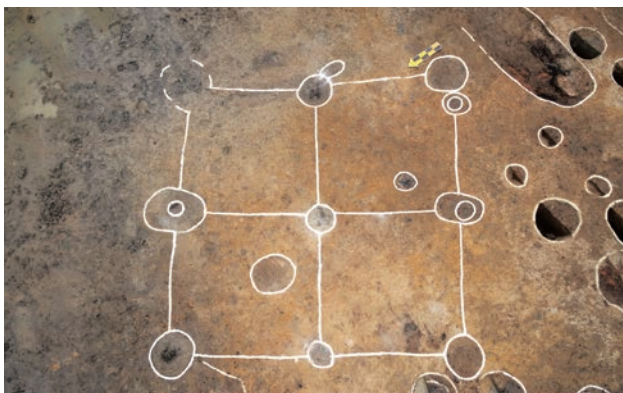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하천 범람 등의 영향을 받은 자연퇴적층과 혼패토층이 중첩된 패총과 함께 지상식물지 등의 주혈 144기, 소성유구 18기,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노형토기 편, 시루 편, 대각 편 등의 다수의 토기 편과 녹각제병부, 골촉, 목기 등과 함께 다수의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퇴적양상으로 보아 계속적인 하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출토유물 등의 양상을 살펴보아 단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심 조성연대는 4세기대로 볼 수 있다. 인접한 동래패총유적과의 연계성으로 패총의 발달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문화상과 생활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동래패총의 분포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C지구 지상식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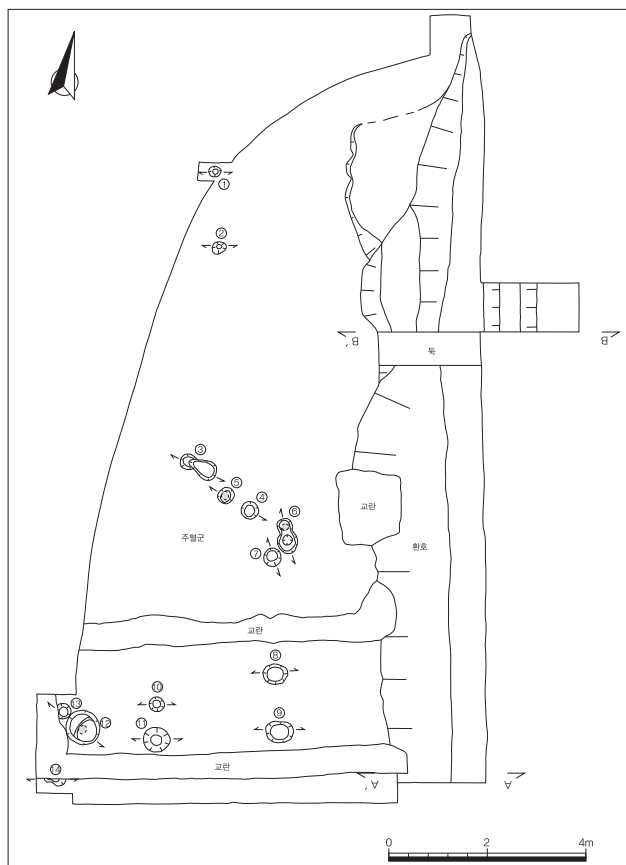
##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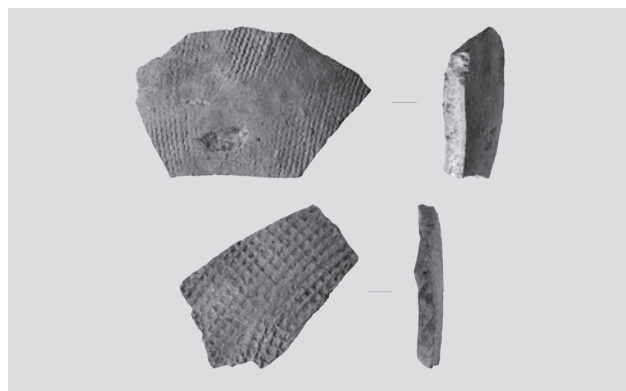
# 부산 낙민동 215-4번지 유적 _ 부산 낙민동 세화약품 창고증축 부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15-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2016.8.
**주요 유구 / 유물**
환호, 수혈유구,
구상유구, 수전, 패총,
주혈 / 흑도, 소형토기

(주)세화약품의 창고증축부지 조성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생활유적이다. 서쪽은 낙민초등학교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 500m 가량 떨어져 온천천이 동쪽으로 흐른다. 사적인 동래패총은 유적의 남쪽으로 150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Ⅰ·Ⅱ구역으로 나뉘어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Ⅱ구역은 사업시행자측의 공사 취소로 시굴조사만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의 환호,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2기, 수전, 주혈을 비롯해 혼토패각층이 일부 확인되었다. 환호는 I 구역의 조사지역 동쪽경계를 따라 해발 6.6m 상에 위치하며, 그 서쪽에 인접하여 주혈군이 산재한다. 동쪽 끝이 조사지역 밖으로 연장되고 있다. 환호는 대체로 남-북향으로 단면 'U'자상을 보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14m, 너비 3.5m, 깊이 0.9m 내외이고 북편 일부에는 2단 굴착의 흔적도 확인된다. 그리고 조사지역 서쪽 동래 낙민동 303번지 유적의 동편에서 확인된 환호와 연장되는 것으로

유적 위치도

I 구역 유구 배치도

I 구역 환호 토층

출토유물

추정된다. 환호와 인접하여 분포하는 주혈 등은 환호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환호 내부의 부속시설의 일부이거나 환호 내측에 따라 설치된 목책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호 내부에서는 토기 편, 소형 토기 및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들을 살펴보아 조성연대는 삼한시대 후기부터 4세기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동래패총과의 연계성도 추정할 수 있다. 동래패총 주변으로 확인되고 있는 생산시설과 관련한 다수의 유적과 유구들의 존재를 비교 검토해 보면 낙민동 215-4번지와 낙민동 303번지 유적은 당시 철 등의 생산과 관련한 생산지 주변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었고 이에 환호 등이 조성되어 그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로 이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부경문물연구원, 2018, 『부산 낙민동 세화약품 창고증축 부지 내 - 부산 낙민동 215-4번지 유적』.

# 21 부산 연지동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94-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2011.2.~2011.8.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1.2.~2011.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경작지 / 광구소호,
소형토기, 컵형토기,
왜계 토기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된 생활유적이다. 유적은 백양산(해발 642m), 수정산(해발 293m), 황령산(해발 427m) 등에 산지에 둘러싸인 산록사이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완경사 충적대지상에 위치한다. 유적은 2006년까지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히야리아로 이동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동서방향의 길이가 남북보다 다소 긴 장방형이다.

미군기지의 폐쇄 후 부산시민공원의 조성의 일환으로 2000년 부산박물관의 지표조사, 2010년 동양문물연구원의 시굴조사를 거쳐 2011년 동양문물연구원(A·B구역)과 한겨레문화재연구원(C·D구역)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미군기지 등 이전시기의 시설물들로 원지형은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

연지동유적의 A·B구역에서는 매장유구 5기와 주거지 10기, 수혈유구 188기, 지상식 건물지 5기 등이 확인되었고 C·D구역에서는 청동기~근세의 구상유구를 비롯해 삼국시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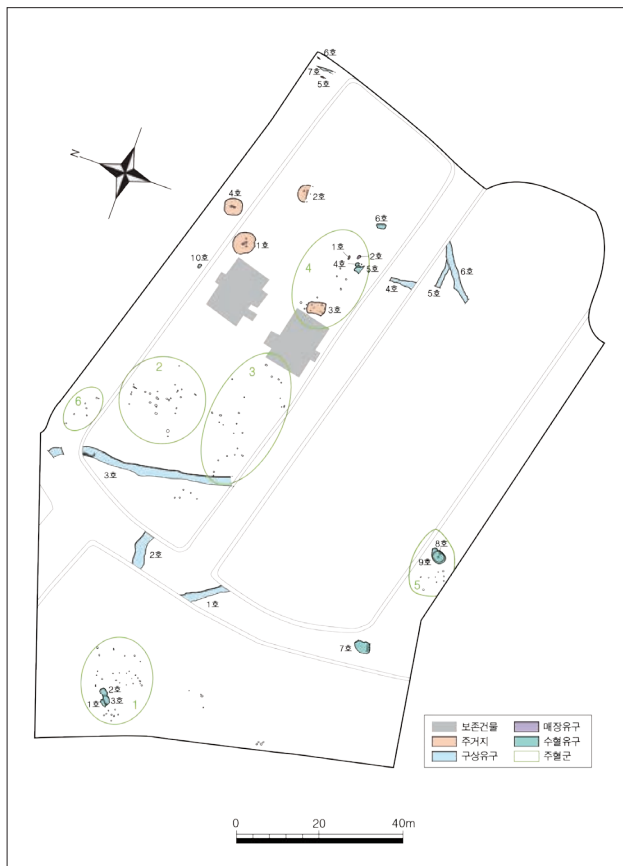
대 경작지가 보고되었다. 이중 삼국시대의 유구로는 대부분 C·D구역에 집중되어 수혈유구 188기와 수혈주거지 일부, 지상식건물지, 경작지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대부분 B구역 다지구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규모는 직경 0.7~6.6m로 다양하며 평면형태도 원형, 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고배, 광구소호, 컵형토기, 소형토기 등 다양한 토기 편과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의 대부분은 저장시설 및 임시주거지, 토취장, 의례시설 등으로 추정된다. 유물들의 연대로 보아 수혈유구의 주 사용시기는 4~5세기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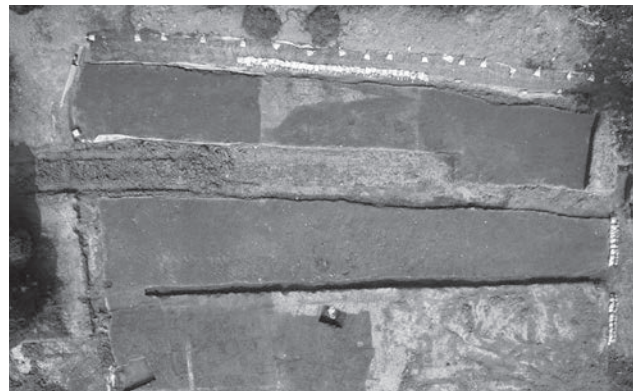
C구역에서는 상당부분 후대 시설 등으로 훼손되었으나 토층 조사결과 삼국~근대의 경작지도 확인되었는데, 인접 유구와 관련하여 경작지가 넓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논의 형태는 조선시대 이후의 경작으로 교란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작층 내에서 무문토기 편과 삼국시대 토기 편 일부가 수습되었다.

훼손이 심하여 정확한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 어려우나 청동기~삼국시대 해당하는 생활유적이 이 일대에서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산지역의 당시 이 지역의 문화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3, 『부산 연지동유적(A·B구역)-부산 시민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 연지동유적(C·D구역)-부산 시민공원 조성부지내유적』.


A구역 나지구 유구 배치도

C구역 경작유구

다지구 129호 수혈 출토유물

# 22 부산 낙민동유적

## 釜山 樂民洞遺蹟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에 소재한 생활 및 생산유적으로 마안산(해발 419m)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망월산(해발 105m) 구릉지 사면의 남쪽 끝단일대와 인근 온천변의 충적지에 해당한다.

2013~14년에 걸쳐 동양문물연구원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5~16년에 인근의 동래역 행복주택건설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고로 2010년 동양문물연구원에서 해군 부산관사 건설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를 실시되어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수혈과 소성유구 등도 확인된바 있다.

낙민동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대체로 다수의 수혈들이 확인되었는데, 다양한 평면형태와 크기의 수혈들은 공방, 의례, 폐기의 용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공간적인 수혈유구의 배치 등이 나타난다. 일부 가마나 철 생산과 관련된 유물도 확인되어 인근에 가마나 철 생산 관련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크게 대두된다. 도로유구 등도 확인되고 있는데, 해군 부산관사 예정부지 내 문화재발굴조사의 내용도 참고한다면 이는 삼국~통일신라에 걸쳐 시기적인 변동은 있으나 인근의 유적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체로 공방과 같은 생산 관련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산과 관련한 대단위 유적의 일부로 추정된다.

실제 동래패총 유적의 확장되는 범위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본 유적의 연계성도 어느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부산 낙민동 56-1번지 유적 | 동양문물연구원 | 시굴 2013.9.<br>발굴<br>1차 2013.11.~2014.1.<br>2차 2014.6.~2014.7.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삭간(연안과선교) 내 유적-부산 낙민동 56-1번지 유적(2016) |
| 2 |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 동양문물연구원 | 1차 2015.9.~2015.10.<br>2차 2016.8.~2017.5. |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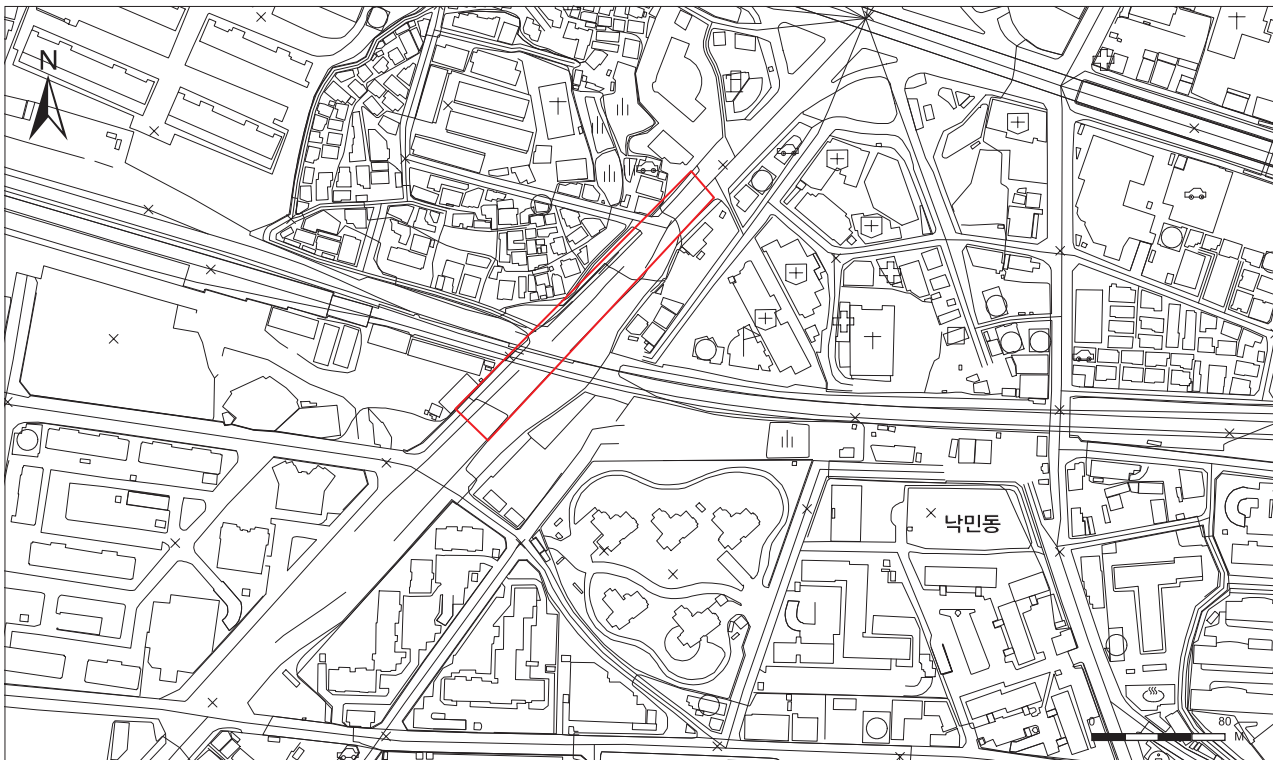
# 22-1 부산 낙민동 56-1번지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5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시굴 2013.9.
발굴
1차 2013.11.~2014.1.
2차 2014.6.~2014.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유구, 도로, 주혈
/ 노형토기, 왜계 토기,
양이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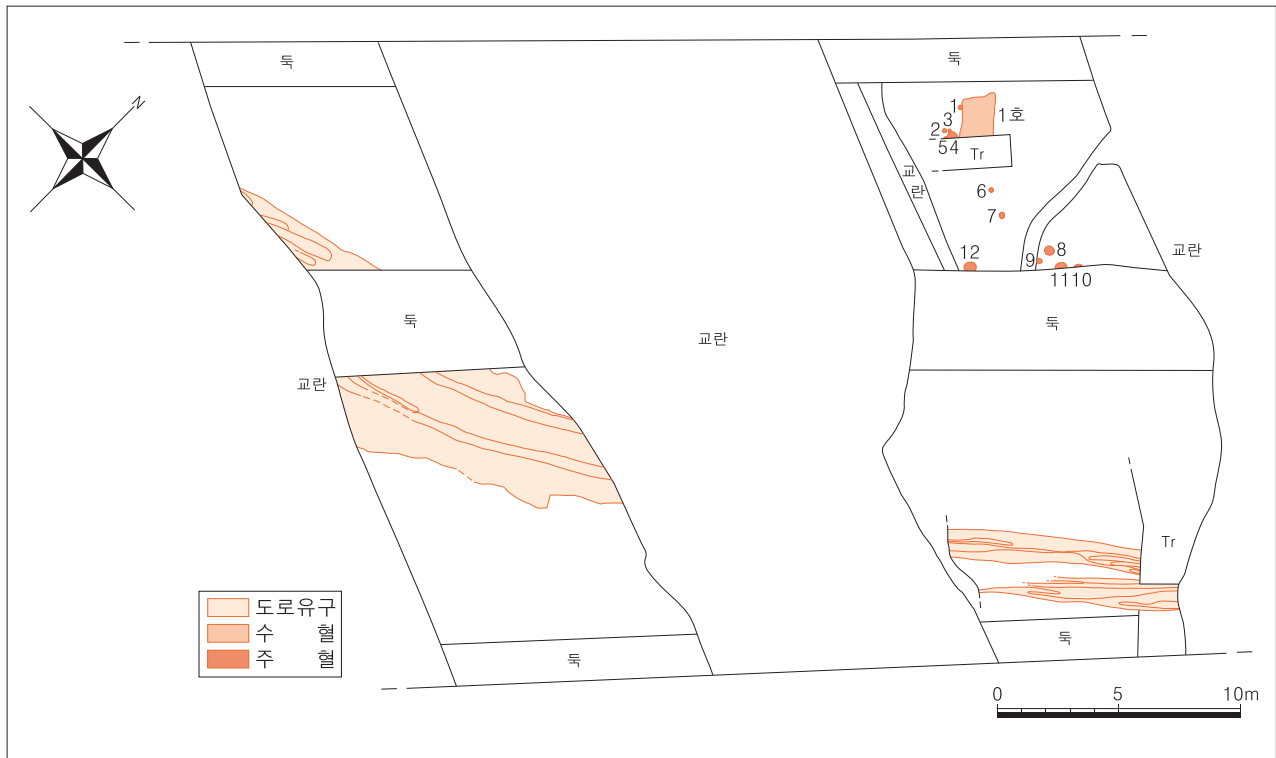
동해남부선 상부에 북동-남서 방향의 4차선 고가교로 설치된 연안과선교(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내)가 놓여있었던 구간에 해당되는 생활·생산유적이다. 마안산(해발 419m)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망월산(해발 105m)과 서에서 동으로 흐름이 바뀌는 남쪽의 온천천 사이에 형성된 구릉지 사면 및 평지부에 해당한다. 구릉지 사면의 남쪽 끝단에 해당하며, 남쪽은 서에서 동으로 충적지 위에 위치한다. 관련 유적으로 생각되는 낙민동유적과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이 인접하여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한~조선시대의 수혈 22기, 주혈 39기, 삼국시대의 도로유구 1기, 조선시대의 암거유구 1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으며, 수혈 내 등에서 노형토기와 양이부호, 옹형토기, 철모, 왜계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삼한시대의 수혈은 평면형태가 부정형으로 다수의 중첩되어 조성되었으며, 삼국시대의 도로유구와 수혈 및 주혈은 조사지역의 철도 남서쪽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도로는 수혈군 등의 남편에 위치하여 남서-북동향

유적 위치도

으로 진행하며 조사지역 외곽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도로의 전체규모는 잔존길이 41.5m, 폭 2.5~4.7m, 깊이 0.2~0.8m 정도로 바퀴홈(바퀴 간 폭 1.7m) 등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구상유구들이 확인되는데 환호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유물 등을 살펴 볼 때 3세기 후반~5세기로 추정되며, 유구의 잔존상태가 나쁘고 조사범위가 한정적이라 유적의 명확한 성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생산 등과 관련한 수혈 등의 존재와 도로 등의 설치로 큰 규모의 생산시설의 조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온천동 유적과 함께 일부 부산지역의 삼한시대 유적으로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 낙민동 일대 유적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6,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 공사간(연안과선교) 내 유적-부산 낙민동 56-1번지 유적』.

삼국시대 유구 배치도

1호 수혈

1호 도로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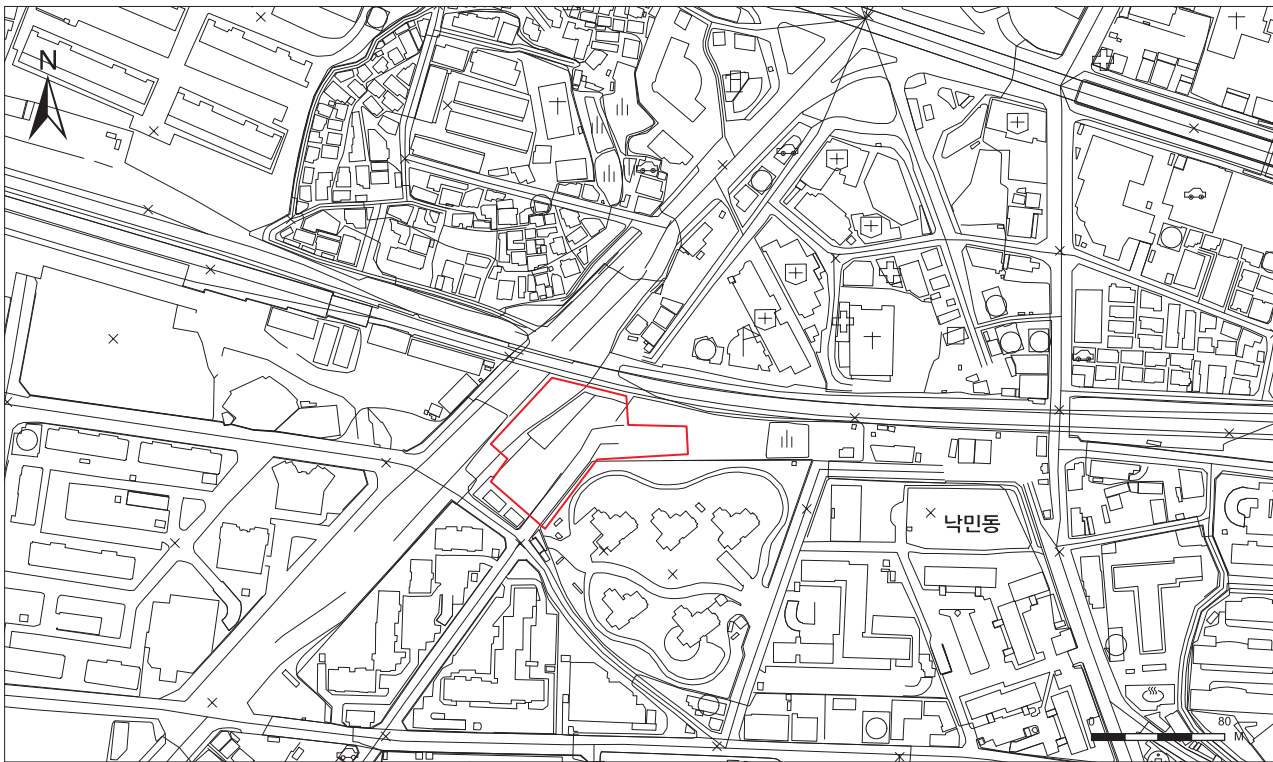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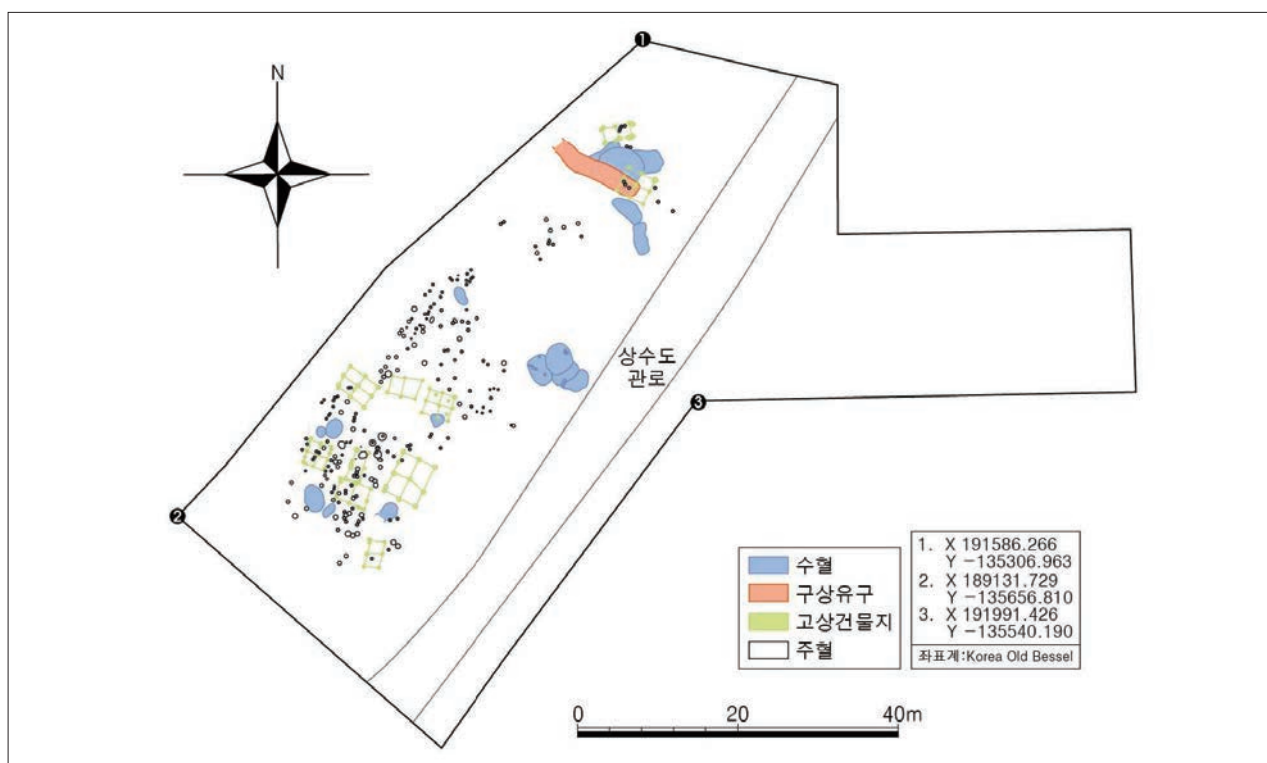
# 22-2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5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시굴
1차 2015.8.
2차 2016.5.
발굴
1차 2015.9.~2015.10.
2차 2016.8.~2017.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유구, 구상유구,
지상식건물지 / 고배,
광구소호, 타날문토기
편, 송풍관 편

동래역 행복주택 조성에 의해 발굴조사된 생활유적이다. 마안산(해발 419m)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망월산(해발 105m) 구릉지 사면의 남쪽 끝단에 해당하며, 남쪽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온천천을 중심으로 넓게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본 유적과 관련성이 있는 낙민동유적과 낙민동 56-1번지 유적이 동쪽과 서쪽에 각각 인접하여 입지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삼한~삼국시대의 수혈유구 11기, 구상유구 1기, 지상식건물지 10기와 다수의 주혈이, 조선시대의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4기, 우물 2기, 도로유구, 암거 등이 확인되었으며 고배, 타날문토기 편, 송풍관 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삼국시대 일부 수혈유구 내에서 송풍관 편 및 슬래그 등이 출토되어 제철유적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해발 2~3m의 저습지 해당하는 남쪽구역에는 지상식건물지가 밀집되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유적 위치도

삼국문화층 유구 배치도

수혈 중복상태

고상건물지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7,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인근의 동래패총과 주변의 생산관련 유구들의 존재나, 본 유적의 철생산과 관련한 송풍관과 슬래그 등에서 보아 주변으로도 철생산과 관련한 유구의 유존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문화상이나 생산공간의 조성과 관련한 좋은 자료이다.

23

# 동래 온천동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3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시립박물관 /
2010.11.~2011.4.

**주요 유구 / 유물**
환호, 수혈주거지 /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금강공원 내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이다. 금정산백의 주요 봉우리 중 하나인 동제봉(해발 545m)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구릉의 중턱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은 현재 우장춘로에 의해 단절되지만 온천천변까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일대로 유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온천천을 따라 좁고 긴 동래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두구동 임석유적, 노포동유적, 구서동유적, 복천동고분군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한다.

유적은 1972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무문토기와 일본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되어 학계에 알려졌으며 2001년 구릉 하단부에 대한 복천박물관의 발굴조사로 송국리단계로 추정되는 환호의 일부와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이후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금강공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부산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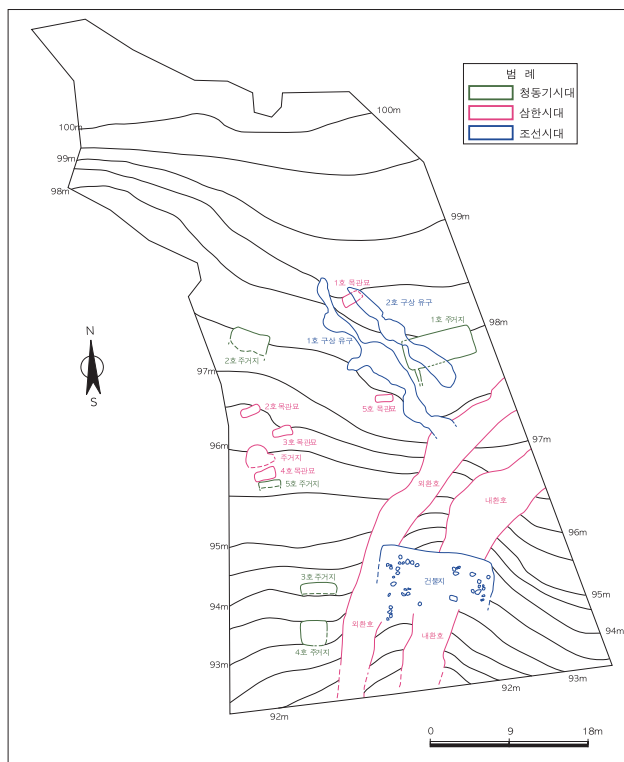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청동기시대~삼한시대의 수혈주거지 6기를 비롯하여 환호, 목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삼한시대 주거지는 1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일부 유실된 부정형으로 내부에서 목탄과 소토가 다량 확인되었다. 삼한시대의 환호는 내환호와 외환호가 나란히 배치된 이중환호 형태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돌아가며, 조사구역 밖으로 계속 연결되어 구릉의 일정 부분을 일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길이 27.9m, 폭 4.7~6.5m, 깊이 1.1~1.6m)·외환호(길이 36.8m, 폭 3.3~3.7m, 깊이 0.8m)는 2~4.6m 간격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잔존깊이는 'V'자상의 형태로 내환호가 더 깊게 나타난다. 내부에서는 청동기시대 공렬문토기 등도 확인되지만,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며 와질소성에 가까운 것도 함께 출토되어 이중환호는 삼한시대 초기에 조성되어 전기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호는 축조와 동시에 공간을 내·외부로 구분하기 때문에 경계를 의미를 가지며, 공간의 방어, 의례의 장소, 상징적 경계 등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호 내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호와 관련한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차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성격이 구명될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함께 삼한시대 초기 환호와 목관묘 등이 확인되어 부산지역의 삼한시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이 시기 온천천 수계의 중심집단이 이곳을 점유하였을 가능성도 말해준다.

**참고문헌**

복천박물관, 2004, 『동래 온천동유적』.

부산박물관, 2013, 『금강공원 시민체육공원 조성부지 내 동래 온천동유적Ⅱ』.

유구 배치도

삼한시대 이중 환호

3호 목관묘

## 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918-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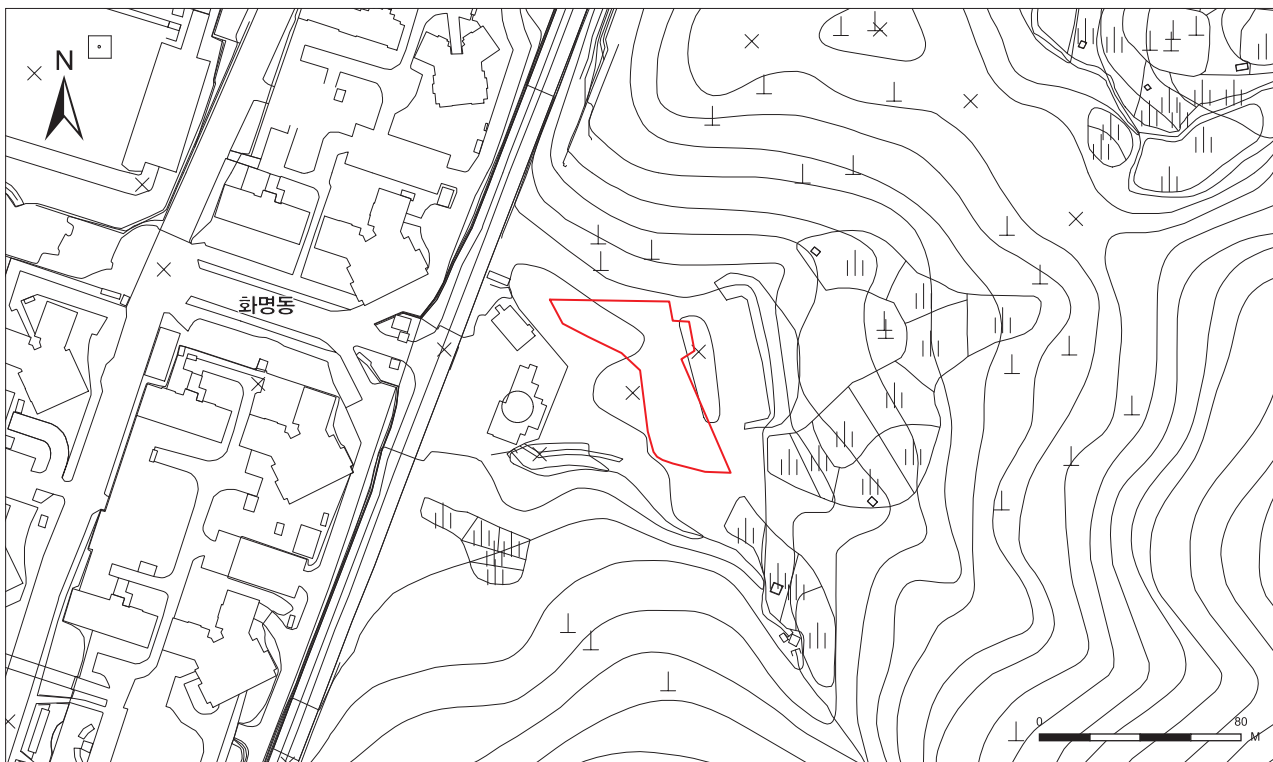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시굴 2013.2.~2013.4.
발굴 2013.6.~2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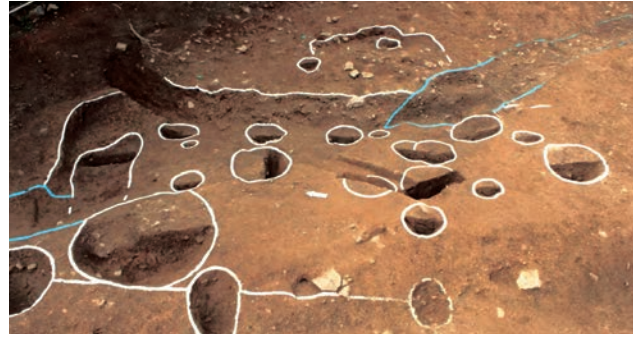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지상식건물지, 수혈유구 / 통형기대, 고배, 호

# 부산 화명동 918-2번지 유적 _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일대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이다. 유적은 상학산(해발 638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고도 39~45m 사이 구릉 말단부의 서쪽사면에 해당한다. 사면 끝에는 충적대지가 낙동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낙동강의 동안과 서안에 위치한 부산과 김해 사이의 최단거리 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강 상류나 남해로 진출하는 교통 요지로 낙동강 하류 동안 일대의 유적분포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적과 인접한 서쪽과 남서쪽 구릉 사면에 삼국시대 고분인 화명동고분군과 덕천동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 본 유적과의 관계와 중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구에서 추진한 화명근린공원조성의 일환으로 2010년 부산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이 지역 일대를 3개소(A·B·C구역)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사업대상지인 C구역에 대해 2013년 부경문물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를 거쳐한 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으로 수혈주거지 1기, 지상식건물지 8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수혈주거지

1호 지상식건물지

기 등 삼국시대 생활유구 18기와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건물지와 생활·생산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유구가 입지한 곳은 조사대상지 북단의 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며, 그 남쪽은 곡부로 이어지기에 대부분의 취락은 사면 상단과 능선상부로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주거지는 잔존상태가 불량하나 말각방형을 나타내며 지상식건물지는 2×2 칸 내지 2×1칸으로의 규모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등간격으로 조성되었다. 구조와 배치 등으로 진주 평거동유적 등에서 보이는 고상창고군으로 추정되며, 역시 공간의 분리로 주거구역은 사면 상단부 능선 상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 시기는 수혈주거지와 수혈 등에서 출토된 외절구연고배 등의 토기류로 보아 3세기 말~5세기 전엽 정도로 추정된다. 낙동강에 인접한 취락으로 하천주변의 경작지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교통상의 요지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거점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부경문물연구원, 2015,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부산 화명동 918-2번지 유적』.

25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7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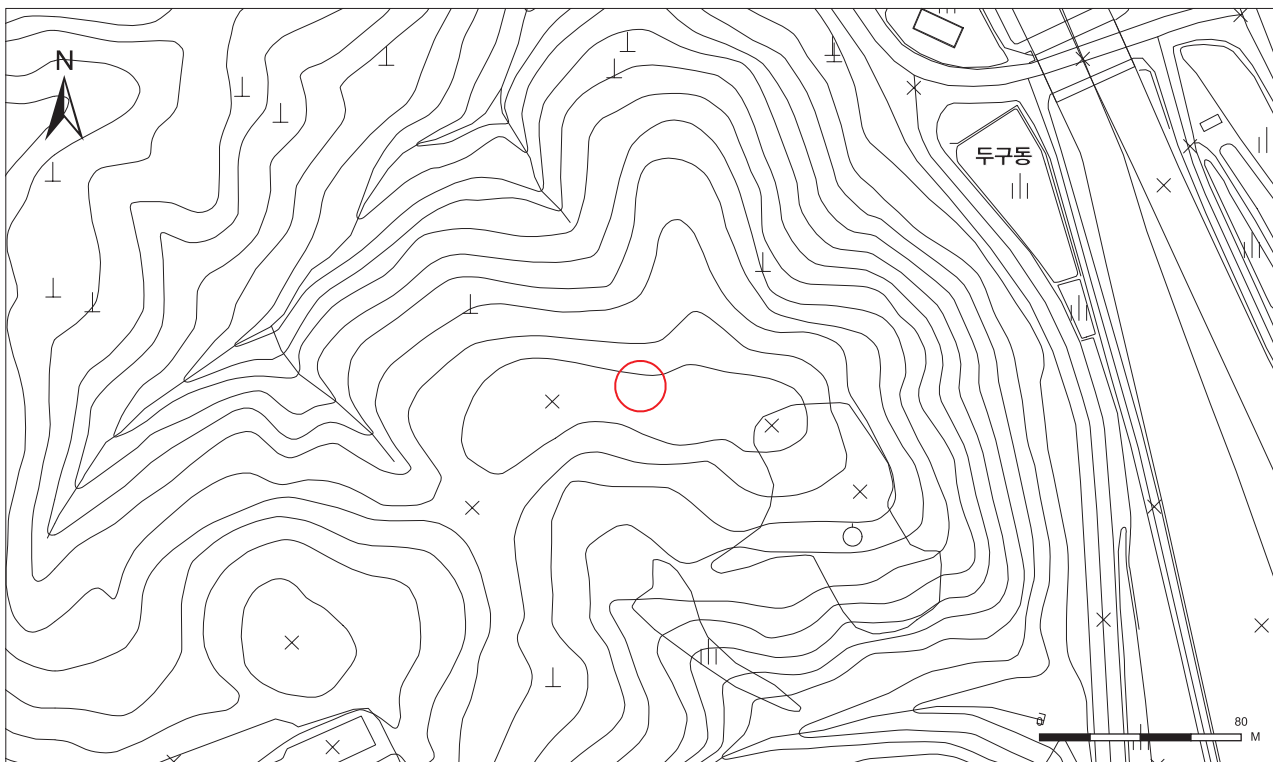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09.7.~2009.9.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지상식건물지, 수혈유구 /
노형기대, 고배

# 부산 두구동유적 _ 부산시 두구동 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산업부지 내 유적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일대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이다. 영락공원의 북서쪽으로 해발고도 80~105m 내외의 구릉 남쪽 사면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노포분기 송전선로 설치의 일환으로 2001년에 이미 부산박물관의 정밀지표조사 시 '노포동 유적 및 두구동 유물산포지'로 보고된 곳으로 2009년 부산박물관의 입회조사를 거쳐 동년에 해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북서쪽에 인접하여 노포동고분군과 노포동유적이 위치하며 수영강 건너편의 구릉 말단부 주변에는 두구동임석유적과 두구동고분군 등 다수의 유적들이 구릉 주변과 하천충적지 상에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 17기,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1기, 추정 지상식건물지 9기, 주혈군 3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잔존상태가 불량하나 대체로 3~4세기대 영남 동부지역의 주거지와 같은 방형, 원형,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보이

유적 위치도

며, 주혈, 벽구, 노시설 등의 내부 시설들도 함께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나 지상식건물지의 경우도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성격이나 기능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수혈주거지의 내부 등에서 장동옹, 시루 편, 외절구연고배 편 등이, 수혈 내부에서는 통형기대 편 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유적의 연대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나 인근의 두구동유적이나 노포동유적 등 동시기의 취락유적을 함하여 다수의 유물산포지 등이 존재하고 주변으로 다수의 고분군들도 조성되어 당시 이 지역에 대단위 취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접하여 위치한 수영강 건너의 대단위 취락인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10공구) 내 유적과의 관계나 성격도 차후 비교 검토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1, 『부산시 두구동 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부지 내 부산 두구동유적』.

유적 전경

2·3·10호 주거지

출토유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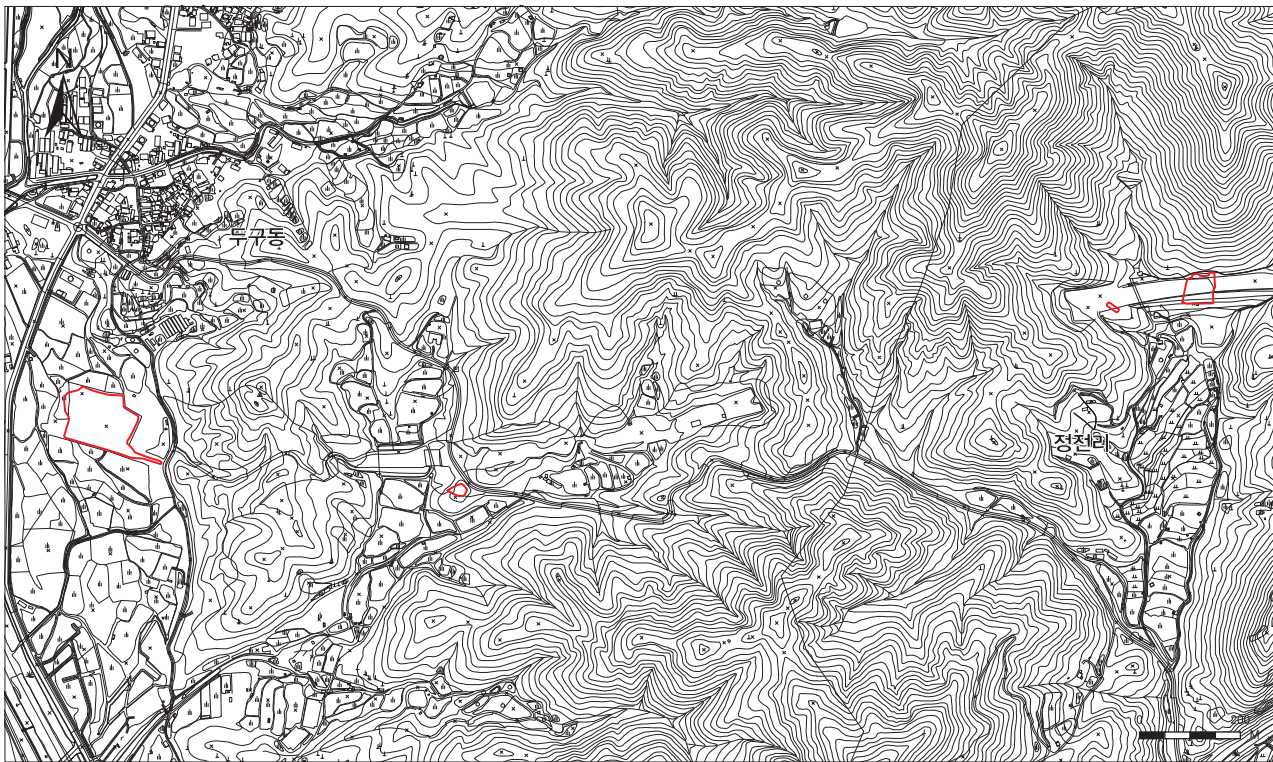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선동 일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3.2.~20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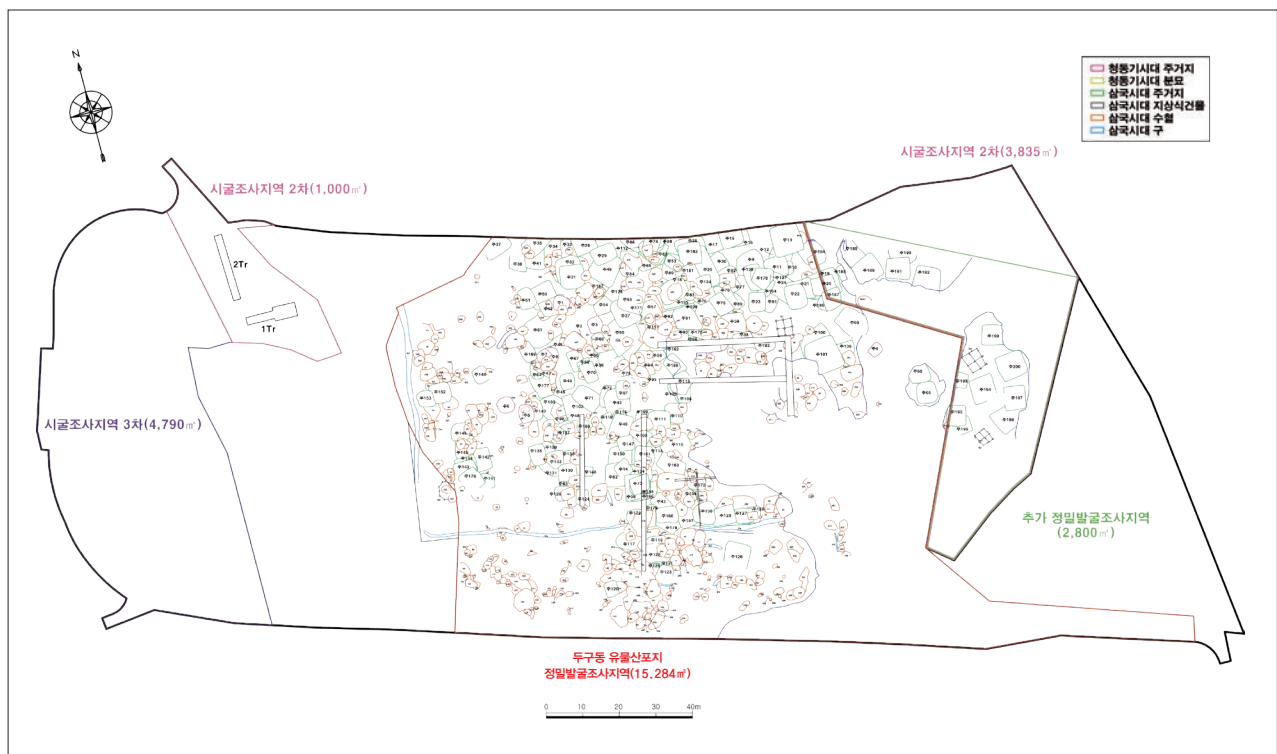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 고배, 장동옹 편, 광구소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선동 일대,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일대에 위치하는 대단위 생활·생산유적으로 공덕산(해발 290m)에서 서쪽으로 뻗어오는 낮은 구릉지 말단과 곡부, 수영강변 평탄대지 등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300m 정도 떨어져 북서-남동향으로 수영강이 흐르고 있다. 북쪽으로 두구동임석유적과 두구동고분군, 지석묘을 비롯해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입지하며 수영강 건너에는 노포동고분군과 노포동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당시 이 일대는 대단위 취락 및 분묘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10공구)의 일환으로 2010년 지표조사를 통해 총 7개소의 문화유적이 보고되었고, 두드리골분묘군 Ⅰ·Ⅱ에 대한 조사가 2013년(시굴 2013.2.~2013.3., 발굴 2013.7.~2013.10.) 이루어졌고 선동유물산포지A는 동년(시굴 2013.8.), 노포동 작장고분군과 물랑들유물산포지는 각각 2013년 9월과 2014년 4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

유적 위치도

았다. 두구동유물산포지 가지구는 2013년부터 2014년 중에 3차례에 걸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삼국시대의 유구분포지가 확인되어 2014년(2014.11.~2015.8.)에 선동유물산포지A와 함께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두구동 가지구 서편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2015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두드리골분묘군Ⅰ·Ⅱ에서는 삼국시대 분묘군이, 노포동 물량들유물산포지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두구동유물산포지에서는 삼한~조선시대 분묘 및 생활유적, 선동유물산포지A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및 생산유적, 노포동작장고분군에서는 삼국시대 분묘유적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취락 등과 관련한 유구는 공덕산 서쪽 사면과 접하는 평지에 해당하는 두구동유물산포지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두구동유물산포지의유구들은 상·하 중층에서 분포하는데, 청동기·삼국시대 주거지 200기, 수혈유구 437기 등 총 64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이중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주거지 192기, 지상식건물지 4기, 수혈 437기, 구상유구 6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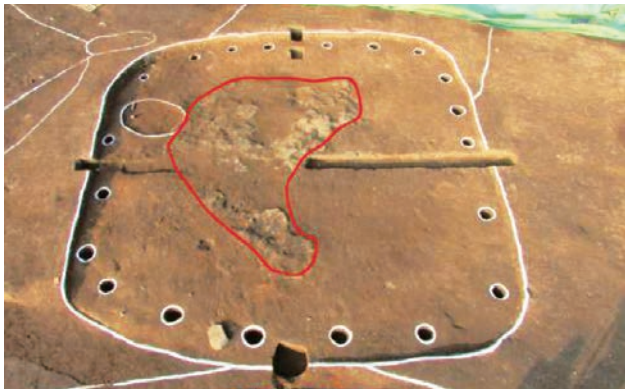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조사지역 외곽을 'ㄴ'자상으로 구획하는 4호 구의 내측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평면형태는 방형과 말각장방형으로 길이는 3~10m 정도로 중복 및 중첩이 심하다. 주거지 내에는 부뚜막과 고래를 갖춘 구들이 일부 확인되며 벽주와 같은 시설도 확인된다.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 등 다양하며 규모의 편차도 크다. 이에 대체로 토취장 또는 폐기장으로 추정되며 일부 정연한 수혈은 공방지의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또한 일부

두구동 유물산포지 가지구 유구 배치도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을 ‘ㄴ’자상으로 구획하는 환호 또는 환구로 추정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삼국시대 유구에서 고배, 기대, 장동옹, 파수부토기, 연통 등 약 56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대체로 4~5세기대 생활유적인 부산 기장 가동·대라리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기존의 연질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생활유적과 달리 기대, 단경호, 소형기대 등 다량의 경질토기가 출토된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고배의 경우 전반적으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대의 유물로 복천동고분군의 목곽묘가 점차 사라지고 수혈식석곽묘가 채용되는 단계의 유물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사지역 외곽의 북쪽 구릉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두구동고분군과 임석고분군을 참고하면, 북쪽 구릉부의 고분군과 남쪽 구릉말단부와 평지에 입지하는 본 유적의 주거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유적의 규모와 유구 수를 비교할 때 본 유적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경남지역 최대 규모의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락의 공간구성과 함께 양산~울산~경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입지하여 삼국시대 생활권역과 교통·교류 등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10공구) 내 유적 시굴·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3호 주거지

20호 주거지

1호 지상식건물지

출토유물

27

# 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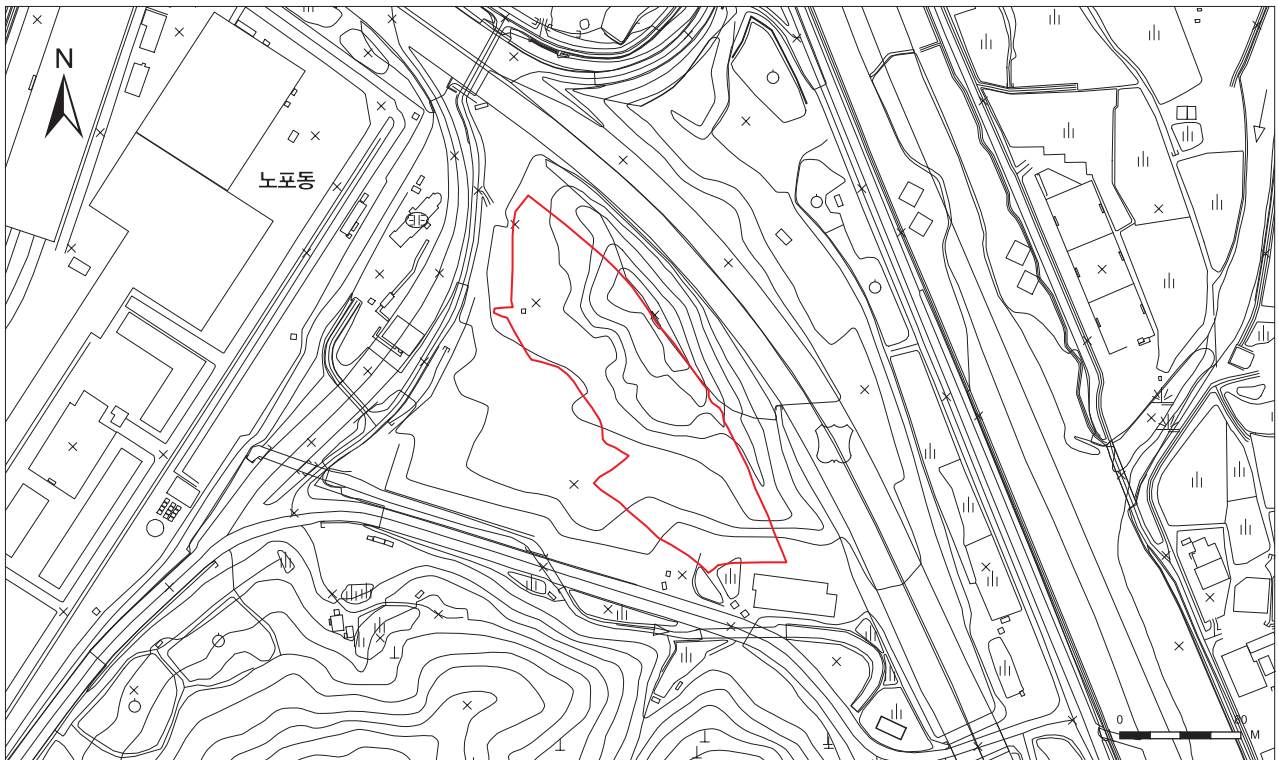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91-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시굴
1차 2013.4.~2014.12.
2차 2014.10.~2014.11.
3차 2015.2.
발굴
1차 2014.8.~2015.2.
2차 2015.3.~2015.4.
3차 2015.4.~2015.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 노형토기,
옹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일대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이며, 조사구역은 수영강 서편에 접한 낮은 독립구릉지에 해당하며 주변에는 노포동고분군, 노포동유적, 두구동유적 등 청동기~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분묘 및 생활유적이 두루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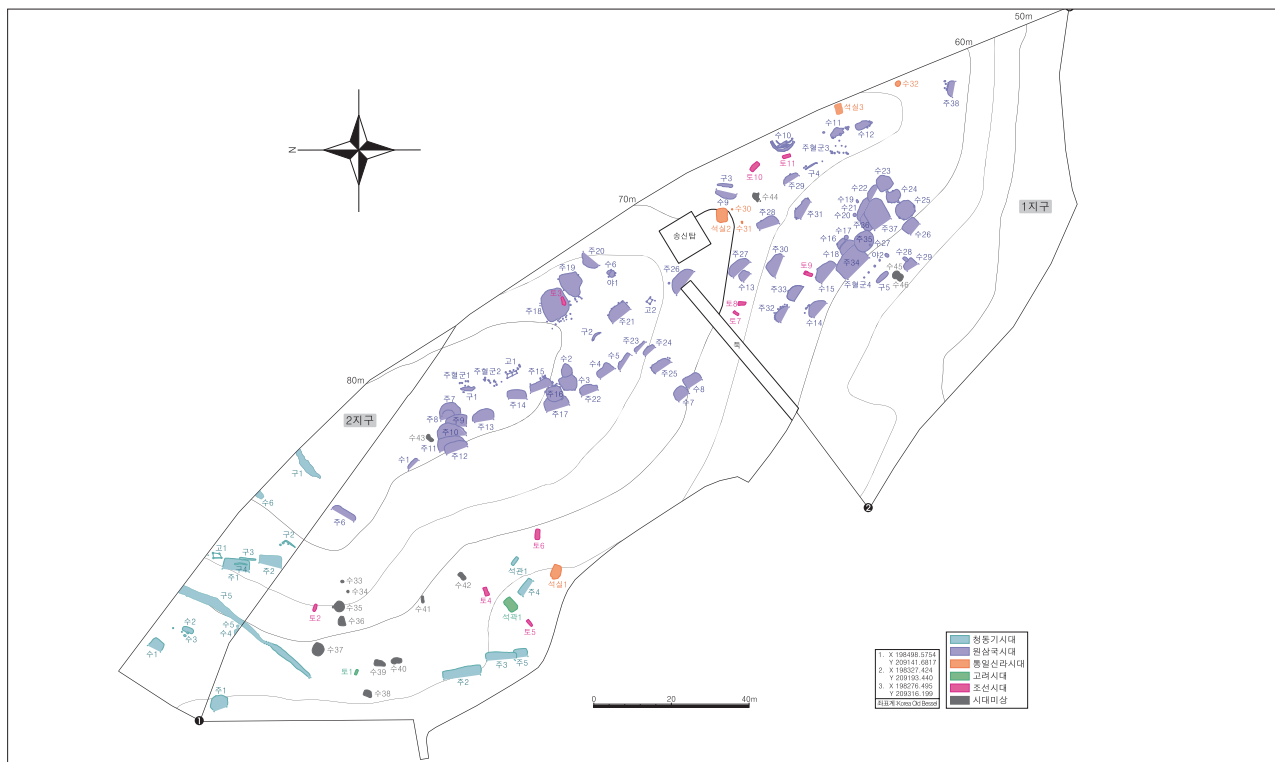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사업추진하는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부산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동양문물연구원에서 2013년~2015년에 3차에 걸쳐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청동기~삼한시대의 수혈주거지 40기, 삼한시대의 노지 2기, 구상유구 10기, 지상식건물지 3기, 삼한~통일신라시대의 수혈유구 52기,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의 석실묘 3기, 토광묘 11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삼한~삼국시대 유구로 삼국시대 주거지 33기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발 59~81m에 분포하며 주거지간 중복양상을 띤다. 평

유적 위치도

면형태는 대체로 원형, 말각방형을 띠며 입구시설과 함께 내부에는 주혈과 부뚜막과 같은 노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중복 등에 따른 증(개)축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수혈유구는 29기가 확인되었는데 방형 내지 부정형으로 다양한 규모로 확인되어 명확한 성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제의유구나 저장시설 등 크기와 내부 출토유물에 따라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와 수혈 내부에서 노형토기, 옹,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아 유적의 중심연대는 3세기 전반 정도로 추정된다. 노포동고분군과의 입지, 출토유물로 볼 때 노포동고분군 1~2기에 해당하는 노포동고분군 축조집단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근의 비슷한 시기의 두구동유적과 입지나 주거구조가 유사하게 확인되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 삼한시대 취락유적의 조사 예가 흔치않아 수영강을 중심으로 한 당시 노포동 일대 생활영역 가늠과 성격규명에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7, 『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Ⅰ지구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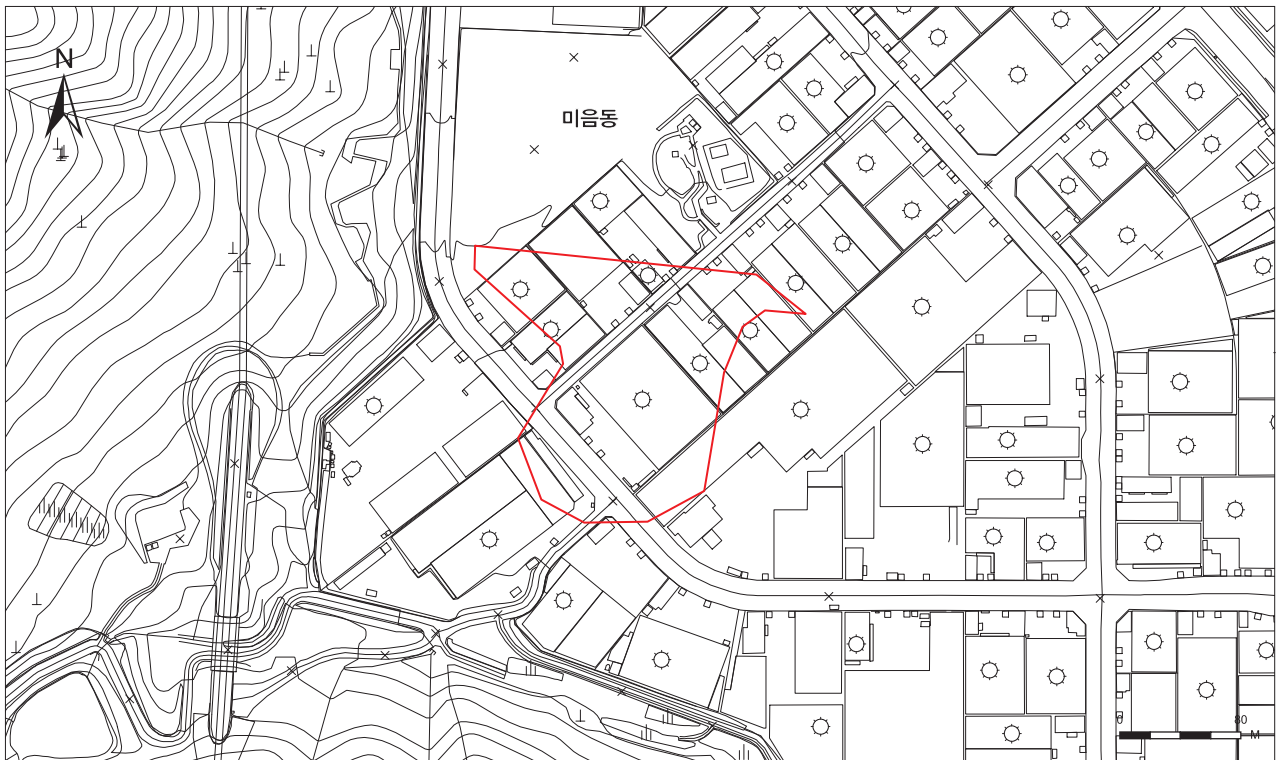
# 부산 분절패총 _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부지 내 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010-1·120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9.5.
발굴 2010.8~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유구, 소성유구,
집석유구 / 옹,
광구소호, 소형기대,
복골, 시루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일대에 위치하는 패총유적이다. 분절패총은 서쪽의 옥녀봉에서 고리산으로 연결하는 구릉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구릉 사면의 해발 10~20m 정도의 얕은 구릉 말단부로서 미음동 분절마을의 남서쪽 사면부에 해당되며, 동쪽으로 약 3㎞ 떨어져 서낙동강이 위치해 홍수 시 범람의 피해가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개발사업 조성의 일환으로 2007년 동아대학교의 지표조사를 통해 10개 지구의 발굴(시굴)조사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경남문화재연구원과 복천박물관의 시굴조사를 거쳐 경남문화재연구원, 부산박물관, 한겨레문화재연구원, 동양문물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분절패총(E지구)과 인접 지구 일부에서만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분절패총은 1992년 부산대학교의 지표조사에 의해 처음 확인되었다. 분절패총 인근에는 구랑동고분군, 분절고분군, 탑동유적 등 삼국시대 고분 및 청동기~고려·조선시대

유적 위치도

의 주거지와 건물지, 가마 등이 고루 확인되었다.

분절패총유적에서는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패총과 함께 수혈유구, 소성유구, 집석유구 등 110여 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토층조사 결과 2001년 조사된 범방유적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당시 해안선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일부 해안선이 확인되었다. 각 유구들은 패각층 상부, 패각층 하부의 퇴적층, 퇴적층 하부 기반층으로 3단계에 걸쳐 확인되었다. 패총은 출토유물을 기준으로 크게 5개 층(현대-조선시대-삼국시대 후반~통일신라-삼국시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층위상 패각상부에서는 삼국시대 석실묘 1기와 조선시대 소성유구 및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며 패총이 형성되기 시작한 구지표층에서는 총 90기에 달하는 수혈 및 주혈 등이 그 아래 기반층에서도 수혈 및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인근의 미음동 1180 일대에서도 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등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여 분절패총과 연관된 유적의 범위가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상으로 보아 4~5세기의 생활유적으로 생활용기로 볼 수 있는 토기들도 다량 확인되었으나 서쪽 구릉 고지대에 위치하는 분절고분군의 유물이 유입된 경우도 나타난다. 패총과 함께 소성유구나 집석노지 등 당시 사람들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되어 패총이 단순한 폐기만을 위한 장소로 보기보다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조성부지(E지구) 내 부산 분절패총』.

패층 분포도

동-서 토층

출토유물

29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3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5.6.~2005.12.
발굴 2006.3.~2008.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건물지, 수혈유구,
목책, 제사유구 /
장동옹, 발형토기,
외절구연고배

# 기장 청강·대라리유적 _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기장읍 중심지의 남쪽에 위치한 청강리와 대라리의 경계지점으로 기장읍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에 위치한 무곡마을의 배후 산지일대의 생활유적이다. 남서쪽의 양달산(해발 282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중턱에 위치하는 유적이다. 주변으로 청강리고분군, 청강리유적 등이 같은 능선에 분포하며 서북쪽에는 기장산성(서부리산성)이 위치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2005년 경남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시행하였고 다음해 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기장 청강·대라리유적은 총연장 500m 정도의 좁고 긴 형태로 조사지역 내에는 구릉 4개소, 곡부 3개소가 형성되어 입지한다. 총 4개 지구로 나뉘어 Ⅰ지구는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묘역, Ⅰ·Ⅲ지구는 주거지와 수혈 등의 생활공간, Ⅳ지구는 6열의 목책시설과 대형의 지상식건물지, 제사유구 등이 확인된 제사공간으로 보고되었다. 수혈주거지

유적 위치도

142기, 지상식건물지 20기, 수혈유구 403기, 목곽묘 44기, 석곽묘 4기, 제사유구, 목책 등 이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142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구릉 정상부와 사면 및 곡부에 조성되었으며 대부분 말각장방형 또는 말각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일부에서는 구들과 벽구 등 내부시설도 확인된다. 내부에서 4세기대 외절구연고배와 노형기대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적 내에는 저장혈 또는 제사유구, 폐기장의 용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수혈들도 확인되었으며 지상식건물지도 확인된다. Ⅳ지구에서는 총 6열로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상부(해발 127~136m)를 둘러싼 목책시설도 확인이 되었다. 목책 내부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주거지나 일반적인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대형 지상식건물지와 제사유구 등 제의 등과 관련한 유구의 존재로 보아 방어적인 목적보다는 목책을 경계로 내부와 외부로 분할하여 내부공간을 신성한 공간 또는 제사공간으로 구분짓는 것으로 보인다. 목책 주변 또는 중복되는 유구의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목책의 축조시기는 적어도 5세기 초반 이전에 조성되었으며, 폐기는 5세기 후반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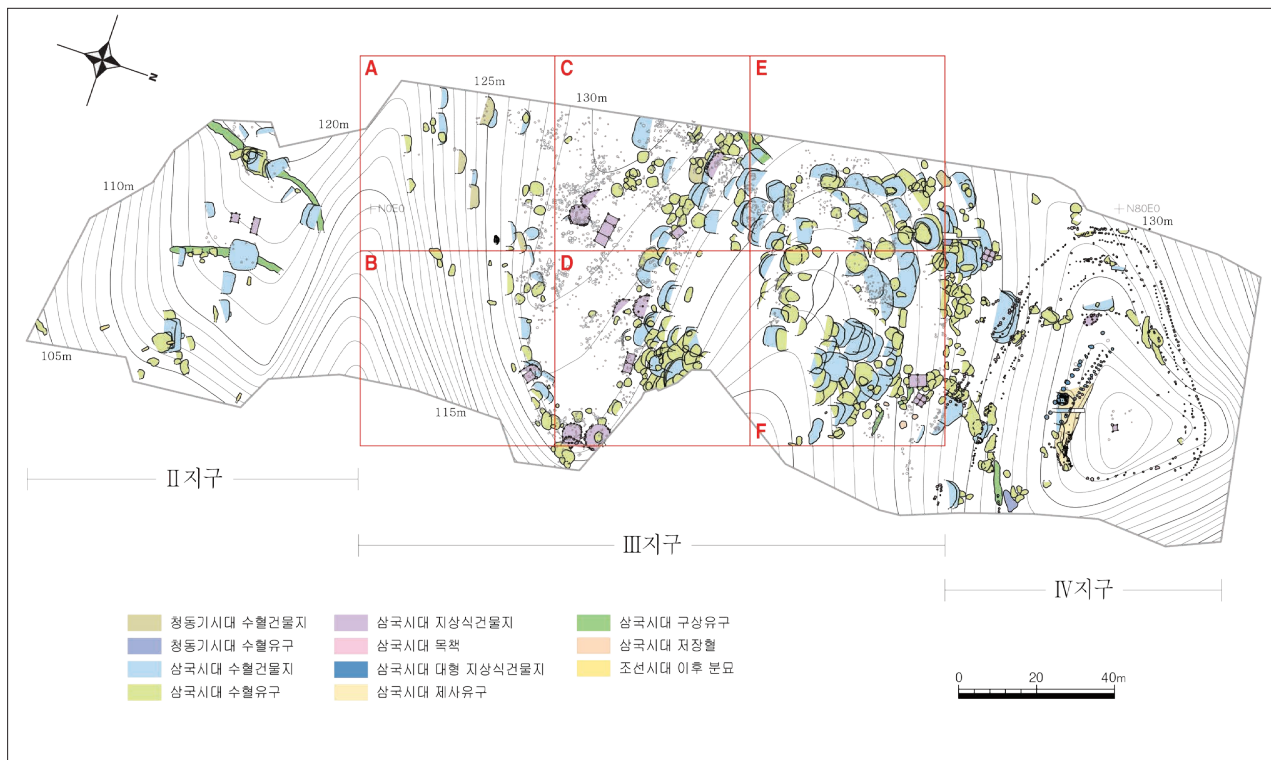
출토유물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유적의 조성 및 존속시기는 4세기의 이른 시기 또는 그 이전부터 6세기 초 정도로 보여진다. 시기에 따라 구릉을 따라 취락의 형성과 시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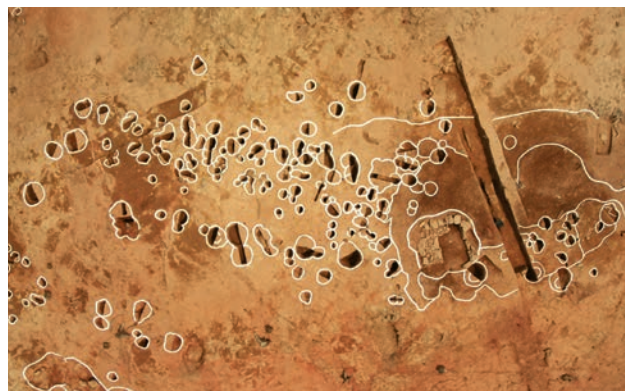
경남문화재연구소, 2010,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기장 청강·대라리유적(Ⅰ지구)』.

경남문화재연구소, 2011,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기장 청강·대라리유적(Ⅱ지구)』.

경남문화재연구소, 2011,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기장 청강·대라리유적(Ⅲ지구)』.

경남문화재연구소, 2011,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기장 청강·대라리유적(Ⅳ지구)–Ⅳ지구 및 종합고찰–』.


Ⅰ·Ⅲ·Ⅳ지구 유구 배치도

Ⅲ지구 F구역 18호 주거지

Ⅳ지구 대형 지상식건물지

출토유물

의 조성에 변화를 보이는 특징이 보이는데, 각 구릉의 공지를 중심으로 단위구역으로 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시간에 흐름에 따라 취락 중심권의 이동과 축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4~5세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서부 경남과 다른 평면형태, 구들구조, 내부시설 등이 확인되어 동부 경남지역의 수혈건물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조사구역의 한계로 취락의 전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제 주변 구릉으로 더욱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의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유적이다.

# 30

# 기장 두명리유적 _ 부산 기장 두명마을 이주단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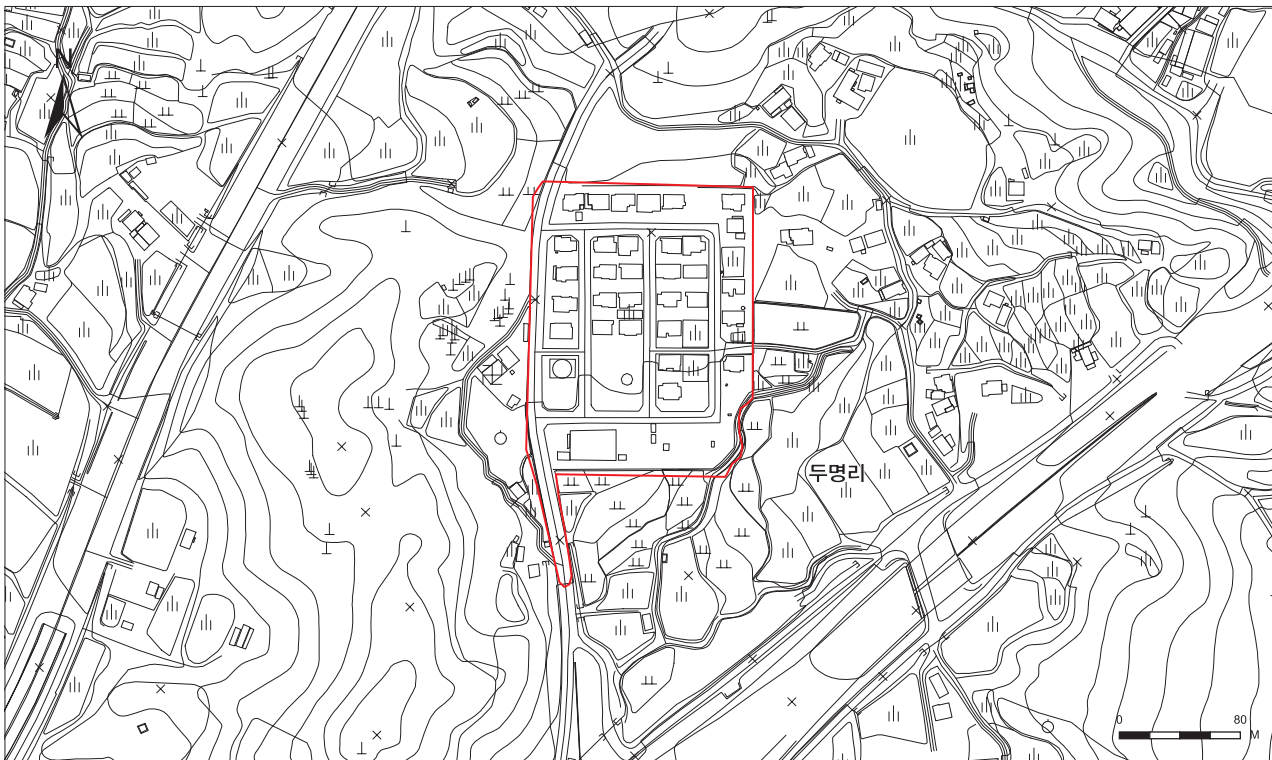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두명리 27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9.5.~2009.6.
발굴 2009.7.~2009.11.

**주요 유구 / 유물**
지상식건물지,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
점토대토기구연부,
시루저부 편

부산광역시 기장군 두명리 일대에 위치한 생활유적이다. 본 유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양산시가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수영강의 최상류역 우안에 위치하는 용천산(해발 544.2m)의 서쪽 사면 말단부에 해당되며, 침식성 저구릉과 곡부상에 입지한다. 주변의 구릉변에는 지표조사 시 보고된 월평리유물산포지, 임곡리유물산포지 등이 위치하며 본 유적도 두명리유물분포지A로 보고된 지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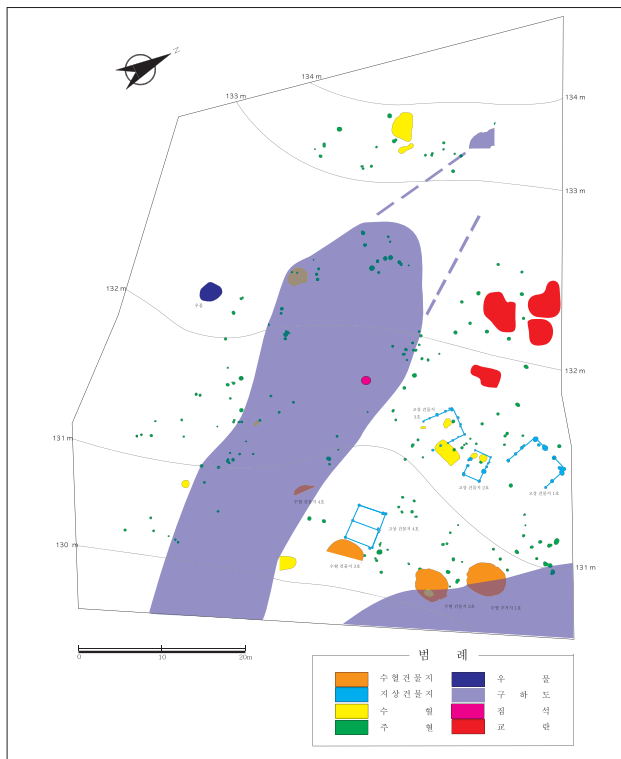
두명마을 이주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기장군의 의뢰로 2009년 우리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해 이주단지부지와 진입로를 포함한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두명리유적에서는 삼한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취락지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수혈주거지 4기를 비롯해 지상식건물지 4기, 수혈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조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당수의 주혈 등도 확인되었는데, 일부 출토 유물의 상

유적 위치도

황으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두명리유적의 수혈주거지의 경우 원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로 부뚜막 등의 시설도 확인된다. 삼각점토대토기와 타날이 된 연질토기, 기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와질토기 등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기원후 1~2세기로 추정되는데 두명리유적이 속한 동해안권(양산-울산-경주)의 수혈주거지가 대게 원형보다는 방형이 우세하지만 삼한시대 후기전반 원형계의 부뚜막형 건물지가 등장하며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며, 구들 같은 온돌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두명리유적은 울산으로 향하는 교통로상에 입지하며 인근에 다수의 유물산포지와 유적이 확인되어 이 일대에 당시 소규모 취락들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부산 기장 두명마을 이주단지내 부산 기장 두명리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호 수혈건물지

4호 지상건물지

31

# 기장 가동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9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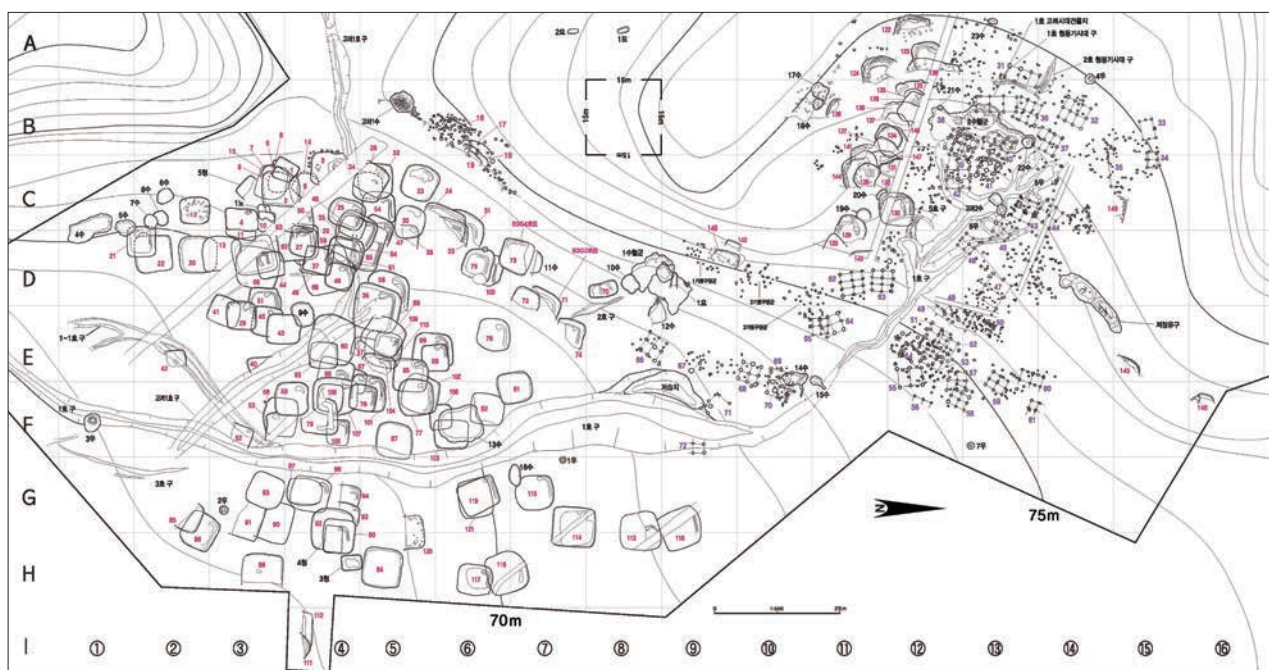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울산대학교박물관 /
시굴 2002.5.
발굴 2003.5.~2005.9.

**주요 유구 / 유물**
지상식건물지, 수혈주거지 / 장동옹,
대부장경호, 가형토기,
철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일대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이다. 본 유적은 석은덤산(해발 543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의 하단부에 위치하며, 기존에 보고된 삼국시대 가동고분군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구릉의 말단부를 따라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더 남쪽 말단에는 석실묘를 비롯한 소규모 무덤들이 확인된 방곡리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 정관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복천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근거로 한 6개소에 대한 시굴조사를 거쳐 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가동유적은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한 가동고분군과도 인접하여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비록 석실묘단계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나 지표조사 당시 구릉의 상부에서 이른 시기의 유물들로 수습되어 구릉의 상단부에는 이른 시기의 유구의 존재를 유추해볼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수 있다. 가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수혈식주거지 150기, 지상식건물지 75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저습지도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경우에는 밀집해 분포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유적이 형성되어 사용되어 유구의 중복이 많다. 유구의 배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상식건물지와 수혈식주거지와는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상식건물지의 용도나 성격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의 북쪽과 서쪽에 해당하는 구릉과 인접한 완만한 곡부지형에 굴립주의 지상식건물지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지형에는 주거지가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나타낸다.

지상식건물지와 저습지는 대개 5세기대 형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굴립주의 지상식건물지들은 전형적인 형태인 9주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으며 당시 사용된 나무기둥들이 박힌 채 확인되기도 하였다. 유구의 배치상황을 보면 주거단위별 개별적인 저장고보다는 공동관리용의 저장시설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혈식주거지는 대부분 말각방형의 평면형태로 출입구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존에 알려진 가형토기로 비교해 보아 사다리를 이용한 출입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취사를 위한 아궁이와 난방과 배연을 위한 고래가 확인되었다. 3세기대로 편년되는 노형토기가 128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그 상한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그 예가 단편적이라 대체로 4세기를 시작으로 부가구연장경호가 출토되는 주거지 등을 보아 6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습지에서는 목제신발과 함께 다양한 목제유물들과 종실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가동유적은 정관지역 하천 주위 구릉변에 청동시대부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소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주거지 및 저습지 등에서 확인된 식물유존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4세기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방곡리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2008,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가동유적Ⅰ』.

울산대학교박물관, 2009,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가동유적Ⅱ』.


유적 전경

38호 주거지

굴립주 주혈

# 32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5·청광리 산3·16-7·원리 산12-2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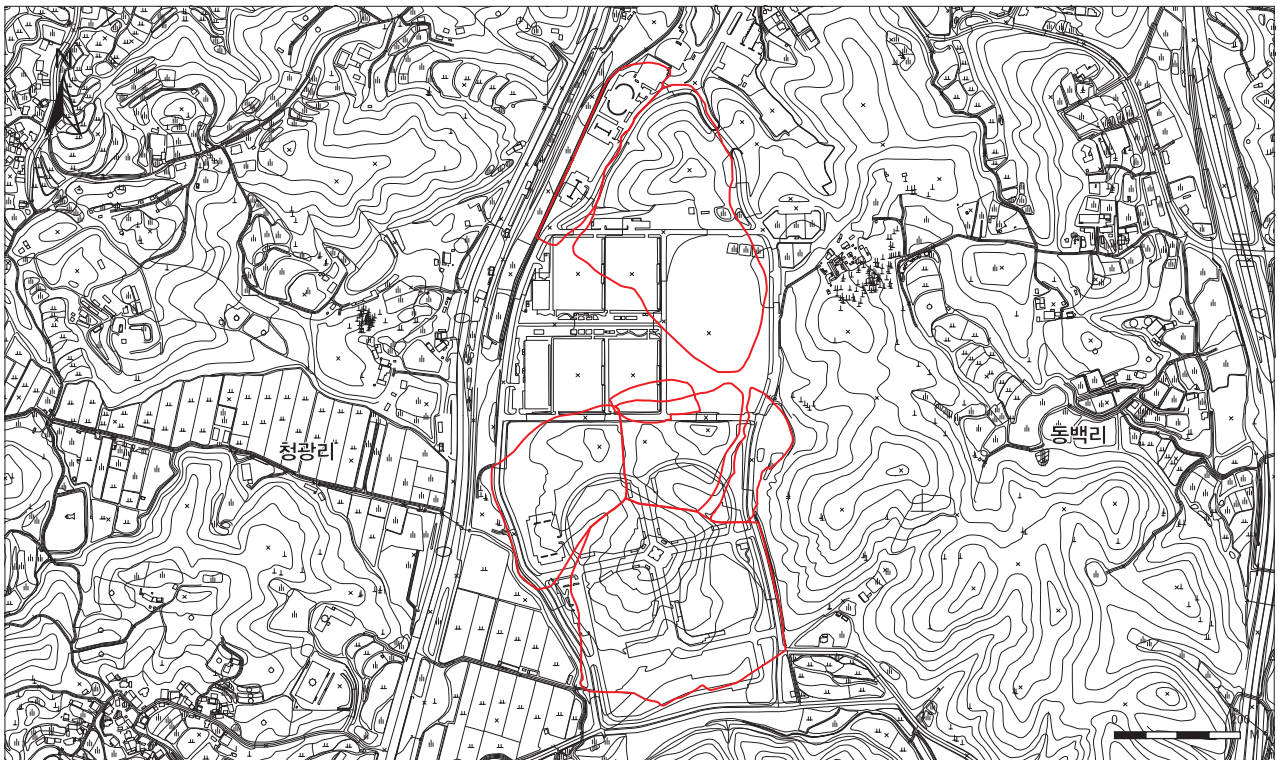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9.4.~2010.1. 발굴 1차 2009.8.~2009.11. 2차 2010.4.~2011.8.

**주요 유구 / 유물**
지상식건물지,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 고배, 발형기대, 시루

# 기장 동백리유적 _ 기장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청광리, 원리 일대 등에 걸쳐 위치하는 생활유적이다. 아시아드CC의 북쪽으로 울산방향의 14국도 동편에 위치하는 독립된 저구릉성 산지 및 곡부 일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현재는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가 조성되어 있다.

기장군에서 시행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표조사로 총 6개 구역(A~F구역)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이에 사업시행전 5개구역(A~E구역)에 대해 시·발굴조사에서는 3개 지구로 재구분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Ⅰ지구는 C구역, Ⅱ지구는 A·B·D구역, Ⅲ지구는 B구역 고분군, E구역은 시굴조사 시 완료).

동백리유적에서는 총 43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Ⅰ·Ⅱ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생활유구, Ⅲ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매장유구, Ⅳ지구에서는 삼국~조선시대의 생산·생활유구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삼한시대 석관묘 1기를 비롯해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가 43기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30기, 지상식건물지 9기, 구상유구, 가마 등과 조

유적 위치도

선시대 수혈건물지 22기를 비롯한 생활관련 유구들이 다수 확인되어 분묘군을 배후로 한 오랜시간 조성된 단위취락이다.

수혈주거지는 일부 방형 또는 원형도 확인되지만 대부분 말각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내부에 벽구, 주혈, 구, 구들시설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 내에서는 장란형토기, 시루, 호 등의 생활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생산시설로는 가마 2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된 토기가마이다. 가마는 지하식등요로 아궁이와 연도는 유실되었으나 소성실, 연소실, 요전회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가마의 남동쪽에는 지상식건물지, 수혈, 구 등이 위치하여 가마 등과 관련한 공방지 등의 생산관련 시설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Ⅱ지구에서는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호와 목책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환호는 2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호의 경우 잔존둘레 128m 최대직경 43m 정도로 단면은 'U'자상으로 굴착되었다. 입구부로 추정되는 부분에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목책은 환호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열을 지어 여러 줄 설치되었다. 환호 내부에는 별도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방어의 용도보다는 의례 또는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4~6세기를 중심으로 한 취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Ⅲ지구에서 2세기대의 석관묘가 일부 확인되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형보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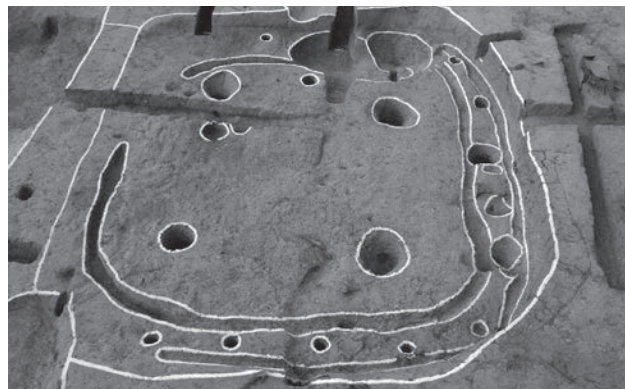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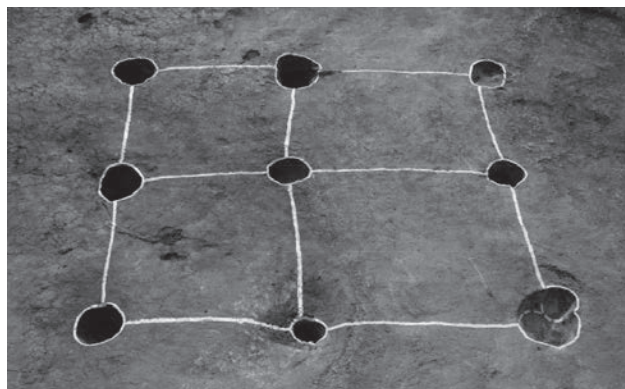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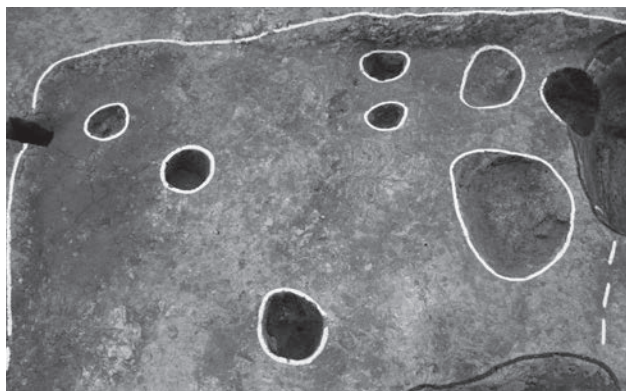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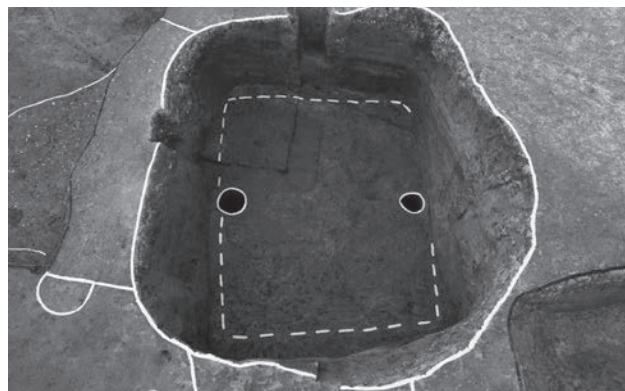
Ⅰ지구 유구 배치도

간에 관련 2세기대의 유구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의 유물산포지의 분포나 북동쪽의 평탄지의 지형을 살펴보면 취락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근의 기장 청강·대라리유적 취락과 같이 저구릉성 산지를 중심으로 일정 공간에 생활, 생산, 분묘의 공간분할이 나타나는 고대의 특징적인 취락유적으로 당시의 부산 기장지역의 취락 구성과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4, 『기장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조성 부지 내 기장 동백리유적』.

Ⅱ-1지구 전경

Ⅰ지구 9호 수혈건물지

Ⅰ지구 1호 지상식건물지

Ⅲ지구 6호 석곽묘

Ⅲ지구 7·7-1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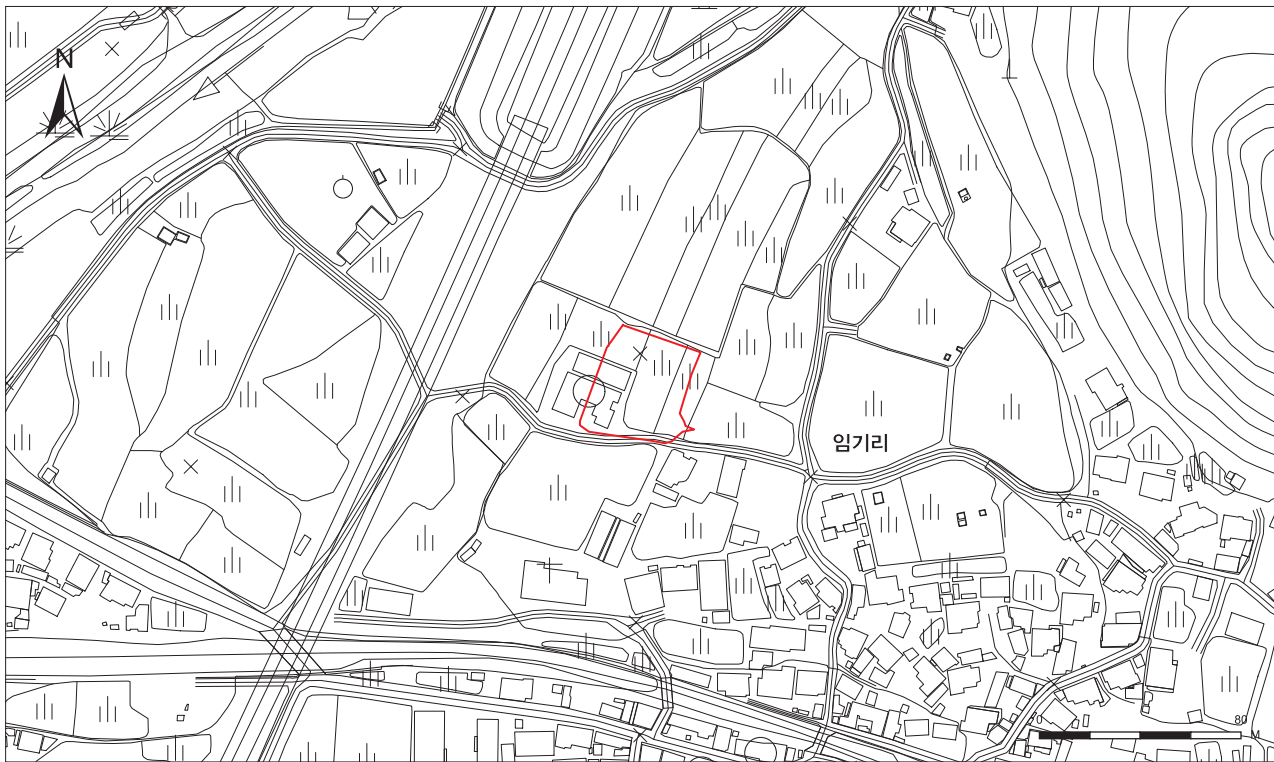
# 33 기장 임기리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571-4·용수리 6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시굴 2004.2.
경남문화재연구원 / 발굴 2004.11.~2005.5.
부경문물연구원 / 발굴 2014.8.~2014.9.

**주요 유구 / 유물**
지상식건물지, 수혈유구, 소성유구 / 고배, 개, 시루, 장동옹, 철정, 철도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및 용수리 일대에 위치한 생활유적이다. 본 유적은 철마면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백운산(해발 550m) 중턱에서 발원한 임기천이 수영강으로 합류되는 선상지상의 하안단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임기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이전 경부고속철도 구간 내 지표조사 시 임기리유물산포지B로 보고된 영역의 일부에 해당하며 임기마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의 구릉에는 임기리고분군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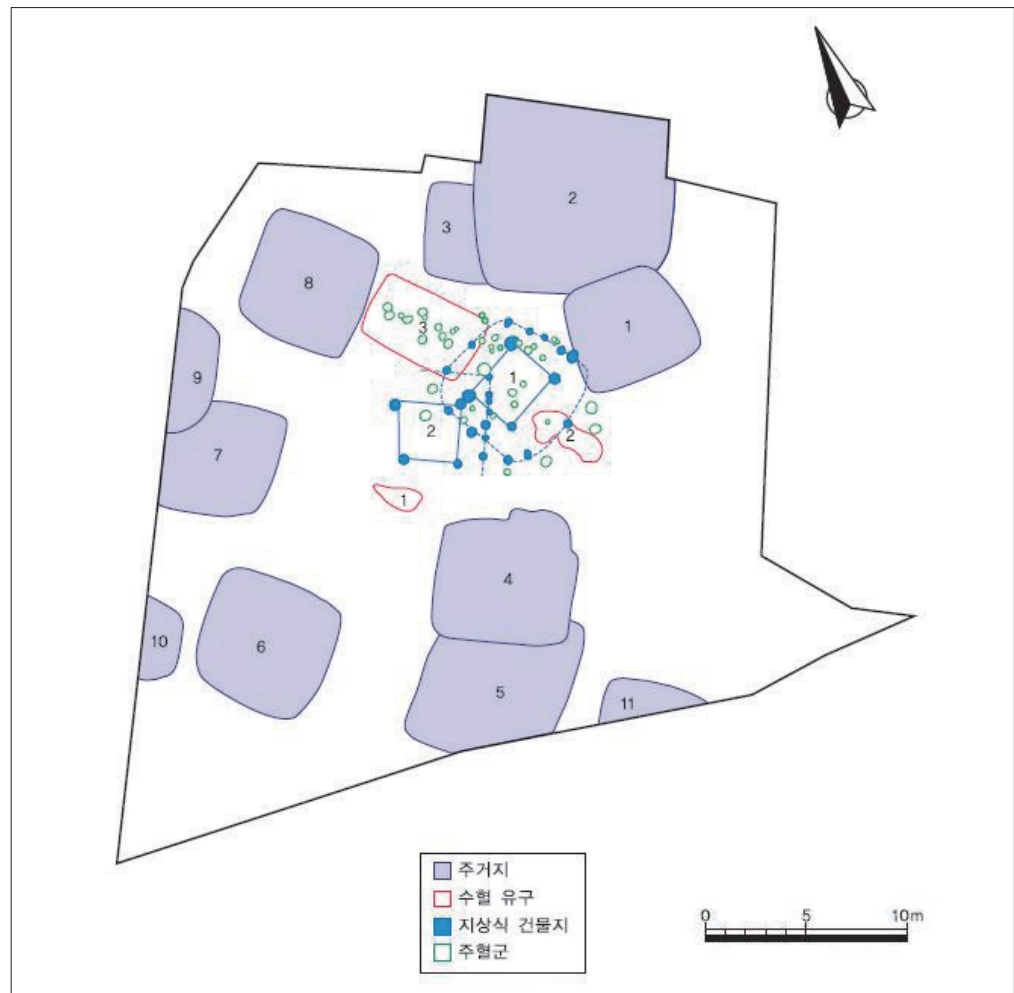
1996년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시행하는 고속전철 노선구간이 임기리유적 일대가 포함됨에 따라 시굴조사를 거쳐 2004년 경남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되었다. 또한 임기리 662번지 유적의 경우 기장군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표본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 등이 확인되어 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 유구가 다수 중첩되어 밀집분포한다.

유적 배치도

임기리유적은 실제 조사된 면적이 그리 크지 않아 정확한 성격 구명이나 범위는 알 수 없으나 교통로상의 입지나 지형과 임기리유물산포지A·B, 임기리고분군 등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정범위를 가진 단위취락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임기리 662번지 유적에서는 수혈식주거지 11기와 지상식건물지 2기, 다수의 수혈유구들이 확인되었고 이전의 경부고속철도 구간 내 조사된 임기리유적의 경우는 삼국시대 수혈유구 2기와 소성유구 10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4~6세기 영남 동부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방형주거지로 4주식 구조와 벽체, 구들, 출입구시설 등 가지고 있다. 전체 유적 중 극히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 취락의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인근의 기장 가동유적이나 양산 명동유적 등의 예로 보아 지상식건물지와 주거지가 인접하여 분포하는 점에서 주거지역의 외곽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 생산, 저장 등의 공간을 분할하여 취락을 조성하고 인근 유적과 마찬가지로 취락 배후 구릉 상에는 해당시기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취락 주변으로 충적대지가 펼쳐져있어 대규모 농업생산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내 기장 임기리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2004, 『경부고속철도 양산-부산구간 내 임기리 노포동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부경문물연구원, 2016, 『기장 임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부지 내 기장 임기리 662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곡간 충적지 일대에는 일정 간격으로 대단위의 취락 유적과 고분군 등이 확인되는데, 최근에는 노포동·두구동에서 대규모 삼국시대 취락이 확인되어 당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체의 근거지로 보기도 하며 이에 임기리유적은 노포동·두구동 일대의 고분 및 취락 조성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집단의 거점 취락 중 하나로 추정하기도 한다.

유적 전경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34

# 고촌유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138·241·155-2 일대·안평리 584-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4.12.~2005.5.
발굴
1차 2005.7.~2007.4.
2차 2006.6.~2006.1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8.1.~2008.12.
부경문물연구원 /
시굴 2011.10.~2011.11.
발굴 2011.11.~2012.2.

**주요 유구 / 유물**
지상식건물지, 도로, 원지, 구상유구 / 목제 농공구, 칠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으로 기장군의 서단에 위치하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기장군으로 향하는 14번국도의 북편에 위치하며,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해발 99.8m의 구릉 남사면 말단부의 선상지와 그 주변 계곡 일대에 해당한다. 유적 근처로는 북동쪽에 위치한 일광산(해발 376.3m)에서 발원한 안평천이 국도와 접해 동-서로 흐르고 있다. 유적의 서쪽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내려가면 고촌리고분군이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안평리유물산포지, 신리지석묘, 신리유적 등이, 동쪽 고개 너머로는 청강리, 대라리, 서부리, 교리 등지에 삼국~조선시대 유적이 밀집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부산 고촌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경남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총 4개소(고평A, 고평B, 고촌A, 고촌B)의 문화유적이 유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굴조사를 거쳐 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Ⅰ·Ⅲ지구는 경남문화재연구원이, Ⅱ지구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조사를 하였다. 이후 2011년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안평역 환승시설 조성을 위해 기 조사된 고촌유적의 남쪽에 인접한 안평리 584-8일대에 대해 부경문물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촌유적 크게 3개 지구로 나뉘어 발굴조사 되었는데, Ⅲ지구는 유적의 북쪽에서 내려온 구릉의 곡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고려~조선시대의 유구가 중심을 이루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석실묘 1기만 보고되었으며 Ⅰ·Ⅱ지구에서 삼국시대 생활·생산유구가 확인되었다. 일부 청동기시대 토광묘와 구상유구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지상식건물지 61기, 다수의 각종 수혈유구, 주혈군, 공방지, 소성유구, 구상유구, 도로유구, 원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종유구가 유적 전체에 고루 확인되어 단위취락의 일면을 확인할 수가 있다. Ⅲ지구의 구릉 말단부와 곡간부 경계부에는 지형상 저습지가 형성이 되어있었는데, 공방지, 소성유구와 함께 목주가 주간격 1.8~2m으로 설치되어 약 13m 까지 잔존한 대형 목주유구도 확인되는 등 생산활동과 관련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입지상 안평천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안평천의 범람 등 불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물의 공급이 용이한 곳에 생산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적 내 유구의 배치로 보아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취락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적 내 삼국시대 유구는 4세기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통일 직전인 7세기 중반경까지 이어져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크게 3기(1기-4세기경~, 2기-5세기 이후~, 3기-~통일기 전)로 나누어 보고 있다. 대부분의 지상식건물지는 2기에 해당하며 1기의 수혈유구들을 파괴하고 들어서 상당부분 증(개)축을 거치며 연속적으로 조성되며 3기

에 이르러 지상식건물지도 폐기되며 도로유구, 원지, 구상유구 등 대규모 시설물이 축조되면서 폐기되는 수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甲'자명 토기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이 지역이 경주로의 정치적 편입과도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부층이나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구와 유물들을 살펴보면 일부 성격의 변화나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통일신라~고려, 조선시대로까지 생산과 관련한 유구가 계속적으로 확인되어 오랜시간 동안 취락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실생활토기 외에도 저습지와 공방지 내에서 목재부재와 각종 목제농공구, 칠기 등 당시의 생활상과 밀접한 유물들도 다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도로유구는 Ⅰ지구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형태로 확인된 규모는 총연장 300m 이상이며, 너비는 2.2~6m이다. 노면은 할석을 채워 포장하였으며, 너비 1.7m의 차륜흔이 확인된다. 그리고 저습지부분을 지나는 도로는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측구가 확인되기도 하며 노면이 6m로 넓어지며 측구가 없는 부분은 침하방지를 위해 긴 자연목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놓아 노면을 조성하였다.

고촌유적은 삼국시대 주거와 생산이라는 당시의 문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당시 중심지인 거칠산국에 예속된 장인집단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부산 고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촌유적(Ⅲ지구)』.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부산 고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촌유적(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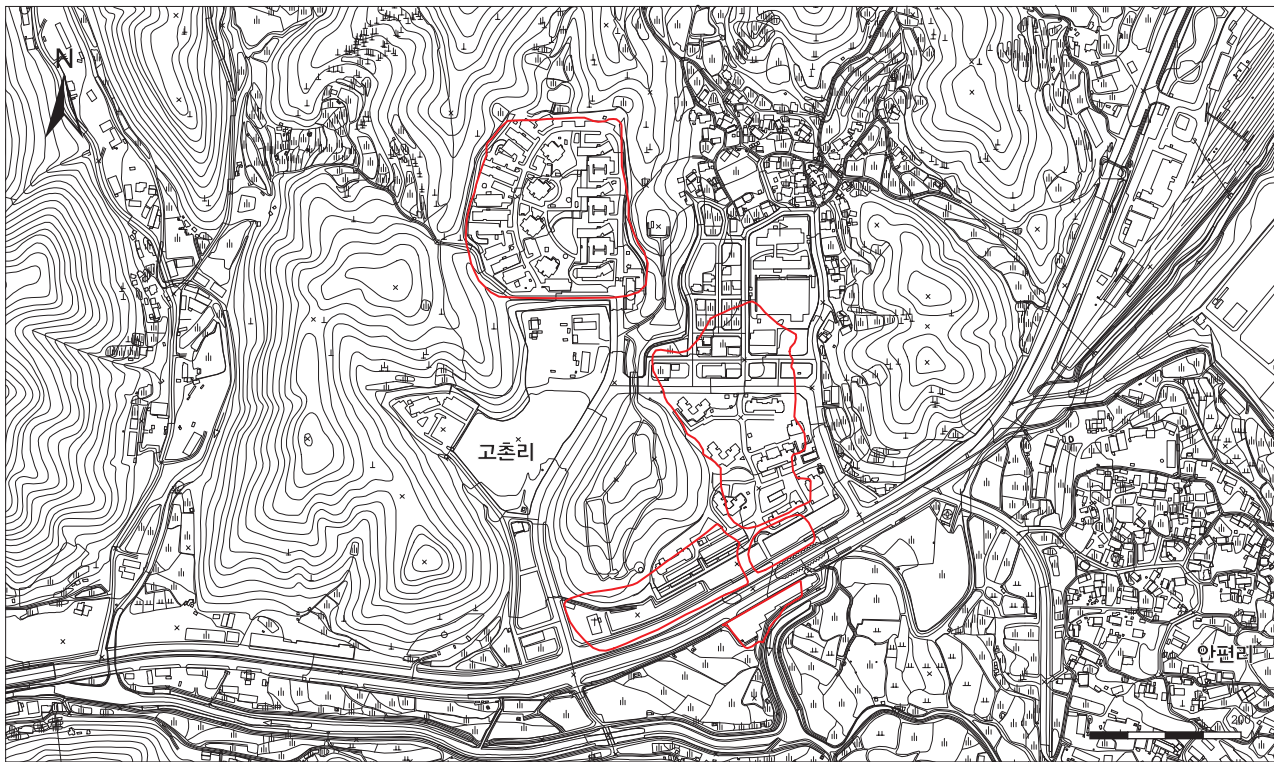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Ⅱ기 대형목주열

2호 지상식건물

출토유물

# 35

# 부산 회동동유적 _ 부산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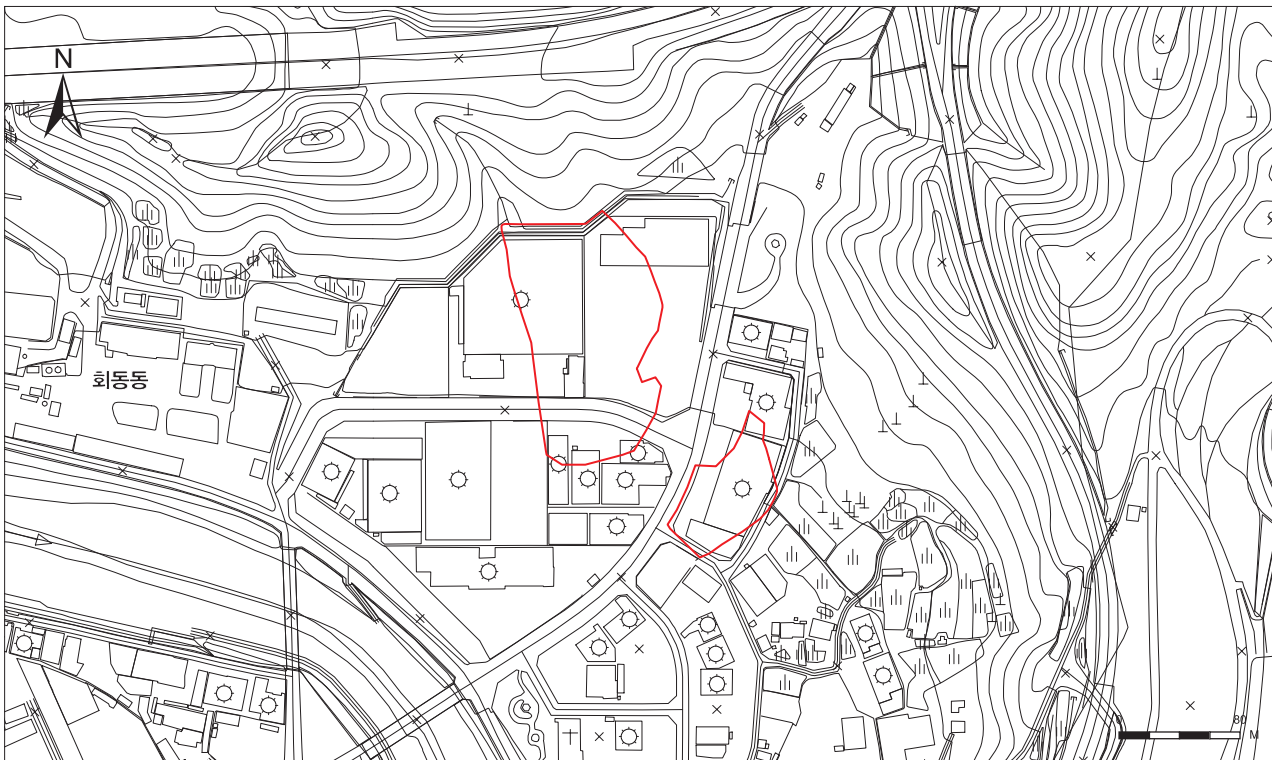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시굴 2011.4.
삼강문화재연구원 / 발굴 2011.6.~2011.9.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토기가마 / 장경호, 단경호, 파배, 고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된 생활 및 생산유적이다. 동쪽으로 운봉산(해발 259m), 서쪽으로는 운산(해발 317.3m)이 위치하며 유적은 그 사이 해발 122m의 낮은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해당된다. 서쪽으로 수영강이 접해있는데, 수영강은 양산시의 원효산에서 발원하여 유적의 북족 회동저수지에 집수된 후 남쪽으로 흐른다. 주변으로 오륜대유적, 회동동고분군, 반여동유적 등 다수의 유적들이 위치한다.

㈜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의 부산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동양문물연구원에서 2011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조선시대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같은 해 삼강문화재연구원(2구간)과 울산문화재연구원(1구간)에서 구간을 나누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구간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의 주거지와 분묘들이 확인되었으며 2구간에서만 삼국시대의 수혈유구와 가마가 확인되었다.

2구간에 해당하는 회동동유적은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는데, 무문토기시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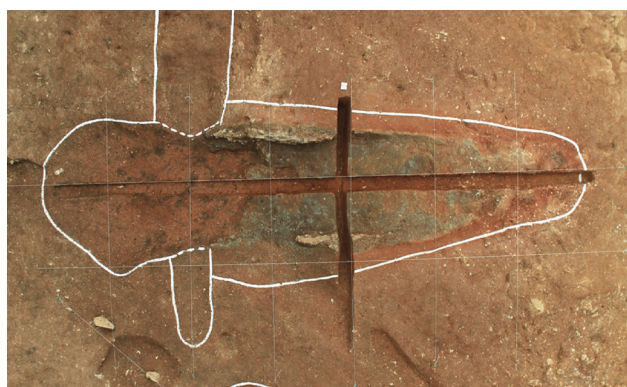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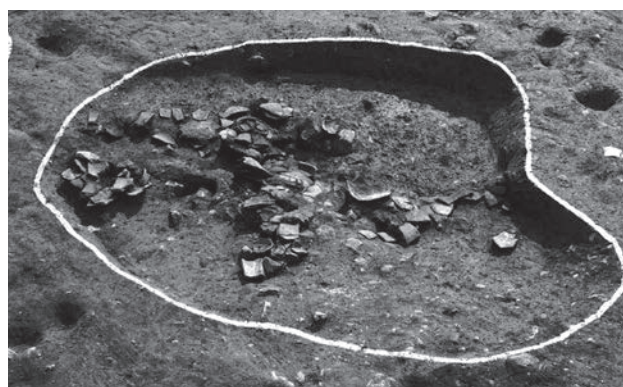
수혈주거지를 비롯해 조선시대 건물지, 민묘 등과 삼국시대 수혈유구 4기와 가마 1기, 주혈들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의 유구는 대부분 1구역 내의 남동쪽 말단부에서만 집중되어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등고선과 직교하게 설치되어있는데 상부의 대부분이 유실되었으나 화원부, 연소실, 소성실, 연도부의 기저부가 확인된다. 수혈유구는 평면형태 부정형으로 가마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내부에는 다수의 토기 편들이 출토되고 있어 폐기장 또는 생산과 관련한 시설로 추정된다.

조사구역이 협소하여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인근에 다수 존재하는 분묘유적과 무문토기시대 주거유적들의 존재들로 보아 삼국시대까지도 이어지는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1, 「회동석대· 도시첨단 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지도위원 회의 자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3, 『부산 회동동 유적 –부산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2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유적 원경

2구역 15호 가마

1구역 70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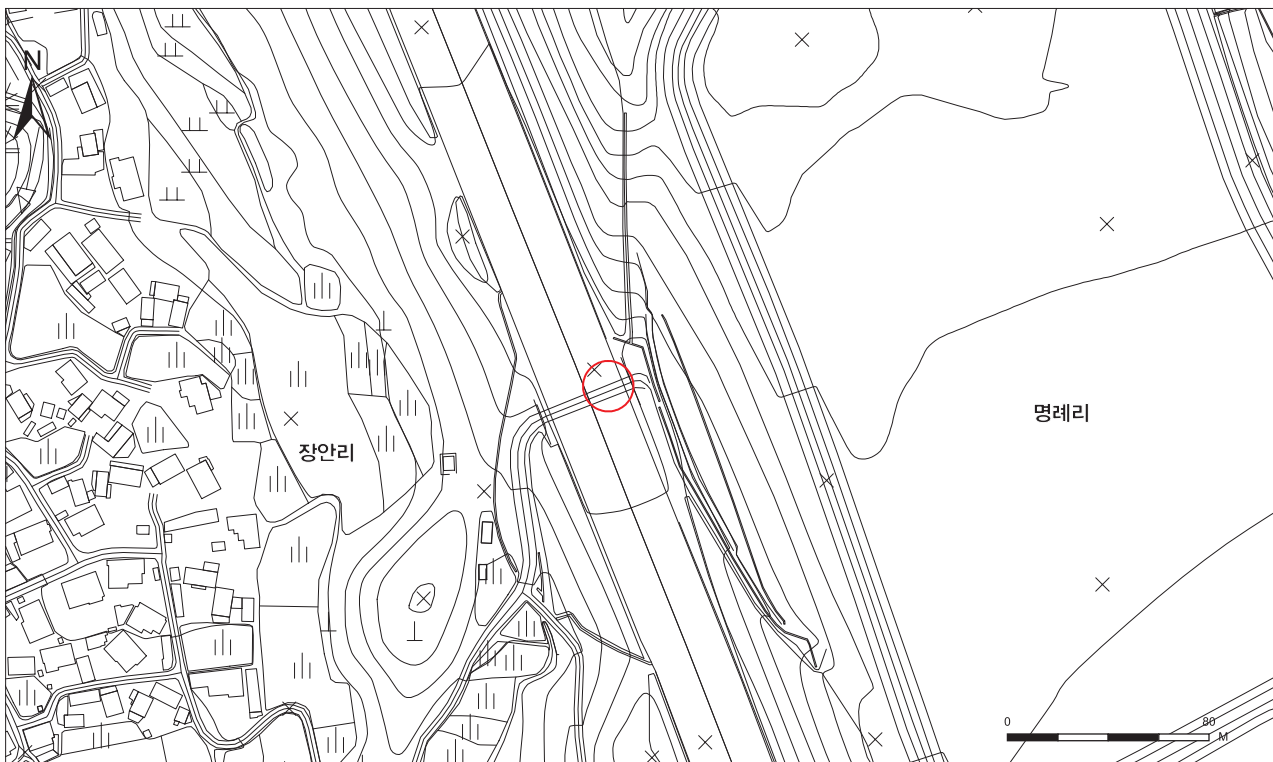
36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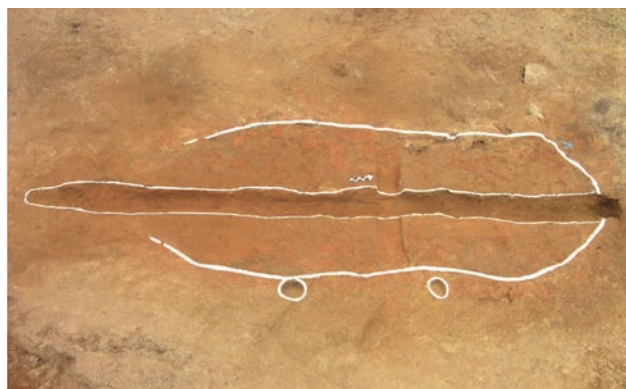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중앙문화재연구원 /
2004.7.~2004.9.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 대형호 편

부산~울산간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제5공구 구간에 해당하는 완만한 평탄지에 입지하는 생산유적이다. 공사 이전에 이미 대부분 지역이 개간 평탄화 작업을 거쳐 정리가 된 곳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2002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2개소(장안리, 기룡리)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이에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조사 결과 기룡리산포지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장안리산포지에서는 토기가마 1기와 추정폐기장 1기가 보고되었다. 이미 후대의 경지 정리로 상당부분 원지형이 훼손되어 유구 자체도 많이 교란된 상태이다. 확인된 가마는 규모 길이 1.97m, 너비 0.64m로 소결된 소성실의 바닥과 그 하부의 중앙 배수구가 잔존하였다. 가마 내에서

유적 위치도

하장안 토기요지 근경

하장안 토기요지 Tr.9

가마

추정 폐기장

는 다수의 대형 호 편이 출토되었다. 가마 주변으로 일부 주혈이 확인되었으며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유구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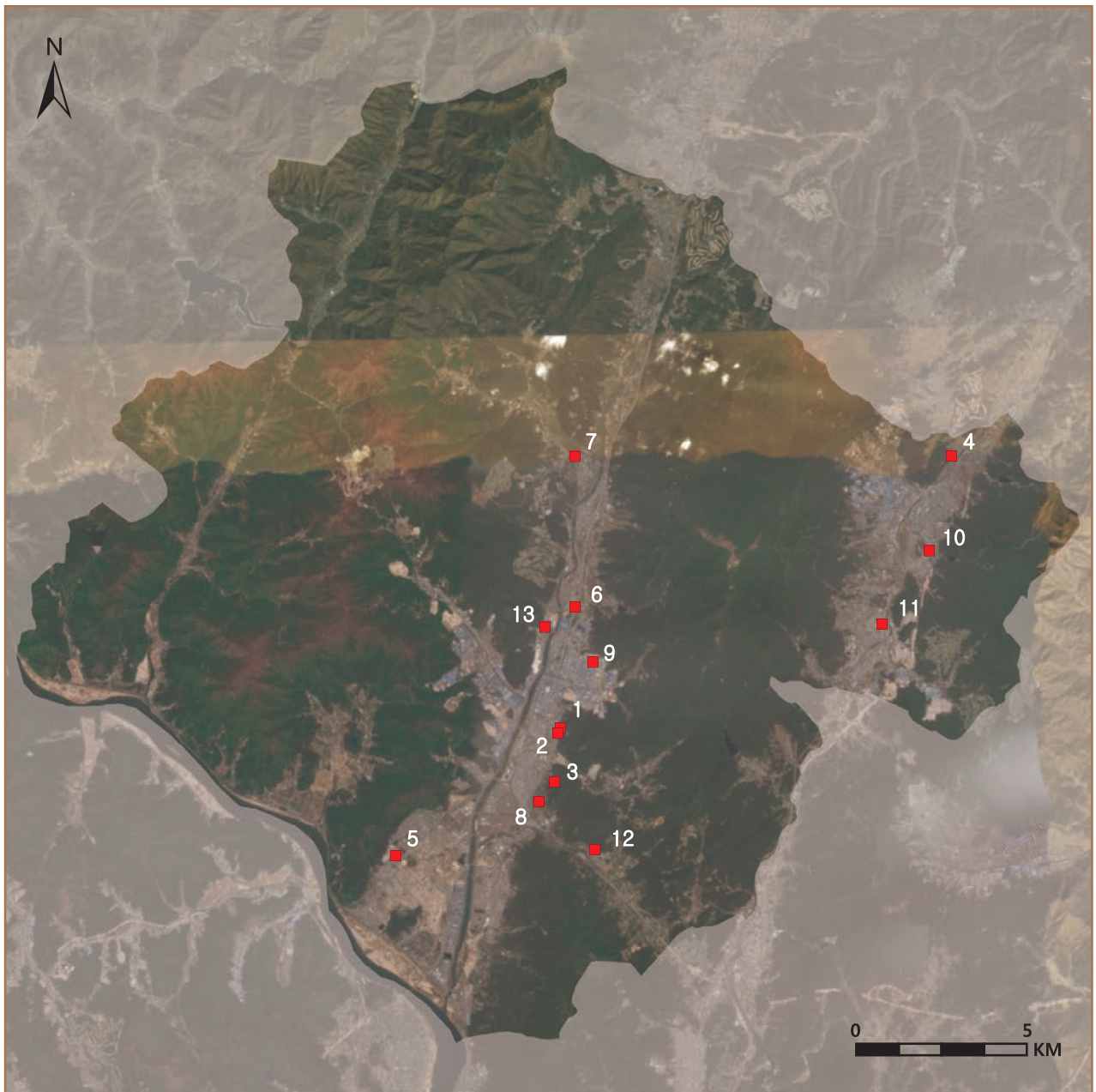
후대의 경지 정리로 인해 상당부분 원지형이 훼손되어 가마의 하부시설만 확인되었지만 인근의 유물산포지나 취락유적 존재, 지형상 입지를 살펴보면 취락 등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참고문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5공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姑射山
鼎足山
通度寺
鷲棲山
弓弗山
甘勿里山
渭川
圓寂山
北川
黄山
城皇山
梁山
德山
黄山江
孤浦津
甑山
東院津
何月
神魚山
三叉河
佛岩津
漕轉
蒜山
雲峯山
金馬山
梵魚寺
甘同
輪山

# Ⅲ. 양산

01

# 양산 북정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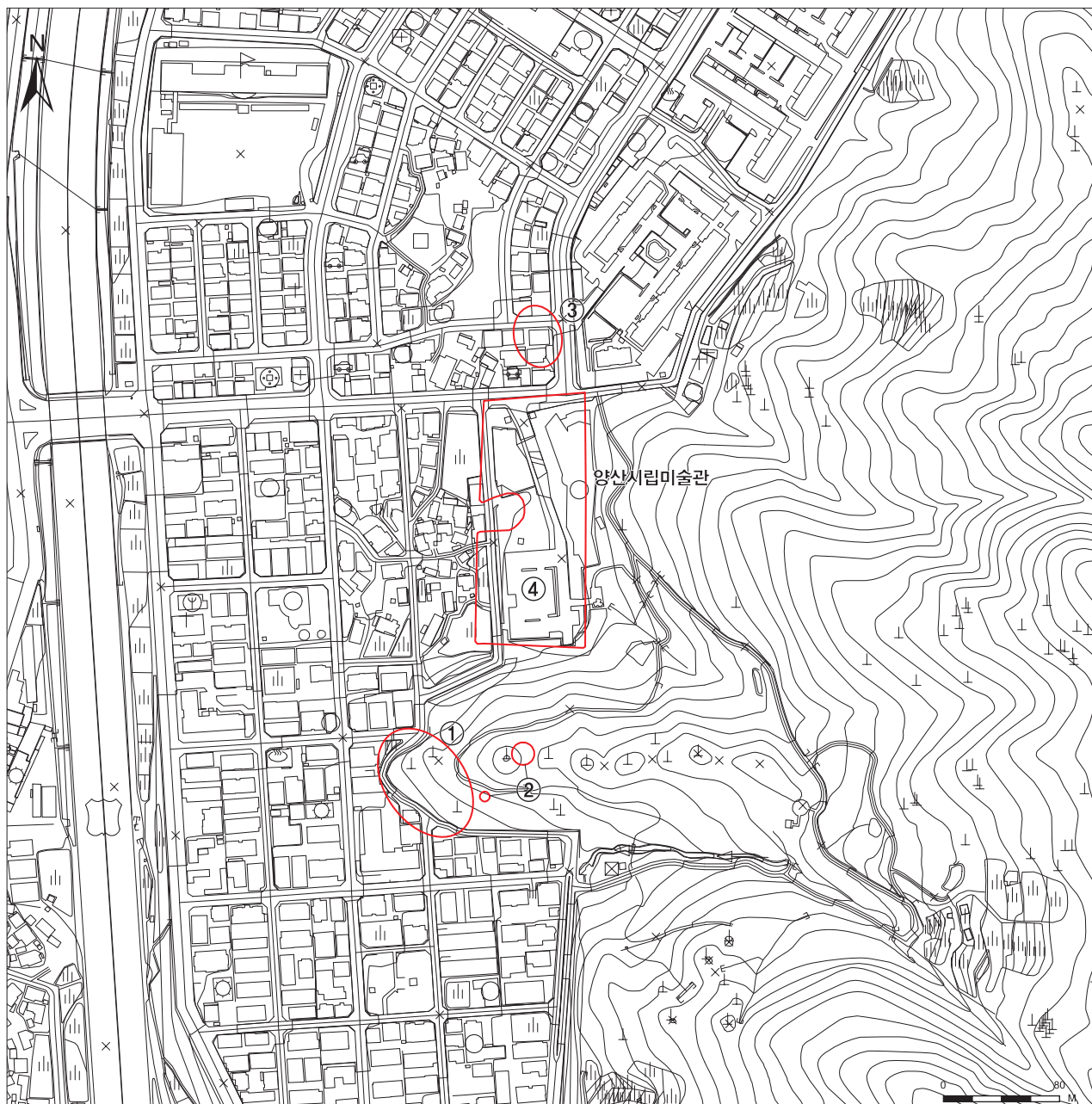
## 梁山 北亭里古墳群

| 사적 제93호

양산 북정리고분군은 천성산에서 남으로 뻗은 구릉을 따라오다 호계봉(해발 597m)을 지나 성황산(해발 332m)에서 서쪽으로 돌출된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구릉 능선 정상부를 따라 18기의 봉토고분이 줄지어 배치하고 있으며, 구릉상에서 내려다 보면 양산천 좌우로 형성된 넓은 충적대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고분의 배치는 구릉 정상부를 따라 대형 봉토분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중소형 봉토분과 봉분이 남아있지 않은 소형분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구릉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신기동의 뒤 능선에는 사적 제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기리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삼국시대 가야와 신라의 접경지대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낙동강 하류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거점이었다. 양산 일대에는 대형 봉토고분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정리고분군은 양산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고분군으로 횡구식석실을 주 묘제로 하는 낙동강 하류지역 최대규모의 고분군이다.

북정리고분군의 최초 조사는 1920년 일본인에 의해 양산 부부총이란 이름으로 14일간 발굴조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1990년 도시계획에 따라 고분군의 일부가 사적에서 해제되어, 해제된 부분과 부부총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32기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그 후 1991년 하북정고분군 일대가 택지개발되면서 역시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5기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2008년에는 양산시의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라 한국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25기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북정리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들은 대부분 횡구식석실로 부부총과 같이 안벽 쪽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중앙부에 관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구릉 아래쪽에 위치한 하북정고분군의 일부는 거의 횡혈식석실에 가까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북정리고분군과 신기리고분군을 통해 무덤의 배치를 살펴보면, 수혈식석곽은 신기리고분군의 해발 30~50m 사이 구릉 아래에서 일부 확인된다. 횡구식석실은 대체로 구릉 내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석실의 평면 형태가 방형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구릉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특징을 가진다.

북정리고분군은 5세기에서 7세기까지 수혈식석곽묘에서 횡구식석실묘로의 무덤구조 변화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신라적인 경향이 훨씬 강하지만 평지에 입지하는 신라고분에 비해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에 입지하는 입지조건은 가야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양산지역의 정치적 영역이나 문화교류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친신라계인 이 지역 최고지배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 연번 | 유적명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보고서명 |
|---|---|---|---|---|
| 1 | 양산 북정리고분군 |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0.4.~1990.5. | 양산 북정리고분군(1994) |
| 2 | 양산 금조총·부부총 |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0.4.~1990.9. | 양산 금조총,부부총(1991) |
| 3 | 양산 하북정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1.8.~1991.10. | 양산 하북정유적(1992) |
| 4 | 양산 북정동 683번지 유적 | 한국문물연구원 | 2008.1.~2008.8. |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부지 내<br>북정동 683번지 유적(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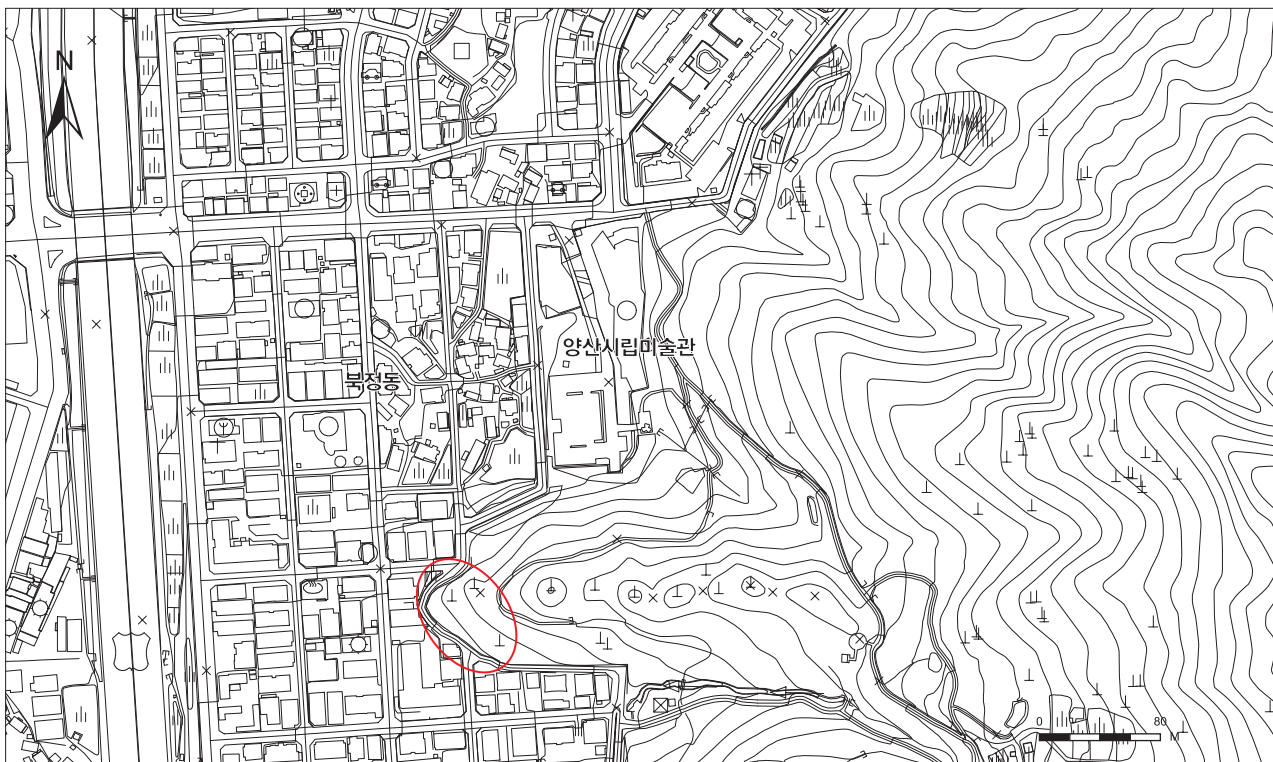
# 01-1 양산 북정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산4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0.4.~1990.5.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고배,
기대, 금동관 편, 환두
대도

양산시 동북쪽의 동남향으로 뻗은 천성산 서쪽사면에 형성된 대규모 고분군으로 구릉 위쪽의 정선부에는 대형 봉토고분이 입지하고 있고, 그 아래 사면에는 중소형분이 입지하고 있다. 고분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축조되었으며,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구릉 말단부쪽에 중소형분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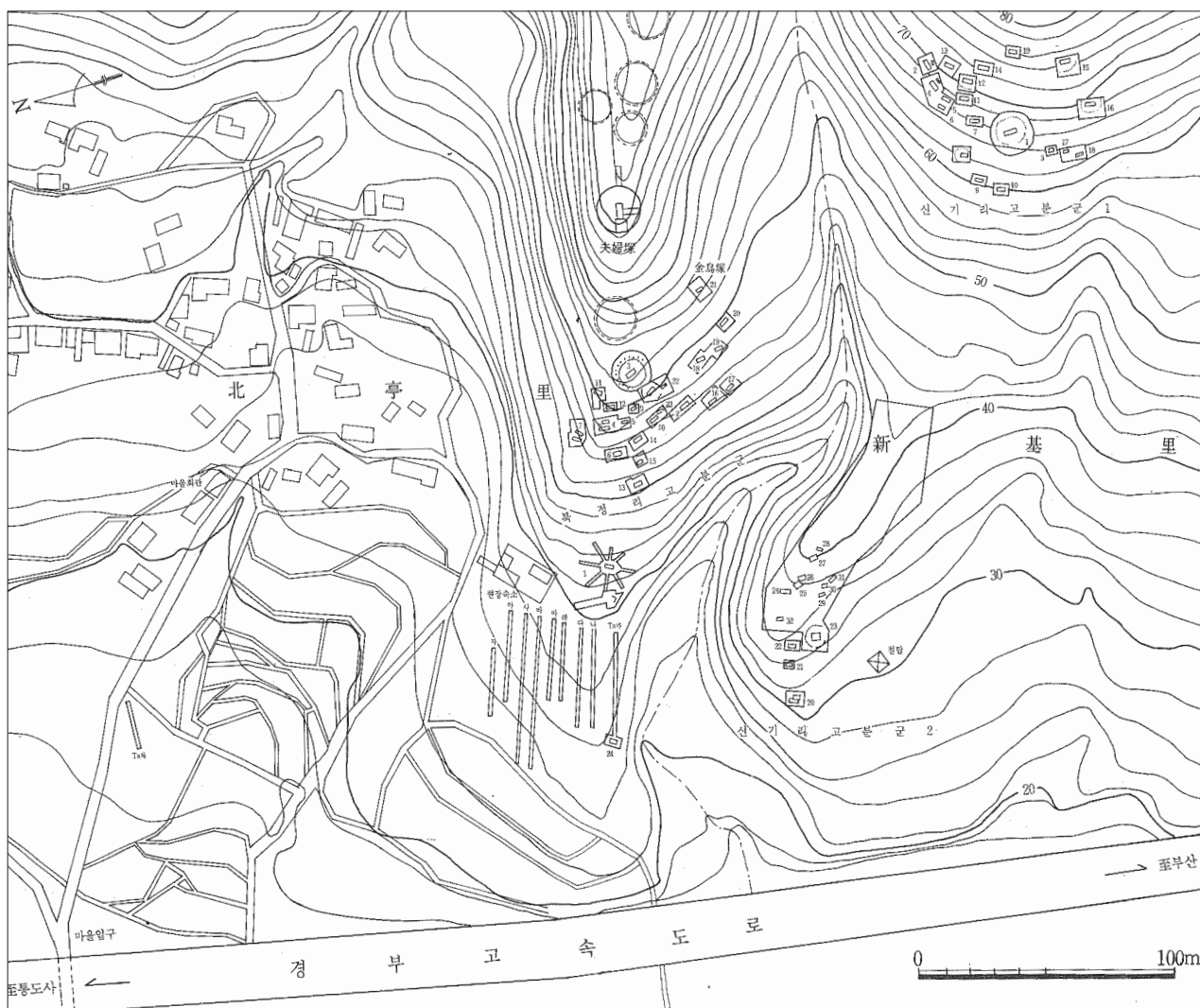
조사 결과, 수혈계횡구식석실묘가 23기, 횡구식석실묘 2기, 소형 석곽묘 3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5~6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횡구식석실묘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남-북향으로 입구부의 위치가 북쪽인 것과 남쪽인 것이 있다. 북쪽인 것의 경우 평면은 장방형에 가깝고 석실이 대부분 지하에 축조된 지하식이며, 입구 단벽 전면을 사용하고 높은 문틀이 있다. 그러나 남쪽인 것은 평면이 방형에 가까워지고 석실의 대부분이 지상에 설치되면서 입구는 단벽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 또는 좌우측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문틀이 없어지거나 1~2단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석실은

유적 위치도

입구의 위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평면은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석실 위치는 지하식에서 반지하식을 거쳐 지상식으로, 입구는 전면에서 일부분으로 각각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상대는 높이가 있고 내부를 율석으로 채우다가 높이가 낮아지면서 할석으로 내부를 채우는 형태로 변화하며, 대부분 추가장 시에 관대에 변동을 주고 있다.

이외 동일 봉분 내에 추가에서 유구를 배치한 다곽식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 지형적으로 낮은 쪽에 축조된 유구가 선행하고 그 위쪽으로 축조된 것이 나중에 배치되어 선후관계가 뚜렷하며, 나중에 축조된 것은 소형 석곽묘나 옹관묘의 예가 많아 소아용일 가능성이 많을 뿐만아니라 주피장자와는 친연 관계를 가진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 중 토기류는 단벽 아래에 주로 부장되고 마구류를 제외한 금속류는 관대 위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금조총(21호분)을 비롯한 3호분과 23호분에서는 출자형 금동관 편이 출토되어 북정리고분군 피장자의 신분을 예상케 하였으며, 14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당시 철기 제작자의 신분이 대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4, 『양산 북정리고분군』.


유구 배치도

1호분

3호분

01-2

# 양산 금조총·부부총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69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0.4.~1990.9.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금제조족,
금동관, 금제천, 금제
태환이식

부부총은 양산 북정리고분군 내 위치한 고분으로 1920년 오가와 케이키치川泉敬吉 등의 일본이 학자들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1927년 약식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출토유물은 현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중이다. 당시 봉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석실 내부의 유물 위주로 실측을 하였기 때문에 고분 전체에 대한 특징은 알 수 없었다. 그 후 199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의 북정리고분군 발굴조사 시 금조총과 함께 다시 발굴조사되었다. 부부총은 북정리고분군에서도 대형분에 속하는 무덤으로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지름 27m, 높이 약 3m의 원형 봉토분으로 내부구조는 횡구식석실이다. 석실은 동서 5.4m, 남북 2.2m, 높이 2.5m의 장방형 구조로 입구부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바닥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에 5~6단의 할석을 쌓아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남쪽 시상에는 금동관, 금제이식, 유리경식, 은제과대, 은제지환, 금동제식리 등의 장신구와 삼루환두대도 등이, 북쪽 시상에는 은제관식, 금제태환이식, 은사로 연결한 유리경식, 은

유적 위치도

제과대, 은제천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남쪽 피장자를 남자, 북쪽 피장자를 여자로 보아 이 고분을 부부총으로 명명하였다. 시상과 동단벽 사이의 공간에는 각종 토기, 마구, 이기류가 빼곡하게 부장되어 있었으며, 서쪽 입구부 공간에는 순장인골로 추정되는 3인의 인골이 머리를 남쪽으로 하여 나란히 누워 있었다. 축조시기는 먼저 매장된 주인主人은 5세기 중반, 추가장된 부인은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금조총은 부부총에서 20m 떨어진 서남쪽 사면에 입지하는 소형 봉토분으로 후대의 유실 등으로 많이 훼손되어 봉분의 원형을 잃었다. 내부구조는 북서쪽 단벽 전체를 입구로 사용한 횡구식석실묘로 석실은 길이 2.4m, 너비 1.0m의 장방형의 작은 규모의 무덤이다. 석실의 축조순서는 구릉 경사면에 땅을 파서 할석으로 세 벽면을 먼저 쌓고 개석을 덮어 석실을 완성한 후 피장자와 부장품을 안치하고 입구부인 북서쪽 단벽을 막아 매장시설을 완성하고 봉분을 씌웠다. 석실 내부에는 판석상의 시상이 토기가 놓인 남동쪽 단벽을 제외하고 깔려 있으며, 봉분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 추가장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금동관, 금제태환이식, 금제천, 은제과대 등의 장신구와 은제가위, 동제초두 등의 유물이 출토되며, 무기류나 마구류가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장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 중 금제조족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처음으로 출토된 유물로 이 유물 덕분에 현재 금조총으로 불리고 있다. 새는 예로부터 죽은 이의 영혼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끄는 정신적 매개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장된 금제조족 한 쌍은 피장자의 영혼을 천상으로 안내하는 극작조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조총의 축조시기는 인접한 부부총의 축조시기와 동일하거나 조금 늦은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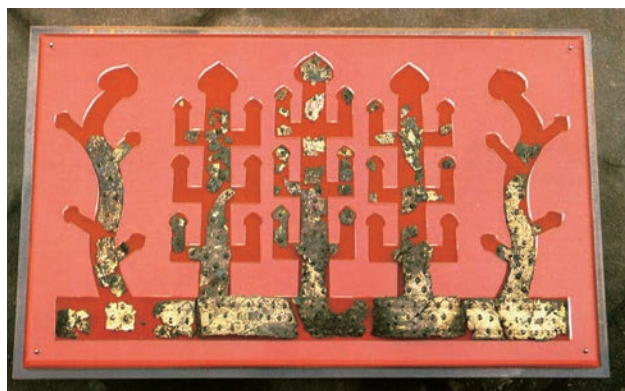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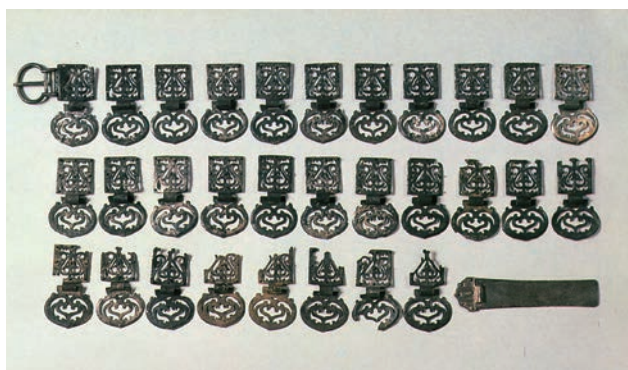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부부총』.

동아대학교박물관, 2017, 『금조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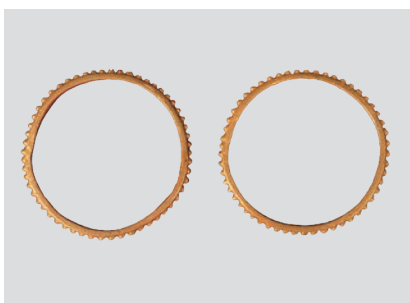
유적 전경

금조총

부부총 석실

금조총 유물 출토모습

금동관

은제과대

초두

금제조족

금제천

금제태환이식

# 01-3 양산 하북정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56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1.8.~1991.10.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유개고배,
병, 철부

하북정유적은 북정리고분군의 북쪽 해발 34.5~37.5m 사이의 하북정마을과 그 주변 전답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 15기와 고려시대 장골유구 2기, 조선 초기 원형유구 1기와 함께 수전지가 확인되었다. 고분은 조사 당시 밭으로 개간되면서 봉토는 삭평되고 남아있지 않았으며, 벽체 2~3단 정도와 시상만이 잔존하였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류로 유개고배 및 개가 다수를 점하며, 철기는 도자, 철겸, 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고분군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사이로 양산지역에서 가장 늦게 축조된 고분의 좋은 예가 된다.

하북정유적의 고분의 조사로 양산 북정리고분군에서 고분군이 위치적으로 낮은 지대 점차 구릉 정상부로 이동해서 축조되다가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와서 축조되는 순서를 가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양산 하북정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8호분

5호분

# 01-4 양산 북정동 683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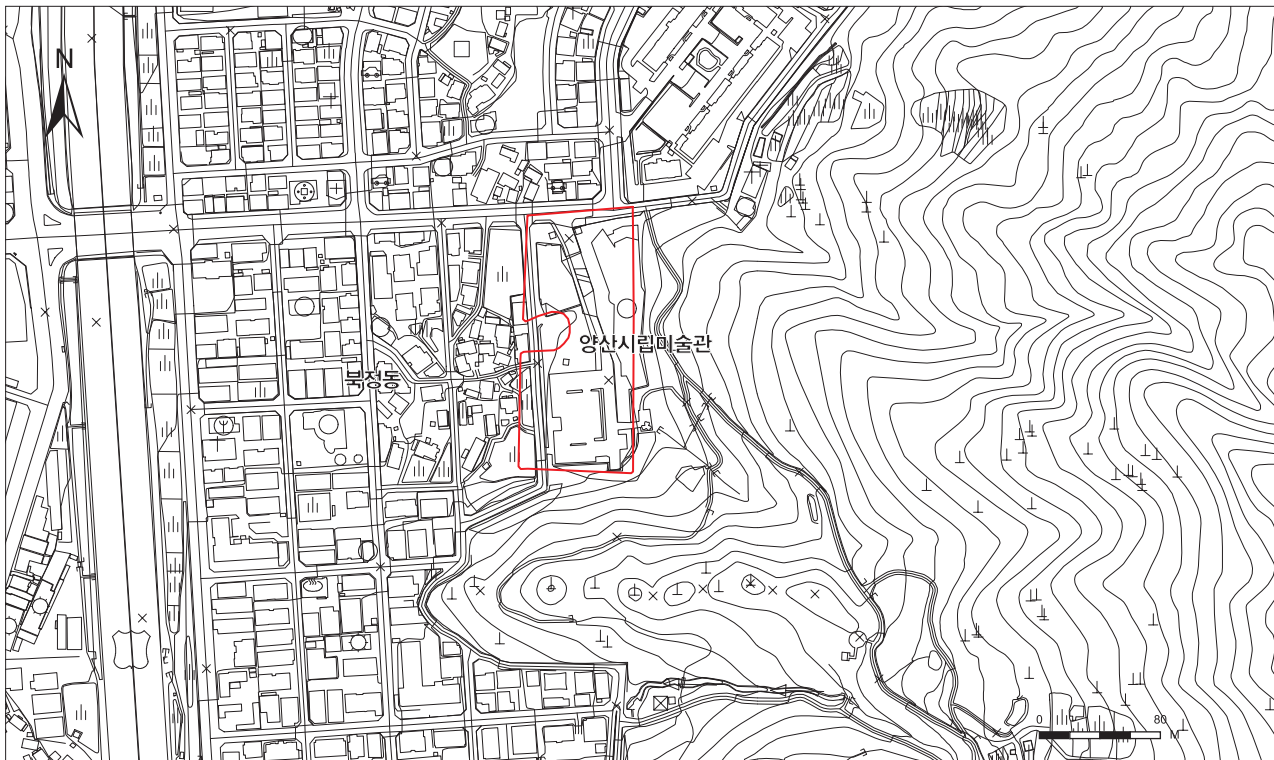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68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2008.1.~2008.8.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발형기대, 부가구연장경호, 성시구, 교구

양산 북정동 683번지 유적은 성황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해발 34~43m 선상의 낮은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정리고분군의 일부이다. 작은 곡간부를 사이에 두고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북정리고분군과 구릉상으로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 25기, 탄요 2기, 고려시대 건물지 2기, 수혈유구 2기,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삼국시대 분묘에서 다량의 토기와 소량의 철기 및 이식과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는 청자 편을 비롯해 도기 편, 기와 편 등을 비롯해 전체 1,000여 점에 가까운 유물이 출토되었다.

자연유실과 후대 교란 등으로 구릉의 아래쪽은 거의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유구와 유물의 특징은 앞서 조사된 북정리고분군과 대동소이하다. 석실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입지가 변해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평면형태에 있어서도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되며, 방형에 가까워질수록 유물의 부장량도

유적 위치도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실의 장축방향은 구릉 사면의 지형을 이용한 것으로 대부분이 등고선과 평행하며 횡구부는 대부분 북쪽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늦은 단계가 되면 남쪽으로 변화된다. 시상은 중앙시상에서 점차 한쪽 단벽에 연접한 형태와 전면시상 형태로 변화되면 석실의 지상화와 함께 시상의 높이도 낮아진다. 출토유물로 볼 때, 고분의 조성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로 중심연대는 6세기이다.

북정동 683번지 유적은 위치상으로 남쪽의 북정리고분군과 북쪽의 하북정유적과 연결선상에 입지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로 양 유적의 중간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공백상태였던 북정리고분군에서 하북정고분군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며, 양산지역 묘제의 특징과 문화상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10,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부지 내 북정동 683번지 유적』.

유적 전경

13호분

출토유물

# 02 양산 신기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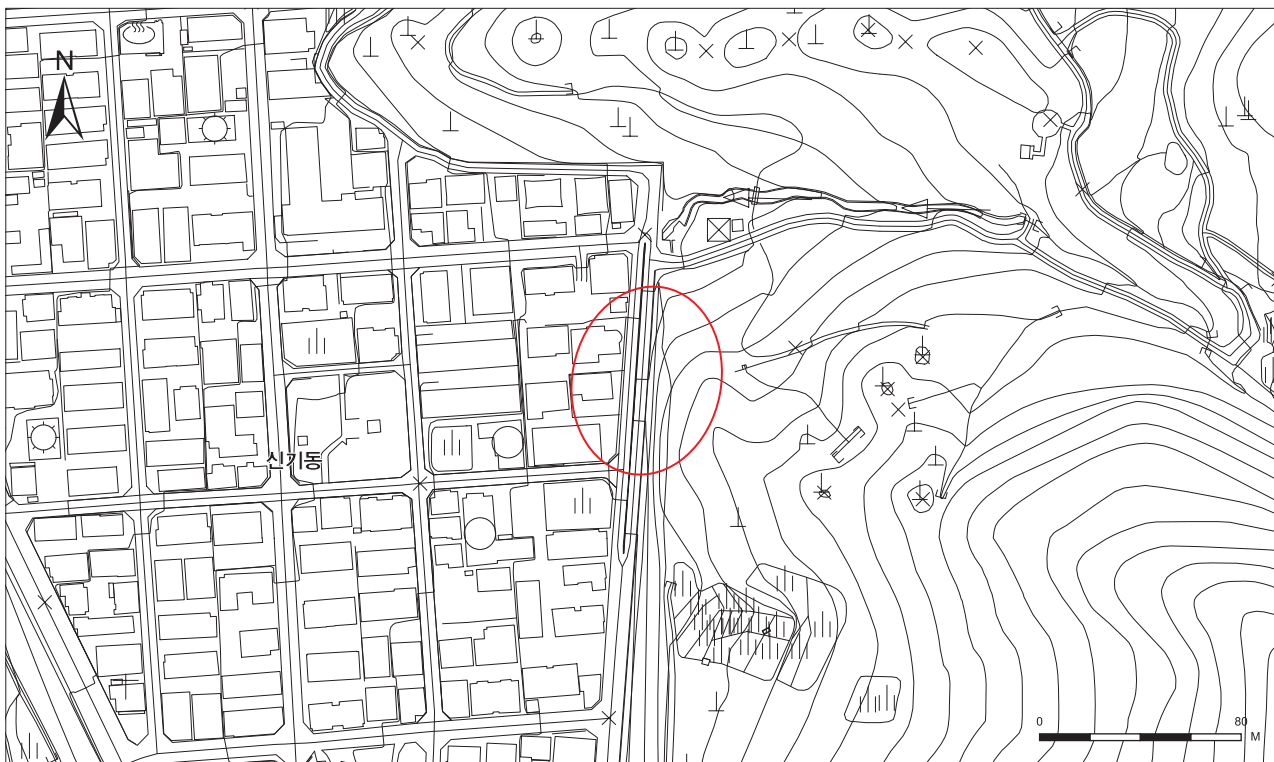
| 사적 제94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산29-3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0.4.~1990.9.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고배,
대부장경호, 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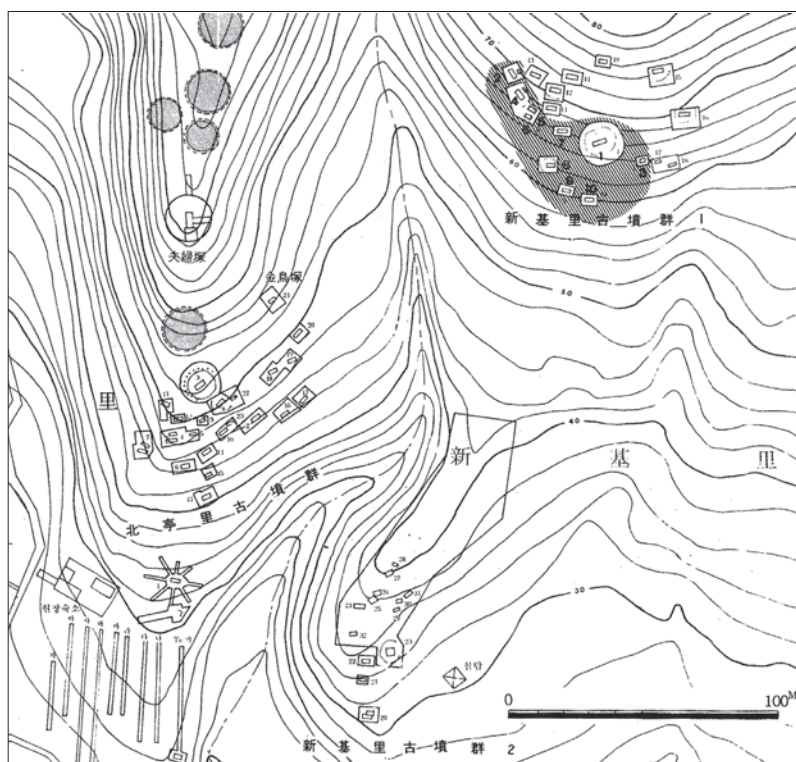
유적은 북정동과 신기동의 경계지역인 성황산 서쪽 구릉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북정동고분군과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으며, 능선 동쪽 정상부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제97호 신기리산성이 위치해 있다. 유구의 분포는 북정리고분군과 유사하며 고분군의 분포범위는 구릉 말단부에서 정상부에 이르는 대규모 고분군이다.

양산시의 택지개발로 인해 199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직경 13m, 높이 3m의 제1호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분들은 소형분으로 대부분 횡구식설실묘이지만 일부 수혈식석곽묘도 조사되었다. 높은 지역의 고분은 구조나 출토유물에 있어서 북정리고분군과 동일하며, 낮은 지역에서는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이 중복되어 축조되었는데,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혈식석곽에서는 패갑과 5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는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고분군 내에는 한 봉분 내에 1

유적 위치도

개의 매장부체부가 축조된 무덤과 여러 기가 확인되는 다곽식으로 구분된다. 다곽식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모의 석실이 나란히 배치된 경우와 중심 석실의 외곽에 소형의 석곽이 배치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출토유물로 본 고분군의 축조시기는 5~6세기로 추정된다.

양산지역은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와 발굴조사된 유적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신기동고분군의 조사성과는 인접한 북정리고분군의 조사성과와 함께 양산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6, 「양산 신기리고분군(1)」, 『고고역사학지』11·12.


유구 배치도

1호분 개석 노출모습

1호분 매장주체부

03

# 양산 중부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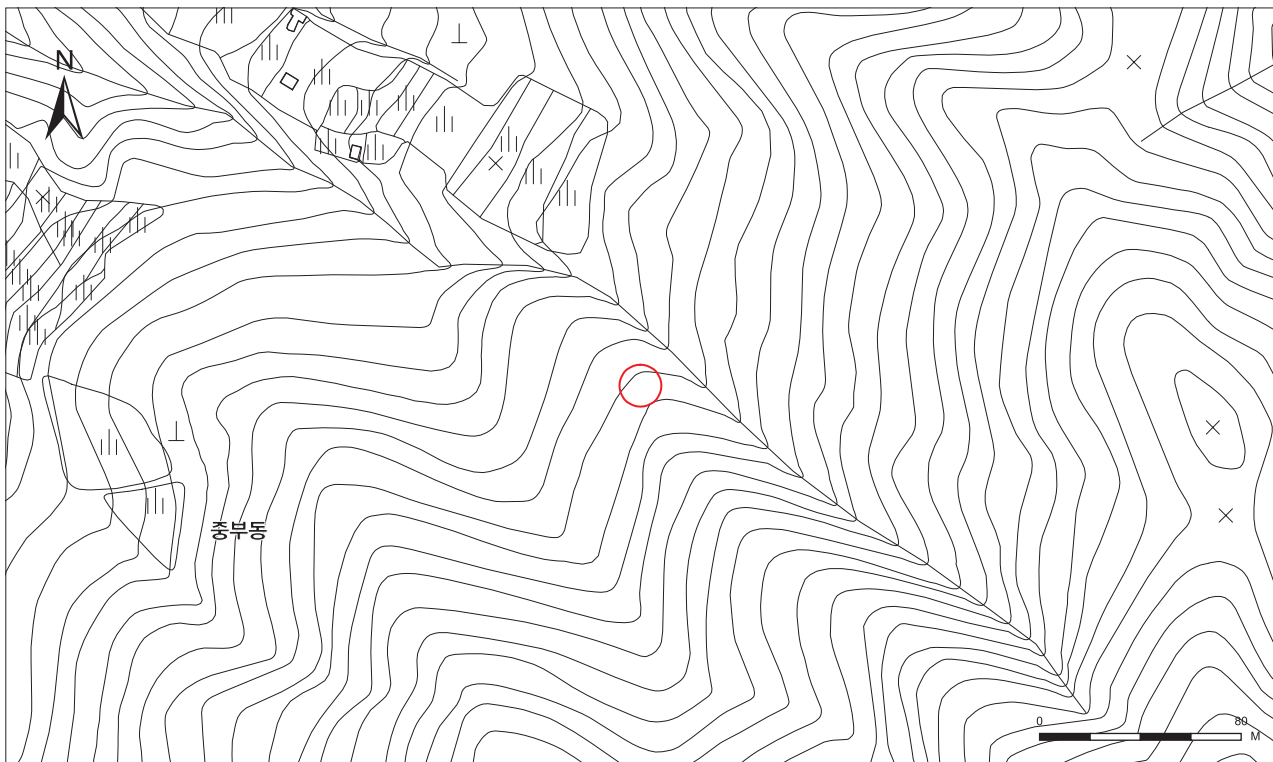
| 사적 제95호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산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6.12.~2017.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환두대도,
금동제교구

조사지역은 동산(해발 276.8m) 서산면의 구릉산지에 위치한다. 동산의 정상부 일대에는 양산 북부동 산성이 조성되어 있고 중부동고분군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동고분군은 사면의 말단부가 아닌 해발 100~220m에 해당하는 사면 중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삼국시대 유적들보다 비교적 높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중부동고분군은 5개의 군의 이루며 총 43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굴과 훼손으로 인해 결실될 위험이 큰 28호분 1기에 대한 긴급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8호분의 봉분 조사 결과, 사면 하단부인 북서쪽의 28-1호분이 선축되고, 이후 상단부인 남동쪽의 28-2호분이 연접한 표형분으로 밝혀졌다. 외부시설은 호석과 주구가 모두 확인되어 28-1·2호분은 서로 동일한 축조원리를 지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8-2호분의 주구가 28-1호분까지 감싸는 형국으로 28-1호분과 28-2호분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유적 위치도

28-1호분은 중형급의 원형 봉토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의 장방형 횡구식석실묘로 외부시설은 호석과 주구가 확인된다. 호석은 본래 원형으로 28-1호분을 일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8-2호분이 들어서면서 일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구는 28-2호분의 묘도로 보아 사면 상단부에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28-2호분이 조영되면서 28-2호분의 매장주체부와 묘도가 28-1호분의 주구 굴착면을 재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8-1호분은 토층상태로 보아 개석을 횡가하고 기반토에 가까운 흙으로 밀봉한 다음 북서쪽(하단부)과 남동쪽(상단부)를 양분할하여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봉토재를 사용해 봉분을 성토했다. 시상은 28-2호분과 마찬가지로 전·후벽쪽에서 약간 떨어진 중앙부에 길이방향으로 시설했으며, 후벽부의 맨바닥 공간은 부장공간으로 활용했다. 출토유물은 후벽부 부장공간에서 공간을 분할하여 북서쪽에는 대부장경호, 대부완. 중간부분에서 유개고배, 남동쪽에는 연질의 대부장경호와 유개연질옹 등을 부장했으며, 남서장벽과 후벽사이에 철제환두대도(삼엽문)가 확인됐는데, 도신 선단부가 바닥을 향한 상태로 세워서 매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개고배와 연질옹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부분에서는 토기 위에 철제의 교구 및 관련 부속구가 덮여있었다. 시상에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철겸, 철도자, 철모 등의 무기와 농공구 등이 확인됐는데, 특히 북서쪽 장벽 중앙부에서는 금동제의 교구가 일부 출토됐다. 그리고 북서장벽의 뒤쪽에서는 금동제의 세환이식이 확인된다.

28-2호분은 중형급의 원형 봉토분으로 매장주체부는 반지하식의 횡구식석실이며,

28-1호분

외부시설은 주구, 호석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된다. 28-1호와 마찬가지로 남동쪽(상단부)과 북서쪽(하단부)은 서로 다른 성질의 성토재를 사용해 조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로 횡구부는 남동쪽이며, 28-1호분의 호석을 따라 진행하여 석실과 사교하는 형태가 특징으로 28-1호분의 주구를 재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실은 횡평적 위주로 축조했으며, 횡단면은 제형 구조이다. 28-2호분은 이미 도굴된 상태이지만, 석실구조는 비교적 양호하게 유존한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로 횡구부는 남동쪽이며, 횡구부는 바깥쪽이 '八'자상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추정된다. 석실의 축조는 1~3단 정도는 종평적 위주이며, 벽면이 수직하고, 그 이상은 횡평적 위주로 벽면이 내경하여 횡단면은 제형을 이룬다. 시상은 전·후벽쪽에서 일정하게 이격시키고 중앙부에 길이방향으로 만들었다. 출토유물은 시상 가장자리를 따라 환두대도의 환두부, 철촉, 철도자, 철부, 철겸 등의 금속기와 중앙부에서 비녀, 철지은판의 불명금속기 등이 출토됐으며, 전벽부 맨바닥에서 시상과 측벽사이의 공간에서 각각 대부장경호 1점이 확인됐다.

28-1·2호분은 시상이 추가되지 않는 점, 출토유물 상에서 복수의 유물이 존재하거나 유물 간의 상하 매납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추가장의 흔적은 없이 단독장으로 조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8-1·2호분은 중부동고분군 내에서 중형급에 해당하는 봉토분으로 내부에서 출토된 유개고배, 대부완, 대부장경호, 연질옹 등을 통해 볼 때, 6세기 전엽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구조는 단면상 아치형을 이루는 것이 아닌 벽석을 안으로 차츰 내어쌓기 하여 개석의 면적을 방식으로 상부 붕괴를 방지하는 축

28-2호분

조기법을 볼 수 있으며, 석실묘가 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궁륭형의 천장이 조영되기 전의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매장습속도 좌·우나 전·중·후의 공간이 분할되어 추가장이 실현되는 석실구조가 아닌 단독장의 형태를 취한다. 축조기법, 매장습속,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28-1·2호분은 횡혈식고분이 본격적으로 조영되는 6세기 중엽 이전의 초현기 횡구식석실로 판단된다.

중부동고분군 28-1·2호분의 발굴조사는 중부동고분군 최초의 발굴조사로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완하는 고고학적 자료이자 당대의 문화상을 밝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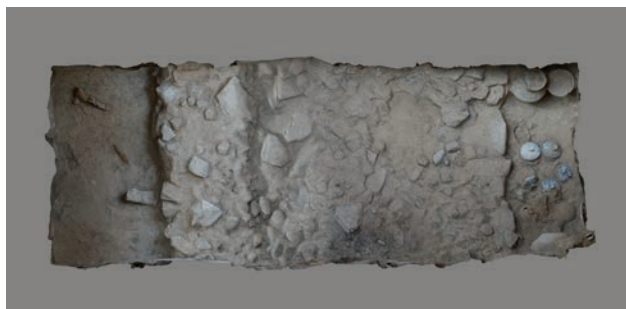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7, 「양산 중부동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28호분) 발굴(정밀)조사 결과 약보고」.

28-1호분 입구부

28-1호분 벽석

28-2호분 입구부

28-2호분 벽석

28-1호분 매장주체부

28-2호분 매장주체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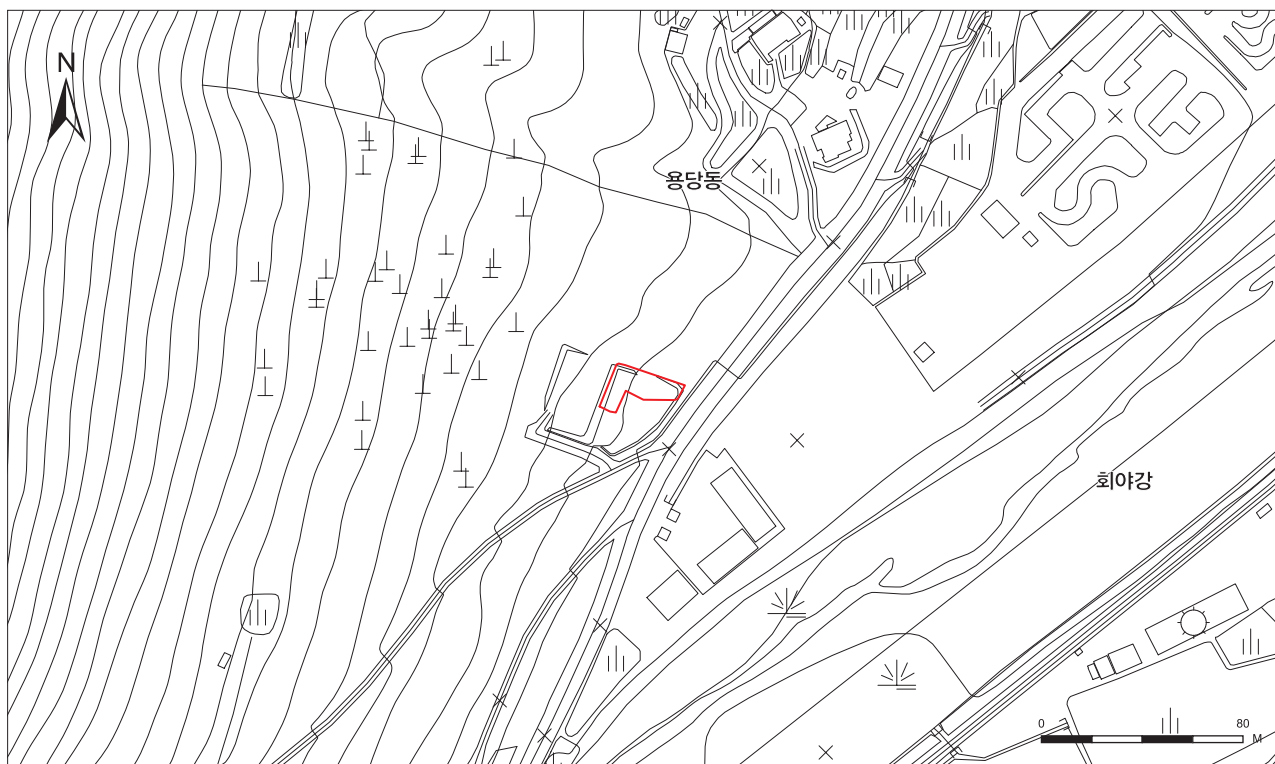
# 양산 용당동 산80-5·80-4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80-5·산80-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013.10.~2013.11. 2014.1.~2014.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파수부대부완

조사지역은 우불산(해발 235m)의 동쪽 능선 사면(해발 81~86m 내외)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동쪽의 도로 건너편에는 회야강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며 이를 따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산80-41번지 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의 석곽묘, 석실묘 등의 6기의 분묘와 시기미상의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조사부지 북동쪽 경계부에 걸쳐서 위치하며, 6기의 분묘 중 비교적 조사부지 내 양호하게 위치하는 3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묘는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1~3호묘는 중복 축조되어 있는데, 각 유구의 축조순서는 2호묘의 북장벽 일부를 파괴하고 1호묘가 후축되어 있는 점과 2호묘의 호석이 3호묘 북장벽 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3호묘(석실묘)→2호묘(석곽묘)→1호묘(석실묘)의 순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남장벽 쪽에 측면 부장하거나 양 단벽쪽에 양단 부장하였으며, 유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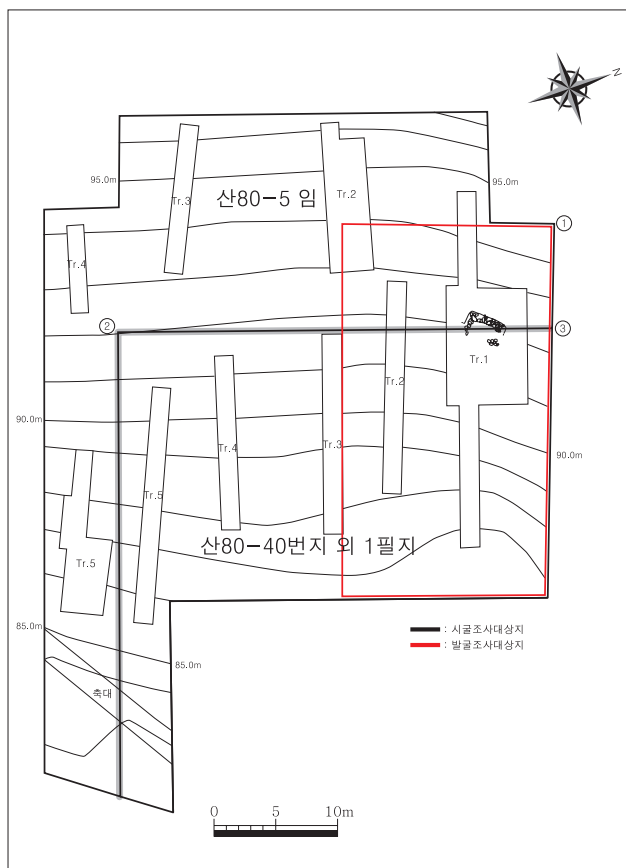
개고배, 고배, 개, 파수부대부완, 대부장경호, 장경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은 6세기 전반~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80-5번지 유적은 산80-41번지 유적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유실되고 서쪽 일부 벽석 1~3단 정도만 잔존한다. 석실묘는 횡구식으로 추정되며 벽석 최하단 일부만 잔존하고 시상은 2차례에 걸쳐서 조성하였다. 유물은 연질호 편, 고배, 개,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대로 추정된다.

양산 우불산고분군은 양산 시가지 지역에 비해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양산시 북동쪽의 용당동, 평산동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양산 용당동 산 80-4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양산 용당동 산 80-5번지 외 2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석실묘

석곽묘

# 05 양산 가촌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6-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9.9.~2010.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단야구

조사지역은 오봉산(해발 855m) 동쪽 사면 끝자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양산천이 흘러 남쪽의 낙동강에 합류한다. 양산지역은 낙동강의 지류인 양산천을 경계로 동과 서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 고분군은 양산천의 동쪽에 위치한 성황산의 주능선의 북서~남서 사면에 집중적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가촌리고분군이 위치하는 양산천의 서쪽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의 조사 예는 거의 없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7기와 석실묘 1기, 고려시대 분묘 2기, 조선시대 분묘 9기, 수혈 5기, 삼가마 2기, 소성유구 2기 등 총 2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벽석은 할석을 대부분 눕혀쌓기하였으며, 소형 할석을 깔아 시상을 조성하였다. 3호 석곽묘에서는 집게, 망치, 모루로 구성된 단야구 조합이 출토되어 이곳에서 단야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양산지역의 제철관련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토유물로 본 고

유적 위치도

분군의 조영시기는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이다.

양산지역은 북정리·신기리·중부동고분군이 분포하는 일대가 중심고분군으로 조영되었으며, 일찍부터 횡구식석실묘가 채용되었고 부장유물 또한 신라양식의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까지 양산지역 고분문화에서 보이는 묘제의 변화 및 토기양상을 신라의 문화 영향권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양산천 이서지역의 가촌리고분군의 조사에서 가야의 전통적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를 계속 사용하면서 재지에서 제작된 토기류를 부장하는 등 전통적인 문화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양식 문화의 보급과 수용 및 확산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상위와 하위계층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양산 가촌리 유적』.

유적 원경

7호 석곽묘

7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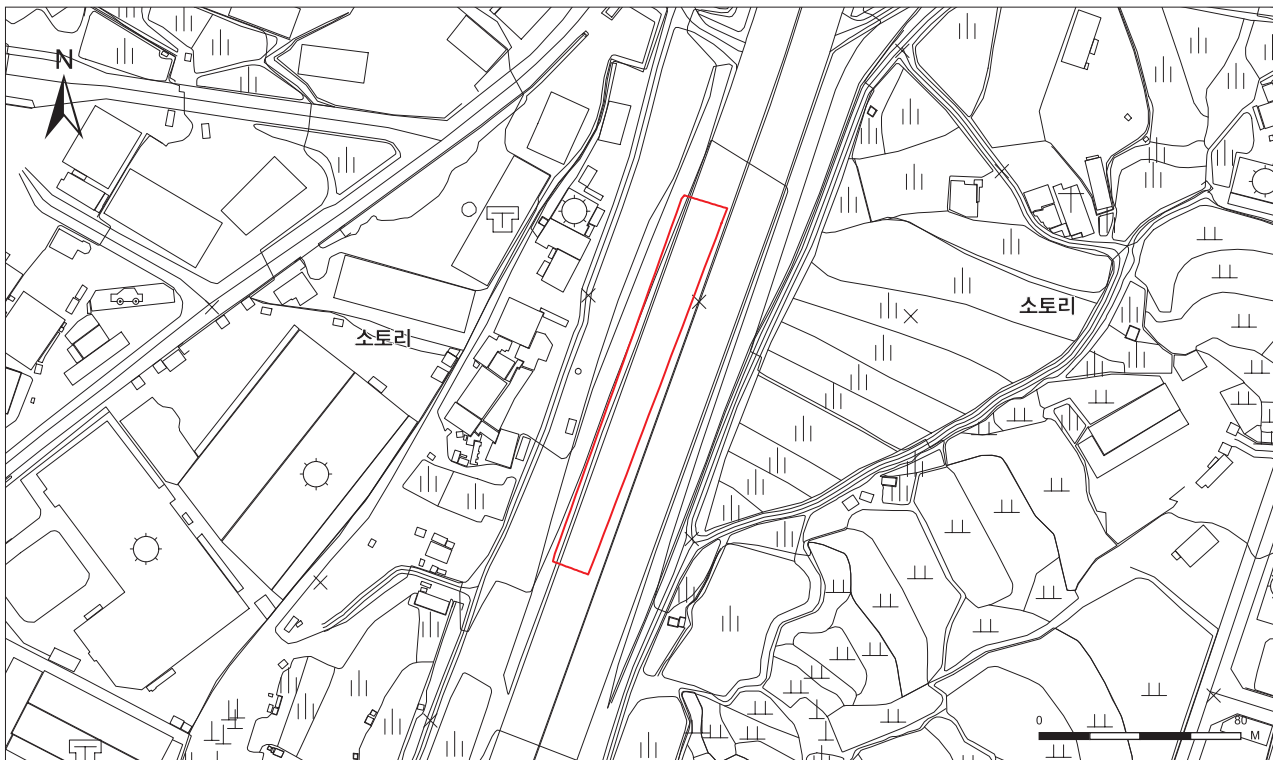
# 06 양산 소토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95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3.7.~2003.12.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목관묘, 목곽묘 / 대호, 단경호, 노형토기, 유자이기

조사지역은 원효산(해발 922m)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50m 내외의 구릉부에 위치한다. 구릉의 서쪽 아래로는 양산천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낮은 구릉과 하천이 있어 주변에 고분군과 토기산포지 등 각종 유적의 분포가 확인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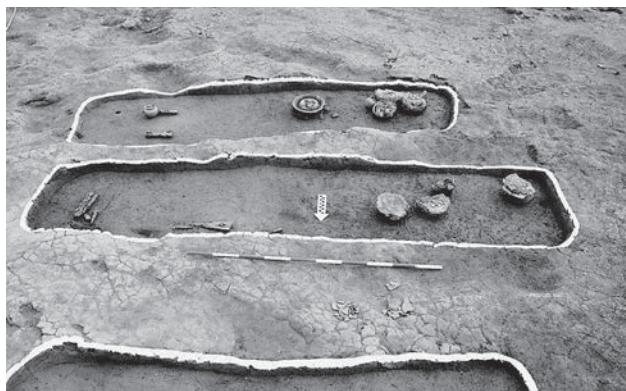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삼국시대 토광묘 12기, 목관묘 1기, 목곽묘 8기, 옹관묘 3기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토광묘는 장축 200㎝, 단축 100㎝ 내외로 목곽묘에 비해 소형에 속한다. 상부 훼손이 심하여 내부와 토층에서 관·곽의 유무를 알 수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묘광을 파고 별도의 시설 없이 곧바로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묘와 혼재되어 확인되어 피장자가 목곽묘의 피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묘는 장축 333~584㎝, 단축 150㎝ 내외로 토광묘에 비해 규모가 크다. 평면형태의 장단비가 3:1 이상으로 세장하여 소위 '경주형 목곽묘'로 분류된다. 소토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목곽묘는 경주형 목곽묘의 특징을 잘

유적 위치도

나타내주고 있으나 동혈주·부곽식의 평면형태에서 주·부곽 사이의 격벽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수평인 것과 수직되는 것이 혼재하고 있으나 선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른 축조의 차이로 파악된다. 출토유물은 와질토기와 도질토기가 함께 확인되고 있으며 대호와 단경호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철기는 철모, 철부, 유자이기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을 통해 본 고분군의 조영시기는 3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된다.

소토리고분군은 양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목곽묘 유적으로 인근 지역의 김해지역과 비교되는 문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토리고분군은 김해지역 영역에 대한 경계지역으로 당시 양산의 정세를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 『경부고속도로(경남구간) 확장구간내 양산 소토리 고분군』.

유적 전경

3호 목곽묘

7호 목곽묘

출토유물

# 07 양산 상삼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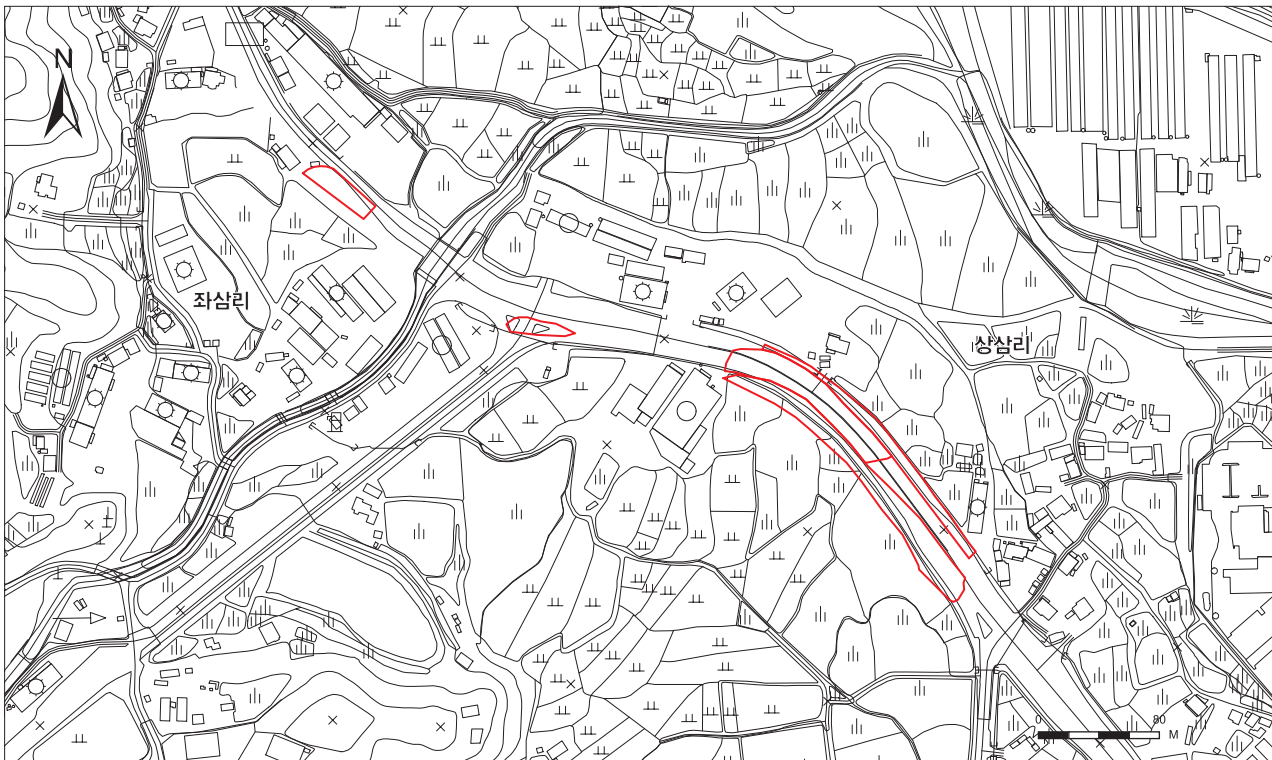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461-2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0.9.~2011.1. 2013.5.~2013.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환두대도

조사지역은 상삼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내석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양산천으로 합류한다. 조사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완만한 구릉 말단부에서 이어지는 구릉성 충적지에 해당한다.

양산시 상북면 상삼~내석간 1028번 지방도로 4차로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도로 확장구간과 기존 도로구간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도로 확장구간의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8동과 삼국시대의 석곽묘와 석실묘 34기, 수혈유구 8기, 기타 유구 2기, 조선시대 수혈유구 20기, 소성유구 2기,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기존 도로구간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무덤은 북서쪽 해발 53m에서부터 조사지역 중앙부근 51.5m 선상에서 확인되며, 북서쪽에서는 등고선과 직교하는 수혈식석곽묘가 먼저 축조되고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방형에 가까운 석실묘가 축조되고 있어 북서쪽에서 유구가 축조되기 시작하여 남동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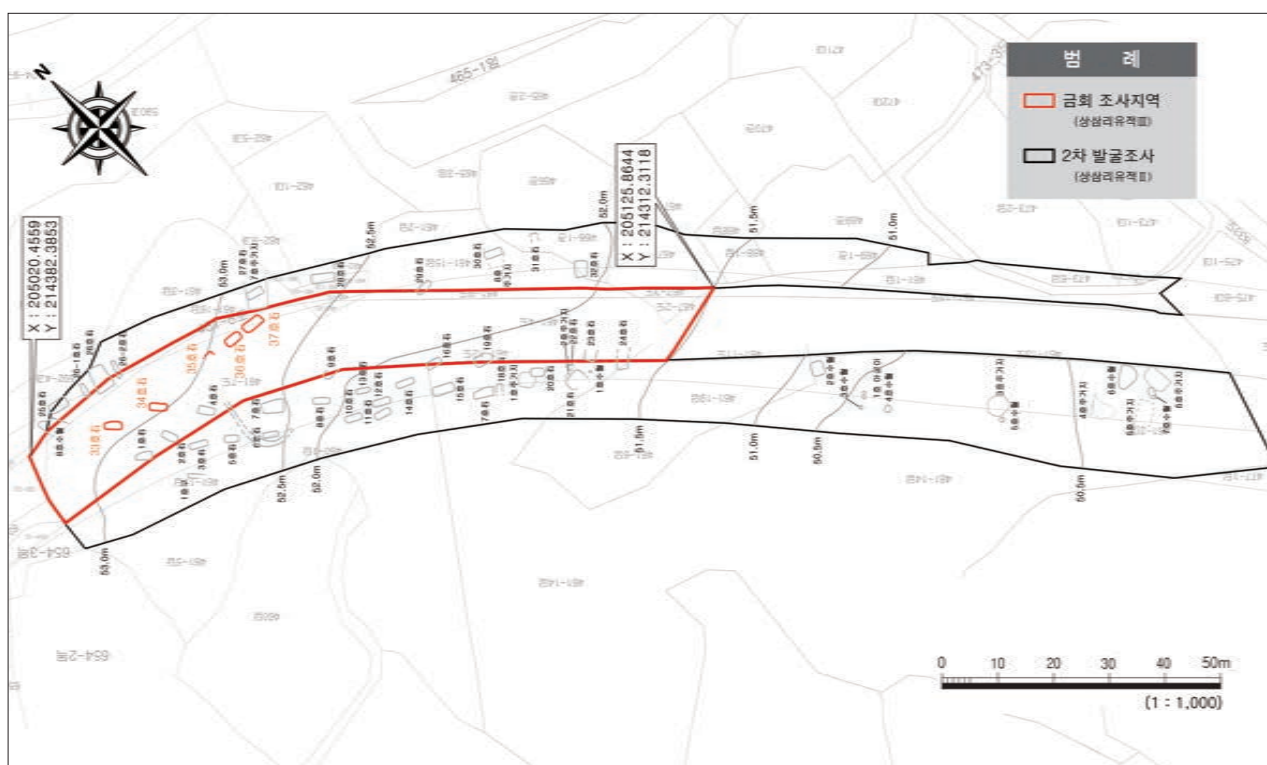
쪽으로 이동되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삼리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 중 가장 먼저 축조된 26호 석곽묘는 석곽 잔존 길이 5.15m, 너비 3.8m, 잔존높이 1.3m에 이르는 대형의 수혈식석곽묘로서 목곽묘의 형태에 가까운 수혈식석곽묘 2기를 배장묘로 가지고 있다. 내부의 중앙에서 관대가 확인되며, 벽석 모서리에서 출토된 단경호와 통형기대로 보았을 때 조성시기는 4세기 말~5세기 초 정도로 판단된다. 26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일본 고분의 특수기대를 모방한 것으로 한·일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양산지역에서 이 시기 삼국시대 분묘는 처음 발굴조사된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삼국시대 무덤의 구조와 전개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26호 석곽묘 이후에는 5세기 중반~7세기 중엽에 이르는 수혈식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6세기 중엽의 평면형태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석곽묘가 중심을 이룬다. 횡구식석실묘는 수혈식석곽묘에서 횡혈식석실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유구로 연도부나 묘도 등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토기는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김해형 토기인 일단투창단각고배와 신라양식의 토기가 함께 공반된다. 철기는 7호 석곽묘 출토 삼엽환두대도와 7호, 25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철기 제작과 관련된 단야구로서 망치가 주목된다. 상삼리유적의 조사로 양산지역의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삼국시대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김해, 경주 등과의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함으로서 이 시기 분묘 연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양산 상삼리유적Ⅰ』.

동서문물연구원, 2013, 『양산 상삼리유적Ⅱ』.

동서문물연구원, 2015, 『양산 상삼리유적Ⅲ』.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7호 석곽묘

7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36호 석곽묘

36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 08 양산 다방리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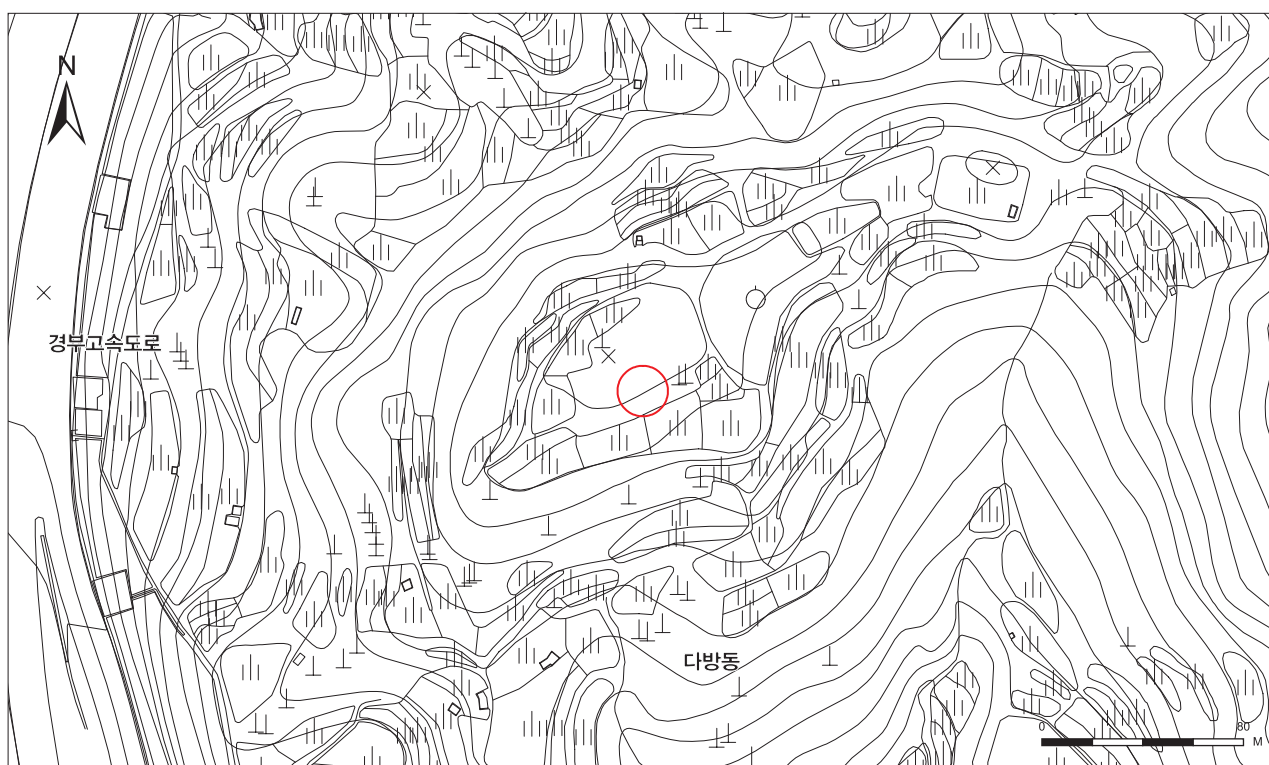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동 224·22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중앙박물관 /
1967.10.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환호 / 연·경질토기 편, 골각기

양산 다방리패총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 남동쪽에 위치한 다방동 일원의 구릉부에 입지한다. 전반적인 지형양상을 감안하면 서쪽으로 돌출된 표고 약 150m의 비교적 높은 지점에 해당한다. 구릉 정상부 일원은 동에서 서쪽으로 긴 평탄대지이며, 패총은 남쪽과 북쪽의 사면부에 입지하는데, 남쪽보다 북쪽 사면부의 퇴적층이 두껍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최초 발견되었으며, 문화재조사는 1964년에 서울대학교와 1967년 10월 18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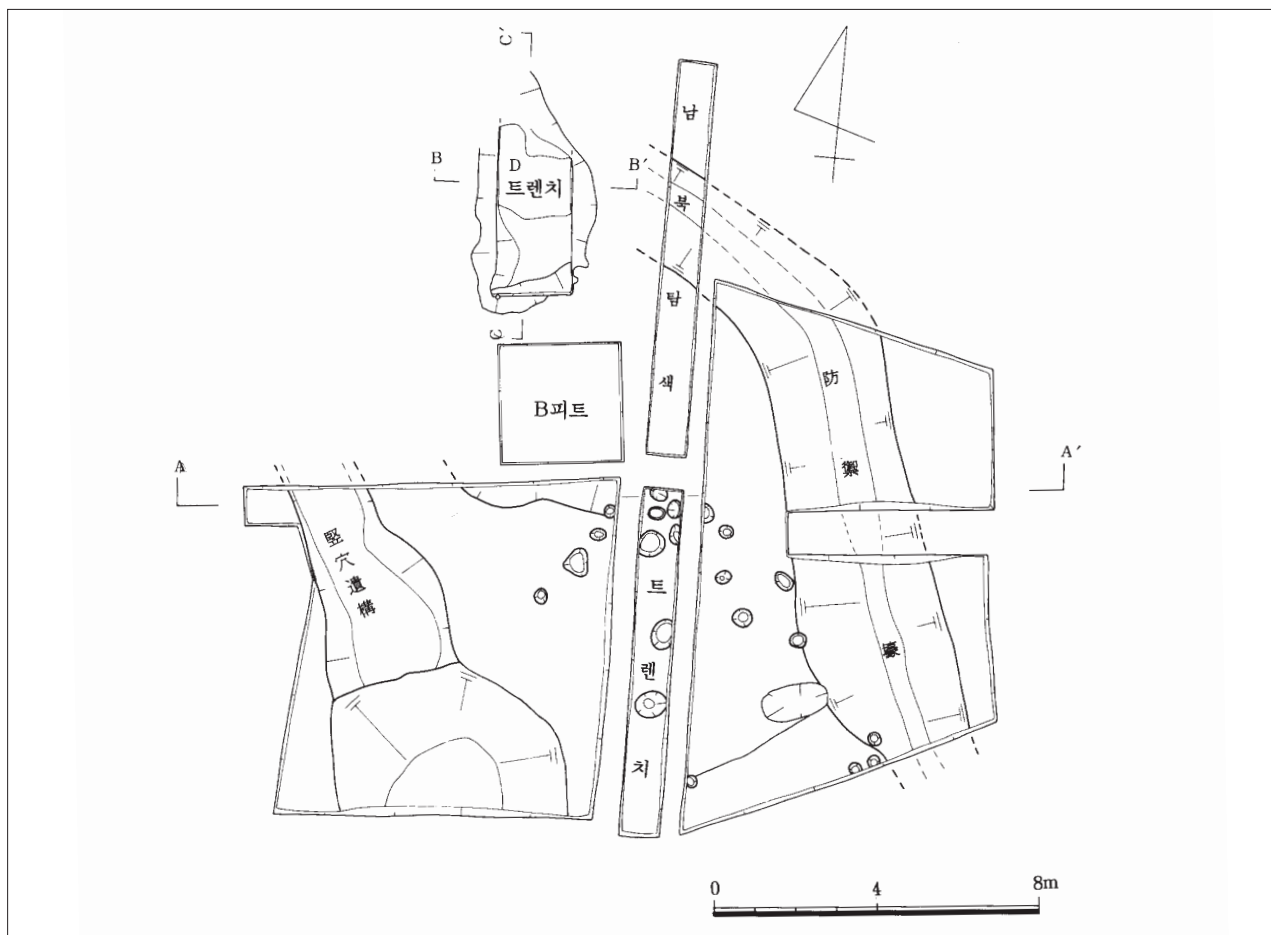
유적의 층위는 상부에서부터 표토층-혼토패각층-흑색토층-적색점질토층-생토층으로 구분되며 혼토패각층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각종 연·경질토기 편과 골각기, 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하층인 흑색토층에서는 연질토기 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선후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환호와 수혈, 주혈 등의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수혈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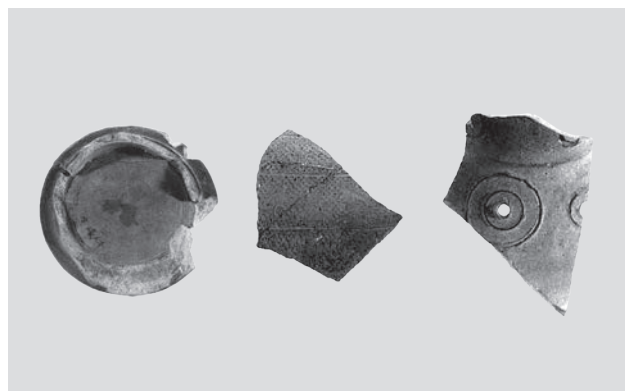
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3.5m, 너비 1.8m, 깊이 0.5m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바닥도 평탄하지 않고 요철이 심하다. 다만, 바닥에서 목탄과 재가 다량 노출되었는데, 수혈을 조성하기 위해 바닥을 목탄과 재, 흙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메운 흔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환호는 해발 120m 선상에 위치하며 너비가 최소 약 0.5m, 최대 약 3.5m이며, 깊이는 약 1.3m, 단면형태는 'V'자형이다. 그리고 환호 내측의 길이 8m, 너비 5m의 범위에서는 직경 30~60㎝ 정도의 주혈 22기가 노출되었다. 환호의 내측 경사면 경계부분에 걸쳐 있는 주혈은 5기이며 트렌치상에 보이는 비교적 큰 주혈 3기는 환호 바닥으로부터 5~6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혈은 환호의 진행방향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호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상건물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 환호 내부에서는 다량의 패각과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 각종 연·경질토기류와 어망추, 골각기 등이 출토되었다.

양산 다방리패총은 삼한~삼국시대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농경과 철기제작, 그리고 수렵 등을 통해 풍요로운 생업 경제를 영위했던 당시 낙동강 일대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생활유적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1993, 『천안 청당동 제4차 발굴조사보고-양산 다방리패총 발굴조사보고-』.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환호 내부 토층

환호 출토유물

09

# 양산 호계·산막동 및 대석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및 호계동 · 대석리 9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8.11.~201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 토기가마, 탄요, 목관묘, 석곽묘, 석실묘, 수혈, 구 / 고배, 기대, 대호, 호, 철모

양산 호계·산막동유적과 대석리유적은 경부고속도로 동쪽 구릉성 산지 및 곡간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총 5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면 대석리 구역, 산막 Ⅰ구역, 산막 Ⅱ구역, 호계 Ⅰ·Ⅱ구역이 위치한다. 먼저, 대석리 구역은 대석천 주변의 소규모 충적평야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아주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며 낮아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다. 층위상 현대 복토층과 논 경작층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는 황등색사질점토층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다. 산막 Ⅰ·Ⅱ구역은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곡간부로 개석선상지성 경사면에 해당한다. 그리고 호계 Ⅰ·Ⅱ구역은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종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대량으로 조사된 복합유적으로 밝혀졌다. 이 중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삼한시대 주거지 16동, 목관묘 1기, 수혈, 구 등과 삼국시대 주거지 11동, 고상건물

유적 위치도

15동, 토기가마 3기, 탄요, 석곽묘 1기, 석실묘 1기, 수혈, 구 등이다. 이상을 구역별로 살펴보면 대석리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건물지 1동과 대규모 삼국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주주혈과 벽주, 아궁이를 갖춘 장방형의 수혈건물지와 2×2칸, 2×1칸이 주를 이루는 지상식건물지와 300여 기에 달하는 수혈과 800여 기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유적의 중앙부에서 다수의 수혈이 서로 중복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 주위를 환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수혈건물지와 지상식건물지, 일부 소규모로 중복된 수혈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4호 수혈건물지는 유적 서쪽의 해발 59.5~59.6m 선상에 위치한다. 바닥은 대체로 평탄하며 내부시설은 남서쪽 장벽을 연접하여 부뚜막 1기, 장축선상에서 주 주혈 2기와 벽면을 따라 벽주 14기가 조사되었다. 부뚜막은 측벽을 길이 30~40㎝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설치한 후 점토를 발라 보강하였다. 아궁이 내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가득 찬 상태였으며 지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지만, 남벽 외곽으로 돌출되며 평면형태상 원형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주혈배치와 부뚜막을 통해 볼 때, 주거지로 판단되며 내부 매몰토에서 고배, 연질호, 도질호, 연질옹, 파수부옹, 파수부호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그리고 호계 Ⅰ-1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1동과 토기가마 1기, 호계 Ⅰ-2구역에서는 고상건물 1동, 구 1기, 산막 Ⅰ-1구역에서는 삼한시대 목관묘 1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 탄요 1기가 조사되었다. 산막 Ⅰ-3구역에서는 삼한시대 주거지 16동, 구 1기, 삼국시대 주거지 4동, 수혈 1기, 집석 1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지형상 구릉 사면부에 입지하며 구릉 사면을 따라

유적 전경

호계1-1구역 토기가마

산막2-7구역 탄요

산막1-1구역 석실묘

대석리 4호 수혈건물지

선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전반적인 양상을 감안하면 시기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마을을 이룬 취락으로 추정된다. 산막 Ⅱ-1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산막 Ⅱ-2구역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1기, 산막 Ⅱ-7구역에서는 삼국시대 탄요 2기 등 다종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적은 양산 산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부지와 주민들의 이주단지에 걸쳐 실시한 문화재 조사이다. 넓은 지역에 걸쳐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어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종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산지역의 선사시대 마을 복원과 구거 건축의 발달 및 주거문화의 지역성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호계동과 산막동의 삼국시대 토기가마는 주변의 양산 북정리고분군을 비롯한 삼국시대 고분군과의 관계 및 당시의 토기 유통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조성 부지 내 양산 호계·산막동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 이주단지 조성부지 내 양산 대석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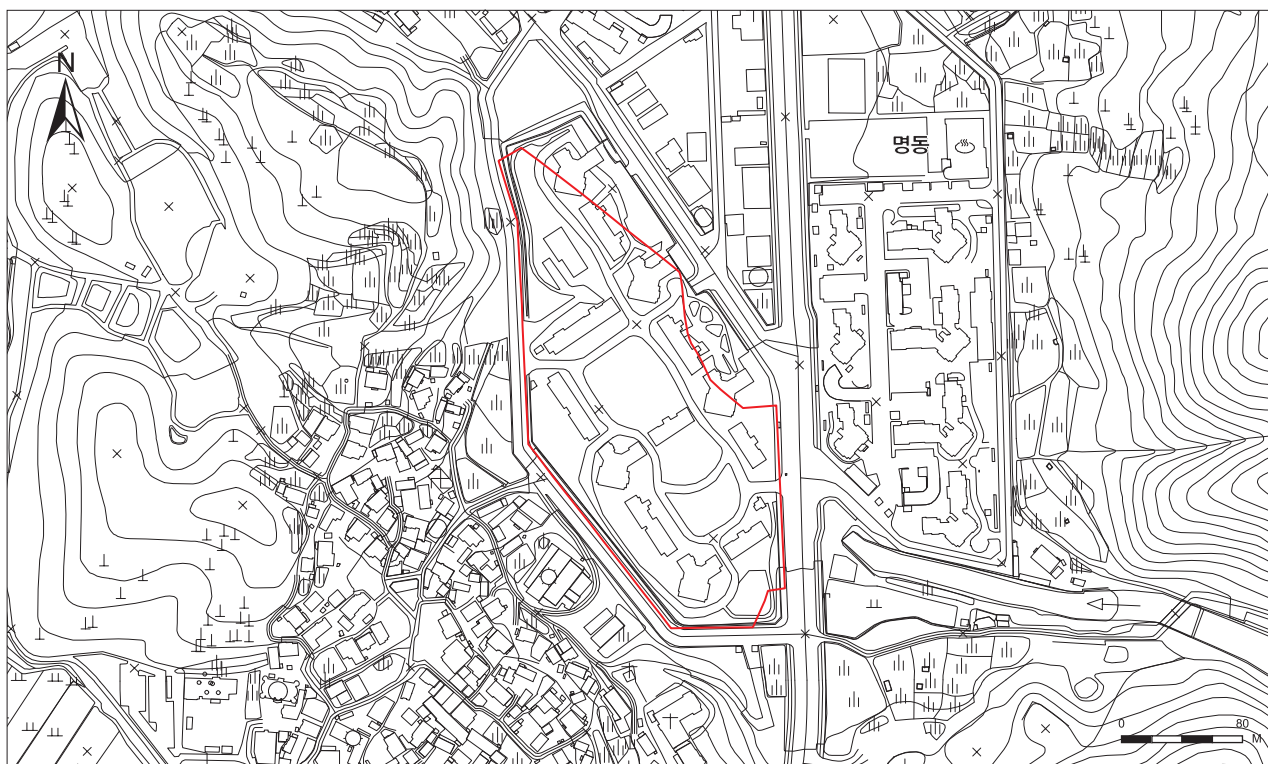
# 10 양산 명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1079-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2011.8.~2012.3.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구 / 고배, 옹, 기대, 단경호, 대호, 시루, 철기류

양산 명동유적은 대운산(해발 742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능선의 말단 곡부에 해당하며, 명곡 소류지에서 곡부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회야강에 합류하며 형성된 선상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95동, 고상건물 10동, 수혈 118기, 구 17기 등과 고려시대 수혈이 소량 조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삼국시대 생활유구가 중심인 유적으로 밝혀졌다. 토층 양상은 해발고도가 114m 정도인 남서쪽 구릉 하단부는 지표 아래에서 기반층인 황갈색풍화암반토가 바로 확인되는 반면, 해발고도가 111m 정도인 서쪽 중앙부의 곡부에는 비교적 두껍게 흑갈색니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또한, 유적 중앙과 북쪽은 할석과 점질사토가 혼입된 역석퇴적층인데 반해 남쪽은 황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된다. 이러한 퇴적양상은 남고북저·서고동저의 지형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적 위치도

삼국시대 주거지는 4~6세기 영남 동부지역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평면형태 방형의 주거지로 4주식 구조와 벽체·구들·출입구 등 세부적인 가구와 시설의 특징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고상건물의 주축방향은 주거지와 동일하게 남-북향이 대부분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대별되는데, 2×4칸의 장방형 4동, 2×3칸의 장방형 2동, 2×2칸의 방형 3동 등이며 면적은 9~25㎡ 정도이다. 고상건물들은 마을 내 공지 주변에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양상을 통해 볼 때, 취락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창고와 같은 시설로 추정되며 일부는 취락 내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것도 있어 마을과 외곽을 조망하는 망루일 가능성도 있다. 수혈은 유적의 공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장방형, 부정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평면형태 원형 및 방형의 수혈들은 바닥이 편평하거나 완만한 경우가 많고, 내부퇴적양상도 안정적인 편이다. 바닥에서는 다량의 토기 편이 출토되는데,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또한, 유적 내 해발고도가 낮은 서쪽에 평면형태 부정형의 대형 수혈들이 집중되는데, 이 지역은 양질의 점토가 퇴적되는 저습지화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토취갱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성과를 종합해 볼 때, 유적은 분포 범위상 남-북 길이 약 200m, 동-서 너비 약 100m, 면적 약 20,000㎡의 장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데, 집회 및 제의 등 공공구역으로 추정되는 광장을 중심으로 북쪽에 주거군, 동쪽과 서쪽에 고상창고군, 동쪽과 남쪽, 서쪽에 생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수혈과 구

유적 전경

64호 주거지

64호 주거지 출토유물

등이 분포하고, 유적 서단에 면한 독립 구릉에는 동시기의 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웅촌면 일대에는 동시기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역 정치체나 거점 취락 등으로 상정되는 대규모 유적으로는 양산 명동유적에서 북쪽으로 약 5㎞에 위치한 울주 대대리유적과 북쪽으로 약 2.5㎞에 위치한 양산 우불산고분군, 남쪽으로 약 2.5㎞에 위치한 양산 평산리유적 등이 비교적 성격이 뚜렷한 유적에 해당된다. 유적의 전모가 밝혀진 경우는 양산 명동유적과 양산 평산리유적 뿐이지만, 대대리고분군이나, 우불산고분군 등의 고분군과 명동유적, 평산리유적 등과 같은 생활유적과의 조합을 통해 거점 취락을 예측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산 명동유적은 대대리고분군을 조성한 정치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집단의 거점 취락 중 하나로 일정 범위 내에 산촌 형태로 분포하는 취락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부경문물연구원, 2014, 『양산 명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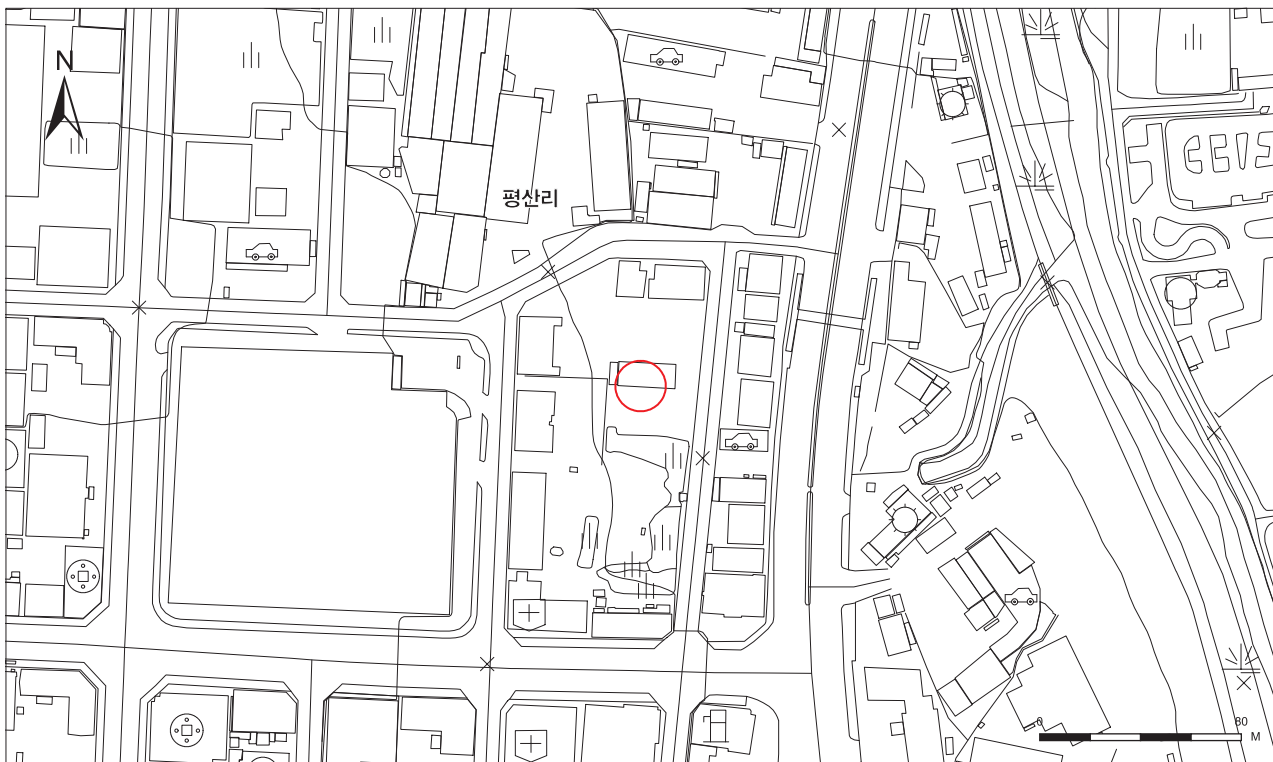
# 11 양산 평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리 8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6.6.~1996.9.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환호 / 연·경질토기, 장동옹, 시루, 노형토기, 철부, 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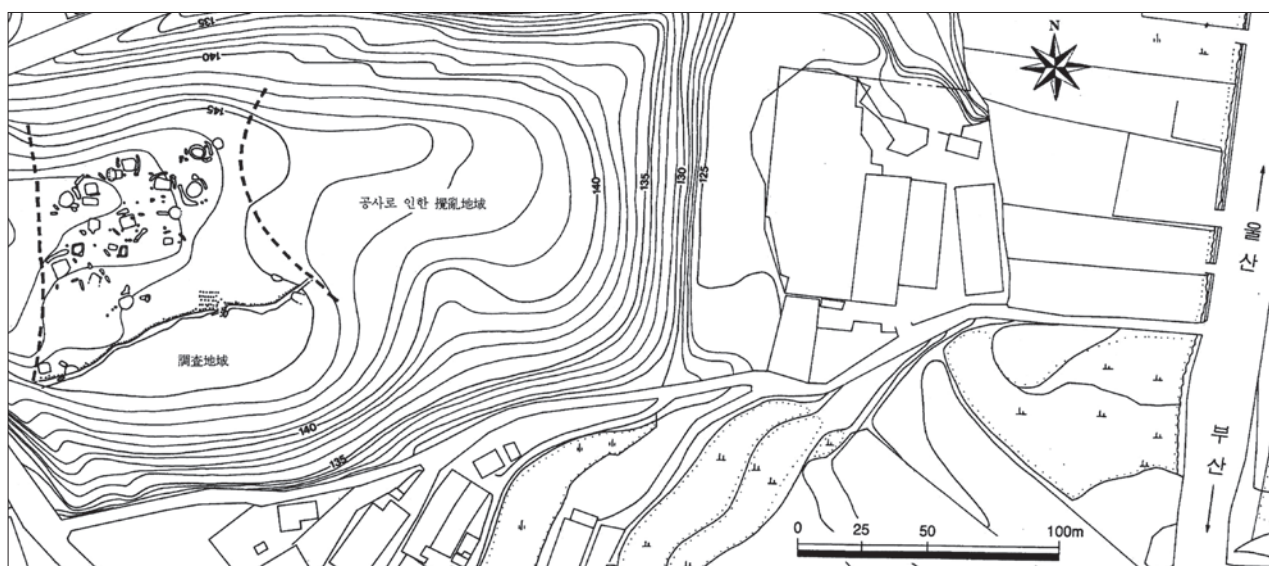
유적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에 위치하며 천성산(해발 약 811.5m) 동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구릉 정상부의 평탄대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지속된 취락이며 울산 검단리유적, 하대유적 등 인근의 청동기~삼한시대 유적과 비교검토가 가능한 생활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삼한시대에 해당하는 평면형태가 원(방)형인 주거지 24동과 환호,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유적의 삼한시대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주위에는 환호시설을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화재를 입고 대부분 동시에 폐기되었고, 주거지 주위에 구가 배치된 점은 유적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삼한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 방형, 원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규모상 대형에 해당하는 평면형태 장방형의 주거지가 취락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그 주위에 평면형태 방형 또는 원형의 주거지가 분포한다. 내부시설은 벽주혈이 다량 확인되는 점과 노지

유적 위치도

가 주거지의 서쪽 또는 북서쪽에 설치되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부 주거지에서는 외부로 구가 주거지 굴광을 따라 돌아가는데, 잔존양상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거지에 외곽을 일주하는 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유물은 각종 연·경질토기와 장동옹, 시루 등의 자비용토기, 노형토기, 방추차, 철부,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승석문타날의 회백색 연질옹, 회백색 연질의 노형토기들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2세기를 전후하는 시기에 조영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양산 평산리유적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부터 취락으로 조성되어 삼한시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상 대규모 취락은 아니지만, 당시 가족 단위의 생활을 영위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울산 지역의 검단리 환호유적과 하대유적의 청동기인, 삼한인과도 밀접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유적을 통해 앞 시대에 설치된 주거지가 다음 시대에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폐기되거나 훼손된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적은 택지조성을 통해 사라진 상태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양산 평산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2호 주거지

## 12

# 양산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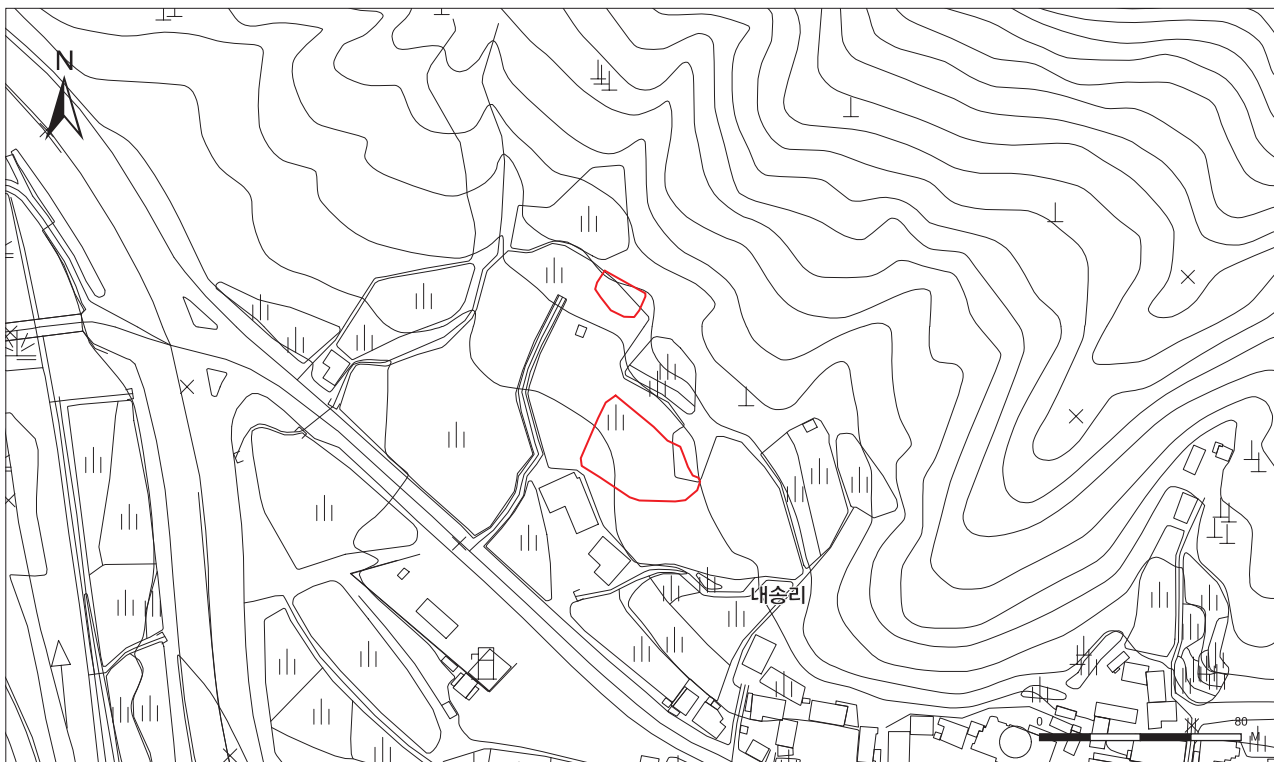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73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6.9.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없음

양산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은 다방동 뒷산(해발 345m)에서 남쪽으로 뻗은 구릉 사면으로 국도 제7호선과 국도 제35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1077호선의 내송삼거리 북동쪽 구릉부 및 평탄지 일대에 해당한다. 유적의 남쪽에는 동-서 방향으로 내송천이 흐르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적의 층위는 표토 및 현대 경작층-근현대 논층-자연퇴적층-곡부쇄설층-회황갈색석비레층으로 구분되는데, 유구는 대부분 회황갈색석비레층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 구, 집석유구와 삼국시대 수혈 4기와 구 3기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은 1구역 북쪽 모서리 주변에서 3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구릉 능선과 직교하며 평면형태는 부정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잔존 규모는 길이가 50~100㎝ 정도이고,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연질토기 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구의 경우에도 삼국시대 수혈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유적 위치도

특징은 간취되지 않지만, 1호 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상부에 후축되어 있어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일부나마 보여주고 있다.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와 유물이 적고, 잔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해 정확한 성격과 시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소량 출토된 연질토기 편 등을 감안하면 4~5세기대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양산 지역에서도 내륙에 해당하는 내송리 일대에도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생활유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7, 「양산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1호 구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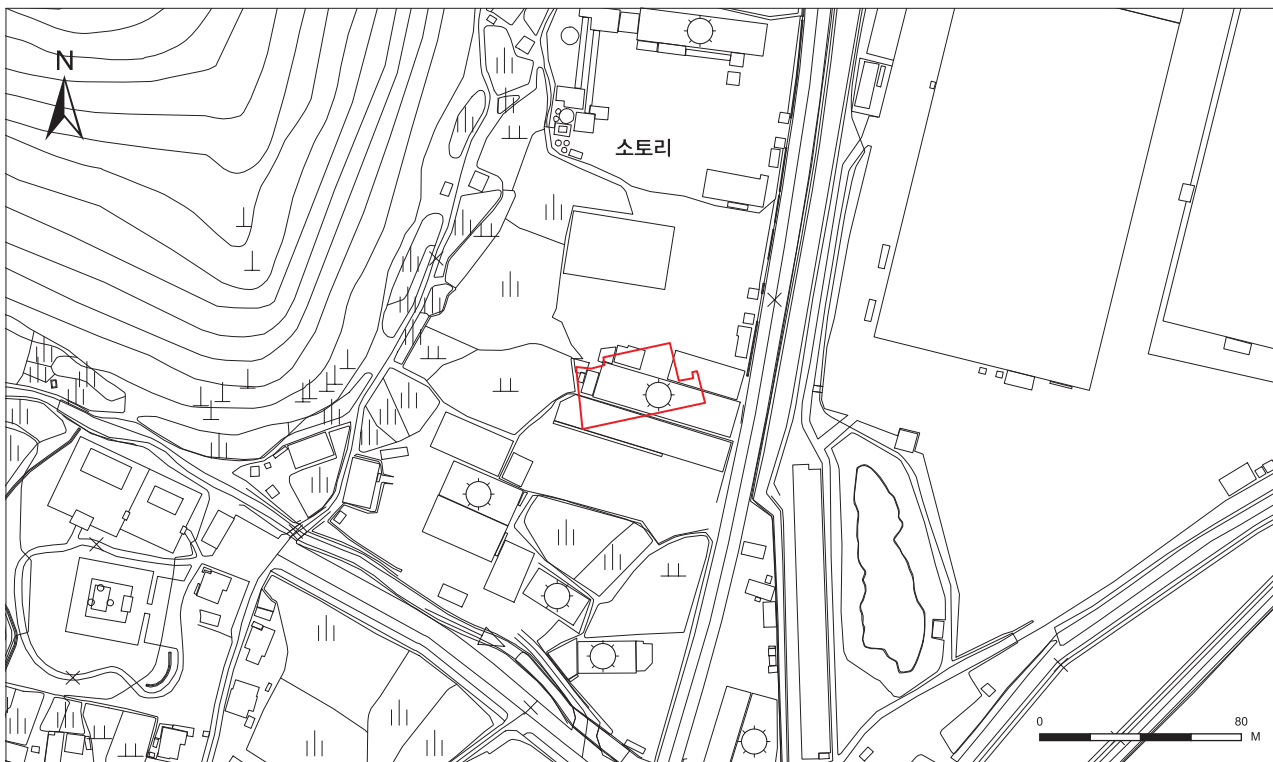
# 양산 소토리유적 _ 양산 소토리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79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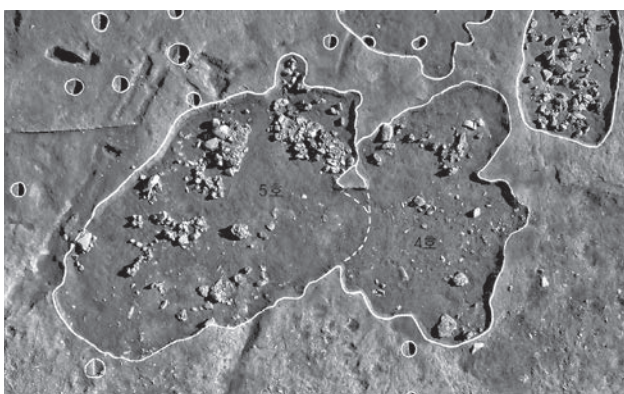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6.11.~2006.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고배, 송풍관

유적은 양산단층을 따라 흐르는 양산천의 서쪽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양산 소토리 효충유물산포지 내에 해당한다. 최근까지 지속된 농경지 및 공장부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절토, 삭평이 이루어져 원지형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6기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부정형이며 일반적인 주거지에서 볼 수 있는 정형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凸'자형으로 돌출된 부분에서 피열흔 및 소토, 목탄 등 주거지의 아궁이와 유사한 시설이 확인되었다. 수혈 내부에서는 할석과 다량의 토기 편들이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수혈의 기능이 정지된 후 폐기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은 시간적으로 대략 6세기 대이며 내부토와 내부양상 등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조성되고,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물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송풍관이 확인되었는데, 송풍관 이외에 철 편이나 제철관련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았고, 수혈 내에서 직접적으로 제철과 관련된 시설

유적 위치도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송풍관의 존재를 통해 유적 주변에 제철관련 유적의 유존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들은 제철공정과 관련된 부속시설 등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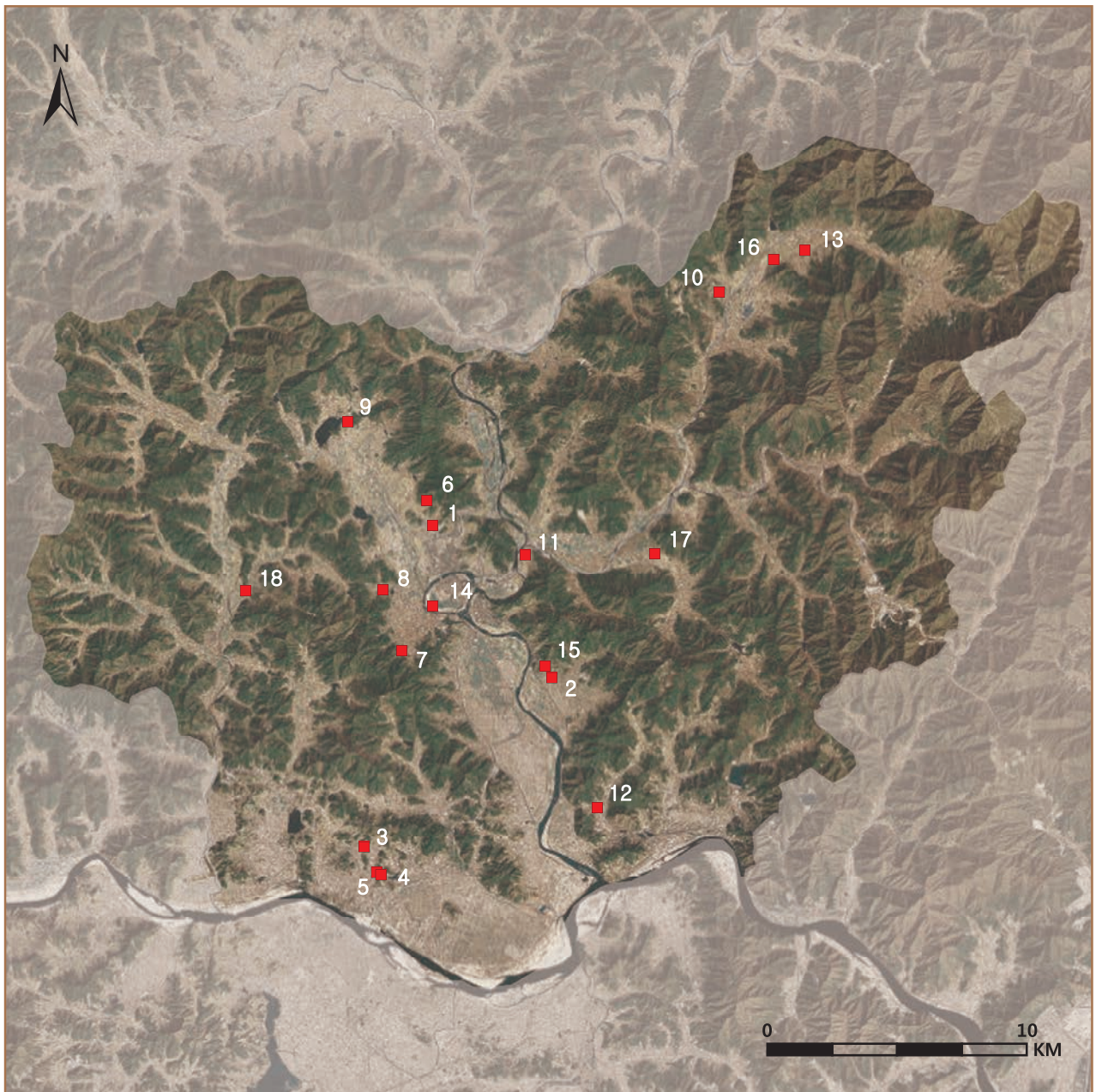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조사 성과를 통해 볼 때, 유적은 양산 물금유적과 같이 물금철광을 바탕으로 양산지역의 제철산업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자료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8, 『양산 소토리유적-양산 소토리공장 신축부지내 유적-』.

유적 전경

4·5호 수혈

5호 수혈 유물 출토모습

# Ⅳ. 밀양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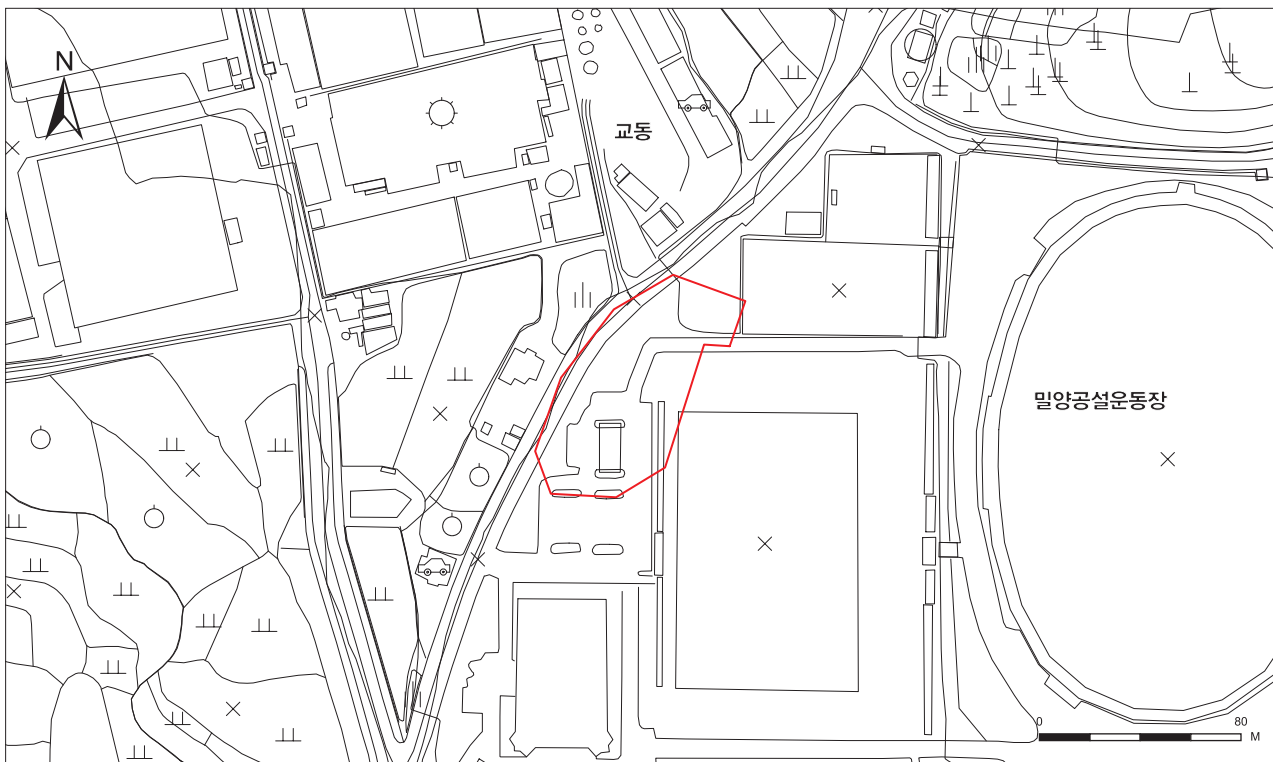
# 밀양 교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12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밀양대학교박물관 /
2002.9.~200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한국식동검,
검파두식, 전한경,
판상철부

밀양 교동유적은 밀양강에 합류하는 제대천과 주변 구릉 사이에 있는 단구화한 선상지 또는 하안단구 저위면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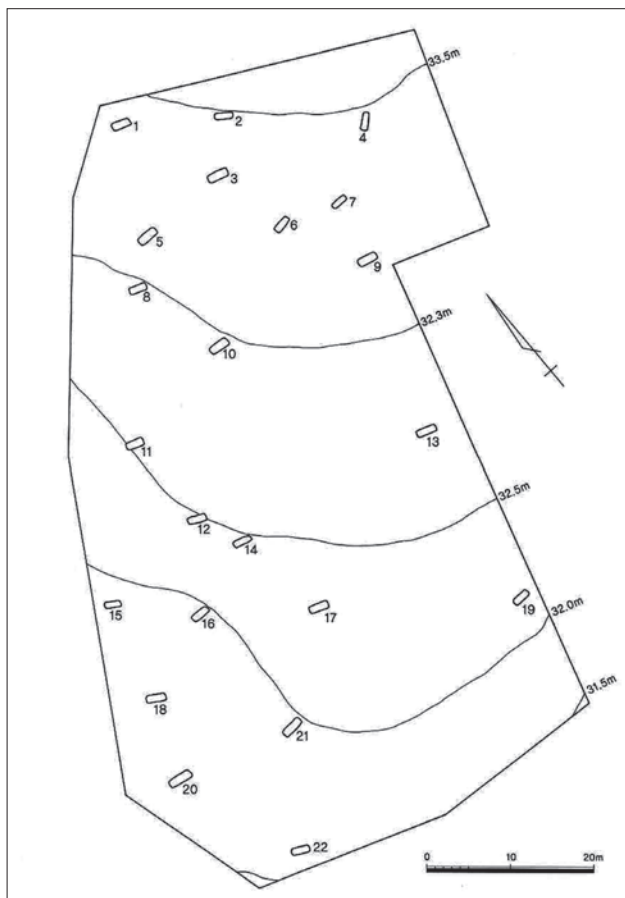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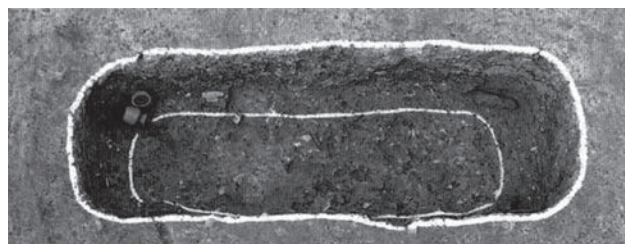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총 22기의 삼한시대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목관묘의 주축방향은 대부분 동-서향으로 유구간의 중복없이 배치되었다. 목관의 관재는 잔존하지 않았지만 관재의 부식에 의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관흔적토와 목관충전토를 통해 통나무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묘의 축조방법을 축조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직으로 묘광을 굴착한 후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이후 목관 내에 시신과 함께 동경, 철검 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유물을 부장하고 목관 외측을 흙과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목관 상부는 묘광 내부를 흙으로 채워 충전하고 상부에 봉토를 조성하였다. 유물은 목관의 내외, 목관 충전토 내와 상면, 묘광충전토 내 등에 부장되었는데, 토기는 주로 목관충전토 상면에 부장하였고 철기는 목관 외와 목관충전토 상면에 부장하였다. 한국식동검, 검

유적 위치도

파두식, 전한경, 판상철부,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 등 총 170점의 유물이 부장되었는데, 유물의 특징으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대부터 순차적으로 목관묘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동유적에서는 묘광 규모의 차이에 따라 부장유물에서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목관묘의 규모나 부장유물을 통해 계층화를 엿볼 수 있다. 즉, 규모가 큰 목관묘는 전한경 등 한식유물을 비롯해 다수의 토기, 철기류를 부장하고 유구 축조공정 단계별로 유물을 부장하는 복잡한 장송의례를 가지고 있다.

교동유적은 삼한시대 밀양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전한경 등의 위신재를 낙랑지역과 교섭을 통해 입수하는 등 그 존재를 부각시키려 했던 당시 사회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변진 12개국 중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이 밀양이라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밀양대학교박물관, 2004, 『밀양 교동유적』.

유구 배치도

3호 목관묘

전한경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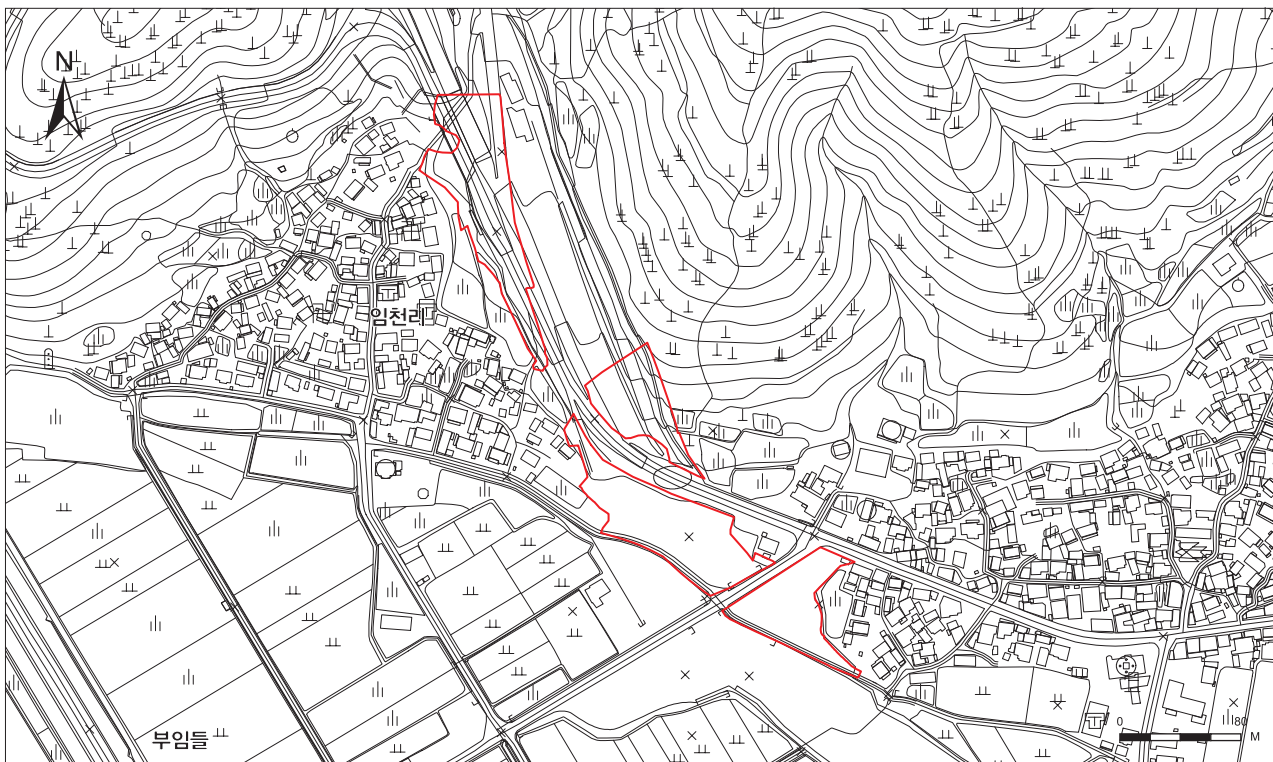
# 밀양 임천·금곡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64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2.1.~2012.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제철로 / 마구류, 단야구, 금동관 편, 송풍관 편, 용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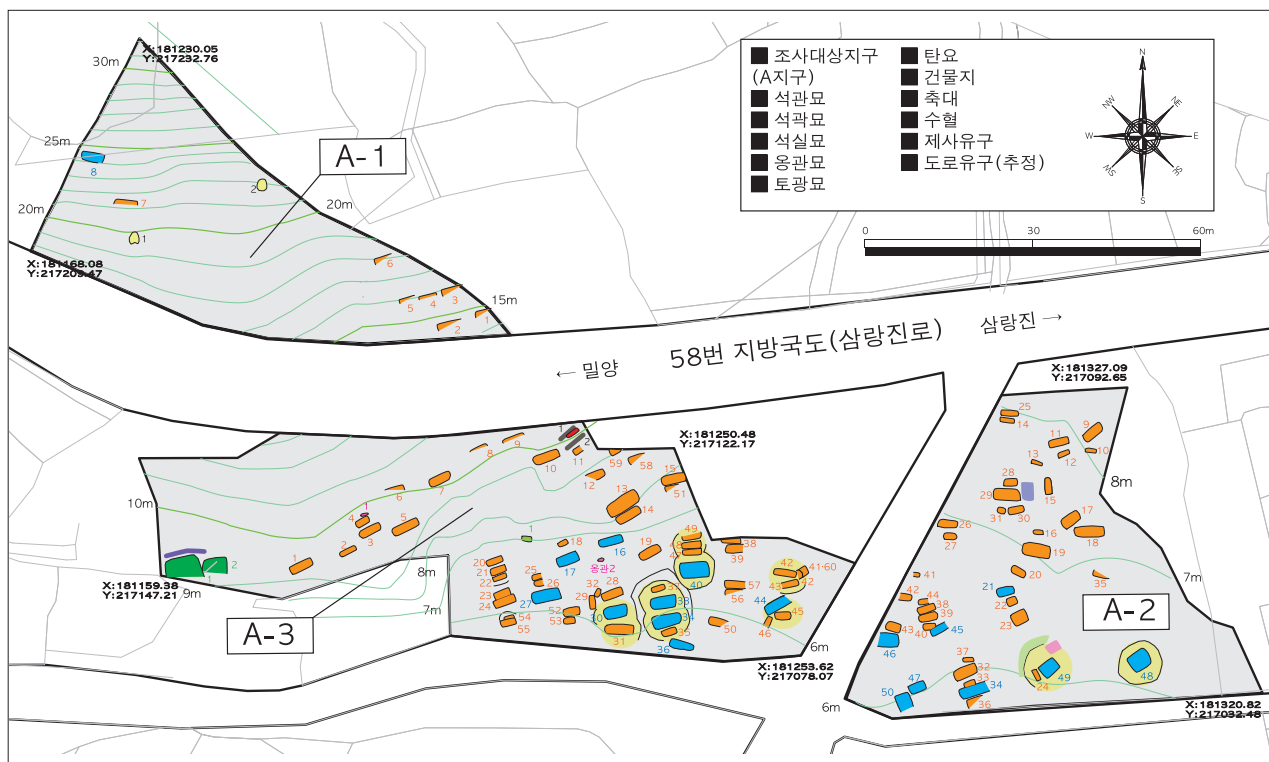
유적은 산성산(해발 390m)에서 가지상으로 뻗어내린 임천리 금곡마을 배후구릉(해발 266m)의 사면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일대는 인접하여 위치하는 밀양강과 낙동강을 이용하여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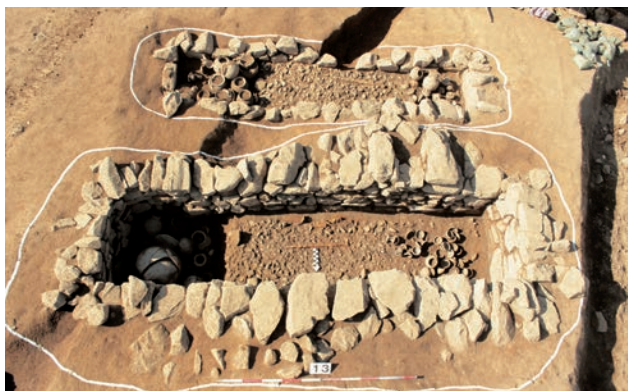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2개 지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A지구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122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은 토광묘 1기, 석곽묘 89기, 석실묘 20기, 옹관묘 2기로 좁은 범위에서 상호 중복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분포하고 있었다. 고분군 내에서의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양상은 구릉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축차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비교적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구릉의 하단부로 갈수록 고분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분 내부에서는 개, 고배, 대부장경호, 단경호 등 상당한 양의 토기류를 비롯한 마구류, 단야구, 금동관 편, 금동과대, 태환이식 등의 금속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은 5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수혈식석곽묘에서 6세

유적 위치도

기 후반까지 조성된 횡구식석실묘가 지속적으로 조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밀양 지역 고분의 변천양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B지구에서는 고대 제철유구 중심으로 제철조업과 관련된 일련의 공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인되었다. 배수로, 제련로, 정련 또는 정련단야로, 용해로, 초강로로 추정되는 노를 비롯하여 제철관련 폐기장, 점토채취장, 저탄장, 탄요, 가마, 수혈(추정 작업장) 등이 조사되었다. 폐기장과 수혈 등에서 채집된 토기의 형식을 통해 본 제철유적의 조업시기는 고분보다 후행하는 6세기 전엽경에서 1세기 정도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철로 조사 시 주변에서 함께 출토된 입상재, 단조박 편, 철범, 용범, 다양한 종류의 철재와 송풍관은 노의 기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부재로 활용될 것이며,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출재와 노벽체 편, 송풍관 편과 다양한 종류의 철재는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지역의 제철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실물자료가 부족한 고대 제철산업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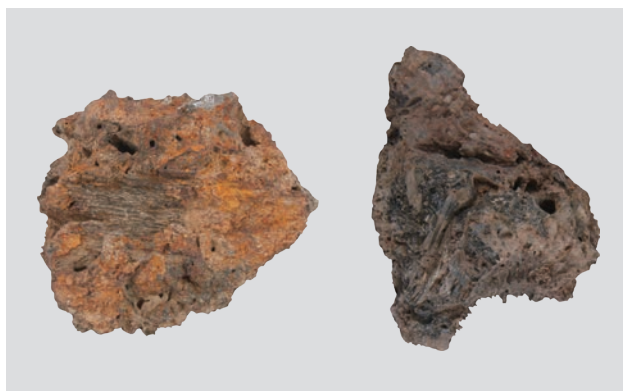
밀양 임천·금곡유적의 조사를 통해 제철유구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분묘 등 당시의 사회경제와 연계된 매장관념의 확인을 통해 고분 조성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인접한 밀양 대촌유적, 밀양 귀명리 유적,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삼국시대 밀양지역 사회집단의 지배구조·경제활동·매장관념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6, 『밀양 임천·금곡 유적』.

A지구 유구 배치도

33·34호 횡구식석실묘

13·14호 수혈식석곽묘

25호 제련로

22호 정련단야로

노 벽체 편

# 03 밀양 귀명리 삼국시대 무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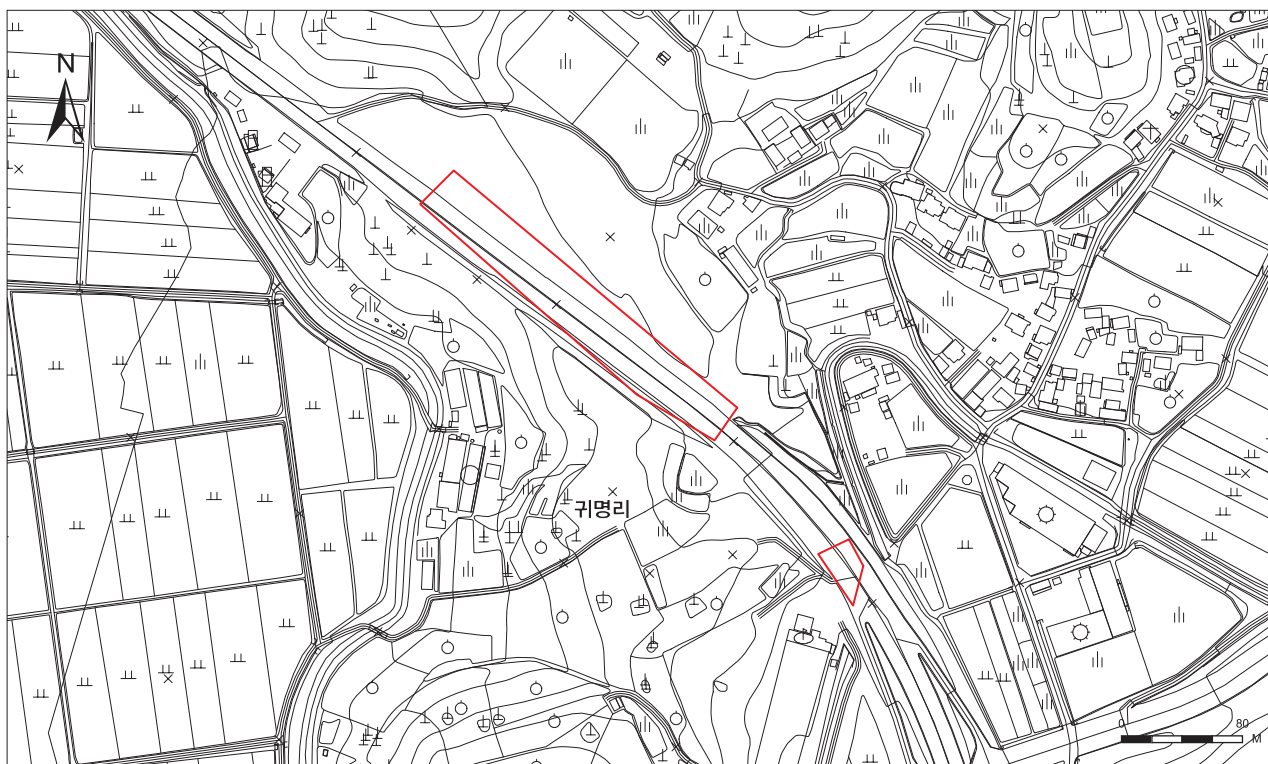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귀명리 18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5.1.~2005.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패총 /
고배, 단경호, 장경호,
철모, 철촉

유적은 밀양시의 서남쪽의 낙동강 북쪽 충적대지 경계 부근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릉의 남서사면(해발 22~32m)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으며 조사지역 외곽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고분군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구릉 말단부와 구릉 아래 곡간평야지대에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주거지 등이 입지하고 있어 삼국시대 고분이 조영되기 이전부터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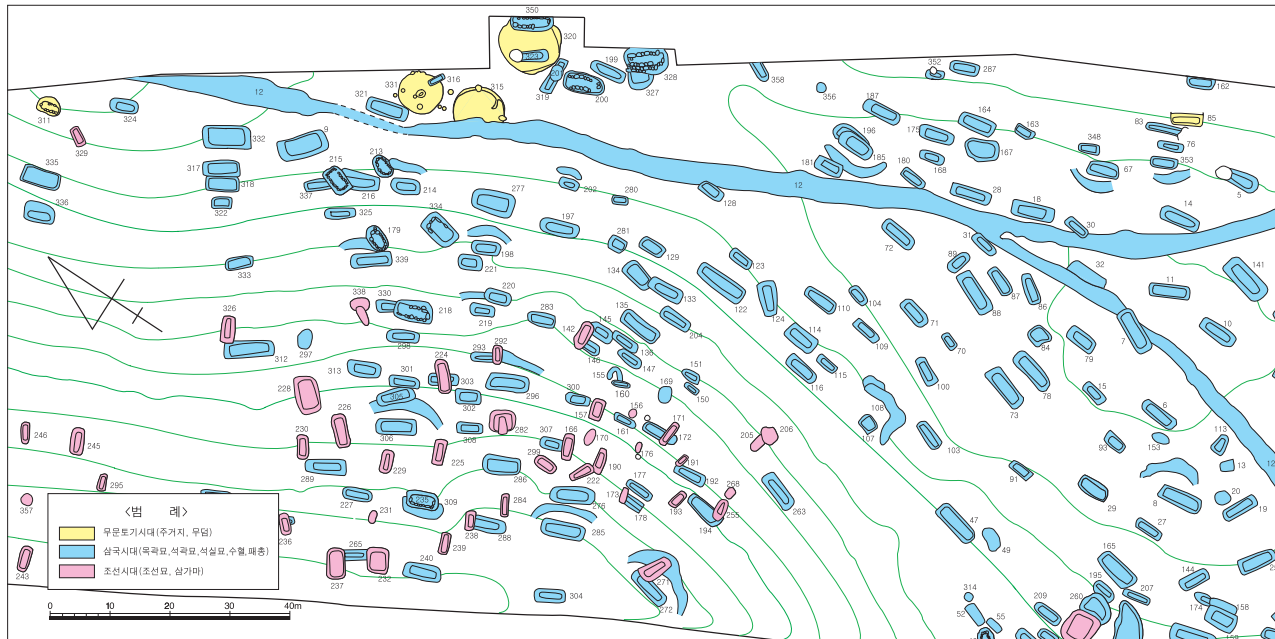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와 분묘 3기, 삼국시대 목곽묘 250기, 옹관묘 12기, 석곽묘 14기, 석실묘 1기, 패총 1기, 조선시대 분묘 64기와 구상유구 등 350여 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의 규모는 대체로 중소형에 해당되며 밀집도는 높은 편이다. 중복관계와 출토유물로 보아 목곽묘→목곽묘·석곽묘→석실묘의 축조순서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각 묘제간의 묘역구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목곽묘는 구릉 정상과 사면 전체에서 확인

유적 위치도

되었는데, 장축은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과 양단변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고 사다리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많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할석을 함께 넣어 보강한 것도 있다.

귀명리유적은 삼국시대분묘가 중심이 되는 유적으로 평면형태가 세장한 소형 목곽묘가 특징이다. 앞으로 이 지역 성격의 일단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밀양 귀명리 삼국시대 무덤군-부곡~수산간 도로구간 내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26호 횡구식석실묘

125호 석곽묘

출토유물

## 04

# 밀양 양동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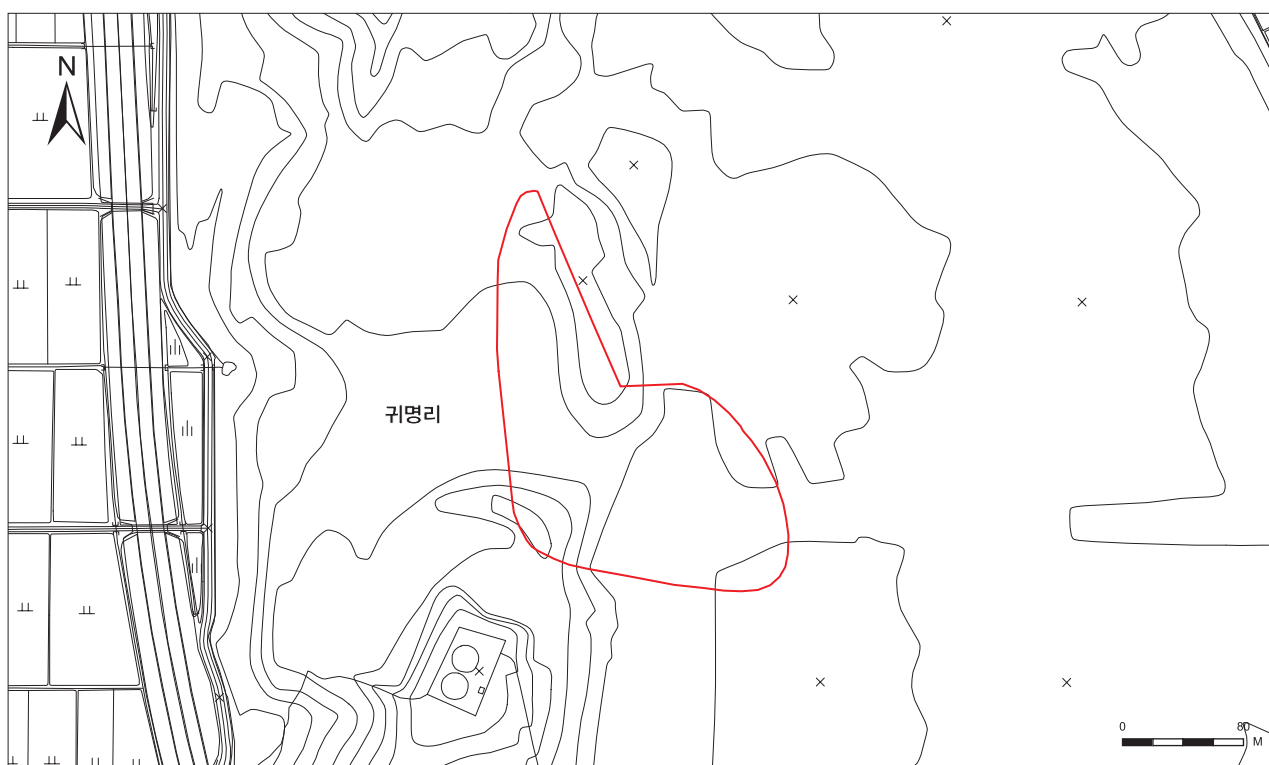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산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4.12.~2015.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유개고배, 기대, 재갈, 환두대도, 금동관

조사지역은 종남산(해발 662.4m) 남쪽 사면부의 소능선부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낙동강의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낮은 구릉과 소곡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북서쪽 경계에 접해 국보학술문화연구원, 남동쪽으로 인접하여 부경문물연구원에서 각각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양동리고분군은 밀양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고분군 중에서 낙동강 본류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 방향으로 1㎞ 정도 이격되어 귀명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 143기(목곽묘 16기·석곽묘 95기·석실묘 28기·옹관묘 4기), 토기가마 1기, 탄요 1기, 수혈 1기와 조선시대 분묘 104기, 기와가마 1기, 수혈 1기, 고상건물 7동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5세기 전엽에서 6세기 후엽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곽묘와 석곽묘가 북쪽 구릉에서 남서쪽 구

유적 위치도

릉으로 순차적으로 조성되고 석실묘는 일정한 묘역을 형성하며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중 석곽묘는 상하 3중의 병렬배치된 이혈합장의 무덤형태, 제사유구의 존재, 친연관계 분묘의 시상과 제사유구에서 깨트린 대호를 공유하는 특수한 장속 등 양동리고분군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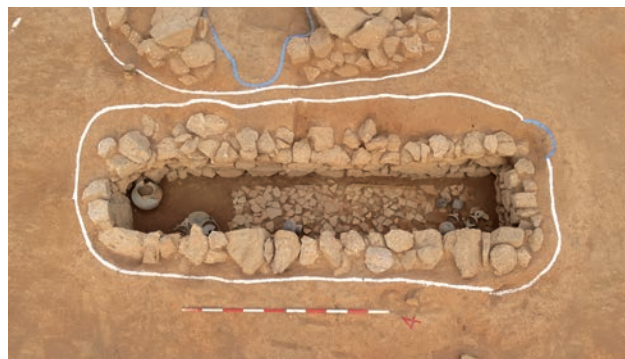
양동리고분에서는 신라의 간접지배를 상징하는 유물인 수지형금동대관이 출토되어 신라의 낙동강 서안진출과 맞물려 신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장제에서는 재지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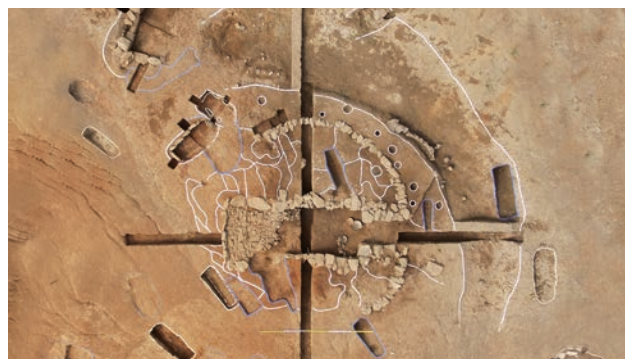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7, 『밀양 양동리고분군』.

유적 전경

유적 근경

16호 목곽묘

9호 석곽묘

86호 석곽묘

22호 석실묘

토기류·금속류

장신구류

# 05 밀양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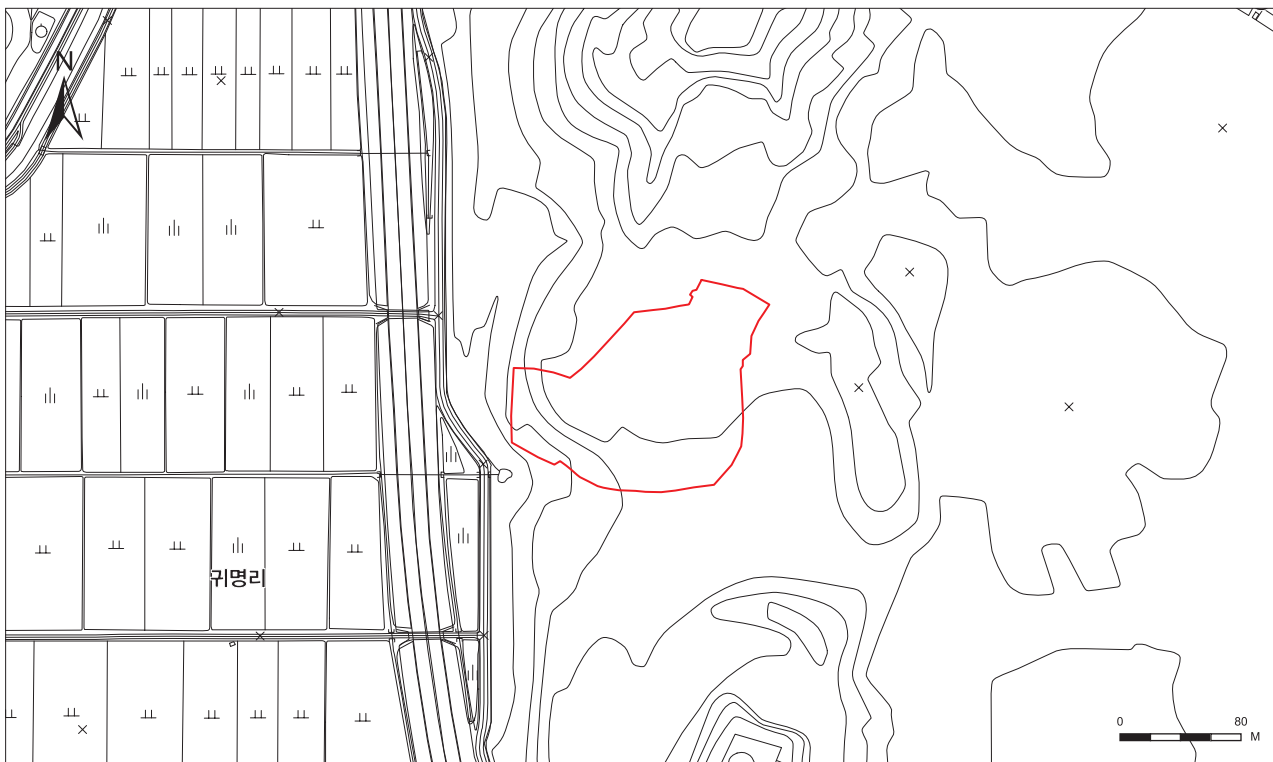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산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보학술문화연구원 / 2014.9.~2015.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단경호, 유개고배

조사지역은 종남산(해발 662.4m) 남쪽 사면부의 소능선부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낙동강의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남동쪽 경계에 접해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과 인접하여 부경문물연구원에서 각각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양동리고분군은 밀양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고분군 중에서 낙동강 본류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방향으로 1㎞ 정도 이격되어 귀명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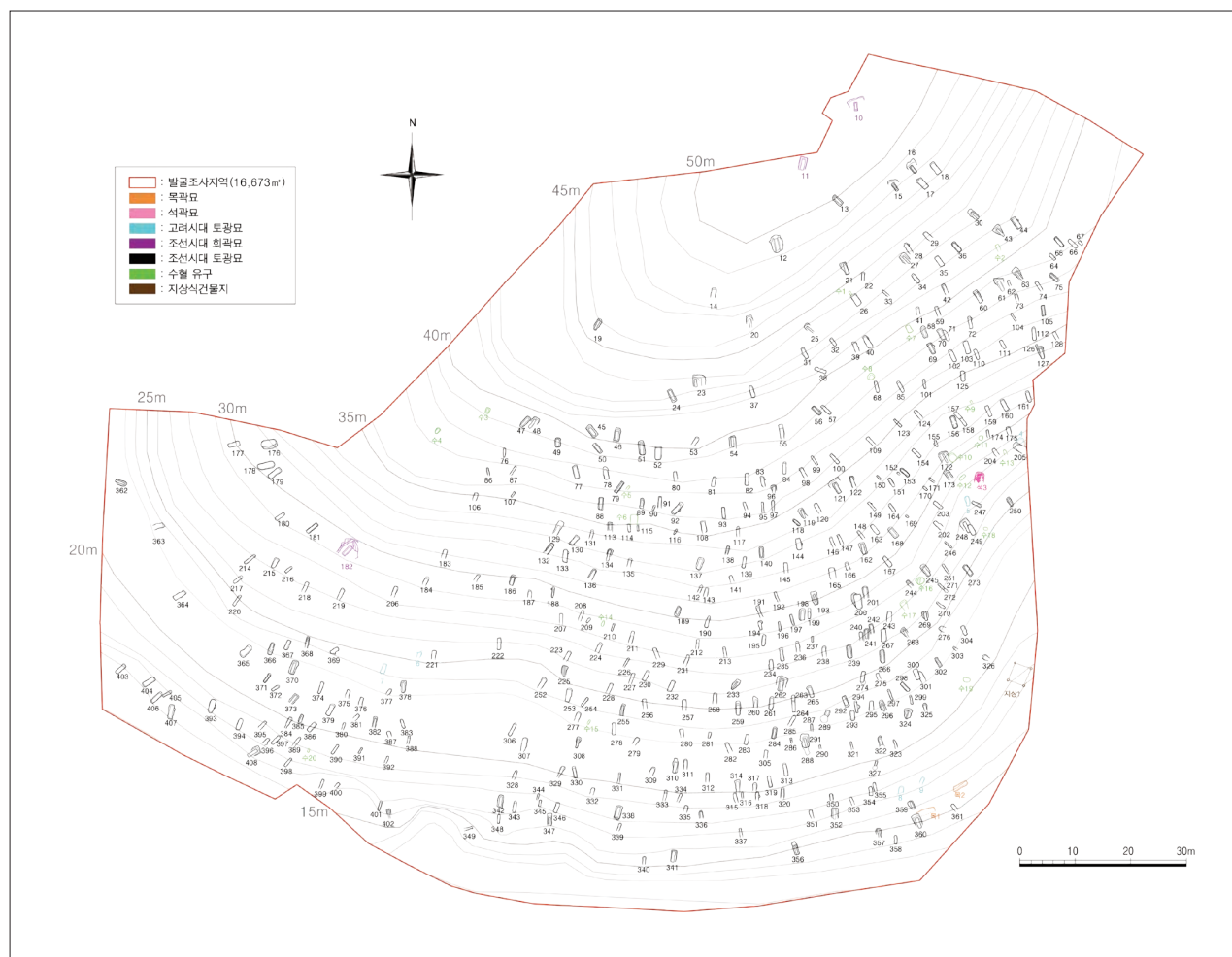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에 조성된 분묘,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등 총 491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는 석실묘 1기, 수혈 1기, 구상유구 1기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조선시대 및 근대에 조성된 분묘이다.

삼국시대 석실묘는 절반 가까이가 유실되고 2단 정도만 잔존한다. 석실묘 내부에서 기와로 조성된 시상이 확인되었으며, 입구부는 유실되어 알 수 없다. 유물은 단경호, 유개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국보학술문화연구원, 2015,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은 인근에서 함께 조사된 양동리고분군, 귀명리고분군과 함께 낙동강과 인접한 밀양 수산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의미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 발굴조사지역(16,673㎡)
: 목곽묘
: 석곽묘
: 고려시대 토광묘
: 조선시대 회곽묘
: 조선시대 토광묘
: 수혈 유구
: 지상식건물지

유구 배치도

3호 석실묘

출토유물

# 06

# 밀양 용지리유적 _ 밀양 교정시설 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산3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6.7.~2007.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옹관묘 / 파배, 옹, 광구소호

유적은 밀양시가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옥교봉(해발 539m)에서 뻗어내린 구릉의 남쪽 말단부 해발 63~82m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제단유구, 삼국시대 목곽묘·옹관묘·집석유구, 고려시대 석관묘·건물지, 조선시대 목관묘·요지·수혈 등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목곽묘 3기와 옹관묘 1기, 용도불명의 집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목곽묘들은 후대 묘들로 인해 파괴가 심하게 되어 원형을 찾기 어려우나 조선시대 묘가 확인되지 않는 서남구릉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지역 전체에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석유구는 유구 주변에서 확인된 망치, 집게, 철부 등으로 볼 때 단야시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밀양 용지리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분묘유구가 반복적으로 조영되었던 유적으로서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삼국시대 밀양지역의 고분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밀양 교정시설 신축예정부지 내 밀양 용지리 유적』.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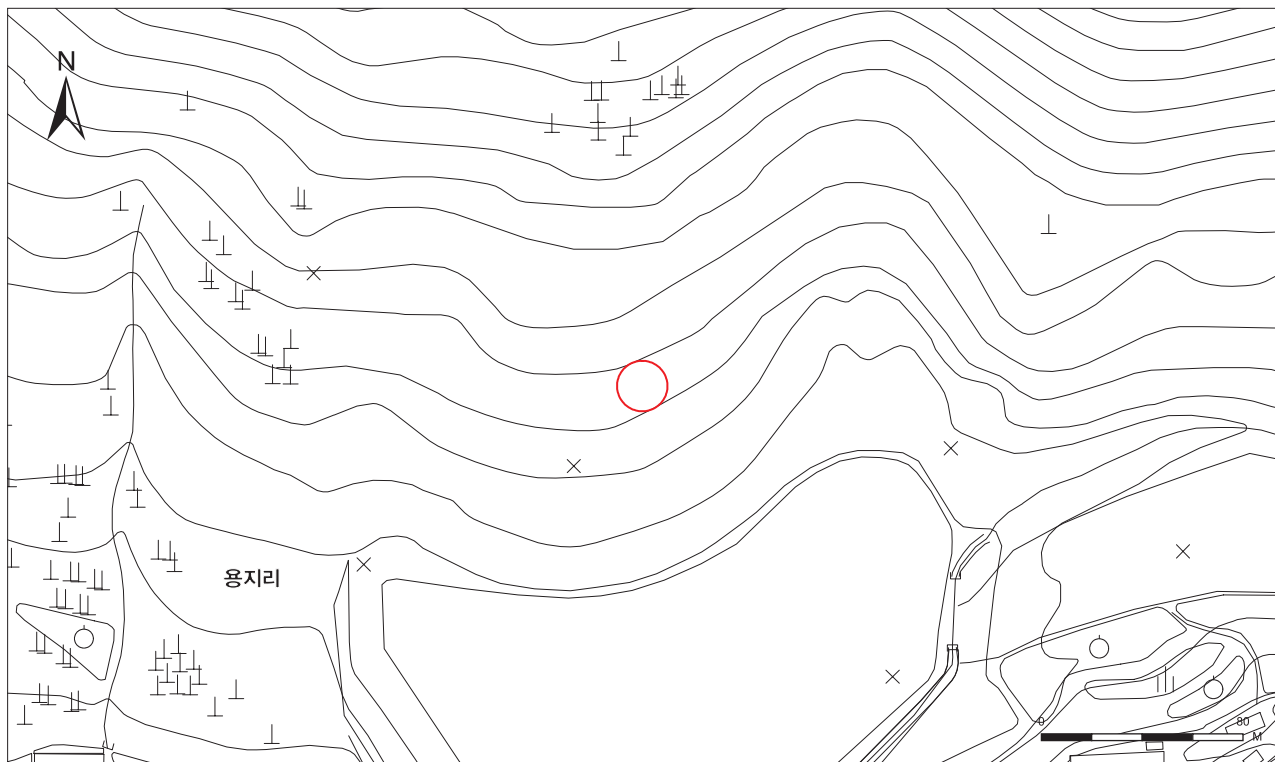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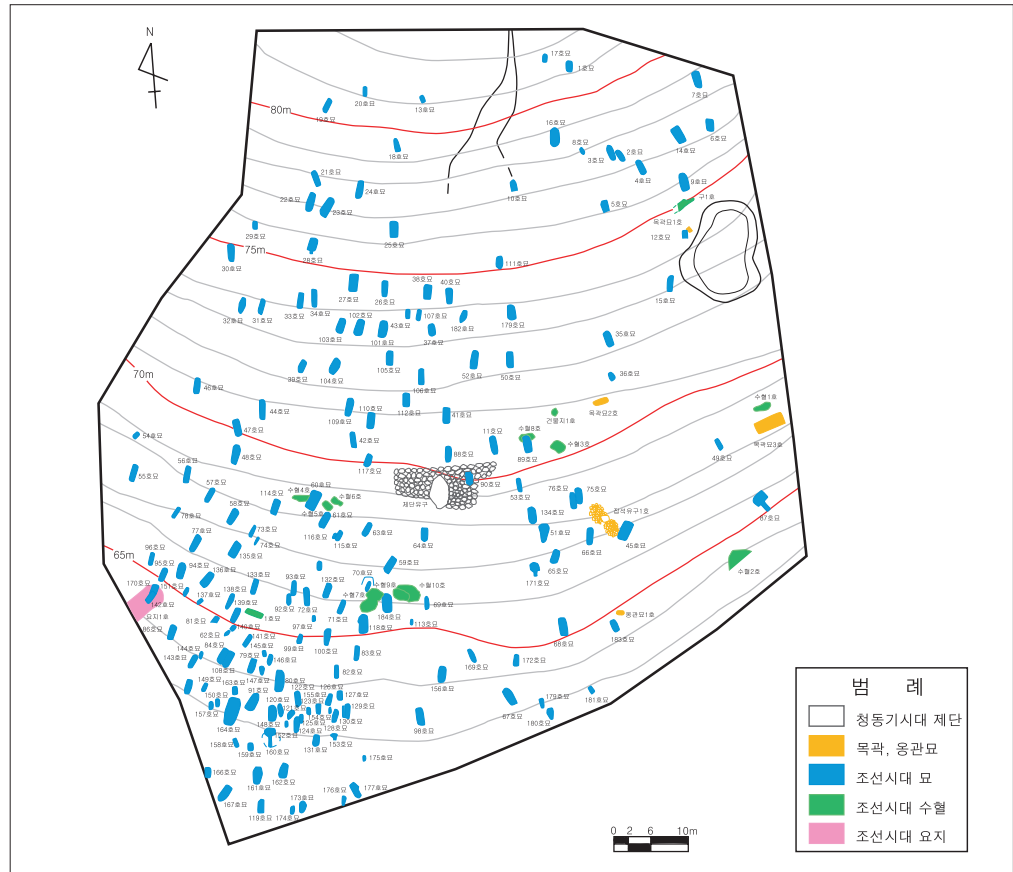
N
80m
75m
70m
65m
범 례
청동기시대 제단
목곽, 옹관묘
조선시대 묘
조선시대 수혈
조선시대 요지
0 2 6 10m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07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4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7.5.~2008.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탄요 / 장경호, 단경호, 고배, 대도

# 밀양 사포리유적 _ 밀양 사포 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유적은 종남산(해발 663m)의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경사 변환점에 형성된 선상지에 입지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서에서 동으로 크게 사행하면서 흐르는 밀양강과 밀양평야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평야를 넘어 밀양시가지가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분묘 12기, 삼국시대 분묘 34기, 탄요 10기, 고려시대 분묘 3기, 조선시대 분묘 4기, 수혈 1기, 건물지 4동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은 옹관묘 1기, 목곽묘 2기, 석곽묘 28기, 횡구식석실묘 3기로 옹관묘, 목곽묘, 석곽묘는 가구역에 집중 조영되어 있었고 석실묘는 다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고분들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어 있으며, 유구의 중복 없이 설치되었다. 목곽묘는 묘광과 목곽 사이를 할석으로 채우는 위석식목곽묘로 목곽 내에는 소형할석을 촘촘히 깔아 시상석으로 사용하였다. 석곽묘는 벽석의 축조상태가 정연하지 못하여 구조상 목곽묘와 구별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벽석을 최하단석부터 쌓아올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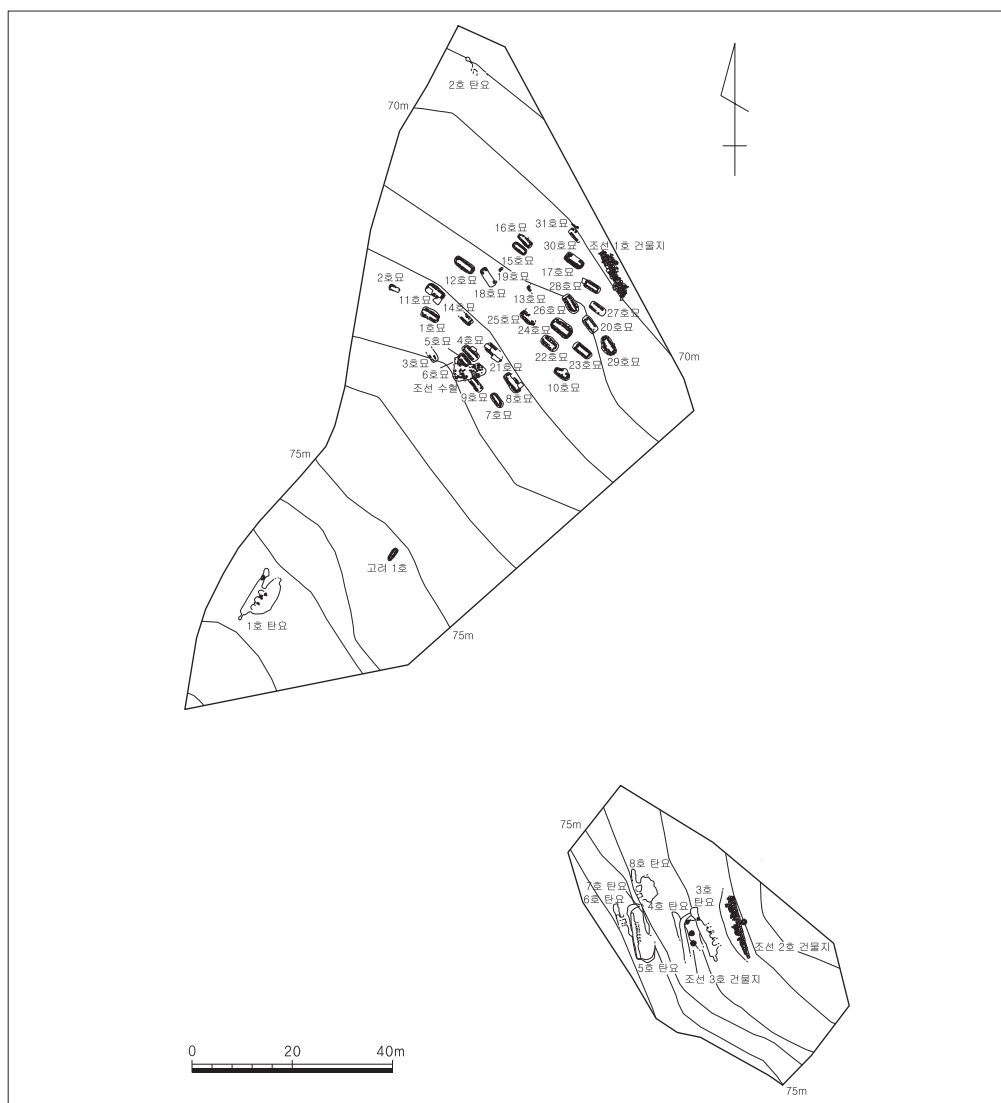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을 석곽묘로 분류하였다. 사포리유적의 석곽묘는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이행하는 과도기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묘와 석곽묘의 축조시기는 5세기 중엽이 중심연대이다. 석실묘는 횡구식으로 장방형의 구조로 바닥에는 잔자갈의 시상을 깔았으며 상단부가 결실되어 입구부의 형태는 확실하지 않다. 석실묘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삼국시대 측구부탄요는 모두 10기가 조사되었다. 측구부탄요는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며 지형을 'L'자형으로 정리한 후 굴광 벽쪽에 탄요를 만들고 트인 쪽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밀양 사포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생산, 분묘유구 등 복합적인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어, 이를 통해 이 지역 일대에 선사·고대인들이 조성한 각종 문화활동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밀양 사포 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Ⅰ지구) 밀양 사포리유적』.

가구역 유구 배치도

가구역 전경

가-23호묘

가-1호 탄요

출토유물

# 08

# 밀양 제대리유적 _ 밀양 제대지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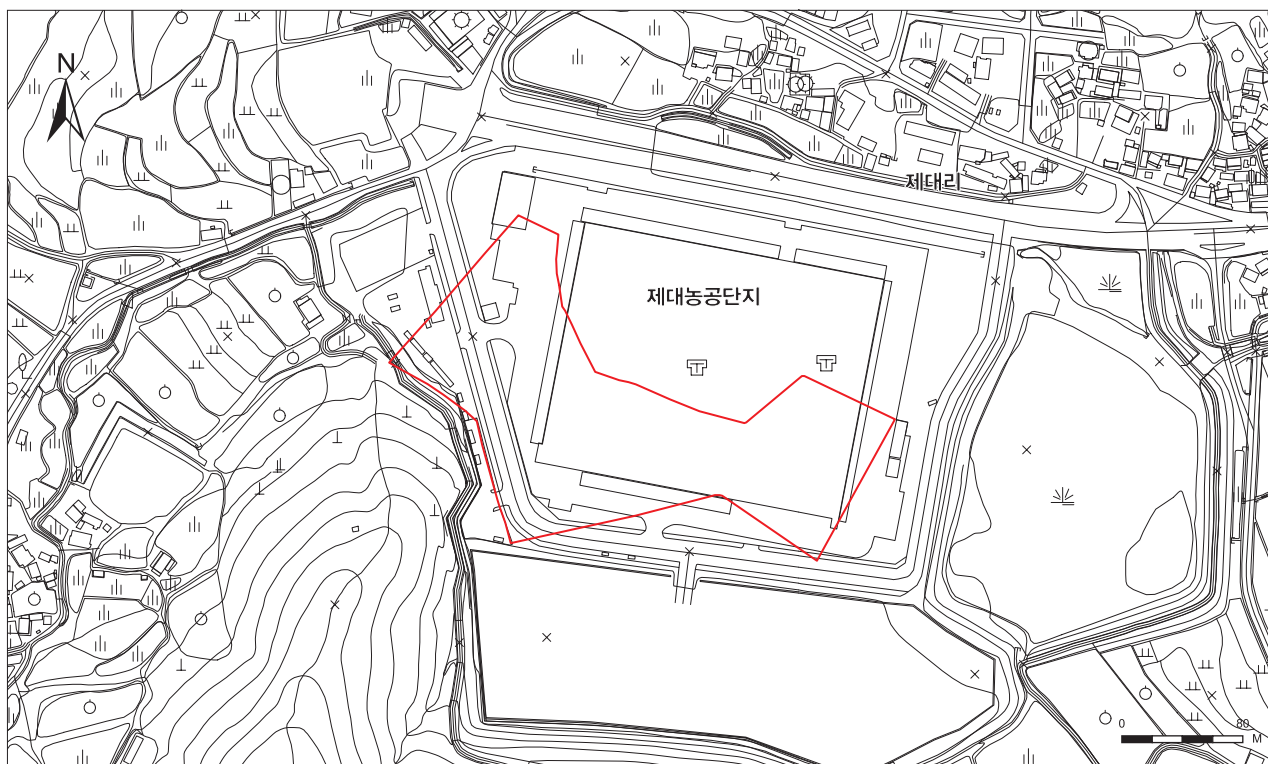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18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8.4.~2008.7.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유개대부직구호, 유개고배, 철제관, 호형대구

유적은 종남산(해발 663m)의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구릉 말단부 및 곡간부에 위치한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밀양강의 지류인 부북천과 제대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으로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충적평야 지대인 월산리, 청운리, 덕곡리 등에 청동기시대 지석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과 충적평야를 바라보는 구릉지에는 월산리 분묘군, 월산리 가산고분군, 덕곡리고분군, 교동유적 등 삼한·삼국시대 고분군들이 입지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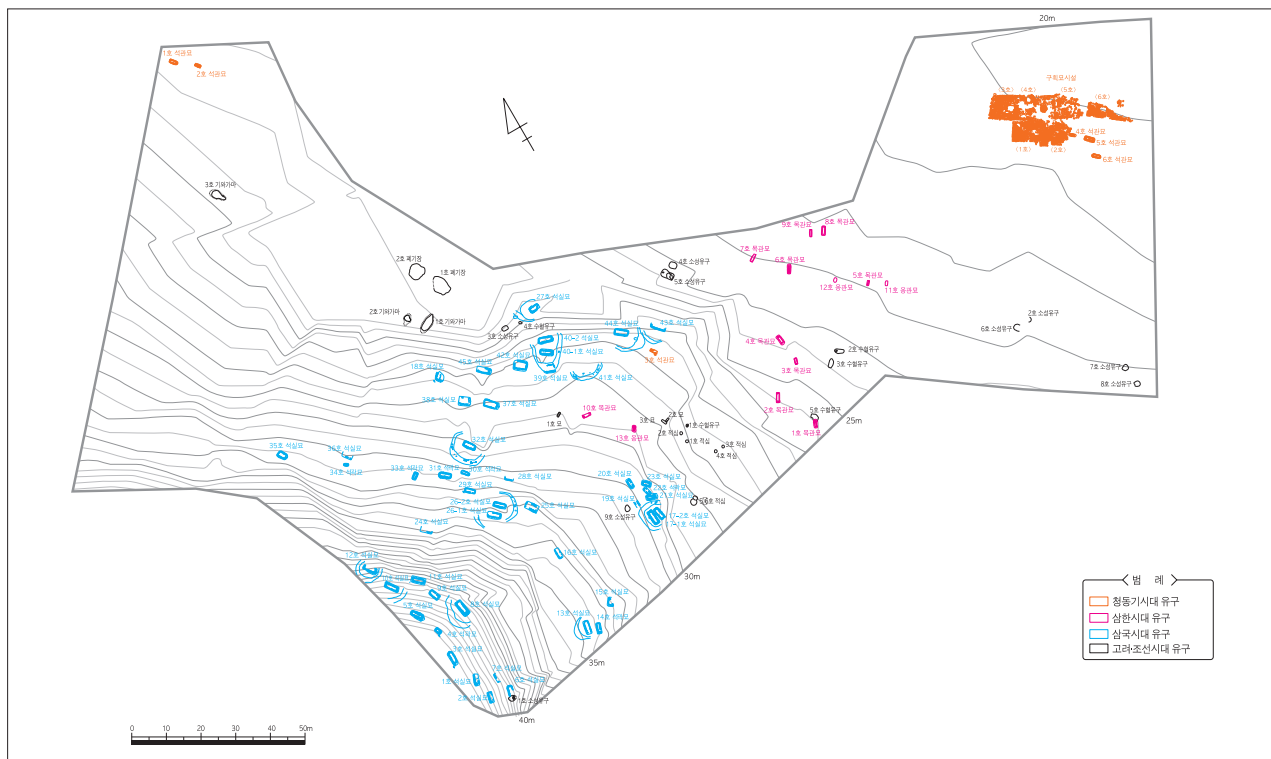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6기와 구획시설 6기, 삼한시대 목관묘 10기와 옹관묘 3기,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 48기, 주혈군 1개소, 고려·조선시대 분묘 3기, 기와가마 3기, 폐기장 2기, 수혈유구 9기, 수혈유구 5기, 적심 6기 등 총 10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한시대의 분묘는 목관묘 10기와 옹관묘 3기가 확인되었는데, 목관묘는 모두 판재

유적 위치도

식목관묘이며 옹관묘는 대호와 단경호를 이용한 합구식옹관묘이다. 목관묘와 옹관묘는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출토유물이 적어 성격과 편년이 어렵지만 4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개대부직구호를 통해 살펴보면, 2세기 후반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분묘는 수혈식석곽묘 6기와 횡구식석실묘 42기로 횡구식석실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수혈식석곽묘는 소형으로 횡구식석실묘 주변에서 확인되어 횡구식석실묘의 배장묘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묘는 외형적으로 주구를 설치하여 묘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와 단독으로 조영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석실묘 간의 중복상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축조 당시 계획적으로 일정하게 공간배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의 방향과 나란하게 설치되었으며, 입구부는 한쪽 단벽을 이용하였는데 대부분 지형이 낮은 동쪽과 북쪽 단벽 전면을 이용하였다. 석실 내부에는 바닥에 점토를 일정 두께로 정지한 후 20㎝ 전후의 할석을 한 벌 깔고 상부에 점토와 잔자갈을 이용하여 편형하게 골라 20~30㎝ 높이의 시상대를 마련하였다. 추가장은 1~3회 정도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석실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로 구분할 수 있다. 토기류는 유개고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완, 파배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재지계 토기보다는 신라화된 토기로 볼 수 있다. 장신구류로는 금동제이식과 철제관이 출토하였는데 수하식이 달린 태환이식도 출토되었으며, 철제관의 잔존형태로 보아 출자형의 입식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석실묘의 조영시기는 6세기 초반에서 후반으로 판단된다.

유구 배치도

밀양지역은 6세기 초에 신라의 추화군으로 편입되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신라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대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상황으로 보아 이 내용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대리유적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국시대 밀양지역 지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밀양 제대리유적-밀양 제대지구 농공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4호 목관묘

10호 석실묘

11호 옹관묘

4호 석곽묘

32호 석실묘

출토유물

# 09 밀양 월산리분묘군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산214-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밀양대학교박물관 / 2000.1.~2000.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고배, 장경호, 단경호, 판상철모, 유자이기

유적은 해발 74~77m에 해당하는 구릉정상부 일대에 위치하는데, 일제시대부터 도굴이 진행되어 그 존재가 알려져 왔다.

발굴조사 결과 14기의 분묘와 주구, 주혈, 수혈, 구 등에서 200여 점의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은 목곽묘 8기, 수혈식석곽묘 5기, 횡구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4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적어도 100년 이상 묘역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목곽묘는 이른 시기에는 목곽과 묘광 사이에 보강석재가 없거나 극소수이며 바닥은 무시상이며 묘광 규모가 소형이다가 묘광 규모가 크고 목곽과 묘광 사이에 대형 보강석재를 사용하며 목곽 내 시상석을 까는 것으로 변화한다. 목곽묘는 석곽묘와 공존하며 6세기 중반대까지 계속 축조되고 있어 낙동강 하류지역 일대의 양상과 비교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목곽묘에서 주구가 확인됨으로서 영남지역 주구묘 연구에 중요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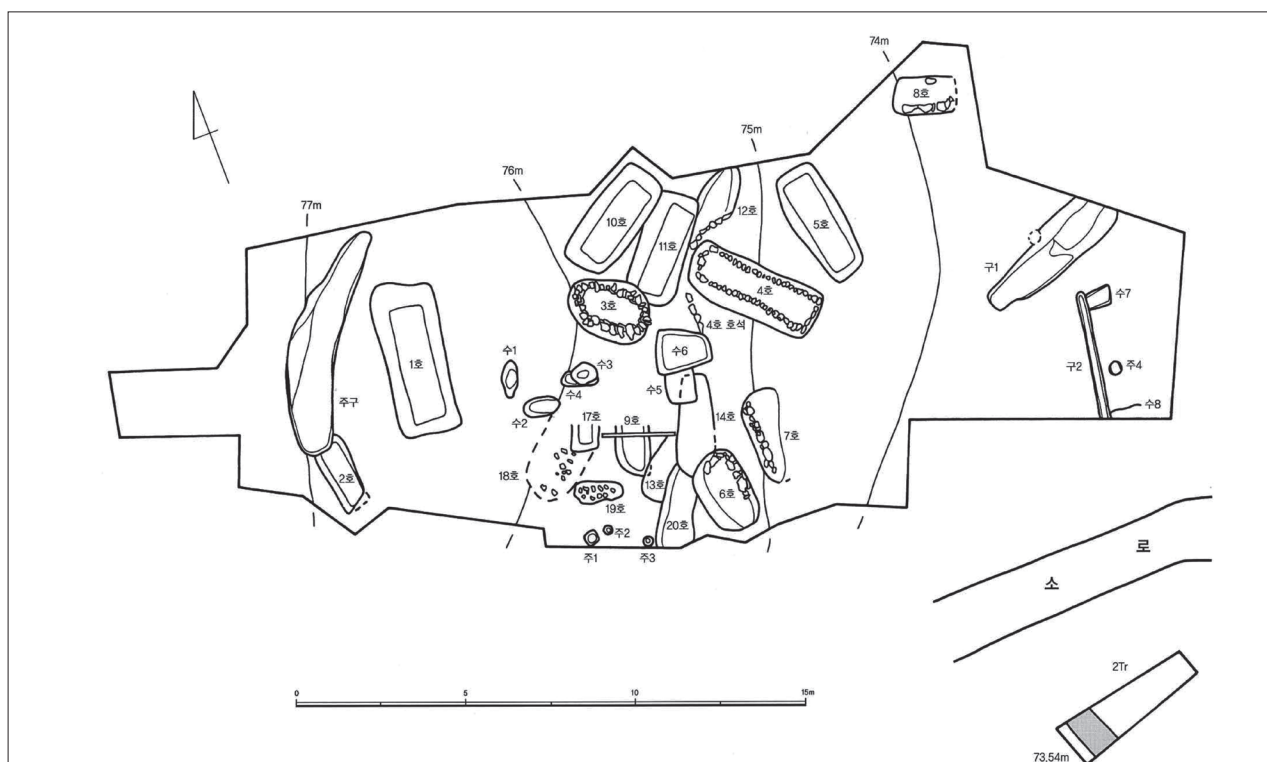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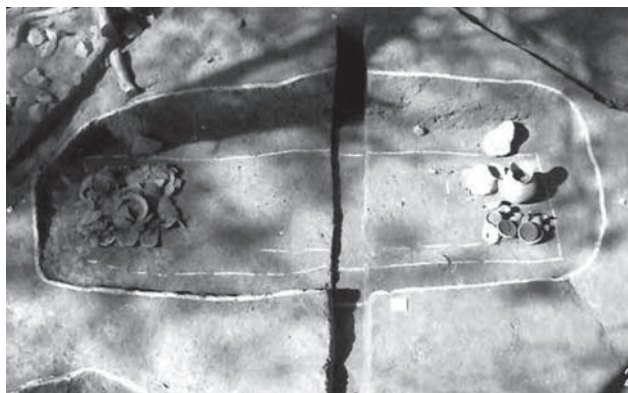
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4세기대의 함안양식 토기를 비롯한 고식도질토기→5세기대의 소위 낙동강 동안양식 토기→통일신라양식 토기가 모두 출토되어 토기양식의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기류는 모루, 철제집게, 철제망치 등의 단야구가 출토되어 이 지역의 철기 생산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밀양 월산리분묘군의 발굴조사는 밀양지역 최초의 삼국시대 고분 발굴조사로 밀양지역 삼국시대 고분의 내용과 성격의 일단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밀양대학교박물관, 2004, 『밀양 월산리분묘군』.


Ⅰ지구 유구 배치도

5호 목곽묘

15호 횡구식석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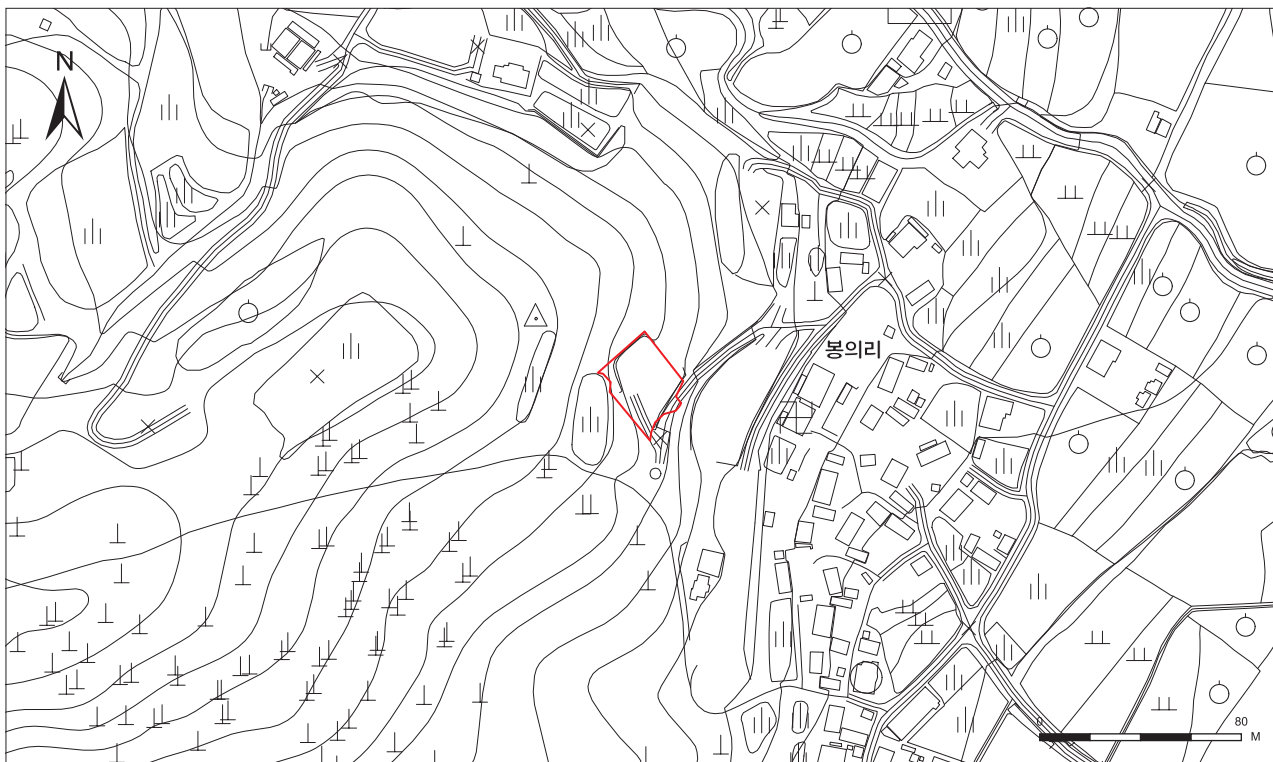
# 10 밀양 봉의리 30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30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014.1.~2014.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옹관묘 / 대호,
단경호, 유개고배,
환두대도, 찰갑

조사지역은 북서쪽의 육화산(해발 615m)에서 뻗어내린 능선의 남동사면의 해발 150m 정도의 계단상의 경사지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져 형성된 봉의천이 남쪽으로 흘러 동천에 합류하며, 봉의리 고분이 분포하는 가지능선의 남쪽으로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27기와 옹관묘 2기, 매납유구 1기 등 총 30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전반적으로 2~3기씩 군을 이루며, 군집 내에서 동일한 주축방향으로 나란하게 중복되거나 연접하여 축조하였다. 석곽묘의 축조순서는 모두 능선 하부 남동쪽에서 상부 북서쪽 순으로 조성하였다. 석곽묘는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이다. 벽석은 천석 또는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대부분 눕혀쌓기하였으며, 일부는 천석을 세워쌓기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구획석 또는 시상의 설치 유무에 따라 피장자 안치공간과 부장공간을 구분하였다. 북쪽 부장공간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은 평면형태상 호상으로 축조하거나, 주공간보다 내부로 폭을 줄여 축조한 양상도 확인되었다. 시상은 전면시상과 부분시상으로 구분되며, 천석과 할석 또는 토기 편 등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유물은 대부분 양단 부장하였으며, 북쪽 부장공간에는 대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등의 대형 기종의 토기류 및 철기류, 남쪽 부장공간에는 유개고배, 대부완, 파배 등의 소형 기종의 토기류 등을 부장하였다. 또한 주공간 내에서 환두대도 및 도자 등의 철기류 등이 확인되었으며, 환두대도의 정치방향과 이식의 출토위치 등으로 볼 때, 피장자의 두향은 남향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로 본 고분군의 조영시기는 5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판단된다.

봉의리 30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의 조사성과는 신라의 낙동강 서안진출에 따른 밀양지역 삼국시대 재지 중소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밀양 봉의리 30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석곽묘군 전경

3호 석곽묘

11호 석곽묘

1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 11 밀양 살내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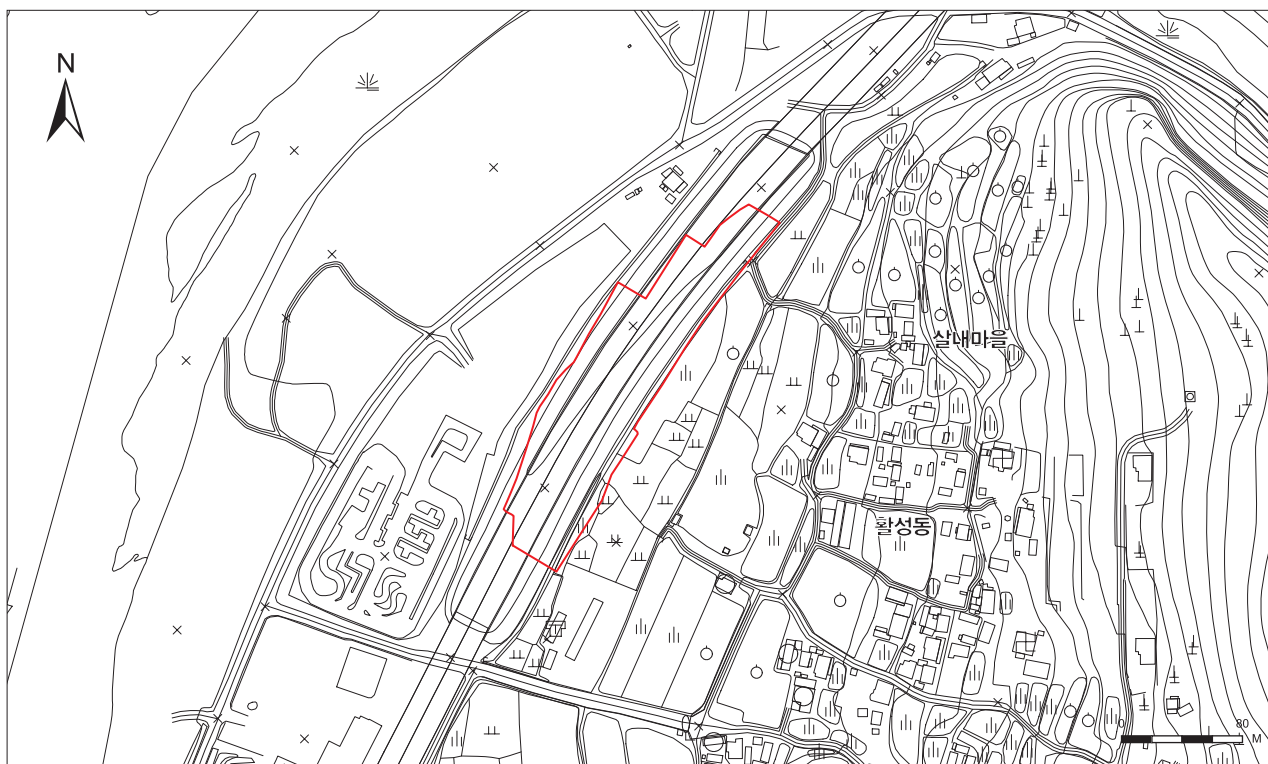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살내 465-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1.12.

**주요 유구 / 유물**
구 / 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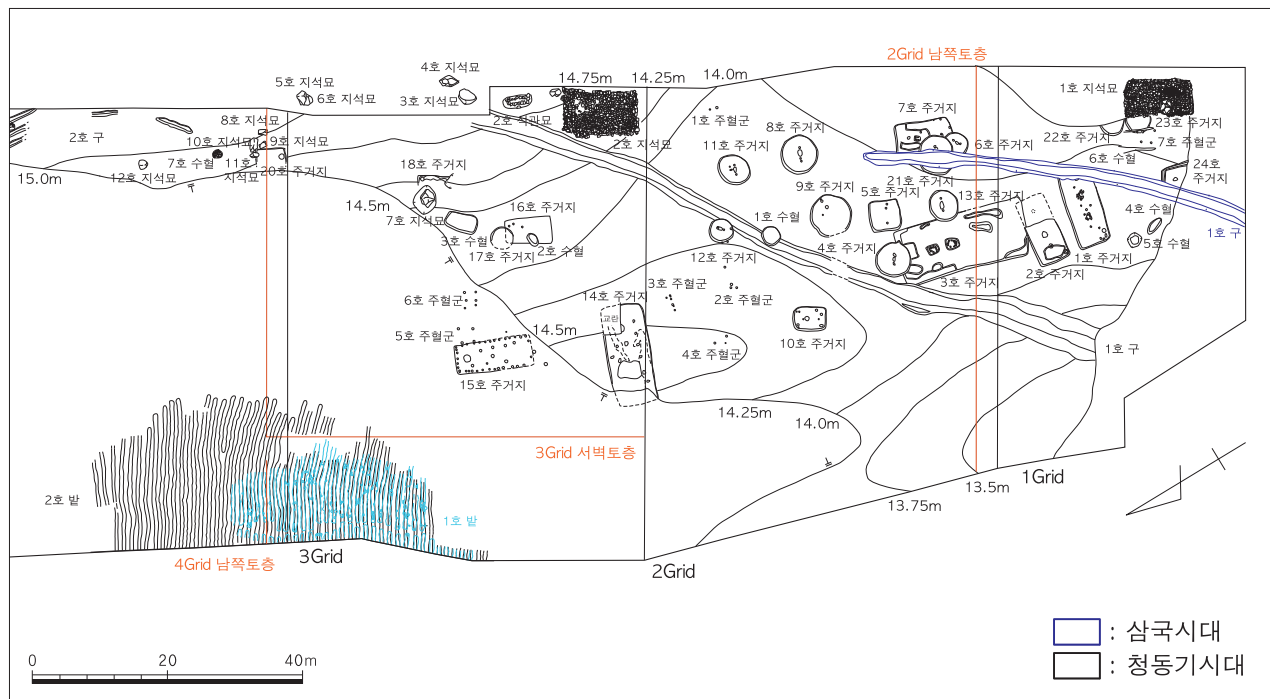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살내 465-5 일대에 소재한 신석기~삼국시대 복합유적으로 199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7공구)에 앞서 실시된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시굴조사는 2001년, 발굴조사는 2001~2002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수혈 14기, 집석유구 9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24동, 수혈 7기, 지석묘 12기, 석관묘 2기, 밭 2개층, 집석유구 1기, 구 3기, 주혈군 7기, 삼국시대 구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밀양강의 중하류 동안의 범람원에 입지하고 있다. 이 범람원은 밀양시 활성동 살내마을 서쪽 들판에 해당되는데,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나뉘며 살내유적은 이 자연제방대에 조성되었다. 특히 밀양강은 하천의 유량이 많아 살내 범람원은 대부분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삼국시대의 문화층은 홍수범람으로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구는 구 1기

유적 위치도

만이 조사되었다. 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치우쳐 위치하는데 남쪽 미조사구간 외곽으로 확장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45m, 너비 2.2~3.0m, 깊이 0.2~0.4m이다. 벽과 바닥은 완만한 'U'자형으로 굴착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 편과 박 편, 삼국시대 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밀양 살내유적 II』.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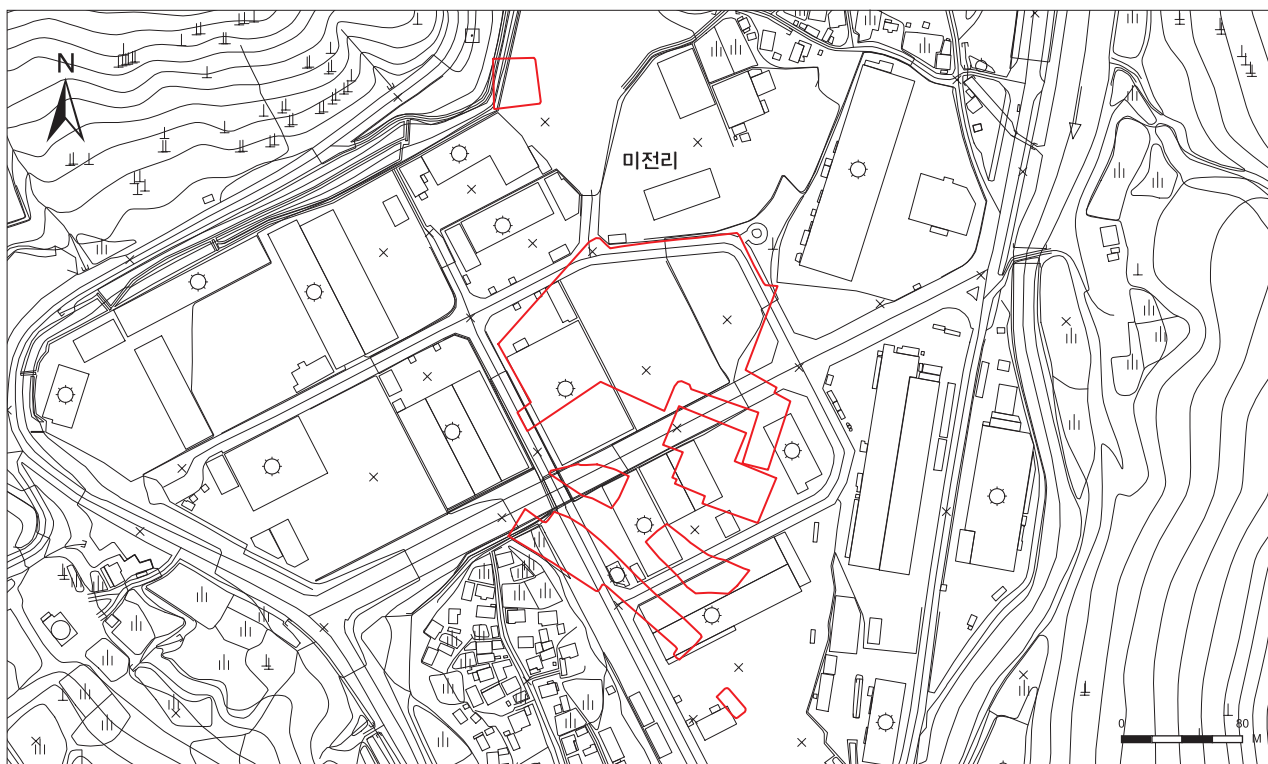
# 밀양 미전리 복합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00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차 2010.12.~2011.3.
2차 2012.4.~2012.7.
3차 2012.9.~2012.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개, 고배, 파배, 연질옹, 광구소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환두대도, 재갈, 유자이기, 철부, 철모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소재한 삼국·고려·조선시대 복합유적으로 (주)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에서 시행하는 '밀양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로서 2009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 2010~2012년까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3차에 걸쳐 표본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8동, 고상건물지 2동, 수혈 16기, 목곽묘 11기, 석곽묘 8기, 옹관묘 2기, 성격불명 분묘 5기, 고려시대 도기가마 1기, 폐기장 3기, 제련로 1기, 소성유구 2기, 조선시대 분묘 4기, 건물지 7동, 석축 3기, 석렬 7기, 암거 2기, 담장 4기, 주거지 9동, 고상건물지 5동, 수혈 15기, 구 3기, 경작유구 1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구천산(해발 620m)의 남쪽 능선이 음달산(해발 188m)-매봉산(해발 283m)으로 이어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계곡부에 해당한다. 유적은 북동쪽에서 이어지는 곡간부를 따라 남동쪽으로 펼쳐지는 곡저평야에 입지하며 곡간부에 형성된 소하천이 서

유적 위치도

에서 동으로 사행하다 미전천으로 합류된다. 삼국시대 생활유구는 소하천 북쪽의 구릉 사면부와 남동쪽 평지에, 분묘유구는 소하천의 남서쪽 구릉 말단부에 조성되어 입지상 차이가 확인된다.

수혈주거지는 구릉 사면부에 15동, 평지에 3동이 분포하는데, 구릉 사면부에는 수혈 주거지가 등고선을 따라 열상배치된데 비해 평지는 3동이 군집배치되어 입지양상에 차이가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내부시설로는 부뚜막, 주혈, 2중 벽구(외측은 벽체지지홈, 내측은 배수구로 추정) 등이 조사되었고 화재에 의한 폐기 양상이 확인된다.

고상건물지는 구릉 말단부에서 2×2칸 1동, 2×1칸 1동이 조사되다. 수혈주거지보다 선축된 경우가 많고, 수혈과 더불어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

분묘는 공지를 사이에 두고 2개의 군집으로 나뉘는데 분묘의 규모와 부장 유물을 통해 볼 때 1군의 위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묘는 보강석의 사용 비율과 위치, 시상의 유무에 따라, 석곽묘는 단벽의 평면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묘제와 출토유물을 참고할 때 3단계로 세분되는데, Ⅰ단계는 목곽묘 조영시기로서 5세기 전기 후반, Ⅱ단계는 목곽묘와 석곽묘가 혼재되는 시기로서 5세기 중기 전반, Ⅲ단계는 석곽묘 조영시기로서 5세기 중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각 단계별 토기의 특징은 Ⅰ단계가 아라가야양식 토기인데 비해, Ⅱ단계는 비화가야양식 토기와 신라양식 토기가 공반되며, Ⅲ단계는 신라양식 토기가 주를 이룬다.

생활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4세기 후기~5세기 전기로 편년 가능하다. 이를 전술

1·2차 조사지역 원경

한 분묘에 대입하면, Ⅰ단계의 목곽묘 조성시기보다 약간 앞서거나 병행하는 시기에 해당하여 주거지의 사람들이 목곽묘에 매장되었거나 주거지와 분묘가 입지를 달리하여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묘의 Ⅱ·Ⅲ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조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접하는 곳에 이들의 주거역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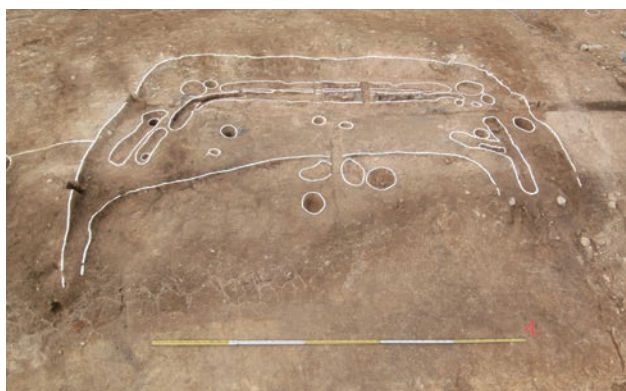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밀양 미전리 복합유적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밀양 미전리 복합유적Ⅱ』.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4, 『밀양 미전리 복합유적Ⅲ』.

12호묘

10호묘

6호 수혈주거지

토기류

토기류·철기류

# 13 밀양 원서리유적 _ 밀양 산내~상북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내산면 가인리 1104-1
·원서리 120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0.1.~2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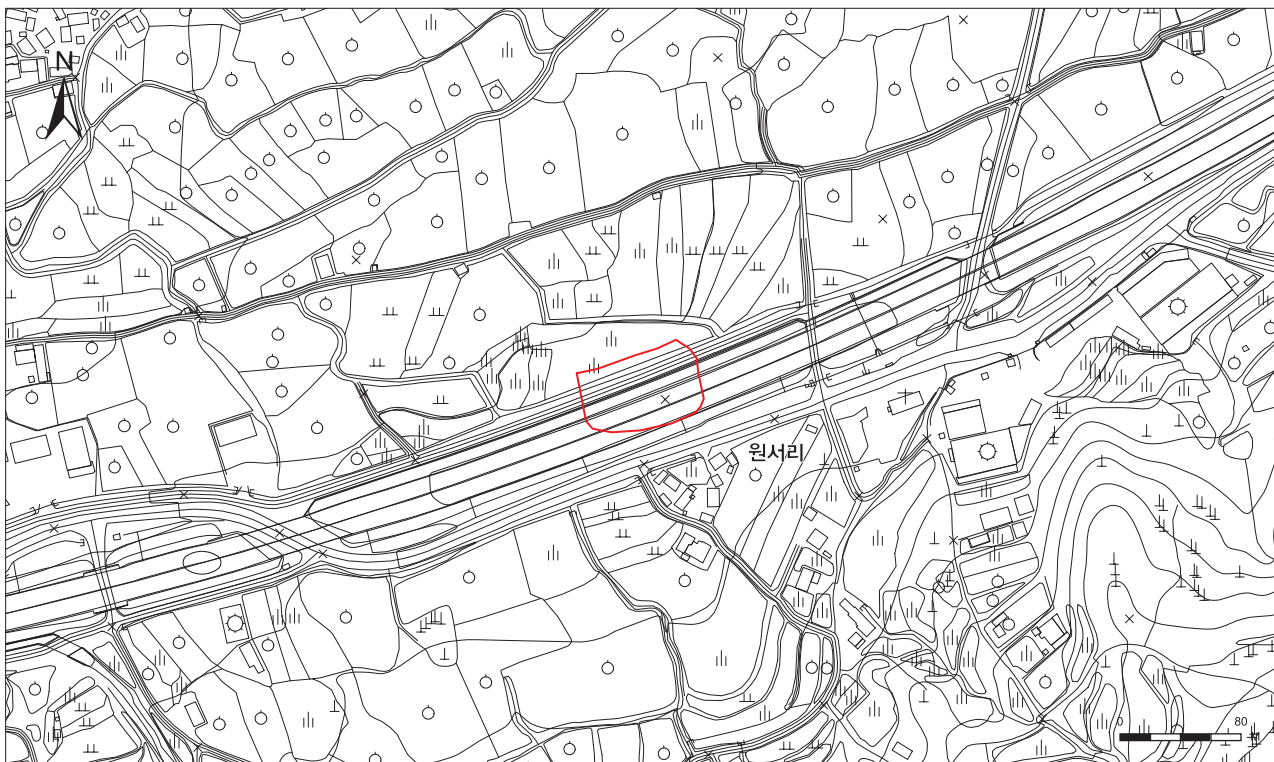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구, 수혈 / 구연부 편,
대각 편, 시루, 대부완

경상남도 밀양시 내산면 가인리·원서리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국시대 복합유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존의 국도24호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신설하는 구간에 해당된다. 지표조사는 2004년 밀양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원형적석유구 1기, 상석 3기, 석관묘 1기, 구 24기, 수혈 71기, 고상건물지 4동, 유로 1기, 삼국시대 구 2기,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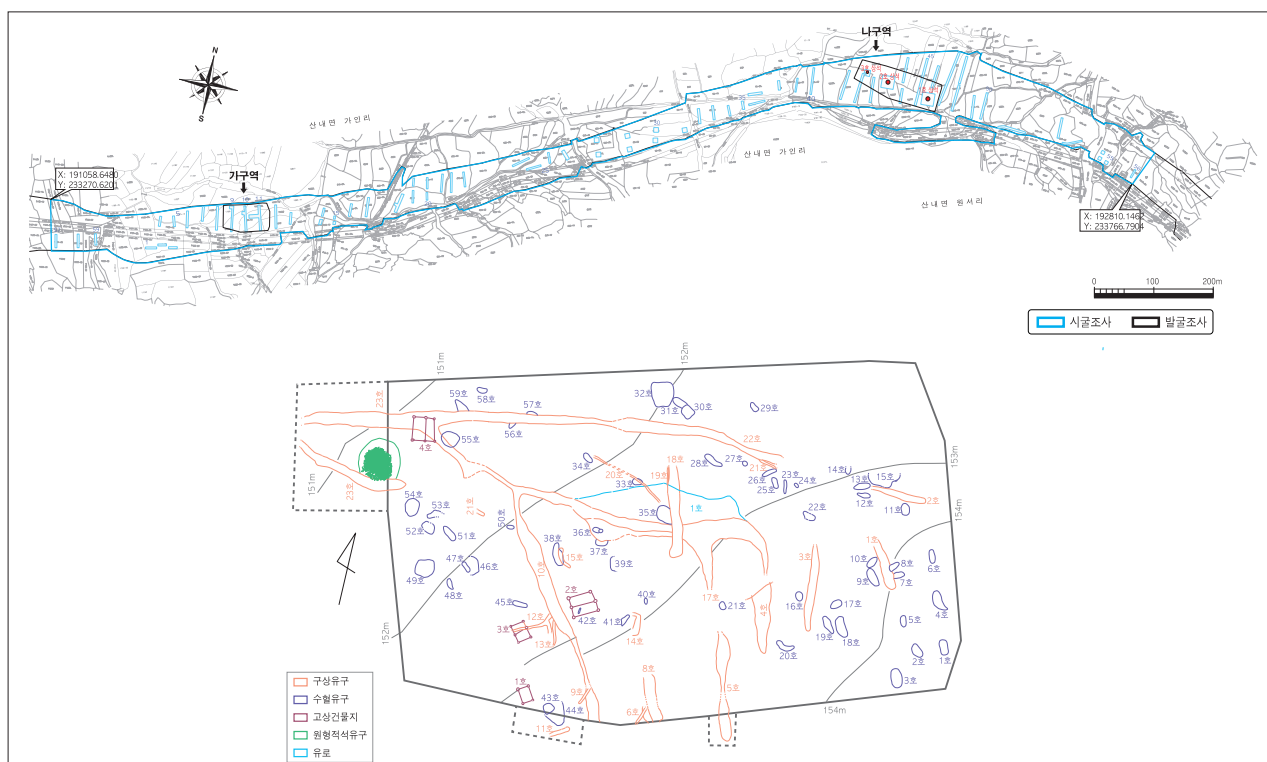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밀양에서 울산으로 동-서 방향으로 뻗은 24번 국도의 북쪽편의 경작지에 해당되며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한 북암산(해발 806m)과 남쪽에 위치한 실해산(해발 828m) 사이에 흐르고 있는 동천의 남쪽에 위치한다. 유적은 실해산에서 뻗어내린 구릉의 최말단부 일부와 동천 상류역의 하안단구면에 해당된다.

삼국시대 유구는 가구역에만 분포하는데 8·18호 구와 16·32호 수혈이 이에 해당

유적 위치도

된다. 구의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되었다. 규모는 길이 662㎝ ~1m 292㎝, 너비 154~180㎝이다. 8호 구는 남동쪽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결된다. 유물은 단경호 구연부 편, 대각 편,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은 가구역 동쪽에 분포하는데 평면형태는 원형과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130~344㎝, 너비 98~312㎝이다. 유물은 연질옹 구연부 편, 대부완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밀양 원서리유적-밀양 산내~상북 국도건설구간내 유적-』.


유구 배치도

32호 수혈

32호 수혈 출토유물

## 14

# 밀양 삼문동 670번지 나노교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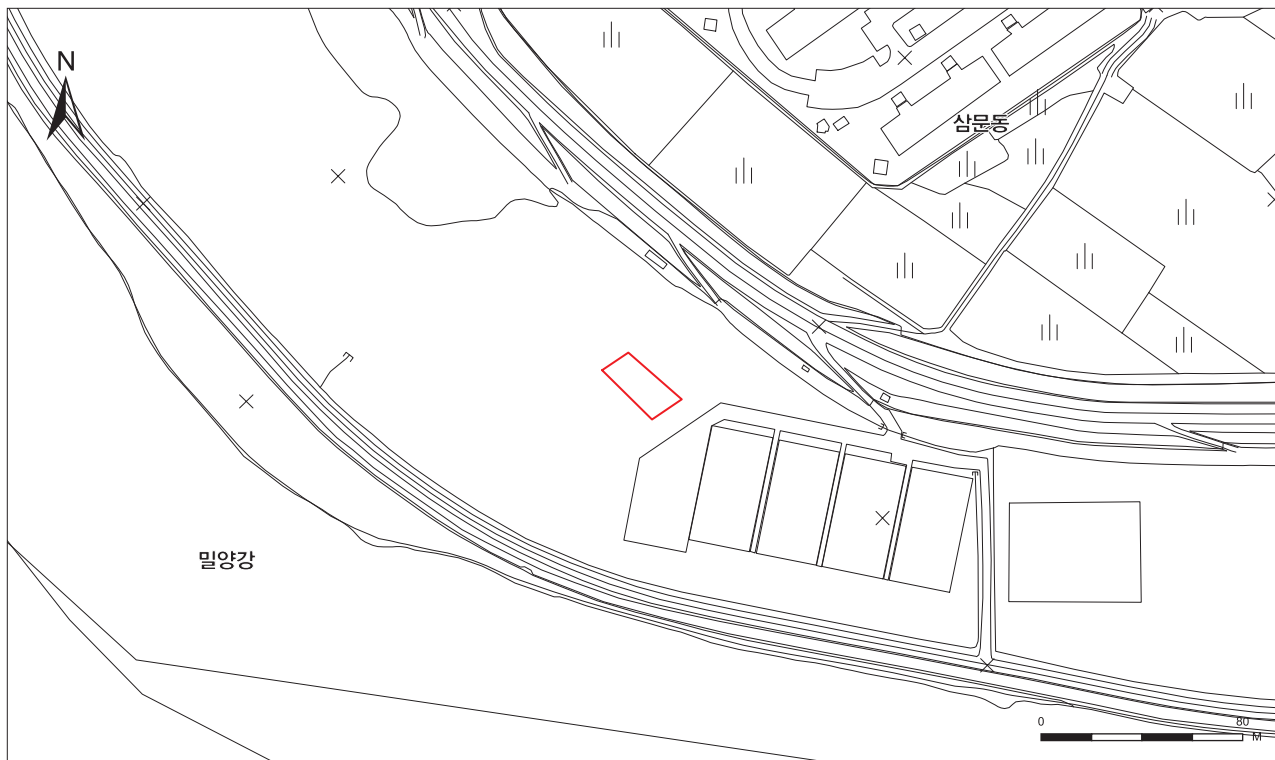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670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반도문화재연구원 /
2017.9.

**주요 유구 / 유물**
밭 / 토기 편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670번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유적으로 밀양시에서 밀양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부지이다. 지표조사는 2016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2017년 한반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경작층 1개소, 조선시대 경작층 2개소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이 속한 삼문동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사질토의 삼각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밀양강의 4.8㎞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유적은 밀양강 중류 좌안의 하천 충적대지에 위치한다. 삼문동을 둘러싸는 제방 바깥쪽에 입지하며, 밀양강이 'C'자형으로 곡류하는 안쪽에 위치하여 퇴적층이 두꺼운 평탄지이다. 현재는 둔치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시민체육공원, 시민골프장, 풋살장, 공연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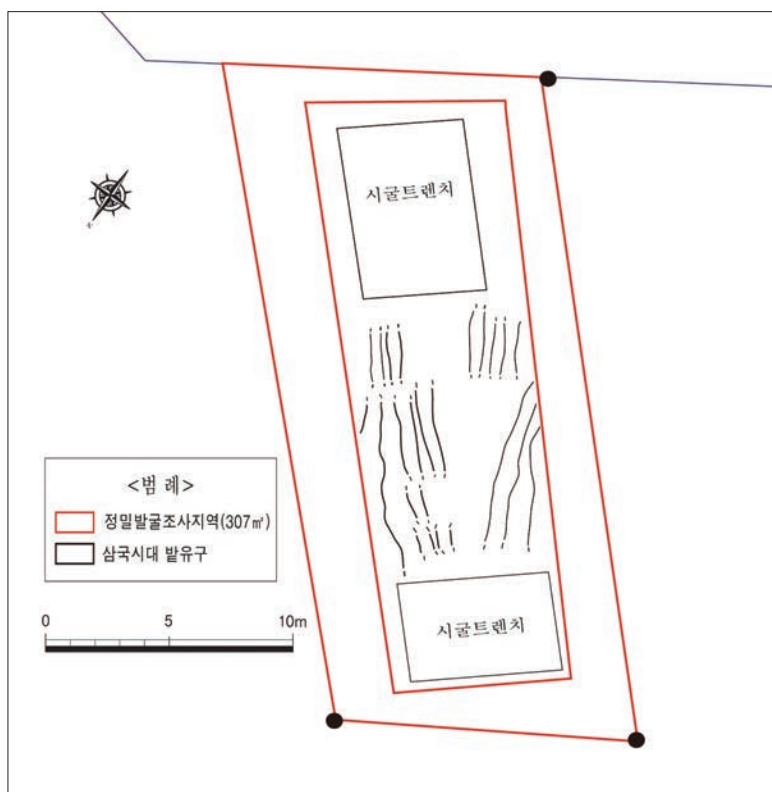
삼국시대 경작층은 표토 아래 2.8m 지점에서 남북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단위의 밭

유적 위치도

이 조사되었다. 잔존길이는 200~700㎝, 너비는 30㎝ 정도로 고랑은 구 형태로 10개소가 확인되고, 그 사이로 이랑이 확인된다. 모재층은 명갈색사질점토로 단면에서 가공흔적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고랑의 내부토는 암갈색 사양토로 일부 목탄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토기 편이 출토되었으며 유구의 성격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 경작유구라기 보다는 단기간의 기경활동으로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비록 공사가 시행되는 한정된 부분만을 조사하였지만 밀양강의 곡류하천변에 발달된 충적대지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밭유구로 이 일대의 삼국~조선시대 농업경작유적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7, 「밀양 삼문동(670) 나노교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밭

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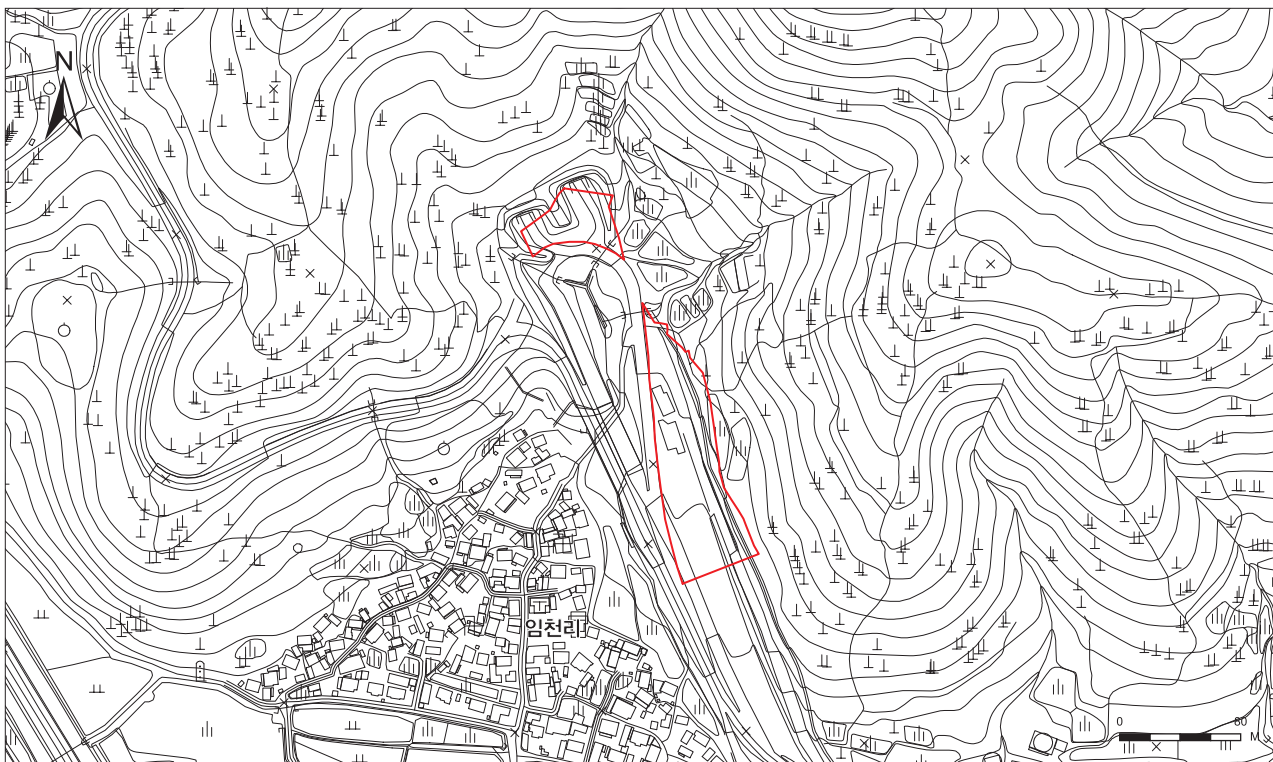
# 밀양 임천리 금곡제철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25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12.1.~2012.5.

**주요 유구 / 유물**
제련로, 정련단야로, 노적, 폐기장, 점토저장소 및 야적장 / 송풍관, 노벽체, 철재, 철광석, 개, 고배, 완, 대부완, 단경호, 대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유적 및 고려·조선시대 무덤유적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밀양역~삼랑간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C·D구역)에 해당된다. 지표조사는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2011년 두류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 총 4개 구역(A~D구역)에 삼국시대 분묘와 제련로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발굴조사는 2012년 1월부터 동년 10월까지 A·B구역을 두류문화연구원, 2012년 1월부터 동년 5월까지 C·D구역을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본 유적에 해당되는 C·D구역 조사 결과, 삼국시대 제련로 15기, 정련단야로 1기, 노적 5기, 폐기장 11기, 건물지 1동, 우물 1기, 점토저장소 및 야적장 8기, 수혈 26기, 구 7기, 고려시대 분묘 7기, 조선시대 분묘 17기,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동쪽에서 발달한 만어산이 서쪽으로 길게 뻗어가다 밀양강에 이르러 저

유적 위치도

평지와 만나는 지점으로 구릉 말단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인 임천리 금곡마을은 밀양 시내에서 58번 국도를 따라 삼랑진읍·양산 물금 방향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하는데 마을 앞은 밀양강의 충적사면에 해당되며, 현재는 제방을 높이 쌓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밀양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평지이다. 마을의 뒤편으로는 경사가 급한 구릉성 산지가 있어 육로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지만, 밀양강을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여러 지역과 교통할 수 있다.

제련로는 평면형태 원형의 노와 배재부로 구성된다. 배재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장타원형, 'ㄱ'자형으로 나뉘며 소형 구가 시설된 것도 있다. 제련로의 규모는 내경 60~100㎝, 외경 100~160㎝이다. 노는 수혈을 파고 바닥에 모래와 목탄 등을 이용해 방습 및 보온을 위한 기조시설을 한 경우와 자연암괴를 굴착해 그대로 사용한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련로 바닥에 철 편이 용착되어 있으며, 2차 조업 시에는 철편이 용착된 노의 바닥 위에 모래와 목탄을 깔아 방습시설을 하였다. 그 다음 할석을 이용해 2~3단 정도 원형의 벽을 만든 후 그 위에 고운 점토로 노의 바닥을 설치하였는데, 할석은 노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다 배재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배재부의 벽면을 따라 짧게 돌출되거나 단차를 보이게 축조되어 노와 배재부를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도 있다. 특히 송풍시설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제련로의 구조와 송풍관의 출토양상을 볼 때, 반지하식 제련로의 어깨선 부근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 2개, 최소 1개의 송풍구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송풍관, 노저괴, 유출재, 고배, 단경호 등이다.

C구역 유구 배치도

폐기장은 규모가 크며, 주변에 조성된 2~3개의 제련로의 분포로 보아 복수의 노를 동시에 축조해 조업한 생산체계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철재, 송풍관, 파손된 노벽체, 고배, 대부완, 완, 단경호, 대부호 등이다.

점토저장소 및 야적장은 조사지역 남쪽 하위에 분포하는데,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301~488㎝, 너비 319~451㎝, 깊이 60~76㎝이다. 정제되지 않은 점토를 그대로 저장하였으며 점토 상부에는 제철관련 폐기물이 함께 매몰된 것을 보아 수혈의 용도 폐기 후에는 폐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은 1기만 조사되었으나 제철조업에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제련로 주변에 위치한 원형 수혈은 물을 임시로 모아두는 집수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7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금곡제철유적의 조사 결과, 제련로의 상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제련로와 폐기장의 규모를 통해 대규모 철기 생산시스템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점토저장소·야적장·우물 등의 부속시설이 조사되고, 금속유물 분석에서 조제재 사용, 선별된 철광석 사용 등 제철기술의 면모가 파악되어 고대 제철생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었다.

밀양 임천리 금곡제철유적은 배후산지를 채광지로 삼고, 이곳에서 운반해 온 철광석을 파쇄하고 선광하는 단계부터 제련과 정련단야하는 과정까지의 공정을 담당했던 곳이다. 1차 생산된 철괴와 이 철괴를 재가공 처리하여 철제품의 중간소재를 만들었다. 2차 생산된 철제품의 중간소재를 밀양강과 낙동강을 이용한 수상교통과 단층지계를 따라 개설된 고대 도로를 이용해 내륙지방까지 운송하거나 인접한 단야로와 용해로로 운반해 철제품을 생산하였다. 지금까지 남해안 지역이나 경주 등 내륙지방은 용해로나 단야로와 같은 2차 공정의 유적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차 생산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한곳에서 1·2차 공정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철제품까지도 소비지로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4, 『밀양 임천리 금곡제철유적–밀양역~삼랑간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C·D구역) –』.

C구역 22–2~5호 제련로

C구역 27호 정련단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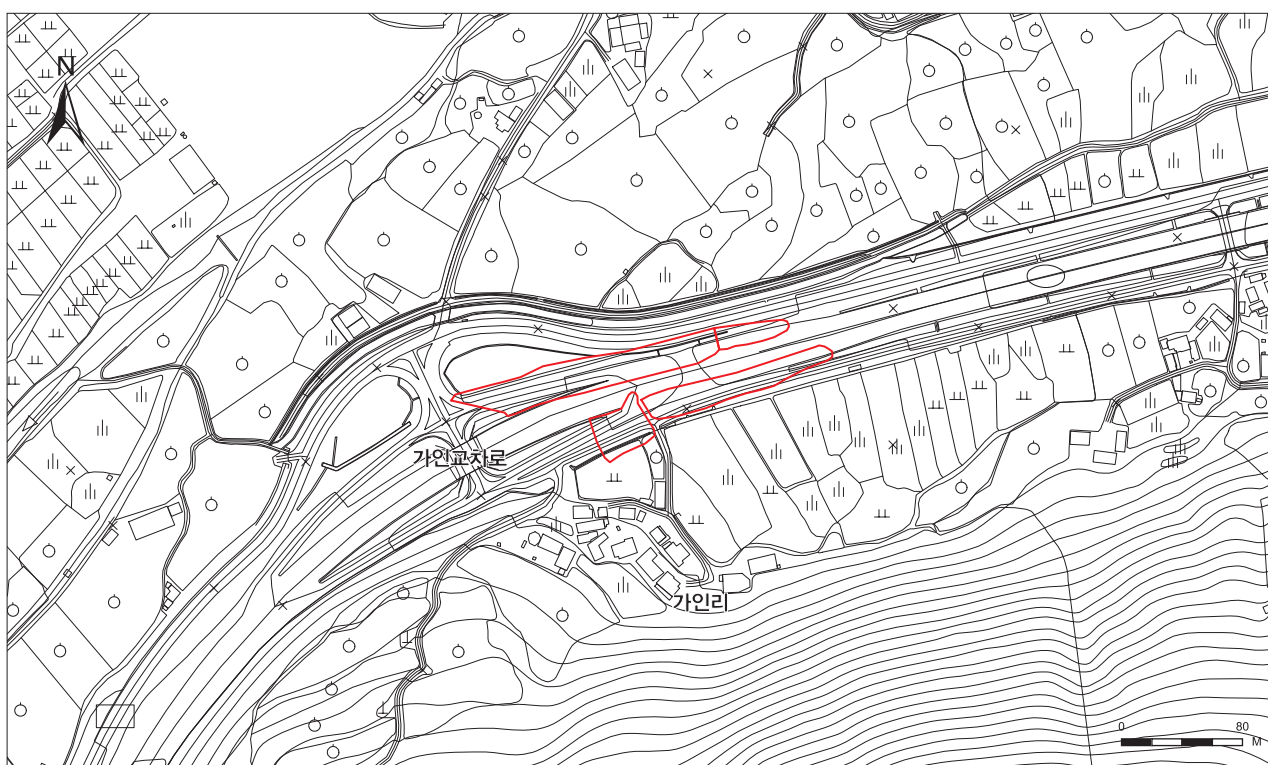
# 16 가인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243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밀양대학교박물관·경남고고학연구소·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
1차 1999.10.~1999.12.
2차 2001.4.~2001.8.

**주요 유구 / 유물**
도로, 석렬유구 / 도질토기 편, 개 편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에 소재한 삼국시대 교통통신유적으로 1989년의 경성대학교박물관, 1997년의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각각 지표조사한 결과 3기의 지석묘 상석이 확인됨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유적일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밀양시 산내면 우회도로 축조공사구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는 1999년 10부터 동년 12월까지 밀양대학교박물관과 경남고고학연구소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발굴조사는 2001년 4월부터 동년 8월까지 밀양대학교박물관과 경북과학대학박물관이 연합으로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상석) 1기, 석곽묘 13기, 삼국시대 도로 1기, 석렬유구 1기, 조선시대 도로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단층곡을 따라 흐르는 동천의 상류역에 위치한다. 동천에는 4개의 하안단구면이 확인되는데 유적은 가장 저위면에 해당하는 하안단구면과 구류로적상 요

유적 위치도

지에 입지한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하안단구면에 삼국·조선시대 유구는 구류로적상 요지에 입지하여 배치양상에 차이가 있다.

삼국시대 도로는 조선시대 도로와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축방향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약간 휘어진 'S'자형이다. 조사범위 내에서 도로의 규모는 길이 약 70m, 너비 4m이다. 도로는 지면을 'U'자형으로 굴착한 뒤 중앙부분에는 잔자갈과 암갈색사질점토를 섞어서 깔고 가장자리에는 천석을 이용하여 2~3단에 걸쳐 도로방향과 평행하게 쌓았다. 그리고 상면에는 크기가 작은 천석을 이용하여 노면바닥을 정지하고 상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구시설도 일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석렬유구는 조선시대 도로 하부에서 노출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11m, 내부 적석의 너비 90㎝, 외부 석렬의 너비 180㎝ 정도이다. 주축방향은 조선시대 도로와 동일한 남서-북동 방향이나 축조수법은 삼국시대 도로와 유사하며 도로이거나 도로의 부속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의 제작수법과 편년을 통해 볼 때, 상한은 기원후 5세기대~하한은 기원후 6세기대로 추정된다.

삼국~조선시대 도로·석렬유구의 존재는 유적지 및 주변일대, 그리고 동천 상류역이 중요한 정보, 물자, 인간의 교통·교역망 체계의 일환으로서 편성·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

**참고문헌**

밀양대학교박물관·경남고고학연구소·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2004, 『가인리유적-밀양 산내 우회도로 축조공사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삼국시대 도로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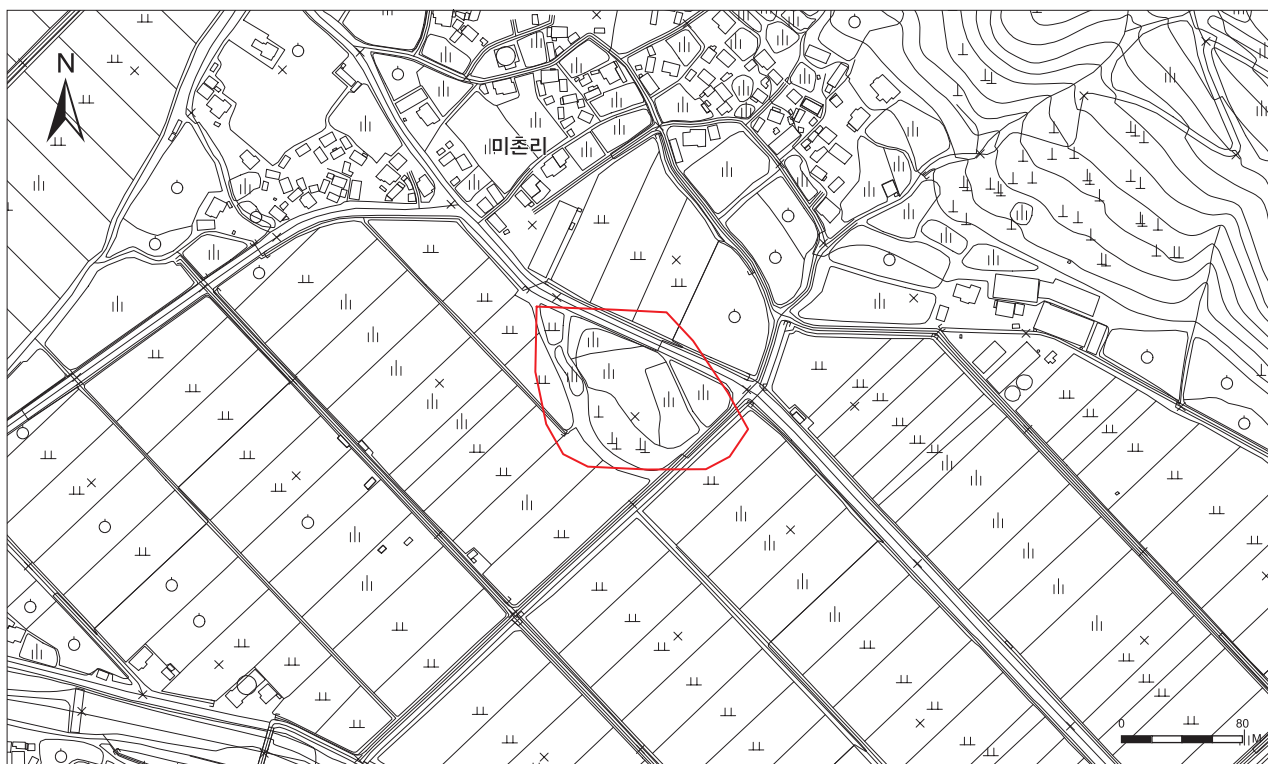
# 밀양 사촌제철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양면 미촌리 64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1차 1999.11.~1999.12.
2차 2000.3.~2000.4.

**주요 유구 / 유물**
제련로, 폐기장 / 송풍관, 철재, 철광석, 고배, 완, 합, 연질옹, 단경호, 장경호

경상남도 밀양시 단양면 미촌리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유적으로서 국립김해박물관의 학술조사로 확인되었다. 지표조사는 1998년, 유적 현황파악을 위한 1차 발굴조사는 1999년, 제련로의 구조파악을 위한 2차 발굴조사는 2000년에 각각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제련로 7기, 폐기장 2개소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사촌마을은 밀양시내에서 24번 국도를 따라 울산 쪽으로 10㎞정도 가다보면 최근까지 철을 채광하였던 금곡마을이 나타나며, 이 삼거리에서 표충사 쪽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금곡교를 건너자마자 감물로 가는 도로를 따라가면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서쪽에는 단양천과 합류한 동천이 흐르며 하류에서 밀양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유적과 마주보는 구미마을 앞에는 만어산(해발 670.4m)에서 발원한 안법천이 동천으로 흘러든다. 유적의 주변지형은 가래봉(해발 502.2m), 만어산, 칠탄산(해발 490m)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트인 곡저지형이다. 사촌마을 앞의 동천변에는 넓은 충적지가

유적 위치도

형성되어 있고 유적은 충적지와 산각의 말단부와 만나는 지점에 평지에서 비고 10m 내외의 낮은 구릉에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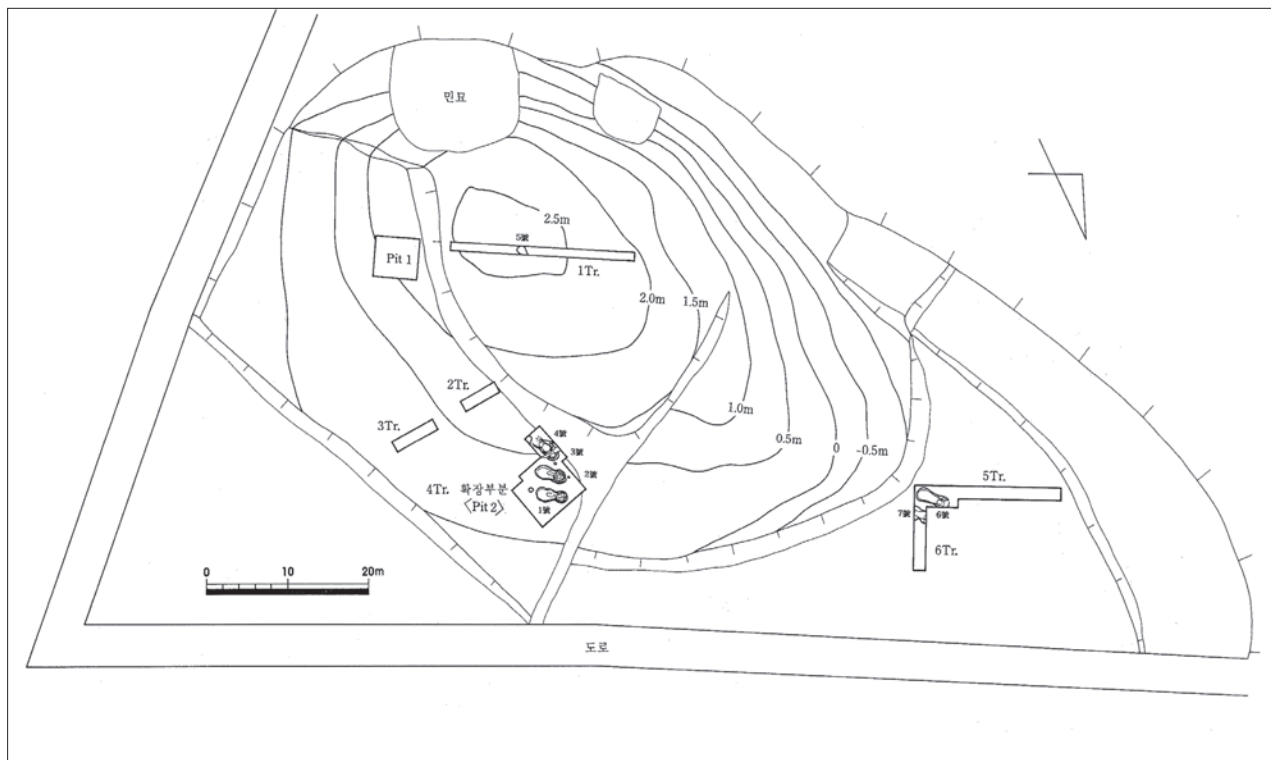
제련로는 열쇠구멍모양의 평면형태로 원형의 노와 타원형의 배제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길이는 3.6m 내외이다. 노는 하부에 숯과 모래로 판축하거나 불다짐하여 습기를 제거하였으며, 할석과 점토로 바닥을 만들고 짚을 넣은 점토를 이용하여 원통형의 벽체를 축조하였다. 배제구는 노의 바닥보다 낮게 설치하고, 노에서 약간 나팔상으로 퍼져나가는 단면 'U'자상 구조이다. 제련에서 중요한 송풍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호한 상태로 송풍관이 출토되어 송풍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유구의 배치상황으로 보아 최소 2개 이상의 노를 동시에 축조하여 조업하는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련과정에서 사용된 철광석이 노 주위에서 다량 출토되었으며 인근에서 철광산이 2개소 확인되는 등 제련에 필요한 철광석·숯·운송로 등의 주요 요소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당시 대규모의 철광산을 확보한 철생산의 중심기지임을 알 수 있다.

유적의 조업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7세기 전반까지 약 100년간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상한은 5세기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사촌제철유적의 조사 결과, 처음으로 완전한 구조를 가진 제련로가 조사되어 삼국시대 제련로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양호한 자료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적의 조업시기는 일본의 철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고대 한·일 제철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01, 『밀양 사촌제철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Pit2 제련로 조사 중

Pit2 제련로 조사 후

철광석

노 벽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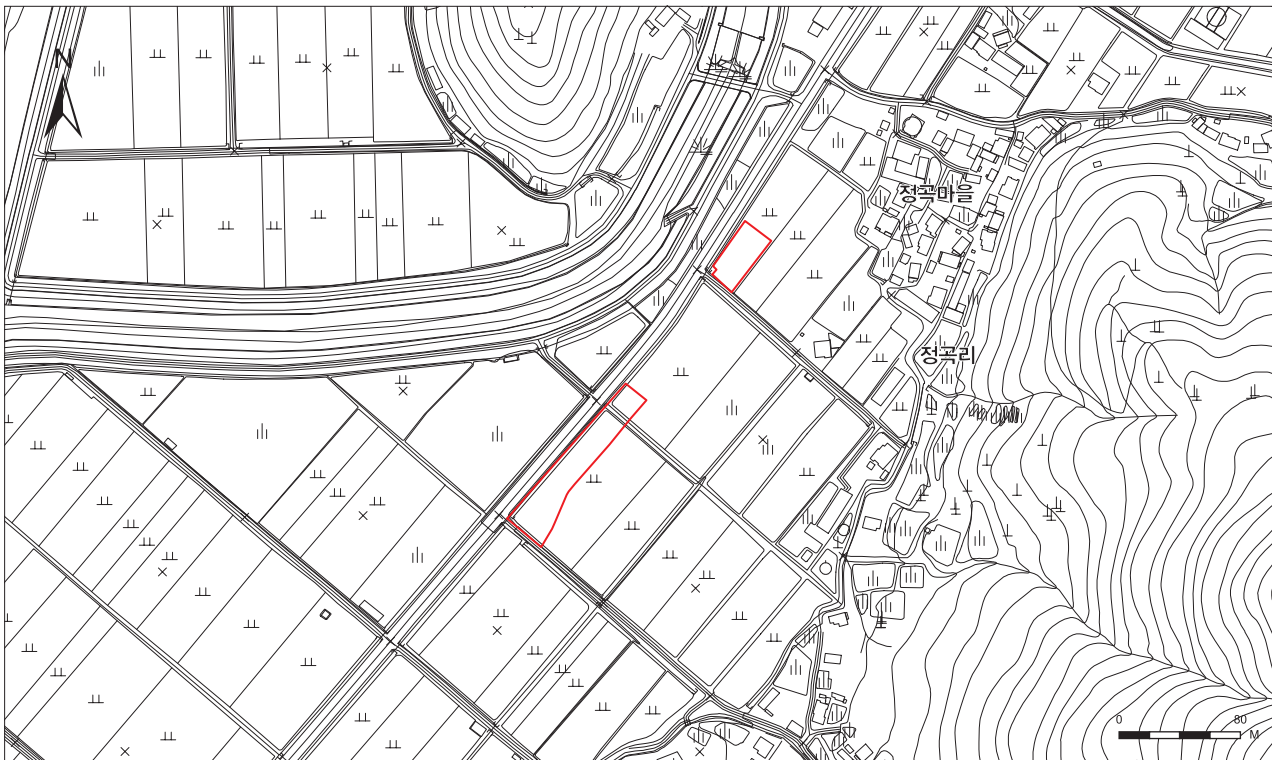
# 18 밀양 무안~내이간 도로확장공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476-3 일대

**조사 기관 / 조사 기간**
전북문화재연구원 / 2017.6.~2017.9.

**주요 유구 / 유물**
노, 폐기장 / 슬래그, 노벽, 송풍관, 철광석, 대각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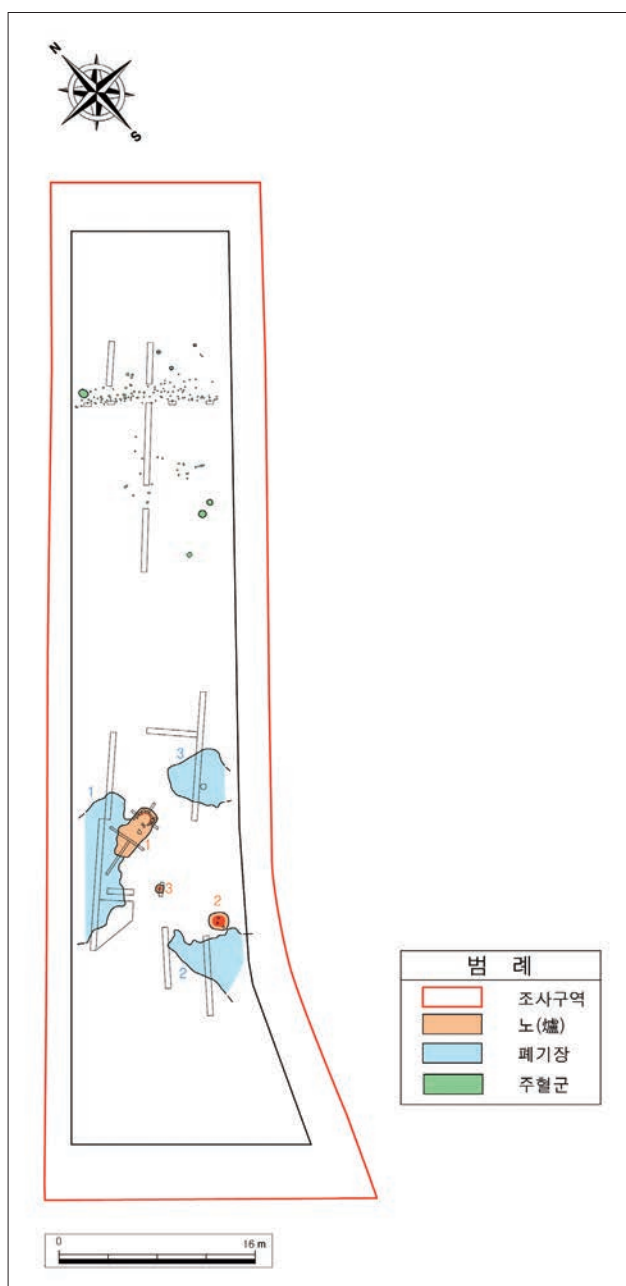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476-3 일대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산업생산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밀양 무안-내이간 지방도 1080호선의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에 해당된다. 지표조사는 2014년 경상문화재연구원, 추가부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17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노 3기, 폐기장 3기, 조선시대 수전층, 시대미상 구하도 1기, 주혈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밀양시의 서쪽에 위치하며, 남해에 있는 김해만에 유입되는 낙동강 중류역의 1차 지류인 운정천의 좌안에 면한 곡저평야이다. 유적의 상세지형은 운정천의 구유로가 폐쇄되어 습지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일부는 선상지 말단부에 해당한다. 지형의 고저는 북고남저형이며, 동쪽에 형성된 선상지로 동쪽부분이 다소 높은 지형을 이룬다. 최근까지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며,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해 선형을 이루고 있다.

유적 위치도

조사된 노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5~445㎝, 너비 62~164㎝이다. 각각의 노는 제련로, 배소로, 단야로로 구분되어 철생산의 일련 공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1호 노는 인근지역의 사촌유적, 임천리유적 등 삼국시대 제철유적에서 조사된 제련로와 규모, 형태가 유사하다.

폐기장 3기는 각 노와 인접해 있으며, 규모는 길이 470~1m 260㎝, 너비 450~550㎝이다. 철의 조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슬래그, 노벽, 송풍관 등이 출토되었다. 폐기장은 인위적인 굴착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사면을 따라 폐기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밀양 무안–내이(1)간 도로확장공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A지점 유구 배치도

1호 노

2호 노

3호 폐기장

#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 김해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01 | 김해 예안리고분군(사적 제261호) | 무덤 | 국립중앙박물관 (1976)<br>부산대학교박물관(1976~80) | 60 |
| 02 | 김해 대성동고분군(사적 제341호) | | | 63 |
| 02-1 | 김해 대성동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경성대학교박물관(1990) | 66 |
| 02-2 | 김해 대성동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경성대학교박물관(1990~91) | 70 |
| 02-3 | 김해 대성동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경성대학교박물관(1991~92) | 73 |
| 02-4 |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구지로 분묘군 | 무덤 | 경성대학교박물관(1993) | 75 |
| 02-5 | 김해 대성동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경성대학교박물관(2001) | 78 |
| 02-6 | 김해 대성동유적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유적 | 무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br>경남고고학연구소(2004) | 81 |
| 02-7 | 김해 대성동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대성동고분박물관(2009) | 84 |
| 02-8 | 김해 대성동유적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부지 내 유적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2010~11) | 86 |
| 02-9 | 김해 대성동고분군 -6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대성동고분박물관(2011) | 88 |
| 02-10 | 김해 대성동고분군 -7차 발굴조사 유적 | 무덤 | 대성동고분박물관(2012) | 91 |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23 | 김해 퇴래리 793번지 유적 | 무덤 |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 165 |
| 24 | 김해 퇴래리 소업Ⅱ유적 | 무덤 | 강산문화연구원(2015) | 167 |
| 25 | 김해 안양리고분군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2002) | 169 |
| 26 | 김해 우계리유적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건설 구간 내 유적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2009~10) | 171 |
| 27 | 김해봉황동유적(사적 제2호) | 생활,<br>산업·생산,<br>정치·국방 | 부산대학교박물관(1992~93) | 174 |
| 28 | 김해 회현리패총(사적 제2호) | 생활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1998)<br>삼강문화재연구원(2005) | 177 |
| 29 | 전 금관가야궁허지(사적 제2호) | 생활 | 부산대학교박물관<br>(1999~2000) | 180 |
| 30 | 김해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사적 제2호) | 생활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br>(2002~03) | 182 |
| 31 |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br>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두류문화연구원(2015) | 184 |
| 32 | 김해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 119-1·22-6번지 일원<br>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동양문물연구원(2012) | 186 |
| 33 | 김해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br>개설구간 내 유적 | 생활 | 두류문화연구원(2014) | 188 |
| 34 | 김해 회현동 13·14·15통 소방도로 구간 내 유적 | 생활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br>(2001~02) | 190 |
| 35 | 김해 봉황동 176-2·16·17번지 유적 | 생활 | 대성동고분박물관(2005) | 193 |
| 36 |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 생활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4) | 195 |
| 37 | 김해 봉황동 229-1·4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대성동고분박물관(2006) | 197 |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38 | 김해 봉황동 40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경상문화재연구원(2013) | 199 |
| 39 | 김해 봉황동 126-12번지 단독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화문물연구원(2017) | 201 |
| 40 | 김해 봉황동 295-18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동서문물연구원(2016) | 203 |
| 41 | 김해 봉황동 30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강산문화연구원(2017) | 205 |
| 42 | 김해 봉황동 생활유적 | 생활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3~14) | 207 |
| 43 | 김해 봉황동 380-24번지 유적 | 생활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3~04) | 209 |
| 44 |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 생활 | 부산대학교박물관(2001) | 212 |
| 45 | 김해 봉황동 412-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국문화재재단(2015) | 214 |
| 46 | 김해 봉황동 413-4번지 일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 216 |
| 47 |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한옥생활체험관 조성부지 내 유적 | 생활 | 경남고고학연구소(2004~05) | 218 |
| 48 | 김해 봉황동 442-7번지 유적 | 생활, 무덤 | 부산대학교박물관(1999) | 220 |
| 49 | 김해 부원동유적 | 생활 | 동아대학교박물관(1980) | 222 |
| 50 | 김해 부원동 626-1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국문물연구원(2011) | 225 |
| 51 | 김해 대성동 85-8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경남문화재연구원(2015) | 228 |
| 52 | 김해 대성동 89-18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 생활 | 두류문화연구원(2014~15) | 230 |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53 | 김해 대성동 320번지 유적 | 생활 | 경상문화재연구원(2016) | 232 |
| 54 | 김해 어방동 분산 유적 -김해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국문물연구원(2006~07) | 234 |
| 55 | 김해 유하패총 | 생활 | 국립김해박물관(2015~16) | 237 |
| 56 | 김해 유하리유적 | 생활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7) | 240 |
| 57 | 김해 부곡동 유적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 생활 | 두류문화연구원(2014) | 242 |
| 58 | 김해 무계동 213-3번지 일대 유적 | 생활 | 동서문물연구원(2016) | 244 |
| 59 | 김해 신문동 663-2번지 율하이엘센트럴시티 신축부지내 유적 | 생활 | 동서문물연구원(2017) | 246 |
| 60 | 김해 신문리유적 | 생활 |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1~12) | 248 |
| 61 | 김해 대청유적 | 생활, 무덤 | 부산대학교박물관(1996~97) | 251 |
| 62 | 김해 장유리유적 | 생활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 | 254 |
| 63 | 김해 관동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 생활 | 우리문화재연구원(2015~17) | 256 |
| 64 |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 | 생활, 무덤, 교통·통신 | 삼강문화재연구원(2005~07) | 258 |
| 65 | 김해 아랫덕정유적 -김해 장유 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 생활, 무덤 | 동의대학교박물관(1997) | 261 |
| 66 | 김해 하계리·내룡리 유적 | 생활 | 경상문화재연구원(2013~15) | 264 |
| 67 | 김해 여래리유적 | 생활, 무덤, 산업·생산 | 우리문화재연구원(2007) | 267 |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68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579번지 내 유적 | 생활 | 한국문화재연구원(2013) | 270 |
| 69 | 김해 진영 신용리 579-1번지 외 유적 | 생활 | 우리문화재연구원(2014) | 273 |
| 70 | 김해 망덕리·신문리 생활유적 | 생활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11) | 275 |
| 71 | 김해 농소리유적 -김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 생활 | 해동문화재연구원(2015) | 278 |
| 72 | 김해 농소리유적 -김해 국도대체구간 내 유적 | 생활 | 경남문화재연구원(2001~02) | 281 |
| 73 | 김해 송정리유적 -김해 진례 도예촌 조성부지 내 유적 | 생활 |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 283 |
| 74 | 김해 송정리 360-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두류문화연구원(2013) | 285 |
| 75 | 김해 산본리 창고 신축 예정지 내 유적 | 생활 | 두류문화연구원(2011) | 287 |
| 76 | 김해 진례 송현리유적 -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국문물연구원(2005~06) | 290 |
| 77 | 김해 퇴래리 841-2번지 유적 | 생활 | 강산문화연구원(2016) | 293 |
| 78 | 김해 퇴래리 875번지 유적 | 생활 | 강산문화연구원(2015) | 296 |
| 79 | 경남 김해 퇴래리 1015-1번지 유적 | 생활 | 강산문화연구원(2016) | 299 |
| 80 | 김해 안하리 1345-2·3번지 근생시설 및 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화문물연구원(2017) | 302 |
| 81 | 김해 생철리 61-4번지 유적 | 산업·생산 |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5) | 305 |
| 82 | 경남 김해 초정리 655번지 일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 산업·생산, 생활 | 강산문화연구원(2017) | 307 |

## 부산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02-1 | 부산 연산동 4호분 | 무덤 |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1987~88) | 381 |
| 02-2 | 연산동 -M8호분 | 무덤 | 경성대학교박물관(1987~88)<br>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9) | 384 |
| 02-3 | 부산 연산동유적 | 무덤 | 복천박물관(2000) | 387 |
| 02-4 | 부산 연산동고분군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 무덤 | 우리문화재연구원(2007) | 390 |
| 02-5 | 연산동고분군 | 무덤 | 부산박물관(2009~10) | 393 |
| 02-6 | 연산동 M3호분 | 무덤 | 부산박물관(2011~12) | 396 |
| 02-7 | 연산동 M7·M10호분 | 무덤 | 부산박물관(2012~13) | 399 |
| 03 | 부산 노포동고분군(부산광역시기념물 제42호) | 무덤 |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4~86)<br>부산대학교박물관(1985~86)<br>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2005)<br>부산박물관(2017) | 402 |
| 04 | 부산 생곡동 가달고분군(부산광역시기념물 제43호) | 무덤 |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9~90)<br>동양문물연구원(2012)<br>부산박물관(2012) | 405 |
| 05 | 부산 당감동고분군 | 무덤 | 부산대학교박물관(1981) | 408 |
| 06 | 부산 덕천동고분군 | 무덤 |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1) | 411 |
| 07 | 구포 덕천동유적 | 무덤 | 동아대학교박물관(2002~04) | 414 |
| 08 | 부산 반여동유적 | 무덤 | 동의대학교박물관(1986~88) | 416 |
| 09 | 부산 괴정동고분군 | 무덤 | 한성여자초급대학박물관(1975) | 419 |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10 | 부산 두구동 임석유적 | 무덤 | 부산직할시립박물관(1987) | 422 |
| 11 | 부산 오륜대고분군 | 무덤 | 부산대학교박물관(1971)<br>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1996~97) | 425 |
| 12 | 부산 미음동 1180번지 유적 | 무덤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br>한계레문화재연구원(2010~11) | 428 |
| 13 | 구랑동고분군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br>복천박물관(2009)<br>부산박물관(2010~11) | 431 |
| 14 | 부산 지사동유적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 무덤 | 동아대학교박물관(2003~05) | 434 |
| 15 | 기장 청강리고분군 | 무덤 | 부산광역시립박물관(1997)<br>복천박물관(2001~02)<br>경남문화재연구원(2006~08) | 437 |
| 16 | 기장 반룡리유적 | 무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br>경남문화재연구원(2008~09)<br>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4) | 441 |
| 17 | 기장 방곡리유적 | 무덤 | 울산대학교박물관(2002~05) | 444 |
| 18 | 기장 가동고분군 | 무덤 | 울산대학교박물관(2003~05)<br>부경문물연구원(2012) | 447 |
| 19 | 기장 연구리고분군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2007~08) | 450 |
| 20 | 부산 동래패총(사적 제192호) | | | 453 |
| 20-1 | 동래 낙민동패총 | 생활,<br>산업·생산 | 국립중앙박물관(1967~70) | 456 |
| 20-2 | 동래패총 | 생활 | 부산박물관(1993) | 458 |
| 20-3 | 동래 수안동 다세대주택건설지 내 유적 | 생활 | 복천박물관(2002) | 460 |
| 20-4 | 동래 낙민동 패총 -동래 낙민동 133-2번지 건설신축부지 내 유적 | 생활 | 중앙문화재연구원(2002~03) | 462 |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20-5 | 동래 낙민동 303번지 유적 -부산 낙민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국문물연구원(2010~11) | 464 |
| 20-6 | 부산 낙민동 100번지 내 유적 | 생활 | 경상문화재연구원(2015) | 466 |
| 20-7 | 부산 낙민동 215-4번지 유적<br>-부산 낙민동 세화약품 창고증축 부지 내 유적 | 생활 | 부경문물연구원(2016) | 468 |
| 21 | 부산 연지동유적 | 생활,<br>산업·생산 | 동양문물연구원(2011)<br>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1) | 470 |
| 22 | 부산 낙민동유적 | | | 472 |
| 22-1 | 부산 낙민동 56-1번지 유적 | 생활,<br>교통·통신 | 동양문물연구원(2013~14) | 474 |
| 22-2 |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 생활 | 동양문물연구원(2015~17) | 476 |
| 23 | 동래 온천동유적 | 생활 | 부산시립박물관(2010~11) | 478 |
| 24 | 부산 화명동 918-2번지 유적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 조성 부지 내 유적 | 생활 | 부경문물연구원(2013) | 480 |
| 25 | 부산 두구동유적 -부산시 두구동 노포분기 손전선로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 생활 | 해동문화재연구원(2009) | 482 |
| 26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내 유적 | 생활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3~15) | 484 |
| 27 | 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 | 생활 | 동양문물연구원(2013~15) | 487 |
| 28 | 부산 분절패총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부지 내 유적 | 생활 | 경남문화재연구원(2009~10) | 489 |
| 29 | 기장 청강·대라리유적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 생활 | 경남문화재연구원(2005~08) | 491 |
| 30 | 기장 두명리유적 -부산 기장 두명마을 이주단지 내 유적 | 생활 | 우리문화재연구원(2009) | 494 |

## 양산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03 | 양산 중부동고분군(사적 제95호)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2016~17) | 528 |
| 04 | 양산 용당동 산80-5·80-4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무덤 |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3~14) | 532 |
| 05 | 양산 가촌리유적 | 무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9~10) | 534 |
| 06 | 양산 소토리고분군 | 무덤 |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 536 |
| 07 | 양산 상삼리유적 | 무덤 | 동서문물연구원(2010~13) | 538 |
| 08 | 양산 다방리패총 | 생활 | 국립중앙박물관(1967) | 541 |
| 09 | 양산 호계·산막동 및 대석리 유적 | 생활, 무덤, 산업·생산 | 우리문화재연구원(2008~11) | 544 |
| 10 | 양산 명동 유적 | 생활 | 부경문물연구원(2011~12) | 547 |
| 11 | 양산 평산리유적 | 생활 | 동아대학교박물관(1996) | 550 |
| 12 | 양산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 생활 |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6) | 552 |
| 13 | 양산 소토리 유적 -양산 소토리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 산업·생산 | 동서문물연구원(2006) | 554 |

## 밀양

| 유적번호 | 유적명(지정번호) | 유적유형 | 조사기관(연도) | 페이지 |
|---|---|---|---|---|
| 16 | 가인리유적 | 교통·통신 | 밀양대학교박물관<br>경남고고학연구소<br>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1999~2001) | 595 |
| 17 | 밀양 사촌제철유적 | 산업·생산 | 국립김해박물관(1999~2000) | 597 |
| 18 | 밀양 무안~내이간 도로확장공사 내 유적 | 산업·생산 | 전북문화재연구원(2017) | 600 |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

**총괄** 김삼기

**기획** 강동석, 정인태, 민경선, 김지연, 권지현

**집필** 강석범, 권귀향, 권종호, 박천수, 심종훈, 이성훈, 이해수, 최경규

**편집·교정** 강동석, 정인태, 김태희, 김형철, 문정희, 박지연, 윤다혜, 이명훈, 이현아, 정지왕, 정진희

---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055-211-9000
http://nrich.go.kr/gaya

**북디자인** 예맥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40-01
**ISBN** 978-89-299-1411-0 94910
978-89-299-1408-0 (전7권)

---



이 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9 788929 914110 94910
ISBN 978-89-299-1411-0
ISBN 978-89-299-1408-0 (전7권)